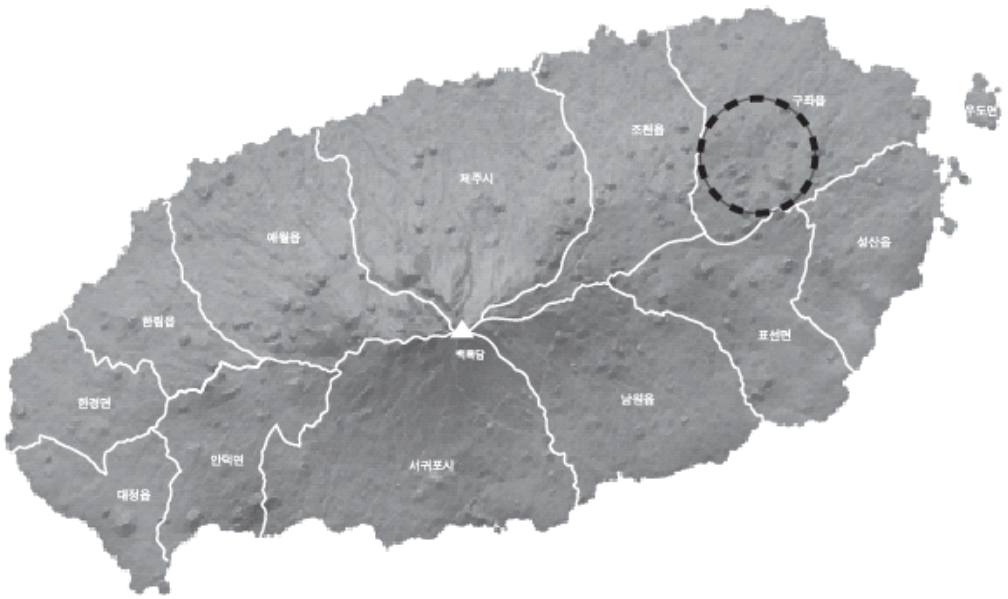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1-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
–구좌읍 송당리

구술: 김수생 김민순
전사·표준어 대역: 김선희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

-구좌읍 송당리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33
3. 밭일 ····· 79
4. 들일 ····· 180
6. 의생활 ····· 261
7. 식생활 ····· 277
9. 신앙 ····· 340
10. 세시풍속 ····· 351
11. 놀이 ····· 398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헷구나’ 등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선희, #1: 김수생, #2: 김민순)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1001 #1 송당이라고 허는 게 솔나무 송자 헹 한자로 집 당자, 그 벡조할망[1] 이 저 설리태에서 내 안카름에 들어올 때 그디 큰 소나무가 이서낫다고 헙니다.(송당이라고 하는 게 소나무 송 자에다가 한자로 집당 자. 그 '벡조할망'이 저 설리태에서 하천 안 마을에 들어올 때 거기에 큰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1001 @ 소나무마씨?(소나무요?)

101001 #1 예. 게서 그 소나무 아래 완 두 번차 완에 집을 지서네.(예. 그래서 그 소나무 아래에 와서 두 번째에 와서 집을 짓고서.)

101001 @ 음, 음.(음, 음.)

101001 #1 살아낫기 때문에 솔나무 송자 놓고 집 당자를 놩은에 송당이렌 일름이 지어진 거고.(살았었기 때문에 소나무 송자를 쓰고 집 당자를 써서 송당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고.)

101001 @ 음, 음.(음, 음.)

101001 #1 미신 형태로 헤서 이름 뭰 부락은 아니우다.(미신 형태로 해서 이름된 마을은 아닙니다.)

101001 @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구나예?(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군요?)

101001 #1 야, 야.(예, 예.)

101001 @ 무신 이야기마씨?(무슨 이야기예요?)

101001 #1 벡조할망 집 짓은 걸 기준으로 헤서 소낭 아래 집을 짓엉 살앗기 때문에 기자 송당!('벡조할망'이 집 지은 걸 기준으로 해서 소나무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저 송당.)

101001 @ 예.(예.)

101001 #1 솔나무 송자, 집 당자 헹은에 그 설이 내려온 거 같은디.(소나무 송자, 집 당자 해서 그 전설이 내려온 거 같은데.)

101001 @ 아.(아.)

101001 #1 뭐 송당이렌 헹은에 무신 형국이나 모양으로 봥은에 물찻[2]이네, 말

1) '벡조할망'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설촌 유래가 드러나는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2) '물찻'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물찻오름을 이르는 것이다.

찻[3]이네 그런 식으로 허는 게 아니고.(뭐, 송당이라고 해서 무슨 형국이나 모양으로 보고 물찻이다, 말찻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1001 @ 아, 네.(아, 네.)

101001 #1 경허난에. 송당에 부락은 상당히 으라 게라낫수다, 사삼사건 전이.(그러니까 송당에 마을은 상당히 여러 개였습니다. 사삼사건 전에.)

101001 @ 으라 게마씨?(여러 개요?)

101001 #1 가시남봉오지[4]에 옛날엔 가시남동을 중간에 가시남봉오지렌 헤낫주.(가시남봉오지에 옛날에는 가시남동을 중간에 가시남봉오지라고 했었지.)

101001 @ 아.(아.)

101001 #1 그디가 송당의 일번지 먹엇수다[5]. 딱.(그곳이 송당의 일번지 먹었습니다. 딱.)

101001 @ 게믄 마을은 어디 어디 이서마씨?(그러면 마을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101001 #1 저 외곽으로 돌아가면은 송당을 중심 잡앙양.(저 외곽으로 돌아가면 송당을 중심 잡고요.)

101001 @ 네.(네.)

101001 #1 외곽을 가게 뒈면은 다랑쉬[6]는 서화리고, 대천도 들겡이목[7].(외곽으로 가게 되면 다랑쉬는 세화리이고, 대천도 '들겡이목'.)

101001 @ 세화리마씨?(세화리요?)

101001 #1 저, 어디 옛날 장터, 드레이[8], 들레기목[9].(저, 어디 옛날 장터, '드레이', '들레기목'.)

101001 @ 들렝이꽈? 들레기목이꽈?('들렝이'예요? '들레기목'이에요?)

101001 #1 들레기목광 드레이가 별도로 이서십주.('들레기목'과 '드레이'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101001 @ 달라마씨?(달라요?)

101001 #1 야, 야.(예, 예.)

101001 @ 아.(아.)

101001 #1 장터, 그디도 세 부락.(장터, 그곳도 세 마을.)

101001 @ 세 부락마씨?(세 마을이요?)

101001 #1 예서 글로 내려오면은 이제랑 이 송당이 중심지가 들어가는데 마을별로 그 이름이 이수다.(여기서 그리로 내려오면 지금은 이 송당의 중심지가 들어가는데 마을 별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

3) '말찻'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말찻오름을 이르는 것이다.
4) '가시남봉오지'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지명, 가시남동을 이르는 말이다.
5) '일번지'는 주소상의 1번지이나 여기서는 '제일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6) '다랑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7) '들겡이목'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8) '드레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9) '들레기목'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101001 @ 아, 예.(아, 예.)

101001 #1 송당이 제일 웃지역에 살기 때문에.(송당의 제일 위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송당머리.(송당머리.)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송당머리 그 동네가 ᄒᆞᆫ 몇 가위가 이십주, 송당머리가.(송당머리 그 동네가 한 몇 가구가 있습니다. 송당머리가.)

101001 @ 네.(네.)

101001 #1 그 다음에는 안골[10]에 들어오면은 안트레 들어가면은 웃송당 안골.(그 다음에는 '안골'에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웃송당 '안골'.)

101001 @ 네.(네.)

101001 #1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알러레 ᄒᆞ쏠 들어가면은 웃송당.(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래로 조금 들어가면 웃송당.)

101001 @ 웃송당예.(웃송당이요.)

101001 #1 또 잊어불어시니, 그 안골ᄒᆞ고 오로코미ᄒᆞ고, 영전밧[11].(또 잊어버렸네, 그 '안골'하고 '오로코미'하고. '영전밧'.)

101001 @ 음.(음.)

101001 #1 아, 영전밧이라고 해서 서녁 쪽에 덕천으로 들어오는 디.(아, '영전밧'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덕천으로 들어오는 데.)

101001 @ 네.(네.)

101001 #1 영전밧이옌ᄒᆞ고. 또 그 다음에 이레 내려 오면은 셋순당[12]이렌 ᄒᆞ는 부락.('영전밧'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 오면 '셋순당'이라고 하는 마을.)

101001 @ 음.(음.)

101001 #1 그 제일 시방 중심지입주. 셋순당이옌ᄒᆞᆫ 게.(그 제일 시방 중심지입니다. '셋순당'이라고 하는 것이.)

101001 @ 지금예?(지금이요?)

101001 #1 그 다음에 알순당[13].(그 다음에 '알순당'.)

101001 @ 알손당예?('알순당'요?)

101001 #1 예. 게서 알손당, 셋순당, 웃순당 해서 옛날부터 기본적인 부락은 이섯수다.(예. 이렇게 해서 '알송당', '셋송당', '웃송당' 해서 옛날부터 기본적인 마을은 있었습니다.)

---

10) '안골'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 이름이다.

11) '영전밧'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영전밧에서의 밧은 의미상 밭을 뜻하지만 지명을 말하므로 원래대로 그 음을 싣는다.

12) '셋순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 이름이다.

13) '알순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 이름이다.

101001 @ 예.(예.)

101001 @ 겐디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쪼꼬만ᄒᆞᆫ 거라.(그런데 나머지는 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거야.)

101001 @ 아, 아.(아, 아.)

101001 #1 그 다음에 한ᄆᆞ을[14].(그 다음에 '한ᄆᆞ을'.)

101001 @ ᄒᆞᆫᄆᆞ을.('한마을'.)

101001 #1 한ᄆᆞ을이렌 ᄒᆞᆫ 디 두 세대가 살아수다.(한ᄆᆞ을이라고 하는 데는 두 세대가 살았습니다.)

101001 @ 아, 두 집만.(아, 두 집만.)

101001 #1 예.(예.)

101001 @ 게믄 송당은.(그럼 송당은.)

101001 #1 너븐마을[15]이렌 ᄒᆞᆫ 디가 또 이수다.('너븐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101001 @ 너븐마을.('너븐마을'.)

101001 #1 게난 송당에 관련된 부락이 상당히 만흐우다.(그러니까 송당에 관련된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1001 @ 네.(네.)

101001 #1 소소ᄒᆞᆫ 부락들이.(소소한 마을들이.)

101001 @ 음.(음.)

101001 #1 올로 또 가면은 대물동네[16]라고 또 별도로 또 이서.(이리로 또 가면 '대물동네'라는 곳이 별도로 또 있어.)

101001 @ 그것도 모두 송당 아니꽈예?(그곳도 모두 송당이 아니겠습니까?)

101001 #1 야, 야. 전부 송당입주.(예, 예. 전부 송당입니다.)

101001 @ 네, 네.(네, 네.)

101001 #1 시방도 위치는 ᄆᆞᆫ딱 송당이렌 뒈어 이수다.(시방도 위치는 모두 송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001 @ 네, 네.(네, 네.)

101001 #1 원래 행정구간은 뒈어 있는데 시방 대천도 송당리 대천동이우다.(원래 행정구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방 대천도 송당리 대천동입니다.)

101001 @ 네, 네.(네, 네.)

101001 #1 게난 옛날도 들겡이목 대천동, 장터[17] 영 헤낫수다.(그러니까 옛날에도 '들겡이목', '대천동', '장터'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01001 @ 장터하고 들겡이목은 틀린 디 아니꽈?('장터'하고 '들겡이목'은 다른 곳이 아닙니까?)

---

14) '한ᄆᆞ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15) '너븐마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16) '대물동네'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17) '장터'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101001 #1 틀린 디.(다른 곳.)

101001 @ 아.(아.)

101001 #1 들겡이목이 드레이.(들겡이목이 드레이.)

101001 @ 아.(아.)

101001 #1 대천동, 들겡이목, 드레이는 ᄀᆞ튼 거, 장터만 다른 거.('대천동', '들겡이목', '드레이'는 같은 곳입니다. 장터만 다른 곳.)

101001 @ 게난 이거 다 여기 부르는 이름 아니꽈예?(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까?)

101001 #1 야, 야. 부르는 이름.(네, 네. 부르는 이름.)

101002 @ 여기는 무슨 성씨가 합니까?(여기는 무슨 성 씨가 많습니까?)

101002 #1 여기는 에, 광 김[18] 다음 고 씨.(여기는 에, 광산 김 씨 다음으로 고 씨.)

101002 @ 광산 김?(광산 김이요?)

101002 #1 야, 야.(예, 예.)

101002 @ 광산 김 씨, 제주 고 씨. 여기가 하영 이서마씨?(광산 김 씨, 제주 고 씨. 여기에 많이 있습니까?)

101002 #1 예, 제일 여기가 만흐우다.(예, 제일 여기에 많습니다.)

101002 @ 할아버지도 광산 김 씨 아니예?(할아버지도 광산 김씨 아니세요?)

101002 #1 흐흐, 하튼 여기 웃순당은 특히나 광김촌이렌 ᄒᆞᆸ니다.(흐흐. 아무튼 여기 '웃송당'은 특히나 광김촌이라고 합니다.)

101002 @ 광산 김이렌 안 헹, 그냥 광 김 허는구나예.(광산 김씨라고 안 하고 그냥 광 김이라고 하는군요.)

101002 #1 예예. 기자 광 김.(예예. 그저 광 김.)

101004 @ 여기 볼거리도 하우께. 오름도 있고, 할망당도 있고. 이런 거 이시믄 ᄀᆞᆯ아줍서.(여기 볼거리도 많잖아요. 오름도 있고, 할망당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04 #1 그게양, 저 서녁 짝에 분화구가 엄청나게 만하우다.(그것이, 저 서쪽 편에 분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분화구가 강 봐야 실지 느끼는데.(분화구가 가서 봐야 실제 느끼는데.)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시방 개발을 못헌 거고.(시방 개발을 못한 거고.)

101004 @ 오름에? 바닥에서 내려간 거꽈?(오름에요? 바닥에서 내려간 겁니까?)

101004 #1 바닥에서 내려강 터진 거.(바닥에서 내려가서 터진 것.)

101004 @ 네, 네.(네, 네.)

---

18) '광 김'은 '광산 김'을 뜻하는데 제보자는 줄여서 '광 김'이라고 했다.

101004 #1 분화구가 시방.(분화구가 시방.)

101004 @ 이름은 뜨로 엇고?(이름은 따로 없고요?)

101004 #1 이름이 '푸는체거멀'[19]이여.(이름이 '푸는체거멀'이여.)

101004 @ 아?(아?)

101004 #1 말쳇뭇거멀[20], 야개동산거멀[21]. 그디 분화구가 네 개로구나.('말쳇뭇거멀', '야개동산거멀'. 그곳에 분화구가 네 개로구나.)

101004 @ 거멀[22]마씨?('거멀'이라고요?)

101004 #1 거멀.('거멀'.)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네 개가 지역 이름으로 해서 무신 푸는체거멀이라고 ᄒᆞ는 것은 푸는체.(네 개가 지역이름으로 해서 무슨 '푸는체거멀'이라고 하는 것은 키.)

101004 @ 푸는체.(키.)

101004 #1 닮다해서 푸는체, 소랑ᄒᆞ게 모양이 나오난 푸는체거멀이렌 허는 거고.(닮았다고 키, 기름한 모양이 나와서 '푸는체거멀'이라고 하는 것이고.)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말쳇뭇거멀은 말쳇못[23]이우다.('말쳇뭇거멀'은 '말쳇못'입니다.)

101004 @ 말쳇못마씨?('말쳇못'이요?)

101004 #1 그디 말쳇못이렌 헹 그디 물이 이서낫서.(그 곳에 '말쳇못'이라고 해서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101004 @ 물마씨?(물이요?)

101004 #1 시방은 물이 엇이난 말쳇뭇거멀이렌하고.(시방은 물이 없어서 '말쳇뭇거멀'이라고 하는 것이고.)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그 중간에 거멀이 웃순당 사름이 알 거우다.(또 중간에 있는 '거멀'을 웃송당 사람은 알 겁니다.)

101004 @ 웃순당 사름이예?('웃송당' 사람이요?)

101004 #1 그 중간에 거멀이 하나 이서. 분화구가.(그 중간에 '거멀'이 하나 있어. 분화구가.)

101004 @ 분화구가.(분화구가.)

101004 #1 산더레 내렁오다보면 또 분화구가 ᄒᆞ나 이수다.(산으로 내려오다 보면 또 분화구가 하나 있습니다.)

101004 @ 아.(아.)

101004 #1 그 나이 많은 사름들이나 ᄒᆞ나 둘씩 길 찾앙 들어가지.(그 나이 많은

19) '푸는체거멀'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20) '말쳇뭇거멀'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21) '야개동산거멀'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22) '거멀'은 오름의 정상이 움푹 패여 생긴 분화구를 일컫는다.
23) '말쳇못'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사람들이나 하나 둘씩 길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

101004 @ 음.(음.)

101004 #1 들어가도 못헤. 겁낭.(들어갈 수도 못해요. 겁이 나서.)

101004 @ 떨어질까봐마씨?(떨어질까봐서요?)

101004 #1 털어지면은 죽게 뒌 거난.(떨어지면 죽게 된 거거든.)

101004 @ 아.(아.)

101004 #1 게난 뎅겨난 사름이나 들어가지. 아니면 길 못 촞앙 못 들어가.(그러니까 다녔던 사람들이나 들어가지. 아니면 길을 못 찾아서 못 들어가.)

101004 @ 거기 문딱 사유지 아니꽈?(거기 모두 사유지 아닙니까?)

101004 #1 문딱 사유지우다.(모두 사유지입니다.)

101004 @ 오름은마씨?(오름은요?)

101004 #1 당오름, 개발못ᄒᆞ는 압오름[24] 있고.('당오름', 개발 못하는 '압오름'이 있고.)

101004 @ 아, 압오름도 있고.(아, 압오름도 있고.)

101004 #1 갱이모루[25]라고.('갱이모루'라고.)

101004 @ 대이모루?(대이모루?)

101004 #1 개이모루.('개이모루'.)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게난 역사에 나온 게, 개이모루라고.(그러니까 역사에 나오는 게, '개이모루'라고.)

101004 #1 대물동산 물하고. 시랑이 말한 거. 개이모루는 암캐를 말하고 대물동산은 수캐를 말ᄒᆞ는 것인데.(대물동산 물하고. 지관이 말한 것. '개이모루'는 암캐를 말하고 '대물동산'은 수캐를 말하는 것인데.)

101004 @ 아.(아.)

101004 #1 전설에 막 복잡하고.(전설에 아주 복잡하고.)

101004 @ 건 뭐꽈?(그건 무엇입니까?)

101004 #1 대물동산에는 물이 나.('대물동산'에는 물이 나.)

101004 @ 물이 나서.(물이 나서.)

101004 #1 물이 나서 이건 시랑들이 말허는데 ᄋᆞ건 암컷 형상이라서.(물이 나서 이것은 지관들이 말하는데 요건 암컷 형상이라서.)

101004 @ 아.(아.)

101004 #1 젖줄이다.(젖줄이다.)

101004 @ 음, 음.(음, 음.)

101004 #1 젖줄이다 해서 대물동산 사름들이 거기에 모영 많이 살아낫수다. 오롬을 기준으로 해서.(젖줄이다 해서 대물동산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많이 살았

24) '압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25) '갱이모루'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었습니다. 오름을 기준으로 해서.)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게 시방 그 물통 메와부난.(그게 시방 그 물을 메워버리니까.)

101004 @ 아.(아.)

101004 #1 젊은 사름이나 늙은 사름이나 막 대물동네 재작년까지 사름들이 많이 죽엇수다.(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막 '대물동네' 재작년까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01004 @ 아이고.(아이고.)

01004 #1 게난 그 물통 메와부난 경험덴 헤낫수다.(그러니까 그 물통을 메워버리니까 그런다고 했었습니다.)

101004 @ 아.(아.)

101004 #1 그게 사삼사건 전이들, 그디 아는 물이난 먹어십주.(그것이 사삼사건 전에들, 거기 아는 물이어서 먹었습니다.)

101004 @ 음.(음.)

101004 #1 허벅으로 질멍들. 허벅으로.(허벅으로 길으면서들. 허벅으로.)

101004 @ 동네 먹는 물은 어디 이서난마씸?(동네 먹는 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01004 #1 대물동산은 대물동네 사름.('대물동산'은 대물동네 사람.)

101004 @ 음.(음.)

101004 #1 알순당은 알친오름[26]이렌 허는 디가 이수다.(알순당은 '알친오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1004 @ 알친오름?('알친오름'?)

101004 #1 예, 예. 밑에.(예, 예. 밑에.)

101004 @ 아.(아.)

101004 #1 거기도 생수가 나오는 디우다.(거기도 생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셋순당하고 알순당 사름들이 거기 물을 먹어.('셋순당'하고 '알순당' 사람들이 거기 물을 먹어.)

101004 @ 아.(아.)

101004 #1 너븐밧[27] 사름은 봉천수.('너븐밧' 사람은 봉천수.)

101004 @ 나는 물마씨?(나는 물이요?)

101004 #1 아니 봉천수.(아니 봉천수.)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물 받앙. 냇가에 고인 거.(물 받아서. 냇가에 고인 거.)

101004 @ 네.(네.)

---

26) '알친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27) '너븟밧'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101004 #1 물이 엇이민 우리 알친오름이나 대물동산에 물 질레 옵니다.(물이 없으면 우리 ‘알친오름’이나 ‘대물동산’에 물 길러 옵니다.)

101004 @ 아.(아.)

101004 #1 멀리서들.(멀리서들.)

101004 @ 멀리서예?(멀리서요?)

101004 #1 또 웃순당은 신남궤[28]렌 헌 물이 이수다. 신남궤물이라고.(또 '알순당'은 ‘신남궤’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신남궤물’이라고.)

101004 @ 신남궤물마씨?(신남궤물요?)

101004 #1 그것도 나는 물이우다.(그것도 나는 물이에요.)

101004 @ 음.(음.)

101004 #1 그게 새스모루[29]라고 해서. 새서악[30]이라고 하던 데.(그게 ‘새스모루’라고 해서. ‘새서악’이라고 하던 곳.)

101004 @ 아, 예.(아, 예.)

101004 #1 그 시랑들 ᄀᆞᆺ는 건.(그 지관들이 하는 말은.)

101004 @ 새스모루예?(‘새스모루’요?)

101004 #1 새스모루. 반달형으로 뒈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자로 헹, 지는 ᄃᆞᆯ이라.(‘새스모루’. 반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자로 해서 지는 달이라.)

101004 @ 아, 지는 ᄃᆞᆯ.(아, 지는 달.)

101004 #1 새서악이렌 허는 디 그디 신남궤물이 나는 디가 이수다. 그 물이 시방도 나 마씀.(‘새서악’이락 하는 데 그 곳에 ‘신남궤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이 시방도 납니다.)

101004 @ 아.(아.)

101004 #1 복원은 안 헤도 그 위치 그대로 놩 놔둬십주.(복원은 안 해도 그 위치 그대로 놓고 놔두었지요.)

101004 @ 나중뒈면 물 위치도 모르크라예.(나중에는 물 위치도 모를 거예요.)

101004 #1 모르주게. 월호락[31]이옌 ᄒᆞᆫ 디.(모를테지. ‘월호락’이라고 하는 곳.)

101004 @ 월호락은 옛말로 무시 거옌 합니까?(‘월호락’은 옛말로 뭐라고 합니까?)

101004 #1 올호래기[32].(‘올호래기’.)

101004 @ 올호래기마씨?(‘올호래기’요?)

101004 #1 우리가 부르는 건.(우리가 부르는 건.)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공동묘지우다. 월호락이렌 헤서.(공동묘지입니다. ‘월호락’이라고 해

28) ‘신남궤’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29) ‘새스모루’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30) ‘새서악’은 새스모루와 같은 오름이다.
31) ‘월호락’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32) ‘올호래기’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서.)

101004 @ 네.(네.)

101004 #1 거기 새미오름[33]도 있고. 거기.(거기 '새미오름'도 있고. 거기.)

101004 @ 네.(네.)

101004 #1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건 그자 새미오름, 올호래기 영 헙니다.(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건 그저 '새미오름', '올호래기' 이렇게 합니다.)

101004 @ 음.(음.)

101004 #1 한자로 하믄 도저히 어디가 뭐인지 알지를 못흡니다.(한자로 하면 도저히 어디가 뭣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101004 @ 네.(네.)

101004 #1 안돌오름[34]이렌 또 이수다양.('안돌오름'이라고 또 있습니다.)

101004 @ 안돌오름.('안돌오름'.)

101004 #1 야. 그게 올호래기 혼 오름인디.(야. 그게 '올호래기' 하나의 오름인데.)

101004 @ 음, 음.(음, 음.)

101004 #1 그걸 안돌오름은 굼부리인데 거기도 물이 납니다. 그디가.(그것을 '안돌오름'은 굼부리[35]인데 거기도 물이 납니다. 거기가.)

101004 @ 아.(아.)

101004 #1 생수가 나와.(생수가 나와.)

101004 @ 네.(네.)

101004 #1 게난 올호래기서 물이 이짝으로도 나고. 그 오름 하나에서.(그러니까 '올호래기'서 물이 이쪽으로 나고. 그 오름 하나에서.)

101004 @ 아.(아.)

101004 #1 저짝으로도 나고.(저쪽으로도 나고.)

101004 @ 음, 음.(음, 음.)

101004 #1 게서 절간에서 산신제를 그디 강 헙니다.(그래서 절에서 산신제를 거기에 가서 합니다.)

101004 @ 안돌오름에 강?('안돌오름'에 가서?)

101004 #1 안돌오름에 강은에.('안돌오름'에 가서.)

101004 @ 큰 바위, 굴은 엇수과?(큰 바위, 굴은 것은 없습니까?)

101004 #1 바위옌 헌 건.(바위라고 하는 건.)

101004 @ 큰 돌.(큰 돌.)

101004 #1 여기 시방 하천 정비를 ᄒᆞ는데.(여기 현재 하천 정비를 하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엉장[36]이라고 허는 큰 바위.('엉장'이라고 하는 큰 바위.)

---

33) '새미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34) '안돌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35) '굼부리'는 움푹 파인 분화구를 말한다.

101004 @ 엉장?(‘엉장’?)

101004 #1 엉장이라고 해서 엉덕[37]입주게.(‘엉장’이라고 해서 ‘엉덕’입니다.)

101004 @ 네.(네.)

101004 #1 물 터져서. 물이 흘러 내려강 터지민.(물이 범람해서. 물이 흘러 내려가서 범람하면.)

101004 @ 아.(아.)

101004 #1 혼 오 메다, 십 메다 알더레 내령 폭포 모냥으로.(한 오 미터, 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서 폭포 모양으로.)

101004 @ 예.(예.)

101004 #1 내 터질 때는 폭폽주. 내가 터질 때는.(내가 범람할 때는 폭포입니다. 내가 범람할 때는.)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내가 안 터질 때는 기냥 물만 고이는데.(하천이 안 범람할 때는 그냥 물만 고이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그 엉장이렌 헌게 그자 큰물[38]이렌헌 디 메와져부난, 이젠 질 빠져부난 큰물이렌헌디 어서저불고.(그 ‘엉장’이라고 하는 게 ‘큰물’이라고 하는 데는 메워버리고 나니, 이젠 길이 나니 ‘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101004 @ 음.(음.)

101004 #1 엉장만 시방 있는데.(‘엉장’만 현재 있는데.)

101004 @ 무슨 내에 엉장이서마씨?(무슨 하천에 ‘엉장’이 있는 겁니까?)

101004 #1 선내[39].(‘선내’.)

101004 @ 선내마씨?(‘선내’요?)

101004 #1 선내에 고븐이물[40]ᄒᆞ고 엉장이 이수다.(‘선내’에 ‘고븐이물’하고 ‘엉장’이 있습니다.)

101004 @ 아, 네.(아, 네.)

101004 #1 고븐이물이렌 헌 것은 그 내가 에스형으로 뒈엇수다.(‘고븐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에스자형으로 되었습니다.)

101004 @ 에스형? 하하하.(에스형? 하하하.)

101004 #1 벡조하르방[41]을 내쫏글 때.(벡조하르방을 내쫓을 때.)

101004 @ 음.(음.)

101004 #1 저 ᄇᆞ름 알로 가렌 허난 거기 멫 백 년 된 낭이, 그때 폭낭이 이서낫수다.(저 바람 아래로 가라고 하니 거기 몇 백 년 된 나무가, 그 때 멀구슬나무가

36) ‘엉장’은 돌이나 바위가 서로 맞물려서 생긴 굴을 이르는 말이다.
37) ‘엉덕’은 언덕을 말한다.
38) ‘큰물’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39) ‘선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하천 이름이다.
40) ‘고븐이물’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물이름이다.
41) ‘벡조하르방’은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있었습니다.)

101004 @ 폭낭마씨?(멀구슬나무요?)

101004 #1 그게 죽건 디가. 자연으로 죽어불엇어.(그게 죽은 지가. 자연적으로 죽어버렸어.)

101004 @ 아.(아.)

101004 #1 공해 때문에.(공해 때문에.)

101004 @ 아.(아.)

101004 #1 죽건 디가 흔 삽십 년 뒈어서.(죽은 지가 한 삼십 년 되었어.)

101004 @ 그 전에 몇 백 년 된 낭이마씨?(그 전에 몇 백 년 된 나무가요?)

101004 #1 그 전이 몃 벡 년 된 폭낭이라나십주.(그 전에 몇 백 년 된 멀구슬나무였었지요.)

101004 @ 폭낭이 이서난?(멀구슬나무가 있었어요?)

101004 #1 우리는 훤하는디. 그 낭 모양도.(우리는 훤한데. 그 나무 모양도.)

101004 @ 예.(예.)

101004 #1 그 낭 죽음도 잘 죽어서. 자꾸 ᄌᆞ살사건이 낫어.(그 나무 죽기도 잘 죽었지. 자꾸 자살 사건이 났어.)

101004 @ 자살?(자살?)

101004 #1 멘날 목을 메어. 그 낭에 강은에.(매일 목을 메었어. 그 나무에 가서는.)

101004 @ 큰큰한 낭이난.(크나큰 나무니까.)

101004 #1 낭이면서도 그 낭이 괘상하게 벋어진 낭이우다.(나무면서도 그 나무가 괴상하게 뻗은 나무예요.)

101004 @ 아.(아.)

101004 #1 우터레 영 오그라졍 벋은 낭이난. 자꾸 야개기 돌앙 자꾸 죽어부난.(위쪽으로 이렇게 오그라지게 뻗은 나무여서. 자꾸 목을 달아 자꾸 죽어 버리니까.)

101004 @ 아.(아.)

101004 #1 그낭 어떵 자연으로 죽어불엇지만은.(그 나무 어떻게 자연으로 죽어버렸지만.)

101004 @ 아, 예.(아, 예.)

101004 #1 그디가 폭낭 신 디가 고븐이물이라고 물 자체가 고바도지고.(그 곳이 멀구슬나무 있던 자리가 '고븐이물'이라고 물 자체가 숨어 있기도 하고.)

101004 @ 아.(아.)

101004 #1 고븐이물양. 그 다음이 엉장.('고븐이물'이요. 그 다음이 '엉장'.)

101004 @ 엉장. 이거 어서져불 거꽈?('엉장'. 이거는 없어져버릴 거예요?)

101004 #1 응. 거 뭐 멘들아불 거주게.(응 그거 뭐 만들어버릴 것이지.)

101004 @ 굴, 굼[42]도 이서마씨?(굴, '굼'도 있습니까?)

---

42) '굼'은 구멍, 굴을 말한다.

101004 #1 굴?(굴?)
101004 @ 네, 굴.(네, 굴.)
101004 #1 여기 굴이, 그게.(여기 굴이, 그게.)
101004 @ 예?(예?)
101004 #1 굴도 핫주마는. 왜정시대 때 판 굴도 있고.(굴도 많지만. 일제 강점기 때 판 굴도 있고.)
101004 @ 판 굴.(판 굴.)
101004 #1 자연적인 동굴도 하나 있는데양.(자연적인 동굴도 하나 있는데요.)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그놈이 동굴이. 우리 왜정시대에도 그디 곱으레 막 가나부난.(그놈의 굴이.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그 곳에 숨으러 막 갔었기 때문에.)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웃순당 사름은 어느 굴에사 가나신지. 웃순당 사름 알거고.('알순당' 사람은 어느 굴에나 갔었는지. '알순당' 사람은 알거고.)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우린 사삼사건 때는 두리난 내려가 불어져만은. 왜정시대에는양 댓설 날 때난 그디 곱으레 가나고.(우리는 사삼사건 때는 어리니까 내려가 버렸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에는요, 대여섯 살 때여서 거기 숨으러 갔었고.)
101004 @ 예.(예.)
101004 #1 사삼사건 때는 그디 곱으레 아니 가낫수다.(사삼사건 때는 거기 숨으러 안 갔었습니다.)
101004 @ 예.(예.)
101004 #1 곱아바야 걸리민 이짝저짝 다 아멩 죽을 거난.(숨어봐야 걸리면 이쪽저쪽 다 아무려면 죽을 거여서.)
101004 @ 네, 네.(네, 네.)
101004 #1 올 멧 살이난 하고. 저, 그디는 워낙 굴이 커노난 알순당 먼남박굴[43] 이라고.(열 몇 살이니 하고. 저, 거기는 워낙 굴이 커서 '알순당' '먼남박굴'이라고.)
101004 @ 알순당.('알순당'.)
101004 #1 알순당 먼남박굴.('알순당' '먼남박굴'.)
101004 @ 먼남박굴.('먼남박굴'.)
101004 #1 너븐밧에 오로코미[44].('너븐밧'에 '오로코미'.)
101004 @ 너븐밧에 오로코미.('너븐밧'에 '오로코미'.)
101004 #1 것도 굴이 크우다.(그것도 굴이 큽니다.)
101004 @ 예. 굴이 두개네예?(예. 굴이 두개네요?)
101004 #1 게난 거기에 오로코미에 곱으레 오는 사름들은.(그래서 거기에 '오로

43) '먼남박굴'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동굴 이름이다.
44) '오로코미'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동굴 이름이다.

코미'에 숨으러 오는 사람들은.)

101004 @ 네네.(네네.)

101004 #1 셋순당서 가까운 사름들 데령 왕 곱고.('셋순당'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숨었고.)

101004 @ 음음.(음음.)

101004 #1 예.(예.)

101004 @ 음음.(음음.)

101004 #1 알순당 먼남박굴하고. 흔 오십 평 쯤 됩니다. 굴 너비가.('알순당' '먼남박굴'하고. 한 오십 평 쯤 됩니다. 굴 너비가.)

101004 @ 오십 평마씨?(오십 평이요?)

101004 #1 예.(예.)

101004 @ 아.(아.)

101004 #1 거기 시방도 강 보면은.(거기 시방도 가 보면.)

101004 @ 예.(예.)

101004 #1 시방은 포크레인 가정은에 먼남박굴을 좀 메와불엇수다.(시방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먼남박굴'을 좀 메워버렸습니다.)

101004 @ 음.(음.)

101004 #1 사름 ᄒᆞ나 보듯이 들어갈 정도로 베끼. 시방 엇고.(사람 하나 빠듯하게 들어갈 정도로 밖에. 시방 없고.)

101004 @ 예.(예.)

101004 #1 오로코미 굴도 시방 메와져실 거고 헌디. 거기 강 밥도 헹 먹고 등잔불 피왕.('오로코미 굴'도 시방은 메워버렸을 것이고 한데. 거기 가서 밥도 해 먹고 등잔불을 피워서.)

101004 @ 예.(예.)

101004 #1 공수 피헹. 거기 강 살앗수게?(공수를 피해서 거기 가서 살았잖습니까?)

101004 @ 아, 예.(아, 예.)

101004 #1 거긴 송당 사람들이 대개 아는 굴이라부난 거기 강 아니 곱아.(거기는 송당 사람들이 대게 아는 굴이라서 거기 가서는 안 숨어.)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게당 걸령 죽어지카부덴. 거길 안 가고.(그러다가 들키면 죽을까봐서. 거기를 안 가고.)

101004 @ 예.(예.)

101004 #1 그 굴이 젤 큰 거고.(그 굴이 제일 큰 것이고.)

101004 @ 음.(음.)

101004 #1 담은 목장에 있는데. 그게 목장 안에 굴이 글로 개를 드믈리면은 어디렌 허드라 해안가, 글로 헹 나온덴 허는디.(다음은 목장에 있는데. 그것이 목장

안에 굴이 그리로 개를 집어넣으면 어디라고 하더라 해안가, 거기로 해서 나온다고 하던데.)

101004 @ 해안까지마씨?(해안가까지요?)

101004 #1 해안가ᄁᆞ지.(해안가까지.)

101004 @ 아.(아.)

101004 #1 개발하젠 해도양 그 밑에 물이 차부난.(개발하려고 해도 그 밑에 물이 차 있어서.)

101004 @ 위험하지예.(위험하지요.)

101004 #1 접근을 안 된덴.(접근이 안 된다고.)

101004 @ 네.(네.)

101004 #1 상당히 오래수다. 송당목장 이승만 별장 그 앞에 나오면.(상당히 오래마씨었습니다. 송당목장 이승만 별장 그 앞에 나오면.)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그 굴이 이십주. 겐디 송당도 개발될 디는 엄청나게 만허우다게.(그 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당도 개발될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1004 @ 예.(예.)

101004 #1 산물깍[45]이라렌 헌 디도 이수다. 산물[46]이 막 잘 나는 디.('산물깍'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산물'이 막 잘 나오는 곳.)

101005 @ 송당에도 무신 기관들이 이실 거 아니꽈? 보건소도 있고. 또 뭐 이신고?(송당에도 어떤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101005 #1 현대 거를 말허는 거꽈, 옛날 거를 말허는 거꽈?(현대 것을 말씀하십니까, 옛날 것을 말씀하십니까?)

101005 @ 옛날에는 뭐 이서나수과?(옛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01005 #1 옛날에는 왜정시대 간이학교에서 국민학교로 해난 거 거자 학교.(옛날에는 일제 강점기 때 간이학교에서 초등학교를 하던 거. 그저 학교.)

101005 @ 지금은?(지금은요?)

101005 #1 시방이야 뭐 기관이 다 이습주.(시방이야 뭐 기관이 다 있죠.)

101005 @ 예.(예.)

101005 #1 몬 이습주.(모두 있습니다.)

101005 @ 몬딱마씨?(모두요?)

101005 #1 리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 몬 이습주. 흐흐.(송당리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이 모두 있습니다. 흐흐.)

101006 @ 여기 마을 계(접)도 있습니까?(여기 마을에는 계도 있습니까?)

101006 #1 친목을 허는 거? 동년들끼리 제숙들끼리 다 이수다.(친목계 하는 거요? 동년배들끼리 형제나 친척들끼리 하는 거 있습니다.)

---

45) '산물깍'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46) '산물'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라는 개념이다.

101006 @ 마을 단위로 허는 건 엇수과?(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101006 #1 그런 건 업고.(그런 것은 없고.)
101006 @ 예.(예.)
101006 #1 거 어서져수다.(거는 없어졌습니다.)
101006 @ 옛날에는 이서나수과?(옛날에는 있었습니까?)
101006 #1 옛날에도 엇어낫수다.(옛날에도 없었습니다.)
101006 @ 예.(예.)
101006 #1 어떻든지 청년회민 청년회.(어떤 거든지 청년회면 청년회.)
101006 @ 청년회.(청년회.)
101006 #1 리민은 리민회에서.(마을사람은 리민회에서.)
101006 @ 음.(음.)
101006 #1 이런 거 단체적으로양 무신 동년회민 무신 동년회에서 기부하고.(이런 거 단체적으로 무슨 동년회면 무슨 동년회에서 기부하고.)
101006 @ 음.(음.)
101006 #1 음식 같은 것들 나눠주젠 허민 무신 친목회에서 기자 나눠주는 거뿐이주.(음식 같은 것들을 나눠 주려고 하면 무슨 친목회에서 그저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101006 @ 예. 예펜들도 그런 거 안 헴신가예?(예. 여편네들도 그런 거 안 하고 있을까요?)
101006 #1 예펜들도 엇수다.(여편네들도 없습니다.)
101006 @ 아.(아.)
101006 #1 어서불염수게. 동년들도 어서불염고.(없애버리고 있잖습니까. 갑장들도 없애버리고 있고.)
101006 @ 예.(예.)
101006 @ 마을에 무슨 풍습, 송당 마을에만 따로 허는 풍습이서마씨?(마을에 무슨 풍습, 송당 마을에만 따로 하는 풍습있습니까?)
101006 #1 ᄯᅮ루 허젠허민 ᄯᅮ루 허고. 말젠ᄒᆞ민 마는디.(따로 하려면 따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데.)
101006 @ 음.(음.)
101006 #1 옛날은 계 친목이라는 게양, 어려왓기 때문에.(옛날에는 계 친목이라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1 이게 동정심에서 나눠주고 모두 ᄒᆞ나로 합쳐지엉 허는 것이주.(이게 동정심에 나눠주고 모두 하나로 합쳐지고 하는 것이지.)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1 계이고 친목이고 뭐인데.(계나 친목이나 뭣인데.)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1 이젠양 이녁만씩 도움 받젠 ᄒᆞ지 안허고.(이제는요 각자 도움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101006 @ 예.(예.)
101006 #1 이녁 동기간들끼리 해불엄주.(자기 형제지간들끼리 해버립니다.)
101006 @ 예.(예.)
101006 #1 돈헤 계허지도 안헙니께. 기냥 은행 이서로난 무시거헙니까.(돈으로 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이 있으니 뭐합니까?)
101007 @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1 송당도 포제여 다 해낫는데.(송당도 포제도 다 했었는데.)
101007 @ 예.(예.)
101007 #1 웃슨당은 시방도 헙니다.('웃슨당'은 시방도 합니다.)
101007 @ 예.(예.)
101007 #1 웃송당은.(''알순당''은.)
101007 @ 예.(예.)
101007 #1 겐디 셋슨당은 거 때려 치와불엇수다.(그런데 '셋슨당'은 그거 치워불었습니다.)
101007 @ 아, 아.(아, 아.)
101007 #1 대물동네하고 셋슨당.('대물동네'하고 '셋슨당'.)
101007 @ 아.(아.)
101007 #1 이게 웃슨당, 셋슨당, 대물동네, 삼남네 영해서 네 개 부락을 했단. 이제 부락 막 벌리뒈여 노난.(이게 '웃슨당', '셋슨당', '대물동네', '삼남네' 이렇게 해서 네 개 마을이 했다가. 이제 마을이 막 벌리게 되어 놓으니.)
101007 @ 음.(음.)
101007 #1 온천지가 문 송당이라. 대천동ᄁᆞ지 송당이라.(온 천지가 모두 송당이라. 대천동까지도 송당이라.)
101007 @ 아, 예.(아, 예.)
101007 #1 겐디 송당 중심지 부락에 나도 포제 제관으로 가낫수다만은.(그런데 송당 중심지 마을에 나도 포제 제관으로 갔었습니다만.)
101007 @ 예.(예.)
101007 #1 저 웃슨당은 작년ᄁᆞ지 헤낫수다.(저 '웃슨당'은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101007 @ 예.(예.)
101007 #1 금년엔 소식을 안 들었네. 지난해ᄁᆞ지 헷젠 말이 이서.(금년에는 소식을 안 들었네. 지난해까지 했다는 말이 있어.)
101007 @ 예.(예.)
101007 #1 감금뒈엉 집이 가지 못헹. 하하.(감금되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하하.)

101007 @ 예? 맞아예.(예? 맞아요.)
101007 #1 포제 때문에.(포제 때문에.)
101007 @ 아.(아.)
101007 #1 탁 혼집에서 자고 먹고.(딱 한 집에서 자고 먹고.)
101007 @ 조심험으로예?(조심함으로요?)
101007 #1 몸조심홈으로.(몸 조심함으로.)
101007 @ 예.(예.)
101007 #1 작년ᄁᆞ지 한 거 담다, 웃슨당은.(작년까지 한 것 같아요, '웃슨당'은.)
101007 @ 예.(예.)
101007 #1 헤였는데. 이 셋슨당은 안 헷수다. 대물동네ᄒᆞ고.(했는데. 이 '셋슨당'은 안 했습니다. '대물동네'하고.)
101007 @ 예.(예.)
101007 #1 셋슨당, 대물동네, 웃슨당이 부락이 젤 큽주마씀.('셋슨당', '대물동네', '웃슨당'이 마을이 제일 크지요.)
101007 @ 예.(예.)
101007 #1 셋슨당이 젤 크고, 웃슨당이 그 다음, 다음 대물동네.('셋슨당'이 제일 크고, '웃슨당'이 그 다음, 그리고 다음이 '대물동네'.)
101007 @ 웃슨당은 얼로 어디까지마씨?('웃슨당'은 어디로 어디까지입니까?)
101007 #1 게난 이어져부난양. 하하.(그러게 이어져버려서요. 하하.)
101008 @ 특산물은 뭐우꽈?(특산물은 무엇입니까?)
101008 #1 시방은 피는 업고.(시방은 피농사는 없고.)
101008 @ 피마씨?(피요?)
101008 #1 금년은 안 헐거우다. 작년ᄁᆞ지 헤십주. 그게 사료용이난.(금년은 안 할겁니다. 작년까지는 했지요. 그게 사료용이어서.)
101008 @ 예.(예.)
101008 #1 시방 기자 더덕, 콩, 무수, 감자, 당근.(시방은 그저 더덕, 콩, 무, 감자, 당근.)
101008 @ 예.(예.)
101008 #1 당근도 ᄎᆞᄎᆞ 세화에서만 ᄒᆞ당 연작이 안 뒈니까 게니까 ᄎᆞᄎᆞ 올라왐수다.(당근도 차차 세화에서만 하다가 연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차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101008 @ 예.(예.)
101008 #1 당근이 이제 할로산까지 가 갑니다.(당근이 이제 한라산까지 갈 겁니다.)
101008 @ 하하하.(하하하.)
101008 #1 하하하.(하하하.)
101009 @ 이 마을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이 마을에는 어떤 자랑거리

가 있습니까?)

101009 #1 송당에는 특이헌 거 벡조할망[47] 그거 하나 특이한 거주.(송당에는 특이한 게 벡조할망 그거 하나 특이한 것입니다.)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1 그거 ᄒᆞ고 허물할망[48]ᄒᆞ고 이습주게.(그거 하고 '허물할망' 하고 있습니다.)

101009 @ 허물할망마씨?('허물할망'이요?)

101009 #1 야. 벡조할망에서 ᄒᆞᆫ 200메다만 올라가민.(예. 벡조할망에서 한 200미터만 올라가면.)

101009 @ 어디로마씨? 대천동 방향으로마씨?(어디로요? 대천동 방향으로요?)

101009 #1 그기 질이 엇수다.(거기 길이 없습니다.)

101009 @ 아.(아.)

101009 #1 하천으로 내려온 디우다.(하천으로 내려온 데예요.)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1 위치가 옆에 하천이우다.(위치가 옆에 하천입니다.)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1 벡조할망이 신디서 하천으로 따라 올라가민 큰 엉덕, 바위.(벡조할망당이 있는 곳에서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 큰 바위, 바위.)

101009 @ 음.(음.)

101009 #1 바위 밑에예.(바위 밑에예요.)

101009 @ 아, 아.(아, 아.)

101009 #1 거 미시거ᄒᆞᆫ 사름은.(그 뭐 이상한 사람은.)

101009 @ 허물난 사람들은.(부스럼이 난 사람들은.)

101009 #1 허물 난 사름들은 그디 강 공들이곡 뭐 ᄒᆞ는 디.(부스럼이 난 사람들은 그 곳에 가서 공을 들이고들 하는 곳.)

101009 @ 이거 마누라허는 사람이꽈?(이거 천연두하는 사람들입니까?)

101009 #1 마누라 아니고 허물낭 좋지 안허믄 종기.(천연두가 아니고 부스럼이 생겨서 나아지지 않으면 종기같은.)

101009 @ 아, 종기. 그럼 이건 가서 빌어마씸?(아, 종기. 그럼 이것은 가서 빌어요?)

101009 #1 종기난 사름은 빌엉. 말명허멍 빌어. 심방[49]들 말명허듯이.(종기가 난 사람들은 빌었어. 말하면서 빌어. 심방들이 말하면서 하는 것처럼.)

101009 @ 심방 빌엉 헤마씨?(심방을 구해서 합니까?)

101009 #1 아니, 이녁냥으로.(아니, 자기대로.)

101009 @ 이녁냥으로 정성 들영은에.(자기대로 정성 들여서.)

---

47) '벡조할망'은 송당본풀이의 금벡조를 벡조할망이라고 부른다.
48) '허물할망'은 부스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할머니를 이른다.
49) '심방'은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심방이라고 한다.

101009 #1 강 허는 거.(가서 하는 거.)

101009 @ 예.(예.)

101009 #1 나도 멧번 그딜 가왓주. 허허.(나도 몇 번 거기를 다녀 왔지. 허허.)

101009 @ 아.(아.)

101009 #1 허물할망 이수게. 또 사라얼[50]도 잇어이.(부스럼나면 비는 할망 있잖아요. 또 사라얼에도 있어.)

101009 @ 사라얼?('사라얼'요?)

101009 #1 응. 청오름[51] 아레 앞이.(응. '청오름' 아래 앞에.)

101009 @ 예. 사라얼. 사라얼은 뭐꽈?(예. '사라얼'. '사라얼'은 뭐꽈?)

101009 #1 그거는.(그건.)

101009 @ 예.(예.)

101009 #1 포수, 사냥꾼덜 그 사라얼에 송씨 하르방 전실[52]인데.(포수나 사냥꾼들이 그 '사라얼'에 송씨 하르방 전설인데.)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1 저게 사라얼에 하르방이 송씨 하르방이렌 헙니다. 우리 외조상이라.(저게 '사라얼'에 할아버지가 '송씨 하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외가 조상이야.)

101009 @아.(아.)

101009 #1 혼 삼백년 전에.(한 삼백년 전에.)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1 송당 개척하기 이전에. 그 하르방의 뚤신디 왕 우리 하르방이 장갤 들엉 살면서 허단에.(송당을 개척하기도 이전에. 그 할아버지의 딸한테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장가를 들어 살면서 하다가.)

101009 @ 예.(예.)

101009 #1 시방 사라얼이옌 헌게. 이 할망들은 알디라만은 멧월 메칠날 영ᄒᆞ연 자꾸 갑니다.(시방 '사라얼'이라고 하는 게. 이 할머니들은 알까만은 몇 월 며칠 날에 이렇게 찾아 갑니다.)

101009 @ 아.(아.)

101009 #1 여기 본향 가듯.(여기 본향당 가듯이.)

101009 @ 예.(예.)

101009 #1 그 사름들은 이 포수. 사냥꾼들을 주로 위해서 사라얼을 댕겨아젼. 나가라 ᄒᆞ고. 쉐 키우는 사름들도 꼭 그길 갑니다.(그 사람들은 포수. 사냥꾼들을 주로 위해서 '사라얼'을 다녔었지. 나가라 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꼭 거기에 갑니다.)

101009 @ 예.(예.)

101009 #1 게난 사라얼의 역사가, 서화리 예펜 하나가 있는데 그 사라얼 강 ᄀᆞ

50) '사라얼'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51) '청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 이름이다.
52) '송씨하르방 전설'은 송당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사를 헹 가면은 그날이 재수가 있고.(그러니까 사라얼 역사가, 세화리 여편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라얼'에 가서 고사를 하고 가면 그날은 재수가 있고.)

101009 @ 음.(음.)

101009 #1 게난 사라얼 가는 사름들마다 꼭 거기는 들렁 가는 디우다.(그래서 '사라얼'에 가는 사람들마다 꼭 거기는 들러서 다녀가는 곳입니다.)

101009 @ 음.(음.)

101009 #1 그기 사라얼 하르방이라고 해서. 송씨 하르방이라고.(거기 '사라얼' 할아버지라고 해서. '송씨 하르방'이라고.)

101009 @ 예.(예.)

101009 #1 하르방도 송씨 하르방이우다.(할아버지도 '송씨 하르방'입니다.)

101010 @ 마을에 대해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마을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101010 #1 웃슨당은 삼남네 저쪽이고.('웃슨당'은 '삼남네' 저쪽이고.)

101010 @ 예.(예.)

101010 #1 삼남네[53]라고 저기 오는 디 ᄉᆞᄀᆞ리. 선흘서 오민양. ᄉᆞᄀᆞ리. 예예 글로 저짝은 웃슨당이고. 그 ᄉᆞᄀᆞ리에서 학교압까지는 삼남네.('삼남네'라고 저기 들어오는 데 사거리. 선흘에서 들어오면은. 사거리. 예예 거기로 저쪽은 '웃슨당'이고. 그 사거리에서 학교 앞까지는 '삼남네'입니다.)

101010 @ 삼남네마씨?('삼남네'라고요?)

101010 #1 삼남네.('삼남네'.)

101010 @ 예.(예.)

101010 #1 게난 부락이. 이거 흔 오십년 전이 수재민들이 왕 정착흔 디우다.(그러니까 마을이. 여기 한 오십 년 전에 수재민들이 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101010 @ 아.(아.)

101010 #1 정착한 디가 삼남네로 뒈어 이수다.(정착한 데가 '삼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010 @ 삼남네?('삼남네'?)

101010 #1 삼남네.('삼남네'.)

101010 @ 아, 삼남네.(아, '삼남네'.)

101010 #1 함밧집으로 집을 지어낫수다.(간이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101010 @ 예, 함밧집으로.(예, 간이집으로.)

101010 #1 피난생활들, 수재 당ᄒᆞ연 여기 정착했다네.(피난 생활들을, 수재를 당하고 여기 정착하였다가)

101010 @ 음.(음.)

101010 #1 여기 흔 사름베끼 엇수다. 그디 다 나머지 다 육지 나가 불고.(여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기 다 나머지는 다 육지로 나가 버리고.)

---

53) '삼남네'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마을 이름이다.

101010 @ 가불고.(가 버리고.)

101010 #1 시방 제주도에 오십 멧 년 살암십주.(시방 제주도에 오십 몇 년 살았지요.)

101010 @ 예. 그 다음 동네는.(예. 그 다음 동네는.)

101010 #1 그 다음에가 셋슨당이라.(그 다음에가 '셋슨당'이야.)

101010 @ 요기, 요기.(요기, 요기.)

101010 #1 여기는 올로 가믄 또 대물동네가 기우다.(여기는 이리로 가면 또 '대물동네'가 맞습니다.)

101010 @ 위로마씨? 아래로마씨?(위로요? 아래로요?)

101010 #1 저 우로 시작형 요 알ᄁᆞ지 딱ᄒᆞ게.(저 위로 시작해서 여기 아래까지 반듯하게.)

101010 @ 예.(예.)

101010 #1 내창이라난는디양, 이거 또 내창을 비만 오면은 중간에 집을 막 침수뒈어 부니까 저 내창을 절로 돌려수다.(하천이었었는데요, 이게 또 하천을 비만 오면 중간에 집을 막 침수되어 버리니까 저 하천을 저쪽으로 돌려놨어요.)

101010 예.(예.)

101010 #1 돌리고. 대물동산 전부 저 하천이우다. 우로 콩크리트 헤불엇주.(돌리고. '대물동산' 전부 저 하천입니다. 위로 콘크리트를 해버렸지.)

101010 @ 예.(예.)

101010 #1 대물동네.('대물동네'.)

101010 @ 음.(음.)

101010 #1 그 다음은 중심은 셋슨당.(다음은 중심은 '셋슨당'.)

101010 @ 셋순당.('셋순당'.)

101010 #1 셋슨당이 제일 커.('셋슨당'이 제일 커.)

101010 @ 셋슨당이 젤 커마씨?('셋슨당'이 제일 큽니까?)

101010 #1 야, 셋슨당이.(예. '셋슨당'이.)

101010 @ 온천도 이서나수게?(온천도 있었었죠?)

101010 #1 온천, 게난 저거. 허허.(온천, 그러니까 저거. 허허)

101010 @ 어느 쪽이꽈?(어느 쪽이에요?)

101010 #1 저거 대물동네, 대물동네 서쪽인디.(저기 대물동네, 대물동네 서쪽인데.)

101010 @ 아직도 남아 이서마씨?(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101010 #1 집도 남아있고 지금 집 세내영 식당 보암수다.(집도 남아 있고 지금 집을 세를 내서 식당 합니다.)

101010 @ 아.(아.)

101010 #1 온천 판, 온천 판. 그 뭣이렌 ᄒᆞ다 만은.(온천 파서, 온천 파고 나서. 그 뭐라고 하더라만.)

101010 @ 예?(예?)

101010 #1 그 무시거엔 헌다. 땅 팡 들어간 거.(그 뭐라 하더라. 땅을 파서 들어간 거.)

101010 @ 관?(관?)

101010 #1 관! 온천관! 그 무시 거.(관! 온천관! 그 뭐.)

101010 @ 음.(음.)

101010 #1 온천관. 네 군데 이쪽에 기냥 이수다.(온천관. 네 군데 이쪽에 그냥 있습니다.)

101010 @ 아.(아.)

101010 #1 보나네 콩크리트 장치 다 해놩은에.(보니까 콘크리트 장치를 다 해놓고.)

101010 @ 아.(아.)

101010 #1 거기 온천수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시방 다 덮어 놩 이수다.(거기 온천수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시방 다 덮어 놓고 있습니다.)

101010 @ 아.(아.)

101010 #1 그기 죽으믈곶[54]디우다. 그게.(그 곳이 '죽으믈곶'이라고 합니다. 그 곳이.)

101010 @ 예?(예?)

101010 #1 죽으믈곶이엔 헌디가 엿날도 땅이 혈이 어선 밑에서 죽었다 해서 죽으믈 죽으믈 헷수다.('죽으믈곶'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도 땅에 지혈이 없어서 밑에서 죽었다 해서 '죽으믈 죽으믈'이라고 했었습니다.)

101010 @ 죽으믈.('죽으믈'.)

101010 #1 야. 비자림과 ᄋᆞ 높은오름[55] 사이에.(예. 비자림과 요기 '높은오름' 사이에.)

101010 @ 예.(예.)

101010 #1 곶[56]을 말허는 거우다.(숲을 말하는 거예요.)

101010 @ 예.(예.)

101010 #1 이 곶이렌 허는 거 잡풀나는 가시덤불광. 그거 나는 거.(이 '곶'이라는 게 잡풀 나고 가시덤불 같은. 그거 나는 거지.)

101010 @ 예, 예.(예, 예.)

101010 #1 그게 사기. 죽은 땅이기 때문에 죽으믈 죽으믈.(그게 사기. 죽은 땅이기 때문에 '죽으믈 죽으믈.)

101010 @ 예.(예.)

101010 #1 게서 그자. 댓평씩, 흔평씩 물도 고이고, 죽으물곶에는.(그래서 그저. 다섯 평씩, 한 평씩 물도 고이고. '죽으믈곶'에는.)

---

54) '죽으믈곶'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지명이다.
55) '높은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이다.
56) '곶'은 숲을 이르는 말이다.

101010 @ 예.(예.)

101010 #1 거기에 또 만수물[57]이렌 헌, 만수동에도 사름은 살아낫수다. 만수동이렌 헌디 저 동쪽에.(거기에 또 '만수물'이라고 하는 만수동에도 사람은 살았었어요. 만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저 동쪽에.)

101010 @ 음.(음.)

101010 #1 그 만수물이렌 헌 물도, 그건 봉천수우다.(그 '만수물'이라고 하는 물도. 그것은 봉천수입니다.)

101010 @ 아, 예.(아, 예.)

101010 #1 그건 시방 그건 좀 메와불지 안 헤영 있긴 이수다. 자연 그대로 물질어 먹는 만수동이라고 해서.(그것은 시방 그건 좀 메워버리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자연 그대로 물을 긷고 먹는 만수동이라고 해서.)

101010 @ 예.(예.)

101010 #1 그디도 혼 서너가우가 살멍 헌디. 여기 사름도 물이 보뜨면 거길 가.(거기도 한 서너 집이 살고는 하는데. 여기 사람들도 물이 마르면 거기로 가.)

101010 @ 봉천수 뜨러 가예?(봉천수를 길러 가는 거지요?)

101010 #1 대물동산이나 알친오름[58] 순번 제대로 물을 똘우멍 하면은, ᄀᆞ문 때 물이 아니 나민 그디 가. 물을 허벅[59] 지엉강 얼른 질어와 불고.('대물동산'이나 '알친오름' 순번제 대로 물을 따라 긷고 하면은 가물 때는 물이 안 나면 그곳에 가. 물을 물허벅을 이고 가서 얼른 긷고 오고.)

101010 @ 음.(음.)

101010 #1 또 봉천수가 엇이믄 저 진순내[60] 갑니다. 우리는.(또 봉천수가 없으면 '진순내'로 갑니다. 우리는.)

101010 @ 음.(음.)

101010 #1 우리도 쉐헤연.(우리도 쇠했어.)

101010 @ 아.(아.)

101010 #1 도로모깡에 물 실런.(큰 드럼통에 물을 실었지.)

101010 @ 아, 예.(아, 예.)

101010 #1 저 진순내.(저 '진순내'에.)

101010 @ 진순내?('진순'내'요?)

101010 #1 야. 진순내. 먹을 물을 우리 질레 가 와낫수다.(예, '진순내'. 먹을 물을 우리 길러 다녀왔었어요.)

101010 @ 먹을 물을 도로모깡에 질어마씨?(먹을 물을 큰 드럼통에다 길었다고요?)

101010 #1 야. 도로모깡도 왜정시대나 낫주. 도로모깡도 엇일 땐양 허벅에.(예.

57) '만수물'은 만수동의 봉헌수이다.
58) '알친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이다.
59) '허벅'은 물을 긷는 제주도 전통 항아리이다.
60) '진순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명이다.

큰 드럼통도 일제 강점기나 나왔지. 드럼통도 없을 때는 허벅에.)

101010 @ 허벅에.('허벅'에.)

101010 #1 허벅들 모두와. 산듸짚으로 끌앙.(허벅들을 모아. 밭볏짚으로 깔아서.)

101010 @ 아.(아.)

101010 #1 부닥치지 말렌. 벌러지지 못허게 막 보곡 놩.(부딪치지 말라고. 깨지지 못하게 막 수북히 놓고.)

101010 @ 아.(아.)

101010 #1 ᄌᆞ반남수물[61]이라고 이수다. 목장 저 쪽에. 쉐앗배[62] 열두 발을 놓아도 끝이 업다고 짚은 물이 이서낫수다.('ᄌᆞ반남수물'이라고 있습니다. 목장 저쪽에. '쉐앗배' 열두 발을 내려 놓아도 끝이 없다고 하는 깊은 물이 있었어요.)

101010 @ ᄌᆞ밤수물?('ᄌᆞ밤수물'?)

101010 #1 예, ᄌᆞ바남수물[63]. 진순내 ᄌᆞ바남수물.(예, 'ᄌᆞ바남수물'. 진순내 'ᄌᆞ바남수물'.)

101010 @ ᄌᆞ바남수물.('ᄌᆞ바남수물'.)

101010 #1 거기가 어떻든지 ᄋᆞ 할로산 압광 성읍리 영주산 넘엉 어디까지 간덴 ᄒᆞ드라만은. 그 사이에 진순내에선 그 물이 젤로 짚어.(거기가 어떻든지 여기 한라산 앞과 성읍리 영주산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더라만. 그 사이에 '진순내'에서는 그 물이 젤로 깊어.)

101010 @ 음.(음.)

101010 #1 그 물이. 진순내에서는.(그 물이. '진순내'에서는.)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낳고 자란 이야기해 주십시오.(낳고 자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1 게난 그것도 복잡헤여.(그러니까 그것도 복잡해요.)

102001 @ 것도 복잡헤여?(그것도 복잡해요?)

102001 #1 어머니가.(어머니가.)

102001 @ 예.(예.)

102001 #1 여기서 송당 대물동네서 살다가.(여기서 송당 대물동네에서 살다가.)

102001 @ 예.(예.)

102001 #1 사삼사건 십년 전.(사삼사건 십년 전에.)

---

61) 'ᄌᆞ반남수물'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지명이다. 원래 ᄌᆞ밤은 구실잣밤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데 그 나무가 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62) '쉐앗배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조금 굵직하고 길다란 밧줄이다.

63) 'ᄌᆞ밤수물'은 ᄌᆞ반남수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부르는 과정에서 발음이 여러 가지로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102001 @ 예.(예.)
102001 #1 아, 이거 들은 거라.(아, 이거는 들은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1 내가 들은 거 뿐이지.(내가 들은 거 뿐이지.)
102001 @ 아, 예.(아, 예.)
102001 #1 나 낳도 안허고.(내가 태어나지도 안 했고.)
102001 @ 예.(예.)
102001 #1 김녕을 내려간 거라.[64] (김녕에 내려간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1 내려간 핸데, 우리 어머니가 가시남동에.(내려가던 해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시남동'에.)
102001 @ 예.(예.)
102001 #1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흔 열일곱에 죽어 불어서.(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한 열일곱 살에 죽어 버렸어.)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1 우리 어멍 신랑이.(우리 어머니 남편이.)
102001 @ 어머니 열일곱 살에?(어머니가 열일곱 살에?)
102001 #1 열일곱 술.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열일곱 살에. 그 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102001 @ 예.(예.)
102001 #1 시집간 디.(시집을 간 데.)
102001 @ 예.(예.)
102001 #1 하도 초등학교에서 ᄃᆞ를락ᄒᆞ당 남편을 이으난.(하도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 남편을 여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아버지 ᄯᆞ란에, 당신네 아버지를 ᄯᆞ란, 우리 외할아버지를 ᄯᆞ란에.(아버지를 따라, 당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102001 @ 예.(예.)
102001 #1 김녕을 간 거라, 김녕에 가난.(김녕에 간 거야, 김녕에 갔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우리 아버지는 다슴어멍에 살앗기 때문에.(우리 아버지는 계모와 살았기 때문에.)
102001 @ 예.(예.)
102001 #1 좀 쓰라린 생활을 많이 본거라.(좀 쓰라린 생활을 많이 본거야.)
102001 @ 아버지가?(아버지가?)

64) '내려가다'의 문맥상 의미는 송당은 지대가 높은 중산간 마을이고 김녕은 해안가 마을이라 보통 이 지역의 이동은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102001 #1 우리 아버지가.(우리 아버지가.)
102001 @ 예.(예.)
102001 #1 게서 우리 아버지는 장갯각시를 갈려두고 이 어머니, 나 난 어머니를 만난 거라.(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가 들었던 각시와 갈라서고 이 어머니, 나를 낳은 어머니를 만난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1 이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가 나왔는데.(이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가 나왔는데.)
102001 @ 으흐흐흐.(으흐흐흐.)
102001 #1 이 어머니도 열일곱에난 홀어멍 과부를 들이니까 서른셋에 또 우리 아버지도 죽어 불린거라.(이 어머니도 열일곱 살에 홀어머니 과부를 들이니까 서른셋에 또 우리 아버지도 죽어버린 거야.)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1 할망이 서른셋에 과부가 된 거라이.(할머니가 서른셋에 과부가 된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1 나ᄒᆞ고 동생만 난거라.(나하고 동생만 낳은 거야.)
102001 @ 남동생?(남동생?)
102001 #1 남동생.(남동생.)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1 경허난.(그러니까.)
102001 @ 할아버지 동생도 송당 살아마씨?(할아버지 동생도 송당에 사십니까?)
102001 #1 서울 강 이수다.(서울 가 있습니다.)
102001 @ 어릴 때마씨?(어릴 때요?)
102001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01 @ 아이들 따랑마씨?(자식들 따라서요?)
102001 #1 ᄌᆞ식이 아니고. 지 혼자만.(자식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102001 @ 아.(아.)
102001 #1 지 혼자만 나가건 디가 십오년 뒈어 감수다.(자기 혼자 나가 산 지가 십오년이 되어 갑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송당 재산 문딱 풀아 아젼.(송당에 있는 재산 모두 팔아 가지고.)
102001 @ 이젠 안 보켄마씨?(이제는 안 보겠대요?)
102001 #1 응. 안 보켄. 나 아니 보켄.(응. 안 본대. 나 안 본대.)
102001 @ 예.(예.)
102001 #1 겡 가불였주만은.(그래서 가버렸지만.)
102001 @ 예.(예.)

102001 #1 죽어갈 때 보민 알주만은. ᄌᆞ순들은 몬 시내[65]에 이수다.(죽어갈 때 보면 알겠지만. 자손들은 모두 제주시에 있습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시내.(시내.)

102001 @ 가족들은 시내 살고마씨?(가족들은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까?)

102001 #1 야.(예.)

102001 @ 아, 가족들은.(아, 가족들은.)

102001 #1 야. 시내에 살고.(예. 제주시에 살고.)

102001 @ 예.(예.)

102001 #1 메누리영 손지영. 요 ᄒᆞ루기 손지 장개가멍 헷주만은.(며느리하고 손주하고. 요전번 날에 손주 장가가기도 했지만.)

102001 @ 예.(예.)

102001 #1 우리 겡헹 살아온 거.(우리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우리가 살아온 걸 말ᄒᆞ젠 ᄒᆞ민 ᄒᆞᆫ이 엇수다.(우리가 살아온 걸 말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102001 @ 어머니는 게민 혼자 아들 둘이 키우젠 ᄒᆞ난 고생해신 게마씨.(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아들 둘을 키우려고 하니 고생하셨겠어요.)

102001 #1 고생뿐이꽈게. 먹을 거 아이 먹어가면서.(고생뿐이겠어요.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102001 @ 아이고 게난 어떵 키와신고게. 송당서 키운 거 아니예?(아이고, 그러게 어떻게 키웠을까요. 송당에서 키운 거 아니에요?)

102001 #1 송당서.(송당에서.)

102001 @ 뭐허멍 키워신고, 혼자. 아이고.(뭐하면서 키웠을지, 혼자. 아이고.)

102001 #1 우리양 피 체에.(우리는 피 껍질에.)

102001 @ 예.(예.)

102001 #1 도새기도 아이 먹는 피 체 먹으멍 우리 살앗수다.(돼지들도 안 먹는 피 껍질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배고프난 어떵 말이우꽈.(배가 고프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산듸로 지은 곤밥[66]이고. 조팝도 곤밥이고. 곤밥이 어디 셔나수과. 그 당시에.(밭벼로 지은 밥은 좋은 밥이고 좁쌀밥도 좋은 밥이고. 흰쌀밥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102001 @ 예.(예.)

---

65) '시내'는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시내는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66) '곤밥'은 볍쌀로 지은 밥이다. 흰쌀밥인데 여기서는 양질의 음식이라는 의미이다.

102001 #1 아이고, 이 살아온 걸 말ᄒᆞ민양 ᄒᆞᆫ이 어십니다.(아이고, 이 살아온 걸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이 세상 날 줄은 알면서도 그거양 쓰다 양, 나도 지난 과거 씌당예 다 불질러 불엇수다. 아이고 다 필요없구나.(이 세상 날 줄은 알면서도 그거 쓰다가, 나도 지난 과거 이야기를 쓰다가 다 불질러 버렸어요. 아이고 다 필요없구나.)

102001 @ 예.(예.)

102001 #1 하.(하.)

102001 @ 어머니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젠 허난. 아이고, 밧도 어서실거 아니예?(어머니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 아이고, 밭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102001 #1 밧이 어서.(밭이 없어.)

102001 @ 아버지가 밧은 냉겨줘수과?(아버지가 밭은 남겨주셨습니까?)

102001 #1 아버지는 일찍 죽어부난.(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려서.)

102001 @ 그 전이.(그 전에.)

102001 #1 우리 하르방이.(우리 할아버지가.)

102001 @ 하르방이.(할아버지가.)

102001 #1 밧, 줄 밧도 안 줘.(밭, 물려 줄 밭도 안 줘.)

102001 @ 아들 엇젠 아니 줘수과?(아들 없다고 안 주셨어요?)

102001 #1 아들 엇덴 허영, 당신네가 ᄆᆞᆫ여 농사해 먹당 주자 헤서.(아들 없다고 해서, 당신네가 먼저 농사 지어 벌어 먹고 나서 준다고 해서.)

102001 @ 예.(예.)

102001 #1 나가 커가니까 그 유산이 나한테로 온 거라.(내가 커 가니 그 유산이 나한테로 온 거야.)

102001 @ 나중에 오긴 왓수과?(나중에 오기는 왔습니까?)

102001 #1 나중에는 나한티로 왓수다.(나중에는 나한테로 왔습니다.)

102001 @ 게난 자라는 동안엔 막 어려워낫구나예?(그러니까 자라는 동안에는 아주 힘들었었군요.)

102001 #1 근디 만히는 아니 완.(그런데 많이는 안 왔어.)

102001 @ 예.(예.)

102001 #1 거 우리 하르방, 할망을 두 개 했기 때문에.(그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 분 했기 때문에.)

102001 @ 예.(예.)

102001 #1 족은할망[67]의 아들에 손지들 주고.(작은할머니의 아들의 손주들 주고.)

102001 @ 예.(예.)

102001 #1 난 큰할망[68]의 아들의 손지고.(나는 큰할머니의 아들의 손주고.)

---

67) '족은할망'은 원래 의미는 작은 할머니지만 이 문장에서는 작은 집, 첩의 의미이다.

102001 @ 예.(예.)

102001 #1 큰할망의 큰아들은 죽어불었다 말이우다게.(큰할머니의 큰아들은 죽어버렸다 말이지.)

102001 @ 예.(예.)

102001 #1 그 만큼 우리는 괄세를 받앗다 말입주.(그 만큼 우리는 괄시를 받았다 말이지.)

102001 @ 큰할망의 족은 아들이꽈?(큰할머니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102001 #1 큰할망의 나는 큰 아들이고.(큰할머니의 나는 큰아들이고.)

102001 @ 예.(예.)

102001 #1 저 뚠디 이슨건 두 번착 아들 손지.(저 다른데 있는 것은 두 번째 아들의 손주.)

102001 @ 그래도 손진디 어떵 경헤신고예?(그래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102001 #1 그게 엿날도 경뒈는 거우다.(그것이 옛날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속담에양.(속담에.)

102001 @ 아방 엇이믄 기 죽는 거라예.(아버지가 없으면 기가 죽는 거지요.)

102001 #1 부모 엇이면은.(부모님이 없으면.)

102001 @ 예.(예.)

102001 #1 당한 애비, 당한 ᄌᆞ식 엇이면은 산 ᄌᆞ식만 생각헤지곡양, 산 메누리만 생각해집니다.(그 애비, 그 자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자식만 생각하게 되고, 살아있는 며느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102001 @ 게난.(그러니까.)

102001 #1 만날 눌린 놈만 만날 눌리게 된 거. 시방도.(만날 핍박받는 놈만 만날 핍박받는 거. 시방도.)

102001 @ 예.(예.)

102001 #1 지금은 경 안헙니까?(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왕따 당허는 놈만 왕따 당ᄒᆞ는 거.(왕따 당하는 놈만 왕따 당하는 거.)

102001 @ 예.(예.)

102001 #1 아니 당ᄒᆞ는 놈은 아니 당ᄒᆞ지 안 헙니까? 바로 그 식이라.(안 당하는 놈은 안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식이야.)

102001 @ 내물영예?(나무라서 그렇죠?)

102001 #1 예.(예.)

102001 @ 막 고생해신게마씨.(아주 고생하셨네요.)

---

68) '큰할망'은 큰 할머니의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처의 의미이다.

102001 #1 아이고, 고생.(아이고, 고생.)

102001 @ 예.(예.)

102001 #1 나 고생흔 거 하느님 베끠 모릅니다.(나 고생한 거는 하느님 밖에 모릅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저 할망[69]도 부젯집 단똘이렌 헹 와 봐야 아이고 츰.(저 할머니도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해서 와 봐야 아이고 참.)

102002 @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난마씨?(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102002 #1 일본서.(일본에서.)

102002 @ 예.(예.)

102002 #1 모욕탕. 일본 강 모욕탕.(목욕탕. 일본 가서 목욕탕.)

102002 @ 예.(예.)

102002 #1 그 불 때는 지기, 화덕지기를 헤낫어.(그 불 때는 지기. 화덕지기를 했었어.)

102002 @ 예.(예.)

102002 #1 경허당 페병을 걸린 거라.(그러다가 폐병에 걸린 거야.)

102002 @ 예.(예.)

102002 #1 폐. 그 당시는 페병이 경 힘들었덴 허는 거라.(폐. 그 당시는 폐병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야.)

102002 @ 그래서 다시 송당 돌와 왓구나예?(그래서 다시 송당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102002 #1 겡헹은네 일본서 대수술을 허단 보니까. 돈 벌어 논게 엇다 말이우다.(그래서 일본에서 대수술을 하다 보니. 돈을 벌어 놓은 게 없다 말입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갈빗대 네 개를 끈어 놓고 그때는 마취도 안 했답니다.(갈비뼈 네 개를 잘라 놓고 그때는 마취도 안 했다고 해요.)

102002 @ 아이고.(아이고.)

102002 #1 갈빗대 네 개를 끈어, 허파를 돌라내멍 헤영.(갈비뼈 네 개를 잘라, 허파를 돌라내면서.)

102002 @ 예.(예.)

102002 #1 거기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우리 형제는 여기 외조상, 할아버지 외가.(거기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우리 형제는 여기 외가 조상, 할아버지 외가.)

102002 @ 예.(예.)

102002 #1 거기 완 우리는 임시로 살앗답니다.(거기 와서 우리는 임시로 살았답

69) '할망'은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 문맥에서는 할아버지의 아내를 이르는 말이다.

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겡헹 아버지는 혼 삼년 간. 그 벵 고치지 못했주, 결국은.(그래서 아버지는 한 삼년 간. 그 병을 고치지는 못했지, 결국은.)

102002 @ 어머니는 일본 강 이서낫구나예.(어머니는 일본에 가 있었군요.)

102002 #1 아버지는 문여 보내고 어머니는 일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떨어 진거라.(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거야.)

102002 @ 아버지는 못 고친덴 하난 한국 들어오고.(아버지는 못 고친다고 하니 한국에 들어오고.)

102002 #1 아버지는 돌아오고.(아버지는 돌아오고.)

102002 @ 어머니는 일본서 돈 벌고예?(어머니는 일본에 돈 벌고요?)

102002 #1 아버지는 한국 들어 왕 아버지와 우리 하르방과 아방집[70]에서 산거라.(아버지는 한국에 들어 와서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집에서 산 거야.)

102002 @ 예.(예.)

102002 #1 살당 죽어불고. 어멍은 그 빗을 갑기 위해서 혼 이년동안 일본에서 산 거라.(살다가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이년동안 일본에서 산 거야.)

102002 @ 예.(예.)

102002 #1 우리 형제는 외가에도 갔당 성할망한티도 갓당, 왓다리 갓다리 허멍 살고.(우리 형제는 외가에도 갔다가 친할머니한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102002 @ 예.(예.)

102002 #1 어멍 아방 엇이니까.(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102002 @ 예.(예.)

102002 #1 경허멍 혼 요숫살까지 컸주게.(그러면서 한 여섯 살까지 컸지.)

102002 @ 예.(예.)

102002 #1 나가 요숫살이난 우리 동생은 시살인가 니살인가.(내가 여섯 살이니까 우리 동생은 세 살인가 네 살인가.)

102002 @ 예.(예.)

102002 #1 동생은 곳 돌 넘어상은네 떨엉 보내부난.(동생은 갓 돌 넘어설 때 떨어 보내버렸으니까.)

102002 @ 어릴 적 기억은 다 남수과?(어릴 적 기억은 다 납니까?)

102002 #1 괄세 받은 거 기억은 나는데.(괄시 받은 거 기억은 나는데.)

102002 @ 기억 나고?(기억 나고?)

102002 #1 아버지 돌아간 것끄지는 기억나고.(아버지 돌아가신 것까지는 기억나

70) '아방집'은 아버지 집을 의미한다. 문맥에서는 아버지의 아버지 집, 할아버지 집을 말한다.

고.)
102002 @ 예.(예.)
102002 #1 어느 집이서 돌아간 것도 기억나는데.(어느 집에서 돌아가신 것도 기억나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조상은 어떵 한 거는 그 안이 거는 기억이 안 나. 나 ᄋᆞ숫 살.(조상들이 어떻게 한 것은 그 무렵 거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여섯 살.)
102002 @ 잘도 고생해신게마씨.(아주 고생하셨네요.)
102002 #1 고생은 게. 우리 동생은 ᄒᆞᆫ 돌.(고생은 뭐. 우리 동생은 한 돌.)
102002 @ 예.(예.)
102002 #1 ᄒᆞᆫ 돌 넘으난 이레 어멍은 돌 벌켄 떨엉 내불고.(한 돌 넘으니까 여기에 어머니는 돈을 벌겠다고 떨어 남겨 놓고.)
102002 @ 예.(예.)
102002 #1 이레 두 해를 할망들 죽쒕 멕이멍 크고.(여기에 두 해를 할머니들 죽을 쒀서 먹이면서 크고.)
102002 @ 예.(예.)
102002 #1 나가 일곱 술, ᄋᆞ숫 살. 아방이 죽으난 어멍이 일본서 들어온 거라. 딱 그때.(내가 일곱 살, 여섯 살.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일본에서 들어오신 거야. 딱 그때.)
102002 @ 예.(예.)
102002 #1 하이고, 춤.(하이고, 참.)
102002 @ 아버지 어서부난 괄세 받으멍 어떵 살앗수과?(아버지가 없어서 괄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02002 #1 아버지가 네 형제가 이서수다게. 네 형제.(아버지는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형제.)
102002 @ 큰할망, 족은할망에 둘씩 말이꽈?(큰할머니, 작은할머니에 둘씩 말이에요?)
102002 #1 족은할망에 ᄒᆞ나. 우리 큰할망에 세 개.(작은할머니에 한 명, 우리 큰할머니에 세 명.)
102002 @ 아버지는?(아버지는요?)
102002 #1 제일 큰 이.(제일 큰 아들.)
102002 @ 아니 그믄 삼촌들이 경 안해주믄.(아니 그럼 삼촌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102002 #1 삼춘. ᄀᆞᆺ사 골으난.(삼촌. 아까 말하니깐.)
102002 @ 예.(예.)
102002 #1 괄세가 그렇게 만허더라니까.(괄시가 그렇게 많더라니깐.)
102002 @ 예.(예.)

102002 #1 왜, 우리 아버지 죽어서양.(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102002 @ 예.(예.)

102002 #1 놈의 집이서 죽엇수다. 요 셋순당. 요디서. 걸 내 기억납니께.(남의 집에서 죽었습니다. 요기 '셋순당'. 요기서. 그것을 나는 기억납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죽엉 허난예. 요기 족은아버지도 살고. 셋아버지[71]는 알순당 살고, 말젯아버지[72]는 웃슨당을 사는데.(돌아가시니까요, 요기 작은아버지도 살고. '셋아버지'는 '알순당' 살고, '말젯아버지'는 '웃슨당'에 사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우리 아버지 죽엉 놈이 집이 살 땐디 떠나라 ᄒᆞ단 말이우다. 일 년 전에.(우리 아버지는 죽어서 남의 집에 살 때인데 떠나라 한단 말이에요. 일 년 전에.)

102002 @ 집 비우라고?(집을 비우라고요?)

102002 #1 주인이 오랑은넹에.(주인이 와서는.)

102002 @ 예.(예.)

102002 #1 겟도 동네 친척분인데.(그것도 동네 친척분인데.)

102002 @ 예.(예.)

102002 #1 옛날은 그 짚뎅이[73]를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리저리 가졍 당기지를 못한답니다.(옛날에는 그 상장을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짚뎅이라고. ᄋᆞ만ᄒᆞᆫ 거. 산듸짚 묶은 거. 짚뎅이.(상장이라고. 요만한 것(두 팔을 벌린 정도). 밭볏짚을 묶은 거. 상장.)

102002 @ 예.(예.)

102002 #1 하.(하.)

102002 @ 산듸짚 묶은 거?(밭볏짚 묶은 거?)

102002 #1 가렌 ᄒᆞ니까.(가라고 하니까.)

102002 @ 예.(예.)

102002 #1 우리 어머니가 짚뎅이 짊어지고, 보따리에.(우리 어머니가 상장을 짊어지고 보따리에.)

102002 @ 예.(예.)

102002 #1 나 손 잡안. 나 ᄋᆞ숫 살이난. 내 동생은 또 업고.(내 손을 잡고, 내가 여섯 살이니까 내 동생은 또 업고.)

102002 @ 예.(예.)

102002 #1 ᄋᆞ 알친오름이렌 허연 물나는 동산.(요기 '알친오름'이라고 하는 물이

71) '셋아버지'는 아버지형제에서 두 번째이다. '셋-'은 '둘째'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72) '말젯아버지'는 아버지형제에서 세 번째이다. '말젯-'은 '셋째'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73) '짚뎅이'는 상장(喪杖)으로 상이 났을 때 상제 앞에 놓이는 짚으로 엮어 만든 지팡이를 말한다.

나는 동산.)

102002 @ 예.(예.)

102002 #1 글로 셋질이 이서수다.(그리로 사잇길이 있었어요.)

102002 @ 예.(예.)

102002 #1 글로 걸어 내려가는데. 어머니 우는 것을 보니 이게 눈이 까질 정도라.(그리로 걸어 내려가는데. 내가 어머니 우는 것을 보니 이게 눈이 문드러질 정도야.)

102002 @ 예.(예.)

102002 #1 그 알순당에 족은할망이헹 하르방은 살앗다 말이우다.(그 '알순당'에 작은할머니를 들이고 할아버지가 살았다 말입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사니깐은 족은시어멍이렌 허연 가야될 거. 시아방도 거기 싯고 하니까.(살고 있으니 작은시어머니 하면서 거기를 가야 될 거. 시아버지도 거기 계시니까.)

102002 @ 예.(예.)

102002 #1 아들 죽엉 짚뎅이를 놓을 자리를 구하라. 어떵 노상에서 초ᄒᆞ루 보름[74]을 ᄒᆞ게 뒈었으니까.(아들이 죽어서 상장 놓을 자리를 구하라. 어떻게 노상에서 삭망제를 하게 되었으니까.)

102002 @ 삭망예?(삭망이요?)

102002 #1 어떤 건지 옛날에는 초ᄒᆞ루 보름을 ᄒᆞ게 뒈었는지. 시방은 혼번만 하면 뒈는데.(어찌 그런지 옛날에는 삭망제를 하게 되었는지. 요즘은 한번만 하면 되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질레서 ᄒᆞ게 뒈었으니까 집을 구하라 헤영 거길 갔지.(길에서 하게 되었으니까 집을 구해 달라 하면서 거기로 갔지.)

102002 @ 예.(예.)

102002 #1 근디 여기 큰할망은 좀 안 좋아낫어, 사이가.(그런데 여기 큰할머니는 좀 안 좋았었어, 사이가.)

102002 @ 당 자식인디도마씨?(친 자식인데도 말입니까?)

102002 #1 당 ᄌᆞ식이라도.(친 자식이라도.)

102002 @ 메누리ᄒᆞ고마씨?(며느리하고요?)

102002 #1 저 당신 난 셋아들하고 셋며느리만 좋아해서.(저 당신이 셋아들하고 셋며느리만 좋아 하셨어.)

102002 @ 예.(예.)

102002 #1 큰 아들은 돈을 못 버니까게.(큰 아들은 돈을 못 버니까.)

102002 @ 예.(예.)

74) '초ᄒᆞ루 보름'은 장례를 치르고 음력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제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삭망제이다.

102002 #1 게서 시아방한티, 다슴[75]시어멍한티 가니까 그때 흔 열 평짜리 이간 막살이 집을 빌어줍디다.(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작은시어머니한테 가니까 그때 한 열 평짜리 두 칸짜리 집을 빌려 주셨어요.)

102002 @ 예.(예.)

102002 #1 빌어주난 우리가 어머니ᄒᆞ고 그딜 들어강은에 강 보난 그디 살던 하르방은 우리 하르방네 밧거레 갔당 빌려줘 두고.(빌려 주니까 우리가 어머니하고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 거기 살던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네 바깥채에 가져다 빌려 주고.)

102002 @ 예.(예.)

102002 #1 우선 독집을 열 평짜릴 빌려줬단 말이우다.(우선 독채를 열 평짜리를 빌려주셨단 말이에요.)

102002 @ 예.(예.)

102002 #1 빌었으니까 거길 들어갔는데 흔 이일만에 망인가 삭인가를 ᄒᆞ게 된 거라.(빌렸으니까 거기를 들어갔는데 한 이틀 만에 망제인지 삭제인지 하게 된 거야.)

102002 @ 예.(예.)

102002 #1 밥 흔직 국흔직 올련에. 경헹 사는디.(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올리고서. 그렇게 사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저 아랫동네 나 살아나부난 그때는 여기 걸엉 다니믄 왓다리 갓다리 바로 이웃집이주마씀.(저 아랫 동네에 내가 살았었으니까 그때는 여기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바로 이웃집이죠.)

102002 @ 예.(예.)

102002 #1 큰시어멍한티 강은에 어떻게 시아방이 집을 해줫으니깐 당신도 뭘 할 걸 좀 책임을 줘서 뭐 줘얄 거 아니우과 허난게.(큰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찌어찌 시아버지가 집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뭘 할 걸 좀 책임을 지고 뭘 줘야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102002 @ 예.(예.)

102002 #1 나 큰아들, 큰 손지 아니 믿어.(나 큰 아들, 큰 손주는 안 믿어.)

102002 @ 아이고.(아이고.)

102002 @ 나 족은아들, 셋아들 어서? 나 저 사름 아니 믿으크라.(나 작은아들, '셋아들' 없어? 나 저 사람 안 믿을[76]거야.)

102002 @ 당신 아들 어서부난예?(당신 아들이 없어서요?)

102002 #1 아들 죽어부난.(아들 죽어 버려서.)

102002 @ 예.(예.)

---

75) '다슴'은 '대를 잇는' 또는 '데리고 들어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76) '믿다'라는 말은 신뢰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의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믿는다'라고 한다.

102002 #1 그 때 또 어머니가 울면서 오는 거라.(그 때 또 어머니가 울면서 오는 거야.)

102002 @ 서러왕.(서러워서.)

102002 #1 그때 학교 아니 다닐 때난 어멍 손심으멍 ᄀᆞ지 갔당 오는 거라.(그때 학교에 안 다닐 때여서 어머니 손잡으면서 같이 갔다 오는 거야.)

102002 @ 예.(예.)

102002 #1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놈의 대동아 전쟁이 또 나가지고 사는디.(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 놈의 대동아 태평양전쟁이 또 나서 사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어머니는 놈의 품팔이나 하면서 사는디.(어머니는 남의 품팔이나 하면서 사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대동아전쟁으로 어머니는 자꾸 곱으래 돗곡. 대밧이 돗고 굴 소곱 돗고 ᄒᆞ단 보난게.(태평양전쟁으로 어머니는 자꾸 숨으러 달려가고. 대나무 숲에도 달려가고 굴 속에도 달려가고 하다 보니.)

102002 @ 예.(예.)

102002 #1 글청에도 일 년간 다니고.(학교에도 일 년간 다니고.)

102002 @ 예.(예.)

102002 #1 일곱 살에 간이학교 뎅기당에 해방뒈난 또 그 간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 년 뒈난 우리나라가 해방뒈는 거라.(일곱 살에 간이학교에 다니다가 해방문딱니까 또 그 간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 년 되니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거야.)

102002 @ 예.(예.)

102002 #1 게난 죽도 밥도 아니 된 거지.(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된 거지.)

102002 @ 한자 배웠당 일본어 배웟당 한글 배웠당.(한자 배웠다가 일본어 배웠다가 한글을 배웠다가.)

102002 #1 야. 이거 죽도 밥도 안 뒈는 거라. ᄋᆞ 나아돌어미[77] 거.(예,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젠장.)

102002 @ 예.(예.)

102005 @ 일제 강점기 때 그 때 생활은 어떵핸마씨?(일제 강점기 때 그때 생활은 어땠습니까?)

102005 #1 우리 그 웃슨당 학교도 다닐 때양, 조리, 왜정시대 때 조리라고 이수다. 조리.(우리 그 '웃슨당' 학교도 다닐 때, 조리, 일제강점기 때 조리라고 있어요. 조리.)

102005 @ 발가락 걸어 신는 신마씨?(발가락 걸고 신는 신이요?)

102005 #1 그건 게다고.(그건 '게다'고.)

77) '나아들어미'는 아이고, 젠장처럼 쓰이는 욕이다.

102005 @ 아.(아.)

102005 #1 일본말 게다고.(일본말 '게다'고.)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발가락 걸엉 다니는 초신이수다.(그 발가락 걸고 다니는 초신 있습니다.

102005 @ 아.(아.)

102005 #1 그걸 이녁냥으로 다 삼아.(이걸 자기대로 다 삼아.)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눈 우이. 그때는 유달히 눈이 만흡드다.(그 눈 위에. 그때는 눈이 유달리 많습디다.)

102005 @ 많아예.(많아요.)

102005 #1 야, 야. 그 눈 우이. 젖엉 끈어지민 또 사오민 성가시난. 손에 들렁.(예, 예. 그 눈 위에. 젖어서 끊어지면 또 삼으려면 성가시니까. 손에 들어서.)

102005 @ 예.(예.)

102005 #1 게다도 들렁 뎅기곡. 남신도 들렁 뎅기곡 헤낫수다.('게다'도 들고 다니고. 나막신도 들고 다니고 했었어요.)

102005 @ 맨발로?(맨발로요?)

102005 #1 맨발로. 눈 우이 기냥.(맨발로. 눈 위에 그냥.)

102005 @ 예.(예.)

102005 #1 게 실려운 걸 춤는 거라. 당분간은. 그 신이 아까우니까.(그게 시린 걸 참는 거야. 당분간은. 그 신이 아까우니까.)

102005 @ 또 삼젠ᄒᆞ민.(또 삼으려면.)

102005 #1 삼젠ᄒᆞ민 덩드렁으로 너울 두드령 노 꽝, 산듸짚 헹은에 두드렁 노 꽝.(삼으려면 방망이로 노를 두드려 꼬아서, 밭볏짚을 가지고 두드려 노를 꼬아요.)

102005 @ 예.(예.)

102005 #1 조리 삼젠ᄒᆞ민양 것도 시간 걸린단 말이우다.(조리를 삼으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102005 @ 예.(예.)

102005 #1 것도 어렵고. 게다도 멘들젠 ᄒᆞ민 이녁냥으로 못 멘들고. 남신도 ᄒᆞ젠ᄒᆞ민 이녁냥으로 못 파곡.(그것도 어렵고. 게다가 만들려고 하면 자기대로 못 만들고. 나막신도 만들려고 하면 자기대로 못 파고.)

102005 @ 예.(예.)

102005 #1 게난 그걸 애낌베끠.(그래서 그걸 아끼는 수밖에.)

102005 @ 예.(예.)

102005 #1눈 우이 저 알순당서 웃슨당 ᄒᆞ교까지 오는 거라 멘발에.(눈 오는 날에 저 '알순당'에서 '웃슨당' 학교까지 오는 거예요. 맨발에.)

102005 @ 예.(예.)

102005 #1 뛰영.(뛰어서.)
102005 @ 예.(예.)
102005 #1 가곡 오곡헷서.(가고 오고 했어.)
102005 @ 예.(예.)
102005 #1 경허면서 세상 살다보니까 해방뒈서. 아이고 왜병정은 더러와.(그러면서 세상 살다보니 해방되고. 아이고 일본 군인은 더러워.)
102005 @ 예?(예?)
102005 #1 이 저 밑에로 길이 왜정시대에 난 길인데.(여기 저 밑으로 길이 일제강점기 때 난 길인데.)
102005 @ 예.(예.)
102005 #1 흔 칠십년 된 길이우다.(한 칠십년 된 길입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저 길에 송당 주민도 많이 얼 먹엇수다.(저 길에 송당 주민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저 길 강제노동으로 밧 끈으멍 만들 적에.(저 길에 강제노동으로 밭을 끊으면서 만들 적에.)
102005 @ 예.(예.)
102005 #1 일본 놈들이 수시로 그냥 막 ᄆᆞᆯ 헤영 구루마 끄스멍 보급로 닦음이라고.(일본 놈들이 수시로 그냥 막 말을 해서 가지고 달구지를 끌면서 보급로를 닦는다고.)
102005 @ 예.(예.)
102005 #1 흔 이삼년을 막 계속 끌은 거라.(한 이삼년을 막 계속 끄는 거야.)
102005 @ 예.(예.)
102005 #1 끌으는 걸 우린 보곡.(끄는 걸 우리는 보고.)
102005 @ 예.(예.)
102005 #1 저 신작로에 나상 므신거 ᄒᆞ민 보곡 ᄒᆞ는데.(저 새로 만든 길에 나가 뭐 하면 보곤 하는데.)
102005 @ 예.(예.)
102005 #1 무시 걸 주민 얻어나 먹어보젠 나가보민.(뭘 주면 얻어 먹어보려고 나가보면.)
102005 @ 예.(예.)
102005 #1 근디 뭘 줍니까? 아이 줜.(그런데 뭘 줍니까? 안 줬어요.)
102005 @ 예.(예.)
102005 #1 경허단 보난 사삼사건이 터전에.(그러다 보니 사삼사건이 터져서.)
102005 @ 예.(예.)
102005 #1 나 열 세 살이구나, 사삼사건 터진 지가.(나 열 세 살이로구나. 사삼

사건 터진 때가.)

102005 @ 왜정 때 공출은 엇어난마씨?(일제 강점기 때 공출은 없었어요?)

102005 #1 일본군은 그때는 쒜, 쒜.(일본군이 그때는 쇠, 쇠를.)

102005 #2 공출, 공출.(공출, 공출.)

102005 @ 예.(예.)

102005 #2 곡석. 곡석들 몬짝 바치고.(곡식, 곡식들을 모두 다 바치고.)

102005 @ 예.(예.)

102005 #2 쳉결허렌 허영.(청결하게 하라고 해서.)

102005 @ 예.(예.)

102005 #1 청소, 청소.(청소, 청소.)

102005 @ 아.(아.)

102005 #2 쳉결. 지금이야 청소ᄒᆞ렌 하주만은 쳉결.(청결. 지금은 청소하라고 하지만 청결.)

102005 #1 응. 쳉결, 쳉결.(응. 청결, 청결.)

102005 @ 쒜숫가락도 가져가고?(쇠숟가락도 가져가고요?)

102005 #1 응. 쒜, 알미늄이나 무신 봐낭은이 이거 강제야, 강제.(응. 쇠, 알루미늄이나 무슨 보기나 하면 이거 강제야, 강제.)

102005 @ 아.(아.)

102005 #2 또 동네 사름도 요 아무집이 뭐 잇다 하면은.(또 동네 사람도 여기 아무 집에 뭐 있다 하면.)

102005 @ 찔러불어마씨?(찔러버려요?)

102005 #2 응 찔어불어.(응, 찔러버려.)

102005 @ 아.(아.)

102005 #2 똑 그 집이 강 내 놓으렌, 공출허렌.(딱 그 집에 가서 내 놓으라고 해. 공출하라고.)

102005 @ 아.(아.)

102005 #2 그 제국시절엔 막 공출만 헤낫주게.(그 일제 강점기 때는 막 공출만 했었거든.)

102005 @ 공출예? 경 안 헤도 어려운디.(공출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102005 #1 쏠 곱지민 문제라, ᄒᆞ쏠 쏠 곱지민.(쌀을 숨기면 문제라, 조금 쌀을 숨기면.)

102005 @ 쏠 곱지민 큰일 나마씨?(쌀을 숨기면 큰일 나요?)

102005 #2 곡석을 곱져낫주. 공출허렌 헤불민.(곡식을 숨겼었지. 공출하라고 해버리면.)

102005 @ 아.(아.)

102005 #2 아이고 제국시절.(아이고 알제 강점기 때.)

102005 #1 아이고 제국시절.(아이고 알제 강점기 때.)

102005 @ 예.(예.)

102005 #1 사람놈들 아니었다고. 썹지근해서.(사람놈들이 아니었다고. 섬뜩해서.)

102005 @ 예.(예.)

102005 #1 팔십오 세 이상 된 놈들은 일본놈이건 한국놈이건 사름들이 아니. 그 이상 된 놈들은.(팔십오 세 이상 된 놈들은 일본놈이건 한국놈이이건 사람들이 아니야. 그 이상된 놈들은.)

102005 @ 예.(예.)

102005 #1 아이고 썹지근해서.(아이고 섬뜩해서.)

102005 @ 예.(예.)

102005 #1 게난 우리세대가 제일, 팔십 팔십오 세 세대가 제일 학대 받앗어. 그 시절이.(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제일, 팔십 팔십오 세 이상 세대가 제일 학대를 받았어. 그 시절에.)

102005 @ 예.(예.)

102005 #1 왜정시대고 우익좌익도 못 끼는 연령이라 말이우다.(일제 강점기 때고 우익좌익도 못 끼는 연령이었다 말이에요.)

102005 @ 아.(아.)

102005 #1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니.(우리는 죽도 밥도 아니.)

102005 @ 예.(예.)

102005 #1 시방도 연금 같은 것도 못 타먹어.(시방도 연금 같은 것도 못 받아먹어.)

102005 @ 예.(예.)

102005 #2 그 옛날에 북해도 간 사름은 지금도 돈 나와. 돈 타먹어. 북해도 간 사름은.(그 옛날에도 북해도 간 사람은 지금도 돈이 나와. 돈을 받아. 북해도 간 사람들은.)

102005 @ 징용 갔던 사람마씨?(징용 갔던 사람 말입니까?)

102005 #2 응. 북해도 갓던 사름.(응, 북해도에 갔던 사람.)

102005 #1 왜놈들이 끗엉 갓거든. 강제로 끗엉 갓주게.(왜놈들이 끌고 갔거든. 강제로 끌고 갔지.)

102005 #2 경헹 그런디 갔단 사름은 지금도 돈을 받아.(그래서 그런데 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서 돈을 받아.)

102006 @ 사삼사건 때는 어떵마씨?(사삼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102006 #1 아이고 아이고. 사삼사건이 터지난.(아이고, 아이고. 사삼사건이 터지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무신 평탄하게 세상을 살앗수과만은.(무슨 평탄하게 세상을 살았습니

까만.)

102006 @ 예.(예.)

102006 #1 나 열세 살, 열세 살이구나. 사삼사건 터지고 난 디가.(내가 열세 살, 열세 살이구나. 사삼사건 터지고 난 때가.)

102006 @ 음.(음.)

102006 #1 아이고 경혜연. 아이고.(아이고 그래 가지고. 아이고.)

102006 @ 사삼 때는 다른 디 가 불엇수과?(사삼 때는 다른 데 가 버리셨습니까?)

102006 #1 우린 김녕더레. 내령가곡.(우린 김녕으로. 내려가고.)

102006 @ 음.(음.)

102006 #1 나머지 분들은 평대, 한동, 세화. 영 가수다.(나머지 분들은 평대, 한동, 세화 등 이렇게 갔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우리는 외가가 있기 때문에 외가 따라 간 거라.(우리는 외가가 있기 때문에 외가 따라 간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사삼사건 때 ᄂᆞ려가멍 땅 속에 이거저거 묻엉 놔두니까.(사삼사건 때 내려가면서 땅 속에 이거저거 묻어서 놔두니까.)

102006 @ 아.(아.)

102006 #1 얘네들이 무슨 수작으로 혯는지.(얘네들이 무슨 수작으로 했는지.)

102006 @ 아.(아.)

102006 #1 공비들 잡으레 오노라, 토벌대 좌익분자 심으러 오노라, 산 폭도 심으러 오노라 하면서.(무장공비를 잡으러 오노라, 토벌대의 좌익분자 잡으러 오노라, 산 폭도 잡으러 오노라 하면서.)

102006 @ 다 긁엉 가져갔구나예.(다 긁어 가져 갔군요.)

102006 #1 이 사람 살아난 디 뭐 숨겨놧느냐 뭐 했느냐?(이 사람이 살았던 곳에 뭐 숨겨 놨느냐, 뭐 했느냐?)

102006 @ 음.(음.)

102006 #1 혹시나 경허단 사름도 굴 팡은에 만히 살아십주.(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사람도 굴을 파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ᄂᆞ려가지 안헹은에.(내려가지 않고.)

102006 @ 음.(음.)

102006 #1 굴 팡은에 만히 살당 죽은 사름들도 만허우다.(굴을 파서 많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총 쏘아 쥑여부난. 덕천이든 송당이든.(총으로 쏘아 죽여버리니까. 덕

천에서들든 송당이든.)
102006 @ 음.(음.)
102006 #1 ᄂᆞ려가불어시민 안 죽엇는데.(내려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102006 @ 아.(아.)
102006 #1 이넉 돈도 아깝고.(자기 돈도 아깝고.)
102006 @ 음.(음.)
102006 #1 축산도 아깝고.(가축도 아깝고.)
102006 @ 음.(음.)
102006 #1 안 내려갔단 말이우다.(안 내려갔는데 말입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겡ᄒᆞ단 보민 사름도 죽었는데. 와서 막 고시질을 허는 거야.(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도 죽었는데. 와서 막 **'고시질'**을 하는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그때 임시들 땅 팡 묻엉 내려 가십주게.(그때 임시로들 땅을 파서 묻고 내려 갔지요.)
102006 @ 음.(음.)
102006 #1 불은 팡팡 지덩 나가고 산간에. 어떵든지 우선 살젠 ᄒᆞ민.(불은 팡팡 피어 나가고 산간에. 어떻게든지 우선 살려고 하면.)
102006 @ 음.(음.)
102006 #1 좌익이든 우익이든 밑에 ᄂᆞ려가야 산다 말이우다.(좌익이든 우익이든 밑에 내려가야 산다 말입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겡헹은에 거기서도 십오일이면 그 즉시 뒷날 곳 보내는 것도 아니.(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십오일이 지나면 그 즉시 뒷날 곧 보내주는 것도 아니.)
102006 @ 음.(음.)
102006 #1 겡 ᄒᆞ단 보난 사삼사건 아니 헹 해변 놈들은 그릇 ᄒᆞ나, 자기 ᄒᆞ나, 도구리 ᄒᆞ나, 낭푼이 ᄒᆞ나 묻어 논 거 그자 다 봉가당 부제 뒈불엇주.(그렇게 하다 보니 사삼사건을 안 하고서 해안 놈들은 그릇 하나, 자기 하나, 함지박 하나, 양푼 하나, 묻어 놓은 것들을 그저 다 주워다가 부자가 되어 불었지.)
102006 @ 음.(음.)
102006 #1 궤도 묻엉 나두 난야.(궤도 땅에 묻어 나두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어떻게 잘 알앗는지.(어떻게 잘 알았는지.)
102006 @ 음.(음.)
102006 #1 구루마에 나 외숙헹 왔길래 다 시끄지 못 헌거라.(달구지에 내 외숙이 왔길래 다 싣지 못 한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궤 묻어동 가는디.(궤를 묻어 놓고 가는데.)

102006 @ 음.(음.)

102006 #1 그 놈이 한참 굴무기로 만든 땅에 묻어도 썩지 않을 건디. 오꼿 팡 가불고.(그 궤가 한참 느티나무로 만든 땅에 묻어도 썩지 않을 것인데. 그만 파서 가 버리고.)

102006 @ 음.(음.)

102006 #1 또 이만한 도구리도 이서수다.(또 이만한 함지박도 있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돌ᄒᆞ레 우리 성제가 아장 ᄀᆞᆯ던 도구리라.(맷돌에 우리 형제가 앉아서 갈던 큰 함지박이야.)

102006 @ 음.(음.)

102006 #1 굴무기 도구리도 한동에 그 도구리가 잇단 말 들어도양 확인을 헹 내 거다 말을 못 허컵디다.(느티나무 함지박도 한동 마을에 그 함지박이 있다는 말 들어도 확인을 하고 내 것이다 말을 못 하겠습디다.)

102006 @ 음.(음.)

102006 #1 소식만 들어십주.(소식만 들었지.)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헹 세상을 살아 왔는디.(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ᄂᆞ려강도 그 즉시만 와시믄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가져가실건디 흔 보름을 못 나오게 한거라.(내려 가서도 그 즉시만 왔으면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가져갔을 건데 한 보름 동안을 못 나가게 한 겁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여기서 총 가진 우익자들은 그놈들 잡으러 나오지.(여기서 총을 가진 우익자들은 습격대 놈들을 잡으러 나오지.)

102006 @ 음.(음.)

102006 #1 거기는 거기대로 습격 들어오지.(거는 거기대로 습격 들어오지.)

102006 @ 음.(음.)

102006 #1 민간인은 나갔다가는 죽나 말이우다.(민간인은 나갔다가는 죽는단 말입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이쪽저쪽에서 쥑여 부는 거라.(이쪽저쪽에서 죽여 버리는 거야.)

102006 @ 예.(예.)

102006 #1 나가지 못헹 십오일 딱 이성 보난 나중에 왕 보난 무시거 이서 아무것도 엇어.(나가지 못하고 십오일을 딱 있고 보니, 나중에 돌아와 보니 뭐가 남아 있어? 아무것도 없어.)

102006 @ 예.(예.)

102006 #1 더 우리 거러지가 뒈어 분거라. 피난을 나간 건디, 야.(다 우리는 거지꼴이 되어 버린 거죠. 피난을 나간 건데, 예.)
102006 @ 그래도 살앙 와져수게.(그래도 살아서 왔잖습니까)
102006 #1 (눈을 흘긴다.)
102007 @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1 응. 중매결혼.(응, 중매결혼)
102007 @ ᄉᆞ주는 보는가?(사주는 봅니까?)
102007 #1 ᄉᆞ주?(사주?)
102007 @ 예, 사주마씨.(네, 사주요.)
102007 #1 으으.(으으.)
102007 @ 요새는 보주만은.(요새는 보지만.)
102007 #1 그 옛날도 ᄉᆞ주 보주게.(그 옛날도 사주 봤지.)
102007 @ ᄉᆞ주 봣수과?(사주 봤습니까?)
102007 #1 ᄉᆞ주 보주게.(사주 보지.)
102007 @ 응. 날 놩은에.(응. 날을 놓고.)
102007 #1 무신 우리가 봐?(무슨 우리가 보는 건가?)
102007 @ 어른들이.(어른들이,)
102007 #1 이쪽에서 보는 거주.(이쪽에서 보는 거지.)
102007 @ 아, 남자 쪽에서?(아, 남자 쪽에서?)
102007 #1 응, 남자 쪽에서.(응, 남자 쪽에서.)
102007 @ 어떵. 혼사를 해보게 마씀, 영 헙니까?(어떻게. 혼사를 해 봅시다, 이렇게 합니까?)
102007 #1 흐흐흐.(흐흐흐.)
102007 @ 응.(응.)
102007 #1 게. 뚤 줍셍 가민게.(그렇지. 딸 주십시오 하고 가면은.)
102007 @ 아.(아.)
102007 #1 우리 어머니넨 나 물질 못해부난 어ᄀᆞ라. 송당이렌 ᄒᆞ난.(우리 어머니네는 내가 물질을 못하니까 미루지 않고 곧. 송당이라고 하니.)
102007 @ 하하하.(하하하.)
102007 #1 어ᄀᆞ라.(얼른.)
102007 @ 시집 못 가카부덴 헤신디.(시집 못 보낼까봐 했는데.)
102007 #1 송당이옌 헤가난 어ᄀᆞ라 주분 거.(송당이라고 하니까 미루지 않고 얼른 줘 버린 거.)
102007 @ 혼수도 이서수과?(혼수도 있었습니까?)
102007 #1 친정에서 뚤이 나 하나 매기난, 우리 어머니는.(친정에서 딸이 나 하나뿐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아들은 세 개고.(아들은 셋이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우리 아버지는 큰각시에도 뚤 하나, 두 번찌 각시에 뚤 두 개.(우리 아버지는 큰각시에 딸이 하나, 두 번째 각시에 딸이 둘).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경헹 뚤이 시개 이서도.(그렇게 딸이 셋이 있어도.)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우리 어머니는 네 번짜라.(우리 어머니는 네 번째야.)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우리 아버지는 네 번째라. 각시가이.(우리 아버지는 네 번째야. 각시가.)

102007 @ 헤? 아이고.(헤? 아이고.)

102007 #1 옛날 장갯각시하고, 중간에 건드려부난 큰뚤하나 나고.(옛날에 결혼한 각시하고 중간에 건드려버려서[78] 큰딸 하나 낳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그 다음에 뚤 성제 나고.(그 다음에 딸 자매를 낳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게난 우리 어머니가 네 번짜 와신디.(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번째 왔는데.)

102007 @ 아이고.(아이고.)

102007 #1 우리 어머니를 얻엉 오난 뚤 성제 난 각시는 일본더레 가분 거라. 뚤 성제 둘안.(우리 어머니를 얻고 오니 딸 형제를 낳은 각시는 일본으로 가 버린 거야. 딸 둘을 데리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그 성들이 일본서 다 죽언.(그 언니들이 일본에서 다 죽었어.)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다 죽언. 우리 어머니는 나 뚤 하나 매기.(다 죽었어. 우리 어머니는 나 딸 하나 뿐.)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게난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네가 옛날도 권당들이 엇어.(그래서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네가 옛날에도 친척들이 없어.)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친촉이 엇어부난. 우리 어머니가 식게를 열두번을 헤여.(친척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열두 번을 해.)

102007 @ 네 번째 각신디도마씨?(네 번째 각시인데도요?)

78) '건드려버리다'는 통정의 의미이다.

102007 #1 응.(응.)
102007 @ 예?(예?)
102007 #1 각시들은 다게 뚤들만 나멍 가불고, 안 살고 해부난게.(각시들은 모두들 딸들만 낳고 가버리고, 안 살고 하니까.)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오난.(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오니까.)
102007 @ 아들 낳고 허난예.(아들도 낳았고 하니까요.)
102007 #1 응. 아들 셋 나곡ᄒᆞ난.(응. 아들 셋을 낳고 하니까.)
102007 @ 아이고.(아이고.)
102007 #1 식게만 열두 번, 멩질 세 번 하믄 열다섯 번.(제사만 열두 번, 명절 세 번까지 하면 열다섯 번.)
102007 @ 열다섯 번, 아이고.(열다섯 번요? 아이고.)
102007 #1 백중이라고이.(백중이라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백중까지 하믄 열예섯 번을 해서이.(백중까지 하면 열여섯 번을 했어.)
102007 @ 백중까지 했구나.(백중까지 했구나.)
102007 #1 응.(응.)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경헹 우리 어머니는 일ᄒᆞ레 덕천을 와불곡.(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일하러 덕천으로 와버리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나ᄀᆞᆯ아 식게를 출리렌 헤여.(나보고 제사를 차리라고 한다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아이고.(아이고.)
102007 @ 몇 살까지? 시집오기 전까지?(몇 살까지 했어요? 시집오기 전까지요?)
102007 #1 응 시집 올 때ᄁᆞ지.(응, 시집 올 때까지.)
102007 @ 시집 와낭도?(시집 오고 나서도요?)
102007 #1 아니, 시집 와 낭은 안 ᄒᆞ고.(아니, 시집 오고 나서는 안 하고.)
102007 @ 예.(예.)
102007 #1 겨난 나가 딱허게. 아이. 나는 식게 멩질 엇인 집에 시집을 가살로구나.(그래서 나는 떡하니. 아이. 나는 제사 명절 없는 집에 시집가야겠구나.)
102007 @ 너미 하영헤나부난.(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102007 #1 응. 너미 식게 멩질만 하영 헤나부난이.(응. 너무 제사 명절만 많이 했었기 때문에.)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하하.(하하.)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게난 여기를 왕 보난 식게가 엇은 거라. 흐흐.(그래서 여기를 와서 보니 제사가 없는 거야. 흐흐.)
102007 @ 소원을 이뤄수다예.(소원을 이루었습니다.)
102007 #1 응. 왕보난 시아방 식게 하나 매기.(응. 와서 보니 시아버지 제사 하나 뿐이야.)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나왕 ᄒᆞ쏠 살아가난.(내가 와서 조금 살아가니까.)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저디 우리 셋시어멍이.(저기 우리 작은시어머니가.)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족은할망에 아들이라이.(작은할머니의 아들이지.)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족은할망에 아들레가 하르방 식게를 ᄒᆞ단.(작은할머니의 아들네가 할아버지 제사를 하다가.)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이 나 시집왕 이디 왕 살암젠.(이거 내가 시집와서 여기 와서 산다고.)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멩질날 아침에는 정월 멩질날 아침에는 저기 젯상.(명절 날 아침에는 정월 명절날 아침에는 저기 제사상.)
102007 @ 예.(예.)
102007 #1 거 우리 시하르방 물려준 거.(그거 우리 시할아버지가 물려 준 거.)
102007 @ 아이고.(아이고.)
102007 #1 젯상 지어 아지고, 수박기, 옛날 놋사발이?(제사상을 짊어지고 가지고, 놋쇠 바리, 옛날 놋사발?)
102007 @ 예.(예.)
102007 #1 그거 톡ᄒᆞ게 손에 심어아지고.(그거 탁하니 손에 잡아 가지고.)
102007 @ 예.(예.)
102007 #1 오늘 아침부터 하르방 맡앙 멩질 ᄒᆞ렌.(오늘 아침부터 할아버지 맡아서 명절을 하라고.)
102007 @ 헤, 아이고. 뭐 하나 물려준 거 엇인 제사를.(헤, 아이고. 뭐 하나 물려 준거 없는 제사를.)
102007 #1 응.(응.)
102007 @ 제월전이라도 이시믄예.(제월전이라도 있었으면요.)
102007 #1 안줬어, 그때.(안 줬어, 그때.)

102007 #2 그때는 안 줜.(그때는 안 주었지.)
102007 #1 우리가 성장헤사.(우리가 성정하고 나서야.)
102007 #2 나중에 셋시아방 죽젠 해사.(나중에 작은 시아버지가 죽으려고 해야.)
102007 @ 예.(예.)
102007 #1 시하르방 살던 집터.(시할아버지 살던 집터.)
102007 @ 예.(예.)
102007 #1 알송당이렌 흔 디.('알송당'이라고 하는 데.)
102007 @ 예.(예.)
102007 #1 흔 사백 평짜리.(한 사백 평짜리.)
102007 @ 예.(예.)
102007 #1 그 집터 하나 줜.(그 집터 하나 주었지.)
102007 @ 경이라도 해야주.(그렇게라도 해야지.)
102007 #1 경허난 나중에 큰 돌아 옴도 해낫주.(그리니까 나중에 큰 돌아 옴도 했었지.)
102007 @ 할아버지, 할머니가 착하난.(할아버지, 할머니가 착하니까.)
102007 #1 우리가 성장헨 앞으로 우리 성장할 거를 기대를 한 거라.(우리가 성장해서 앞으로 우리 성장할 거를 기대한 거야.)
102007 @ 그렇지예. 내미릴 때도 이서신디.(그렇지요. 나무랄 때도 있었지만.)
102007 #1 얌전했지게. 나 스물 멧이 군이 가는데 송당서 나 혼자만 결혼을 못헹 가수다.(얌전했지. 나 스물 몇이 되어서 군대에 가는데 송당에서 나 혼자만 결혼을 못하고 갔습니다.)
102007 @ 얌전헤부난. 흐흐.(얌전하니까. 흐흐.)
102007 #1 어머니가 한이 멧힝 게. 나는 기어코 돈을 벌어야 결혼을 ᄒᆞ쿠다.(어머니가 한이 맺힌 게. 나는 기어이 돈을 벌어야 결혼을 하겠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헤영 나 혼자만 결혼을 못헹 간거라.(하고 나 혼자만 결혼을 못 하고 간거야.)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게난 우리 어머니가 한이 된 거지.(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이 된 거지.)
102007 @ 무사 한이 뒈어마씨? 잘못 뒈카부덴?(왜 한이 되었습니까? 잘못 될까봐서요?)
102007 #2 풀지 못하카부덴.(팔지 못할까봐서[79].)
102007 @ 결혼 못하카부덴?(결혼 못할까봐서요?)
102007 #2 아들 장개 못가카부덴.(아들이 장가가지 못 할까봐서.)
102007 #1 그 당시에는 육이오 전쟁 나자마자 막 바로라노난.(그 당시에는 육이

79) '팔다'는 이 문맥에서는 장가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 전쟁 나자마자 막 바로여서.)

102007 @ 예.(예.)

102007 #1 죽어오느냐 살아오느냐라서.(죽어 오느냐 살아 돌아오느냐 였어.)

102007 @ 그렇지.(그렇지.)

201007 #1 할망[80]이 안덕ᄁᆞ지 가 왔젠 ᄒᆞ난.(할머니가 안덕까지 다녀왔다고 하니까.)

102007 @ 예.(예.)

102007 #1 나 가는데. 그 때 차 엇이난 내련 서화리 강 하룻밤 장은에.(내 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세화리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나서.)

102007 @ 예.(예.)

102007 #1 안덕을 가 온 거라. 도락구로.(안덕을 다녀 온 거야. 트럭으로.)

102007 @ 아이고야.(아이고야.)

102007 #2 옛날에 차가 엇으난게. 화물차만 이서나난.(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화물차만 있었으니까.)

102007 @ 예.(예.)

102007 #2 나 시집올 때도 화물차 탕 와서.(내가 시집올 때도 화물차를 타고 왔어.)

102007 @ 화물차 타고 그믄 혼수는 뭐 헹 와수과?(화물차를 타고 그러면 혼수는 뭐 하고 왔습니까?)

102007 #2 무싱 거 헹 와.(무엇을 해 가지고 와.)

102007 #1 무싱 거 헹 와서 할망[81] 들어봐, 할망한티.(무엇을 해 가지고 왔는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한테.)

102007 #2 이불 ᄒᆞ나 하고, 궤 ᄒᆞ나 ᄒᆞ고. 옛날은 경대하고이.(이불 하나 하고, 궤 하나 하고. 옛날은 경대하고.)

102007 #1 상, 이불상.(상, 이불상.)

102007 #2 경대하고, 이불상하고 하하.(경대하고, 이불상하고 하하.)

102007 @ 경헤도 홀 건 다 헹 와신게.(그래도 할 거는 다 하고 오셨네.)

102007 #2 헐 건 다 헹 와서.(할 거는 다 하고 왔어.)

102007 @ 예.(예.)

102007 #2 이불 두 개, 요 두 개.(이불 두 채, 요 두 채.)

102007 @ 하영 해와신게마씨.(많이 하고 오셨네요.)

102007 #1 끌레이불ᄁᆞ지 해왔주.(누비이불까지 해왔지.)

102007 @ 예.(예.)

102007 #2 끌레 이불ᄁᆞ지.(누비이불까지.)

102007 #1 부잣집 단뚤이렌 헹. 돈 이신 집이렌 헹 가당보난. 하하하.(부잣집 외

80) '할망'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자기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다.
81) '할망'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자기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다.

동딸이라고 해서. 돈 있는 집이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하하하.)

102007 @ 예.(예.)

102007 #1 경해 물려완 살아질 걸로.(그렇게 해서 물려받고 살아질 것으로.)

102007 @ 물려받은 걸로 살아가지카부덴? 흐흐.(물려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봐서? 흐흐.)

102007 #1 물려받은 걸로 살아가지카부덴.(물려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봐서.)

102007 #2 하하하.(하하하.)

102007 @ 혼수는 영 ᄒᆞ고 그럼 예물은마씨?(혼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물은요?)

102007 #2 그 옛날이 무신 반지가 어디 셔?(그 옛날에 무슨 반지가 어디 있어?)

102007 @ 하하하.(하하하.)

102007 #2 허허. 아이고.(허허. 아이고.)

102007 #1 유리다마 ᄒᆞ나 엇엇어. 유리다마 ᄒᆞ나 엇엇어.(유리구슬 하나 없었어. 유리구슬 하나 없었어.)

102007 @ 유리다마도 엇엇어마씨?(유리구슬도 없었어요?)

102007 #2 반지가 어디 셔.(반지가 어디 있어.)

102007 @ 할머니는 하영 헹 와신디. 밋져수게.(할머니는 많이 해서 왔는데. 밑졌잖아요.)

102007 #1 흐흐.(흐흐.)

102007 @ 그때 요새처럼 돈 주고 ᄒᆞ는 건 엇엇수과?(그때는 요새처럼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102007 #2 아니. 돈도 아니 주고. 그 옛날이는이.(아니. 돈도 안 주고. 그 옛날에는.)

102007 @ 예.(예.)

102007 #2 새각시 집이서 이버지라고, 이버지를 헹 오렌헤서. 신랑칩이.(새각시 집에서 이바지라고, 이바지를 하고 오라고 했어. 신랑집에.)

102007 @ 예.(예.)

102007 #2 경허민 쏠 한가멩이.(그러면 쌀 한 가마.)

102007 @ 예.(예.)

102007 #2 술 한 춘[82].(술 한 준.)

102007 @ 예.(예.)

102007 #2 그걸 이버지라고. 받으켄 허민.(그걸 이바지라고. 받겠다고 하면.)

102007 @ 예.(예.)

102007 #1 것도 중간이라.(그것도 중간이야.)

102007 #2 이버지 받으켄허민 경 헤나갓주게.(이바지를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82) '춘'은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했었지.)
102007 @ 예.(예.)
102007 #2 술 혼 춘에 쏠 한 가멩이.(술 한 준에 쌀 한 가마.)
102007 @ 술 한 춘에 쏠 한 가멩이. 이버지예?(술 준에 쌀 한 가마. 이바지요?)
102007 #2 근디 우린 쏠도 안 받아서게.(근데 우린 쌀도 안 받았어.)
102007 @ 못 받아수과?(못 받으셨어요?)
102007 #2 못 받앗주게.(못 받았지.)
102007 #1 엇으난게.(없으니까.)
102007 @ 지금이라도 헤줘야주마씨?(지금이라도 해 줘야지요?)
102007 #1 하하하.(하하하.)
102007 @ 할아버지가 반지 안 해줘수과?(할아버지가 반지 안 해 주셨어요?)
102007 #2 반지랑 마랑. 중간에 나 저 우리 큰뚤 낭.(반지는커녕. 중간에 나는 저 우리 큰 딸 낳고.)
102007 @ 예.(예.)
102007 #2 하도 싸움만 해지난.(계속 싸움만 하게 되니까.)
102007 @ 안 살켄 헨마씨?(안 살겠다고 하셨어요?)
102007 #2 나가 갈란 나간 거라.(내가 갈라서 나간 거야.)
102007 @ 하하하.(하하하.)
102007 #2 갈란 나강 덕천 친정에 가난.(갈라서 나가서는 덕천 친정에 갔었지.)
102007 @ 예.(예.)
102007 #2 우리 어머니는 족은아들 족은메누리 아기나난.(우리 어머니는 작은아들 작은며느리가 아기를 나니까.)
102007 @ 예.(예.)
102007 #2 덕천은 셋아들네 살아부난 집이 어선. 족은 아들 돌레 김녕 가부난.(덕천에는 둘째아들네가 살았기 때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아들네에 아기 보러 김녕 가버리니까.)
102007 @ 예.(예.)
102007 #2 난 어머니 눅단 방에 열흘 살당.(난 어머니가 눕던 방에서 열흘을 살다가.)
102007 @ 하하하.(하하하.)
102007 #2 우리 큰뚤 돌아아젼. 혼 세 살에.(우리 큰 딸을 데리고. 한 세 살에.)
102007 @ 할머니 멋진 할머니여.(할머니 멋진 할머니네요.)
102007 #2 경헹 강 살단, 덕천을 방 빌어 살젠 허난 덕천 집이 엇어. 방을 빌젠 해도.(그렇게 하고 살다가, 덕천에 방을 빌려 살려고 하니 덕천에 집이 없었어. 방를 빌려고 해도.)
102007 @ 예.(예.)
102007 #2 이젠 송당 어둑어가는디 오난. 저 웃슨당이 오당 보난 우리 시삼춘이

밧을 갈암서.(이젠 송당으로 어두워져 가는 데 오니까. 저 '웃슨당'에 오다 보니까 우리 시삼춘이 밭을 갈고 계시는 거.)

102007 @ 예.(예.)

102007 #2 어둑어가는디 오단 보난.(어두워져 가는데 오다 보니까.)

102007 @ 예.(예.)

102007 #2 이제 시삼춘신디 들어강.(이제 시삼촌한테 들어가서.)

102007 @ 예.(예.)

102007 #2 어디 방이나 빌어줍서. 덕천 방이시믄 방이나 빌어실 건디. 방이 엇수다.(어디 방이나 빌려주십히오. 덕천에 방이 있으면 방이나 빌렸을 건데. 방이 없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2 우리 시삼춘 허는 말이.(우리 시삼촌이 하는 말이.)

102007 @ 예.(예.)

102007 #2 저 웃슨당서이 누게 집 아니 준다.(저 '웃슨당'에서 누구든 집을 안 준다.)

102007 @ 하하하.(하하하.)

102007 #2 방 빌어주민 쉐스랑 가졍왕 멘 파묻어불켄 헴시네.(방을 빌려 주면 쇠스랑을 가지고 와서 모두 파 묻어버린다고 하잖아.)

102007 @ 하하하.(하하하.)

102007 #2 이 하르방이. 하하하. 쉐스랑 가졍왕 파불켄.(이 할아버지가. 하하하. 쇠스랑을 가지고 와서 파 버린대.)

102007 #1 그땐 내가 강했주게.(그때는 내가 강했지.)

10200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7 #2 누게 방 아이 빌어준다.(누구든 방을 안 빌려줄 거다.)

102007 @ 예.(예.)

102007 #2 우리 아들레 집이 족은 방 시메 그디 왕 살라.(우리 아들네 집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살아라.)

102007 @ 예.(예.)

102007 #2 경허는 거라.(그러는 거야.)

102007 #1 웃슨당은 광김촌이난.(웃송당은 광산 김씨 집성촌이니까.)

102007 #2 경헹 시삼춘 아들네 쪼글락 방이 와네, 요디 우리 말젯어멍 살던 디.(그렇게 해서 시삼촌 아들네 아주 작은 방에 와서는, 요기 우리 셋째어머니 살던 곳.)

102007 @ 예.(예.)

102007 #2 그 집 가제 아래 궤주적에 이불 주럭. 무사 경 그 옛날엔 이불 주럭이 아까왔는지. 시방이믄 불이라도 붙져불 건디.(그 집 처마 아래 궤 지저깨비에 이불 쪼가리. 왜 그렇게 그 옛날에는 이불 쪼가리가 아까웠는지. 시방이 불이라도 붙

여버릴 것인데.)
102007 @ 하하.(하하.)
102007 #2 그놈으 거 아까완.(그놈의 거 아까워서.)
102007 @ 예.(예.)
102007 #2 이제 완 시삼춘네 쪼글락한 구들 빌언.(그렇게 이제 와서 시삼촌네에 아주 작은 방을 빌렸어.)
102007 @ 예.(예.)
102007 #2 그 궤주적 져당 노코, 이불주럭 져당 완.(그 궤 지저깨비를 지고 와서 내려놓고, 이불 쪼가리도 이고 왔어.)
102007 @ 따로 살젠?(따로 살려고요?)
102007 #2 응. 나는 뜨로 살앗다고.(응. 나는 따로 살았다고.)
102007 @ 하하.(하하.)
102007 #2 이 할으방은 각시 강 얻엉 오고.(이 할아버지는 각시를 가서 얻어 오고.)
102007 @ 아이고. 할망이 잘못했구나게.(아이고. 할머니가 잘못하셨네요.)
102007 #2 겡 난 놈의 집이서. 우리 도망달이 집에서 우리 큰아들, 이제 살아시민 쉰 넷.(그렇게 나는 남의 집에서. 우리 도망자 같은 집에서 우리 큰 아들 지금 살아 있으면 쉰 넷.)
102007 @ 예.(예.)
102007 #2 그 아들 놈의 집이서 낭 살아서.(아들 놈을 그 집에서 낳고 살았어.)
102007 @ 아이고 재미난 얘기도 하다예.(아이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네요.)
102007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10 @ 결혼식은 신식으로?(결혼식은 신식으로?)
102010 #2 무신 신식게. 옛날은 장옷 입고 족두리 써네.(무슨 신식. 옛날에는 장옷 입고 족두리를 쓰고서.)
102007 @ 예.(예.)
102007 #2 화물차 탕 왔주. 김녕서 여꼬지.(화물차를 타서 왔지. 김녕에서 여기까지.)
102010 @ 하하하.(하하하.)
102010 #2 흐흐.(흐흐.)
102010 @ 결혼사진은 안 찍엇수과?(결혼사진은 안 찍었습니까?)
102010 #2 결혼사진은 어디 셔게.(결혼사진이 어디 있어.)
102010 #1 결혼사진이 어디 셔.(결혼사진이 어디 있어.)
102010 @ 하하.(하하.)
102010 #1 밥 먹기가 바쁠 땐디.(밥도 먹기가 바쁠 때인데.)
102010 #2 어제 그지게 왕은에 오늘은 장개 강. 낼은 가불지 안해서게.(어제 그저께 와서는 오늘은 장가 가고. 내일은 가버렸지 않았어.)

102010 @ 게난 군대 갔당예?(그러니까 군대 갔다가요?)
102010 #2 군인 와네.(군대 와서는.)
102010 #1 일주일 간.(일주일 간.)
102010 @ 예.(예.)
102010 #1 1 그때는 뭐 전시시대 보듯 끝나나마나 할 때난. 전선에서 포환이 날아올 때난.(그때는 뭐 전시시대 바듯이 끝나나마나 할 때이니까. 전선에서 포환이 날아올 때니깐.)
102010 @ 예.(예.)
102010 #1 강원도 거진서 비공식으로 일주일 받앙 오는디이. 시간이 없어. 여유가.(강원도 거진에서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휴가 받고 오는 데. 시간이 없었어. 여유가.)
102010 @ 예.(예.)
102010 #1 배로.(배로.)
102010 @ 비행기 탕 오는 것도 아니고.(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102010 #1 비행기가 아니고 목포왕 배 타멍 허는디. ᄇᆞ름 불엉 배 아이 뜨멍 해노난.(비행기가 아니고 목포에 와서 배를 타기도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 뜨기도 하니깐.)
102010 @ 예.(예.)
102010 #1 입엉 온 바지 하나 풀아 먹으멍 이딜 왔는디.(입고 나온 바지 하나를 팔아서 먹기도 하면서 여기를 왔는데.)
102010 @ 아이고.(아이고.)
102010 #1 결혼하레.(결혼하러.)
102010 @ 제대 헤영 고치 살앗구나예.(제대를 하고 나서 같이 사셨군요.)
102010 #2 제대해연.(제대하고 나서.)
102010 #1 제대도 일 년 만에 오난.(제대도 일 년 만에 오니까.)
102010 @ 어색해.(어색해.)
102010 #1 각시도 어색도 하고 몰르고, 가시어멍, 처남들도 모르고.(각시도 어색도 하고 서로 모르고. 장모님, 처남들도 모르고.)
102010 #2 하하.(하하.)
102010 @ 사위 몰라봐.(사위를 몰라봐.)
102010 #1 사위 몰라 보켄헌 거.(사위를 몰라 보겠다한 거.)
102010 #2 나도 모르켄 해서.(나도 모르겠다 했어.)
102010 @ 예.(예.)
102010 #2 그때 김녕서 걸어 댕길 때주. 여기서 차도 업고 허난.(그때 김녕에서 걸어 다닐 때인데. 여기에 차도 없고 하니까.)
102010 @ 길에서 봐도 모를 거구나예.(길에서 봐도 모를 거였군요.)
102010 #2 길에서 봐도 몰를 뻔 헤연.(길에서 봐도 모를 뻔 했어.)

102010 #1 그때는 왜냐, 만약에 휴가를 온다 쳐도 오민 경제난이라.(그때는 왜냐면, 만약에 휴가를 온다 쳐도 오면 경제난이야.)

102010 @ 예.(예.)

102010 #1 돈을 최소한 일이삼 만원을 가졍가야 된다 말이우다.(돈을 최소한 일이삼 만원을 가지고가야 된다 말입니다.)

102010 @ 예.(예.)

102010 #1 돈이 있나. 그때는 돈 벌 것도 업고. 돈이 업고.(돈이 있나, 그때는 돈 벌 것도 없고. 돈도 없고.)

102010 @ 예.(예.)

102010 #1 그때는 우리 동기생들 완에양 조팝 두 끼니 먹엉 왓덴.(그때는 우리 동기생들이 휴가 와서는 조밥 두 끼니를 먹고 왔다더라고.)

102010 @ 예.(예.)

102010 #1 스무날 사는데.(스무날을 사는데.)

102010 @ 예.(예.)

102010 #1 십오일 강 사난 조팝 두 끼.(십오 일을 가서 사니까 조밥 두 끼.)

102010 @ 예.(예.)

102010 #1 출발 오 일 앞두어네 태풍 때문에 와야 뒈니까. 혹시 ᄇᆞ름 불민 탈영 보고 내분다 말이우다.(출발 오 일 앞두고서 태풍 때문에 와야 되니까. 혹시 바람 불면 탈영 보고를 내버린다 말입니다.)

102010 @ 예.(예.)

102010 #1 그때는 엄격히 삼십육 개월이우다. 우리 군인 생활이.(그때는 엄격히 삼십육 개월입니다. 우리 군 복무 기간이)

102010 @ 맞아예.(맞아요.)

102010 #1 일 년 만에 헹 아젼 오난에.(일 년 만에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니.)

102010 @ 예.(예.)

102010 #1 다 사위들 모루다식.(모두 사위를 모르겠다는 식.)

102011 @ 신혼살림은 어디서 살앗수과?(신혼살림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102011 #2 제대헹 왕 이집이 살안.(제대하고 와서는 이 집에서 살았어.)

102011 @ 예? 이집 오래된 거구나.(예? 이 집 오래된 거구나.)

102011 #2 저 안거리에.(저 안채에.)

102011 @ 아이고야.(아이고야.)

102011 #2 왕 보난 마리도 엇고.(와서 보니 마루도 없고.)

102011 #1 육십 년 뭰 집.(육십 년 된 집.)

102011 @ 육십 년마씨?(육십 년이요?)

102011 #2 구들도 옛날 무신 똥종이로 ᄇᆞᆯ란. 흑집이라.(방바닥도 옛날에 무슨 누런 똥종이 같은 것으로 발랐어. 흙집이야.)

102011 @ 예.(예.)

102011 #2 우영담도 엇어부난 밋밋 미여지벵듸[83].(텃밭의 담도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내리는 널따란 벌판.)

102011 @ 예.(예.)

102011 #2 이집이 왕 보난. 낭 하나 엇고, 울담도 엇고.(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나무 하나 없고, 담장도 없고.)

102011 @ 그때는?(그때는?)

102011 #2 미여지벵듸.('미여지벵듸'.)

102011 @ 기구나예. 지금은 아도록한디.(그렇군요. 지금은 아늑한데.)

102011 #2 지금이야게.(지금이야.)

102011 @ 예.(예.)

102011 #2 나만 왕. 서방도 엇인디.(나만 왔어. 서방도 없는데.)

102011 @ 예.(예.)

102011 #2 지게 졍 여기 울담 다 다완.(지게를 지고 여기 담장을 다 쌓았어.)

102011 @ 예?(예?)

102011 #2 여기 울담 다 나가 다운 거.(여기 집 담장을 다 내가 쌓은 거.)

102011 @ 아이고.(아이고.)

102011 #2 하, 아이고.(하, 아이고.)

102011 @ 언제 올 건고 돌 하나 놓고, 언제 올 건고 돌 하나 놓고 허멍 살앗구나예?(언제 올 건가 돌 하나 놓고, 언제 올 건가 돌 하나 놓고 하면서 사셨군요?)

102011 #2 흐흐흐. 미친년이라.(흐흐흐. 미친년이라.)

102011 #1 하하하.(하하하.)

102011 #2 지게 작데기 헹 돌 지멍 울담 다 다완. 나, 원.(지게를 작대기를 짚고 돌을 지고 집 담장 돌을 다 쌓았어. 나, 원.)

102011 @ 그때 그냥 가불 컬.(그때 그냥 가버릴 걸.)

102011 #2 아이고 나 이제 생각하면 진짜 미친년이라.(아이고 내가 이제 생각하면 진짜 미친년이지.)

102011 @ 그때 가불 컬.(그대 가버릴 걸.)

102011 #2 흐흐. 그때 가불 컬.(흐흐. 그때 가버릴 걸.)

102011 @ 예.(예.)

102011 #2 우리 애기도 큰뚤 스물일곱이나 나가 나곡.(우리 아기도 큰 딸을 스물일곱이나 되어서야 낳았고.)

102011 @ 늦게 난 거지예?(늦게 낳은 거죠?)

102011 #2 응, 막 늦게 난. 이제사 쉰여섯.(응. 아주 늦게 낳았어. 이제사 쉰여섯.)

102011 @ 보통은 열 살 일찍 나지 안 헙니까?(보통은 열 살 일찍 낳지 않습니까?)

---

83) '미여지벵듸'는 아무 걱정 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102011 #2 응게. 우리 동갑들 문 손손지 봣어.(그래. 우리 동갑들은 모두 증손자를 봤지.)

102011 @ 기지예.(그렇죠?)

102011 #2 난 아들에 손지 풀젠 ᄒᆞ민 몃 년 셔사 풀 건디.(난 아들의 손자를 팔려고 하면 몇 년 더 있어야 팔 건데.)

102011 @ 하하.(하하.)

102011 #2 우리 갑장들 문딱 손손지 봔.(우리 갑장들 모두 증손주를 봤지.)

102011 @ 기지예. 일찍들 가면 경 헐 거주마씨.(그렇죠. 일찍들 가면 그렇게 할 거죠.)

102011 #2 난 우리 큰뚤 스물일곱 뒈사 나난게.(나는 우리 큰 딸이 스물일곱이 되어서야 낳았으니.)

102012 @ 아이들은 어떻게 됨수과?(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2 아들 니개 나고 뚤 두 개 나고.(아들 넷을 낳고 딸 둘을 낳았지.)

102012 @ 삼남 이녀 아니고?(삼남 이녀 아니고요?)

102012 #2 일허븐 아들 하나 잇고.(잃어버린 아들 하나 있고.)

102012 @ 어떵헹 그 아들은?(어떻게 하다가 그 아들은.)

102012 #2 홀연히.(홀연히.)

102012 @ 예?(예?)

102012 #2 홀연듸벤이.(어느날 갑자기.)

102012 #1 갑작스럽게 말이우다.(갑자기 말입니다.)

102012 @ 아픈 거마씨? 어디 간 거마씨?(아픈 거예요? 어디를 간 거예요?)

102012 #2 아프멍 말멍. 그때 고사리철 삼월이라.(조금 아프나 마나. 그때가 고사리철 삼월이었어.)

102012 @ 예.(예.)

102012 #2 날도 아니 잊어불어.(날도 아니 잊어버려.)

102012 @ 예.(예.)

102012 #2 이추룩 안개졍 비 축축 오는디.(이처럼 안개가 껴서 비가 축축 오는데.)

102012 @ 예.(예.)

102012 #2 아이가 ᄒᆞ쏠 감기 기운곳치 하여도 난 고사리 거끄레 가분 거라이.(아이가 조금 감기 기운처럼 해도 나는 고사리 꺾으러 가버린 거야.)

102012 @ 예.(예.)

102012 #2 내비 뒁. 고사리 거껑 강 왕 바도 고만히 눈거라.(내버려 두고. 고사리를 꺾고 다녀와서 봐도 가만히 누운 거야.)

102012 @ 예.(예.)

102012 #2 고사리 거껑 왕 저디 침 주는 하르방신디 업어 강 침 맞쳐당 눅져동.(고사리를 꺾고 와서 저기 침 놓는 할아버지한테 업고 가서 침도 맞히고 눕혀 두

고.)

102012 @ 예.(예.)

102012 #2 이젠 또 고사리 걲으레 간 거 아니.(이제는 다시 고사리를 꺾으러 간 거 아니.)

102012 @ 예.(예.)

102012 #2 그 옛날엔 고사리베끼 돈 날 게 엇어.(그 옛날에는 고사리 밖에 돈이 날 게 없었어.)

102012 @ 예. 맞아예.(예, 맞습니다.)

102012 #2 이젠 고사리 걲엉 왕 보난 그냥 눈 거라.(이제는 고사리를 꺾고 와서 보니 아이가 그냥 누운 거야.)

102012 @ 예.(예.)

102012 #2 이제 어둑음에 또 간 침주는 하르방신디 (이제 어두움에 또 가서는 침 놓는 할아버지한테.)

102012 @ 예.(예.)

102012 #2 가네 침 줭 왕은에 밤이는 하르방 낸 뚤[84] 돌앙 발이 눅고.(가서 침을 맞히고 와서는 밤에는 할아버지가 새로 나온 딸을 데리고 발에 눕고.)

102012 @ 예.(예.)

102012 #2 나는 이제 큰 아들 돌앙 눅고 가이는 안네에 영 눅져신디.(나는 지금 큰아들 데리고 눕고 걔는 안쪽에 이렇게 눕혔는데.)

102012 @ 예.(예.)

102012 #2 자당 보난 퍼들라탁헤여.(자다가 보니 갑자기 파드득탁 해.)

102012 @ 아.(아.)

102012 #2 아이고, 일어낭 불쌉서, 불쌉서, 불쌉서.(아이고, 일어나서 불 켜요, 불 켜요, 불 켜요.)

102012 @ 예.(예.)

102012 #2 그 옛날인 등핏불. 지금은 전깃불이나 헌다.(그 옛날에는 남포등. 지금은 전깃불이 있기나 한다.)

102012 @ 예.(예.)

102012 #2 등핏불 쌍 보난 아인 눈이 허영 헤분 거라. 파들락탁 하난.(남포등을 켜서 보니 아이는 눈이 허옇게 해버린 거야. 파드득탁 하니.)

102012 @ 경기 헤영 경했구나예.(경기를 해서 그렇군요.)

102012 #2 응. 경헤연 아방 안아 추춰가난.(응.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가 안아서 추켜올리니까.)

102012 @ 예.(예.)

102012 #2 '물, 물' 두 번 하고 코로 피 터젼게이.('물, 물' 두 번 말하고 코로 피가 터지더니.)

---

84) '하르방 낸 딸'은 할아버지의 작은 각시의 딸을 일컫는 말이다.

102012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2012 #2 그 밤이 붉기 전이 가불언.(그 밤이 밝기 전에 가 버렸어.)
102012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2012 #2 '물, 물' 두 번 헹게만. 거 매기.('물, 물' 두 번 하더니만. 그거 뿐.)
102012 #1 ᄋᆞᆺ 살.(여섯 살.)
102012 #2 응. ᄋᆞᆺ 살.(응. 여섯 살.)
102012 #1 너미 아이가 잘나가지고 ᄋᆞᆺ 살에 ᄒᆞᆨ교에 보냈주게.(너무 아이가 잘 나서 여섯 살에 학교에 보냈지.)
102012 @ 예.(예.)
102012 #2 아유, 막 ᄒᆞᆨ교만 가켄헤연. 그때에는 ᄒᆞᆨ교에 ᄒᆞᆨ생 모자가 이섯주게.(어휴, 막 학교만 간다했어. 그때에는 학교에는 학생 모자가 있었거든.)
102012 #1 검은 모자.(검은 모자.)
102012 @ 예.(예.)
102012 #2 검은 거 그 ᄒᆞᆨ생 모자 헤영 씌우고.(검은 모자 그 학생 모자 해서 씌우고.)
102012 @ 원 엇이.(원 없이요.)
102012 #1 막 ᄋᆞ망졌주.(아주 야무졌어.)
102012 @ 예.(예.)
102012 #2 옷도 저 서귀포 강 우리 성네 집이 가면 우리 성네 애기들 입단 옷 다 주서줭.(옷도 저 서귀포에 가서 우리 성님네 집에 가면 우리 성님네 아이들 입었던 옷을 다 걷어 주었어.)
102012 @ 예.(예.)
102012 #2 그거 입지곡 헤영.(그거 입히고 해서.)
102012 @ 맨 큰 아들이 영 된 거마씨?(제일 큰 아들이 이렇게 된 겁니까?)
102012 #2 젤 ᄆᆞᆫ여 난거.(제일 먼저 낳은 거.)
102012 @ 예.(예.)
102012 #2 우리 큰 똘 나기 전이.(우리 큰 딸 낳기 전에.)
102012 @ 예.(예.)
102012 #1 난 그걸 몰란. 나중에 안거지.(나는 그걸 몰랐어. 나중에 안 거지.)
102012 #2 하이고.(하이고.)
102012 #1 학교 가문에 강. 그때 학교 교문에 철문이 이서수다.(학교 교문에 가서. 그때에는 학교 교문에 철문이 있었어요.)
102012 @ 예.(예.)
102012 #1 철문을 ᄃᆞᆯ아낫우다.(철문을 달았었어요.)
102012 @ 예.(예.)
102012 #1 철문에서 거 왔다리 갔다리 허는 거를.(철문에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102012 @ 예.(예.)

102012 #1 ᄌᆞ미삼앙은에 그레 올라상은에 왔다리 갓다리 해당은에 이마를 친 거라.(재미삼아서 거기에 올라서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마를 친 거야.)

102012 @ 부디친 걸 안 ᄀᆞᆯ앗구나예.(부딪친 걸 말하지 않았군요.)

102012 #1 그걸 안 ᄀᆞᆯ안.(그걸 말 안했어.)

102012 @ 예.(예.)

102012 #1 오누이가 ᄒᆞᆨ교를 가 왔는데 그걸 쳐분 걸 안 ᄀᆞᆯ안.(오누이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걸 친 걸 말 안한 거야.)

102012 @ 예.(예.)

102012 #1 그 속에 뇌가 이상이 생긴 모양이라.(그 속에 뇌가 이상이 생긴 모양이야.)

102012 @ 지금이면 뇌출혈 같은 거 아니예?(지금이면 뇌출혈 같은 거 아닌가요?)

102012 #1 예. 겡헹은에 갑작스레.(예.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102012 @ 예.(예.)

102012 #2 에에, 우리 옛날에 천리를 잘못 해연. 우리 시아방, 우리 시아방 천리.(에에, 우리 옛날에 묘 이장을 잘못 했어.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묘 이장을.)

102012 @ 천리를 했구나예.(이장을 했었군요.)

102012 #2 섣ᄃᆞᆯ에 천리해연.(섣달에 이장을 했어.)

102012 @ 날 보안?(날을 보고요?)

102012 #2 섣ᄃᆞᆯ에 천리해신디 신구간[85]에 해신디 삼월 나난 홀연득벤이 가분 거라.(섣달에 묘 이장을 했는데 신구간에 했는데 삼월 나니 홀연히 갑자기 가 버린 거야.)

102012 @ 예.(예.)

102012 #2 삼월 열하루날 밤이. 날도 안 잊어불어.(삼월 열하루 날 밤에. 날도 안 잊어버려.)

102012 @ 아이고.(아이고.)

102012 #1 아이, 죽젠 ᄒᆞ난.(아이, 죽으려고 하니.)

102012 @ 아이고.(아이고.)

102012 #1 아이고 살아온 수모를 생각ᄒᆞ민.(아이고 살아온 수모를 생각하면.)

102012 @ 예.(예.)

102012 #1 난 아버지옌 말을 스물 ᄒᆞᆫ살에 가시아방한티 강 아버지렌 ᄒᆞ젠 하난 눈물이 괄괄괄.(나는 아버지라는 말을 스물한 살에 장인어른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콸콸콸.)

85) '신구간'은 제주의 이사철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 후 5일 째부터 새로 시작하는 입춘 3일 전까지 일주일 간. 이때에는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없어서 이사나 집수리를 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 길일이라고 여겨 일제히 이루어진다.

102012 @ 게난예.(그러니깐요.)

102012 #1 셋아버지, 말젯아버지, 족은아버지가 셔두, 아버지 소리를 못해 보고.(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해 보고.)

102012 @ 예.(예.)

102012 #1 동정을 우리 요만히 휴지 한 장 동정을 내 못 받앙 큰 놈.(동정을 우리 요만큼도 휴지 한 장 동정을 내가 못 받고 큰 놈.)

102012 @ 예.(예.)

102012 #2 아방 엇고게 홀어멍에 아들이렌 괜당이나 누게 괄세만 준 거주게.(아버지가 없고 홀어머니에 아들이라고 친척들이나 누가 괄시만 한 거지.)

102012 @ 예.(예.)

102012 #2 홀어멍 아들이옌.(홀어머니 아들이라고.)

102012 @ 지금은 어깨 힘주고 다니는디.(지금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102012 #1 시방은 다 나신디 나가 떨어져. 어떤 방상도.(시방은 모두 나한테 나가 떨어져. 어떤 친척도.)

102012 #2 시방은 살아시믄 욕이나 후려 들을 거주.(시방은 살아있으면 욕이나 실컷 들을 거지.)

102012 @ 예.(예.)

102012 #1 뿔리들 잘 죽엇주. 셔시믄 나한테 대게 고생들 받주[86].(빨리들 잘 죽었지. 있었으면 나한테 아주 고생을 받겠지.)

102013 @ 시집살이는 안 해수과?(시집 살이는 안 하셨어요?)

102013 #2 무사 시집살이를 안 헤여게.(왜 시집살이를 안했겠어.)

102013 @ 예.(예.)

102013 #2 시어멍광 날 잘도 미어낫다고.(시어머니는 나를 아주 미워하셨다고.)

102013 @ 무산고예?(왜 그러셨을까요?)

102013 #2 무사산듸 경 나를 미어허는게, 이 아들[87]은 각시 어드레만 막 다니고.(왜 그러셨는지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이 아들은 새로 각시를 얻으려고만 막 다니고.)

102013 @ 게난 싸움만 헤지고.(그러니까 싸움만 하게 되고.)

102013 #2 싸움만 ᄒᆞ니까 난 갈랑 나가분 거라.(싸움만 하니까 나는 갈라서 나가버린 거야.)

102013 #1 싸움도 경제적인 거 때문이우다. 경제적으로.(싸움도 경제적인 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102013 @ 예.(예.)

102013 #2 무사산듸 경 싸움만 현.(왜 그랬는지 그렇게 싸움만 했어.)

---

86) '고생들 받주'는 '곤욕을 치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87) '이 아들'은 문맥에서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102013 #1 돈 들어갈 일은 생기곡 말이우다.(돈 들어갈 일은 자꾸 생기고 말이에요.)

102013 @ 예.(예.)

102013 #1 경헤가가네 싸움만 해.(그렇게 하다 보니 싸움만 하게 돼.)

102013 @ 예.(예.)

102013 #1 싸움베끼 안 헤집디다. ᄃᆞ투단 보민.(싸움밖에 안 하게 됩디다. 다투다 보면.)

102013 @ 시어머니는 뭐렌 허멍 경 미웡헙디가?(시어머니는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합디까?)

102013 #2 뭐연 ᄒᆞ도 안ᄒᆞ고이. 경 날 미운체만 헹이.(뭐라고 하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척만 해.)

102013 @ 부지런한 메누리를.(부지런한 며느리를.)

102013 #2 놈의 집이서 아들 나도 왕 봐리나도 안해낫어.(남의 집에서 아들을 낳아도 와서 보지도 안했었어.)

102013 @ 아들을 나도?(아들을 낳아도?)

102013 #2 응. 아들 나도.(응. 아들을 낳아도.)

102013 @ 뚤 나민 경헌덴 ᄒᆞ는디.(딸을 낳으면 그렇게 하는데.)

102013 #2 놈의 집이서 애길 나도.(남의 집에서 아기를 낳아도.)

102013 @ 예.(예.)

102013 #2 우리 시어머니는 나신디왕 바려보도 안 헤여. 막 미원게.(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와서 바라보지도 않아. 마구 미워서.)

102013 #1 미인 게 아니주게.(미운 게 아니지.)

102013 #2 그때는 족은 각시 데려당 살 때주게.(그때는 작은 각시를 데려다가 살 때였거든.)

102013 @ 예.(예.)

102013 #1 족은메누리 눈 보져. 큰메누리신디 가면 족은메누리한티 미움을 받을 거고.(작은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큰며느리한테 가면 작은며느리한테 미움을 받을 거고.)

102013 @ 무사 족은 각시를 헙디가게?(왜 작은 각시를 했습니까?)

102013 #1 이 할망[88]하고 못 살암직헹.(이 할머니하고 못 살 것 같아서.)

102013 #2 족은 각시 얻어당 뚤 하나 봉갓주게[89].(작은 각시를 얻어 다가 딸을 하나 주었지.)

102013 @ 그 아기도 할머니가 키와수과?(그 아기도 할머니가 키웠습니까?)

102013 #2 아니. 지네 어멍.(아니, 그 애 엄마.)

102013 @ 친어멍이 키완.(생모가 키워서.)

---

88) '할망'은 이 문맥에서 할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89) '봉그다'는 원래 '줍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문맥 상 아이를 얻었다는 의미이다.

102013 #2 지네 어멍이 함덕서.(그 애 엄마가 함덕에서.)

102013 @ 예.(예.)

102013 #2 우리집이 호에 놓고, 그디 서방 얻어간 디 간 호에 놓고.(우리집 호적에 놓고, 거기 서방을 얻고 간 데 호적에도 놓고.)

102013 @ 그믄 어떵해? 경도 뒈는가?(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102013 #2 그 뚤은 양펜이 호에 놔진 아이.(그 딸은 양편 호적에 놓여 진 아이.)

102013 @ 아우 기꽈? 옛날에 경도 헤낫구나.(어머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었구나.)

102013 #2 옛날에 지네 어멍이 무사산듸 서방 얻은 디 강 또 호에 놔 분 거라.(옛날에 그 애 엄마가 왜 그런지 서방을 얻고 간 데 가서 또 호적에 놔 버린 거야.)

102013 @ 예.(예.)

102013 #2 몽니로 건가? 이?(몽니로 그런 건가? 이?)

102013 @ 시어머니는 족은 메누리 때문에 미웡해신가예?(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 때문에 미워하신 걸까요?)

102013 #2 몰라.(몰라.)

102013 @ 곶치 안사니까 이거 굿다 저거 굿다는 안 헤실거 아니꽈?(같이 안사니까 이거 싫다, 저거 싫다는 하지 않으셨을 거 아네요?)

102013 #2 경헨 우리 시어머니도 저 서화리 족은 아들 양제 ᄃᆞ렌 ᄒᆞ난.(그리고 나서 우리 시어머니도 저 세화리 작은 아들을 양자를 달라 하니까.)

102013 @ 예.(예.)

102013 #2 족은 아들 양제 줜 서화리 가불언.(작은 아들을 양자를 주고 나서 세화리에 가버렸어.)

102013 @ 아.(아.)

102013 #2 양제칩이 족은 아들 데령 가부난 완전 갈라 졌주기.(양자집에서 작은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니 완전 갈라져 버렸지.)

102013 @ 할아버지는 완전 혼자랐구나예.(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였었군요.)

102013 #2 응, 응.(응, 응.)

102013 @ 예.(예.)

102013 #2 게난 양제 간 거기서 살당.(그러니까 양자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102013 @ 예.(예.)

102013 #2 그 집이 아들이 각시 얻어당 아들을 난거라.(그 집이 아들이 각시를 얻어다가 아들을 낳은 거야.)

102013 @ 양자를 가신디마씨?(양자를 갔는데요?)

102013 #2 응. 양을 ᄃᆞᆯ앙 가신디, 거기서 페양.(응. 입양시키러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파양.)

102013 @ 파양마씨?(파양이요?)

102013 #2 ᄃᆞᆯ아가렌ᄒᆞ난. 거기서이 밧도 주고이.(돌아가라고 하니깐. 거기서는

밭도 주고.)
102013 @ 예.(예.)
102013 #2 쉐도 하나 주고이.(소도 한 마리 주고.)
102013 @ 예.(예.)
102013 #2 돈도 주고.(돈도 주고.)
102013 @ 예.(예.)
102013 #2 또 우리 시아지방이 이디 오란 땅을 막 널은 거 사고.(또 우리 시아주버니가 여기 와서 땅을 막 넓은 거 사고.)
102013 @ 예.(예.)
102013 #2 여기 대물동네옌 헌디강 집도 사고.(여기 '대물동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도 사고.)
102013 @ 예.(예.)
201013 #2 그냥 이제, 그냥 이제 갈라지분 동세하고 살아시민 우리 킷징히 부제 노릇 할거라.(그냥 이제, 그냥 이제 갈라져버린 동서하고 계속 살았으면 우리는 나란히 부자 노릇 할거야.)
102013 @ 근디 무사 문딱 팔앙 육지 가불엇수과?(그런데 왜 모두 팔고 육지에 가버리셨어요?)
102013 #2 우리 시아지방 뒤에 여자가이 열 멧개라.(우리 시아주버님 뒤로 여자가 열 몇이라.)
102013 @ 인물이 할아버지랑 비슷하구나예.(인물이 할아버지하고 비슷하시군요.)
102013 #2 이 성보다 더 잘낫주게.(이 형보다 더 잘 났지.)
102013 @ 아이고.(아이고.)
102013 #2 여자만 여자만이.(여자만 여자만이.)
102013 @ 아이고.(아이고.)
102013 #2 얻엉 내불곡, 얻엉 내불곡.(얻고 내버리고, 얻고 내버리고.)
102013 @ 아이고.(아이고.)
102013 #2 난 아들도이 어디 굴렁팟 각시에 난 아들 열시술 난 거 죽어불고이.(낳은 아들도 어디 구렁지에 살던 각시한테서 낳은 아들 열세 살 난 애가 죽어버리고.)
102013 @ 아이고.(아이고.)
102013 #2 시엣 각시에도 아들 ᄒᆞ나 난 시살 난거게.(제주시에 살던 각시한테도 아들 하나 낳았는데 세 살 난 아이한테.)
102013 @ 예.(예.)
102013 #2 사라봉 강 아들 약 멕이고 지도 약 먹엉 죽어불고이.(사라봉에 가서 아들 약 먹이고 자기도 약 먹고 죽어버리고.)
102013 @ 그 각시가?(그 각시가요?)

102013 #2 응. 그 각시가.(응. 그 각시가.)

102013 @ 예.(예.)

102013 #2 경헹 가는 게 우리 시아지방이 잘 안 뒈언.(그렇게 일이 돌아가는 게 우리 시아주버님이 잘 안 되었지.)

102013 @ 예.(예.)

102013 #2 으 대물동네 집 셔나신디.(여기 '대물동네'에 집도 있었는데.)

102013 @ 원래 각시 이실 거 아니?(원래 각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2013 #2 으 송당 아이 장개 간.(여기 송당 아이한테 장가를 갔지.)

102013 @ 예.(예.)

102013 #2 경헤도 그 각시에 애기 오누이.(그래도 그 각시에 아기 오누이.)

102013 @ 예.(예.)

102013 #2 각시 수천이라도 애기가 그거 매기.(각시가 수천 명이라도 아기라고는 그 뿐.)

102013 @ 기?(그래요?)

102013 #2 각시 열둘인가 뒈어.(각시가 열둘인가 되어.)

102013 @ 동세도 엇이.(동서도 없이.)

102013 #2 동세도 엇고.(동서도 없고.)

102013 @ 예.(예.)

102013 #2 시누이도 엇고.(시누이도 없고.)

102013 @ 예.(예.)

102013 #2 시어머니도 엇고.(시어머니도 없고.)

102013 @ 예.(예.)

102013 #2 혼자만.(혼자만.)

102013 @ 시집살이가 혼자 다 허젠 헤부난 그게 힘든거구나예?(시집살이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 그게 힘든 거였군요?)

102013 #2 혼자, 혼자.(혼자, 혼자.)

102013 @ 혼자 외로운 게예.(혼자 외롭네요.)

102013 #2 ᄉᆞ춘 동세, 셋시아방 메누리 싯당.(사촌 동서, 둘째 시아버지 며느리가 있다가.)

102013 @ 예.(예.)

102013 #2 그 동세도 이리 오고, 나도 그디 가고.(그 동서도 이리 오고, 나도 거기 가고.)

102013 @ 예.(예.)

102013 #2 서로가 그리 가당 그 동세 죽어부난.(서로가 그리 가다가 그 동서가 죽어버려서.)

102013 @ 예.(예.)

102013 #2 이럭저럭 원. 나 하나베끼 엇언.(이럭저럭 원. 나 혼자 밖에 없어서.)

102015 @ 할머니 사남 이녀는 시집 장가들 잘 갓지예?(할머니 사남 이녀는 시집 장가들 잘 갔죠?.)

102015 #2 으, 잘간.(응, 잘 갔어.)

102015 @ 다 시에 살암수과?(모두 시에 살고 있습니까?)

102015 #2 다섯 오누이가 몬 시에. 시에 살암서.(다섯 오누이가 모두 제주시에. 제주시에 살고 있어.)

102015 @ 육지 안 가고마씨?(육지 안 가고요?)

102015 #2 육지 가젠 허는 거, 그때 광주 ᄉᆞ태 나고 하난.(육지로 가려는 거, 그때 광주 항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102015 @ 예.(예.)

102015 #2 그냥 우리 큰뚤도 육지만 셔나고.(그냥 우리 큰딸도 육지에만 있었고.)

102015 @ 예.(예.)

102015 #2 들어오라 들어오라.(들어와라 들어와라.)

102015 @ 예.(예.)

102015 #2 큰아들도 육지만 셔낫주게. 육지 셔 낫주, 다.(큰아들도 육지에서만 살았었지. 육지에 있었어, 다.)

102015 @ 예.(예.)

102015 #2 이레 오라오라 ᄒᆞ멍 ᄆᆞ딱 해놘.(여기로 오라오라 하면서 모두 내려오게 해놨지.)

102015 @ 예.(예.)

102015 #2 지금은 후회나. 육지라도 하나 셔야 조을 건디.(지금은 후회해. 육지에 하나라도 있어야 좋을 건데.)

102015 @ 하하하.(하하하.)

102015 #2 아유, 후회나.(아휴, 후회 뒈.)

102015 @ 순서가 어떵 됨수과?(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02015 #2 젤 우위가 뚤, 제일 아래가 뚤.(제일 위가 딸, 제일 아래가 딸.)

102015 @ 가운데 주루룩 아들이꽈?(가운데 주루룩 아들입니까?)

102015 #2 응. 가운데 아들만 니개 낫주.(응. 가운데 아들만 네 명을 낳았지.)

102015 @ 사위들은 다 어디 사름이과?(사위들은 다 어디 사람입니까?)

102015 #2 시에 사름.(제주시 사람.)

102015 @ 메누리는 어디과?(며느리는 어디예요?)

102015 #2 하나는 신산이. 하나는 용당. 하나 아은 토산, 흐흐.(하나는 신산. 하나는 용당. 하나 아이는 토산, 흐흐.)

102015 @ 제주도 하나를 다 해신게.(제주도 하나를 다 했네요.)

102015 #2 큰 메누리가 용당.(큰 며느리가 용당.)

102015 @ 큰 메누리가 용당마씨?(큰 며느리가 용당이에요?)

102015 #2 응, 우리 큰메누리가 제일 모쩐딜 거주.(응,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힘들 거지.)

102015 @ 무사마씨?(왜요?)

102015 #2 시어멍 시아방, 친정 어멍 아방.(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102015 #1 거 두 번짜주. 두 번짜.(그거 두 번째지. 두 번째.)

102015 @ 예?(예?)

102015 #1 대구 아이 이혼해뒁.(대구 아이랑 이혼하고 나서.)

102015 #2 큰 아들도 두 번 장개 간.(큰 아들도 두 번 장가를 갔어.)

102015 @ 음. 두 번 장개간마씨?(음, 두 번 장가를 갔습니까?)

102015 #1 두 번 결혼 시겼주.(두 번 결혼을 시켰지.)

102015 #2 하나 저, 대구 지지빠이 잘도 착한 아이인디.(하나 저, 대구 여자 아주 착한 아이인데.)

102015 @ 무사 보내불엇수과?(왜 보내셨어요?)

102015 #2 보내불어서게? 가인 막 살젠만 헤신디.(보내버렸겠어? 그 애는 막 살려고만 했는데.)

102015 @ 예.(예.)

102015 #2 우리 아들이 ᄒᆞ도 못살게 해부난 오꼿 가부련.(우리 아들이 하도 못살게 하니 그만 가버렸지.)

102015 @ 예.(예.)

102015 #2 가부난 어떵 또 용당 아이를 알앙은에.(가버리니까 어찌 또 용당 아이를 알고.)

102015 #1 착해서. 내 이제도 생각나 가이, 대구 아이.(착했어. 나 지금도 생각나 그 아이, 대구 아이.)

102015 @ 예.(예.)

102015 #2 대구 아이 춤말로 착하고.(대구 아이 참말로 착하고.)

102015 @ 예.(예.)

102015 #1 그때 목걸이영 예단 헤준 거.(그때 목걸이랑 예단 해준 거.)

102015 @ 예.(예.)

102015 #1 가락지영 다 갖다당 시아방한테 보내멍.(가락지랑 다 가져다 시아버지한테 보내고.)

102015 #2 봉투에 딱 혜영 여기 보내연.(봉투에 딱 해서 여기로 보냈어.)

102015 @ 예.(예.)

102015 #1 이름도 잊어불지 안 헤여.(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

102015 @ 예.(예.)

102015 #2 정아, 정아.(정아, 정아.)

102015 @ 요즘은 그런 사람 엇인디예.(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102015 #2 보냄이랑 마랑 돈이라도 더 할타먹젠 허주.(보내기는커녕 돈이라도 더 핥아 먹으려고 하지.)

102015 @ 예.(예.)

102015 #2 거 무시 거허젠 보내여 오꼿 먹어 불거주.(그거 뭐하려고 보내 그대로 먹어 버릴 거지.)

102015 @ 예.(예.)

102015 #1 아이고 그 세월에 ᄌᆞ식 다섯 개 키워내젠 허난양. 제주시에 돈 ᄀᆞᆯ앗수다, 이 길에.(아이고 그 세월에 자식 다섯 명을 키워내려고 하니. 제주시에 돈을 깔았습니다, 이 길에다가.)

102015 @ 하하하.(하하하.)

102015 #1 게난 싸움베끼 안 헤여.(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해.)

102015 @ 아이들 키우젠 허난 할 수 이수과게.(아이들 키우려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102015 #1 조왕을 ᄋᆞ섯 군데를 헤낫수다.(조왕을 여섯 곳에서 했어요.)

102015 @ 예.(예.)

102015 #1 대구에도 두 군데, 서울에도 ᄒᆞᆫ 군데, 제주시에도 ᄒᆞᆫ 군데, 서화리에도 ᄒᆞᆫ군데, 밥 해먹는 조왕이 대ᄋᆞ섯 군데나 출려나서.(대구에도 두 곳, 서울에도 한 곳, 제주시에도 한 곳, 세화리에도 한 곳, 밥 해먹는 조왕을 대여섯 군데나 차렸었어요.)

102015 @ 아.(아.)

102015 #1 아이들 다 ᄌᆞ식 시키멍. 다.(아이들 다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다.)

102015 #2 큰 뚤은 서울 양산이렌 ᄒᆞᆫ 디.(큰 딸은 서울 양산이라는 하는 곳에.)

102015 @ 음.(음.)

102015 #2 우리 메 족은건 서화리.(우리 제일 작은 건 세화리.)

102015 @ 음.(음.)

102015 #2 또 아들 하난 대구.(또 아들 하나는 대구.)

102015 @ 음.(음.)

102015 #2 하난 시에. 하하.(하나는 제주시에. 하하.)

102015 @ 음.(음.)

102015 #1 또 하난 전주.(또 하나는 전주.)

102015 @ 다들 공부를 영 멀리강 해부니까 조왕을 따로 따로 했다고마씨?(다들 공부를 이렇게 멀리 가서 해버리니까 조왕을 따로 따로 했다고요?)

102015 #1 겨난 저 밥 해먹는 위치가 조왕이렌 헙주게. 하하하. 옛날말로.(그러니까 저 밥 해 먹는 위치가 조왕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옛날말로.)

102015 @ 아.(아.)

102015 #1 그 위치가 대ᄋᆞ섯 군델 출려노난.(그 위치가 대여섯 군데를 차려 놓으니.)

102015 @ 게난.(그러니까.)

102015 #1 집이서 일헐 순간이란 게 별로 엇어수다.(집에서 일하는 순간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102015 @ 아.(아.)

102015 #1 나사민 어디 두어 밧디 강 그것들 정리시겨 두고, 무신 쏠이라도 가정 강 비와둬 두고, 뭐 뭐 해먹으라.(나서면 어디 두어 군데 가서 그것들 정리시켜 두고, 무슨 쌀이라도 가지고 가서 비워주고, 뭐 뭐 해 먹어라.)

102015 @ 아.(아.)

102015 #1 우리는 옛날 국죽이라고양 알란지. 국죽.(우리는 옛날에 국죽이라고 알는지. 국죽.)

102015 @ 음.(음.)

102015 #1 국죽. 피쏠이나 좁쏠을 좀 노면은 ᄂᆞ믈만 퍼 담아놔.(국죽. 피나 좁쌀을 조금 넣으면 나물을 한껏 담아 넣어.)

102015 @ 음.(음.)

102015 #1 게민은 죽을 걸이젠 보면은 문딱 다 ᄂᆞ믈 건더기라, 영.(그러면 죽을 뜨려고 보면 전부 다 나물 건더기야, 영.)

102015 @ ᄂᆞ믈 건더기?(나물 건더기요?)

102015 #1 야. 게민 그걸 어떵헙니까? 그걸 우리가 먹어야지.(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먹어야지.)

102015 @ 음.(음.)

102015 #1 그걸 쥐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그것을 주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102015 @ 음.(음.)

102015 #1 국죽을 양 ᄒᆞᆫ둘이민 어떻든지 이십일은 먹엇수다. 밥이옌 헌 거양 힘들엇수다.(국죽을 한 달이면 어떻게든지 이십일은 먹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었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2 밥이옌 ᄒᆞᆫ 건 감저 놩 조팝헹.(밥이라고 하는 건 고구마를 넣고 좁쌀밥을 하고.)

102015 #1 눌려왕 먹젠ᄒᆞ니까. 쏠 엇이난.(늘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쌀이 없으니까.)

102015 @ 음.(음.)

102015 #2 감저놩 좁쏠놩 밥헤영.(고구마 넣고 좁쌀 넣고 밥을 하고.)

102015 @ 진짜 어려운 시절이라나서예.(진짜 어려운 시절이였지요.)

102015 #1 에이고.(에이고.)

102015 #2 옛놀은 보리쏠이 어디 셔. 곤쏠이 어디 셔. 에이고.(옛날에는 보리쌀이 어디 있어. 흰쌀이 어디 있어. 아이고.)

102015 @ 메누리 사위는 다 착헌 사름 온 모양이우다.(며느리 사위는 모두 착한 사람들이 온 모양이에요.)

102015 #1 아, 시방은 지네들 살젠 허난 어떵.(아, 시방은 자기들이 살려고 하니 어떡해.)

102015 #1 흐흐흐.(흐흐흐.)

102015 @ 흐흐흐.(흐흐흐.)

102015 #1 시방 우리는 벌 소득은 엇고. 손은 벌리지 안 헤염주게. 이젠게.(시방은 우리는 벌어들일 소득은 없고. 손은 벌리지 않고 있지. 이제는.)

102015 @ 이젠 경허믄 안 뒈주마씨.(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02015 #1 지네들 갈 길 다 가니까 말이여.(자기들 갈 길 가니까 말이야.)

102015 @ 예.(예.)

102015 #2 다들 기자 나이들 들고 이.(다들 그저 나이들 들고.)

102015 @ 예.(예.)

102015 #2 이제. 몬 자리 잡고게.(이제 모두 자리 잡고.)

102015 @ 잘 키워서 이젠 자리들 잘 잡앗수게.(잘 키워서 이제는 자리들을 잘 잡았잖아요.)

102015 #2 지네들 애기들 커 가멍이.(자기들 아이들이 커 가면서.)

102015 @ 예.(예.)

102015 #2 군인도 보내고.(군대도 보내고.)

102015 @ 경허난예.(그러게 말이에요.)

102015 #2 학교도 시기곡. 해봐사. 우리 어머니 아바지 아, 영했는가.(학교 공부도 시키고. 해 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 이렇게 했는가.)

102015 @ 그렇지예. 영 어려워나신가 허멍예.(그렇지요. 이렇게 어려웠었나 하면서요.)

102015 #2 응, 정헐 거주.(응, 저렇게 할 거지.)

102015 #1 어려운 거 모릅디다.(어려운 거 모르던데요.)

102015 @ 아이유, 나도 잘 몰라마씨. 흐흐흐.(아이유, 저도 잘 몰라요. 흐흐흐.)

102015 #2 흐흐.(흐흐.)

102015 #1 이게 아이들 몬 사온 거.(이게 아이들이 모두 사온 거.)

3. 밭일

103001 @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1 #1 농사. 옛날이라 별거 이서수과?(농사. 옛날이라서 특별한 것이라고 있었습니까?)

103001 @ 무슨 무슨 농사 헤난마씨?(무슨 무슨 농사를 하셨습니까?)

103001 #1 게난 송당에서 제일 문여 농사를 짓기 시작헌 것이 ᄀᆞ랑조[90]하고 피.(그러니까 송당에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ᄀᆞ랑조'하고 피.)

103001 @ 아. 조하고 피.(아. 조하고 피.)

103001 #1 아니, 조는 낭중에.(아니, 조는 나중에.)

103001 @ 예.(예.)

103001 #1 ᄀᆞ랑조라고 이서수다.('ᄀᆞ랑조'라고 있었습니다.)

103001 @ ᄀᆞ랑조. 그거 무시거꽈?('ᄀᆞ랑조'. 그것은 무슨 겁니까?)

103001 #1 ᄀᆞ랑조라는 게 ᄀᆞ락[91] 닮은 건데.('ᄀᆞ랑조'라는 게 'ᄀᆞ락' 닮은 것인데.)

103001 @ 예.(예.)

103001 #1 쏠이 나룩이 많이 납니다.(쌀이 쌀알이 많이 나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그런데 사나와서 먹질 못헤여.(그런데 거칠어서 먹지를 못해요.)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옛날도 그건 쏠이 많이 납니다.(옛날에도 그것은 낟알이 많이 나왔습니다.)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견디 요즘은 그런 조가 시방 엇일 거라.(그런데 요즘은 그런 조가 시방 없을 거야.)

103001 @ 음.(음.)

103001 #1 야. 피는 그런대로 괜찮으우다.(예, 피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피는 갈앙은에 쏠헹 먹고. 그 다음에.(피는 농사를 지어서 쌀로 먹었고. 그 다음에.)

103001 @ 또 뭐 해난마씨?(또 뭐 했었습니까?)

103001 #1 갈산듸[92]라고.('갈산듸'라고.)

103001 @ 예.

103001 #1 검은 산듸가 이서수다.(검은 밭벼가 있었습니다.)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시방 쏠 닮지 안 헤영 막 사나웁니다.(시방 쌀 같지 않아서 막 거칩니다.)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그게 그 옛날 곤밥[93]이렌 허영 제사에 ᄒᆞ곡. ᄒᆞ는 거. 갈산듸.(그것이 그 옛날에 '곤밥'이라고 해서 제사에 하고. 하는 것. 검은 밭벼.)

---

90) 'ᄀᆞ랑조'는 조의 일종이다.
91) 'ᄀᆞ락'은 식물의 일종이다.
92) '갈산듸'는 밭벼의 일종이다. 검은 밭벼라고 한다.
93) '곤밥'은 발쌀로 지은 밥이다. 흰쌀밥을 말한다.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그 다음, 녹산듸[94]라고 노랑한 산듸우다. 껍질이 노란 거우다.(그 다음, '녹산듸'라고 노란 밭벼입니다. 껍질이 노란 거예요.)

103001 @ 예.(예.)

103001 #1 그 다음에 찹쏠이 나온 거. 찹쏠.(그 다음에 찹쌀이 나온 거. 찹쌀.)

103001 @ 예.(예.)

103001 #1 석상배 쏠이라고. 건 우리말로 석상배 쏠.(석상배 쌀이라고. 그건 우리말로 석상배 쌀.)

103001 @ 석상배 쏠은 무슨 뜻이꽈?(석상배 쌀은 무슨 뜻입니까?)

103001 #1 건 모릅주.(그건 모르겠어요.)

103001 @ 예.(예.)

103001 #1 옛 어른들이 이건 석상배 쏠이다. 이건 좋은 쏠이다.(옛날 어른들이 이건 석상배 쌀이다. 이건 좋은 쌀이다.)

103001 @ 아.(아.)

103001 #1 좋은 쏠이다, 이런 말에서 그건 껍질이 노립니다.(좋은 쌀이다. 이런 말에서 그건 껍질이 노랗습니다.)

103001 @ 음. 다른 농사는 안 해난마씨?(음. 다른 농사는 안 하셨습니까?)

103001 #1 다른 농사옌 허는 거.(다른 농사라고 하는 거.)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지슬 같은 거 조금 ᄒᆞ고 양.(감자 같은 거 조금 하고요.)

103001 @ 지슬도 ᄒᆞ고.(감자도 하고.)

103001 #1 무수 같은 거양.(무 같은 거요.)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요즘 분이민 그런 ᄂᆞ믈들 아니 먹습니다.(요즘 분이면 그런 나물들을 안 먹습니다.)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무수가 또 그 아이고, 밧디 풀ᄂᆞ믈 뿔리 닮은 거주. 무수가 상당히 사나왕.(무가 또 그 아이고, 밭에 나는 풀나물 뿌리 같은 거지. 무가 상당히 거칠어요.)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겐디 국을 끓리민 우리 입에는 맞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 입에는 맞질 안헙니다.(그런데 국을 끓이면 우리 입에는 맞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 입에는 맞질 않습니다.)

103001 @ 아하.(아하.)

보리 농사

94) '녹산듸'는 밭벼의 일종이다.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보리농사는 헤벤과 이디가 차이가 큽니다.(보리농사는 해안마을과 여기가 차이가 큽니다.)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헤벤은 듬북, 듬북, 감테 같은 것이 밑거름으로 사용하고.(해안마을은 듬북, 듬북, 감태같은 것을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웃걸름[95]으로는 요즘 우리 비료에 물탕 쓰듯이.('웃걸름'으로는 요즘 우리 비료에 물을 타서 쓰듯이.)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오좀, 오좀을 받앙 낫당 발효시킴이주게. 물 들어가지 못하게 석영.(오줌, 오줌을 받아서 두었다가 발효시키는 것이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섞어서.)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황에 큰 황에다가 오좀을 갖다 놓고 비와 놓고 석는 것이 발횹주.(독에 큰 독에다가 오줌을 가져다 놓고 비워서 놓고 섞는 것이 발효지요.)

103002 @ 예.(예.)

103002 #1 겡 물 아이 들어가게 해놧당.(그렇게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놨다가.)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으, 보리가 정월 나면은.(어, 보리가 정월이 나면.)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그 전이도 보리를 밟아수다만은 볿으지 못한 사람은 오좀을 지면서 그걸 뿌리는 거라. 물박으로 걸이멍다가.(그 전에도 보리를 밟았습니다만 밟지 못한 사람은 오줌을 지어 가서 그걸 뿌리는 거라. 물바가지 같은 것으로 길으면서.)

103002 @ 보리 뿌린 데다가마씨?(보리 뿌리 곳에다가 말입니까?)

103002 #1 보리 뿌린 데다가.(보리 뿌린 곳에다가.)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그거 웃걸름이 뒈는 거라.(그게 '웃걸름'이 되는 거라.)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요즘 같은 요소 비료 탕은에 물 뿌리는 거 식으로.(요즘 같은 요소 비료를 타서 물 뿌리는 식으로.)

103002 @ 예. (예.)

103002 #1 그 식으로다가 헤벤은 보리를 갈고.(그 식으로다가 해안마을은 보리를 갈고.)

103002 @ 예, 예.(예, 예.)

95) '웃걸름'은 농작물 위에다 하는 거름을 말한다.

103002 #1 여기는 그런 건 안 헷수다.(여기는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안 허고 여기는 그 축산지대라서 송당 가는 건 시방 산파로 막 뿌립니다.(안 하고 여기는 그 축산지대라서 송당 가는 건 시방 산파로 막 뿌립니다.)

103002 @ 돗걸름을 안허고마씨?(돼지거름을 안 하고 말입니까?)

103002 #1 게난 그 요 중간부터는 골보리여, 뭐여 헷지만은 산파로 막 뿌려놩. 소걸름이렌 이수다.(그러니까 그 요 중간부터는 골보리다, 뭐다 했지만은 산파로 막 뿌려놓고. 쇠두엄이라고 있습니다.)

103002 @ 아, 예.(아, 예.)

103002 #1 여기 축산지대니까.(여기가 축산지대니까.)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걸름이옌 헌게 쉐걸름 하나. 하나인데.(거름이라고 하는 게. 쇠두엄 하나. 하나인데.)

103002 @ 아.(아.)

103002 #1 쉐걸름을 일 년 내 놧당.(쇠두엄을 일 년 내 놓았다가.)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뒷 해에는 걸 실어다가 밧에 뿌리는데.(다음해에는 그걸 실어다가 밭에 뿌리는데.)

103002 @ 예.(예.)

103002 #1 발효가 아이 뒈면은 양 자라는 률이 좀 더디곡.(발효가 안 되면은 자라는 비율이 좀 더디고.)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발효뒈지 않은 놀 거 앗당 뿌리면 걸름 효과라는 걸 모릅주게.(발효되지 않은 날 것을 가져다 뿌리면 거름 효과라는 것을 모릅니다.)

103002 @ 예.(예.)

103002 #1 경헹 걸름 뿌려놓고 씨 뿌려놔낭 이제 밧을 갈면은 이게 골띠기는 못 갑주.(그래서 거름을 뿌려놓고 씨를 뿌려 놓고 나서 이제 밭을 갈면 이게 골로는 못 갑니다.)

103002 @ 예? 골띠기마씨?(예? 골요?)

103002 #1 골띠기렌 헌거는.(골이라고 하는 것은.)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밧을 영 갈아강 영 덮어 오는 겁주.(밭을 이렇게 갈고 가서 이렇게 덮어 오는 겁니다.)

103002 @ 예.(예.)

103002 #1 양쪽에 덮어 오는 거고.(양쪽에서 갈고 덮고 오는 것이고.)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네벳띠기[96]로 갈지 안 헤영은 못 갈아.('네벳띠기'로 갈지 않고서는

못 갈아요.)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네벳띠기엔 허는 거는 영 갈아가면은 벳[97]이 일로 두 번 덮어지곡 절로 강 또 갈아가면은 일로 두 번.('네벳띠기'라는 한 것은 이렇게 갈아 가면 '볏'이 이리로 두 번 덮어지고 저리로 가서 또 갈다보면 이리로 두 번.)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게면은 네벳띠기 밧 파니가 뒈는 거라.(그러면 네벳띠기 밭뙈기가 되는 거야.)

103002 @ 음.(음.)

103002 #1 게면은 거기서 뒈면은 해 먹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그러면 거기서 되면 해서 먹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게중에 보토라는 게, 요즘의 보통. 빌레 우이도 헤변이도 마찬가지우다.(그 중에는 보토라는 게, 요즘의 보통. 너럭바위 위도 해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03002 @ 음.(음.)

103002 #1 빌레 우이도 혹 파당 놩.(너럭바위 위에도 흙을 파다 놓고.)

103002 @ 예.(예.)

103002 #1 거기 마늘도 심곡.(거기 마을도 심고.)

103002 @ 아.(아.)

103002 #1 또 그 혹을 파다 노면은 어디든지 걸름이 됩니다.(또 그 흙을 파다가 놓으면 어디든지 거름이 됩니다.)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어떤 밧이든지. 혹을 보충 시켜주니까.(어떤 밭이든지. 흙을 보충 시켜주니까.)

103002 @ 어디 강 갖당 헙니까?(어디에 가서 가져다 합니까?)

103002 #1 양?(네?)

103002 @ 어디 신 혹 갖당은에.(어디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103002 #1 아. 게 그전엔 혹이 늘어져 십주.(아. 그게 그전에는 흙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아무데라도 가민 그냥 양 혹만 파오민 그자 엄청난 걸름이라.(아무데라도 가면 그냥 흙을 파오면 그저 엄청난 거름이야.)

103002 @ 아.(아.)

103002 #1 혹만 갖당 뿌리민.(흙만 가져다 뿌리면.)

---

96) '네벳띠기'는 좌우 두 이랑씩 네 개의 이랑으로 한 두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법.
97) '벳'은 쟁기 보습 위에 대는 조각으로 볏을 말한다.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시방도 혹 갖당 뿌리민 걸름이 뒈주만은. 그 이상 걸름은 어습주.(시방도 흙을 가져다가 뿌리면 거름이 되지만. 그 이상의 거름은 없지요.)

103002 @ 아.(아.)

103002 #1 혹 놓는 것이 첫째. 야.(흙을 놓는 것이 첫째. 예.)

103002 @ 그냥 아무 흙이나 허믄 뒈마씨?(그냥 아무 흙이나 하면 되는 겁니까?)

103002 #1 아니, 아니. 아무 흑이나 아이 뒈어.(아니, 아니. 아무 흙이나 아니 되어.)

103002 @ 좋은 흙이 이실 거 아니꽈?(좋은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3002 #1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혹을 끌아야 뒈어.(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흙을 깔아야 되어.)

103002 @ 아.(아.)

103002 #1 헤벤이는 헤벤이 대로 촌혹이면 촌혹.(해안마을은 해안 마을대로 촬흙이면 촬흙.)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여기면 여기대로 산성화된 뜬 흑[98].(여기면 여기대로 산성화된 뜬 흙.)

103002 @ 뜬 혹.(뜬 흙.)

103002 #1 흑이 여러 가지우다.(흙이 여러 가지입니다.)

103002 @ 예.(예.)

103003 @ 보리밧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03 #2 옛날은이 소걸름.(옛날에는 쇠두엄.)

103003 @ 아. 소걸름으로 했구나.(아. 쇠두엄을 했구나.)

103003 #2 소걸름. 쉐막에 거.(쇠두엄. 외양간에 거.)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문 산테[99]에 헤놩.(모두 '산테'에 해 놓고.)

103003 @ 예. 산테에 헤놩.(예. '산테'에 해놓고.)

103003 #2 산테 알아지젠?('산테' 알겠어?)

103003 @ 예.(예.)

103003 #2 그 산테에 내놩 하르방은 앞이 들르곡 나는 뒤에 들르곡.(그 '산테'에 내 놓고 할아버지는 앞에서 들고 나는 뒤에서 들고.)

103003 @ 아, 경헤낫구나예.(아, 그랬었군요.)

103003 #2 산테로 그 걸름 내놩 눌어.('산테'로 그 거름을 만들어 놓고 쌓아.)

---

98) '뜬흑'은 차진 기가 조금도 없고 부슬부슬한 흙이다.

99) '산테'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이다.

103003 @ 어디 강마씨?(어디 가서 말이에요?)

103003 #2 어디 강. 마당 한 편이 눌르당가 올레 한 편이 눌라당가이.(어디 가서는. 마당 한 켠에 쌓거나 올레 한 켠에 쌓든가.)

103003 @ 예.(예.)

103003 #2 해천 그 걸름 내 다가 눌었다가.(하루 종일 그 거름을 내어다가 쌓았다가.)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걸름이 이제 우락우락 듯듯허거면은 그거를 밧디 싣거 가는 거라.(거름이 이제 후끈후끈 뜻뜻해지면 그것을 밭에 싣고 가는 거야.)

103003 @ 예. 보리는마씨?(예. 보리는요?)

103003 #2 경헹 보리 가는 거.(그렇게 해서 보리를 가는 거.)

103003 @ 서끄지 않고마씨?(섞지 않고요?)

103003 #2 서끄지 안해.(섞지 않아.)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경헹 걸름 시꺼다가 밧디 막 뿌려.(그렇게 거름을 실어다가 밭에 막 뿌려.)

103003 @ 아, 막 뿌려.(아, 막 뿌려요.)

103003 #2 뿌려놓고 밧디 씨 삐곡 허는 거라.(뿌려놓고 밭에 씨를 뿌리고 하는 거야.)

103003 @ 그냥 뿌려.(그냥 뿌려.)

103003 #2 어, 어. 씨 삐영 갈아.(어, 어. 씨 뿌려서 갈아.)

103003 @ 경헹 갈아.(그렇게 해서 갈아.)

103003 #2 경해야 씨가게.(그렇게 해야 씨가.)

103003 @ 잠대로마씨?(쟁기로요?)

103003 #2 으. 잠대로.(응. 쟁기로.)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잠대로 갈아오고.(쟁기로 갈아오고.)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경헹 봄 나민 보리밧디 검질메곡.(그렇게 봄이 되면 보리밭에 김매고.)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가을리 구월달쯤 보리 갈면 겨울리 보리검질 메여.(가을에 구월쯤 보리를 갈면 겨울에 보리 김매.)

103003 @ 겨울에 강 검질을 메어야 뒈마씨?(겨울에 가서 김을 매야 돼요?)

103003 #2 으. 검질메여.(응. 김매.)

103003 @ 아이고.(아이고.)

103005 @ 보리는 어떻게 뿌립니까?(보리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 보리는 정월에 씨 뻡니까?(보리는 정월에 씨를 뿌립니까?)
103005 #1 아니 더 전에.(아니 더 그 전에.)
103005 @ 예, 예.(예, 예.)
103005 #1 지대로 갑니다.(지대로 갑니다.)
103005 @ 송당은마씨?(송당은요?)
103005 #1 여기는 고지대거든.(여기는 고지대거든.)
103005 @ 예, 예.(예, 예.)
103005 #1 고지대니까 저 헤벤보다는 이십일 믄여 해야지.(고지대니까 저기 해안마을보다는 한 이십일 먼저 해야지.)
103005 @ 먼저 해야지예.(먼저 해야지요.)
103006 @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보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6 #1 보리?(보리?)
103006 @ 예, 보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마씨?(네. 보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103006 #1 헤헤헤. 보리 가지는 요즘 말로는 쉬왕 이거여 저거여들 허는데.(헤헤헤. 보리 종류는 요즘 말로는 쉬워서 이거다 저거다들 이야기 하는데.)
1030065 @ 예, 예.(예, 예.)
103006 #1 솔오리하고 겉보리하고 무신 지레 큰 보리.(쌀보리하고 겉보리하고 무슨 키 큰 보리.)
103006 @ 지레 큰 보리?(키 큰 보리요?)
103006 #1 야야. 지레 큰 보리라고 아마 대맥이라고 헐 거우다. 그게.(네네. 키 큰 보리라고 아마 대맥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103006 @ 대맥이.(대맥이.)
103006 #1 지레 큰 보리라고 하는 게 나 키만이 커, 이만이.(키 큰 보리라고 하는 것이 내 키만큼 커. 이만큼.)
103006 @ 아.(아.)
103006 #1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
103006 @ 예, 예.(예, 예.)
103006 #1 밀도 그전이 딱 혼 가지베끼 안 헤낫수다.(밀도 그전에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었습니다.)
103006 @ 예, 예.(예, 예.)
103006 #1 서양화됀니까 어디 밀이여, 어디 밀이여 나와 가지고 이 제분들을 헴주만은.(서양화가 되니까 어디 밀이다, 어디 밀이다 나와 가지고 이 제분들을 하지만.)
103006 @ 예예.(예예.)
103007 @ 보리 밟기는 어떻게 합니까?(보리 밟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07 #1 그전엔 국민학생들 동원헤영.(그전에는 초등학생들을 동원해서.)
103007 @ 아. 예.(아. 예.)
103007 #1 이 정에라고 합니다.(이 성에라고 합니다.)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얼음 얼엉 얼음이 얼엉 땅이 고상 들러진 것을.(얼음이 얼어서 얼음이 얼어서 땅이 얼어붙어 들려 올라간 것을.)
103007 @ 정에? 정에마씨?(성에? 성에요?)
103007 #1 예. 정에.(예. 성에.)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밧디 얼음 얼엇덴 말을 정에렌 헙니다.(밭에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 말을 '정에'라고 합니다.)
103007 @ 예.(예.)
103007 #1 이만이 헤근에 땅이 들러지면은.(이만큼 해서 땅이 들뜨면.)
103007 @ 예.(예.)
103007 #1 보리가 굽에 부트지 못한 것은 ᄀᆞ치 들러진다 말이우다.(보리가 바닥에 붙지 못한 것은 같이 들뜬단 말입니다.)
103007 @ 예.(예.)
103007 #1 그게 들러지면은.(그것이 들뜨면.)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정에가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들러지면은 이 시간쯤 가면은 가서 땅을 볼브라.(성에가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들뜨면 이 시간 쯤 가면 가서 땅을 밟아.)
103007 @ 요즘 때쯤 뒈면마씨?(요즘 때가 되면요?)
103007 #1 그 불리를 볼라. 사름이.(그 뿌리를 밟아. 사람이.)
103007 @ 예.(예.)
103007 #1 짐승은 아이 뒙니다.(짐승은 안 됩니다.)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짐승은 가서 발로 다 볼라불민 다 뭐 뒈 불여.(짐승은 가서 발로 다 밟아 버리면 다 뭐 되 버려.)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사름이 헤사주.(사람이 해야지.)
103007 @ 아, (아.)
103007 #1 사름이 가서.(사람이 가서.)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요즘도 강원도서 다 헙디다.(요즘도 강원도에서 다 합디다.)
103007 @ 보리 싹은 볼르민 안 뒈고 그 옆이만 볼르는 것꽈?(보리 싹은 밟으면 안 되고 그 옆에만 밟는 것입니까?)
103007 #1 아니, 아니. 보리싹ᄁᆞ지. 전부 싹.(아니, 아니. 보리싹까지. 전부 싹.)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게영 불르려면은 그게 정에 고사도 흔엇이 깆지 안 헤영 올라오지 아니헙니다.(그렇게 해서 밟으려면 그게 성에가 얼어도 별로 많이 얼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경헹 보리를 헹 먹엇수다.(그렇게 해서 보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103007 @ 그믄 정월쯤에 가 가지고 헙니까?(그러면 정월쯤에 가서 합니까?)

103007 #1 야, 정월. 정 이월에.(예, 정월. 정 이월에.)

103007 @ 아.(아.)

103007 #1 그리고 왜정시대에는 막 사름 동원허멍 불라낫수다.(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막 사람을 동원하면서 밟았었습니다.)

103007 @ 예.(예.)

103007 #1 왜정시대에는.(일제시대에는.)

103008 @ 보리밭 김매기는 어떻게 합니까?(보리밭 김매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08 @ 보리밧에 검질은 몇 번이나 맵니까?(보리밭에 김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08 #1 혼 번.(한 번.)

103008 @ 혼 번마씨?(한 번이요?)

103008 #1 야. 혼 번.(예. 한번.)

103008 @ 혼 번만마씨?(한 번만이요?)

103008 #1 검질이.(잡초가.)

103008 @ 예.(예.)

103008 #1 겨니깐 이 겨울 작물에 요즘으로 말하민 양, 겨울 작물에 죽어부는 풀도 보리를 갈면 ᄀᆞ치 나옵니다.(그러니까 이 겨울 작물에 요즘으로 말하면, 겨울 작물에 죽어버리는 풀도 보리를 갈면 같이 나옵니다.)

103008 @ 아.(아.)

103008 #1 나오는데.(나오는데.)

103008 @ 예.(예.)

103008 #1 겨울 때면은 상강지면은 죽어부는 수가 있는데 죽지 안허는 풀 기자, 에, 거 대단하질 안 헙니다.(겨울 때면 서리가 내리면 죽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죽지 않는 풀 그저, 에, 그거 대단하지 안 합니다.)

103008 @ 예.(예.)

103008 #1 조금씩, 조금씩. 콩쿨이라는 풀이 이서 가지고예.(조금씩, 조금씩. 개불알꽃이라는 풀이 있어 가지고요.)

103008 @ 콩쿨. 예.(개불알꽃. 예.)

103008 #1 그거는 우리 먹음도 헙니다.(그거는 우리 먹기도 합니다.)

103008 @ 아, 예.(아, 예.)

103008 #1 야. 그거 우리 데우청 먹는 건데.(네. 그거 우리 데쳐서 먹는 건데.)

103008 @ 음.(음.)

103008 #1 그것만 그자 뽑아불면은.(그것만 그저 뽑아 버리면.)

103008 @ 보리밧디는마씨?(보리밭에는요?)

103008 #1 예, 보리밧디는.(예, 보리밭에는.)

103008 @ 예.(예.)

103008 #1 그리고 간혹 또 보리가 피어서 뭘 헐 무렵이는 거, 데우리[100]라고 이십니다.(그리고 간혹 또 보리가 피어서 뭘 하게 되는 무렵에는 저, '데우리'라고 있습니다.)

103008 @ 예.(예.)

103008 #1 데우리가 보리에 서터지믄 몰라. 피질 안헌 때엔.('데우리'가 보리에 섞이면 몰라. 피지 않을 때에는.)

103008 @ 비슷하게 생경예?(비슷하게 생겨서요?)

103008 #1 이삭을 피지 안 허연 요물이 안 든 때는 분간을 잘 못헙니다.(이삭이 피지 않으면 여물이 안 든 때에는 분간을 잘 못합니다.)

103008 @ 예.(예.)

103008 #1 경허면은 이삭을 피어가지고 여물이 들 무렵에는 이놈의 거 걸린단 말입니다.(그러면은 이삭을 피어 가지고 여물이 들 무렵에는 이놈의 거 걸린단 말입니다.)

103008 @ 알아져예?(알 수 있지요?)

103008 #1 경허면은 가서 그걸 뽑아내야 뒈어.(그러면은 가서 그것을 뽑아내야 돼.)

103008 @ 그때는 강 헤야.(그때는 가서 해야.)

103008 #1 그걸 우리가 먹어보지는 안 헤여수다.(그것을 우리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103008 @ 예.(예.)

103008 #1 숭년에 그거 먹어본 사람이 있다 허든데.(흉년에 그것을 먹어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103008 @ 그거 먹기도 헤마씨?(그거 먹기도 해요?)

103008 #1 예. 거 먹기도 하고.(예. 그거 먹기도 하고.)

103008 @ 예.(예.)

103008 #1 근디 골기가 힘들어.(그런데 갈기가 힘들어.)

103008 @ 예.(예.)

103008 #1 혼 아름씩 뽑앙 시민 그 다음부터 기자.(한 아름씩 뽑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103008 @ 예.(예.)

---

100) '데우리'는 보리밭에 나는 귀리를 일컫는 말이다.

103008 #1 겡 것도 조심히 골라 내어야 뒈. 조심히 뽑아야 뒈.(그래서 그것도 조심히 골라 내어야 돼. 조심히 뽑아 내어야 돼.)

103008 @ 옵이 것도 ᄀᆞ치 뽑아져불민 (옆의 것도 같이 뽑아져 버리면.)

103008 #1 야, 야. 그거 ᄀᆞ치 뽑아불민 내 공들여 논거 말야, 기냥 죽어분다 말이여.(예, 예. 그거 같이 뽑아버리면 내가 공들여 놓은 것이 말야, 그냥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103008 @ 맞수다.(맞습니다.)

103008 #1 게난 거 아무나 강 ᄒᆞ도 안 허고.(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하지도 않고.)

103008 @ 예.(예.)

103008 #1 사람 ᄀᆞᆯ리면서. 야, 야.(사람을 골라가면서. 예, 예.)

103008 @ 예.(예.)

103008 #1 겡 강 합니다만 요즘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헤영. 그거 뭐로 헴수과.(그렇게 가서 합니다만 요즘은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걸 뭘로 합니까?)

103008 @ 흐흐흐.(흐흐흐.)

103008 #1 시대가 선생님들 알다시피 우리가 고도로 발전은 뒈었는데 실지가 살기가 너무 바빠.(시대가 선생님들 알다시피 우리가 고도로 발전은 되었는데 실제로 살기가 너무 바빠.)

103008 @ 예.(예.)

103008 #1 살기가 바쁘지 안 헤여시민 우리 할망도 오늘 일 아이 갔주. 이 추운디.(살기가 바쁘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101]도 오늘 일을 안 갔지. 이렇게 추운데.)

103008 @ 예.(예.)

103008 #1 이거 도저히 헐 짓은 아니주. 헐 짓은 아닌데 세상을 영허면서 살아야 될 건가?(이것은 도저히 할 짓은 아니지. 할 짓은 아닌데 세상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103008 @ 개메예.(그러게요.)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람수과?(보리밭에는 어떤 잡초들이 자랍니까?)

103009 #2 무신 검질이라. 콩쿨, 진쿨.(무슨 김이야. 개불알꽃, 별꽃.)

103009 @ 콩쿨, 진쿨마씨?(개불알꽃, 별꽃이요?)

103009 #2 으. 그런 거. 온갖 검질 다 나주.(으. 그런 거. 온갖 잡초가 다 나지.)

103009 @ 또마씨?(또요?)

103009 #2 무시 거 절만이[102]도 나고.(무슨 바랭이도 나고.)

103009 @ 절만이마씨?(바랭이요?)

103009 #2 으.(응.)

---

101) '할머니'는 문맥 상 아내를 일컫는 말이다.

102) '절만이'는 바랭이를 말한다.

103009 @ 아. 절만이.(아, 바랭이.)
103009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헙니까?(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10 #1 호미로.(낫으로.)
103010 @ 호미로예.(낫으로요.)
103010 #1 으.(응.)
103010 @ 호미는 종류가 하나뿐인가마씨?(낫은 종류가 하나뿐인가요?)
103010 #1 호미도 여러 가지.(낫도 여러 가지.)
103010 @ 예.(예.)
103010 #1 호미도 제주도서 대장간에서 친 호미광 육지서 들어온 호미광 틀립니다.(낫도 제주도에서 대장간에서 친 낫하고 육지에서 들어 온 낫하고 다릅니다.)
103010 @ 예.(예.)
103010 #1 절대가 틀려.(절대로 달라.)
103010 @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까?(이름도 다르게 부릅니까?)
103010 #1 이름은 육지는 낫이렌 하고 요기는 무조건 호미.(이름은 육지는 낫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호미'.)
103010 @ 예.(예.)
103010 #1 호미 ᄒᆞ나.(낫 하나.)
103010 @ 호미로 영 베어마씨?(낫으로 이렇게 베나요?)
103010 #1 야, 야. 비여.(예, 예. 베어.)
103010 @ 예.(예.)
103010 #1 호미로 비여.(낫으로 베요.)
103010 @ 그 다음은마씨?(다음은요?)
103010 #1 그 다음인 무꺼.(그 다음은 묶어.)
103010 @ 뭘로 무꺼마씨?(뭘로 묶어요?)
103010 #1 그 께로 묶으는 게 이서.(그 매끼로 묶는 게 있어.)
103010 @ 께는 어떵 만들어마씨?(매끼는 어떻게 만듭니까?)
103010 #1 보리를 영 심엉.(보리를 이렇게 잡아서.)
103010 @ 예.(예.)
103010 #1 한번 영 대왕.(한번 이렇게 꼬아서.)
103010 @ 예.(예.)
103010 #1 톡 영 눌리면은.(탁 이렇게 누르면.)
103010 @ 예.(예.)
103010 #1 갈랑 뒤집으민 께 꼭 찔리민 ᄒᆞᆫ 단 무꺼지는 거.(발랑 뒤집으면 매끼를 꼭 찔러 넣으면 한 단이 묶어 지는 거.)
103010 @ 아. 보리 낭껭이로 그냥 하는 거구나예.(아, 보리 짚대로 그냥 하는 거군요.)

103010 #1 영 쭉 비어 놩 보리를.(이렇게 죽 베어 놓고 보리를.)

103010 @ 밧디?(밭에?)

103010 #1 낫으로 헤영.(낫으로 해서.)

103010 @ 예.(예.)

103010 #1 쭉 비어노민 에, 보리가 많이 익으때민 ᄒᆞ루만 몰리민 뒈곡 경 아이헌 때는 ᄒᆞᆫ 이틀 정도 몰리면은.(쭉 베어 놓으면 에, 보리가 많이 익은 때면 하루만 말리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이틀 정도 말리면.)

103010 @ 예.(예.)

103010 #1 조근조근 영헤영 가멍 ᄒᆞᆫ 뭇 정도헌마씨.(차근차근 이렇게 해 가면서 한 뭇 정도만큼만 씩.)

103010 @ 예.(예.)

103010 #1 이 우리는 이런 것이 다 판단이 뒈주게.(이 우리는 이런 것이 다 판단이 되지.)

103010 @ 딱 잡으민예?(딱 잡으면요?)

103010 #1 이 정도민 두 뿜이다, 이 정도민 세 뿜이다.(이 정도면 두 줌이다, 이 정도면 세 줌이다.)

103010 @ 예.(예.)

103010 #1 딱 모두민 짐작으로 다 알게 됩니다.(딱 모으면 짐작으로 다 알게 됩니다.)

103010 @ 예.(예.)

103010 #1 경헤근에 그자 서뿜썩이민 서뿜썩. 딱 모두아 놓는 거라.(그렇게 해서 그저 세 줌씩이면 세 줌씩. 딱 모아 놓는 거야.)

103010 @ 아.(아.)

103010 #1 경 아이허면 이녁대로 딱 모두는 거라.(그렇게 안 하면 자기대로 딱 모아서 두는 거야.)

103010 @ 예.(예.)

103010 #1 이녁대로 모두민 좀 힘이 듭니다.(자기대로 모아 두려면 좀 힘이 듭니다.)

103010 @ 예.(예.)

103010 #1 ᄒᆞᆫ 사름은 모두와 주고 ᄒᆞᆫ 사름은 뒤에서 묶으는 거라.(한 사람은 모아 주고 한 사람은 뒤에서 묶는 거야.)

103010 @ 예.(예.)

103010 #1 께 영 대왕. 꼭지로 께 딱 대왕 딱 눌렁.(매끼를 이렇게 꼬아서. 꼭지로 매끼를 딱 꼬아서 딱 누르고.)

103010 @ 예.(예.)

103010 #1 탁 나뭇댕이 영 자치민 끄나풀이 두 개가 됩니다.(탁 나뭇가지를 이렇게 제치면 끄나풀이 두 개가 됩니다.)

103010 @ 예.(예.)

103010 #1 경허면은 톡 놓아근에 그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뒤집엉 꾹 찔르민 뒈는 거.(그러면 탁 놓아서 그저 이렇게 뒤집으면, 뒤집으면서 꾹 찌르면 되는 거지.)

103010 @ 경허면은 무꺼.(그리고 나서 묶어.)

103010 #1 예. 혼 단이 뒈는 거.(예. 한 단이 되는 거.)

103010 @ 예.(예.)

103010 #1 시방은 그런 거 ᄒᆞ고 싶으우다.(시방은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103010 @ 하하하.(하하하.)

103010 #1 ᄒᆞ고 싶어. 많이는 못허지 만은 그자 장난삼아.(하고 싶어. 많이 못하지만 그저 심심풀이 삼아.)

103011 @ 보리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보리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103011 #1 야, 타작해야 주게. 게난 그 태작.(네, 타작을 해야 하지. 그러니까 그 타작.)

103011 @ 어떵허여마씨?(어떻게 해요?)

103011 #1 피가 더 환장헤낫수다.(피가 더 환장했었어요.)

103011 @ 예.(예.)

103011 #1 안 헤난 사름은 몰라.(안 해본 사람은 몰라.)

103011 @ 예.(예.)

103011 #1 보리는 그거. 중간에 그 홀테가 나왔구나.(보리는 그거. 중간에 그 벼훑이가 나왔구나.)

103011 @ 홀테마씨?(벼훑이요?)

103011 #1 끄는 거양. 건 중간에 나오고.(끄는 거요. 그건 중간에 나오고.)

103011 @ 예.(예.)

103011 #1 경 안 하믄 ᄒᆞ나씩 톧아낫수다. ᄒᆞ나 ᄒᆞ나.(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뜯었었어요. 하나 하나.)

103011 @ 하나씩마씨?(하나씩요?)

103011 #1 야. 야. 사름 손으로.(예, 예. 사람 손으로.)

103011 @ 예.(예.)

103011 #1 서 톧음[103]이라고.('서 톧음'이라고.)

103011 @ 예.(예.)

103011 #1 ᄒᆞ나ᄒᆞ나 집어 혼 줌허면은 호미 영 놧당은에 발로 끈는 거라. 곡지만.(하나 하나 집어서 한줌하면 낫을 이렇게 뒀다가 발로 긁는 거예요. 꼭지만.)

103011 @ 예.(예.)

103011 #1 이게 서 톧음이라고 ᄒᆞ는 겁주게.(이것이 '서 톧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103011 @ 예.(예.)

---

103) '서 톧음'은 보리짚을 한줌쥐고 호미에 놓고 꼭지만 끊어내는 일을 말한다.

103011 #1 겨민 그걸 해 노앙. 이 도리깨, 도리깨 알아집주양? 도리깨.(그러면 그걸 해 놓고. 이 도리깨, 도리깨 알지요? 도리깨.)

103011 @ 예예.(예, 예.)

103011 #1 도께라고 헤여. 이디 제주도말로 ᄒᆞ민.(도리깨라고 해요. 여기 제주도말로 하면.)

103011 @ 도께.(도리깨.)

103011 #1 요즘 말로 하면 도리깨.(요즘 말로 하면 도리깨.)

103011 @ 예.(예.)

103011 #1 그걸로 두드립주. 물랐당.(그걸로 두르리지요. 말렸다가.)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물랐당 그걸로 두드령은에에.(말렸다가 그걸로 두드리고 나서.)

103011 @ 예.(예.)

103011 #1 에헤, 얼멩이[104] 헤근에. 능굴려.(에헤, '얼멩이'로 해서 능그리어.)

103011 @ 뭐헤마씨? 능굴려?(뭐 한다고요? 능그려요?)

103011 #1 능그리여.(능그린다고.)

103011 @ 능그리는 게 어떵허는 거꽈?(능그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3011 #1 이 거풀들을 흔 쪽으로 몰리는 거.(이 꺼풀들을 한 쪽으로 모는 거.)

103011 @ 얼멩이로?('얼멩이'로?)

103011 #1 얼멩이 전에.('얼멩이'로 하기 전에.)

103011 @ 무신 걸로마씨?(무슨 것으로요?)

103011 #1 사름 손으로.(사람 손으로.)

103011 @ 아, 사름 손으로.(아, 사람 손으로.)

103011 #1 사름 손으로 휘젓으멍.(사람 손으로 휘저으면서.)

103011 @ 예.(예.)

103011 #1 얼멩이에 거 보단.('얼멩이'에 거 보다는.)

103011 @ 예.(예.)

103011 #1 얼멩이 보단 더 훌근 거기 때문에 능구려근에 흔 쪽으로 밀어 넝.('얼멩이' 보다는 더 낟알이 큰 것이기 때문에 능그려서 한 쪽으로 밀어 넣어.)

103011 @ 예.(예.)

103011 #1 솔박[105]으로 그걸 그서 내영 얼멩이로 치는 거라.('솔박'으로 그것을 꺼내어 '엘멩이'로 치는 거야.)

103011 @ 아.(아.)

103011 #1 얼멩이로 치면은 그걸 또 불리여야지.('얼멩이'로 치고 나면 그걸 또 불려야지.)

---

104) '얼멩이'는 제주도의 체들 중 하나이다. 그 바닥인 쳇불의 구멍이 가장 큰 것으로 쳇바퀴가 없이 대오리로 비스듬히 정사각형이 되게 둘레를 만듦. 메밀이나 콩 따위를 탈곡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뉘를 쳐내버릴 때 쓰인다.

105)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103011 @ 예.(예.)

103011 #1 ᄇᆞ름이 시면 다행인데 게양 아이허민 푸는 체로 이거 밤이라도 푸어야 뒈어. 푸는 체로.(바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하면 키로 이것을 밤에라도 퍼야 되어. 키로.)

103011 @ 예.(예.)

103011 #1 경헤야 닐양이라도 ᄆᆞᆯ리우면은 보찻보리라고 이수다.(그래야 내일이라도 말리면은. 보찻보리라고 있어요.)

103011 @ 무신 보리마씨?(무슨 보리요?)

103011 #1 보리 테작하면은 걱적 아이 벳경.(보리 타작을 하면 껍질을 안 벗기고.)

103011 @ 예.(예.)

103011 #1 ᄆᆞᆯ려앙 그냥 정ᄀᆞ레[106]라고 양 ᄀᆞ래 잇지 안허우꽈양.(말려서 그냥 '정ᄀᆞ레' 맷돌 있지 않습니까?)

103011 @ 예, 예.(예, 예)

103011 #1 연자방아 그거 말앙. 큰 ᄀᆞ래 말앙 양. 영 ᄒᆞ는 거.(연자방아 그거 말고, 큰 맷돌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그것에 껍질 아이 벳경 ᄀᆞᆯ아 (그것에 껍집을 안 벗기고 갈아.)

103011 @ 예.(예.)

103011 #1 게난 제일 첫 번에 ᄀᆞᆯ아지지도 아이헙니다.(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갈아지지도 않습니다.)

103011 @ 예.(예.)

103011 #1 그게. 두서너네 번을 자꾸 치면서 대체[107], 거름체[108], ᄀᆞ는 체 영 허멍 치어 놩.(그 그게. 두서너 번을 자꾸 치면서 '대체', '거름체', 가는 체 이렇게 하면서 쳐서 놓아.)

103011 @ 예.(예.)

103011 #1 거기에 온착[109] 걸 재차 놓고 재차 놓고 헹.(거기에 온채를 재차 놓고 재차 놓고 하면서.)

103011 @ 예.(예.)

103011 #1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영 헹 자꾸 ᄀᆞᆯ앙은넹에.(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갈아서.)

103011 @ 예.(예.)

103011 #1 그, 아이고 데러와.(그 아이고, 더러워[110].)

---

106)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이다.
107) '대체'는 가는 댓개비로 챗불을 짜서 메밀 쌀 따위를 쳐 내는 도구이다.
108) '거름체'는 찌끼나 건더기가 있는 액체를 거를 때 쓰는 조금 눈이 굵은 체이다.
109) '온착'은 온채이다. 쪼개거나 가르거나 하지 않은 온통 그대로를 의미한다.
110) '더러워'는 문맥 상 더럽다는 원래의 의미보다 가난의 서러움을 담은 탄식조의 말투이다.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밑에 겉보리 ᄀᆞ룰.(그 밑에 겉보리 가루.)
103011 @ 예.(예.)
103011 #1 제일 밑에 ᄀᆞ는 체로 친 걸 범벅을 ᄒᆞ난.(제일 밑에 가는 체로 친 걸 범벅을 하니.)
103011 @ 예.(예.)
103011 #1 ᄌᆞ베기 그거 시방 쉐도 아이 먹을 거라. 쉐도 아이 먹어.(수제비. 그거 시방은 소도 안 먹을 거야. 소도 안 먹어.)
103011 @ 이젠 예?(이제는요?)
103011 #1 야. 그거 헹 이제 먹곡.(예. 그것을 해서 이제 먹기도 하고.)
103011 @ 예.(예.)
103011 #1 보리 ᄌᆞᆷ쏠[111]을 하면은 겉보리 ᄌᆞᆷ쏠은 하면은.(보리 'ᄌᆞᆷ쏠'을 하면은 겉보리'ᄌᆞᆷ쏠'은 하면.)
103011 @ 예.(예.)
103011 #1 그, 저, 이, 밥을 하면은 서나 익으나 하면은 양 ᄒᆞᆫ 줌 앗당 허트민 풀이 ᄒᆞ꼼 붙읍주게.(그, 저, 이, 밥을 하면은 설거나 익거나 하면 한 줌을 가져다 섞으면 풀이 조금 붙거든요.)
103011 @ 예.(예.)
103011 #1 익은 밥은 ᄒᆞᆺ쏠 도락지고.(익은 밥은 조금 떨어지고.)
103011 @ 무신거에 섞어마씨?(무엇에다 섞어요?)
103011 #1 양? 밥 ᄒᆞ는 거 우이 거. 보리 ᄌᆞᆷ쏠.(네? 밥 하는 거 위에 것. 보리 'ᄌᆞᆷ쏠'.)
103011 @ ᄌᆞᆷ쏠?('ᄌᆞᆷ쏠'?)
103011 #1 ᄌᆞᆷ쏠. 작은 쏠이렌 말입주.('ᄌᆞᆷ쏠'. 작은 쌀이라는 말입니다.)
103011 @ 아, ᄌᆞᆷ진 거마씨?(아, 작고 가는 거요?)
103011 #1 예. ᄌᆞᆷ진 거.(예. 작고 가는 거.)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다음 쏠에 밥을 허는 거라.(그 다음 쌀에 밥을 하는 거야.)
103011 @ 아.(아.)
103011 #1 보리 깎지 아니 ᄒᆞ는 거라양, 깎지 안 헤영.(보리는 깎지 아니 하는 거예요, 깎지 안 해.)
103011 @ 정ᄀᆞ레에 ᄀᆞᆯ앙예?(맷돌에 갈아서요?)
103011 #1 응, 정ᄀᆞ레에 ᄀᆞᆯ앙으넹에 밥 해먹는 거.(응, 맷돌에 갈아서요 밥 해먹는 거.)
103011 @ 예.(예.)

111) 'ᄌᆞᆷ쌀'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말한다.

103011 #1 게난 그놈의 밥을 아이고, 나가 일곱 살 때부터 그 밥을 헷구나.(그러니까 그 놈의 밥을 아이고, 나가 일곱 살 때부터 그 밥을 했구나.)

103011 @ 예.(예.)

103011 #1 아, 어머니가 일 가불면은 어떵어떵헤영 밥을 허라. 어떵어떵 뭐 ᄀᆞᆯ아그넹에 ᄌᆞ베기를 허라 ᄒᆞ면은.(아, 어머니가 일 가버리면 어찌어찌 밥을 해라. 어찌어찌 뭐를 갈아서 수제비를 해라 하면.)

103011 @ 예.(예.)

103011 #1 도구리에.(큰 함지박에.)

103011 @ 예.(예.)

103011 #1 그전에는 게난 우리 사삼사건 때 도구리들 내불엉 간 거 월정 사름들이 가졍 가분 거 촛긴 촛아도 내 거란 말을 못헷수다.(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삼사건 때 함지박들을 내 버리고 간 거 월정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 찾긴 찾아도 내 거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103011 @ 음.(음.)

103011 #1 이만이 도구리가 커.(이 만큼 함지박이 커.)

103011 @ 예.(예.)

103011 #1 경허면은 ᄆᆞ레도 여러 가지우다.(그러면은 맷돌도 여러 가지예요.)

103011 @ 예.(예.)

103011 #1 제주도에서도 ᄆᆞ레가 여러 가지라.(제주도에서도 맷돌이 여러 가지라.)

103011 @ 예.(예.)

103011 #1 거 무시거 나오는 ᄆᆞ레.(그거 무엇 나오는 맷돌.)

103011 @ 예.(예.)

103011 #1 거 무신 물콩ᄆᆞ트 거.(그거 무슨 물콩 같은 거.)

103011 @ 예.(예.)

103011 #1 두부ᄆᆞ튼 거 멘드는 거.(두부 같은 거 만드는 거.)

103011 @ 그건 무신 ᄆᆞ레옌 ᄀᆞᆯ음이꽈?(그건 무슨 맷돌이라고 말합니까?)

103011 #1 그거 무신 ᄆᆞ레산듸, ᄀᆞᆯ아지크라. 잘 모르쿠다.(그거 무슨 맷돌인지, 말해지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03011 @ 아, 그런 ᄆᆞ레도 있고.(아, 그런 맷돌도 있고.)

103011 #1 야, 게난 ᄆᆞ레 하나로만 헐티, ᄆᆞ레가 양 큰 게 있곡, 족은 게 있곡.(네, 그러니까 맷돌 하나로만 할는지, 맷돌이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103011 @ 예.(예.)

103011 #1 큰 것은 눌러지는 힘에 의해서 쏠이 벌러지는 율이 쉽고 괴로워도.(큰 것은 눌러지는 힘에 의해서 쌀이 깨지는 비율이 크고 힘은 괴로워도.)

103011 @ 예.(예.)

103011 #1 얕은 ᄆᆞ레는 한불 더 놔아야 돼.(얕은 맷돌은 한번 씩 더 놔야 돼.)

103011 @ 예.(예.)

103011 #1 큰 ᄀᆞ레에 흔 번 할 거면 이거는 흔 불 더 놔야 돼.(큰 맷돌에 한 번 할 거면 이거는 한번 씩 더 놔야 돼.)

103011 @ 아.(아.)

103011 #1 경허멍 그 밥을 우리가.(그러면서 그 밥을 우리가.)

103011 @ 예.(예.)

103011 #1 정ᄀᆞ레에 성제가 아장 ᄀᆞᆯ앙.(맷돌에 형제가 앉아서 갈아서.)

103011 @ 예.(예.)

103011 #1 그걸로 대체, 거름체 다 치어놩.(그것으로 '대체', '거름체'에 다 치고 나서.)

103011 @ 예.(예.)

103011 #1 우선직 밥 홀 쏠만 우선직 혜여 놩.(우선 밥을 할 쌀만 우선 해서 놓아.)

103011 @ 예.(예.)

103011 #1 저녁에 어머니가 밧디 강 올만하면 보리쏠을 부끈다 말이우다.(저녁에 어머니가 밭에 갔다 올만 하면 보리쌀을 보글보글 끓인다 말입니다.)

103011 @ 부끄는 건 어떵헤마씨?(보글보글 끓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103011 #1 ᄉᆞ망은네 보리쏠을 ᄒᆞ쏠 뜸을 들이는 거라.(삶아서 보리쌀을 조금 뜸을 들이는 거야.)

103011 @ 예.(예.)

103011 #1 물 노앙 뜸을 들이면은 이제는 어머니가 오면은 그 보리쏠을 먹으면은 껄껄하거든.(물을 놓고 뜸을 들이면 이제는 어머니가 오면 그 보리쌀을 먹으면 껄껄하거든.)

103011 @ 예.(예.)

103011 #1 경허면 야, 너네들 이거 두루 숢아졋어.(그러면 야, 너네들 이거 덜 삶아졌어.)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보리가 아무리가 숢아도 껄껄하게 뒈지.(그 보리가 아무리 삶아도 껄껄하게 되지.)

103011 @ 예.(예.)

103011 #1 껍질 아이 벳겨진 게 그게 뭐 흐랑합니까, 요즘 보리쏠 말로.(껍질이 안 벗겨진 게 그게 뭐 흐물흐물합니까, 요즘 보리쌀처럼.)

103011 @ 흐흐흐.(흐흐흐.)

103011 #1 게민 이제는 또 불 슴앙 밥을 조정허는 거라.(그러면 이제는 또 불을 때고 밥을 조정하는 거야.)

103011 @ 예.(예.)

103011 #1 옛날 지세솟디 헹은에.(옛날 무쇠솥에 해다가.)

103011 @ 예.(예.)

103011 #1 아레미솟도 왜정 시대 때예 나왔주. 아레미솟이 벨로 이서수과. 그 무쇠솟 헤 가지고.(알루미늄 솥이 일제 강점기 때에 나왔지. 알루미늄 솥이 별로 있었습니까. 그 무쇠솥을 해다가.)

103011 @ 지세솟예?(무쇠솥요?)

103011 #1 예. 헤가면 그 물 불 동안 일부러 옛날 어른들은 밥을 누룽지 있게끔 헤낫수다, 일부러.(예. 해가면 그 물이 불 동안 일부러 옛날 어른들은 밥을 누룽지가 있게 했었습니다. 일부러.)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누룽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비결이 유명헤낫어. 무쇠솟데 밥을 꼭 눌릅니다.(그 누룽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비결이 유명했었어. 무쇠솥에다 밥을 꼭 눋게 했습니다.)

103011 @ 아, 예.(아, 예.)

103011 #1 예. 익던 설던.(예, 익든지 설든지.)

103011 @ 예.(예.)

103011 #1 설면 물이라도 꼭 더 노면서 딸리멍.(설면 물이라도 꼭 더 넣으면서 달이면서.)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밥을 꼭 그 누렝이를 눌려 가지고 헤놩.(그 밥을 꼭 그 누룽지를 눋게 해서 해놓아.)

103011 @ 예.(예.)

103011 #1 긁엉 먹을 때 그걸 다 아니 긁엉 먹엉. 박박도 안 긁읍니다.(긁어서 먹을 때 그것을 다 안 긁어서 먹어. 박박도 안 긁습니다.)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먹고 싶어도. 박박도 아이 긁으곡.(그 먹고 싶어도 박박도 안 긁고.)

103011 @ 예.(예.)

103011 #1 밥을 긁어 나면은 거기에 물을 노면은양 물이 그렇게 쿠셔.(밥을 긁고 나면 거기에 물을 넣으면요 물이 그렇게 구수해.)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야. 시방도 그런 거 쿠시지만 그 누넹이.(예. 시방도 그런 것이 구수합니다만 그 누룽지.)

103011 @ 예.(예.)

103011 #1 그 누넹이를 긁엉양, 옛날도 마농지시가 이서수다. 대산이든 패마농이든 다 이섯는데 것에 또 적시멍 먹으민 양.(그 누룽지를 긁어서요, 옛날도 마늘장아찌가 있었습니다. 뿌리마늘이든 파든 다 있었는데 그것에 또 적시면서 먹으면.)

103011 @ 하하하 (하하하.)

103011 #1 뭐 우리 먹어난 사름은 맛이 좋은데 요즘 분들은 지저분허덴 아이 먹지 안헙니까?(뭐 우리는 먹었던 사람은 맛이 좋은데 요즘 분들은 지저분하다고 안 먹지 않습니까?)

103011 @ 아이 맛 좋주.(아이, 맛이 좋지요.)

103011 #1 하하. 잇당 시에 가민 아이들 신디 가민 누룽지물이렌 허영 주민 코시롱합니다.(하하. 가끔 제주시에 가면 아이들한테 가면 누룽지물이라고 하면서 주는데 구수합니다.)

103011 @ 예.(예.)

103011 #1 헌디 우린 양 경꼬지 안 헤영 막 캅니께.(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막 탑니다.)

103011 @ 예.(예.)

103011 #1 카면은 그거 곡식에서 나온 거난양, 카도양 웬만하면 먹읍니께.(타면 그것이 곡식에서 나온 거니까, 타도 웬만하면 먹습니다.)

103011 @ 예.(예.)

103011 #1 우리 감저도 헹 구웡 카도 양 코소롱헤 베영 그걸 먹엉 그 진미가 우린 좋아 베곡.(우리는 고구마도 해서 구워서 타도 구수해 보여서 그걸 먹고 그 진미가 우린 좋아 보이고.)

103011 @ 예.(예.)

103011 #1 요즘은 의학적으로 칸 건 먹지 말아라 경헹 헙니다만 우리는 그걸 원, 더 바라집니다.(요즘은 의학적으로 탄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그걸 원, 더 바라집니다.)

103011 @ 예.(예.)

103011 #1 카던 뭐던 입에 맞이면은 먹는 겁니다.(타든지 뭐하든지 입에 맞으면 먹는 겁니다.)

103011 @ 하하하.(하하하.)

103011 #1 아무리 의학 박사가 이거여 저거여 골아도.(아무리 의학 박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해도.)

103011 @ 예.(예.)

103011 #1 그 양반들은 왜 죽엄느냐고 골아집니다.(그 양반들은 왜 죽느냐고 이야기해집니다.)

103011 @ 하하하.(하하하.)

103011 #1 경 골아집니다. 야, 입에 맞으민 최고라는 거라.(그렇게 이야기해집니다. 예, 입에 맞으면 최고라는 거야.)

103011 @ 그렇지예.(그렇지요.)

103013 @ 보리쌀로는 뭐 헙니까?(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13 #1 밥 말고 개역, 개역. 미숫가루라고 요즘 말로.(밥 말고는 '개역', '개역'. 미숫가루라고 요즘 말로.)

103013 @ 개역?('개역'?)

103013 #1 미숫가루, 미숫가루 합디다. 개역. 야.(미숫가루, 미숫가루 합디다. 미숫가루. 예.)

103014 @ 보릿겨,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보릿겨,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14 #1 보리짚은 옛날에 도새기를 질루니까. 통새예 헹 걸름으로 집어 여코.(보리짚은 옛날에 돼지를 기르니까. 화장실에 해서 거름으로 집어 놓고.)

103014 @ 예.(예.)

103014 #1 그 전에는 쉐도 먹엇수다.(그 전에는 쇠도 먹었습니다.)

103014 @ 예.(예.)

103014 #1 근디 쉐는 안 줘. 잘 먹지를 안 허니까.(그런데 쇠는 안 줘요. 잘 먹지를 안 하니까.)

103014 @ 예.(예.)

193914 #1 그자 걸름으로 사용헷수다.(그저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103014 @ 예.(예.)

193014 #1 대명 놧당은에 물 들곡 썩고 물르곡 허당보민 그게 발효가 뒈어 가지고.(쌓아 두었다가 물을 들이고 썩고 마르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103014 @ 예.(예.)

103014 #1 쉐스령으로.(쇠스랑으로)

103014 @ 예.(예.)

103014 #1 옛날에는 왜정시대 때 구루마가 낫지. 그 전이는 구루마가 엇어수다.(옛날에는 일제 강점기 때 달구지가 나왔지. 그 전에는 달구지가 없었습니다.)

103014 @ 예.(예.)

103014 #1 바지게도 엇어수다. 저기 헤벤이는 바지게도 이서수다만은 여기는 그냥 맥에.(바지게도 없었습니다. 저기 해변 마을에는 바지게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망태기에.)

103014 @ 아, 맥에예?(아, 망태기에요?)

103014 #1 맥에 담아놩 둘러멩 강 그자 밧디 강 푸고 무시 거 햇주.(망태기에 담아놓고 둘어매서 가고 그저 밭에 가서 퍼 놓고 무슨 그랬지.)

103014 @ 예.(예.)

103014 #1 바지게도 엇어낫수다. 해벤이는 그거 지멍 햇주.(바지게도 없었습니다. 해변마을에는 그것을 지면서 했지.)

103014 @ 예.(예.)

103014 #1 똥걸름들은 그 바지게들을 헤영 지는데.(똥거름들은 그 바지게들을 해서 지는데.)

103014 @ 예예.(예예.)

103014 #1 여기는 똥걸름은 산테.(여기는 똥거름은 산태.)

103014 @ 예.(예.)

103014 #1 산테로 들렁 둘이 터봉 앗당 비와.(산태로 들고 둘이 가져다가 비워 놔.)

103014 @ 아.(아.)

103014 #1 해벤이는 바지게. 산테가 해벤이는 엇수다. 바지게에 똥걸름 다 날라.(해변마을은 바지게. 산태가 해변마을에는 없습니다. 바지게에 똥거름을 다 날라.)

103014 @ 아.(아.)

103014 #1 겐디. 송당은 산테. 소걸름도 내곡, 똥걸름도 내곡. 야. 경헙니께. 산테로.(그런데 송당은 산태. 쇠두엄도 내고, 똥거름도 내고. 예, 그렇게 해요. 산태로.)

103015 @ 보리 농사에 얽힌 얘기 이시믄 골아줍서.(보리 농사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3015 #2 아이고, 농사지어 검질메젠 허민.(아이고, 농사 지어서 김을 매려고 하면.)

103015 @ 그게 제일 힘들어예.(그게 제일 힘들어요.)

103015 #2 김녕서는 항아리에 오좀을 받으면서 그 항에 비와.(김녕에서는 항아리에 오줌을 받으면서 그 항아리에 비워.)

103015 @ 예.(예.)

103015 #1 그믄 그게 썩어가.(그러면 그것이 썩어가.)

103015 @ 예.(예.)

103015 #1 그믄 그걸 짊어졍 보리밧디 강 다 삐여.(그러면 그것을 짊어지고 보리밭에다가 가서 다 뿌려.)

103015 @ 아.(아.)

103015 #2 보리밧디 강.(보리밭에 가서.)

103015 @ 걸름으로마씨?(거름으로요?)

103015 #2 으. 걸름으로이.(으, 거름으로.)

103015 @ 예.(예.)

103015 #1 그 오좀 막 모두왕 썩으면은.(그 오줌을 막 모았다가 썩으면.)

103015 @ 예.(예.)

103015 #2 그걸 허벅[112]에 질르멍 밧디 지엉 강.(그것을 허벅에 길으면서 밭에 짊어지고 가서.)

103015 @ 예.(예.)

103015 #2 무시 거 박세기에 가지고 가서이.(무슨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103015 @ 예.(예.)

103015 #1 허벅에 거 비멍 막 보리밧디 삐어.(허벅에 거 비우면서 막 보리밭에

112)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이다.

뿌려.)

103015 @ 예.(예.)

103015 #1 겨민 나가 열니살인가 김녕에 내려가니까 물질을 못해. 흴줄 몰라가지고이.(그러면 내가 열네 살인가 김녕에 내려가니까 물질을 못해. 헤엄칠 줄 몰라서.)

103015 @ 아.(아.)

103015 #2 암만 김녕서 밤에는.(아무리 김녕에서 밤에는.)

103015 @ 예.(예.)

103015 #1 우리 친구를 많이 허니까 막 친구들이 테왁[113] 박세기영 눈 쓰는 거, 그런 거 다 줭 가게가게 헹.(우리가 친구들을 많이 만드니까 막 친구들이 테왁 바가지며 눈에 쓰는 거, 그런 거를 다 주면서 가자가자 하고.)

103015 @ 예.(예.)

103015 #1 물질 배우렌 헤도이 흴줄 모르니까.(물질을 배우라고 해도 헤엄칠 줄 모르니까.)

103015 @ 웃드르[114] 사람이라부난. 하하하.(윗동네 사람이라서. 하하하.)

103015 #2 웃드르 사람 잘 알암신게. 하하하.(윗동네 사람 잘 알고 있네. 하하하.)

103015 @ 헤변 가난 희지 못헹.(해변에 가니까 헤엄치지 못해서.)

103015 #2 경헹 못헤영.(그래서 못하고.)

103015 @ 예.(예.)

103015 #1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김녕 사람들 메역 ᄌᆞ물아.(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김녕 사람들은 미역을 채취해.)

103015 @ 예.(예.)

103015 #1 우리 어머니 허는 말이 나가 물질 못헤부난 김녕을 풀면 오좀 허벅만 진다고.(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물질 못해 버리니까 김녕에 팔면 오줌 허벅만 진다고.)

103015 @ 하하하.(하하하.)

103015 #2 하하하.(하하하.)

103015 @ 김녕에 시집 가면 안 뒈겠네.(김녕에 시집 가면 안 되겠네.)

103015 #2 응. 물질허는 사람은 문딱 메역 ᄌᆞ물하레 가불면은.(응. 물질하는 사람은 모두 미역을 채취하러 가 버리면.)

103015 @ 예.(예.)

103015 #1 물질 못헤부난 오좀 허벅진덴 웃드르 송당더레 시집을 보낸 거라. 하하하.(물질을 못하니까 오줌 '허벅'을 진다고 '웃드르' 송당으로 시집을 보낸 거야. 하하하.)

---

113)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114)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의 중산간이나 근처의 들 또는 그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301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5 #2 이런 옛날 전설도 있대헤여. 겅헹 이집엘 온 거야, 나가.(이런 옛날 전설도 있다고 해. 그래서 이 집에 온 거야, 내가.)

103015 @ 웃드르 시집오난 오좀 허벅은 안 져수과?('웃드르'로 시집오니까 오줌 '허벅'은 안 짊어졌습니까?)

103015 #2 오좀 허벅은 안 졌주게.(오줌 '허벅'은 안 짊어졌지.)

103015 @ 안 젼. 하하하.(안 짊어 졌어. 하하하.)

103015 #2 하하하하. 친정에서는 오좀 허벅을 지엇주게.(하하하하. 친정에서는 오줌 허벅을 짊어졌지.)

103015 @ 예.(예.)

193915 #1 놈의 밧 빌엉 보리 갈앙. 밧은 셔서게. ᄉᆞ태에 ᄂᆞ려가난게.(남의 밭을 빌려다가 보리를 갈고. 밭은 있었겠어. 사태에 내려가니까.)

103015 @ 예.(예.)

103015 #2 놈의 밧 빌엉 보리 갈면 오좀 허벅 지엉 강 밧디 강 삐였주게.(남의 밭을 빌려 다가 보리를 갈면 오줌 허벅을 짊어지고 가서 밭에 가서 뿌렸었지.)

103015 @ 송당으로 잘 와신게마씨.(송당으로 잘 왔네요.)

103015 #2 게난 우리 어머니가 헤벤 김녕엘 아이 풀켄.(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변마을 김녕에 안 팔겠다고.)

103015 @ 헤엄 못 해부난.(헤엄을 못 쳐서.)

103015 #2 우리 옛날 살아온 거 진짜 힘들게 살앗어.(우리 옛날 살아온 거 진짜 힘들게 살았어.)

103015 @ 예.(예.)

103015 #2 김녕에서 덕천 올라와 가지고.(김녕에서 덕천 올라와서.)

103015 @ 예.(예.)

103015 #1 고사리 흔 짐썩 꺽어 아지곡 김녕 내려가젠 허민이. 네 참[115].(고사리 한 짐씩 꺾어서 가지고 김녕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네 참.)

103015 @ 네 참?(네 참이요?)

103015 #2 네 참 헤나실 거라.(네 참 했을 거야.)

103015 @ 거리가.(거리가.)

103015 #2 으. 거리가.(응. 거리가.)

조 농사

103016 @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 조도 그놈의 거.(조? 조도 그놈의 것.)

103016 @ 예.(예.)

115) '참'은 거리를 재는 단위이다. 한 참은 약 5 리이다.

103016 #1 피, 조, 궤발시리[116]여, 아즌벡이[117]여, 흐린조, 모인조여.(피, '궤발시리'다, '아즌벡이'다, 차조다, 메조다.)

103016 @ 예.(예.)

103016 #1 무신거 이거 뭐 흔이 엇수다.(무엇 이거 뭐 한이 없습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흔이 언는데.(한이 없는데.)

103016 @ 예.(예.)

103016 #1 여기에 대개 하던 것은 아주 박 전에 풀도 아이 나는 황무지가 이십니다.(여기에 대개 하던 것은 아주 박정희 시절 전에 풀도 안 나는 황무지가 있습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그디는 ᄀᆞ랑조를 갈아야 뒈어.(거기는 'ᄀᆞ랑조'를 갈아야 돼.)

103016 @ ᄀᆞ랑조.('ᄀᆞ랑조'.)

103016 #1 ᄀᆞ랑조라고.('ᄀᆞ랑조'라고.)

103016 @ 예.(예.)

103016 #1 ᄀᆞ랏 닮은 거. ᄀᆞ랏이라고 털 북삭헤영 나민 뽑앙 데껴불지 안 헙니까?('ᄀᆞ랏' 닮은 거. 'ᄀᆞ랏'이라고 털이 북실북실해서 나면 뽑아서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103016 @ 예예.(예예.)

103016 #1 그 닮은 건데 그것보다는 더 정다와.(그 닮은 것인데 그것보다는 더 정겨워.)

103016 @ 예.(예.)

103016 #1 막 ᄌᆞ락하게 그 알이 많이 벡혀서.(막 자락자락 그 알이 많이 박혀서.)

103016 @ 아.(아.)

103016 #1 헤서 ᄀᆞ랑조를 그 전에는 그 사람으로 비여.(해서 'ᄀᆞ랑조'를 그 전에는 그 사람이 베었어.)

103016 @ 예.(예.)

103016 #1 ᄀᆞ랑조는 삐여근에 유월절 들민 사름으로 봅지 안 허고 쉐나 말들 막 방목헹 내붑니께.('ᄀᆞ랑조'는 씨 뿌리고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밟지 않고 쇠나 말들을 막 방목해서 내버려둡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그믄 저 ᄉᆞ시에 강 몰아당.(그러면 저 근처에 가서 몰아다가.)

103016 @ 우리 거 아니라도마씨?(우리 것이 아니라도요?)

103016 #1 으. 놈의 ᄆᆞᆯ이라도.(응. 남의 말이라도.)

116) '궤발시리'는 조의 일종이다.
117) '아즌벡이'는 조의 일종이다.

103016 @ 예.(예.)

103016 #1 놈이 쉐든 놈이 물이든 막 방목헹 내불민 게.(남의 쇠든 남의 말이든 막 방목을 해서 내버리면.)

103016 @ 예.(예.)

103016 #1 야. 그걸 물아당 씨 삐민 게.(야. 그것을 몰아다가 씨를 뿌리면.)

103016 @ 예.(예.)

103016 #1 센 밧은 곰베로 두들기곡 벙뎅이를 패 두드리곡.(센 밭은 곰방메로 두들기고 뭉치를 패서 두드리고.)

103016 @ 예.(예.)

103016 #1 중간에 괭이가 나난 텟벙에를 테 밧을 부수멍 ᄀᆞ랑조를 갈앗주만은.(중간에 괭이가 나니까 잔디뭉치를 잔디밭을 부수면서 ᄀᆞ랑조를 갈았지만은.)

103016 @ 예.(예.)

103016 #1 피나 ᄀᆞ랑조.(피나 'ᄀᆞ랑조'.)

103016 @ 예.(예.)

103016 #1 갈앗는데 센 밧 벙에라고양.(갈았는데 센 밭 뭉치라고.)

103016 @ 예.(예.)

103016 #1 혼 이삼 미터 씩 나가.(한 이삼 미터 씩 나가.)

103016 @ 예.(예.)

103016 #1 센 밧을, 잔디밧을 가는 거라.(센 밭을, 잔디밭을 가는 거야.)

103016 @ 예.(예.)

103016 #1 잔디밧을 갈면은 옛날은 그 무기라고 해서.(잔디밭을 갈면 옛날에는 그 무기라고 해서.)

103016 @ 예.(예.)

103016 #1 센 밧 아닌 밧은 벙에가 일어나면은 요만한 곰베로 그 벙에를 때리고.(센 밭 아니 밭에는 뭉치들이 일어나면 요만한 곰방메로 그 뭉치들 때리고.)

103016 @ 예.(예.)

103016 #1 센 밧은 요만한 벙에로 두들기지를 못 헙니다.(센 밭은 요만한 뭉치로 두드리지 못합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벙에를 못 부수와.(뭉치를 못 부셔.)

103016 @ 예.(예.)

103016 #1 경허민은 괭이, 그 철공소에 강 멘들어오든 어떻든 괭이로 ᄒᆞ나ᄒᆞ나 끈어 나갑니다.(그러면은 괭이, 그 철공소에 가서 만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괭이로 하나하나 끊어 나갑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끈어 나강은엥에 씨 뼝은에 혼 두 번 확 헤영 내쳐붑주.(끊어 나가서 씨 뿌린 후에 한 두 번 후다닥 해서 내리쳐버리죠.)

103016 @ 예.(예.)

103016 #1 그 당시엔 소나 말이 막 방목뒈엉 이시난 그 시기상으로 언제 뒈민 물 ᄆᆞ실 허는 시기가 이수다.(그 당시에는 소나 말이 막 방목되어 있으니 그 시기상으로 언제 되면 말마실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방목허는 시기가 있고 개방허는 시기가 있고.(방목하는 시기가 있고 개방하는 시기가 있고.)

103016 @ 예.(예.)

103016 #1 겨난. 그 언제 뒈면은.(그러니까. 그 언제 되면.)

103016 @ 예.(예.)

103016 #1 그런 허허 벌판에 피 농사, ᄀᆞ랑조 농사 헤영 싹이 날 거 아니꽈.(그런 허허 벌판에 피 농사, 'ᄀᆞ랑조' 농사 해서 싹이 날 거 아닙니까?)

103016 @ 예.(예.)

103016 #1 그럼 그걸 먹지 못허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언제 뒈면은 전부 가두는 시기가 이수다. 소물을.(그럼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언제가 되면 전부 가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소를.)

103016 @ 예.(예.)

103016 #1 경허면은 그 곡석은 끝내 ᄀᆞ슬 끝에 갈 때까지도 잇습니다.(그러면 그 곡식은 끝내 가을 끝에 갈 때까지도 있습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경허당 어쩌다 쉐들이나 물이나 딱 가두었던 것이 튀어나왕 먹어불민.(그러다가 어쩌다 소들이나 말들이 딱 가두었던 것이 뛰쳐나와서 먹어버리면.)

103016 @ 예.(예.)

103016 #1 그때는 주인하고 마주하고 좋은 합의 봐가지고 얼마 주시오. 경 허주만은.(그때는 주인하고 마주하고 좋은 합의를 봐 가지고 얼마 주시오. 그렇게 하지만.)

103016 @ 예.(예.)

103016 #1 그 전에는 그 시기가 뒈면 쉐나 말은 전부 가두어 붑니께.(그 전에는 그 시기가 되면 소나 말은 전부 가두어 버립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목동헹은에 전부 모두왕 ᄀᆞ꾸[118] 들어강.(목동을 해서 전부 모아 '**ᄀᆞ꾸**' 들어가서.)

103016 @ 어디서마씨?(어디서요?)

103016 #1 이 산이 소물 멕이는 산이라.(이 산이 마소 먹이는 산이야.)

103016 @ 여기도 마을 목장이 이수과?(여기도 마을 목장이 있습니까?)

103016 #1 그 목장 저 목장허기 전에.(그 목장 저 목장하기 전에.)

---

118) 'ᄀᆞ꾸'는 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103016 @ 하기 전에마씨?(하기 전에요?)
103016 #1 이제는 이, 속담에 말이 이수다.(이제는 이,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아들 주어빈 밧디 푸께도 못 주워 먹나.(아들에게 줘 버린 밭에는 꽈리도 못 주워서 먹는다.)
103016 @ 아들 죽어븐 밧디?(아들이 죽어버린 밭에?)
103016 #1 아들 준 밧디.(아들에게 준 밭에.)
103016 @ 예.(예.)
103016 #1 아, 속담이 정승이 웨 밧디 지나가는디 초신 클러지니까 다시 메지 못헤영 그냥 넘어가고이.(아, 속담에 정승이 오이 밭을 지나가는데 초신이 풀리니까 다시 메지 못하고 그냥 넘어 가고.)
103016 @ 예.(예.)
103016 #1 어느 정승이 탕건을 다시 줄라 메지 못했다 안 헙니까?(어느 정승이 탕건을 다시 죄여 메지 못했다 안 합니까?)
103016 @ 예.(예.)
103016 #1 누명을 써 지카부덴.(누명을 쓸까봐서.)
103016 @ 예.(예.)
103016 #1 그 전이양 저, 정주영이네 송당 목장이 아이 들어올 때는 무법 천지라수다.(그 전에 저, 정주영이네 송당 목장에 안 들어올 때는 무법 천지였습니다.)
103016 @ 아.(아.)
103016 #1 게난 저 해벤 지경에서도 밧 불려낭 소 ᄆᆞᆯ이라도 노으면은 양.(그러니까 저 해안마을 지경에서도 밭 밝게 하고 나서 마소라도 놓으면.)
103016 @ 예.(예.)
103016 #1 이 건영목장이든 송당목장이든 왕 멕여난.(이 00목장이든 00목장이든 와서 먹였었어.)
103016 @ 예.(예.)
103016 #1 축우마들은 양, 밤이 새도 올라와.(마소들은, 밤이 새도 올라와.)
103016 @ 축우마마씨?(축우마요?)
103016 #1 소하고 ᄆᆞᆯ. 축우마.(소하고 말. 마소.)
103016 @ 아, 하하하.(아, 하하하.)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조는 유월절. 유월 달에. (조는 유월절에. 유월 달에.)
103018 @ 예.(예.)
103018 #1 건 추곡이고. 보리는 하곡이라 말이우다.(그건 가을 곡식이고. 보리는 여름 곡식이다 말입니다.)
103018 @ 예.(예.)
10018 #1 건 여름에 수확을 허는 거니까 하곡이곡. 조는 추곡이곡.(그건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니까 여름 곡식이고. 조는 가을 곡식.)

103018 @ 예.(예.)

103018 #1 조, 피 ᄀᆞ튼 건 추곡이고.(조, 피 같은 것은 가을 곡식이고.)

103018 @ 추곡이라서 유월절에예?(가을 곡식이라서 유월절에요?)

103018 #1 예. 여름에 씨 삐고.(예. 여름에 씨를 뿌리고.)

103021 @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조 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21 #1 조도 검질을 매야 돼.(조도 김을 매야 돼.)

103021 @ 조팟디는 몇 번 검질 매마씨?(조 밭에는 몇 번 김을 매요?)

103021 #1 그거 두 불, 두 불.(그것은 두 번씩. 두 번씩.)

103021 @ 두 불 매기 허는구나예?(두 번 매기를 하는군요.)

103021 #1 으, 두 불.(응, 두 번씩.)

103021 @ 예.(예.)

103021 #1 특히나 여기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농사, 조농사, 산듸농사를 하고 여기가 광활해서양.(특히나 여기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농사, 조농사, 밭벼농사를 하고 여기가 광활해서.)

103021 @ 예.(예.)

103021 #1 입더레 들어가는 건 엇고 사름이 고역을 당허는 거우다.(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사람이 고역을 당하는 겁니다.)

103021 @ 예.(예.)

103021 #1 겨난 잇당 원망을 헤여 집니다.(그러니까 원망을 해 집니다.)

103021 @ 예.(예.)

103021 #1 제주도에도 구좌 송당만은 쉐하고 나무베끼 키우질 못하급디다.(제주도에도 구좌 송당만은 소하고 나무밖에 키우지를 못하겠습디다.)

103021 @ 음.(음.)

103021 #1 난 새소리낭 접동새낭 저 웃드르 송당이렌 허는 첩첩산골이우다. 영 ᄀᆞᆯ으민 몰라 마씀.(나는 새소리나무 접동새나무 저 웃드르 송당이라고 하는 첩첩산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103021 @ 하.(하.)

103021 #1 경 ᄀᆞᆯ으민 거 무신 말이라.(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103021 @ 예.(예.)

103021 #1 몰리민 저 ᄃᆞ리[119] 송당 그땐 알곡.(모르면 저 ᄃᆞ리 송당. 그때는 알고.)

103021 @ 예.(예.)

103021 #1 지대가 경헤노난양 이게 ᄇᆞ름도 더 탑니다.(지대가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바람도 더 탑니다.)

103021 @ 예.(예.)

119) 'ᄃᆞ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옛이름이다.

103021 #1 모든 게 지대가 높아노난.(모든 것이 지대가 높으니까.)
103021 @ 예.(예.)
103021 #1 헤영 노민 수확량이.(해서 놓으면 수확량이.)
103021 @ 예.(예.)
103021 #1 헤벤은 그런 농사를 아이 짓지만 여기는 상상 외에 떨어져 붑니다.(해변은 그런 농사를 안 짓지만 여기는 상상 외로 떨어져 버립니다.)
103021 @ 아.(아.)
103021 #1 수확량이.(수확량이.)
103021 @ 아까 셋ᄇᆞ름 갈ᄇᆞ름은 어디서 부는 거꽈?(아까 셋바람 갈바람은 어디서 부는 겁니까?)
103021 #1 십이지 간지에서 나온 말인데.(십이지 간지에서 나온 말인데.)
103021 @ 예.(예.)
103021 #1 을진풍이다 하는 것이.(을진풍이다 하는 것이.)
103021 @ 예.(예.)
103021 #1 또 높새다.(또 높새바람이다.)
103021 @ 예.(예.)
103021 #1 학자들 십이지 간지에서 지엉 나온 말인디.(학자들이 십이지 간지에서 지어서 나온 말인데.)
103021 @ 봄에 부는 ᄇᆞ름은마씨?(봄에 부는 바람은요?)
103021 #1 을진풍이라고 동남풍이라.(을진풍이라고 동남풍이야.)
103021 @ 동남풍마씨? 그럼 여름에는?(동남풍요? 그럼 여름에는?)
103021 #1 여름에는 그 ᄇᆞ름이고 높새라. 같은 시기라.(여름에는 그 바람이고 높새야. 같은 시기야.)
103021 @ 방향은?(방향은?)
103021 #1 방향은 동북 간격.(방향은 동북 간격.)
103021 @ 그럼 마파람은?(그럼 마파람은?)
103021 #1 마파람은 막바루. 남쪽에서 막바루 부는 거.(마파람은 막바로. 남쪽에서 곧바로 부는 거.)
103021 @ 동쪽에서 부는 건.(동쪽에서 부는 것은.)
103021 #1 동쪽에서 부는 건 완전 셋ᄇᆞ름.(동쪽에서 부는 것은 완전 셋바람.)
103021 @ 셋ᄇᆞ름.(샛바람.)
103021 #1 야.(야.)
103021 @ 서쪽에서 부는 건.(서쪽에서 부는 것은.)
103021 #1 그건 북서풍이 있고, 북풍이 있주.(그건 북서풍이 있고. 북풍이 있지.)
103021 @ 예.(예.)
103021 #1 북광 서 사이에. 북서풍이엔 헌 게 있주.(북하고 서 사이에. 북서풍이

라고 하는 게 있지.)

103021 @ 그건 우리말로 무신거옌 헙니까?(그것은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103021 #1 서하고 남 사이에 부는 건 하늬ᄇᆞ름이옌 허는 거라.(서하고 남 사이에 부는 것은 하늬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103021 @ 하늬 바람. 겨울에마씨?(하니 바람. 겨울에요?)

103021 #1 겨울도 불고 여름에도 불고.(겨울도 불고 여름에도 불고.)

103021 @ 예.(예.)

103021 #1 학자들이 말하는 기압골 돌아가는 냥 할로산 돌아가멍.(학자들이 말하는 기압골 돌아가는 모양 한라산 돌아가면서.)

103021 @ 예.(예.)

103021 #1 저기는 하늬ᄇᆞ름 불면 또 여기는 셋ᄇᆞ름도 불곡.(저기는 하늬 바람 불면 또 여기는 샛바람 불고.)

103021 @ 음.(음.)

103021 #1 기압골 돌아가는 거라부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주만은.(기압골 돌아가는 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103021 @ 예.(예.)

103021 #1 일기예보들은 ᄒᆞ쏠 알아졍.(일기예보들은 조금 알 수 있어.)

103021 @ 예.(예.)

103021 #1 게당 기상대에 욕도 헤집니다.(그러다가 기상대에 욕도 해집니다.)

103021 @ 하하.(하하.)

103021 #1 ᄒᆞᆫ번은 아니 맞건 듣지 맙서 혜연.(한번은 안 맞으면 듣지 말아요 했어요.)

103021 @ 예.(예.)

103021 #1 게난 옛날은 예.(그러니까 옛날은요.)

103021 @ 예.(예.)

103021 #1 음, ᄒᆞᆫ 오십년대. 사십년 전에는.(음, 한 오십년대. 사십년 전에는.)

103021 @ 예.(예.)

103021 #1 우리가 기사를 듣지 안허민 큰 실수가 이서.(우리가 기사를 듣지 않으면 큰 실수가 있어.)

103021 @ 예.(예.)

103021 #1 놉 빌엉 강 허젠 갔당 그냥 와불어야 될거 아니꽈.(놉을 빌려 가서 하려고 갔다가 그냥 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3021 @ 예.(예.)

103021 #1 밥은 헤영 가정강 질머졍 가졍 가질.(밥은 하고 가지고 가서 짊어지고 가지.)

103021 @ 게난 일기예보는 어떵 알아집니까?(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3021 #1 우리가 해군들 배 탈 때 일기예보 보는 식으로 우리가 봐.(우리가 해군들 배 탈 때 일기예보 보는 식으로 우리가 봐.)

103021 @ 어떵 알아집니까?(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3021 #1 여러 가지가 싯주게.(여러 가지가 있지.)

103021 @ 예.(예.)

103021 #1 별 기준으로 잡주게. 별 기준으로.(별을 기준으로 잡지. 별을 기준으로.)

103021 @ 아하. 낼 비올 거 닮다 허민.(아하.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하면.)

103021 #1 비 온다 허믄.(비 온다 하면.)

103021 @ 예.(예.)

103021 #1 경헌데 요즘 사름들 아이고 어떵 몸살 헴져, 어떵헹 이디 쑤셤져.(그런데 요즘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몸살 한다, 어떻게 여기 쑤신다.)

103021 @ 예.(예.)

103021 #1 이럴 땐 그런 걸로도 기준을 허주기. 이녁 자신이.(이럴 때는 그런 것으로도 기준을 하지. 자기 자신이.)

103021 @ 예.(예.)

103021 #1 저 사름 어디 뭘 헴시민 꼭 날이 이삼일 안에 날 우쳐.(저 사람 어디 뭘 하면 꼭 날이 이삼일 안에 날씨가 흐려.)

103021 @ 예.(예.)

103021 #1 무신 일이 나. 그거 틀림엇어. 틀림엇고.(무슨 일이 나. 그것은 틀림없어. 틀림없고.)

103021 @ 예.(예.)

103021 #1 벨 같은 것도 무신 벨이 어떵허고 어떻게 ᄒᆞ면은 날이 웃는 다는 거.(별 같은 것도 무슨 별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날이 흐린 다는 거.)

103021 @ 예.(예.)

103021 #1 그런 거 대개 그대로 우리가 허는 거지. 그때는 과학이 이서수과?(그런 거 대개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때는 과학이 있었습니까?)

103021 @ 예.(예.)

103021 #1 전혀 엇어노난.(전혀 없으니까.)

103022 @ 조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조밭에는 어떤 잡초가 자랍니까?)

103022 #1 풀이 씨앗이 이신 밧은 여러 가지 풀이 나곡.(풀이 씨앗이 있는 밭은 여러 가지 풀이 나고.)

103022 @ 예.(예.)

103022 #1 또 씨가 과히 엇인 밧은 그런대로 고정된 멧 가지 풀만 납니다.(또 씨가 지나치게 없는 밭은 그런대로 고정된 몇 가지 풀만 납니다.)

103022 @ 예.(예.)

103022 #1 조도 하나.(조도 하나.)

103022 @ 예.(예.)

103022 #1 조밧디도 매는데 게니까 밧검질 매는 사람도 사람을 아무나 하지 안헙니다.(조 밭에도 매는데 그러니까 밭김을 매는 사람도 사람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103022 @ 예.(예.)

103022 #1 뒈도록이민 방수를 새가멍 매가야 뒈어.(되도록이면 방수를 세어 가면서 매어야 돼.)

103022 @ 예. 조팟디는?(예. 조밭에는?)

103022 #1 조팟디든 돌팟디든 아무 밧디도.(조밭에든 돌밭에든 아무 밭에도.)

103022 @ 예.(예.)

103022 #1 검질에 들어가서는.(김에 들어가서는.)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그게 잘 빠지게도 못 헙니께.(그것이 잘 빠지게도 못 합니다.)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뒈도록 이 땅을 많이 긁으는 용사가 있고 땅을 긁지 안허는 용사가 이서.(되도록이면 이 땅을 많이 긁는 농사가 있고 땅을 긁지 않는 농사가 있어.)

103022 @ 아.(아.)

103022 #1 게난 이거 조 같은 것은 굽에 양.(그러니까 이것은 조 같은 것은 뿌리 쪽에요.)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그 자라는 율이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끔.(그 자라는 비율이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103022 @ 살살.(살살.)

103022 #1 조팟은 누게 말곳자나 영 조침 앚앙은에 영 매는데.(조밭은 누구 말같이 이렇게 주춤 앉아서 이렇게 매는데.)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저, ᄆᆞ음대로 불르도 못헙니다. 넘어지면은 그게.(저, 마음대로 밟지도 못합니다. 넘어지면 그것이.)

103022 @ 죽어불어마씨?(죽어버려요?)

103022 #1 죽어붐도 허고 나도 오그라지멍 나분다 말이우다.(죽어버리기도 하고 나도 오그라들면서 나버린다 말입니다.)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오그라졍 나오면 ᄀᆞ튼 지레서 크질 못헤여.(오그라져서 나오면 같은 높이에서 크지를 못해.)

103022 @ 예.(예.)

103022 #1 예, 경허면 그게 상품 일정하게 뒈질 못허여.(예, 그렇게 하면 그게 상품이 일정하게 되질 못해.)

103022 @ 아.(아.)

103022 #1 야. 경헤서 이 검질 매는 사름도 놉을 골리곡.(예. 그렇게 해서 이 김매는 사람도 놉을 고르고.)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것도 경 쉬운 게 아니우다.(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3022 @ 잘 허는 사람으로 뽑아 가야겠다예.(잘하는 사람으로 뽑아 가야겠어요.)

103022 #1 검질 매는 사름 뽑아야 뒈어.(김매는 사람을 뽑아야 돼.)

103022 @ 아, 예.(아, 예.)

103022 #1 아무나 헴시믄 말이여 두린 애들 말이여 검질도 매곡 조도 매영 데껴불곡 허지만은 그거 절대 골려야 됩니께.(아무나 할 수 있으면 말이야 어린 애들 말이야 김도 매고 조도 매서 던져 놓고 하지만 그거 절대 골라야 됩니다.)

103022 @ 하하.(하하.)

103025 @ 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103025 #1 톨아놩 도께로 두들겨.(뜯어 놓고 도리깨로 두들겨.)

103025 @ 도께로 두들겨놩, 그다음은 (도리깨로 두르려 놓고, 그 다음은?)

103025 #1 그 다음 마찬가지. 치어근에게. 응, 치어.(그 다음 마찬가지. 찧어서. 응, 찧어서.)

103025 @ 치어?(찧어?)

103025 #1 조, 분리 잘헤영은에. 그건 정ᄀᆞ레에도 안 가. 건 연자방아에서 ᄀᆞᆯ아야 뒈어.(조, 분리를 잘해서는. 그건 맷돌에도 안 가. 그건 연자방아에서 갈아야 되어.)

103025 @ 아.(아.)

103025 #1 깨어지민 안 뒈지.(깨어지면 안 되지.)

103025 @ 아.(아.)

103025 #1 그 조는.(그 조는.)

103025 @ 연자방아는 제주도말로 뭐꽈?(연자방아는 제주도말로 뭐예요?)

103025 #1 연자방아라고 그게 ᄆᆞᆯ방에인데.(연자방아라고 그게 말방아인데.)

103025 @ 예.(예.)

103025 #1 그 피 같은 거 ᄀᆞᆯ 때는 사름이 넷이 사. 넷이 상 ᄀᆞᆯ아.(그 피 같은 거 갈 때는 사람이 넷이 서. 넷이 서서 갈아.)

103025 @ 조는마씨?(조는요?)

103025 #1 피는 저 연자방아에 들어가는데 아니믄 방에나.(피는 저 연자방아에 들어가는데 아니면 방아나.)

103025 @ 아, 예.(아, 예.)

103025 #1 그 ᄆᆞᆯ방에렌 한 것이 사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ᄆᆞᆯ을 장치시키는 거라.(그 말 방아라고 한 것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장치시키는 거야.)

103025 @ 아.(아.)
103025 #1 물 딱하민 두 사름이믄 뒈어.(말 딱하면 두 사람이면 돼.)
103025 @ 음.(음.)
103025 #1 게헹 인력을 막 단축뒈는 거라.(그렇게 해서 인력을 막 단축되는 거야.)
103025 @ 예.(예.)
103025 #1 경헹 피는 ᄒᆞ곡.(그렇게 해서 피는 하고.)
103025 @ 예.(예.)
103025 #1 조는 그대로 방에에 허던, 방에에 뒈게 했언.(조는 그대로 방아에 하든, 방아에 되게 했었어.)
103025 @ 예.(예.)
103025 #1 수월하거든. 제일 수월헙니께. 껍질이 ᄒᆞ나만이라노난.(수월하거든. 제일 수월해요. 껍질이 하나만이니까.)
103026 @ 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26 #1 조를 방에를 칠 때, 간혹 분리를 못헤여.(조를 방아에 찧을 때, 간혹 분리를 못해.)
103026 @ 예.(예.)
103026 #1 혼불 헤영, 두 불, 세 불, 네 불을 지으면은.(한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찧으면.)
103026 @ 예.(예.)
103026 #1 웬만하면은 조 껍데기 있는 것이 아이 들어갈 수 있는데.(웬만하면 조 껍데기 있는 것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103026 @ 예.(예.)
103026 #1 간혹 조 껍데기가 이습니께. 경허면은 양 네 번 지을 거를. 야, 이거 세 번만 지어 부니까.(간혹 조 껍데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번 찧을 거를. 야, 이거 세 번만 찧어 버리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밥을 먹을 때 이땅 수왁수왁합니다.(밥을 먹을 때 이따가 서걱서걱합니다.)
103026 @ 하하하.(하하하.)
103026 #1 껍데기 이신 놈이 들어가민.(껍데기 있는 놈이 들어가면.)
103026 @ 수왁수왁헤마씨?(서걱서걱해요?)
103026 #1 야, 그거, 경헤영 먹어은에.(예, 그거, 그렇게 해서 먹어서.)
103026 @ 예.(예.)
103026 #1 게도게 배고프난 무시거옌 헙니까?(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합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경헹 조는 정ᄀᆞ레엔 아이 갑주마씀.(그렇게 해서 조는 맷돌에 안 갑니다.)

103026 @ 음.(음.)

103026 #1 정ᄀᆞ레에 가는 건 그자, 모믈 ᄀᆞ튼 거.(맷돌에 가는 건 그저, 메밀 같은 거.)

103026 @ 예.(예.)

103026 #1 산듸도 아니 갈곡.(밭벼도 안 갈고.)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헤야 합니까?(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103029 #1 그 전에는 저 그, 흔 삼십 년 전에는.(그 전에는 저 그, 한 삼십 년 전에는.)

103029 @ 예.(예.)

103029 #1 장콩[120]이라고 헤서 머드레콩이렌 허는 게 이서수다.(메주콩이라고 해서 그루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03029 @ 예.(예.)

103029 #1 팔월배[121]는 장콩이고. 머드레 콩이라고 씨가 좀 틀린 거우다.(팔월배는 메주콩이고 그루콩이라고 씨가 좀 다른 거예요.)

103029 @ 예.(예.)

103029 #1 그전이 팔월배라고 헤서 장도 담곡.(그전에 '팔월배'라고 해서 장도 담그고.)

103029 @ 예.(예.)

103029 #1 머드레 콩이라고 헤서 그건 좀 큽니다.(그루콩이라고 해서 그건 좀 큽니다.)

103029 @ 예.(예.)

103029 #1 머드레콩이라고 헤서 나오건 디 한 삼십 년 뒈었는데.(그루콩이라고 해서 나온 지가 한 삼십 년 되었는데.)

103029 @ 예.(예.)

103029 #1 요즘에는 힐콩[122]이여, 뭐여, 준자리[123]여.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엇수다.(요즘에는 힐콩이다, 뭐다, 준자리다.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03029 @ 예.(예.)

103029 #1 지도소에서 나온 사름이나 이 농협에서 종자를 자꾸 갱신합니다.(지도소에서 나온 사람이나 이 농협에서 종자를 자꾸 갱신합니다.)

---

120) '장콩'은 장을 담그는 콩을 말한다.
121) '팔월배'는 콩의 한 종류이다.
122) '힐콩'은 콩의 한 종류이다.
123) '준자리'는 콩의 한 종류이다.

103029 @ 예.(예.)
103029 #1 수확을 잘 헤야 농협에도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수확을 잘 해야 농협에도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103029 @ 예.(예.)
103029 #1 콩 이름은 시방 우리는 모릅니다.(콩 이름은 시방 우리는 모릅니다.)
103029 @ 옛날에 헤난 거 말헤줍서.(옛날에 했었던 거 말해주세요.)
103029 #1 옛날 헤난 재래식입주.(옛날 했었던 재래식이지요.)
103029 @ 예, 그것만 골아도 뒙니다.(예. 그것만 말씀해도 됩니다.)
103029 #1 야, 팔월배옌 혼 게 이수다.(예, 팔월배라고 한 게 있습니다.)
103029 @ 팔월배.(팔월배.)
103029 #1 으, 그게 줌지라.(응, 그게 작아.)
103029 @ 예.(예.)
103029 #1 풍화작용이영, 비보롬에 그게 강헤여.(풍화작용이나, 비바람에 그게 강해.)
103029 @ 예.(예.)
103029 #1 그 팔월배가. 수확은 잘 아이 납니다.(그 팔월배가. 수확은 잘 안 납니다.)
103029 @ 이건 그믄 노랑콩마씨?(이건 그러면 노란 콩입니까?)
103029 #1 으, 노랑콩.(응, 노란 콩.)
103029 @ 예.(예.)
103029 #1 검은 콩도 요즘 난 거.(검은 콩도 요즘 난 거.)
103029 @ 예.(예.)
103029 #1 수입산 콩이여 장콩이여, 무신 대두콩이여 허는 거.(수입산 콩이다 메주콩이다. 무슨 대두콩이다 하는 거.)
103029 @ 예.(예.)
103029 #1 거 뭐 일이십년 이내에 허는 거고.(그거 뭐 일이십년 이내에 하는 거고.)
103029 @ 옛날 헤난 건 다 노란콩마씨?(옛날 한 것은 다 노란 콩입니까?)
103029 #1 으. 다 노란 콩.(으. 다 노란 콩.)
103029 @ 뒌장하는 거마씨?(된장하는 거예요?)
103029 #1 아니, 그거 볶앙은에 지시도 허는 거고, 뒌장도 허는 거고. 그거우다.(아니, 그거 볶아서 장아찌도 하는 거고, 된장도 하는 거고. 그거예요.)
103029 @ 예.(예.)
103029 #1 원조는 팔월배.(원조는 팔월배.)
103029 @ 팔월에 수확허는 거마씨? 무사 팔월배렌 헙니까?(팔월에 수확하는 거예요? 왜 팔월배라고 합니까?)
103029 #1 아니, 아니. 그게 팔월배, 팔월배 허는 데 좀 일찍 익읍니다.(아니, 아

니. 그게 팔월배, 팔월배 하는 데 좀 일찍 익습니다.)
103029 @ 그때 뒈민 수확헤마씨?(그때 되면 수확해요?)
103029 #1 야, 그게 뿔리 익기 때문에 시방 나는 콩 중에서.(예, 그게 빨리 익기 때문에 시방 나는 콩 중에서.)
103029 @ 예.(예.)
103029 #1 시방도 그 콩이 키가 제일 큽니다.(시방도 그 콩이 키가 제일 큽니다.)
103029 @ 예.(예.)
103029 #1 콩 밧디 갈면은 꾸덕꾸덕 나는 게 그게 팔월 배 종류인데.(콩 밭에 갈면 꾸역꾸역 나는 게 그게 팔월배 종류인데.)
103029 @ 아.
103029 #1 그게 특이하게 콩낭은 비보름에 강혜여마씀.(그게 특이하게 콩대가 비바람에 강해요.)
103029 @ 예.(예.)
103029 #1 넘어져도 잘 안 허곡. 강혜여.(넘어지지도 잘 안 하고. 강해.)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은 저 여름에.(콩은 저 여름에.)
103030 @ 예.(예.)
103030 #1 마찬가지. 그것도 겨울에 허는 거기 때문에.(마찬가지. 그것도 겨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3030 @ 예.(예.)
103030 #1 콩이 제일 나중에. 익음은 제일 나중에 익읍니다.(콩이 제일 나중에. 익는 것은 제일 나중에 익습니다.)
103030 @ 아.(아.)
103030 #1 콩도 소서가 뒈면 소서를 전후헹 뿌립니다.(콩도 소서가 되면 소서를 전후해서 뿌립니다.)
103030 @ 아, 그때 뿌리면 (아, 그때 뿌리면.)
103030 #1 그게 유월절이라고 헤서 소서 전에 허민 백 메칠이면 딱 저게 익는 겁주.(그게 유월절이라고 해서 소서 전에 하면 백 며칠이면 딱 저게 익는 겁니다.)
103030 @ 예.(예.)
103030 #1 거난 비보름을 태풍을 딱 맞닥드려야 합주. 팔월 구월 달에 저게.(그러니까 비바람을 태풍을 딱 맞닥뜨려야 해요. 팔월 구월 달에 저것이.)
103030 @ 장마도 있고.(장마도 있고.)
103030 #1 야, 장마도 있고.(예, 장마도 있고.)
103030 @ 콩은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콩은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103030 #1 좋은 땅이 좋읍니다만은.(좋은 땅이 좋습니다만.)
103030 @ 예.(예.)

103030 #1 요즘 콩은 물을 앚이면은 썩어붑니다.(요즘 콩은 물에이 닿으면 썩어버립니다.)

103030 @ 예.(예.)

103030 #1 그런 밧을 택혜야 합니다.(그런 밭을 택해야 합니다.)

103030 @ 예.(예.)

103030 #1 콩이 한 열 가지 됩니다.(콩이 한 열 가지 됩니다.)

103030 @ 예.(예.)

103030 #1 이거 다 아니 헹 잊어부난 헴주.(이거 다 안 해서 잊어버리니까 하지.)

103030 @ 예.(예.)

103030 #1 십년 전이만 헤도 놈 허는 건 다 헤낫주만은 이젠 양, 버쳐마씀. ᄆᆞ음은 이서도.(십년 전에만 해도 남들 하는 것은 다 했었지만 이젠, 부쳐요. 마음은 있어도.)

103030 @ 예.(예.)

103030 #1 팔월배가 원조우다.(팔월배가 원조입니다.)

103031 @ 콩밧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1 걸름을 헤주민 좋주. 걸름이라는 게 영양분이기 때문에.(거름을 해주면 좋지. 거름이라는 게 영양분이기 때문에.)

103031 @ 보리짚으로 쉐걸름 헤수과?(보리짚으로 쇠거름을 했습니까?)

103031 #1 걸름헤지민 좋고. 콩 씨 허기 전에.(거름해지면 좋고. 콩 씨 하기 전에.)

103031 @ 허기 전에.(하기 전에.)

103031 #1 씨 허기 전에 밧디 걸름 뿌렸당 콩 갈 때 강 엎으면은 아주 왔다주게[124].(씨를 하기 전에 밭에 거름을 뿌렸다가 콩을 갈 때 가서 엎으면 아주 왔다지.)

103031 @ 아. 걸름 허지 못허면 쉐나 ᄆᆞᆯ 데려당 똥 싸게 허지 안 헙니까?(아. 거름을 하지 못하면 소나 말을 데려다가 똥을 싸게 하지 않습니까?)

103031 #1 그건 바령[125]이라고.(그것은 '바령'이라고.)

103031 @ 아, 바령.(아, '바령'.)

103031 #1 밧디 똥 싸근에 ᄒᆞ룻밤 재워놩 내쳐근에.(밭에 똥을 싸서 하룻밤 재워 놓고 내쳐서.)

103031 @ 예.(예.)

103031 #1 또 뒷날 강 잘 멕영 똥 줍질 허는 거.(또 다음 날에 잘 먹여서 똥을 싸게 하는 거.)

103031 @ 예.(예.)

---

124) '왔다주게'라는 말은 문맥에서 최고라는 의미로 쓰였다.

125) '바령'은 거름 대신 마소들이 직접 농사지을 땅에다 똥오줌을 뉘게 해서 밭에 윤지게 하는 것을 말하다.

103031 #1 게난 우리말로 똥 즙질허는 거. 하하하.(게난 우리말로 똥 싸지르는 거. 하하하.)

103031 @ 똥 즙질허는 거.(똥 싸지르는 거.)

103031 #1 또 걸름을 가져당 놓지 못하니까.(또 거름을 가져다가 놓지 못하니까.)

103031 @ 예.(예.)

103031 똥 즙지라놩은에 땅을 덮으면은 똥이 발효가 된다 말이우다.(똥을 싸질러놓고 땅을 덮으면 똥이 발효가 된다 말입니다.)

103031 @ 응. 예.(응. 예.)

103031 #1 야, 경허는 거. 허허허.(예, 그렇게 하는 거. 허허허.)

103031 @ 아무 농사에나 경허는 거마씨?(아무 농사에나 그렇게 해요?)

103031 #1 야, 아무 농사나.(예. 아무 농사에나.)

103031 @ 예.(예.)

103031 #1 그게 양 허허벌판은 밤에 소를 가늠을 못하니까 담 ᄃᆞᆯ레기.(그게요, 허허 벌판은 밤에 소를 가늠을 못하니까 담 '돌레기'.)

103031 @ 예.(예.)

103031 #1 예, 단밧. 최고 칠팔백 평. 그 너머는 못헙니다.(예. 단밭. 최고 칠팔백 평. 그 너머는 못 합니다.)

103031 @ 예.(예.)

103031 #1 도망가 불지 거.(도망가 버리지 그거.)

103031 @ 예.(예.)

103031 #1 밤이도 강 거 헤노믄양 사름이 그기 강 직혀야 돼.(밤에도 가서 그거 해 놓으면요 사람이 거기를 가서 지켜야 돼.)

103031 @ 아.(아.)

103031 #1 또 경허곡 그게 한 가지.(또 그리고 그게 한 가지.)

103031 @ 예.(예.)

103031 #1 이 한 두 시간 넘으민 촐을 새기당 눕니다.(이 한 두 시간 넘으면 촐을 새기다가 눕습니다.)

103031 @ 예.(예.)

103031 #1 누우면은 쉐가 거저 누운줄 알민 사름이 ᄒᆞ룻밤이 최소 세 번은 그걸 일려 세와야 돼.(누우면 소가 그저 누운 줄 알면 사람이 하룻밤에 최소 세 번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돼.)

103031 @ 예.(예.)

103031 #1 쉐 누운 거 확 쏴리곡. '허이'허민 그놈의 게가 일어나민 소화된 걸 똥을 쌉니다.(소가 누운 거를 확 때리고. '허이'하면 그놈의 것이 일어나면 소화된 걸 똥을 쌉니다.)

103031 @ 하하하.(하하하.)

103031 #1 세 번을 일려 세우면 세 번을 똥을 싸.(세 번을 일으켜 세우면 세 번을 똥을 싸.)

103031 @ 하하하. 똥 세우젠 일려세웜구나예.(하하하. 똥 싸게 하려고 일으켜 세우는군요.)

103031 #1 영 헹 밤이 바령을 지키는 거라.(이렇게 해서 밤에 '바령'을 지키는 거야.)

103031 @ 잠을 못자게마씨?(잠을 못 자게요?)

103031 #1 으. 그걸 알아야 뒈어.(응. 그걸 알아야 돼.)

103031 @ 예.(예.)

103031 #1 거난 바령허는 것도 쉐만 무조건 직힌다헤서 줌을 자는 게 아니.(그러니까 '바령'하는 것도 소만 무조건 지킨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

103031 @ 예.(예.)

103031 #1 쉐를 자꾸 촐을 새경. 두어 시간 마다 누면은 세 번 정도는 ᄒᆞ룻밤 사이에 일령 세워야 뒈어.(소를 자꾸 촐을 새기고. 두어 시간 마다 누우면 세 번 정도는 하룻밤 사이에 일으켜 세워야 돼.)

103031 @ 경헤야 똥 쌀 거 아니예?(그렇게 해야 똥을 쌀 거 아니에요?)

103031 #1 으. 경헤야 똥 쌀 거.(응. 그렇게 해야 똥을 쌀 거.)

103031 @ 예.(예.)

103031 #1 여러번 싸근에 걸름이 뒈는 거라.(여러 번 싸서 거름이 되는 거야.)

103031 @ 아.(아.)

103031 #1 경허는 거우다. 하하하.(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하하.)

103031 @ 예.(예.)

103031 #1 무의미헌게 엇수다.(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103031 @ 예.(예.)

103031 #1 경허난 옛날 하르방들 지혜가, 걸름 지혜가 오죽 잘 헌 것과?(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 지혜가, 거름 지혜가 오죽 잘 한 겁니까?)

103031 @ 게난 예?(그러니까요.)

103031 #1 ᄒᆞᄒᆞᄒᆞᄒᆞ.(ᄒᆞᄒᆞᄒᆞᄒᆞ.)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콩밭에는 어떤 잡초들이 자랍니까?)

103034 #1 겨난 겨울풀 여름풀이 틀려.(그러니까 겨울풀 여름풀이 달라.)

103034 @ 아, 겨울풀 여름풀.(아, 겨울풀 여름풀.)

103034 #1 겨울풀, 여름풀이 틀려.(겨울풀, 여름풀이 달라.)

103034 @ 예.(예.)

103034 #1 ᄀᆞ튼 계절에 나는 건 콩풀이렌 허는 게 이수다. 콩풀.(같은 계절에 나는 건 개불알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불알꽃.)

103034 @ 예.(예.)

103034 #1 여름 겨울 엇이.(여름 겨울 없이.)

103034 @ 검질은 콩풀 말아 다른 건 엇수과?(김은 개불알꽃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103034 #1 다른 풀도 여려 가집주, 풀이.(다른 풀도 여러 가지이지요, 풀이.)

103034 @ 알아지는 건 어떤 거 이수과?(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3034 #1 아이고, 풀이옌 허는 건 여러 가지양.(아이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요.)

103034 @ 예.(예.)

103034 #1 빈네 같은 건양 여름에 어욱 같은. 같은 거 빈네, 그거 문 속읍니다.(아욱메풀 같은 건 여름에 억새 같은. 같은 것이 아욱메풀, 그것은 모두 속아 냅니다.)

103034 @ 빈네.(아욱메풀.)

103034 #1 또 제완지.(또 바랭이.)

103034 @ 아, 제완지.(아, 바랭이.)

103034 #1 야, 그런거 하고.(예, 그런 거 하고.)

103034 @ 예.(예.)

103034 #1 이 함박풀 같은 거영, 쏠께풀 같은 거영 뭐.(이 병풀같은 거하고, 제비꽃 같은 거하고 뭐.)

103034 @ 예.(예.)

103034 #1 그건 여름에 나는 거고.(그건 여름에 나는 거고.)

103034 @ 예.(예.)

103034 #1 겨울에 나는 거는 무신 물풀이여, 콩풀이여.(겨울에 나는 거는 무신 물풀이다, 개불알꽃이다.)

103034 @ 예.(예.)

103034 #1 이것도 무신 그자 겸사겸사 납니다.(이것도 무슨 그저 겸사겸사 납니다.)

103034 @ 예.(예.)

103034 #1 상강[126]정, 경허당 상강이나 독하게 지면은 이 여름풀은 몬 죽어붑니다.(서리내려서, 그러다가 서리나 독하게 내리면 이 여름풀은 모두 죽어버립니다.)

103034 @ 상강?(상강이요?)

103034 #1 상강. 서리, 서리양.('상강'. 서리, 서리요.)

103034 @ 아, 예.(아, 예.)

103034 #1 서리가 독하게 내리면은 여름풀은 죽어불곡 겨울풀은 살아.(서리가 독하게 내리면 여름풀은 죽어버리고 겨울풀은 살아.)

103034 @ 아. 그믄 제일 독한 풀이 무신 풀이꽈? 검질 매기 궂인거.(아. 그러면

126) '상강'은 원래는 '서리가 내리다'는 의미이나 서리 자체를 '상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일 독한 풀이 무슨 풀입니까? 김 매기 궂은 거.)

103034 #1 검질 메기 궂인 것은 여름 검질 중에서 제완지.(김 매기 궂은 것은 여름 풀 중에서 바랭이.)

103034 @ 예.(예.)

103034 #1 제완지 요즘 약 제초제 셔 노난 멕을 못 씁니다.(바랭이 요즘 약 제초제 있어서 맥을 못 씁니다.)

103034 @ 옛날은 제초제 엇이난.(옛날에는 제초제가 없으니까.)

103034 #1 예, 옛날은 제초제 엇인 때 제완지는 우텁니다. 제완지, 빈네.(예, 옛날에는 제초제 없을 때 바랭이는 지독합니다. 바랭이, 아욱메풀.)

103034 @ 빈네.(아욱메풀.)

103034 #1 빈네라고. 비념풀이라고. 그런 어웍 ᄀᆞ튼 거.(아욱메풀이라고. 아욱메풀이라고. 그런 억새 같은 거.)

103034 @ 어웍 예.(억새요.)

103034 #1 어떠든지 뿔리를 뽑아야 하거든.(어떻든지 뿌리를 뽑아야 하거든.)

103034 @ 예.(예.)

103034 #1 뽑지 안했당 그냥 톤앗당은 돌아사믄 그 즉시 나 불여.(뽑지 안 했다가는 그냥 뜯었다가는 돌아서면 그 즉시 나 버려.)

103034 @ 아.(아.)

103034 #1 기후가 ᄯᅡ사노니까.(기후가 따뜻하니까.)

103034 @ 예.(예.)

103034 #1 야, 게난 그거 우턴 거고.(예, 그러니까 그거 지독한 거고.)

103034 @ 예.(예.)

103034 #1 이 콩풀이여, 물풀이여 ᄀᆞ튼 거는 겨울풀인데 물풀은 장마를 치면은 많이 나곡.(이 개불알꽃이다, 물풀이다 같은 것은 겨울풀인데 물풀은 장마가 오면 많이 나고.)

103034 @ 예.(예.)

103034 #1 장마 지면은 허허 벌판 ᄀᆞ튼 디는 잘 아이 나는데.(장마가 오면 허허 벌판 같은 데는 잘 안 나는데.)

103034 @ 예.(예.)

103034 #1 단밧 ᄀᆞ튼 디는 하영 납니다. 예, 물풀이.(단밭 같은 데는 많이 납니다. 예, 물풀이.)

103034 @ 음.(음.)

103034 #1 예. 요즘 약 시난 저걸 쥑염지. 경 안 허면양 저놈의 물풀은.(예. 요즘은 약이 있으니 저걸 죽이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놈의 물풀은.)

103034 @ 예.(예.)

103034 #1 콩풀은 대단치 안 헌데 물풀이렌 허는 건 그냥 밧디 끌려.(개불알꽃은 대단하지 않은데 물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밭에 깔려.)

103034 @ 예.(예.)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35 #1 일단 호미로 콩을 비어야 돼.(일단 낫으로 콩을 베어야 돼.)

103035 @ 겅헹 어떵헤마씨?(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03035 #1 견데 그게 여러 가지우다.(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호미 안 헤도 콩이 일정하게 발아가 퉹 잘 익으면은 그냥 손 가지고도 딱딱 딱딱 꺼끌 수가 잇곡.(낫으로 안 해도 콩이 일정하게 발아가 되어서 잘 익으면 그냥 손 가지고도 딱딱 딱딱 꺾을 수가 있고.)

103035 @ 아, 예.(아, 예.)

103035 #1 콩을 꺼끈뎅 헙니다. 콩을 빈덴 허는 말은 엇곡.(콩은 꺾는다고 합니다. 콩을 벤다고 하는 말은 없고.)

103035 @ 아.(아.)

103035 #1 게문 양손으로 딱딱 딱딱 거꺼지는데.(그러면 양손으로 딱딱 딱딱 꺾을 수 있는데.)

103035 @ 예.(예.)

103035 #1 ᄒᆞ난 익곡 ᄒᆞ난 설곡 할 거 아닙니까게.(하나는 익고 하나는 설고 할 거 아닙니까.)

103035 @ 예, 예.(예, 예.)

103035 #1 홀 땐 어차피 호미 가졍 걲어야 돼.(할 때는 어차피 낫 가지고 꺾어야 돼.)

103035 @ 아, 호미가졍 걲어마씨?(아, 낫 가지고 꺾어요?)

103035 #1 예. 호미로 비는 법이 엇곡 꺾은다는 거주. 절대가.(예. 낫으로 베는 법이 없고 꺾는다는 거지. 절대가.)

103035 @ 아, 꺾어.(아, 꺾어.)

103035 #1 콩을 꺽으나.(콩을 꺾으나.)

103035 @ 꺾은 건 어떵 장만합니까?(꺾은 건 어떻게 장만합니까?)

103035 #1 게난 그걸 주욱 열이면 열, 일렬로 상은에 콩을 꺽어간단 말입니다.(그러니까 그걸 주욱 열이면 열, 일렬로 서서 콩을 꺾어 간다 말입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그걸 모두와 놔. 서넉 점썩.(그걸 모아 두어. 서넉 줌씩.)

103035 @ 예.(예.)

103035 #1 사름이 여러 가지우다.(사람이 여러 가지예요.)

103035 @ 예.(예.)

103035 #1 놉을 빌엉 헤보면은.(놉을 빌려서 해보면.)

103035 @ 예.(예.)

103035 #1 이레착 저레착. 거꾸로 노다, 영도 놓고 영도 놓고.('이래착 저래착'.

거꾸로 바로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103035 @ 예.(예.)

103035 #1 조금씩 케 뿔령 내부는데.(조금씩 흩으러 뿌려서 내버리는데.)

103035 @ 하하하.(하하하.)

103035 #1 잘허는 사름은 다섯 줌씩 모룩모룩 노와.(잘하는 사람은 다섯 줌씩 모룩모룩 놓아.)

103035 @ 아.(아.)

103035 #1 노면은 그 전에는 그 끅이나 칙 끄나풀헹, 무껑 마차로 실렁 와낭 집결을 헤낫는데.(놓아두면 그 전에는 그 칡 끄나풀해서, 묶어 마차로 싣고 온 후 집결을 했는데.)

103035 @ 예.(예.)

103035 #1 요즘은 기계화뒈니까양 거 묶으는 법이 없어.(요즘은 기계화되니까요 그거 묶는 법이 없어.)

103035 @ 예.(예.)

103035 #1 그냥 톡톡톡, 잘 헤 노면은 늘언이 벌겨 노는 예펜들도 이십니다.(그냥 톡톡톡, 잘 해 놓으면 가지런히 벌여 놓는 여편들도 있습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그믄 영헤당 그걸 언주젠 허민 시간 걸립니께.(그러면 이렇게 하다 그걸 모아 쥐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103035 @ 예.(예.)

103035 #1 게난 경 모두룩 모두룩[127]논 사름은 무신 마다리나 갑바 쪼가리 요만씩 헌거 가졍은에 그레 톡톡 톡톡 아지당 노민.(그러니까 그렇게 모두룩 모두룩 놓은 사람은 무슨 포대나 천막 자투리 요만큼 씩 한 거 가져서 거기에 탁탁 탁탁 가져다가 놓으면.)

103035 @ 예.(예.)

103035 #1 걸 메어당은에 흔 군데 집결합니다.(그걸 메어다가 한 군데 집결합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눌 높으게 막 올라가멍.(가리 높게 마구 올라가면서.)

103035 @ 예.(예.)

103035 #1 경운기에도 실으곡 차에도 실러 당 막 퍼 놔.(경운기에도 싣고 차에도 실어다가 막 퍼 놔.)

103035 @ 옛날에도마씨?(옛날에도요?)

103035 #1 옛날 거는 꺽어놩 끅으로나 어웍으로 께 내엉, 걸 ᄒᆞ나ᄒᆞ나 묵으는 거라.(옛날 거는 꺾어 놓고 칡으로나 억새로 매끼를 내어서, 그걸 하나하나 묶는 거

127) '모두룩 모두룩'은 물건 따위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하게 소복이 쌓아 놓는 것을 말하다.

야.)
103035 @ 예, 예.(예, 예.)
103035 #1 묵으면은 쉐믈 엇인 때는 등짐으로 다 지어야 돼.(묶으면 마소 없을 때는 등짐으로 다 지어야 돼.)
103035 @ 예.(예.)
103035 #1 방법이 없어.(방법이 없어.)
103035 @ 예.(예.)
103035 #1 등짐으로 너 뭇, 닷 뭇, 읏 뭇.(등짐으로 네 뭇, 다섯 뭇, 여섯 뭇.)
103035 @ 아.(아.)
103035 #1 게서 어깨가 다 뭐 참.(그래서 어깨가 다 뭐 참.)
103035 @ 게난.(그러니까.)
103035 #1 겅허고 옛날에는 콩을 겅 광범위하게 안 헷수다.(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콩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안 했습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콩 무신 삼십 말이나 오십 말 안 헤봣수다.(콩 무슨 삼십 말이나 오십 말 안해 봤습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막상헤사 열 말, 소두 열 말 그 정도만 헷지.(막상 해야 열 말, 소두 열 말 그 정도만 했지.)
103035 @ 예.(예.)
103035 #1 요즘이나 몇 석이여, 몇 석이여 헴지.(요즘이나 몇 석이다, 몇 석이다 하지.)
103035 @ 예.(예.)
103035 #1 경 지엉 왕. 집이 왕 늘어 놧당. 흐흐흐.(그렇게 이고 와서. 집에 와서 늘여 놓았다가, 흐흐흐.)
103035 @ 예.(예.)
103035 #1 경 안 허민 족으민 밧디 강 흔번 더 강 지어왕 흔 으둡 뭇 쯤 뒈민 그때 도리께로 두들겨야 돼.(그렇게 안 하면 작으면 밭에 가서 한번 더 가서 이고 와서 한 여덟 뭇 쯤 되면 그때 도리깨로 두들겨야 돼.)
103035 @ 아. 말리지 않고 그냥마씨?(아. 말리지 않고 그냥요?)
103035 #1 아니. 몰리지 안 헤여. 그냥.(아니. 말리지 않아. 그냥.)
103035 @ 예.(예.)
103035 #1 왜냐하면 그게 익으니까 자기대로 나무에서 건조된 거라.(왜냐하면 그게 익으니까 자기대로 나무에서 건조된 거야.)
103035 @ 아, 맞다예.(아, 맞아요.)
103035 #1 워낙 건조뒈면은양 그 콩 꺽을 때 다 떼붑니다. 몬 떼 불여.(워낙 건조되면 그 콩 꺾을 때 다 떼어버립니다. 모두 떼어져 버려.)

103035 @ 예.(예.)

103035 #1 게난 뒈도록이면은 놉 빌엉 허는 사름은 아이 뒈지만은 이녁냥으로 하는 사름은 이녁은 판단을 합니께. 어느 정도민 덜 께어진다.(그러니까 되도록 놉을 빌려 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자기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면 덜 깨진다.)

103035 @ 음.(음.)

103035 #1 아이. 콩, 관대 쯤이양 꺽어가민 다 떼어붑니다.(아이. 콩, 관대 쯤이 꺾어가면 다 떼어져버려요.)

103035 @ 아. 떨어져 부는구나예.(아. 떨어져 버리는군요.)

103035 #1 야, 경허근에 도께로 두드렁 얼멩이로.(예, 그래서 도리깨로 두드려서 '얼멩이'로.)

103035 @ 예.(예.)

103035 #1 얼멩이로 치어근에. 겨난양 이 ᄇᆞ름이 강하지 안 헤영은 이 콩이양, 잘 불려나질 안 헙니다.('얼멩리'로 쳐서. 그러니까 이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 이 콩이요, 잘 불려지지 않습니다.)

103035 @ 음.(음.)

103035 #1 요즘은 기계화니까 그러지.(요즘은 기계화니까 그렇지.)

103035 @ 예.(예.)

103035 #1 옛날도 저 검은 오름은 콩 불린 목이라 헤서, 콩 불린 목이라 헤서 속담에 그 말이 나온 거우다.(옛날도 저 검은 오름은 콩 불리는 목이라 해서, 콩 불린 목이라 해서 속담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그런 디 가졍 강. ᄇᆞ름이 센 디 지엉 강.(그런 데 가져 가서. 바람이 센 곳 에 이고 가.)

103035 @ 예.(예.)

103035 #1 쉐에라도 멕에 담아 가서 질머지엉 강 그런 디 강 불려나수게.(소에라도 망태기에 담아 가서 짊어지고 가서 그런 데 가서 불렸어요.)

103035 @ 예.(예.)

103035 #1 그런 디 워낙 ᄇᆞ름이 강허지 안 허면은양 모믈 ᄀᆞ튼 거하고 콩은 불리질 못헤. 그렇다고 푸는 체로 다 치지는 못헤.(그런 데 워낙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메밀 같은 거하고 콩은 불리지 못해. 그렇다고 키로 다 치지도 못해.)

103035 @ 예.(예.)

103035 #1 경허멍 세상을 다 살앗수게.(그러면서 세상을 다 살았어요.)

103035 @ 그 콩 껍질은 어떵헤마씨?(그 콩 껍질은 어떻게 해요?)

103035 #1 콩 코질이라고 허는데.(콩 껍질이라고 하는데.)

103035 @ 예.(예.)

103035 #1 나무 코질 털어진 거 요만한씩 허는 것은 그게 얼마 뒈질 안 헙니

다.(콩대 껍질 떨어진 거 요만큼 씩 한 것은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그건 만날 해봐야. 그건 얼마 뒈질 안 헙니다.(그건 만날 해봐야 그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10303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35 #1 그건 불 붙져붑주. 겡 안 허면 쉐 담아당 줘.(그건 불 붙여버리지요. 그렇게 안 하면 소 담아다가 줘.)

103035 @ 쉐 주고.(소 주고.)

103035 #1 야. 그 전엔 경도 안 헷수다. 그 전엔.(예. 그 전에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엔.)

103035 @ 그믄 어떵헤낫수과?(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03035 #1 그 전엔 무조건 건초.(그 전에는 무조건 건초.)

103035 @ 쉐 먹이는 거는.(소 먹이는 것은.)

103035 #1 그 전엔 쉐 절대 안 멕여수다. 오십 년 전 끄지는 아니 멕여수다.(그 전에는 소를 절대 안 먹였습니다. 오십 년 전 까지는 안 먹였습니다.)

103035 @ 쉐는 촐만 멕여마씨?(소는 꼴만 먹입니까?)

103035 #1 촐만.(꼴만.)

103035 @ 아하.(아하.)

103035 #1 게난 촐이렌 헌게, 게 ᄀᆞ슬 촐이 있곡 여름에 빈 건초가 이습니께.(그러니까 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을 꼴이 있고 여름에 베어놓은 건초가 있습니다.)

103035 @ 예.(예.)

103035 #1 게난 이 쉐도 우리 음식 바꿔 먹듯이 자꾸 교체를 헙니다. 촐도 멕이는데.(그러니까 이 소도 우리 음식 바꿔 먹듯이 자꾸 교체를 합니다. 꼴도 먹이는데.)

103035 @ 음.(음.)

103035 #1 흔 오십 년대부터 콩꼬질을 쉐한테 주기 시작햇지 경 안헐 땐 쉐 안 줘수다.(한 오십 년대부터 콩 껍질을 소한테 주기 시작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소 안 줬습니다.)

103035 @ 아.(아.)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37 @ 콩짚은 어떻게 활용합니까?(콩짚은 어떻게 합니까?)

103037 #1 콩짚? 콩대가 콩짚이나넨.(콩짚? 콩대가 콩짚이니까는.)

103037 @ 예.(예.)

103037 #1 그건 그전에는 흔 삼십년 전까지는 밧디 뿔렸는데.(그건 그전에는 한 삼십년 전까지는 밭에 뿌렸는데.)

103037 @ 예.(예.)

103037 #1 요즘에는 밧디 기냥 불을 질러 경 안 허면은.(요즘에는 밭에 그냥 불을 지르거나 그렇게 안 하면은.)

103037 @ 예.(예.)

103027 #1 혼 이십년 전부터 이 콩대를 활용한 것은 기계양, 콩 비는 기계양 콤바인이옌 허는 기계가 이수다.(한 이십년 전부터 이 콩대를 활용한 것은 기계, 콩 베는 기계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걸로 헹 비엉 해노면은 그걸 밧디 주욱 널어줘불곡.(그걸로 해서 베어 놓으면 그것을 밭에 주욱 널어줘 버리고.)

103037 @ 예.(예.)

103037 #1 사람으로 잇당 걱정은에 한 군데당 집결해당 놉니다.(사람으로 있다가 꺾어서 한 군데다가 집결해다가 놓습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한 군데서 테작할 걸로. 헤 노면은 탈곡기 가졍 때려난.(한 군데서 타작할 걸로. 해 놓으면 탈곡기 가지고 때렸었지.)

103037 @ 예.(예.)

103037 #1 그 콩대는 그 촐 베는 기계가 이수다. 콤바인인가 바이콤인가 허는 기계가 이수다. 그거 가정 묶습니다.(그 콩대는 그 꼴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콤바인인가 바이콤인가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묶습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이십 킬로 됍니다. 보통 이십 킬로.(이십 킬로 됩니다. 보통 이십 킬로.)

103037 @ 음.(음.)

103037 #1 이만이 식약끄로.(이만큼 '식야끄로'.)

103037 @ 예.(예.)

103037 #1 식야끄로 무끄면은.('식야끄로' 묶으면.)

103037 @ 예.(예.)

103037 #1 무껑은에 헹 혼 단에 얼마 헹 풀아먹는 사람들도 잇곡.(묶어서 해서 한 단에 얼마 해서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103037 @ 아.(아.)

103037 #1 또 소소한 사름은 차로 실어당 소 주라.(또 소소한 사람은 차로 실어다가 소 주라.)

103037 @ 예.(예.)

103037 #1 걸름도 좋고 소도 잘 먹읍니다. 거기 콩알들이 섞여 잇기 때문에.(거름도 좋고 소도 잘 먹습니다. 거기 콩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3037 @ 아. 콩대는 걸름이 걸어마씨?(아. 콩대는 거름이 걸어요?)

103037 #1 아이 막 겁니다.(아이 막 겁니다.)

103037 @ 아, 예.(아, 예.)

103037 #1 경허곡 콩대를 그 전이는 그걸 그냥 뿌려 가지고 밧디 걸름으로 헷수게.(그렇고 콩대를 그 전에는 그것을 그냥 뿌려 가지고 밭에 거름을 했습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허는데 굼벵이가 성헤여.(하는데 궁벵이가 성해.)

103037 @ 아, 굼벵이.(아, 굼벵이.)

103037 #1 굼벵이가. 굼벵이 아십니까?(굼벵이가. 굼벵이 아십니까?)

103037 @ 예 예.(예 예.)

103037 #1 그게.(그게.)

103037 @ 그거 잡아불어야 헤마씨?(그거 잡아버러야 해요?)

103037 #1 그거 잡지 안 헤영은 작물 나와가민 문 잘라불여.(그거 잡지 않고서는 작물 나와가면 모두 잘라버려.)

103037 @ 아.(아.)

103037 #1 작물 나와가민. 겨 뒤로 비. 토양 살충제가 들어갑니다.(작물 나오면. 겨 뒤로 비. 토양 살충제가 들어갑니다.)

103037 @ 옛날엔 약 엇엇일 거 아니꽈?(옛날에는 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103037 #1 겨난 옛날은 굼벵이가 이서도 그걸 대수롭게 생각을 안 헷다 말이우다.(그러니까 옛날은 굼벵이가 있어도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다 말입니다.)

103037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37 #1 옛날도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옛날도.(옛날도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옛날도.)

103037 @ 아, 예.(아, 예.)

103037 #1 견디 세상이 뭐해 갈수록 벌거지도 더 일엄서. 더 일엄서마씀.(그런데 세상이 뭐해 갈수록 벌레도 더 생기고 있어. 더 생기고 있다고요.)

103037 @ 음.(음.)

103037 #1 그건 골으민 거짓말이렌 헙니다.(그건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103037 @ 하하하.(하하하.)

103037 #1 옛날 우리가 넘엇지만은 요즘은 더 일어 가지고.(옛날 우리가 넘었지만 요즘은 더 생겨 가지고.)

103037 @ 예.(예.)

103037 #1 계서 이제는 족한 콩대를 주민 고맙덴 허는데.(그래서 이제는 아까운 콩대를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103037 @ 예.(예.)

103037 #1 그전에 전부 밧디 헛턴에 에, 걸름으로 거 훗곡.(그전에 전부 밭에 흩어서 에, 거름으로 그거 훑고.)

103037 @ 예.(예.)

103037 #1 아졍강 헛텅 내불민 비 막고 무시거 헹 썩으민 그게 잠깐 뿔리 썩어

붑니다.(가져가서 흩어서 내버리면 비 맞고 뭐해서 해서 썩으면 그것이 잠깐 빨리 썩어버립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굼벵이가 이는 줄 아니까, 이제는 무조건 남은 거양, 찌꺼기들 남은 거양, 불 지듭니다.(굼벵이가 생기는 줄 아니까. 이제는 무조건 남은 것을, 찌꺼기들 남은 거, 불 지핍니다.)

103037 @ 아하.(아하.)

103037 #1 불 지더.(불 지펴.)

103037 @ 아까와도 다.(아까워도 다.)

103037 #1 야. 굼벵이 때문에. 불치라는 건 ᄇᆞ름에 날려부민 뭐, 걸름도 뒈긴 하지만은 거 걸름 ᄒᆞᆫ엇이 아이 됩니다.(야. 굼벵이 때문에. 불티라는 건 바람에 날려버리면 뭐, 거름도 되긴 하지만 거름이 별로 안 됩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겡 불 지던.(그래서 불 지펴.)

103037 @ 예.(예.)

103037 #1 그놈의 굼벵이도 양 ᄋᆞ라 가지우다양. 쉐걸름에 나는 건 장이 주성 가민 돈을 주곡.(그놈의 굼벵이도 여러 가지입니다. 쇠두엄에 나는 건 시장에 주워 가면 돈을 주고.)

103037 @ 예.(예.)

103037 #1 밧디서 나도 ᄒᆞᆫ 닷 뒈쯤 주성 강, 밧디 굼벵이는 엄청나게 사납다는 거라. 견디 자체가 틀려.(밭에서 나도 한 닷 되쯤 주워서 가서, 밭의 굼벵이는 엄청나게 사납다는 거야. 그런데 자체가 달라.)

103037 @ 아.(아.)

103037 #1 콩을 갈앙 나두니, ᄒᆞᆫ 천 평에 밧 갈아 나둔 거 마냥으로 땅이 막 솟아서.(콩을 갈아서 놔두니, 한 천 평에 밭 갈아 놔둔 거 마냥으로 땅이 막 솟아서.)

103037 @ 흐흐.(흐흐.)

103037 #1 거난 그걸 ᄒᆞᆫ 닷 뒈 쯤을 잡앙 강 ᄑᆞ니, 이건 돈 아이 줍니다.(그러니까 그걸 한 닷 되 쯤을 잡아 가서 파니, 이건 돈 안 줍니다.)

103037 @ 아이고.(아이고.)

103037 #1 소걸름에 거나 지붕 우에 거 이만씩 굵은 거. 징그러와 그거.(쇠두엄에 것이나 지붕에 위에 거 이만큼씩 굵은 거. 징그러워 그거.)

103037 @ 예.(예.)

103037 #1 그거 웨에는 돈을 아이 준덴 허는 거라. 게서.(그거 외에는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3037 @ 돈을 안 주는 구나.(돈을 안 주는 구나.)

103037 #1 으. 밧디 건 돈을 아이 줘.(응. 밭의 것은 돈을 안 줘.)

103037 @ 예.(예.)

103037 #1 굼벵이 종류가 틀리우다. 요놈의 굼벵이가.(굼벵이 종류가 다릅니다. 요놈의 굼벵이가.)

103037 @ 예.(예.)

103037 #1 밧디 건 이만씩 허면서두 쉐걸름에 난 거랑 마찬가지 크기인데 이게 주둥이가 사나운 거라. 엄청나게.(밭의 건 이만큼씩 하면서도 쇠두엄에 난 것과 마찬가지 크기인데 이게 주둥이가 사나운 거야. 엄청나게.)

103037 @ 아.(아.)

103037 #1 게난 양 저게 보통 겨울까지 콩낭 허기 전까지 허면은 석 덜간을양 다 알로. 땅 알로 기여 들멍 콩을 쫄라 불여.(그러니까 저것이 보통 겨울까지 콩대하기 전까지 하면은 석 달간을 다 아래로. 땅 아래로 기여 들면서 콩을 잘라 버려.)

103037 @ 예.(예.)

103037 #1 그 콩 뿌리에 우린 모르쿠다만은 양 학자들, 경험자들이, 콩 뿌리에 그 무신 피알, 좁쌀알 같은 무신것이 영양제라 합니다.(그 콩 뿌리에 우린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 경험자들이, 콩 뿌리에 그 무슨 피알, 좁쌀알 같은 무엇이 영양제라고 합니다.)

103037 @ 예.(예.)

103037 #1 식물학자들이 곧는데.(식물학자들이 말하는데.)

103037 @ 아, 예.(아, 예.)

103037 #1 그걸 먹기 위해서 콩 익을 때까지 땅 알로 침투하면서 콩을 조저 부는 거라.(그것을 먹기 위해서 콩 익을 때까지 땅 아래로 침투하면서 콩을 조져 버리는 거야.)

103037 @ 음.(음.)

103037 #1 게민 드러누워 불곡 바람 불민 그냥 자빠져 불곡. 죽어 불어.(그러면 드러누워 버리고 바람 불면 그냥 자빠져 버리고. 죽어 버려.)

밭벼 농사

103039 @ 밧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1 야?(야?)

103039 @ 산듸. 산듸는 몃 월에 헙니까?(밭벼. 밭벼는 몇 월에 합니까?)

103039 #1 산듸. 그것도 ᄀᆞ슬 일. 마찬가지 가을 일.(밭벼. 그것도 가을 일. 마찬가지 가을 일.)

103039 @ 아. 게난 봄에 씨를 뿌려마씨?(아.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려요?)

103039 #1 게니까 그게 추곡이난 봄에 아이 뿌려. 봄 넘어상.(그러니까 그게 추곡이니까 봄에 안 뿌려, 봄 지나서.)

103039 @ 언제쯤 뿌려마씨?(언제쯤 뿌려요?)

103039 #1 여름에. 소서.(여름에. 소서.)

103039 @ 소서 지낭?(소서 지나서?)

103039 #1 야, 소서 전후. 오월 단오.(예. 소서 전후. 오월 단오.)

103039 @ 아.(아.)

103039 #1 거기에서 기준 잡아근에.(거기에서 기준 잡아서.)

103039 @ 산듸는 아무 밧디나 다 잘 뒙니까?(밭벼는 아무 밭에나 다 잘 됩니까?)

103039 #1 아무 밧디나 아이 뒈주. 그것도 밧을 골리야 뒈주. 좀 택해야 뒙니다.(아무 밭에나 안 되지. 그것도 밭을 골라야 되지. 좀 택해야 됩니다.)

103039 @ 어떤 밧디 헤마씨?(어떤 밭에 해요?)

103039 #1 게도 어느 정도 그 지심이 있는 밧. 땅힘이 좀 이신 밧이라야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지심이 있는 밭. 땅힘이 좀 있는 밭이라야.)

103039 @ 아.(아.)

103039 #1 그런 밧이라야 그게 그 갈산듸, 녹상배.(그런 밭이라야 그게 그 '갈산듸', '녹상배'.)

103039 @ 예.(예.)

103039 #1 산듸가 좀 큽주. 경 안혀면은 크질 안 허주게.(밭벼가 좀 큽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크지를 않지.)

103039 @ 아까 갈산듸[128], 녹상배는 꼭 ᄀᆞ튼 거마씨, 틀린 거마씨?(아까 '갈산듸', '녹상배'는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103039 #1 꼭ᄀᆞ튼 디 틀려.(똑같은데 달라.)

103039 @ ᄀᆞ튼 디 틀려마씨?(같은데 달라요?)

103039 #1 쏠 질도 틀리곡 맛도 틀려.(쌀 질도 다르고 맛도 달라.)

103039 @ 아. 그믄 뭐가 좋은 거꽈?(아.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103039 #1 녹산듸[129]라고.('녹산듸'라고.)

103039 @ 녹산듸가 좋은 거.('녹산듸'가 좋은 거.)

103039 #1 껍질이 전부 노랑해.(껍질이 전부 노래.)

103039 @ 아.(아.)

103039 #1 껍질이 노랑허곡, 갈산듸는 가망한 거.(껍질이 노랗고, '갈산듸'는 까만 거.)

103039 @ 아.(아.)

103039 #1 강나룩[130] 갈산듸라고 해서 그것이 뭐할 때 뭐, 최고라낫주. 최고.('강나룩' '갈산듸'라고 해서 그것이 뭐할 때. 뭐, 최고였었지, 최고.)

103039 @ 강나록하고 갈산듸는 ᄀᆞ튼 거?(강나룩하고 '갈산듸'는 같은 거?)

103039 #1 그게 ᄀᆞ튼 건데, 강나록이렌 흔건 나중에 좀 어디 재배 헹 나온 거 같아.(그게 같은 것인데, 강나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어디 재배해서 나온 거

128) '갈산듸'는 껍질이 까만 밭벼의 한 종류다.
129) '녹산듸'는 껍질이 노란 밭벼의 한 종류다.
130) '강나룩'은 밭벼의 일종이다.

같아.)

103039 @ 예.(예.)

103039 #1 그게 질이 좀 낫아.(그게 질이 좀 나아.)

103039 @ 아, 예.(아, 예.)

103039 #1 근디 녹산듸는 씨 지어서. 그때도 찹쏠은 이서수다. 석상배 쏠이라고.(그런데 '녹산듸'는 씨 만들었어. 그때도 찹쌀은 있었습니다. '석상배' 쌀이라고.)

103039 @ 석상배예?('석상배'요?)

103039 #1 으, 석상배. 그게 찹쏠.(으, '석상배'. 그게 찹쌀.)

103039 @ 그건 찹쏠 나는 거예?(그건 찹쌀 나는 거요?)

103039 #1 아이고 그거 혼 줌 얻어당 씹어 먹으면 그거 찐닥찐닥 맛이 좋은지.(아이고 그거 한 줌 얻어다가 씹어 먹으면 그거 찐득찐득 맛이 좋은지.)

103039 @ 아, 찐닥찐닥. 하하.(아, 찐득찐득. 하하.)

103039 #1 요즘 찹쏠인디. 그거.(요즘 찹쌀인데. 그거.)

103039 @ 그것도 밧디서 납니까?(그것도 밭에서 납니까?)

103039 #1 야. 밧디.(야. 밭에.)

103039 @ 예.(예.)

103039 #1 겨난 밧 골린다는 게 양 그것들이 밧이, 지심이 좀 이신 밧. 밧 힘이 좀 이슨 밧디 그걸 갑니다.(그러니까 밭 고른다는 것이 그것들이 밭이, 지심이 좀 있는 밭. 밭 힘이 좀 있는 밭에 그것을 갑니다.)

103039 @ 예. 그믄 좀 안 좋은 밧디 나는 거 뭐꽈?(예. 그러면 좀 안 좋은 밭에 나는 거 무엇입니까?)

103039 #1 안 좋은 밧디 헤영은 건 실패 뒈는 거주.(안 좋은 밭에 해서는 실패되는 거주.)

103039 @ 하하하. 산듸 말고라도 뭐 나는 거 엇수과?(하하하. 밭벼 말고라도 뭐 나는 거 없습니까?)

103039 #1 나가 곧는 건 거주. 피, ᄀᆞ랑조.(내가 말하는 건 그거지. 피, 'ᄀᆞ랑조'.)

103039 @ 아, 피. ᄀᆞ랑조.(아, 피. 'ᄀᆞ랑조'.)

103039 #1 조도 여러 가지우다양.(조도 여러 가지입니다요.)

103039 @ 예.(예.)

103039 #1 궤발시리니영, 뭐영, 무신 무신 벨벨 이름들이 다 합니다. 그건 예펜들이나 알주. 난 원.(궤발시리니다, 뭐다, 무슨 무슨 별별 이름들이 다 많습니다. 그건 여편들이나 알지. 난 원.)

103039 @ 일름은 모르쿠과?(이름은 모르겠습니까?)

103039 #1 궤발시리라 한 조는 조 끄트레 세 개가 달려.(궤발시리라 하는 조는 끝에 세 개가 달려.)

103039 @ 아.(아.)

103039 #1 경 벌어진 거고. 흐린 차조여, 흐린조여, 무신 무신거는 그건 우리 왁왁이우다.(그렇게 벌어진 것이고. 차조다, 차조여, 무슨 무엇은 그건 우리 캄캄입니다.)

103041 @ 밭벼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밭벼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1 그 당시에 걸름이 이서수과? 그디꺼지 갈 걸름이 있질 안 헷수다.(그 당시에 거름이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갈 거름이 있지를 안 했습니다.)

103041 @ 게난 땅 좋은 디 강은에 농사를 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땅 좋은 데 가서 농사를 하는 거군요?)

103041 #1 야. 땅 ᄒᆞ쏠 땅 좋은디 강 가는 거지. 자연 그대로만 뭘 허는 겁주게. 그 당시에 걸름이 어디셔?(예. 땅 조금 땅 좋은데 가서 가는 거지. 자연 그대로만 뭘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름이 어디 있어?)

103041 @ 쉐걸름이라도.(쇠두엄이라도.)

103041 #1 하이고. 쉐걸름은 그게 무신 경 오백 평이나 천 평만 가는 거꽈?(하이고. 소 거름은 그게 무슨 그렇게 오백 평이나 천 평만 가는 것입니까?)

103041 @ 하하하.(하하하.)

103041 #1 하이고, 조, 보리. 돌렝이[131]여야.(하이고, 조, 보리. '돌렝이'라야.)

103041 @ 음.(음.)

103041 #1 돌렝이엔 허는 것은 조그마한 밧이우다. ᄒᆞᆫ ᄉᆞ오백 평.('돌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밭입니다. 한 사오백 평.)

103041 @ 돌렝이예?('돌렝이'요?)

103041 #1 천 평이면 상당히 큰 거라.(천 평이면 상당히 큰 거야.)

103041 @ 예.(예.)

103041 #1 돌렝이 용서들은 조 같은 것을 갈앙은에. 그 당시에는 비료가 엇이니까 풍화작용양, 비보름에 의지될 수 있는 밧디 그걸 갈고.('돌렝이' 농사는 조 같은 것을 갈아서. 그 당시에는 비료가 없으니까 풍화작용요, 비바람에 의지될 수 있는 밭에 그것을 갈고.)

103041 @ 아.(아.)

103041 #1 산듸, 모믈, ᄀᆞ랑조, 피들은양 허허 벌판에 갑니께.(밭벼, 메밀, 'ᄀᆞ랑조', 피들은요 허허 벌판에 갈아요.)

103041 @ 아. 게난 걸름은.(아. 그러니까 거름은.)

103041 #1 비료가 어디 셔? 걸름이 어디.(비료가 어디 있어? 거름이 어디.)

103041 @ 걸름을 당해낼 수가 엇엇구나예.(거름을 당해 날 수가 없었군요.)

103041 #1 당해낼 수가 없어, 그건. 하늘이 막 부떠 불민 부떠 불지.(당해낼 수가 없어, 그건. 하늘이 막 붙어 버리면 붙어 버리지.)

103041 @ 산듸들은 막 넓직한 디 강 허는구나예.(밭벼들은 막 널찍한 데에 가

131) '돌렝이'는 아주 작은 밭을 말한다.

서 하는 군요.)

103041 #1 예, 예. 경헤 놩 물테[132], 그것도 중간이주. 물테허는 사름이영 문 빌엉은에 물로 불려.(예, 예. 그렇게 해 놓고 말떼, 그것도 중간이지. 말떼 하는 사람이랑 모두 빌려서 말로 밟게 해.)

103041 @ 아. 산듸도 불려야 뒙니까?(아. 밭벼도 밟게 해야 됩니까?)

103041 #1 산듸도 불려. 다 불려야 뒈어.(밭벼도 밟게 해. 다 밟게 해야 되어.)

103041 @ 예.(예.)

103041 #1 뒈도록이민 들녘이 흔 곡식들인데 난전[133] 곡식이라고 합니다.(되도록이면 들녘에 한 곡식들인데 '난전' 곡식이라고 합니다.)

103041 @ 예.(예.)

103041 #1 그런 디 가는 곡식들은 뒈도록이민 쉐물 빌어다가 불리곡.(그런 데 가는 곡식들은 되도록 마소를 빌려다가 밟게 하고.)

103041 @ 예.(예.)

103041 #1 또 돌렝이 용서라고 조 ᄀᆞ튼 거양 산듸 ᄀᆞ튼 것들 돌렝이에 강 갈민 좋긴 합니다.(또 '돌렝이' 농사라고 조 같은 것은요 밭벼 같은 것들 '돌렝이'에 가서 갈면 좋긴 합니다.)

103041 @ 음.(음.)

103041 #1 좋아. 산듸보다 우선직 옛날 식게 멩질허젠 곤쏠로 헷지만은 우선직 주식이 문제란 말입니다.(좋아. 밭벼보다 우선 옛날 제사 명절하려고 밥쌀로 했지만 우선 주식이 문제란 말입니다.)

103041 @ 예.(예.)

103041 #1 돌렝이 강 갈면은 ᄉᆞ백 평만 갈면은 좋긴 흔데 그걸 갈당 보민 이녁 먹을 쏠이 엇어.('돌렝이' 가서 갈면 사백 평만 갈면 좋기는 한데 그걸 갈다가 보면 자기 먹을 쌀이 없어.)

103041 @ 아.(아.)

103041 #1 게서 조 ᄀᆞ튼 걸 갈아. 그런 디다가.(그래서 조 같은 것을 갈아. 그런데다가.)

103041 @ 아아, 기구나예.(아아, 그렇군요.)

103041 #1 돌렝이라면은 조그마한 담 이슨 밧을 말허는 거주게.('돌렝이'라면 조그마한 담을 이은 밭을 말하는 것이지.)

103041 @ 예예.(예예.)

103043 @ 밧벼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밭벼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1 으으. 걸름은 못해도 검질은 매사.(으으. 거름은 못해도 김은 매어야.)

103043 @ 예예.(예예.)

---

132) '물테'는 말떼이고, '물테 허는 사름'은 많은 말을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을 말한다.
133) '난전'은 난전밧이라고도 한다.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을 말한다.

103043 #1 곳사 곧는 말이 검질도 거기는 아무나 강 몽케불민 안 뒈어.(아까 하는 말이 김도 거기는 아무나 가서 굼뜨면 안 되어.)

103043 @ 산듸도?(밭벼도?)

103043 #1 어? 아니. 산듸는 뒈어.(어? 아니. 밭벼는 되어.)

103043 @ 예?(예?)

103043 #1 왜나면 산듸는양 불리가 상당히 든든합니다.(왜냐면 밭벼는요 뿌리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103043 @ 아. 그믄 산듸는 검질 몇 번 맵니까?(아. 그럼 밭벼는 김을 몇 번 맵니까?)

103043 #1 어디 산듸밧디? 산듸. 두 번.(어디 밭벼밭에? 밭벼. 두 번.)

103043 @ 두 번.(두 번.)

103043 #1 막 매어사 두 번.(막 매어야 두 번.)

103043 @ 막 매어사 두 번.(막 매어야 두 번.)

103043 #1 이 조는 서너 번. 서너니 번 매곡.(이 조는 서너 번. 서너네 번 매고.)

103043 @ 아.(아.)

103043 #1 ᄀᆞ랏 강 뽑곡.(가라지 가서 뽑고.)

103043 @ 예. ᄀᆞ랏을 강 뽑곡.(예. 가라지를 가서 뽑고.)

103043 #1 꽃 피어가민 검질도 매곡, 강 꼽아 불곡.(꽃 피어가면 김도 매고, 가서 뽑아 버리고.)

103043 @ 예.(예.)

103043 #1 게난 돌렝이라는 게, 조 주식용으로 다 주식은 주식이주만은 우선직이 조 가름팟[134]디 가는 건 뿔리 먹기 위해서.(그러니까 '돌렝이'라는 게, 조 주식용으로 다 주식은 주식이지만은 우선 이 조 마을 안 밭에 가는 건 빨리 먹기 위해서.)

103043 @ 음, 음.(음, 음.)

103043 #1 먹기 위해서 가름팟디 갑주게.(먹기 위해서 마을 안 밭에 갈아요.)

103043 @ 예.(예.)

103043 #1 요즘은 또 그 놈우 것을 아이 갈암십주게. 왜냐허면 송당같은 디는양, 헤벤이는 해도 새로 못 해먹어. 참새, 밥주리 새가.(요즘은 또 그 놈의 것을 안 갈아요. 왜냐하면 송당 같은 곳은요, 해안마을에는 해도 새로 못 해먹어. 참새, '밥주리' 새가.)

103043 @ 새? 아.(새? 아.)

103043 #1 요거 앚앗다 허면은 혼 번 쓸면은 그냥 막 조저 불여.(이거 앉았다 하면 한 번 쓸면 그냥 막 조져 버려.)

103043 @ 생이가 하마씨?(새가 많아요?)

103043 #1 야. 두 해 갈앙 실패를 했어.(예. 두 해 갈아서 실패를 했어.)

---

134) '가름팟'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을 말한다.

103043 @ 다 먹어 불언.(다 먹어 버렸어요.)

103043 #1 야, 야. 아무리 머립을 해도.(예, 예. 아무리 '머립'을 해도.)

103043 @ 우이 막 그믈망들 해십디다.(위에 막 그물망들 했던데요.)

103043 #1 게난 그물망도 소소한 디 그물망이지양, 오백 평만 뒈민 그 그물망을 어떵형 칠 말이꽈게?(그러니까 그물망도 소소한 데 그물망이지요, 오백 평만 되면 그 그물망을 어떻게 해서 칠 말입니까?)

103043 @ 하하하. 게메.(하하하. 그러게.)

103043 #1 도리 막기도 힘드는데 다른 거 도리 막기도 힘드는데. 새가 이놈의 참새 녀석들이 어떻게 기가 멕히게 아는디 말이여.('도리' 막기도 힘든데 다른 거 '도리' 막기도 힘든데. 새가 이 놈의 참새 녀석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말이야.)

103043 @ 다 튿어 먹어불어.(다 뜯어 먹어버려.)

103043 #1 두 번을 실패를 했는데 저게 벌이가 꽤 좋은 거라. 사름도 먹고 생이도 먹고. 저거 새 밥으로 막 나갑주게.(두 번을 실패 했는데 저게 벌이가 꽤 좋은 거야. 사람도 먹고 새도 먹고. 저거 새 밥으로 막 나가지요.)

103043 @ 아.(아.)

103043 #1 출조 같은 건양, 특히나 새들이 잘도 알아. 출조 같은 건 더 먹어.(찰조 같은 건요, 특히나 새들이 잘도 알아. 찰조 같은 건 더 먹어.)

103043 @ 출조는.(찰조는.)

103043 #1 야. 게헹 실패를 허멍 아이 갈멍 했는데. 또 헤벤이는 갑니다.(야.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면서 안 가면서 했는데 또 해안마을에는 갑니다.)

103043 @ 예?(예?)

103043 #1 왜? 헤벤이는 이웃이 이시니까, 밧들이. 조 가는 밧들이.(왜? 해안마을에는 이웃이 있으니까, 밭들이. 조 가는 밭들이.)

103043 @ 예, 예.(예, 예.)

103043 #1 겨니까 저레로 각, 이레로 각 하니까 먹당 넹기는데. 여기는 혼두 사름베끼 엇거든. 엇이면은.(그러니까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하니까 먹다가 남기는데. 여기는 한두 사람밖에 없거든. 없으면.)

103043 @ 혼 밧디 다 모다정 먹어불어.(한 군데 다 모여서 먹어버려요.)

103043 #1 두 번 망헷다, 두 번.(두 번 망했다, 두 번.)

103043 @ 혼 밧디 앚이민 그걸로 끝이구나게. 생이가 그 밧디서만 먹어불민.(한 군데 앉으면 그걸로 끝이구나. 새가 그 밭에서만 먹어버리면.)

103043 #1 으. 떼차 와가지고.(응. 떼째로 와가지고.)

103043 @ 떼차로 와가지고?(떼째로 와가지고.)

103043 #1 으. 떼차.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벨로놈우 깡통을 돌아메영 해봐도.(응. 떼째로.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별의별 깡통을 달아매면서 해봐도.)

103043 @ 흐흐흐.(흐흐흐.)

103043 #1 조 농사는 어려와. 이 송당에 시방, 칠팔월에 한번 왕 봅서. 송당에 시방 조 혼 밧도 아이 갈암서. 조 갈민 틀림엇이 좋은데 어려와.(조 농사는 어려워. 이 송당에 시방, 칠팔월에 한 번 와서 보세요. 송당에 시방 조 한 밭도 안 갈고 있어. 조 갈면 틀림없이 좋은데 어려워.)

103043 @ 틀림없이 좋은데 어려와.(틀림없이 좋은데 어려워.)

103043 #1 어려와. 이놈의 새 때문에 못 헤먹어.(어려워. 이놈의 새 때문에 못 해먹어.)

103043 @ 생이, 생이 때문에예.(새, 새 때문에요.)

103043 #1 도저히. 그런 대로양, 두서너 사름만 밧이 연결뒝 ᄀᆞ치 갈아불민 뒈어. 이거 혼 쪽에 말여 혼 놈만 갈앗다가는 이거 그냥 확 잡아 불어.(도저히. 그런 대로요, 두서너 사람만 밭이 연결되어 같이 갈아버리면 되어. 이거 한 쪽에만 말이야 한 놈만 갈았다가는 이거 그냥 확 잡아 버려.)

103043 @ 여러 칩이 ᄀᆞ치 할 거 아니꽈?(여러 집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103043 #1 응. ᄀᆞ치 ᄒᆞ민 뒈어.(응. 같이 하면 되어.)

103043 @ 예.(예.)

103043 #1 견데, 그게양 요즘 조그마한 사름들은 그런 걸 허젠 아이헙니다.(그런데 그게요 요즘 조그만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려고 안 합니다.)

103043 @ 예.(예.)

103043 #1 우리ᄀᆞ치양 최종적으로 막다른 골목 간 사름 웨에는.(우리처럼 최종적으로 막다른 골목 간 사람 외에는.)

103043 @ 예.(예.)

103043 #1 수확이 많은 더덕, 감자, 무수양 이거양 당근ᄁᆞ지 들어가면은 시방은 당근, 지슬, 감자들은 요건 꼭 내불었지만은 더덕 가는 양반덜 돈 일억은 간단ᄒᆞ고.(수확이 많은 더덕, 감자, 무 이거요 당근까지 들어가면 시방은 당근, 감자, 고구마들은 요건 꼭 내버렸지만 더덕 가는 양반들 돈 일억은 간단하고.)

103043 @ 아이고. 수익이 좋구나예.(아이고. 수익이 좋군요.)

103043 #1 일 이억은 혼 해에 기냥 벌어불여. 더덕 한 박스가 에, 특, 중, 상, 하로 뒈어 있는데 특은 한 박스에 삼십삼만 원까지 가불여.(일 이억은 한 해에 그냥 벌어버려. 더덕 한 박스가 에, 특, 상, 중, 하로 되어 있는데 특은 한 박스에 삼십삼만 원까지 가버려.)

103043 @ 킬로예마씨?(킬로에요?)

103043 #1 이십 키로. 한 박스가 이십 키로 이백이라.(이십 킬로. 한 박스가 이십 킬로 이백이야.)

103043 @ 귤보다 낫다예.(귤보다 낫군요.)

103043 #1 겨민양 누구의 공무원 월급보다도 나아.(그러면 누구의 공무원 월급보다도 나아.)

103043 @ 예.(예.)

103043 #1 시방 여기 젊은 세대들은양 더덕만 갈아도 돈 엄청 많이 벌엄수다.(시방 여기 젊은 세대들은요 더덕만 갈아도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103043 @ 옛날엔 더덕 안 헤낫지예.(옛날에는 더덕 안 했었지요.)

103043 #1 옛날엔 안 헤십주. 몰른 거라, 그런 거를. 우리는.(옛날에는 안 했지요. 모른 거야, 그런 거를. 우리는.)

103043 @ 아.(아.)

103043 #1 또 견디양. 우리도 흔 삼 년 전부터 갈앗는데.(또 그런데요. 우리도 한 삼 년 전부터 갈았는데.)

103043 @ 예.(예.)

103043 #1 젊은 사름들 ᄀᆞ치양 그 지도소에서 와서 자꾸 강의를 해도 우리는 경험을 헷기 때문에 지도소의 말을 잘 안 들주게.(젊은 사람들처럼요 그 지도소에서 와서 자꾸 강의를 해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도소의 말을 잘 안 듣지.)

103043 @ 예. 잘 안 듣주마씨.(예. 잘 안 듣지요.)

103043 #1 직접 겪었기 때문에.(직접 겪었기 때문에.)

103043 @ 예.(예.)

103043 #1 더덕 허건 디가 흔 십오 년 뒈었는데, 그 사름들 말 아이 들읍니다. 안 듣는데 다 기술적으로 다 틀립니다.(더덕 한 지가 한 십오 년 되었는데, 그 사람들 알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다 기술적으로 다 다릅니다.)

103043 @ 음.(음.)

103043 #1 더덕에 항생제를 쓰노렌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아니 갑주게.(더덕에 항생제를 쓰노라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103043 @ 아.(아.)

103043 #1 예. 아, 겡헤노난양 지슬, 당근 ᄀᆞ튼 거 소득이 좋앙 해도 이것은 아이 허고 우선직 더덕에만 쓰고 두 번째 콩에 들어갑니다.(예. 아, 그렇게 해 놓으니 감자, 당근 같은 거 소득이 좋아서 해도 이것은 안 하고 우선 더덕에만 쓰고 두 번째 콩에 들어갑니다.)

103043 @ 음.(음.)

103043 #1 또 콩도양 우리는 허던 거 그대로 재래식으로만 갈당 보민 수확이 떨어져.(또 콩도요 우리는 하던 거 그대로 재래식으로만 갈다가 보면 수확이 떨어져.)

103043 @ 예.(예.)

103043 #1 겡헹 그 놈오 콩들이 나근에 썹이 될 때는 모릅니다. 칠팔월 때에는.(그래서 그 놈의 콩들이 나서 잎이 될 때는 모릅니다. 칠팔월 때에는.)

103043 @ 예.(예.)

103043 #1 열매를 열어서 결실을 할 때야 아, 이거 콩이 질이 틀리다. 뭐 틀리다.(열매를 열어서 결실을 할 때야 아, 이거 콩이 질이 다르다. 뭐 다르다.)

103043 @ 예.(예.)

103043 #1 자반콩이다. 무신 콩이다. 뭔 콩이다. 이거 신품종이다.(‘자반콩’이다. 무슨 콩이다. 뭔 콩이다. 이거 신품종이다.)

103043 @ 예.(예.)

103043 #1 보면 개네 수확한 거 보민양, 누게 말 만찬아 평당 백 평당이민 백 평당, 열마다리믄 열마달 영 나는데 우리 건양, 예를 들엉 두세너 마달이 밖에 아이 납니께.(보면 개네 수확한 거 보면요, 누구 말처럼 평당 백 평당이면 백 평당, 열 부대면 열 부대 이렇게 나는데 우리 것은요, 예를 들어서 두서너 부대 밖에 안 납니다.)

103043 @ 아.(아.)

103043 #1 겡헤노난양 우리 ᄀᆞ튼 놈은 도저히 농사를 지어도 따라가지 못 하크라. 과학적이기 때문에.(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놈은 도저히 농사를 지어도 따라가지 못 하겠어. 과학적이기 때문에.)

103043 @ 예.(예.)

103043 #1 겡허고 저 짝에선 트렉타가 보통 흔 집이 두서너너 댓 썩 이수다. 또 장비가 엇이면은.(그렇고 저 쪽에서는 트렉터가 보통 한 집에 두서넉 대 씩 있습니다. 또 장비가 없으면.)

103043 @ 농사를 이젠 못헤여예.(농사를 이제는 못하지요.)

103043 #1 못 짓읍니다.(못 짓습니다.)

103043 @ 예.(예.)

103043 #1 우리 시방 경운기도 버칩니다, 말입니다. 경운기도 삼사십 년이 뒈었는데 나오건 디가.(우리 시방 경운기도 버겁다, 말입니다. 경운기도 삼사십 년 되었는데 나온 지가.)

103043 @ 예.(예.)

103043 #1 이제는 뭐 기계화가 시작이고 비는 거나 떼는 거나 뭐허는 거나 콤바인, 바인다, 뭐, 뭐, 춤 벨벨놈우 기계가 뒈어 노난. 이젠 뭐. 더덕도 기계로만 팝니께.(이제는 뭐 기계화가 시작되고 베는 거나 떼는 거나 뭐하는 거나 콤바인, 바인더 뭐, 뭐, 참 별의별 기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 더덕도 기계로만 파요.)

103043 @ 아.(아.)

103043 #1 기계로만 쫙 파는데 이건 천성 사름이 가야해. 사름이 줍지 아이 허믄, 줍는 기계는 아직 게발 못 했어.(기계로만 쫙 파는데 이건 천상 사람이 가야해. 사람이 줍지 아니 하면 줍는 기계는 아직 개발 못 했어.)

103043 @ 하하.(하하.)

103043 #1 막 돌리멍 파놓으면 사름이 가서.(막 돌리면서 파 놓으면 사람이 가서.)

103043 @ 주워마씨?(주워요?)

103043 #1 예. 쭉 다라 노민 사름이 가서 그 다라더레 주서 놔.(예. 쭉 대야를 놓으면 사람이 가서 그 대야에 주워 놔.)

103043 @ 예.(예.)

103043 #1 주민 임자냥으로 앗따당 마다리영 콘테나더레 갓다 놓고.(주면 주인대로 가져다가 부대랑 콘테이너에 가져다 놓고.)

103043 @ 예.(예.)

103043 #1 그 당근 ᄀᆞ튼 것도 기계로 파도 사름이 가서 다 분리ᄒᆞ곡.(그 당근 같은 것도 기계로 파도 사람이 가서 다 분리하고.)

103043 @ 음.(음.)

103043 #1 분리허는 건 어떻든 인력이 모지렙니다게.(분리하는 것은 어떻든 인력이 모자랍니다.)

103043 @ 예.(예.)

103043 #1 경헤서 이 젊은 사름들양 돈을 버는 거지양. 우린 어이구 참, 고개를 숙영 말을 못 할 정도우다.(그렇게 해서 이 젊은 사람들요 돈을 버는 거지요. 우리는 어이구 참, 고개를 숙여서 말을 못 할 정도입니다.)

103047 @ 밧볏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밭볏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47 #1 산듸짚으로? 것도 용처가 있는 사름은 그 산듸짚으로 무시 거 두드령은네 신도 삼고, 베도 꼬왕 쉐줄레 물줄레 이런 것도 ᄒᆞ곡.(밭볏짚으로? 그것도 용처가 있는 사람은 그 밭볏짚으로 무슨 것을 두드려서 신도 삼고, 바도 꼬아서 소 줄 말줄 이런 것도 하고.)

103047 @ 예, 줄레예?(예, '줄레'요?)

103047 #1 꼬앙은에 줄레.(꼬아서 줄.)

103043 @ 예.(예.)

103047 #1 베 꼬왕은에 들이는 것도 여러 가지우다. 그런 걸로도 ᄒᆞ곡. 경 아니민 그자 눌엉 나둰 걸름도 ᄒᆞ곡.(바 꼬아서 들이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걸로도 하고. 그렇지 아니면 그저 가려서 놔두고 거름도 하고.)

103047 @ 아, 걸름도 ᄒᆞ곡.(아, 거름도 하고.)

103047 #1 견디 그건양 조상에 올리는 볏짚이다 해서 그건 지저분ᄒᆞᆫ 디 드물루도 안 헤여낫수다. 옛날 하르방, 할망들이.(그런데 그것은요 조상에 올리는 볏짚이다 해서 그건 지저분한 데 들여놓지도 안 했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3047 @ 아.(아.)

103047 #1 보리짚 ᄀᆞ튼 거, 피, 조칲 ᄀᆞ튼 것은 쉐 멕이당 버치믄 그 조름더레 쉐더라고 해서 쉐먹던 검불들을 밑으로 똥 싸는 더레 밑으로 끌아주는데 산듸짚은 경 안 헷수다.(보리짚 같은 거, 피, 조짚 같은 것은 소를 먹이다가 부치면 그 꽁무니에다 소더라고 해서 소를 먹던 검불들을 밑으로 똥 싸는 데 밑으로 깔아주는데 밭벼짚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103047 @ 아.(아.)

103047 #1 왜? 이건 조상을 위해 산듸짚, 볏짚은 곤밥을 곤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저분헌 디.(왜? 이건 조상을 위해 밭볏짚, 볏짚은 흰쌀밥을 흰쌀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저분한 데.)

103047 @ 아.(아.)

103047 #1 던지지 말아라.(던지지 말아라.)

103047 @ 그럼 걸름을 잘 헷겟다예.(그럼 거름을 잘 했겠네요.)

103047 #1 게난 눌엉 놧당 석으민 석는 대로. 걸름을 헤지믄 걸름허고.(그러니까 눋고 놓았다가 썩으면 썩는 대로. 거름을 하게 되면 거름을 하고.)

103047 @ 아, 똥걸름을 안헷다는 말이구나예.(아, 똥거름을 안 했다는 말이군요.)

103047 #1 야, 야. 궂인 디는 절대로 아이 가게. 아이 뎅기게 해낫주.(예, 예. 궂은 데는 절대로 안 가게. 안 다니게 했었지.)

103047 @ 아.(아.)

103047 #1 야. 경헤낫수다. 아이고 옛날인 게난 춤 귀족들이 명인들이 들어와난 벨벨 ᄐᆞ다진 말들을 다 헤노니 옛날 참.(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참 귀족들이 명인들이 들어오니 별별 유난스런 말들을 다 하니 옛날 참.)

103047 @ 짚도 대우 받암수다예. 등급이 이서.(짚도 대우 받고 있습니다요. 등급이 있어.)

103047 #1 보리짚은 아무 데나 도새기 똥꼬냥이나 쉐 똥꼬냥이나 아무 디나 끌아줘 불곡.(보리짚은 아무 데나 돼지 똥구멍이나 소 똥구멍이나 아무 데나 깔아줘 버리고.)

103043 @ 예.(예.)

103047 #1 산듸짚은 절대 그런 데를 안 끌아 줫주.(밭볏짚은 절대 그런 데를 안 깔아 줬지.)

103047 @ 혼자 썩어도 경허믄 안 뒈는 거예?(혼자 썩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103047 #1 눌엉 놧당 그냥 석어부는 한이 있어도.(눋고 놓았다가 그냥 썩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103043 @ 예.(예.)

103047 #1 석으민 그냥 걸름으로 쉐스랑 헹은네 산테에 해 놩은네 건 밧디 강 뿌립주.(썩으면 그냥 거름으로 쇠스랑을 해서 삼태기에 해서 놓고 그건 밭에 가서 뿌리지요.)

103047 @ 눌도 어떻게 눌어마씨?(가리도 어떻게 가립니까?)

103047 #1 눌에 ᄀᆞ는 건양 무신거에 사용하젠 허민 두드렁양 베 ᄀᆞ튼 거나양, 산듸짚 ᄀᆞ튼 거는양 돌들 헤다놩 아니믄 나무 ᄀᆞ튼 거 헤다낭 끕니다.(가리에 까는 건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면 두드려서 바 같은 것이나, 밭볏짚 같은 거는 돌들 해두었다가 아니면 나무 같은 것을 해다가 깝니다.)

103047 @ 예.(예.)

기타 농사

103066 @ 피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피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6 @ 이 동네는 피 농사를 많이 한 거 닮다예.(이 동네는 피 농사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103066 #1 피? 야, 이 동네는 피 많이 헷수다.(피? 예, 이 동네는 피 많이 했습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피가 시방 자가 참 복잡한 거우다.(피가 시방 저것이 참 복잡한 것입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그 ᄀᆞ랑조든 피든 보리든 다 방아 있지 안허꽈?(그 'ᄀᆞ랑조'든 피든 보리든 다 방아가 있지 않습니까?)

103066 @ 예.(예.)

103066 #1 연자방아 안 헤영 정ᄀᆞ레 안 헤연 때는 그 앞서 방아. 세 사람이도 짛고 두 사람이도 짛곡.(연자방아 안 하고 맷돌 안 하던 때는 그 앞서 방아. 세 사람도 찧고 두 사람도 찧고.)

103066 @ 남방에[135]마씨?(남방아요?)

103066 #1 남방에. 게난 여러 가집주. 곡석 장만허는 게.(남방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곡식 장만하는 게.)

103066 @ 피는 씨 삐는 거 똑같습니까? 조영?(피는 씨를 뿌리는 거 똑같습니까? 조랑?)

103066 #1 조영 혼합헤영도 허곡 ᄀᆞ치 서텅.(조랑 혼합해서도 하고 같이 섞어서.)

103066 @ 아.(아.)

103066 #1 ᄀᆞ치 익곡 ᄀᆞ치 자라는 거.(같이 익고 같이 자라는 거.)

103066 @ 아아.(아아.)

103066 #1 견데 조보단 요게 꺼풀이 요건 네 개라. 피 알 꺼풀이. 조는 ᄒᆞ나뿐인데.(그런데 조보다는 이것은 껍질이 이것은 네 개라. 피 알 껍질이. 조는 하나뿐인데.)

103066 @ 예.(예.)

103066 #1 요거는 조 장만허는 거 ᄒᆞᆫ 번에 장만하면 이거는 두 번 세 번을 장만해야 뒈어.(이것은 조 장만하는 거 한 번에 장만하면 이것은 두 번 세 번을 장만해야 되어.)

103066 @ 어떵 헤마씨?(어떻게 해요?)

103066 #1 그게 꺼풀이 네 개나 뒈노니까. 피 꺼풀은.(그것이 껍질이 네 개나

135) '남방에'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방아 통이다. 네모지고 나지막한 받침 위에 함지박 모양의 나무통을 붙이고 여기에 돌절구를 끼워 넣은 뒤 나무 공이로 곡식을 찧는다.

되니까. 피 껍질은.)

103066 @ 그거 벗기젠 하면 어떻게 헤마씨?(그거 벗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3066 #1 어떵 헹 벳겨? 게난 방에에 짛던가 정ᄀᆞ레엔 그거 헤노민양.(어떻게 해서 벗겨? 그러니까 방아에 찧든가 맷돌에는 그거 해 놓으면요.)

103066 @ 예.(예.)

103066 #1 아픈 환자. 그 당시에 아픈 환자쯤 이시민 정ᄀᆞ레에 그 피 튿아 논 거 ᄇᆞ영 ᄆᆞᆯ려왕 정ᄀᆞ레에 ᄀᆞᆯ앙 죽을 쏩니다. 죽을.(아픈 환자. 그 당시에 아픈 환자쯤 있으면 맷돌에 그 피 뜯어 놓은 거 부옇게 말려 와서 맷돌에 갈아서 죽을 쑵니다. 죽을.)

103066 @ 피죽마씨?(피죽요?)

103066 #1 피죽. 그게 상당히 진미가 있고 미러와[136].(피죽. 그게 상당히 진미가 있고 '미러워'.)

103066 @ 예.(예.)

103066 #1 피밥이양 돌아사 불민 피밥 먹엉 돌아사면은 배고픈데 한 밥이 피밥이라.(피밥이요 돌아서 버리면 피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하는 밥이 피밥이야.)

103066 @ 예.(예.)

103066 #1 막 그 질이 약헤여. 근디 미음을 쑤기 위헤서 정ᄀᆞ레에 ᄀᆞᆯ앙 하곡.(막 그 질이 약해. 그런데 미음을 쑤기 위해서 맷돌에 갈아서 하고.)

103066 @ 예.(예.)

103066 #1 피 저게 튿아 놩예 고리라고 이수다. 알로 불 떼영예. 이로 이만이한 대로 짠 둥지가 이서 둥지.(피 저것을 뜯어 놓아서 고리라고 있습니다. 아래로 불을 때요. 이리로 이만큼한 대나무로 짠 둥지가 있어 둥지.)

103066 @ 대로 짠 거마씨?(대나무로 짠 거요?)

103066 #1 대로 짠 거. 그걸 그레 다 담아놔.(대나무로 짠 거. 그것을 그리로 다 담아놔.)

103066 @ 피를?(피를?)

103066 #1 으. 피 고고리를.(응. 피 이삭을.)

103066 @ 예.(예.)

103066 #1 피 튿아놩 그 고고리를 그레 짐으로 지면 한 두어 짐을 그레 담음니께. 고리 하나 둥지.(피를 뜯어 놓고 그 이삭을 그리로 짐으로 지면 한 두어 짐을 그리로 담습니다. 고리 하나 둥지.)

103066 @ 둥지?(둥지?)

103066 #1 둥지에 담으면 그 둥지 발이 이서.(둥지에 담으면 그 둥지 발이 있어.)

103066 @ 예.(예.)

103066 #1 그 알로 불을 떼는 거라.(그 아래로 불을 떼는 거야.)

---

136) '미럽다'는 겉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미끈하다는 의미이다.

103066 @ 예.(예.)

103066 #1 그게 우턴 거라. 그 불을 달게도 못하고 적게도 못하고.(그게 지독한 거야. 그 불을 달게도 못하고 작게도 못하고.)

103066 @ 예.(예.)

103066 #1 그 고고리를 두 시간을 불 슴아. 불을 슴으민 그 우에서 사름은 연기 먹으멍 다 뒤집음니다.(그 이삭을 두 시간을 불을 때. 불을 때면 그 위에서 사람은 연기 먹으면서 다 뒤집습니다.)

103066 @ 아.(아.)

103066 #1 뒤집엉은에 두 시간 쯤 불을 때면은 검질로 때는 거우다양. 낭불로 때면 안 뒈어.(뒤집어서 두 시간 쯤 불을 때면 김으로 때는 겁니다요. 나무로 불을 때면 안 되어.)

103066 @ 예.(예.)

103066 #1 게당 불티가 티믄 다 타불어.(그러다가 불티가 튀면 다 타버려.)

103066 @ 예.(예.)

103066 #1 게난 검질로 베롱베롱 불을 떼어.(그러니까 김으로 아롱아롱 불을 때.)

103066 @ 예.(예.)

103066 #1 게서 그것이 다 익을 정도가 뒈면 그 불을 꺼동 그걸 ᄂᆞ렁은에 그걸 덮으는 거라. 뭐 멍석이라도 덮어. 추지지 않기 위헤서.(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익을 정도가 되면 그 불을 꺼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덮는 거야. 뭐 멍석이라도 덮어. 눅눅해지지 않기 위해서.)

103066 @ 추지지 말렌.(눅눅해지지 말라고.)

103066 #1 경허면은 또 출려 놔동 또 불 떼는 순간에 그 고고리를 발로 다 ᄇᆞ벼야 돼. 발로.(그렇게 하면 또 차려 놓고 또 불 떼는 순간에 그 이삭을 발로 다 비벼야 돼. 발로.)

103066 @ 어떵 헹.(어떻게 해서.)

103066 #1 발로 다 ᄇᆞ벼야 뒈.(발로 다 비벼야 돼.)

103066 @ 뜨겁지 안헙니까?(뜨겁지 않습니까?)

103066 #1 멍석 덮엉 ᄒᆞ쏠 식영 놩은에 뚠 거 준비ᄒᆞ멍 발로 ᄇᆞ비는 데 뜨거움도 좀 헤여.(멍석을 덮어서 조금 식혀 놓고 다른 거 준비하면서 발로 비비는데 뜨겁기도 좀 해.)

103066 @ 예.(예.)

103066 #1 발 다 긁어불민 막 그냥 원시인 발이 유도 아니라.(발 다 긁어버리면 막 그냥 원시인 발이 유도 아니야.)

103066 @ 원시인 발.(원시인 발.)

103066 #1 그게 북삭북삭하멍 막 잘 떨어져.(그게 폭삭폭삭하면서 막 잘 떨어져.)

103066 @ 예.(예.)

103066 #1 경헌데 그런 것이 쏠을 헹 내놓으면은 쿠셔.(그런데 그런 것이 쌀을 해서 내놓으면 고소해.)

103066 @ 예.(예.)

103066 #1 그 고리에 아이 헤 놓은 피는 연자방아에 강 골면은 그 코숭한 냄새가 아이 나곡, 고리에 낸 피는 그렇게 진미가 나와.(그 고리에 안 해 놓은 피는 연자방아에 가서 갈면 고소한 냄새가 안 나고, 고리에 낸 피는 그렇게 진미가 나와.)

103066 @ 아까 그 대나무로 짠 것이 고리마씨?(아까 그 대나무로 짠 것이 고리입니까?)

103066 #1 으. 고리. 둥지라고.(응. 고리. 둥지라고.)

103066 @ 둥수리[137]?('둥수리'?)

103066 #1 둥수리.('둥수리'.)

103066 @ 둥수리옌도 ᄒᆞ고 고리옌도 하는 거마씨?('둥수리'라고도 하고 고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103066 #1 으. 둥수리옌 허는 것은 우이 ᄒᆞ쏠 좁은 것이 둥수리고. 이건 고리.(응. '둥수리'라고 하는 것은 위가 조금 좁은 것이 '둥수리'이고. 이건 고리.)

103066 @ 어떵 생긴 거?(어떻게 생긴 거?)

103066 #1 우리가 구덕모양으로 큰 거.(우리가 바구니 모양으로 큰 거.)

103066 @ 예.(예.)

103066 #1 그것이 건조 다 뒈면은 어떻든 혼자만은 벅차고 불에 허는 거니까.(그것이 건조 다 되면 어떻든 혼자만은 벅차고 불에 하는 것이니까.)

103066 @ 예.(예.)

103066 #1 잘못하면 부서져 분단 말이여. 대나무니까.(잘못하면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대나무니까.)

103066 @ 예.(예.)

103066 #1 최소한 사름이 둘리 이서야 뒈어. 고리 놩 허는 건.(최소한 사람이 둘이 있어야 돼. 고리 놓고 하는 것은.)

103066 @ 예.(예.)

103066 #1 경허민 나중에 들어당 술하게 비왕 멍석에 놩 덮엉.(그러면 나중에 들어다가 조심스럽게 비워서 멍석에 놓고 덮어.)

103066 @ 예.(예.)

103066 #1 갑바나 시믄 좋주. 요즘처럼.(천막이나 있으면 좋지. 요즘처럼.)

103066 @ 예.(예.)

103066 #1 멍석에 톡 덮어놩.(멍석에 탁 덮어놔.)

103066 @ 예.(예.)

137) '둥수리'는 키 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을 고리라고 하는데 위의 주둥이가 약간 좁은 것을 말한다.

103066 #1 이제 또 솔하게 아져당 고고리를 그레 다 담아놩.(이제 또 조심스럽게 가져다가 이삭을 거기에 다 담아놔.)

103066 @ 예.(예.)

103066 #1 한 사름신디 너랑 불떼라. 불떼렌 허민 겁나.(한 사람한테 너랑 불을 때라. 불때라고 하면 겁나.)

103066 @ ᄒᆞ꼼허민 타고.(조금하면 타고.)

103066 #1 이게 확 오르면 곡석이니까 기름 모냥으로 확 부트진 안헤여.(이게 확 오르면 곡식이니까 기름 모양으로 확 붙진 않아.)

103066 @ 예.(예.)

103066 #1 경허민 고리에 불 올랐다. 불 끄라, 불 끄라 혜영 한 쪽더레 밀어 놩 그 칸 걸 뽑아 내야 뒈.(그러면 고리에 불 올랐다. 불 꺼라, 불 꺼라 해서 한 쪽으로 밀어 놓고 그 칸에 것을 뽑아 내야 돼.)

103066 @ 아.(아.)

103066 #1 그믄 눈도 멜라지곡 코도 멜라지곡. 그 연기로.(그러면 눈도 찌그러지고 코도 찌그러지고. 그 연기로.)

103066 @ 예.(예.)

103066 #1 그렇게 하면서 피농사를 지은 거.(그렇게 하면서 피농사를 지은 거.)

103066 @ 제주도선 여기서만 피농사 지엇지예?(제주도에서는 여기서만 피농사를 지었지요?)

103066 #1 으으. 이 초원만, 초원만.(응응. 이 촌만, 촌만.)

103066 @ 예.(예.)

103066 #1 웃드르 송당이던 성읍이던 하여튼 중산간은 전부 피. 나머지는 조, 보리.('웃드르' 송당이든 성읍이든 하여튼 중산간은 전부 피. 나머지는 조, 보리.)

103066 @ 다른 데는 조, 보리만 헷덴 하던데.(다른 데는 조, 보리만 했다고 하던데.)

103066 #1 피 몰라.(피를 몰라.)

103066 @ 헤벤더렌 피 헷단 말 엇어 나신디.(해안 마을에는 피 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103066 #1 ᄀᆞ랑조도 몰라.('ᄀᆞ랑조'도 몰라.)

103066 @ 예.(예.)

103066 #1 칠십대난 놈도 ᄀᆞ랑조 몰라.(칠십대나 된 놈도 'ᄀᆞ랑조'를 몰라.)

103066 @ 예.(예.)

103066 #1 시방. 우리는 직접 ᄀᆞ랑조를 갈앙 그 쏠밥을 먹어나시니까.(시방. 우리는 직접 'ᄀᆞ랑조'를 갈아서 그 쌀밥을 먹었었으니까.)

103066 @ 예.(예.)

103066 #1 저 ᄀᆞ랑조가 엇어진 디가 오십 년, 혼 사십오 년.(저 'ᄀᆞ랑조'가 없어진 지가 오십 년, 한 사십오 년.)

103066 @ 예.(예.)

103066 #1 우리 올라 왕 ᄀᆞ랑조를 골앙낫다. 흔 사십칠 년 아니면 사십팔 년 뒈불엇어.(우리 올라 와서 'ᄀᆞ랑조'를 갈아었다. 한 사십칠 년 아니면 사십팔 년 되어버렸어.)

103066 @ 아. 피농사 지금도 헙니까?(아. 피농사 지금도 합니까?)

103066 #1 피? 시방도 갑니다.(피? 시방도 갑니다.)

103066 @ 아하.(아하.)

103066 #1 왜냐?(왜냐?)

103066 @ 예.(예.)

103066 #1 이게 그 피를 흖년이면은 우선 즉 사름 먹기 위헤서 장만헤영 쏠을 뽑앙 먹는데.(이게 그 피를 흉년이면 우선 사람 먹기 위해서 장만해서 쌀을 뽑아 먹는데.)

103066 @ 예.(예.)

103066 #1 요즘은 그보다 좋은 쏠들이 많으니까 주식용으로는 안 허고 새 용으로 허고.(요즘은 그보다 좋은 쌀들이 많으니까 주식용으로는 안 하고 새 용도로 하고.)

103066 @ 예.(예.)

103066 #1 피를 갈면은 그 피 고고리라고.(피를 갈면 그 피 이삭이라고.)

103066 @ 예.(예.)

103066 #1 구덕 차서 마다리를 차나 헤서 밧디 가서 피 고고리를 다 땁니다.(바구니를 차고 부대를 차거나 해서 밭에 가서 피 이삭을 다 땁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밧디 강 따면은 그 고고리는 마대에 놓고 그 나무데기는 소 사료로 빕니께.(밭에 가서 따면 그 이삭은 부대에 놓고 그 나무는 소 사료로 뱁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경허면은 일거양득이라.(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야.)

103066 #1 피 촐은 쉐가 좋아허는 모양이우다예.(피 꼴은 소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103066 @ 보리짚 보다는 잘 먹음니께.(보리짚 보다는 잘 먹습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이건 새파란 거니까.(이건 새파란 것이니까.)

103066 @ 예.(예.)

103066 #1 칠팔월에 하니까 잘 먹긴 헙니다.(칠팔월에 하니까 잘 먹긴 합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잘 먹는데 건데 요즘 기계화뒈니까 하지.(잘 먹는데 그런데 요즘 기계화되니까 하지.)

103066 @ 예.(예.)

103066 #1 피 고고리 따당 보면 그게 다 미여질 거 아니꽈? 시방 기계화뒈니까 하지. 사름이 하믄 안 뒈여.(피 이삭을 따다 보면 그게 다 쓰러져 버릴 거 아닙니까? 시방은 기계화되니까 하지. 사람이 하면 안 되어.)

103066 @ 예.(예.)

103066 #1 고고리 따멍 다 자빠져 부니까 어려울 거 아니꽈? 사름은 못헤여. 요즘은 새 양식으로도 많이 나가곡.(이삭 따면서 다 자빠져 버리니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못해. 요즘은 새 양식으로도 많이 나가고.)

103066 @ 새 양식마씨? 나는 새? 생이?(새 양식이요? 나는 새? 새?)

103066 #1 예, 생이.(예, 새.)

103066 @ 생이 밥으로?(새 먹이로?)

103066 #1 예, 생이 밥으로.(예, 새 먹이로.)

103066 @ 예.(예.)

103066 #1 조 그것이 막 많이 나갑니다.(조 그것이 막 많이 나갑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피는 새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새든지 잘 먹어.(피는 새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새든지 잘 먹어.)

103066 @ 예.(예.)

103066 #1 잘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됩니다.(잘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새 먹는 조름에 강 똥 헤쌍 보민 핏 벙우리 그대로 있어.(새 먹는 뒤에 가서 똥을 헤집고 보면 피 덩어리 그대로 있어.)

103066 @ 아아.(아아.)

103066 #1 게난 이거 두 번, 세 번 먹는다는 거라.(그러니까 이거 두 번, 세 번 먹는다는 거야.)

103066 @ 음.(음.)

103066 #1 비에 씻어지민 또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비에 씻어지면 또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

103066 @ 예.(예.)

103066 #1 그 껍질이 요놈의 거 두꺼와서 두 번, 세 번 먹기 때문에. 새도 까지 못헤여 졸바로.(그 껍질이 요놈의 것은 두꺼워서 두 번, 세 번 먹기 때문에. 새도 까지 못해 제대로.)

103066 @ 피농사 어려워도 새 모이 하젠 짓는 거구나예?(피 농사 어려워도 새 모이 하려고 짓는 거군요?)

103066 #1 생이 모이뿐이 아니주.(새 모이뿐만 아니지.)

103066 @ 예.(예.)

103066 #1 어떻든게 이 놈우게 새 양식으로나 아니면 나갈 게 엇어.(어떻든지 이 놈의 것이 새 모이로나 아니면 나갈 게 없어.)

103066 @ 예.(예.)

103066 #1 겐디 들어보니까 새 양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조든, 피든. 경헤서 피를 갑니다.(그런데 들어보니까 새 모이로 많이 나갑니다. 조든, 피든. 그렇게 해서 피를 갑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뒈부는 거라.(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돼버리는 거야.)

103066 @ 예.(예.)

103066 #1 조는 갈아도양 조칲은 얼마 뒈지 안 헙니다.(조는 갈아도요 조짚은 얼마 되지 안 합니다.)

103066 @ 예.(예.)

103066 #1 그 전이 여기도 조칲, 피짚 합쳥은에 많이 이서낫는데.(그 전에 여기도 조짚, 피 짚 합쳐서 많이 있었는데.)

103066 @ 예.(예.)

103066 #1 그 조칲, 피짚들은 여기 축산농가들 잇당 ᄃᆞ렌 허민 줘불고.(그 조짚, 피 짚들은 여기 축산 농가들 있다가 달라 하면 줘버리고.)

103066 @ 예.(예.)

103066 #1 또 많이 허질 안 허기 때문에 헤벤도 조 사료 서껑 주곡.(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해안마을도 조 사료 섞어서 주고.)

103066 @ 옛날 사료 엇일 땐 뭐 서껑 줘나수과?(옛날 사료 없을 때는 뭐 섞어서 줬었습니까?)

103066 #1 사료가 무슨 제분들입니다.(사료가 무슨 제분들입니다.)

103066 @ 사료 나기 전이 뭐 서꺼 줘나지 안 헨마씨?(사료 나기 전에는 뭐 섞어 주지 않았습니까?)

103066 #1 서꺼주는 게, 사름 먹을 것도 엇인디 뭐 서껑 줍니까? 아이고.(섞어주는 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섞어 줍니까? 아이고.)

103066 @ 맞아예.(맞아예.)

103066 #1 그거 꿀인디. 아이고.(그거 꿀인데, 아이고.)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도 헨 뿐이꽈?(고무마도 했을 뿐입니까?)

103050 @ 예.(예.)

103050 #1 그것도 얼마나 뒈수까게? 고구마 나온 디가.(그것도 얼마나 됐습니까? 고무마 나온 지가.)

103050 @ 예.(예.)

103050 #1 왜정시대 나오곡. 그전에는 우리 아이 나난 때라부난 모르쿠다만은. 왜정시대 때 나온 거난.(일제 강점기 때 나오고. 그 전에는 우리 안 태어나던 때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 나온 거니까.)

103050 @ 언제 헤마씨?(언제 합니까?)

103050 #1 소서 전에. 것도 소서 전에.(소서 전에. 것도 소서 전에.)

103050 @ 다 그때 하는 구나. 잘도 바쁘쿠다예.(다 그때 하는 구나. 잘도 바쁘겠습니다.)

103050 #1 바쁠 뿐이꽈.(바쁠 뿐이겠습니까.)

103050 @ 예.(예.)

103050 #1 덥곡 혼이 납니다.(덥고 혼이 납니다.)

103050 @ 예.(예.)

103050 #1 소서 전에 이걸 놓지 안 허면.(소서 전에 이걸 놓지 않으면.)

103050 @ 예.(예.)

103050 #1 소서 전 삼일만 노면은 이거 요만씩 끈어냉 노면은 이거 구십 프로 살곡.(소서 전 삼일만 놓으면 이거 이만큼 씩 끊어서 놓으면 이거 구십 프로 살고.)

103050 @ 예.(예.)

103050 #1 소서가 넘으면은 이만썩 끈어도 여하튼 여하튼 칠십 프로 팔십 프로 죽어불어.(소서가 넘으면 이만큼 씩 끊어도 하여튼 하여튼 칠십 프로 팔십 프로 죽어버려.)

103050 @ 음.(음.)

103050 #1 소서.(소서.)

103050 @ 예.(예.)

103050 #1 소서가 뒈면은 땅에서 그 온기양, 열이 막 올라왕 감저 뿔리를 죽여부는 겁주.(소서가 되면 땅에서 그 온기요, 열이 막 올라와서 고구마 뿌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103052 @ 감저를 짤랑 땅에 묻는 거꽈?(고구마를 잘라서 땅에 묻는 것입니까?)

103052 #1 아, 그거. 게난 그것도 기술적이우다양. 옛날 토굴에서 살던 것추룩 감저도 구뎅이를 파.(아,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적입니다. 옛날 토굴에서 살던 것처럼 고구마도 구덩이를 파.)

103052 @ 구뎅이를.(구덩이를.)

103052 #1 으, 구뎅이. 구뎅이를 나 키 만이 파.(응. 구덩이. 구덩이를 내 키 만큼 파.)

103052 @ 예.(예.)

103052 #1 나 키 만이 헤서 구뎅이를 파면은 그리 산듸짚 ᄀᆞ튼 걸 헤당 깝니께. 밑으레영 웁드레영.(내 키만큼 해서 구덩이를 파면 거기에다 밭볏짚 같은 것을 해다가 깝니다. 밑에도 옆에도.)

103052 @ 예.(예.)

103052 #1 그게 뜻숩니다. 온기가 그게 잘 돌아와.(그게 따뜻합니다. 온기가 그게 잘 돌아.)

103052 @ 예.(예.)

103052 #1 우리가 산듸짚 트멍에 누워 보면은.(우리가 밭볏짚 틈에 누워 보면.)

103052 @ 예.(예.)

103052 #1 게서 감저를 춥지 못하게 온기를 헤 노면은 전부 쭉 세와근엥에 덮어.(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춥지 않게 온기를 해 놓으면 전부 쭉 세워서 덮어.)

103052 @ 예.(예.)

103052 #1 덮으민 그 다음에 흑을 덮은다 말이우다.(덮으면 그 다음에 흙을 덮는단 말입니다.)

103052 @ 예.(예.)

103052 #1 흑을 덮으면은 이게 습도를 맞추지 못하면은 겨난 노람지 페와근에 덮어 노면은 노람지 짱 벵허게 둘러 놩.(흙을 덮으면 이게 습도를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엉 펴서 덮어 놓으면 이엉 짜서 빙하게 둘러 놓고.)

103052 @ 예.(예.)

103052 #1 그거 비가림입니다예. 주위를 덮읍니다. 주지라고.(그것이 비가림입니다. 주위를 덮습니다. 라고.)

103052 @ 주지마씨?(주저리요?)

103052 #1 야, 주지. 주지를 덮으면은 그 온도를 맞추왕 그 주지를 자꾸 욜아 주면은 그 감저가 청명에 씨를 보장이 뒈고.(예, 주저리. 주저리를 덮으면 그 온도를 맞추어 그 주저리를 자꾸 열어 주면 그 고구마가 청명에 씨가 보장이 되고.)

103052 @ 아.(아.)

103052 #1 아 그게 잘못헤불민 그기서 열 생겨. 그 구뎅이 안에서양.(아 그게 잘못해버리면 거기서 열이 생겨. 그 구덩이 안에서요.)

103052 @ 예.(예.)

103052 #1 열 생기면 그냥 문짝 썩어불어.(열이 생기면 그냥 전부 썩어버려.)

103052 @ 썩어부는 구나.(썩어버리는 구나.)

103052 #1 경허난 이것두 기술적인 문제라서 간세허는 놈은 그것도 못 헤 먹습니다.(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라서 게으른 놈은 그것도 못 해 먹습니다.)

103052 @ 예.(예.)

103052 #1 뭐이든지 간세하믄 망조우다.(무엇이든지 게으르면 망조입니다.)

103052 @ 예.(예.)

103052 #1 게근에 허고 허망한 일도 많이 허는 거고마씀.(그렇게 해서 하고 허망한 일도 많이 하는 것이고요.)

103052 @ 구뎅이는 높이는 키 만이 하고 크기는마씨?(구덩이는 높이는 키 만큼 하고 크기는요?)

103052 #1 아, 그게. 서너 발. 나 발로 두 발이나 서 발.(아, 그게. 서너 발. 내 발로 두발이나 서 발.)

103052 @ 예.(예.)

103052 #1 감저, 고구마의 양에 따라서. 삼분의 일만 놓젠허면 어느 정도. 삼분의 이만 놓젠 허면 어느 정도.(고구마, 고구마의 양에 따라서. 삼분의 일만 놓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삼분의 이만 놓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103052 @ 아.(아.)

103052 #1 고구마양 헤서 팝니다.(고구마요 해서 팝니다.)

103052 @ 묻엇당 싹 나민 밧디 싱거마씨?(묻었다가 싹이 나면 밭에 심습니까?)

103052 #1 아니, 아니. 경허면 청명 뒈면은 그걸 또 꺼내여.(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청명되면 그걸 또 꺼내.)

103052 @ 예.(예.)

103052 #1 꺼내면은 쉐걸름이나 돼지 걸름이나 아지당 끕니다.(꺼내면 쇠두엄이나 돼지거름이나 가져다가 깝니다.)

103052 @ 밧디마씨?(밭에요?)

103052 #1 밧디 그게이 종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를 안 헙니다. 이런 우영에.(밭에 그게 종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런 텃밭에.)

103052 @ 우영에.(텃밭에.)

103052 #1 최고 열 평이나 한 다섯 평에.(최고 열 평이나 한 다섯 평에.)

103052 @ 예.(예.)

103052 #1 산테로 헤영 걸름헤당 딱 놓아서 그레 혹 덮엇당.(산태로 해서 거름해다가 딱 놓아서 거기에 흙을 덮었다가.)

103052 @ 예.(예.)

103052 #1 그게 가스가 좀 발효뒈면양, 가스가 발효가 뒈면은 그 구뎅이에 강 감저를 꺼내서 씨감자를 놓는 거라.(그게 가스가 좀 발표되면요, 가스가 발효가 되면 그 구덩이에 가서 고구마를 꺼내서 씨고구마를 놓는 거야.)

103052 @ 예.(예.)

103052 #1 흔 뿜씩 간격 놔근엥에.(한 뼘씩 간격 놓고.)

103052 @ 예.(예.)

103052 #1 요즘은 비닐을 덮엇지만은 그 전이는 비니루가 엇엇수다.(요즘은 비닐을 덮었지만 그 전에는 비닐이 없었습니다.)

103052 @ 예.(예.)

103052 #1 경허면은 비니루 엇인 때난 나멍 서리 맞아 죽어부는 수가 잇곡.(그러면 비닐이 없는 때이니 나면서 서리 맞아서 죽어 버리는 수가 있고.)

103052 @ 예.(예.)

103052 #1 요즘은 비니루 시난.(요즘은 비닐이 있으니.)

103052 @ 예.(예.)

103052 #1 근디 비니루 걷지 안 헷당 열 받으민 것도 죽어붑데다.(그런데 비닐을 걷어내지 안 했다가는 열 받으면 그것도 죽어 버립디다.)

103052 @ 아.(아.)

103052 #1 비니루 걷지 안헷당 열 받으난 죽어불곡.(비닐을 걷지 안했다가 열 받으니까 죽어버리고.)

103052 @ 예.(예.)

103052 #1 비니루 아이 쓸 때는 그놈으 거 자꾸 날 시기가 뒈면은 날 시기가 흔 십오 일에서 이십 일이 뒈면은 납니다.(비닐을 안 쓸 때는 그놈의 것 자꾸 날 시기가 되면 날 시기가 한 십오 일에서 이십 일 되면 납니다.)

103052 @ 예.(예.)

103052 #1 걸 자꾸 봐야 돼. 보지 안 혜영은 만약에 예측을 일기예보를 예측을 못 헐꺼 아니꽈?(그걸 자꾸 봐야 돼. 보지 안 했다가는 만약에 예측을 일기예보를 예측을 못 할 거 아닙니까?)

103052 @ 예.(예.)

103052 #1 오늘 저녁에 괜찮으겠다 서리 아니 내리겠다.(오늘 저녁에 괜찮겠다 서리 안 내리겠다.)

103052 @ 예.(예.)

103052 #1 종자는 시방 놔도 됩니다. 조종만 잘 허면은.(종자는 시방 놓아도 됩니다. 조정만 잘 하면.)

103052 @ 음.(음.)

103052 #1 메족메족 날 때 뜨셔가지고 서리 안 내리겟다 허당 자당 보민 뒷날 아첵이 서리 내리면 오꼿 죽어붑니다.(비죽비죽 날 때 따뜻해서 서리 안 내리겠다 하다가 자다가 보면 다음날 아침에 서리가 내리면 그만 죽어 버립니다.)

103052 @ 서리 내릴 땐 어떵헤야 뒈마씨?(서리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03052 #1 게난 서리 내릴 때는 흑을 덮어줭은에. 흑을 덮어줘야 돼.(그러니까 서리 내릴 때는 흙을 덮어주고. 흙을 덮어 줘야 돼.)

103052 @ 뚯뚯하렌.(따뜻하라고.)

103052 #1 수둡[138]으로 올려줭.('수둡'으로 올려줘서.)

103052 @ 예.(예.)

103052 #1 실시를 많이 허주게. 일찍 놧당은.(실시를 많이 하지. 일찍 놓았다가는.)

103052 @ 예.(예.)

103052 #1 게난 요즘은 비니루가 이시니까. 비니루에도 고망 아이 뚜러지민 워낙 열 받으민 것도 죽어불어.(그러니까 요즘은 비닐이 있으니까. 비닐에도 구멍을 안 뚫으면 워낙 열 받으면 그것도 죽어 버려.)

103052 @ 예.(예.)

103052 #1 죽어분 놈은 끗이라. 아이 뒈어.(죽어 버린 놈은 끝이야. 안 되어.)

103052 @ 경헤난 나.(그리고 나면 나와.)

---

138) '수둡'은 밭에 흙을 깔 때 수북히 올려 땅이 평지보다 올라올 정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103052 #1 야. 나.(예. 나와.)

103052 @ 나민. 언제쯤마씨?(나오면. 언제쯤요?)

103052 #1 그걸 줄을 짤라야 돼, 이제.(그걸 줄을 잘라야 돼, 이제.)

103052 @ 아, 줄을 잘라내야마씨?(아, 줄을 잘라내야요?)

103052 #1 줄을 잘라서 밧디 강 심글 거. 밧디 강.(줄을 잘라서 밭에 가서 심을 거. 밭에 가서.)

103052 @ 예.(예.)

103052 #1 소서가 뒈기 전에 요만씩 끈으멍 강 밧디 강.(소서가 되기 전에 이만큼씩 끊으면서 가서 밭에 가서.)

103052 @ 아,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아,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103052 #1 아, 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산 귀신들이로고. 사는 귀신이라. 큰일이라.(아, 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산 귀신들이로다. 산 귀신이야. 큰일이야.)

10305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52 #1 밧디서 줄을.(밭에서 줄을.)

103052 @ 예.(예.)

103052 #1 그게 밧이 줄이 요만씩 나면.(그게 밭에서 줄이 이만큼씩 나면.)

103052 @ 예.(예.)

103052 #1 토종감저, 웨감저라고 헤서 두 가지가 이수다.(토종고구마, 왜고구마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3052 @ 예.(예.)

103052 #1 서너 가지가 이수다, 감저 종류에는. 붉은 감저하고 흰 감저.(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고구마 종류에는. 붉은 고구마하고 흰 고구마.)

103052 @ 예.(예.)

103052 #1 여러 가지가 잇는데 붉은 감저는 이만이 뒈면 줄이 어느 만이다. 흰 감저는 이만이 뒈면 줄이 어느 만이다.(여러 가지가 있는데 붉은 고구마는 이만큼 되면 줄이 어는 만큼이다. 흰 고구마는 이만큼 되면 줄이 어느 만큼이다.)

103052 @ 예.(예.)

103052 #1 일 메다 이상 나갓다 예측을 헤 가지고.(일 미터 이상 나갔다 예측을 해서.)

103052 @ 예.(예.)

103052 #1 시기가 뒈 가면은. 유월절 소서가 뒈 가면은.(시기가 되어 가면. 유월절 소서가 되어 가면.)

103052 @ 예.(예.)

103052 #1 끈어당 놓지 안 허면 소서 넘어가면 죽어 불어. 열 받앙은에. 열 받앙 죽으니까.(끊어다가 놓지 않으면 소서 넘어가면 죽어 버려. 열을 받아서. 열 받아 죽으니까.)

103052 @ 음.(음.)

103052 #1 그 전이 끈어당 놓지 안 허면.(그 전에 끊어다가 놓지 않으면.)

103052 @ 예.(예.)

103052 #1 이거 여산허멍 밧도 마련을 허는 거라.(이것을 계산하면서 밭도 마련을 하는 거야.)

103052 @ 예.(예.)

103052 #1 요거면 멧 평, 요거면 백 평. 영헤서 판단을 헹 끈어 아졍.(이것이면 몇 평, 이것이면 백 평.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끊어 가지고.)

103052 @ 예.(예.)

103052 #1 어떠튼 사름이 질머졍 가야지. 그거 가지고 뭐 마차나 뭐 그 당시엔 엇엇고. 개인이 질머졍 강.(어떻든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지. 그거 가지고 뭐 마차나 뭐 그 당시에는 없었고. 개인이 짊어지고 가소.)

103052 @ 예.(예.)

103052 #1 요만씩 끈읍니다. 삼십 센치씩.(이만큼 씩 끊습니다. 삼십 센티씩.)

103052 @ 줄을.(줄을.)

103052 #1 게서 잘랑 소서 전이 삼일 전이만 싱그면은 더 족게 잘라도 다 삽니다.(그래서 자르고 소서 전에 삼일 전에만 심으면 더 작게 잘라도 다 삽니다.)

103052 @ 밧디 그거를.(밭에 그것을.)

103052 #1 밧디 땅 기온이 올라오지 안 허기 때문에.(밭에 땅의 기온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103052 @ 예.(예.)

103052 #1 유월절 넘으민 요만씩 끈어도 힘을 받게 헤도 죽어 불여.(유월절이 넘으면 이만큼 씩 끊어도 힘을 받게 해도 죽어 버려.)

103052 @ 음, 더웡은에.(음, 더워서.)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55 #1 경헤서 그게 살아난 ᄀᆞ을 들면은 우리 농사허는 거나 마찬가지라.(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가을 들면 우리 농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103055 @ 예.(예.)

103055 #1 경 강은에 뽑아 오고.(그렇게 가서 뽑아 오고.)

103055 @ 감저 팡.(고구마를 파서.)

103055 #1 응. 줄 벋은 거 걷어뒁.(응. 줄을 뻗은 거 거둬두고.)

103055 @ 예.(예.)

103055 #1 게니까 그 전이는 엎더정 호미로 그걸 잡아 쳤는데 그것도 상당히 괴로웁니다.(그러니까 그 전에는 엎드려서 낫으로 그걸 잡아 쳤는데 그것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103055 @ 아.(아.)

103055 #1 겐디 요즘은 사람이 연구가 나가지고. 쉐스렁. 쉐스렁으로 박박 거둬붑니다.(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연구가 나 가지고. 쇠스랑. 쇠스랑으로 박박 거두어

버립니다.)

103055 @ 그럼 감저 올라옵니까?(그럼 고구마가 올라옵니까?)

103055 #1 아니, 감저는 또 사름 손으로 파야 하곡.(아니, 고구마는 또 사람이 손으로 파야 하고.)

103055 @ 예.(예.)

103055 #1 줄에 부튼 거나 혼 두 개씩 따근에 허는 거지. 어떻든 사람으로 파야 헤. 고구마.(줄에 붙은 거나 한 두 개씩 따서 하는 거지. 어떻든 사람이 파야 해. 고구마.)

103055 @ 언제 캔다고마씨?(언제 캔다고요?)

103055 #1 응, 가을에양, 가을에.(응, 가을에요, 가을에.)

103055 @ 예.(예.)

103055 #1 겨울까지 가믄 아이 뒈어. 석어불여.(겨울까지 가면 아니 되어. 썩어버려.)

103055 @ 가을에 캐어.(가을에 캐.)

103055 #1 상강 맞앙은양 저장도 못헤여.(서리 맞으면요 저장도 못해.)

103055 @ 예.(예.)

103055 #1 그게 원래 질이. 상강일 전에. 파 근에. 그 상강일 넘으민양, 썹이 죽어 붑니다.(그게 원리 질이. 상강일 전에. 파서. 그 상강일 넘으면요, 잎이 죽어버립니다.)

103055 @ 예.(예.)

103055 #1 썹이 가불가불 죽어불영 허면은. 감자 묻엇당 백프로 썩어불여.(잎이 시들시들 죽어 버리면. 고구마 묻었다가는 백 프로 썩어버려.)

103055 @ 예.(예.)

103055 #1 건 겨울 십이월 달 안에 뒈도록 먹어 불어야 돼.(그건 겨울 십이월 달 안에 되도록 먹어 버려야 돼.)

103055 @ 감저는 언제 장만헤야 합니까?(고구마는 언제 장만해야 합니까?)

103055 #1 상강일 전에 썹이 쪼그라들지 안 허연 때에 뒈도록 이면 일찍 파야 돼.(상강일 전에 잎이 쪼그라들지 않을 때 되도록이면 일찍 파야 돼.)

103055 @ 예.(예.)

103055 #1 일찍 파서 도순 디 가서 놔뒀당 묻으나.(일찍 파서 따뜻한 데 가서 놓아두었다가 묻거나.)

103055 @ 예.(예.)

103055 #1 아니면 막바로 구뎅이 파 놔뒀당 구뎅이에 앗당 파 묻으나. 아이고 이것도 괴로운 거우다.(아니면 바로 구덩이를 파서 놓아두었다가 구덩이에서 가져다가 파 묻거나. 아이고 이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57 @ 감저 뻿데기도 하영 헤수과?(절간고구마도 많이 했습니까?)

103057 #1 야. 뻿데기. 그건 요전이 헤난 거고.(예. 절간고구마. 그건 얼마 전에 했던 것이고.)

103057 @ 옛날엔 뻿데기는 안 헤난마씨? 감저로 뭐 헤난마씨?(옛날에 절간고구마는 안 했었습니까? 고구마로 무엇을 했었습니까?)

103057 #1 감저 뻿데기영 ᄀᆞ루 갈아은에양, 뭇우왕은에.(절간고구마하고 가루 갈아서, 마서.)

103057 @ 예.(예.)

103057 #1 저 연자방에 강 놩 막 곱니다. 놉들 빌엉은에. ᄀᆞ치 수눌엉.(저 연자방아에 가서 놓고 막 갑니다. 놉을 빌려서. 같이 품앗이하면서.)

103057 @ 예.(예.)

103057 #1 경헹 감저떡, 오메기떡. ᄒᆞ나 정도는 맛 좁니다.(그렇게 해서 고구마떡, 오메기떡. 하나 정도는 맛이 좋습니다.)

103057 @ 하하하.(하하하.)

103057 #1 겐디 요걸 주식으로 먹으렌 허니까 별로 원순 엇입디다. 이걸로 때살라.(그런데 이것을 주식으로 먹으라고 하니까 별로 원수는 없습디다. 이것으로 때살아라.)

103057 @ 밥 대신 먹기에는.(밥 대신 먹기에는.)

103057 #1 야. 밥 대신 먹어라. 게 그로 후제 감저에 조팝양 좁쏠.(예. 밥 대신 먹어라. 그래서 그로 후에 고구마에 좁쌀밥 좁쌀.)

103057 @ 예.(예.)

103057 #1 좁쏠을 헹 노면은.(좁쌀을 해서 놓으면)

103057 @ 예.(예.)

103057 #1 좁쏠을 요만이 노면은 감저는 댓 개를 놔 노민 몬 감저 덩어리라.(좁쌀을 요만큼 놓으면 고구마는 댓 개를 놓으면 모두 고구마 덩어리야.)

103057 @ 예.(예.)

103057 #1 이 놈들[139]이 학교를 강 오면은.(이 놈들이 학교에 갔다가 오면은.)

103057 @ 예.(예.)

103057 #1 하이, 좁쏠 방울은 간 데 엇고 감자 벙뎅이만 낭푼이에 ᄒᆞ나 가득이라.(하이, 좁쌀 방울은 간 데가 없고 고구마 덩어리만 양푼에 하나 가득이야.)

103057 @ 예.(예.)

103057 #1 아이 이걸 먹어야 될 건디 쏠 불룸으로 감저를 논거라마씸.(아이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데 쌀을 불린다고 고구마를 넣은 겁니다.)

103057 @ 예.(예.)

103057 #1 경허면은 그자 군소리 허멍도.(그러면 그저 군소리 하면서도.)

103057 @ 예.(예.)

103057 #1 이 국에도 감저를 놩 먹엇수다. 국에도.(이 국에도 고구마를 넣고 먹

139) '놈들'은 문맥에서 제보자의 자녀들을 일컫는다.

었습니다. 국에도.)

103057 @ 아.(아.)

103057 #1 국에도 썰어놩 먹곡. 밥에도 놩 먹곡. 기자 범벅 할 때도 썰어놩 먹곡. 게민 좋아 그게.(국에도 썰어 놓고 먹고. 밥에도 넣고 먹고. 그저 범벅 할 때도 썰어 넣어서 먹고. 그럼 좋아 그게.)

103057 @ 예.(예.)

103057 #1 게난 그 느젱이 ᄀᆞ루, 모믈 ᄀᆞ루양.(그러니까 그 나깨 가루, 메일 가루요.)

103057 @ 예, 예.(예, 예.)

103057 #1 그런 거 헹 감저에 헹 버믈령 막 직어노면은 그 든 맛에, 든 맛에 멕혀 마씀.(그런 거 해서 고구마에 해서 버므리고 막 찍어 놓으면 그 단 맛에, 단 맛에 먹힙니다.)

103057 @ 예.(예.)

103057 #1 감저도 그 모인 좁쏠을 헹 노면은 쏠 제멋대로 감저 제멋대로 가민, 그거 직어.(고구마도 그 메진 좁쌀을 해서 넣으면 쌀이 제멋대로 고구마도 제멋대로 하면 그것을 찍어.)

103057 @ 예.(예.)

103057 #1 그믄 범벅양, 범벅 멘들 듯이 헹 것에 배합 헹 ᄂᆞ물쿡에 먹어십주, 뭐.(그러면 범벅, 범벅 만들 듯이 해서 그것에 배합해서 나물국에 먹었지요, 뭐.)

103057 @ 예.(예.)

103057 #1 데껴불진 안 헤십주. 어떤 방법을 헤도.(던져 버리지 안했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103057 @ 감저 줄기도 먹지 안 헙니까?(고구마 줄기도 먹지 않습니까?)

103057 #1 줄기. 이파리 썹 붙은 거?(줄기. 잎사귀 잎이 붙은 거?)

103057 @ 예.(예.)

103057 #1 썹 붙은 거. 뭐, 뭐. 좋주. 이제도 먹곡. 것도 먹기 시작을 왜정시대부터.(잎이 붙은 거. 뭐, 뭐. 좋지. 이제도 먹고. 그것도 먹기 시작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103057 @ 아하.(아하.)

103057 #1 우리가 예술굽 살에는 아이 먹어봣수다.(우리가 예닐곱 살에는 안 먹어봤습니다.)

103057 @ 예.(예.)

103057 #1 야. 그때도 왜정시댄디 나 예술굽 살에도 왜정시댄디 그땐 우린 엇어부난. 엇어부난 못 먹은 거.(예. 그때도 일제 강점기 때인데 내가 예닐곱 살에도 일제 강점기 땐데 그땐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못 먹은 거.)

103060 @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0 #1 서쪽과 이쪽은 기후가 틀립니다.(서쪽과 이쪽은 기후가 다릅니다.)

103060 @ 기구나.(그렇구나.)

103060 #1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외나 수박은 이런 우영에 먹을 거라도 놓으민양 잘 아이 뒈어.(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오이나 수박은 이런 텃밭에 먹을 거라도 놓으면 잘 안 되어.)

103060 @ 예.(예.)

103060 #1 미깡도 여기에 질이 틀린다는 게 헤벤이나 서귀포에 농약을 혼번 치면 여기는 두서너 번 쳐야 뒈어.(귤도 여기에 품질이 다르다는 게 해안마을이나 서귀포에는 농약을 한 번 치면 여기는 두서너 번 쳐야 되어.)

103060 @ 날아가불엉마씨?(날아가버려서요?)

103060 #1 날아가는 게 아니고 습기가 만헤여.(날아가는 게 아니고 습기가 많아서.)

103060 @ 예.(예.)

103060 #1 이 모든 곤충들이 엄청나게 만헤여.(이 모든 곤충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103060 @ 예.(예.)

103060 #1 나도 미깡을 일본서 들어오난 송당서 맨 첫 번 시도헤낫수다. 이제도 그 낭이 있주만은.(나도 귤을 일본에서 들어오니까 송당에서 맨 첫 번 시도했었습니다. 이제도 그 나무가 있지만.)

103060 @ 예예.(예예.)

103060 #1 것도 혼 오 년 허단예.(그것도 한 오 년 하다가.)

103060 @ 예.(예.)

103060 #1 요 선흘 약허는 거 보고, 아하 구좌 세화리 강 약허는 걸 보고, 표선리가 약허는 거 봔에, 고개 흔든 게.(요 선흘 약하는 거 보고, 아하 구좌 세화리 가서 약하는 걸 보고, 표선리 가서 약하는 거 보고나서, 고개 흔든 것이.)

103060 @ 예.(예.)

103060 #1 두 번 세 번. 저기는 혼 번. 표선이 혼 번 하민 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헤야 돼.(두 번, 세 번. 저기는 한 번. 표선에는 한 번 하면 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 돼.)

103060 @ 아.(아.)

103060 #1 경 안 허면 이놈우 충들을 잡아내질 못헤여.(그렇게 안 하면 이놈의 충들을 잡아내지를 못해.)

103060 @ 예.(예.)

103060 #1 송당에 시방 미깡밧은 엇수다.(송당에 시방 귤밭은 없습니다.)

103060 @ 예.(예.)

103060 #1 선흘하고 송당도 바로 여기 닮아도 기후가 완전히 틀립니다.(선흘하고 송당도 바로 여기 닮아도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103060 @ 예.(예.)

103060 #1 ᄇᆞ름 불어오는 게 틀립니다. 서북풍이 불어오는데 선흘곶 넘어 이레는 안와.(바람 불어오는 게 다릅니다. 서북풍이 불어오는데 선흘곶 넘어 이쪽으로는 안 와.)

103060 @ 예.(예.)

103060 #1 선흘곶더렌 태풍도 잘 아이 온덴 헙니다. 이레는 앗당 들이쳐도.(선흘곶으로는 태풍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가져다 들이쳐도.)

103060 @ 아.(아.)

103067 @ 메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메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7 #1 응. 모멀.(응, 메밀.)

103067 @ 어떵헤낫수과?(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67 #1 모멀은 그게 불치에.(메밀은 그게 불티에.)

103067 @ 예?(예?)

103067 #1 불치, 재.(불티, 재.)

103067 @ 예.(예.)

103067 #1 옛날은 그 화덕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검질로 떼기 때문에 그 불치를 막 모이는 거라.(옛날은 그 화덕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김으로 떼기 때문에 그 불티를 막 모으는 거야.)

103067 @ 정지에 이신 화덕마씨? 아니면 화리?(부엌에 있는 화덕이요? 아니면 화로.)

103067 #1 아니. 게난 게 화리가 아니고 이 무쇠솓이.(아니. 그러니까 화로가 아니고 이 무쇠솥에.)

103067 @ 예.(예.)

103067 #1 솓 ᄒᆞ나 앚젱, 두 개 앚젱, 세 개 앚젱 ᄒᆞᆫ 서너너개 씩 앚지지 안 헙니까?(솥 하나를 걸어, 두 개 걸어, 세 개 걸어. 한 서너 개 씩 걸지 않습니까?)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경허면은 검질로 불을 뗀다 말이우다.(그러면은 김으로 불을 뗀다 말입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게면 재, 불치를 삽으로나 솔박으로나 걷으멍 모두웁니다.(그러면 재, 불티를 삽으로나 솔박으로나 걷으면서 모아둡니다.)

103067 @ 아. 어디다가.(아. 어디다가.)

103067 #1 게난 요즘은 비료포나 하나. 그때는 멕 ᄀᆞ튼 거양.(그러니까 요듬은 비료포도 많지만. 그때는 망태기같은 거.)

103067 @ 아, 멕에다가예.(아, 망태기에다가요.)

103067 #1 멕 ᄀᆞ튼 거나 어떻든 무슨 그릇을 장만헤서.(망태기 같은 거나 어떻든 무슨 그릇을 장만해서.)

103067 @ 예.(예.)

103067 #1 그걸 솔박으로 걸리멍 모두왓당.(그걸 솔박으로 걷으면서 모았다가.)
103067 @ 예.(예.)
103067 #1 팔월 처서가 뒈어 가면은 그걸 모둔 걸 다 실렁 강 메밀 씨 하곡.(팔월 처서가 되면 그걸 모아 둔 걸 다 싣고 가서 메밀 씨를 하고.)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비료는 없는 거라. 그 당시에는.(비료는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103067 @ 예.(예.)
103067 #1 메밀씨하고 섞어놩.(메밀 씨하고 섞어놔.)
103067 @ 예.(예.)
103067 #1 이제는 쉐가 가면은 긋는 겁니다. 씨를 집어넣을 디.(이제는 소가 가면 긋는 겁니다. 씨를 집어넣을 데를.)
103067 @ 예.(예.)
103067 #1 게민 준준하게 밧을 갈아.(그러면 촘촘하게 밭을 갈아.)
103067 @ 예.(예.)
103067 #1 갈면은 것도 여자들이양, 우리 할망 닮은 할망이멍.(갈면 그것도 여자들이요, 우리 할머니 닮은 할머니들.)
103067 @ 예.(예.)
103067 #1 내 추리는 건 아닌데 일생을 일을 뭐헤노난 좁아 노는 율이 ᄲᅳᆸ니다.(내가 치켜세우는 건 아닌데 일생을 일을 뭐했으니 집어 놓는 비율이 빠릅니다.)
103067 @ 아.(아.)
103067 #1 그걸 흔 사름이 넉 줄이나 다섯 줄을 사.(그것을 한 사람이 넉 줄이나 다섯 줄을 서.)
103067 @ 예.(예.)
103067 #1 구덕에 그 불치를 메여. 모멀 씨하고 서튼걸.(바구니에 그 불티를 메서. 메밀 씨하고 섞은 것을.)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메영 가서 쉐가 그 밧을 갈아 노면 네골이나 다섯골을 거 심어 막 던져 가.(메고 가서 소가 그 밭을 갈면 네 골이나 다섯 골을 그것을 잡고 막 던져 가.)
103067 @ 아.(아.)
103067 #1 뒤로 사근에예. 뒤로 허는 거.(뒤로 서서. 뒤로 하는 거.)
103067 @ 예.(예.)
103067 #1 사근에 뒤로 걸으멍 헤는데.(서서 뒤로 걸으면서 하는데.)
103067 @ 예.(예.)
103067 #1 일정허게 선수들은 잘 노는 사람들은 고랑에 직각직각 잘 들어가는데.(일정하게 선수들은 잘 놓는 사람들은 고랑에 제각제각 잘 들어가는데.)
103067 @ 예.(예.)

103067 #1 겨 아이민 어떵 파니에양, 이렁에 가분 사름은 잘 못 된 겁주.(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파니에, 이렁에 가버리는 사람은 잘 못 된 것이지.)

103067 @ 예.(예.)

103067 #1 게도 그걸 끄설게[140]로.(그래도 그것을 '끄설게'로.)

103067 @ 예.(예.)

102067 #1 그 중간에는 소나 몰헹 끄섯주만은 그 전엔 사름이. 끄설게 아십니까?(그 중간에는 소나 말을 해서 끌었지만 그 전에는 사람이. '끄설게' 아십니까?)

103067 @ 나무로 된 거.(나무로 된 거.)

103067 #1 낭으로 헹 멘들랑 덮으는 거.(나무로 해서 만들어서 덮는 거.)

103067 @ 예.(예.)

103067 #1 그걸 가져근에 만 평이라도 그건 사람냥으로 끄서야 허는 거.(그걸 가져서 만 평이라도 그건 사람대로 끌어야 하는 거.)

103067 @ 헤? 몰이나 쉐에 헹마씨?(헤? 말이나 쇠를 해서요?)

103067 #1 게, 몰이나 쉐는 중간에 나온 거곡. 그 전에는.(게, 말이나 쇠는 중간에 나온 것이고. 그 전에는.)

103067 @ 다 사름이예?(다 사람이요?)

103067 #1 전부 사름이.(전부 사람이.)

103067 @ 헤.(헤.)

103067 #1 그때야 원시인보다도 더 헤십주게.(그때야 원시인보다도 더 했지요.)

103067 @ 에예.(예예.)

103067 #1 야. 겅헹 그걸 사름이 헹 끄시면 그게 두 이파리 납니다.(예. 그렇게 해서 그걸 사람이 해서 끌면 그게 두 잎이 납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게 누가 논건 지 번연히 알아집니다.(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누가 놓은 건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103067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3067 #1 야. 이건 어느 아지망이, 아 요건 어느 아지망이 줍아 논 거. 누게 논 거. 누게 논 거.(예. 이건 어느 아주머니가, 아 요건 어느 아주머니가 집어 놓은 거. 누가 놓은 거. 누가 놓은 거.)

103067 @ 하하하.(하하하.)

103067 #1 그게 막 흐터진 게 있곡 모룩모룩 논 게 있곡.(그게 막 흩어진 것이 있고 모룩모룩 놓은 게 있고.)

103067 @ 예.(예.)

103067 #1 이게 놓는데 꼭꼭 잘 줍아야 뒈어.(이게 놓는데 꼭꼭 잘 집어야 되어.)

103067 @ 아.(아.)

---

140) '끄설게'는 끌개를 말한다. 나무로 되어 밭에서 끌어당기는 기구이다.

103067 #1 딱 떨어질 때까지 흐터지지 못허게. 꼭 잘 줍아야 뒈어.(딱 떨어질 때까지 흩어지지 않게. 꼭 잘 집어야 돼.)

103067 @ 예.(예.)

103067 #1 게난 그게 기술인데. 아지망들토.(그러니까 그게 기술인데. 아주머니들도.)

103067 @ 아.(아.)

103067 #1 뚠 사름들은 잡으나 마나 기냥 잘락잘락[141] 놓단 보민 허터지곡.(다른 사람들은 잡으나 마나 그냥 '잘락잘락' 놓다 보면 흐트러지고.)

103067 @ 예.(예.)

103067 #1 변통엇이 허는 아지망들은 요걸 꼭꼭 줍으면서 노면은 떨어지는 순간에 허터지지 안 헙니께.(변통 없이 하는 아주머니들은 요걸 꼭꼭 집으면서 놓으면 떨어지는 순간에 흩어지지 안 하지요.)

103067 @ 아.(아.)

103067 #1 경허면은 모믈 쏠이 일정하게 발아가 촥 뒝 나오곡.(그러면은 메밀쌀이 일정하게 발아가 쫙 되어서 나오고.)

103067 @ 예.(예.)

103067 #1 헉거진 건 헉거진 대로 나와두 그런대로 기냥 헤영 먹는 겁주.(섞인 것은 섞인 대로 나와도 그런대로 그냥 해서 먹는 거지요.)

103067 @ 예.(예.)

103067 #1 헤여 먹는데, 이게 일주일이 뒈면은 하나하나 논 자국이 나옵니다.(해서 먹는데 그게 일주일이 되면 하나하나 놓은 자국이 나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나오는데 밧 깍젱이 돌아봥은에 또 흔 열흘만 뒈면은 그걸 또 밧디 갑니다.(나오는데 밭 깍쟁이 돌아봐서 또 한 열흘만 되면 그걸 또 밭에 갑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게민 이제 그 그디 가서 모믈 씨하고 재 썩어난 그 장소가 이십니다.(그러면 이제 그 그곳에 가서 메밀 씨하고 재 섞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모아놩 덮어뒀당 허는 장소가.(모아서 덮어 두었다가 하던 장소가.)

103067 @ 예, 예.(예, 예.)

103067 #1 그 장소엔 쉐스렁으로 직엉 내불여.(그 장소에는 쇠스랑으로 찍어서 내버려.)

103067 @ 예.(예.)

103067 #1 직엉 내불민 모믈이 왁상 납니다.(찍어서 내버리면 메밀이 가득 납니다.)

103067 @ 예.(예.)

141) '잘락잘락'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양 또는 아무렇게나 흩어놓는 행위를 말한다.

103067 #1 그믄 흔 십일 쯤은 강 뜯엉 와. 숚아 오는 거라.(그러면 한 십일 쯤 가서 뜯어 와. 솎아 오는 거야.)

103067 @ 아, 예.(아, 예.)

103067 #1 틈틈이 숚아당은에 그거 춤 마십니다. 솖아 먹어. 생차로도 먹어.(틈틈이 솎아서 그거 참 맛있습니다. 삶아 먹어. 생채로도 먹어.)

103067 @ 메밀싹이지예?(메밀싹이지요?)

103067 #1 야. 모믈 싹이 크면은.(예. 메밀 싹이 크면.)

103067 @ 오호.(오호.)

103067 #1 요정도 크면은 요정도 헤당 줄라. 줄랑 생차도 먹곡.(요 정도 크면 요 정도 해다가 잘라. 잘라서 생으로 먹고.)

103067 @ 예.(예.)

103067 #1 그때도 피부가 약한 사름은 몸이 좀 근지릅다고 흡니다.(그 때도 피부가 약한 사람은 몸이 좀 간지럽다고 합니다.)

103067 @ 거 먹으믄마씨?(그거 먹으면요?)

103067 #1 야. 거 먹으민.(예. 그거 먹으면.)

103067 @ 예.(예.)

103067 #1 견데 솖앙도 상당히 진미가 나와. 문작하고. 소화도 잘 뒈곡.(그런데 삶아도 상당히 진미가 나와. 반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103067 @ 예.(예.)

103067 #1 경헌디 이젠 놈의 밧디 못 들어갑니다.(그런데 이젠 다른 사람의 밭에 못 들어갑니다.)

103067 @ 하하하. 도둑놈 뒈불어.(하하하. 도둑놈 되어버려.)

103067 #1 도둑놈이옌 허여.(도둑놈이라고 해.)

103067 @ 예.(예.)

103067 #1 그 전인게 광활한 디 막 헹 내불민게.(그 전에는 광활한 데 막 해서 내버리면.)

103067 @ 예.(예.)

103067 #1 그거 아무라도 그거 댓 줌씩 뽑아 아졍 옵니께.(그거 아무라도 그거 댓 줌씩 뽑아서 가지고 옵니다.)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야, 야.(야, 야.)

103067 @ 요새도 메밀싹 팔던데마씨.(요새도 메밀싹 팔던데요.)

103067 #1 요새도 풀주.(요새도 팔지.)

103067 @ 예.(예.)

103067 #1 견데 그게 제주 모믈쏠이믄 허주만은 재래종이 아니. 전부.(그런데 그게 제주 메밀쌀이면 하지만 재래종이 아니. 전부.)

103067 @ 아.(아.)

103067 #1 게서 시방 묵 험도 상당히 골칫거립디다.(그래서 시방 묵 하는 것도 상당히 골칫거리입디다.)

103067 @ 안 뒈가지고마씨?(안 되어서요?)

103067 #1 아니. 뒈긴 허는데 (아니. 되긴 하는데.)

103067 @ 맛이 안나?(맛이 안 나?)

103067 #1 맛이 안 나고 진이 엇인 모양이라. 진.(맛이 안 나고 진이 없는 모양이라 진.)

103067 @ 예.(예.)

103067 #1 야, 야. 게난 중간에 강원도에서 들어왔져, 뭐했져 허는 말이 제주도가.(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강원도에서 들어왔다, 뭐했다 하는 말이 제주도가.)

103067 @ 예.(예.)

103067 #1 제주도 모믈이 알이 아주 좁니다. 줄아.(제주도 메밀이 알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

103067 @ 아, 줄아.(아, 작아.)

103067 #1 예. 똰디 거 보단.(예. 다른 데 것 보다.)

103067 @ 예. 경허고 대곡 뒈도록이면 갈욱밧디 갈긴 가는디.(예. 그렇다치더라도 되도록 '갈욱밭'에 갈기는 가는데.)

103067 @ 예.(예.)

103067 #1 갈욱밧디 갈면은 모물이 홁기는 허는데 아이 얼마 안 뒈곡.('갈욱밭'에 갈면 메밀이 굵기는 하는데 얼마 안 되고.)

103067 @ 예.(예.)

103067 #1 벌거지 먹어붐니다. 이게.(벌레 먹어버립니다. 이게.)

103067 @ 예.(예.)

103067 #1 경허기 때문에 갈욱밧디도 안 갈곡 광활한 디만 갑주 마씀.(그렇기 때문에 '갈욱밭'에도 안 갈고 광활한 데만 갑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경허민 이 비ᄇᆞ름으로 떼려불면은 이 모믈 알이 족아. 경헌데 알이 그 ᄋᆞ물은 솝박 들어.(그러면 이 비바람으로 떼려버리면 이 메밀 알이 작아. 그런데 알이 그 여물은 가득 들어.)

103067 @ 아.(아.)

103067 #1 저 육지 것들 보다.(저 육지 것들 보다.)

103067 @ 예.(예.)

103067 #1 게난 모믈두 에, 귀 무신 귀 좁은 건가, 귀 아이 좁은 건가, 그 말을 허멍 헙주덜.(그러니까 메밀도 에, 귀 무슨 귀 좁은 건가, 귀 안 좁은 건가, 그 말을 하면서들 하지요.)

103067 @ 그건 무신 말이꽈?(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103067 #1 게 모믈이 옴다 아이 옴다 허는 말에.(그게 메밀이 여물다 아니 여물

다 하는 말에.)

103067 @ 귀 좁다, 귀 안 좁다.(귀 좁다, 귀 안 좁다.)

103067 #1 옴은 모믈은 귀 아니 좁곡, 족은 모믈은 귀를 좁넨 말입주.(여문 메밀은 귀가 안 좁고, 작은 메밀은 귀가 좁다는 말입니다.)

103067 @ 이 귀마씨?(이 귀말입니까?)

103067 #1 하하.(하하.)

103067 @ 그냥 모양마씨?(그냥 모양요?)

103067 #1 모믈이 모양이주. 모양이 삼모가 이서. 삼모가.(메밀 모양이지. 모양이 삼모가 있어. 삼모가.)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겨난 그것이 좁아진 것이 크게 나온 게 있고.(그러니까 그것이 좁은 것이 크게 나온 것이 있고.)

103067 @ 예.(예.)

103067 #1 경 안 허면 모믈이 돌아가멍 뺑뺑 귀가 엇이 뺑뺑헌 게 있어.(그렇게 안 하면 메밀이 돌아가면서 뱅뱅 귀가 없이 빵빵한 게 있어.)

103067 @ 아하. 뺑뺑헌 게 좋은 거마씨?(빵빵한 것이 좋은 거예요?)

103067 #1 으. 뺑뺑헌 게 좋은 거. 하하하하.(응. 빵빵한 것이 좋은 거. 하하하하.)

103067 @ 예.(예.)

103067 #1 아이고. 이 선생님들 산 귀신이로. 산귀신들이라.(아이고. 이 선생님들 산 귀신이로다. 산 귀신들이야.)

103067 @ 게난 영 들으레 와수게.(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러 왔습니다.)

103067 #1 하하하하. 참나.(하하하하. 참나.)

103067 @ 모믈은 언제 장만헤마씨?(메밀은 언제 장만해요?)

103067 #1 그거 처서에 갈앙.(그거 처서에 갈아서.)

103067 @ 예.(예.)

103067 #1 처서에. ᄀᆞ을에. 한 시월 달에.(처서에. 가을에. 한 시월 달에.)

103067 @ 예. 그믄 언제 걷어마씨?(예. 그러면 언제 걷습니까?)

103067 #1 게난 시월 달에 비어, 비곡.(그러니까 시월 달에 베어, 베고.)

103067 @ 시월에 비어마씨.(시월에 베어요.)

103067 #1 으. 그 메밀은 또 특히나 ᄒᆞᆫ 십일 ᄆᆞᆯ려야 돼.(응. 그 메밀은 또 특히나 한 십일 말려야 돼.)

103067 @ 아하.(아하.)

103067 #1 비어낭 ᄆᆞᆯ리지 안 허면.(베어 놓고 말리지 않으면.)

103067 @ 예.(예.)

103067 #1 다 익엉 비젠 ᄒᆞ단 보면 모믈이 하나도 엇어져불여. 몬 떨어져 불어.(다 익어서 베려고 하다 보면 메밀이 하나도 없어져버려. 모두 떨어져 버려서.)

103067 @ 아이고.(아이고.)
103067 #1 모믈이 그 굽 꼭지가 상당히 약헤.(메밀이 그 뿌리 꼭지가 상당히 약해.)
103067 @ 예.(예.)
103067 @ 경헤로 막상 헤야 흔 열흘.(그렇게 해도 막상 해야 한 열흘.)
103067 @ 예.(예.)
103067 #1 게서 그 ᄀᆞ리에 자꾸 비 눈이 자꾸 옵니다.(그래서 그 고비에 자꾸 비 눈이 자꾸 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 농사를 제일 말제에 수확을 합니다.(농사를 제일 마지막에 수확을 합니다.)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허는데 흔 열흘을 헤 노면 저걸 개인 사름이 가 가지고 뒤집어 놉니다.(하는데 한 열흘을 해 놓으면 저걸 개인 사람이 가서 뒤집어 놓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ᄇᆞ름 들곡 잘 ᄆᆞᆯ리라.(바람 들고 잘 말리라.)
103067 @ 꿰 하듯이마씨?(깨 하듯이요?)
103067 #1 꿰? 으. 꿰는 세와놩도 ᄆᆞᆯ리곡.(깨? 응. 깨는 세워서도 말리고.)
103067 @ 예.(예.)
103067 @ 담 에염데레도 놩 ᄆᆞᆯ리곡 허는데.(담 옆에서도 놓고 말리고 하는데.)
103067 @ 예.(예.)
103067 @ 이건 그냥 뒤집어 놔. 땅더레.(이건 그냥 뒤집어 놔. 땅으로.)
103067 @ 아, 그냥 뒤집어 놔마씨?(아, 그냥 뒤집어 놓아요?)
103067 #1 야. 무시 거 꺾으듯 모물도양.(예. 어떤 거 꺾은 듯 메밀도.)
103067 @ 예.(예.)
103067 #1 잘 꺽으는 사람은양.(잘 꺾는 사람은.)
103067 @ 예.(예.)
103067 #1 댓 줌씩 이만이 높으게 걲어 놓는데 경 안 허면 서너 줌씩.(댓 줌씩 이만큼 높게 꺾어 놓는데 그렇게 안 하면 서너 줌씩.)
103067 @ 예.(예.)
103067 #1 개똥 흘리듯 막 흘려 가주게.(개똥 흘리듯 막 흘려 가지.)
10306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67 #1 경허면은 그게 모둡젠 허민 골치라.(그러면은 그게 모으려고 하면 골치야.)
103067 @ 예.(예.)
103067 #1 게난 비ᄇᆞ름도 잘 맞으라 뒤집어 노면은 그게 놧당 ᄇᆞᆯ리 떼려야 됩니다양.(그러니까 비바람도 잘 맞으라 뒤집어 놓으면 그게 놓았다가 빨리 때려야 됩

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이삼일 넘어가민 그때 당시엔 자꾸 쇠레기 주제라고 헤서 비ᄇᆞ름이 자주 붑니다양.(이삼일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자꾸 소나기라고 해서 비바람이 자주 붑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게민 막상 허젠 헤사 오늘 뒤집어 보민 낼더레 모리더레 벨일이 이서도 떼리지 안 허민 거 비맞아 불민 또 뒤집어 놔야 돼.(그러면 막상 하려고 해서 오늘 뒤집어 보면 내일 모레 별 일이 있어도 때리지 않으면 그거 비 맞아 버리면 또 뒤집어 놔야 돼.)

103067 @ 음.(음)

103067 #1 겡헤서 걸 강 뒤집어 봣당.(그렇게 해서 그걸 가서 뒤집어 놓았다가.)

103067 @ 예.(예.)

103067 #1 이제는 이 젊은 사름이나 늑신네나 그게 ᄌᆞ미집니다.(이제는 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이나 그게 재미있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많이 허면은 세 사람.(많이 하면 세 사람.)

103067 @ 예.(예.)

103067 #1 한쪽에 세 사람, 세 사람. ᄋᆞ섯 사람.(한 쪽에 세 사람, 세 사람. 여섯 사람.)

103067 @ 예.(예.)

103067 #1 사공질허는 사람이 두 사람 들어 갑니다.(사공질하는 사람이 두 사람 들어 갑니다.)

103067 @ 사공질이 뭐마씨?(사공질이 뭡니까?)

103067 #1 사공질은 세 사람이 ᄋᆞ섯사람이 상 마당질을 할 거 아니꽈.(사공질은 세 사람이 여섯 사람이 서서 마당질을 할 거 아닙니까?)

103067 @ 도리께질예?(도리깨질요?)

103067 #1 야. 도께질을 헤 가면은 모믈이 다 떨어져 가민.(예. 도리깨질을 해 가면 메밀이 다 떨어져 가면.)

103067 @ 예.(예.)

103067 #1 ᄒᆞᆫ 사름은 그걸 내치곡. ᄒᆞᆫ 사름은 저기서 잡아 던져. 새 모믈을.(한 사람은 그것을 내치고. 한 사람은 저기서 잡아 던지고. 새 메밀을.)

103067 @ 새 거를마씨?(새것을요?)

103067 #1 으. 새 거를.(응. 새 거를.)

103067 @ 그 사람들이 사공마씨?(그 사람들이 사공입니까?)

103067 #1 으. 사공. 사공질. ᄒᆞᆫ 사름은 던지곡 ᄒᆞᆫ 사름은 내치곡.(응. 사공. 사공질.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내치고.)

103067 @ 아.(아.)

103067 #1 헤여 가면은 ᄋᆞ섯이 모믈 남을 떼려가면.(해 가면 여섯이 메밀 대를 때려가면.)

103067 @ 예.(예.)

103067 #1 모믈 남이 이게 땅이면 이정도 둥둥 뜹니다.(메밀 대가 이게 땅이면 이 정도 둥둥 뜹니다.)

103067 @ 아, 우터레마씨?(아, 위로 말입니까?)

103067 #1 막 으야홍 으야홍, 요거여 요거여 (막 으야홍 으야홍, 요거여 요거여.)

10306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67 #1 정헤가면양 가달 덜썩덜썩 헤여가민양 모믈 남이 둥둥 떠.(그렇게 해가면 다리를 들썩들썩 해가면 메밀 대가 둥둥 떠.)

103067 @ 아.(아.)

103067 #1 경허면서 낭 내치는 사름은 낭 내치곡.(그러면서 대를 내치는 사람은 대를 내치고.)

103067 @ 예.(예.)

103067 #1 또 저기서 사공질 새 거를 앗당 놓는 사름양.(또 저기서 사공질 새 것을 가져다 놓는 사람은요.)

103067 @ 예.(예.)

103067 #1 그믈로 고기 잡듯이양.(그물로 고기 잡듯이요.)

103067 @ 예.(예.)

103067 #1 게난 사공질도 골립니다.(그러니까 사공질도 고릅니다.)

103067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67 #1 게난 사공질도 아무나 못허여. 이만한 모믈 곡지 심엉 촥 뿌리민양.(그러니까 사공질도 아무나 못해. 이만한 메밀 꼭지 잡아서 촥 뿌리면요.)

103067 @ 예?(예?)

103067 #1 그 싹 놔나. 그러면은 ᄒᆞᆫ두 번 확확 뙤리면은 곡물이 떨어지면은 둥둥 떠가.(그 촥 놓은 후. 그러면 한 두 번 확확 때리면 곡물이 떨어지면은 둥둥 떠.)

103067 @ 아.(아.)

103067 #1 게믄 조름에 읖엔 놈은 또 빼내엉 던져 가곡.(그러면 뒤에 옆에 놈은 또 빼 내서 던져 가고.)

103067 @ 우와.(우와.)

103067 #1 헤가민양 소리허멍 헤가면은 가달 덜썩덜썩 허공 헤가민 신이 나.(해가면 소리하면서 해가면 다리 들썩들썩 하고 해가면 신이 나.)

103067 @ 하하하.(하하하.)

103067 #1 예. 겡헹 모물을 두드려 논다 말입니다.(예. 그렇게 해서 메밀을 두드려 놓는다 말입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두드려 노면은.(두드려 놓으면.)

103067 @ 예.(예.)

103067 #1 그게 ᄇᆞ름이 나면 좋지만은 ᄇᆞ름이 아이 나면 ᄋᆞ놈으 거 물리곡 얼멩이로 치곡.(그게 바람이 나면 좋지만 바람이 안 나면 요놈을 것을 '얼멩이'로 치고.)

103067 @ 예.(예.)

103067 #1 천성 이건 못 푼다 말입니다.(천성 이건 못 친다 말입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몇 섬씩 헤 노면은.(몇 섬씩 해 놓으면.)

103067 @ 예.(예.)

13067 #1 거 그믄 어떵헙니까 더러 밧디 묻어두나.(그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는 밭에 묻어 두거나.)

103067 @ 예.(예.)

103067 #1 더러만. 그 전이는 쉐에 멕에 담아근에 쉐에 한 발이 두 발이 실령 오곡.(더러만. 그 전에는 소에 망태기에 담아서 소에 한 발이나 두 발을 실어서 오고.)

103067 @ 예.(예.)

103067 #1 게믄 묻어뒀당 또 수눈값 헤여 주당 보면은 이녁 거는 못헹 뒷날 허곡.(그러면 묻어 두었다가 또 품앗이값 해서 주다가 보면 자기 거는 못해서 다음에 하고.)

103067 @ 예.(예.)

103067 #1 그 겨난 그 당시에는 그때는 츤 ᄇᆞ름도 나곡 허난 석지는 안헙주게.(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찬 바람도 나고 하니까 썩지는 안 하지요.)

103067 @ 예.(예.)

103067 #1 묻어 나둬도 허곡.(묻어 놔두기도 하고.)

103067 @ 예.(예.)

103067 #1 야. 경허멍 그게 허는디 모믈 마당질 그게 막 ᄌᆞ미집니다. 헤헤.(예. 그러면서 그게 하는데 메밀 마당질 그게 막 재미있습니다. 헤헤.)

10306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67 #1 요걸로다 요걸로다. 요거 헤여, 요거 헤여. 헤가면은 하하하.(요걸로다 요걸로다. 요거 헤여, 요거 헤여. 해 가면은 하하하.)

10306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67 #1 게 그 마당질은 이 시방 우리 할망 닮은 할망들은 붙어보도 못하고.(그게 그 마당질은 이 시방 우리 할머니 닮은 할머니들은 붙어보지도 못하고.)

103067 @ 무사마씨?(왜요?)

103067 #1 힘이 엇으난. 힘이 엇어.(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103067 @ 아. 도께질허젠 허난.(아. 도리깨질하려고 하니까.)

103067 #1 어, 이거 쟁쟁한 남자들 헹은에 헤야주.(어, 이거 쟁쟁한 남자들 해서 해야지.)

103067 @ 예.(예.)

103067 #1 경 안 허당 안 허면은 울러 두드려 못 헙니께.(그렇지 안 했다가는 안 하면 소리지르랴 두드리랴 못 합니다.)

103067 @ 도께질은 문딱 남자들이 허는 거꽈?(도리깨질은 모두 남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103067 #1 으, 남자. 게도 잘허는 여자를 특별히 세우지.(응, 남자. 그래도 잘하는 여자를 특별히 세워.)

103067 @ 아.(아.)

103067 #1 가운지 세와.(가운데 세워.)

103067 @ 아, 가운데에.(아, 가운데에.)

103067 #1 으. 후렴에 넘어가는 거야.(응. 후렴에 넘어가는 거야.)

103067 @ 예.(예.)

103067 #1 우리도, 나도 어린 때에 열일곱엔가 몇 살이에도 오십대 난 하르방들광 ᄀᆞ치 가네 상 헷수다.(우리도, 나도 어릴 때에 열일곱엔가 몇 살에도 오십대 난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가서 서서 했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왜냐 검질 매레도양 날 들앙 가는 사름은 나를 좀 편애혜. 나를 좀 도와주는 사름들이고.(왜냐하면 김 매러도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나를 좀 편애해.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103067 @ 아.(아.)

103067 #1 검질도 매게 뒈면 나 즉시 고랑을 매 주는 거라. 손으로 검질 매는데.(김 매기도 맬 때면 내 몫 고랑을 매 주는 거야. 손으로 김을 매는데.)

103067 @ 예.(예.)

103067 #1 괴로왐시카부덴 혼ᄌᆞ 매 와이, 혼ᄌᆞ 매 와이.(괴로울까봐서 어서 매 와라, 어서 매 와라.)

103067 @ 예.(예.)

103067 #1 고랑을 매 주는 건 거 참, 반 파니, 반을 매 주는 거라, 반.(고랑을 매 주는 것은 거 참, 반 뙈기, 반을 매 주는 거야, 반.)

103067 @ 음.(음.)

103067 #1 게믄 그 마당질도 가면은 가운디 세와 놓는 건 여 어지럼 시라.(그러면 그 마당질도 가면 가운데 세워서 놓는 거는 여기서 어지르고 있어라.)

103067 @ 예.(예.)

103067 #1 양쪽에가 힘을 써. 가운데서는 아멩이나 기동만 움직이기만 허면 뒈는 거.(양쪽에서가 힘을 써. 가운데서는 아무렇게나 기동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

103067 @ 헤헤.(헤헤.)

103067 #1 경 헹 모물도 헹 허곡.(그렇게 해서 메밀도 해서 하고.)

103067 @ 예.(예.)

103067 @ 그 모믈짚 같은 것도양, 요 중간에 쉐들 헤당 허난 멕여수다만은.(그 메밀 짚 같은 것도요, 요 중간에 쉐들 해다가 하니까 먹였습니다만.)

103067 @ 예.(예.)

103067 @ 그 옛날은 그냥 불 붙져불엇수다.(그 옛날에는 그냥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게난 뭐, 옛날은 무시 거 허도 안 허곡.(그러니까 뭐, 옛날은 무슨 것을 하지도 안 하고.)

103067 @ 예.(예.)

103067 #1 모믈 붕뎅이[142], 모물 붕뎅이라고 이수다. 모물 헤나믄 지꺼기. 불려난 지꺼기들.(메밀 '붕뎅이', 메밀 '붕뎅이'라고 있습니다. 메밀 하고 나면 찌꺼기. 불리고 난 찌꺼지들.)

103067 @ 예예. 모물 붕뎅이마씨?(예예. 메밀 '붕뎅이'요?)

103067 #1 모물 붕뎅이라고 모물 지꺼기. 떼려난 지꺼기.(메밀 '붕뎅이'라고 메밀 찌꺼기. 때리고 난 찌꺼기.)

103067 @ 아.(아.)

103067 #1 ᄇᆞ름에 불려나민 나가곡 아이 나가곡 합주게.(바람에 불리고 나면 나가고 안 나가고 하지요.)

103067 @ 예.(예.)

103067 #1 겨민 그것은 외방 사람 헤변 사람들이 불각제기[143]를 가졍 와. 그 요만씩 헌 거. 뭐 시방 조기 말앙 불각제기라고.(그러면 그것은 외방 사람 해안마을 사람들이 불각제기를 가지고 와. 그 요만씩 한 거. 뭐 시방 조기 말고 '불각제기'라고.)

103067 @ 각제기[144]마씨?(전갱이요?)

103067 #1 으. 불각제기라고 준준한 거.(응. '불각제기'라고 작은 거.)

103067 @ 예.(예.)

103067 #1 가근에 낚아당은에 풀곡 먹는 게 이수다. 고등에영 뭐여.(가서 낚아다가 팔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어다 뭐다.)

103067 @ 예예.(예예.)

103067 #1 그걸 소금헹 놧당 웃드르, 웃드르옌 헌 디 우리우다.(그걸 소금 해서 두었다가 '웃드르', '웃드르'라고 하는 데 우리입니다.)

---

142) '붕뎅이'는 가루로 된 물건이 서로 엉키어 붙은 작은 덩어리를 말한다.
143) '불각제기'는 어류의 일종이다.
144) '각제기'는 어류의 일종이다.

103067 @ 헤헤.(헤헤.)

103067 #1 웃드르 강 모믈 벙뎅이영 바꿩 오자.(웃드르 가서 메밀 덩어리를 바꿔서 오자.)

103067 @ 아하.(아하.)

103067 #1 모물 붕뎅이, 모물 지꺼기입니다이. 헤 난 지꺼기들.(메밀 '붕뎅이', 메밀 찌꺼기입니다요. 하고 난 찌꺼기들.)

103067 @ 예에.(예에.)

103067 #1 게민 만약에 그거 열 개 예핀[145] 것에 모물 벙뎅이 흔 멕 ᄃᆞ라.(그러면 만약에 그거 열 개 엮은 것에 메밀 덩어리 한 망태기 달라.)

103067 @ 예.(예.)

103067 #1 흔 바리만 ᄃᆞ라.(한 바리만 달라.)

103067 @ 흔 바리면 얼마마씨?(한 바리면 얼마입니까?)

103067 #1 바리는 쉐에 양쪽으로 실르는 멕으로 두 개.(바리는 소에 양 쪽으로 싣는 망태기로 두 개.)

103067 @ 멕으로 두 개.(망태기로 두 개.)

103067 #1 으. 멕으로 두 개.(응. 망태기로 두 개.)

103067 @ 예.(예.)

103067 #1 게서 자 웃드르 놈은 말이여 그런 괴기 꼴이 힘들지게.(그렇게 해서 자 '웃드르' 놈은 말이야 그런 고기 꼴이 힘들지.)

103067 @ 예.(예.)

103067 #1 불각제기 그 소곰 떽각한 놈이나구나. 그거 허민 그거 오죽 좋은 거라.('불각제기' 그 소금 가득한 놈이었구나. 그거 하면 그거 오죽 좋은 거야.)

103067 @ 짭질헤영은에예?(짭짭해서요?)

103067 #1 밥 먹을 때 손ᄀᆞ락만 뿔앗주. 그걸 몸대로 경 먹엇어.(밥 먹을 때 손가락만 빨았지. 그걸 맘대로 그렇게 먹었어.)

103067 @ 예.(예.)

103067 #1 예편 ᄃᆞᆯ아멩 거. 진짜. 아이고 ᄒᆞ나 쳐먹었다는 매 맞아.(엮어서 달아놓은 거. 진짜. 아이고 하나 쳐먹었다가는 매 맞아.)

103067 @ 하하하.(하하하.)

103067 #1 게민 모물 벙뎅이를 내불지 안헹 몬 가져옵니께.(그러면 메밀 벙뎅이를 내버리지 안 하고 모두 가지고 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몬 가져당 놧당은에 괴기 장시나 직거리, 직거리나 무신 톨 ᄀᆞ튼 거 몸 ᄀᆞ튼 거 가졍 오면은 바꿔 먹는 거라. 우린 것을.(모두 가져다가 놓았다가 고기 장사나 '직거리', '직거리'나 무슨 톳 같은 거 모자반 같은 거 가지고 오면 바꿔 먹는 거야. 우린 그것을.)

145) '예피다'는 띠나 짚으로 이엉 따위를 엮는 것을 말한다.

103067 @ 음.(음.)
103067 #1 게 경허면서 세상을.(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103067 @ 예.(예.)
103067 #1 모물도 경허멍 살곡.(메밀도 그러면서 살고.)
103067 @ 예.(예.)
103067 #1 또 모물 껍질도.(또 메밀 껍질도.)
103067 @ 예.(예.)
103067 #1 게 먹는 게 으라 가지우다.(그게 먹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103067 @ 예.(예.)
103067 #1 또 모물껍질은 베개에 놉니다.(또 메밀껍질은 베개에 넣습니다.)
103067 @ 모물체예?(메밀껍질요?)
103067 #1 야. 그거 그전부터 옛날부터 논 겁주. 경헤근에에 그런 것도 하곡.(예. 그거 그 전부터 옛날부터 넣은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103067 @ 예.(예.)
103067 #1 모물 ᄀᆞ튼 것도 갈아나민양, 게난 그게 으라 가지우다.(메밀 같은 것도 갈아나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103067 @ 느젱이 어떤 거마씨?(나깨 어떤 거예요?)
103067 #1 게, 건 쏠 거필[146] 때 걱적 부서진 거.(그게, 그건 쌀 '거필' 때 거죽 부서진 것.)
103067 @ 예.(예.)
103067 #1 뒈도록이면 쏠이 부서질 거 아니꽈? 허면은 거기에 ᄀᆞ루 놩 치면은 거멍한 느젱이가 나와.(되도록이면 쌀이 부서질 거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멧돌에 놓고 찧으면 까만 나깨가 나와.)
103067 @ 아.(아.)
103067 #1 ᄀᆞ룰.(가루.)
103067 @ 예.(예.)
103067 #1 겡 그게 또 어 먹기가 사나우면은양 감저, 고구마 시민 고구마에 헤 노민 감저에 든 맛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게.(그렇게 그게 또 어 먹기가 힘들면 고구마,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에 헤 놓으면 고구마 단 맛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게.)
103067 @ 아.(아.)
103067 #1 흐흐흐흐.(흐흐흐흐.)
103067 @ 범벅헹은에예?(범벅해서요?)
103067 #1 예, 범벅헤영. 그게 막 합쳐 놩은에.(예, 범벅해서. 그게 막 합쳐 놓아서.)
103067 @ 예.(예.)

146) '거필'은 녹두나 메밀 따위를 애벌 가는 것을 말한다.

103067 #1 게난 시방 그거 아이고 보민 웃을 거우다. 그놈의 거.(그러니까 시방 그거 아이고 보면 웃을 겁니다. 그놈의 거.)

103067 @ 예.(예.)

103067 #1 난 밀주시를 안 먹엇수다만은 이디 우리 연령에 대개 밀주시를 먹엉 살아십주.(난 밀 찌꺼기를 안 먹었습니다만 여기 우리 연령에 대개 밀 찌꺼기를 먹고 살았지요.)

103067 @ 밀주시는 어떵헌 거꽈?(밀 찌꺼기는 어떤겁니까?)

103067 #1 나도 거 안 먹어부난양, 쉐 사료보다도 못한 거렌 허난.(나도 안 먹어서요, 소 사료보다도 못한 거라고 하니.)

103067 @ 거난 뭘로 된 거마씨?(그러니까 뭘로 된 겁니까?)

103067 #1 밀 껍질이주마씨. 밀 껍질.(밀 껍질이지요. 밀 껍질.)

103067 @ 예.(예.)

103067 #1 그 제분 공장에서 ᄀᆞ루 뽑앙 온 거.(그 제분 공장에서 가루 뽑아서 온 거.)

103067 @ 옛날에 그런 것도 먹엉 살아신디예.(옛날에 그런 것도 먹고 살았는데요.)

103067 #1 우리 군대 가부난.(우리 군대 가버리니.)

103068 @ 담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담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8 #1 담배? 심어낫수다.(담배? 심었었습니다.)

103068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3068 #1 담배도 왜정시대에 쫌 심당 그게 메액이 막 약헤낫수다.(담배도 일제강점기 때 좀 심다가 그게 면역이 막 약했었습니다.)

103068 @ 멘옉?(면역?)

103068 #1 면역. 비ᄇᆞ름에 잘 타.(면역. 비바람에 잘 타.)

103068 @ 확 죽어불어마씨?(확 죽어버립니까?)

103068 #1 확 ᄇᆞ름이 부나, 큰 비만 때려불민 담배에 몬 구멍이 나. 터져.(확 바람이 불거나, 큰 비만 때려버리면 담배에 모두 구멍이 나. 터져.)

103068 @ 아, 구멍이 나부는 구나.(아, 구멍이 나버리는 구나.)

103068 #1 야. 경허고 여기는 나 오죽헤사 농촌진흥원에 가근에 담배 싱근 거 확인헹 담배 아시당 싱근켄 소리 시방 헴수다.(예. 그리고 여기는 나 오죽해야 농촌진흥원에 가서 담배 심은 거 확인해서 담배 가져다가 심겠다는 소리 시방 합니다.)

103068 @ 흐흐.(흐흐.)

103068 #1 담배는 막 올려불곡.(담배는 막 올려버리고.)

103068 @ 예.(예.)

103068 #1 옛날 끅, 속 썹들양 막 ᄆᆞᆯ앙 먹엇수다. 왜정시대에.(옛날 칡, 쑥 잎들 막 말아서 먹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때에.)

103068 @ 아하.(아하.)

103068 #1 나가 열세 살부터 담배 장난을 했구나.(내가 열세 살부터 담배 장난을 했구나.)

103068 @ 아이고.(아이고.)

103068 #1 일찍이주게.(일찍이지요.)

103068 @ 예.(예.)

103068 #1 산 담배 헤당 몰앙 장난으로 허당 보난.(산 담배 해다가 말아서 장난으로 하다가 보니.)

103068 @ 예.(예.)

103068 #1 열일곱 살에 제라하게 보초사게 뒈난 제라한 담배를 태왔는데.(열일곱 살에 진짜로 보초를 서게 되니까 진짜 담배를 태웠는데.)

103068 @ 예.(예.)

103068 #1 산담배 속, 끅썹 몰리왕 담배로 먹엇수다.(산담배 쑥, 칡 잎 말려서 담배로 먹었습니다.)

103068 @ 예.(예.)

103068 #1 겐디 여기는 담배가 아이 될 게 멫번 허당, 그 요즘은 혼엇이 태풍이 아이 불엄주마는 그 전인양 계속 태풍이 불어수게, 제주도게.(그런데 여기는 담배가 안 될 것이 몇 번 하다가, 그 요즘은 별로 태풍이 안 불지만 그 전에는 계속 태풍이 불었잖아요, 제주도에.)

103068 @ 음.(음.)

103068 #1 게난 그게 안 뒈여. 게난 제주도에 담배 싱근 사람 엇수다.(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그러니까 제주도에 담배 심은 사람 없습니다.)

103068 @ 이젠 육지라도 이제는 강 보내여를 허나. 미신 숭시[147]를 해야지. 요놈우 담배값 퍼 올려놓고 허난.(이젠 육지라도 이제는 가서 보내여야 하나. 무슨 흉사를 해야지. 이놈의 담배값 아주 올려놓고 하니까.)

103068 @ 담배값 너무 올란예?(담배값 너무 올랐죠?)

103068 #1 야. 혼 푼 벌 지 못 허는디 이 놈우 담배만 보통 오천 원이난.(예. 한 푼 벌지 못 하는 데 이놈의 담배만 보통 오천 원이니까.)

103068 @ 예.(예.)

103068 #1 오천 원이민 어디 강 실피 먹음이나 헐티.(오천 원이면 어디 가서 실컷 먹기나 할 것인데.)

103068 @ 확 끈어붑서게.(확 끊어버리세요.)

103068 #1 아니. 이거 담배 끈으렌 허민양 죽으렌 허는 거나 마찬가지. 죽으렌 허는 거.(아니. 이거 담배 끊으라고 하면요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죽으라고 하는 거.)

103068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68 #1 게 의사도 우습디다. 당신도 테우멍. ᄆᆞ음냥 헙서.(그러게 의사도 웃

147) '숭시'는 흉사를 말한다.

습디다. 당신도 피우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게 키웁니까?(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104001 #1 말은 전업으로 아이 질롸수다만은 소는 어릴 적이부터 질롯수다. 거 뭐, 질왓는디.(말은 전업으로 안 키워봤습니다만 소는 어릴 적부터 키웠습니다. 그거 뭐, 키웠는데.)

104002 @ 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2 #1 소나 말이나 종류가 으라 가지우다.(소나 말이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04002 @ 예.(예.)

104002 #1 우리가 아는 종류는 옛날은양 소나 말이나 색깔이 나쁜 놈은 심리가 나쁜덴 헤영 아이 질웁니께.(우리가 아는 종류는 옛날은요, 소나 말이나 색깔이 나쁜 놈은 심리가 나쁘다고 해서 안 키웁니다.)

104002 @ 예.(예.)

104002 #1 소도 얼룩소여, 황소여, 슥쉐[148]여, 감은남쉐[149]여. 야, 영 헤서 혼 댓 가지가 뒈우다. 뒈는데.(소도 얼룩소다, 황소다, 슥쇠다, '감은남쇠'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댓 가지가 됩니다. 되는데.)

104002 @ 예.(예.)

104002 #1 황소여 허는 노랑한 쉐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젤 말을 안 듣는 게 슥쉐우다. 슥쉐. 고양이 닮은 거. 감시룩혼 거. 어룩거룩혼 거.(황소라고 하는 노란 소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젤 말을 안 듣는 것이 슥쇠입니다. 슥쇠. 고양이 닮은 거. 검으스름한 것. 얼룩달룩한 거.)

104002 @ 예.(예.)

104002 #1 그게 언제나 그 쉐는 군융[150]이 십니다. 사름들 이중성격 갖는 모냥으로.(그게 언제나 그 소는 궁흉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중성격 갖는 모양으로.)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게서 그걸 졸바로 질루질 안 허는데 그런 것이 새끼를 잘 납니다. 새끼를.(그래서 그걸 똑바로 키우지를 안 허는데 그런 것이 새끼를 잘 낳습니다. 새끼를.)

104002 @ 아하.(아하.)

148) '슥쉐'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럭덜럭한 소를 말한다.
149) '감은남쉐'는 흑우를 말한다.
150) '군융'은 궁흉을 말한다. 성질이 몹시 음침하고 흉악함을 이른다.

104002 #1 놈이 오만 원짜리를 나민 그건 대개 칠팔만 원짜리를 납니다. 대개 구십구 프로.(남이 오만 원짜리를 낳으면 그건 대개 칠팔만 원짜리를 낳습니다. 대개 구십구 프로.)

104002 @ 아.(아.)

104002 #1 게서 그 소를 질루왔고. 옛날 경 쉐 모음대로 잡아 먹도 안 헷수다.(그래서 그 소를 키워왔고. 옛날 그렇게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지도 안 했습니다.)

104002 @ 추렴 안 헤마씨[151]?(추렴은 안 합니까?)

104002 #1 게 잡아 먹도 안 하고 사 가는 사람도 엇고.(그것이 잡아먹지도 안 하고 사서 가는 사람도 없고.)

104002 @ 예.(예.)

104002 #1 사 가는 사름 이시믄 돈 하영 주는 맛으로.(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많이 주는 맛으로.)

104002 @ 예.(예.)

104002 #1 돈 천원이민 그 때 쏠 두어 가마니니까게.(돈 천원이면 그 때 쌀 두어 가마니니까.)

104002 @ 예.(예.)

104002 #1 경 아니허면예 죽은 쉐, 어떵 영 죽으나 다리 부러지나 어떻게 병이 들면 그런 건 잡앙 먹엉 봐수다. 잡앙먹곡.(그렇지 않으면요, 죽은 소, 어쩌다 이렇게 죽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쩌다 병이 들면 그런 것은 잡아서 먹어 봤습니다. 잡아먹고.)

104002 @ 예.(예.)

104002 #1 얼룩쉐같은 거 황쉐 같은 것은 순합니다. 다른 거 담지 안 헤영. 군융도 엇곡.(얼룩소 같은 거, 황소 같은 것은 순합니다. 다른 거를 닮지 않아서. 궁흉도 없고.)

104002 @ 예.(예.)

104002 #1 밧 가는디도 ᄀᆞ르치는 대로. 혼 이삼일만 ᄀᆞ르치면은 순순하게 풀어지곡.(밭 가는데도 가르치는 대로. 한 이삼일만 가르치면 순수하게 풀어지고.)

104002 @ 예.(예.)

104002 #1 검은남쉐렌 헌 것은 이것이 요즘 흑도새기여, 서귀포서 검은쉐 말하지 안 헙니까?('검은남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요즘 흑돼지다, 서귀포에서 검은소 말하지 않습니까?)

104002 @ 흑우.(흑우.)

104002 #1 검은쉐영 뭐영 허는 게 옛날도 검은 쉐고기가 맛 좋덴 헤낫수다.(검은소다 뭐다 하는 것이 옛날도 검은 소고기가 맛 좋다고 했었습니다.)

104002 @ 예.(예.)

104002 #1 옛날은 죽은 쉐고기, 죽은 말코기나 먹었지 생으로 잡앙 먹기가 힘들

151) '추렴하다'는 돈을 얼마씩 모아 돼지를 사서 잡아먹는 행위를 말한다.

어낫수다.(옛날은 죽은 소고기, 죽은 말고기나 먹었지. 생으로 잡아서 먹었지. 생으로 잡아서 먹기가 힘들었었습니다.)

104002 @ 음.(음.)

104002 #1 야, 게난 육십 년대 칠십 년대 나난 이걸 잡앙도 먹고 헤낫지, 그 전이는 어디.(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되니까 이것을 잡아서 먹고 했었지, 그 전에는 어디.)

104002 @ 예.(예.)

104002 #1 눈이나 막 왕 물이나. 쉐는 그때 집이 매난 허지만은. 물은 뒤늦게 방목헹 내붑니께. 내불민 그 때 눈이 이 집까지도 눈이 이서낫수다.(눈이나 마구 와서 말이나. 소는 그때 집에 매니까 하지만. 말은 뒤늦게 방목해서 내버리잖아요. 내버리면 그 때 눈이 이 집까지 눈이 있었습니다.)

104002 @ 예? 아이고.(예? 아이고.)

104002 #1 게민 어떵 고망 뚤앙 삽이나 뭣이나 아지당은네양 고망 뚤라사 저거리하고 이 거리 통화가 뒈어 마씀.(그러면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삽이나 뭣이나 가져다가 구멍을 뚫어야 저 집하고 이 집 통화가 됩니다.)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경헐 때 물이 죽습니다. 걷지 못헹 눈에 빠졍은네.(그럴 때 말이 죽습니다. 걷지 못해서 눈에 빠져서.)

104002 @ 아.(아.)

104002 #1 경허영은에 허는데 쉐는 그 정도에 나가질 안 헙니다. 집에 매영 두엉 허민.(그렇게 하는데 소는 그 정도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집에 매어 두어서 하면.)

104002 @ 예.(예.)

104002 #1 쉐는 경 나가지 안 헤영 통제 안 허주만은 말은 통제를 합니다.(소는 그렇게 나가지 안 해서 통제 안 하지만 말은 통제를 합니다.)

104002 @ 예.(예.)

104002 #1 쉐는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지나 새끼를 낳다가 잘못 나서 에, 무엇을 때 죽게 될 때에는 잡앙 먹고. 경 아니허면은 우리 쉐를 잡앙 먹어보질 못헤낫수다.(소는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새끼를 낳다가 잘못 낳아서 에, 무엇을 때 죽게 될 때에는 잡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를 잡아 먹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104002 @ 예.(예.)

104002 #1 평생을 질루와도.(평생을 키워도.)

104002 @ 예.(예.)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1 겨난 거 육지서도 코를 꾀지 안 헙니까양, 이런 놈은 코를 꾀어야 헤여.(그러니까 그거 육지에서도 코를 꿰지 않습니까요, 이런 놈은 코를 꿰어야 해.)

104004 @ 먼저를 코를 꾀여.(먼저 코를 꿰어.)

104004 #1 어. 코를 꾀여.(어. 코를 꿰어.)

104004 @ 코는 어떵 꾀여마씨?(코는 어떻게 꿰어요?)

104004 #1 ᄎᆞ쒜[152]라고 이수다. ᄎᆞ쒜. 쉐 코 꾀는 고지.('ᄎᆞ쒜'라고 있습니다. 'ᄎᆞ쒜'. 소 코를 꿰는 꼬챙이.)

104004 @ 예.(예.)

104004 #1 윤노리낭으로 센 걸로 헤야 뒈어. 시방은 후쿠같은 살이도 이성 송곳이라도 이시난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ᄎᆞ쇠라고.(윤노리 나무로 센 걸로 해야 돼. 시방은 포크 같은 살도 있어서 송곳이라도 있으니까 좋지만. 그 당시는 'ᄎᆞ쒜'라고.)

104004 @ 예.(예.)

104004 #1 윤노리낭으로 연필 모냥으로 막 갂읍니다. 막 갂아서.(윤노리 나무로 연필 모양으로 막 깎습니다. 막 깎아서.)

104004 @ 예.(예.)

104004 #1 쉐를 나무에 가서 잡아 무꺼. 무끄면 심어 놩 난 이땅 혼자만 헤봐낫수다만은 그 쉐가 사나우니까 발로도 하곡 외주게.(소를 나무에 가서 잡아 묶어. 묶으면 잡아 놓고 나는 이따금 혼자만 해봤었습니다만 그 소가 사나우니까 발로도 하고 소리 지르지요.)

104004 @ 예.(예.)

104004 #1 경헤여 가가민. 위험헤영들 헤영 무시거 헤영 ᄒᆞ는데 배에 딱 무꺼놩 코를 딱 심엉 영 들렁 이딜 꾀는 거라.(그렇게 해서 다가가면. 위험해서들 해서 뭐 해서 하는데 참바에 딱 묶어놓고 코를 딱 잡아서 이렇게 들어 여기를 꿰는 거야.)

104004 @ 예.(예.)

104004 #1 고젱이로 헤영 꾀면은 쉐 코 꿰는 시방이면 나이롱배로 허는 마는 그때는 나이롱 배가 어디 서나수과 이 미배[153]로 꼬면은.(꼬챙이로 해서 꿰면 소 코 꿰는 시방이면 나이론 끈으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때는 나이론 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미배'로 꼬면.)

104004 @ 예.(예.)

104004 #1 배가 물락물락 아이 뒈면은 종겡이라고양 들녘이 있는 유름 줄을 걷어당 그걸로 되와근에 코떨레 그 동그랑헌 것이 코떨레.(배가 물렁물렁 안 되면 으름이라고요 들녘에 있는 유름 줄을 걷어다가 그것으로 꼬아서 코뚜레 그 동그라한 것이 코뚜레.)

104004 @ 예. 코떨레.(예. 코뚜레.)

104004 #1 코떨렐레 꿰여근에 헹 멘든다 말이우다. 게민 그레 배를 걸어. 배를 걸엉 그렇지 겅헹 뿔에 감앙은에 헹 허면은 코 꿰어도 끗엉 막 가. 막 영 허멍도.(코뚜레에 꿰어서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바를 걸어. 바를 걸어서 그렇지

152) 'ᄎᆞ쒜'는 소의 코에다 꿰는 꼬챙이를 말한다.

153) '미배'는 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미라고 하는데 그 미로 만든 바를 말한다.

그렇게 뿔에 감아서 하면은 코를 꿰어도 끌고 마구 가. 마구 이렇게 하면서도.)

104004 @ 아.(아.)

104004 #1 지금 사름 몰라. 그 놈우 쉐들 슥쉐 쯤은 아기 나믄 말야. 아이구 무서웁니다.(지금 사람 몰라. 그 놈의 소들 슥쇠 쯤은 아기 낳으면 말이야. 아이구 무섭습니다.)

104004 @ 예.(예.)

104004 #1 게난 그런 건 주인이 잘 알앙 감안헤영 아이들 앞이 멩심헤영 이껑 가곡 멩심헤영 이껑 몰앙 오라.(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인이 잘 알아서 감안해서 아이들 앞에 명심해서 이끌어가고 명심해서 이끌어 몰아 와.)

104004 @ 예.(예.)

104004 #1 옛날은 사삼사건 전이는 쉐 같은 거는 막이에 매면은.(옛날에는 사삼사건 전에는 소 같은 것은 외양간에 매면.)

104004 @ 예.(예.)

104004 #1 양 수돗물이 엇이니까 봉천수양 냇가에 그 고인 물에 우리도 두참 세참꼬지 집에 있던 거 흔 댓 개 매면은 매영 물 먹이레 나선다 말이우다.(수돗물이 없으니까 봉천수요, 냇가에 그 고인 물에 우리도 두 참 세 참까지 집에 있던 것을 한 댓 마리 몰고 몰아서 물 먹이러 나선다 말입니다.)

104004 @ 예.(예.)

104004 #1 낮 시간에. 흔 이 시간쯤에. 경허면은 쉐들이 맸당은네 딱 내치면은 우리 키 이상으로 들럭키여. 벤두악으로.(낮 시간에. 한 이 시간쯤에. 그러면 소들이 매였다가 딱 내치면 우리 키 이상으로 들썩거려. 변덕으로.)

104004 @ 예.(예.)

104004 #1 경허곡 또 걷는 건 순순히 걷곡. 경허영 물멕이레 하천 ᄀᆞ튼 디 개천에 아장 저몰면은 선동상은네 구닥구닥 집더레 들어옵니다.(그리고 또 걷는 건 순순히 걷고. 그래서 물 먹이러 하천 같은 데 개천에 앉아서 저물면 먼저 서서 끄덕끄덕 집으로 들어옵니다.)

104004 @ 음.(음.)

104004 #1 아, 그 쉐놈들도. 경허곡 심보쟁이 나쁜 놈은 영헹 보당양 질레 풀도 시민 풀도 튿어 먹곡 혼직 튿어먹엉 오곡.(아, 그 쇠놈들도 그렇고 심술쟁이 나쁜 놈은 이렇게 보다 길가 풀도 있으면 풀도 뜯어 먹고 한 모금 뜯어 먹고 오고.)

104004 @ 예.(예.)

104004 #1 어떤 주인이 기분이 아이 나쁜 줄 알면 고들고들 걸엉 오곡. 기분 나쁜 줄 알면 요놈의 쉐, 집이만 들어강 보라 경허민.(어떻게 주인이 기분이 안 나쁜 줄 알면 까딱까딱 걸어서 오고. 기분 나쁜 줄 알면 이놈의 소, 집에 들어가서 보자 그렇게 하면.)

104004 @ 예.(예.)

104004 #1 우리하고 의사소통은 아이 뒈주만은양 경헤도 짐승이 다 아는 거라.

(우리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짐승이 다 아는 거야.)

104004 @ 예.(예.)

104004 #1 다 아는 겁디다.(다 아는 겁디다.)

104004 @ 예.(예.)

104004 #1 경허민양 우영이나 왕 한 바퀴를 돌아. 심리 나쁜 놈들이양. 경 군소리 헤불민양.(그러면 텃밭이나 와서 한 바퀴를 돌아. 심리 나쁜 놈들이요 그렇게 군소리 해버리면요.)

104004 @ 예.(예.)

104004 #1 우리가 짐승하고 의사소통은 안 뒈니까 요놈들이 몰람주만은 욕도 말야. 사람이 얻어 터져도양 멜 맞아도 신경질 내지 말앙 술술 달래는 게 이게 도리다.(우리가 짐승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니까 요놈들이 모르지만 욕도 말이야. 사람이 얻어 터져도 매를 맞아도 신경질 내지 말아서 살살 달래는 게 이게 도리다.)

104004 @ 예.(예.)

104004 #1 게서 나 오늘도 골앗주만은 난 저 비ᄌᆞ곶[154] 일곱 바퀴 곶을 돌아네 두 살짜리 산소를 심어낫수다.(그래서 나 오늘도 말했지만 난 저 비ᄌᆞ곶 일곱 바퀴 곶을 돌아서 두 살짜리 산소를 잡았었습니다.)

104004 @ 예.(예.)

104004 #1 게난 ᄆᆞᆯ ᄀᆞ튼 거 소 ᄀᆞ튼 거 너희들 잡아 뛰어라. 잡아 뛰어서 ᄆᆞᆯ은 멧분이민 좁으곡 생ᄆᆞᆯ 잡곡.(그러니까 말 같은 거 소 같은 거 너희들 잡아 뛰어라. 잡아 뛰어서 말은 몇 분이면 잡고 생말 잡고.)

104004 @ 예.(예.)

104004 #1 쉐 술에 걸린 놈은 웬갱이도 들으멍 웃으멍 했주만은 아무리 ᄉᆞ나운 ᄆᆞᆯ이든 쉐든 우리 손에 걸리믄 멕을 못 써수다.(쇠 살에 걸린 놈은 왼손으로 들면서 웃으면서 했지만 아무리 사나운 말이든 쇠든 우리 손에 걸리면 맥을 못 썼습니다.)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이제 세상이 영 뒈어노난. 옛날 호주서 들어 온 부라만 혹 영 큰 소도 이수게 그건 무ᄉᆞ와낫수다. 쳇번에.(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니, 옛날 호주에서 들어 온 부라만 혹 이렇게 큰 소도 있잖아요. 그건 무서웠었습니다. 처음에.)

104004 @ 예.(예.)

104004 #1 야. 그 부라마 호주산 엔가스레 말이야 미신 꺼멍헌 거 어디 종이렌.(예. 그 부라만 호주산 엔가스 말이야. 무슨 까만 거 어디 종이라고.)

104004 @ 예.(예.)

104004 #1 겐 거 중간에 들어 왕 밧 골으치멍들.(그것은 그거 중간에 들어와서 밭 가르치면서들.)

104004 @ 밧 골으치는 건 어떤 거마씨?(밭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겁니까?)

104004 #1 밧 골으칠 때는 겨난 그거 사릅, 두 살 때는. 금승은 난 것이고. 사

154) '비ᄌᆞ곶'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릅, 다릅.(밭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그거 사릅, 두 살 때는. 금승은 난 것이고. 사릅, 다릅.)

104004 @ 예.(예.)

104004 #1 ᄆᆞᆯ은 스무 살이라두 장팔수라고 헤서 ᄋᆞᆮ듭살이고.(말은 스무 살이라도 장팔수라고 해서 여덟살이고.)

104004 @ 예.(예.)

104004 #1 쉐는 이거 열 살 넘어서 열한 살 쯤 뒈실 거라. 이게 순수하게 말을 ᄀᆞᆯ습니다. ᄆᆞᆯ은 경 아이 ᄀᆞᆯ아도. 쉐는 이거 열댓 뒈엇어. 영허곡.(소는 이거 열 살이 넘어서 열 한 살 쯤 되었을 거야. 이게 순수하게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쇠는 이거 열댓 살 되엇어. 이렇게 하고.)

104004 @ 음.(음.)

104004 #1 ᄆᆞᆯ은 스무 살이 뒈어도 장팔수.(말은 스무 살이 되어도 장팔수.)

104004 @ 아, 예.(아, 예.)

104004 #1 ᄋᆞᆮ듭살이 최고렌 허는 겁주.(여덟 살이 최고라고 하는 거지.)

104004 @ 예.(예.)

104004 #1 야, 게난 쉐는 밧 갈 때는 사릅에. 세 살 때에.(예, 그러니까 소는 밭 갈 때 는 사릅에. 세 살 때에.)

104004 @ 사릅에예?(사릅에요?)

104004 #1 예. 사릅에. 또 밧을 ᄀᆞᆯ으치게 뒈면은, 고만셔보라 노인당에서 쟁기들 봣지양? 쟁기.(예. 사릅에. 또 밭을 가르치게 되면 가만있어 봐라. 노인당에서 쟁기들 봤지요? 쟁기.)

104004 @ 예. 봣수다. 밧 ᄀᆞ르칠 때 어떵헙니까?(예. 봤습니다. 밭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104004 #1 꼬뚜레를 꿰영 사나운 놈은 이걸 양쪽에 꿰어. 부림패라고 읖으로 때리는 채질허는 배. 멍에에서.(코뚜레를 꿰어서 사나운 놈은 이걸 양쪽에 꿰어. 고삐라고 옆으로 때리는 채질하는 바. 멍에에서.)

104004 @ 부림패로 때려.(고삐로 때려.)

104004 #1 경허면은 첫 번에는 말 안 들으니까 사람이 이꺼야 뒈. 사람이.(그러면 첫 번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이끌어야 돼. 사람이.)

104004 @ 아.(아.)

104004 #1 코뚤레에 감아가지고 사람이 무껑 길을 ᄀᆞ르쳐 줘. 조름에서 사름이 양지 머리 심엉 조중을 하멍 배 ᄃᆞᆼ기곡 하멍. 삼 일만 ᄒᆞ면. 경 안 허면 삼 일이나 ᄀᆞᆾ인 건 ᄒᆞᆫ 일주일.(코뚜레에 감아 가지고 사람이 묶어서 길을 가르쳐 줘. 꽁무니에서 사람이 양지머리를 잡아 조종을 하면서 바를 당기고 하면서. 삼 일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삼 일이나 ᄀᆞᆾ은 것은 한 일주일.)

104004 @ 음.(음.)

104004 #1 견디 영 못한 건양 막 웨멍양, 막 웨멍 아이 허는 놈들이 이수다.(그

런데 이렇게 못한 것은 막 소리지르면서 안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104004 @ 잠대 메왕마씨?(쟁기 메서요?)

104004 #1 잠대 메왕, 야.(쟁기 메서, 예.)

104004 @ 돌 메왕도 안 헙니까?(돌 메서도 안 합니까?)

104004 #1 야?(예?)

104004 @ 돌 같은 거 메영도 안 헙니까? 소.(돌 같은 거 메어서도 안 합니까? 소.)

104004 #1 아? 그거? 게난양 그것이 ᄀᆞ레착 같은 거나 돌코[155]라고 쉐 ᄀᆞ르치는 것이 이수다.(아? 그거? 그러니까 맷돌 같은 것이나 '돌코'라고 소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104004 @ 예, 쉐 ᄀᆞ르치는 거.(예, 소 가르치는 거.)

104004 #1 근디 그거 전에, 그거 말앙. 혼 삼 일 장난으로 끗엉 뎅경 질 들라 헤서 허는 거지. 우린 막바로 쟁기 가졍 헤부난양.(그런데 그거 전에, 그거 말고. 한 삼 일 장난으로 끌고 다녀서 길 들라 해서 하는 거지. 우린 곧바로 쟁기 가지고 해 버려서.)

104004 @ 아.(아.)

104004 #1 그런 걸 아이 헤봐낫수다. 야, 이 쉐 ᄀᆞ르칠 때민 맷돌 헹은네 혼 삼일 끗엉 뎅기곡.(그런 걸 안 해봤었습니다. 예, 이 소를 가르칠 때면 맷돌 해서 한 삼 일 끌고 다니고.)

104004 @ 예.(예.)

104004 #1 것두 또 말을 잘 들으민 좋은데. 혼 사름이 조름에서 이끄고 뒤에서 회초리로 뚜리곡 헤도 원 걷지 아니 허는 쉐가 이수다.(그것도 또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 꽁무니에서 이끌고 뒤에서 회초리로 때리고 해도 원 걷지 안 하는 소가 있습니다.)

104004 @ 예.(예.)

104004 #1 것도 일이렌 허영 아이 가. 경헹 혼 삼일 메영 뎅겨나곡. 구루마도 빈차로 메영 뎅겨나곡 헤낫수다.(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안 가. 그렇게 해서 한 삼 일 메서 다녔었고. 달구지도 빈 체로 메고 다녔었고 했었습니다.)

104004 @ ᄀᆞ르치젠 ᄒᆞ민.(가르치려고 하면.)

104004 #1 ᄀᆞ르치젠 ᄒᆞ민. 경헤서 헤여나근에, 잠대 메으민 잠대는 수월하곡.(가르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쟁기 메면 쟁기는 수월하고.)

104004 @ 음.(음.)

104004 #1 경헤영 허민 수월하곡. 거 머 그대로양 사름이 쉐 ᄀᆞ튼 거 옛날은 게 힘엇인 사람 졸졸 끗엉 가불어도 자빠지멍 가붐니께.(그렇게 하면 수월하고. 그 뭐 그대로 사람이 소 같은 거 옛날에는 힘없는 사람 졸졸 끌어서 가버려도 자빠지면서 가버리는 거지요.)

155) '돌코'는 소를 밭 가르칠 때 사용하는 돌덩어리를 말한다.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우리는 그런 것을 아이 겪으곡. 어거지로 심어당은에 조지면은 멕을 못 써. 쉐도 박박 털곡.(우리는 그런 것을 안 겪고. 억지로 잡아다가 조지면 맥을 못 써.소도 바득바득 먹어.)

104004 @ 하하하. 힘이 장사라나신게예.(하하하. 힘이 장자였었군요.)

104004 #1 손에 잡히면은 쉐 모가지, 물 모가지 감당 없어. 우리한테 잡히면은.(손에 잡히면 소 모가지, 말 모가지 감당 없어. 우리한테 잡히면.)

104004 @ 소 뿔 모양에 따라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까?(소 뿔 모양에 따라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까?)

104004 #1 잇주게.(있지요.)

104004 @ 뭐렌 골아마씨?(뭐라고 말합니까?)

104004 #1 겨난 영 돋은 건(바깥으로) 천상뿔[156]이여 감은쉐 뿔[157]이영, 돌각뿔[158]이여.(그러니까 이렇게 돋은 건 '천상뿔'이여 '감은쉐뿔'이여, '돌각뿔'이여.)

104004 @ 예.(예.)

104004 #1 돌각뿔은양 아무리 쉐 뿔이 커도양 쉐뿔이 흔듭니다. 돌각돌각.('돌각뿔'은 아무리 소뿔이 커도 소뿔이 흔듭니다. 달각달각.)

104004 @ 아하.(아하.)

104004 #1 곧 떨어질 정도. 게도 쎄여.(곧 떨어질 정도. 그래도 세어.)

104004 @ 그게 돌각뿔마씨?(그게 '돌각뿔'요?)

104004 #1 야, 야. 건지뿔[159] 하늘소 모냥으로 영허는 게 (위로 곧장) 건지뿔인데.(예, 예. '건지뿔' 하늘소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건지뿔'인데.)

104004 @ 영 위로 올라온 건 건지뿔마씨?(이렇게 위로 올라온 건 '건지뿔'요?)

104004 #1 야. 건지뿔인양.(예. '건지뿔'은요.)

104004 @ 그 다음엔마씨?(그 다음에는요?)

104004 #1 영 오그라진 건 감은쉐뿔이라고 헤서.(이렇게 오그라진 건 '감은쉐뿔'이라고 해서.)

104004 @ 감은쉐뿔.('감은쉐뿔'.)

104004 #1 야, 야. 게난 이 속담에 그겁주양. 가는 쉐 정이월 보름쌀.(예, 예. 그러니까 이 속담에 그거지요. 가는 소 정이월 바람살.)

104004 @ 예.(예.)

104004 #1 차갑다는 말입주양. 차가와. 차가운데 건지뿔은 헤영 거 용기가 출출한 놈들은 빈두왁허멍 물먹이레 돋곡.(차갑다는 말이지요. 차가워. 차가운데 '건지뿔'은 해서 용기가 찰찰한 놈들은 변덕하면서 물 먹이러 달리고.)

104004 @ 예.(예.)

---

156) '천상뿔'은 위로 솟은 소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157) '감은쉐뿔'은 소뿔 모양에 따라 붙은 명칭이다.
158) '돌각뿔'은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소뿔 모양 붙인 이름이다.
159) '건지뿔'은 뒤쪽으로 길게 벋은 소의 뿔이다.

104004 #1 가는 쉐뿔은, 감은쉐가 아니고 가는 쉐로 간다는 게 나이 많은 쉐는 움직이질 못헙니께.(가는 소뿔은, 감은쉐가 아니고 가는 소로 간다는 게 나이 많은 소는 움직이지를 못 하잖아요.)

104004 @ 예.(예.)

104004 #1 경형 츤보름 불어가민 영 고개를 아이 들렁 갑니께.(그렇게 해서 찬바람 불어가면 이렇게 고개를 안 들고 갑니다.)

104004 @ 하하.(하하.)

104004 #1 워낙 날이 차가우니까 가는 쉐뿔 오그라진다. 야, 날이 차가우니까 그 속담이지. 뚠 건 엇고.(워낙 날이 차가우니까 가는 소뿔 오그라진다. 야, 날이 차가우니까 그 속담이지. 다른 건 없고.)

104004 @ 예.(예.)

104004 #1 뿔도 들각뿔이여, 가는 쉐뿔이여, 천상뿔이여. 또양, 쉐가 천상뿔이 사나운게 아니고 위험헙니다.(뿔도 '들각뿔'이여, 가는 소뿔, '천상뿔'이여. 또 소가 '천상뿔'이 사나운 게 아니고 위험합니다.)

104004 @ 영 우터레 돋은 거마씨?(이렇게 위로 돋은 거요?)

104004 #1 야, 야. 사름에 이익을 아이 시긴다는 겁주. 영 헌건.(예, 예. 사람에 이익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건.)

104004 @ 아하.(아하.)

104004 #1 욒으로 돋은 건 사름에 이익을 시기곡. 위로 돋은 건 천상뿔이렌 헌 건 천상각[160]이렌 헤가지고.(옆으로 돋은 건 사람에 이익을 시키고. 위로 돋은 건 '천상뿔'이라고 한 건 '천상각'이라고 해 가지고.)

104004 @ 예.(예.)

104004 #1 이건 쉐도 ᄀᆞ찌 팍 찔러불민양 그냥 체져불어. 배떼기.(이건 소도 같이 팍 찔러 버리면 그냥 찢어져버려. 배가.)

104004 @ 아이고.(아이고.)

104004 #1 경헹 가정에 잘 아이 키우고 나민 확 풀아불곡 헤낫수다. 오십 년 이내에는.(그렇게 해서 가정에 잘 안 키우고 나면 확 팔아버리고 했었습니다. 오십 년 이내에는.)

104004 @ 예.(예.)

104004 #1 원 하르방들 어떵헤나신지 모르우다만은 게난 천상각진 쉐는 집안에 이익을 아이 준다 헤영 풀아불멍 메질 아이 헙니다.(원 할아버지들 어떻게 했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천상각'진 소는 집안에 이익을 안 준다해서 팔아버리면서 매지를 안 합니다.)

104004 @ 음.(음.)

104004 #1 슥쉐는 새끼를 잘 나니까 메는데.(칡소는 새끼를 잘 낳으니까 매는데.)

160) '천상각'은 위로 솟은 '천상뿔'을 이르는 말이다.

104004 @ 아하 기구나예. 누렁쉐는 제주도말로 다르게 곧지 안 헤여마씨?(아하 그렇군요. 누렁소는 제주도말로 다르게 말하지 안합니까?)

104004 #1 노린쉐[161]. 기자 노린쉐. 일률적으로.('노린쉐'. 그저 '노린쉐'. 일률적으로.)

104004 @ 얼룩한 건마씨?(얼룩한 건요?)

104004 #1 얼룩쉐. 얼룩송아지, 얼룩쉐. 물도 마찬가지 월라물[162]. 영헤여.(얼룩소. 얼룩송아지. 얼룩소. 말도 마찬가지. 얼룩말. 이렇게 해.)

104004 @ 월라물이렌 헤마씨?(얼룩말이라고 해요?)

104004 @ 뿔이 잘 안 나는 쉐도 이수게?(뿔이 잘 안 나는 소도 있잖아요?)

104004 #1 아, 그건 뭐렌 허드라. 나도 그 당시에도 뿔 몽그레기, 뿔 몽그레기엔 허주게.(아, 그건 뭐라고 하더라. 나도 그 당시에도 뿔 모지랑이, 뿔 모지랑이라고 하지.)

104004 @ 뿔 몽그레기마씨?(뿔 모지랑이요?)

104004 #1 야. 뿔 몽그레기. 또 찔레질 허당은에 흔착 벗어졍 뭐 허는 것도 야, 저 뿔 몽그레기 일러불엇저. 찔레질 허당은에.(예. 뿔 모지랑이. 또 찌르기 하다가 한쪽 벗겨져서 뭐 하는 것도 예, 저 뿔 모지랑이 잃어버렸다. 찌르기 하다가.)

104004 @ 찔레질은 뭐꽈?(찌르기는 뭡니까?)

104004 #1 쉐가 서로 뿔로 뿔싸움 허당은에 이거 건드리민 그냥 벗어져불주게.(소가 서로 뿔로 뿔싸움을 하다가 이거 건드리면 그냥 벗겨져버리지.)

104004 @ 아하.(아하.)

104004 #1 경허민 그거 피 나가민 옛날도 메역은 이시난. 메역이 그거 특효약이라. 메역을, 뿔지 않은 메역을 헤여당 뿔리 체메 줘.(그러면 그거 피 나가면 옛날도 미역은 있으니. 미역이 그거 특효약이야. 미역을, 빨지 않은 미역을 해다가 빨리 처매 줘.)

104004 @ 아하.(아하.)

104004 #1 피가 엄청나게 흘러.(피가 엄청나게 흘러.)

104004 @ 뿔 빠지민 메역으로 쳐메여마씨?(뿔 빠지면 미역을 처매요?)

104004 #1 어. 뿔 벗어지면은.(어. 뿔 벗겨지면.)

104004 @ 건지뿔은 어떤 거꽈?('건지뿔'은 어떤 겁니까?)

104004 #1 건지뿔도 비슷한 건데. 흐꼼 자쳐진 거. 뒤터레 자쳐진 거.('건지뿔'도 비슷한 건데. 조금 젖혀진 거. 뒤로 젖혀진 거.)

104004 @ 자쳐진 거마씨?(젖혀진 거요?)

104004 #1 그거 작박도리[163]엔도 허고 건지뿔이렌 하고.(그거 '작박도리'라고도 하고 '건지뿔'이라고 하고.)

104004 @ 작박도리는 뭐꽈?('작박도리'는 뭡니까?)

---

161) '노린쉐'는 노란 빛의 털을 가진 소 말한다.
162) '월라물'은 얼룩말을 말한다.
163) '작박도리'는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뒤틀린 자빡뿔을 가진 수소이다.

104004 #1 응, 영헤서 뒤터레 자우룻하게 가.(응. 이렇게 해서 뒤로 갸우뚱하게 가.)

104004 @ 아하.(아하.)

104004 #1 뒤터레 자우룻하게.(뒤로 갸우뚱하게.)

104004 @ 자빠졌다고마씨? 하하.(자빠졌다고요? 하하.)

104004 #1 으, 작박도리.(응, '작박도리'.)

104004 @ 작박도리.('작박도리'.)

104004 #1 하하하. 베라벨 일름이 다 이서노난에. 건지뿔이 작박도리. 돌각뿔이.(하하하. 별의별 이름이 다 있으니까. '건지뿔'이, '작박도리', '돌각뿔'이.)

104004 @ 오그라진 뿔은 뭐렌 헷드라.(오그라진 뿔은 뭐라고 했더라.)

104004 #1 오그라진 뿔은 그자 그 당시엔 가는 쉐뿔이렌 허는 거주.(오그라진 뿔은 그저 그 당시에는 '가는 쉐뿔'이라고 하는 거지.)

104004 @ 가는 쉐뿔이꽈, 감은쉐뿔이꽈?('가는 쉐뿔'입니까, '감은 쉐뿔'입니까?)

104004 #1 가는 쉐뿔.('가는 쉐뿔'.)

104004 @ 예.(예.)

104004 #1 감은쉐가 아니주.('감은쉐'가 아니지.)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03 #1 소는 밧 가는 거 말고 뚠 건 저 왜정시대로부터 구루마헤낫수게.(소는 밭 가는 거 말고 다른 건 저 일제 강점기때부터 달구지했었습니다.)

104003 @ 아, 구루마.(아, 달구지.)

104003 #1 하여튼 밧을 주장헹 많이 갈앗수다. 또 중간에 물도 밧 갈곡. 혼 육십 년대에 그자.(하여튼 밭을 주로 많이 갈았습니다. 또 중간에 말도 밭 갈고. 한 육십 년대에 그저.)

104003 @ 예. 쟁기 이름도 골아줍서.(예. 쟁기 이름도 말해주십시오.)

104003 #1 이건 양줏머리.(이건 양지머리.)

104003 @ 양줏머리.(양지머리.)

104003 #1 이거 영 운전허는 거이. 이건 몽클.(이거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건 쟁깃술.)

104003 @ 몽클.(쟁깃술.)

104003 #1 이건 보섯, 보섭. 우리말로. 그럼 이건 성에.(이건 보습. 보습. 우리말로. 그럼 이건 성에.)

104003 @ 성에.(성에.)

104003 #1 여기에서 성에에 돌벵이뿔[164]이 이서이.(여기에서 성에에 까막머리가 있어.)

104003 @ 돌벵이뿔마씨?(까막머리요?)

104003 #1 돌벵이뿔 영 찔르는 거. 성에에 잇곡. 이건 설칫, 이.(까막머리 이렇

164) '돌벵이뿔'은 쟁기의 까막머리를 이르는 말로 달팽이뿔 모양과 닮았다고 이렇게 부른다.

게 찌르는 거. 성에에 있고. 이건 한마루. 이.)

104003 @ 설칫.(한마루.)

104003 #1 이거 기준. 뭘 허는 거. 설칫에도 여기에 그믓이 두 개 이시메, 두 개.(이거 기준. 뭘 하는 거. 한마루에도 여기에 금이 두 개 있어. 두 개.)

104003 @ 아하. 설칫에.(아하. 한마루에.)

104003 #1 그거 조종을 허는 거라. 깊이 들어가는 거 얕게 들어가는 거.(그거 조종을 하는 거야. 깊이 들어가는 거 얕게 들어가는 거.)

104003 @ 아하 기구나예.(아하 그렇군요.)

104003 #1 그걸 알아야 뒈이. 설칫에 그믓 두 개.(그걸 알아야 돼. 한마루에 금이 두 개.)

104003 @ 그믓 이름 따로 엇수과?(금 이름 따로 없습니까?)

104003 #1 엇어. 그건 기자 설칫에만 그자 내분 거.(없어. 그건 그저 한마루에만 그저 내버린 거.)

104003 @ 예.(예.)

104003 #1 밧 가는 사름이 그건 알앙은에 짚이 지르젠 허민 이걸 우터레 올리곡.(밭 가는 사람이 그건 알아서 깊이 찌르려고 하면 이걸 위로 올리고.)

104003 @ 예.(예.)

104003 #1 벳을 우터레 올리곡. 경 안 허민 야트게 질르곡.(볏을 위로 올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얕게 찌르고.)

104003 @ 예.(예.)

104003 #1 요건 벳.(요건 볏.)

104003 @ 벳.(볏.)

104003 #1 요건 벳틀레[165].(요건 '벳틀레'.)

104003 @ 벳틀레.('벳틀레'.)

104003 #1 음. 또 요디 벳칼이 이서. 벳칼.(음. 또 여기 볏칼이 있어. 볏칼.)

104003 @ 벳칼.(볏칼.)

104003 #1 설칫에도 돌벵이뿔이라이.(한마루에도 까막머리라.)

104003 @ 그것도 돌벵이뿔이과? 그 모양은 다 돌벵이뿔이구나예.(그것도 까막머리입니까? 그 모양은 다 까막머리군요.)

104003 #1 응. 설칫에도 돌벵이뿔. 게난 ᄋᆞ것도 우터레 올력 ᄂᆞ단 올력 ᄒᆞ여.(응. 한마루에도 까막머리.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올리고 해.)

104003 @ 아, 이것도.(아, 이것도.)

104003 #1 으, ᄋᆞ것도. ᄋᆞ거. 게난 또 여기에 그 벳흔 혹이 묻으면은 밧 다 갈면은 그 돌아매는 게 이서. 벳칼이라고 헤서. 낫 모양으로 멘든 거. 우리 수저 모냥으로 멘든 거.(응.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또 여기에 그 볏은 흙이 묻으면 밭 다 갈면 그 달아놓는 것이 있어. 볏칼이라고 해서. 낫 모양으로 만든 거. 우리 수저 모양으

165) '벳틀레'는 쟁기에 볏을 단단히 틀어 주는 나무 막대를 말한다.

로 만든 거.)

104003 @ 예, 예.(예, 예.)

104003 #1 여기 벳칼도 이시메. 게난 ᄋᆞ건 다 된 거고. 벳칼ᄁᆞ지 놔야 뒈메. 다들 벳칼ᄁᆞ지는 모르메.(여기 볏칼도 있어. 그러니까 요건 다 된 거고. 볏칼 까지 놔야 돼. 다들 볏칼 까지는 몰라.)

104003 @ 에, 예.(예, 예.)

104003 #1 게난 ᄋᆞ것은 오리목[166]이고.(그러니까 이것은 '오리목'이고.)

104003 @ 오리목. ᄋᆞ것도 돌벵이뿔이꽈?('오리목'. 이것도 '돌벵이뿔입니까?)

104003 #1 으, 돌벵이뿔. 게난 쟁기 멘든 사름도 노인당에서 ᄋᆞ거 몰라네.(응. 까막머리. 그러니까 쟁기 만든 사람도 노인당에서 이거 몰라서.)

104003 @ 오리목 걸쳐진 거 뭐꽈?('오리목' 걸쳐진 거 무엇입니까?)

104003 #1 이거 벳톨레라고. 이게 이게 센 나무로 헤야 뒈.(이거 '벳틀레'라고. 이게 이게 센 나무로 해야 돼.)

104003 @ 어느 게 벳톨레마씨?(어느 게 '벳틀레'예요?)

104003 #1 이거, 이거.(이거, 이거.)

104003 @ 벌레렌은 안 ᄒᆞ고마씨?(비겨미라고 안 하고요?)

104003 #1 아, 벌레, 벌레, 춤. 벳톨레는 ᄋᆞ거고, ᄋᆞ건 벌레.(아, 비겨미, 비겨미, 참. '벳톨레'는 이거고. 이건 비겨미.)

104003 @ 예, 벌레.(예, 비겨미.)

104003 #1 이건 한줄.(이건 봇줄.)

104003 @ 한줄.(봇줄.)

104003 #1 ᄋᆞ건 등퀘.(요건 한태.)

104003 @ 등퀘.(한태.)

104003 #1 으. 알러레 막 ᄂᆞ리지 안 허게 ᄒᆞ는 거이. 견데 소에 ᄒᆞ는 가린석은 아니 헤신게.(응. 아래로 막 내리지 않게 하는 거. 그런데 소에 하는 고삐는 아니 했네.)

104003 @ 예. 이 그림은 가린석 엇인 거예. 그믄 가린석은 소 어디 걸령 이신 거꽈?(예. 이 그림은 고삐는 없는 거요. 그러면 고삐는 소 어디 걸려 있는 겁니까?)

104003 #1 가린석은 별도로 나와. 배로 ᄊᆞ려, 쉐를. 아이 가가민 영 (고삐는 별도로 나와. 바로 때려, 소를. 안 가면 이렇게.)

104003 @ 아.(아.)

104003 #1 착 ᄯᅮ리민 쉐가 꼬끄랑내[167]가 날 정도로 쉐가 아파.(착 때리면 소가 '꼬끄랑내'가 날 정도로 소가 아파.)

104003 @ 가린석은 양줏머리에 무끈 거마씨?(고삐는 양지머리에 묶는 거예요?)

104003 #1 으. 양잿머리에 꼽아.(응. 양지머리에 꽂아.)

---

166)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려매는 줄을 말한다.

167) '꼬끄랑내'는 털을 태울 때 냄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말하기도 한다.

104003 @ 이쪽은 멍에에 강 꼽아마씨?(이쪽은 멍에에 가서 꽂아요?)

104003 #1 아니, 멍에에 강은 소용이 없어. 그것이 이 코뚤레에 가.(아니. 멍에에 가서는 소용이 없어. 그것이 이 코뚜레에 가.)

104003 @ 아, 코뚤레에.(아, 코뚜레에.)

104003 #1 그래서 그 우로 가게 뒈어 이서.(그래서 그 위로 가게 되어 있어.)

104003 @ 예.(예.)

103003 #1 일로 만약에 그 배가 느지면은 한줄 소곱으로 강은에 심는 게 경헤가민 벳가 개여, 개여.(이리로 만약에 그 바가 느슨하면 봇줄 속으로 가서 잡는 게 그렇게 하면 볏이 '개여', '개여'.)

104003 @ 예.(예.)

104003 #1 쉐 코뚤레에 무끄지 안 헤영은 사나운 쉐는 버쳐. 게난 사납지 아니헌건 뿔로만 무꺼도 뒈곡. 으려, 쯧쯧. 영허멍.(소 코뚜레에 묶지 안 해서는 사나운 소는 힘에 부처. 그러니까 사납지 안 한 건 뿔로만 묶어도 되고. 으랏, 쯧쯧 이러면서.)

104003 @ 순한 건 경헤도 뒈는데.(순한 건 그렇게 해도 되는데.)

104003 #1 으, 뒈는데. 사나운 놈은 코에 꿰어야 뒈어. 그냥 끄서 가부는 수가 이서.(응. 되는데. 사나운 놈은 코에 꿰어야 되어. 그냥 끌어서 가버리는 수가 있어.)

104003 @ 코 땡겨지게 아프게예?(코 당겨지게 아프게요?)

104003 #1 으, 으. 아프게. 게난 멕을 못 쓰게.(응, 응. 아프게. 그러니까 맥을 못 쓰게.)

104003 @ 이거는 뭐꽈?(이거는 뭡니까?)

104003 #1 거, 접궤, 멍에.(그거, 목대. 멍에.)

104003 @ 멍에예?(멍에요?)

104003 #1 으. 이디 접궤 끈도 이서야 뒈고.(으. 여기 목대 끈도 있어야 되고.)

104003 @ 접궤.(목대.)

104003 #1 접궤끈도 헤사. 겐디 이 낭도 부드러운 낭. 요즘이믄 버드나무 같은 거.(목대도 해야. 그런데 이 나무도 부드러운 나무. 요즘이면 버드나무 같은 거.)

104003 @ 아, 부드러운 걸로.(아, 부드러운 걸로.)

104003 #1 으거 불로 구워근에양 으걸 멘듭니다. 근데 쉐가 하루 종일 하면은양 독을 쒜어서 여기 붓는 수가 이수다.(이거 불로 구워서 이걸 만듭니다. 근데 소가 하루 종일 하면 독을 쐬여 여기 붓는 수가 있습니다.)

104003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4003 #1 게난 붓지 아니 하기 위헤서 균을 죽이는 거라. 불을 떼어.(그러니까 붓지 않기 위해서 균을 죽이는 거야. 불을 떼서.)

104003 @ 아.(아.)

104003 #1 여기 불 떼영 으기를 막 익혀. 으기가. 무척대고 멍에가 뒈는 게 아

니우다.(여기 불 떼서 여기를 막 익혀. 여기가. 무턱대고 멍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4003 @ 하.(하.)

104003 #1 이 멍에가 다룸이 츰 못젼딥주게. 뭐현 나무헤영. 웬만한 쉐헤영 잘못하당 밧 갈아 나문 게난 언제나 이건 꿈을 불라야 돼. 꿈을.(이 멍에를 다룸이 참 못 견디지요. 무슨 나무해서. 웬만한 소해서 잘못 하다가 밭 갈고 나면 그러니까 언제나 침을 발라야 돼. 침을.)

104003 @ 쓸어?(쓸어?)

104003 #1 열에 열 번 쓸어주지 안 헤영은 여기 균이 생경은에 허민 쉐가 이만이 부서불어.(열에 열 번 쓸어주지 않으면 여기 균이 생겨서 하면 소가 이만큼 부어.)

104003 @ 예.(예.)

104003 #1 게난 열에 열 번 우리가 꿈을 불랑 쓸어줘야 뒈어. 밧갈젠 허면은 이걸 풀어가지고. 읗헤가지고 언제나.(그러니까 열에 열 번 우리가 침을 발라 쓸어줘야 되어. 밭 갈려고 하면 이걸 풀어서. 이렇게 해서 언제나.)

104003 @ 예.(예.)

104003 #1 열에 열 번 안 쓸민 주넹이나 베염 ᄀᆞ튼 거, 개우리나 기어나면은 뒤턱에 그냥 부서불여. 쉐.(열에 열 번 안 쓸면 지네나 뱀 같은 거, 지렁이나 기어나면 뒤턱에 그냥 부어버려. 소.)

104003 @ 음, 음.(음, 음.)

104003 #1 ᄆᆞᆯ광은 틀립니다. ᄆᆞᆯ은 접궤를 하기 때문에 ᄆᆞᆯ은 아이 붓는데 쉐는 열에 열이믄 부서불어.(말과는 다릅니다. 말은 멍에를 하기 때문에 말은 안 붓는데 소는 열에 열이면 부어버려.)

104003 @ 쉐 멍에에 하는 거예?(소 멍에에 하는 거요?)

104003 #1 예. 멍에에 허는 거. 그거 츰 과학자도 몰라. ᄒᆞ여 보지 안ᄒᆞᆫ 사름 외에는.(예. 멍에에 하는 거. 그거 참 과학자도 몰라. 해 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104003 @ 뜸[168]이렌 허는 것도 이수과?('뜸'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104003 #1 뜸이옌 허는 거? 그건 이 구조에는 엇고. 이땅 보섭이 빠집니다. 흘락흘락.('뜸'이라고 하는 거? 그건 이 구조에는 없고 이따금 보습이 빠집니다. 헐렁헐렁.)

104003 @ 예.(예.)

104003 #1 흘락흘락허민 그레 빠지지 않게끔 그레 쫌 낭 껍질이나 뭐헹은에.(헐렁헐렁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거기에 좀 나무 껍질이나 뭐해서.)

104003 @ 아하.(아하.)

104003 #1 납작한 거 헤영 뜸을 줭 보섭을 박읍니다.(납작한 거 해서 뜸을 줘서 보습을 박습니다.)

104003 @ 꽉차게예?(꽉차게요?)

168) '뜸'은 쟁기의 성에와 한마루 사이에 놓여지면서 경심폭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104003 #1 으, 꽉차게. 게난 그게 뜸인데. 게난 가당 그 뜸을 아니주면 보섭이 벗어부는 수가 이서. 게난 그 뜸을 줭은에.(으, 꽉차게. 그러니까 그게 '뜸'인데. 그러니까 가다가 그 '뜸'을 안 주면 보습이 벗겨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뜸'을 줘서.)

104003 @ 아하.(아하.)

104003 #1 이것도 돌멩이로 못 모습니께. 낭또막헹은에 이게 무쇠라노니까. 낭토막헹은에 톡 박아사주. 경 안 하면 타져[169]부니까.(이것도 돌멩이로 못 박습니다. 나무 조각해서 이게 무쇠라서. 나무 조각해서 톡 박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가 나가니까.)

104003 @ 여기 설칫 옆에 이것도 뜸인가마씨?(여기 한마루 옆에 이것도 '뜸'인가요?)

104003 #1 그것도 뜸.(그것도 '뜸'.)

104003 @ 예.(예.)

104003 #1 이게 오래가민 설칫이 올락내력 올락내력 헤여.(이게 오래가면 한마루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

104003 @ 예.(예.)

104003 #1 경허난 밧 갈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 감구나 허민 여기에 나무 떼기 헤근에양, 양 골데 고정시켜부는 거.(그러니까 밭 갈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 가는구나 하면 여기에 나무 조각 해서, 골대 고정시켜버리는 거.)

104003 @ 흘락흘락 안 허게.(헐렁헐렁 안 하게.)

104003 #1 올랏다 내렷다 안 허게.(올렸다 내렸다 안 하게.)

104003 @ 아하.(아하.)

104003 #1 이런 건 기본에 아니 들어간 거난. 이건 상관이 엇수다만은.(이런 건 기본에 안 들어간 것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104003 @ 잠대 말랑 다른 데 고정시키는 것도 뜸이렌 헙니까? 물건 흔들린 때 받치는 것도?(쟁기 말고 다른 데 고정시키는 것도 '뜸'이라고 합니까? 물건 흔들린 때 받치는 것도?)

104003 #1 그런 건 세역이렌 허주. 세역.(그런 건 쐐기라고 하지. 쐐기.)

104003 @ 세역.(쐐기.)

104003 #1 뜸을 집어 넣는 것이 세역.('뜸'을 집어 넣는 것이 쐐기.)

104003 @ 뜸을 놓는 것이 세역마씨?('뜸을 놓는 것이 쐐기예요?)

104003 #1 으. 세역. 그게. 잠대에도 다 세역.(으. 쐐기. 그게 쟁기에도 다 쐐기.)

104003 @ 이것도 세역이렌 골아마씨?(아하. 이것도 쐐기라고 말해요?)

104003 #1 으으. 뜸을 ᄒᆞ는 걸 세역이라.(으으. '뜸'을 하는 걸 쐐기라.)

104003 @ 아, 뜸하는 것이 세역마씨?(아, '뜸'하는 것이 쐐기예요?)

104003 #1 세역이옌 헤여.(쐐기라고 해.)

169) '타지다'는 사기그릇 따위의 가장자리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가 나간다는 의미이다.

104003 @ 어느 게 뜸이꽈?(어느 게 '뜸'입니까?)

104003 #1 뜸이엔도 허곡 세역이엔도 허여. 지금이나 뜸이지, 옛날엔 세역이엔 허연.('뜸'이라고도 하고 쐐기라고도 해. 지금이나 '뜸'이지. 옛날에는 쐐기라고 했어.)

104003 @ 아. 뜸이 세역.(아. '뜸'이 쐐기.)

104003 #1 세 주는 거.(쐐기 주는 거.)

104003 @ 옛날 말로마씨?(옛날 말로요?)

104003 #1 옛날 말로 세역. 요즘은 뜸. 뭐 움직여 가면 뜸 줘봐, 뜸 줘봐, 시방은 허주만은 옛날엔 그 세역!(옛날 말로 뙈기. 요즘은 '뜸'. 뭐 움직이면 '뜸' 줘봐. '뜸' 줘봐. 시방은 하지만 옛날에는 그 쐐기.)

104003 @ 아, 세역.(아, 쐐기.)

104007 @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7 #1 그놈의 질메. 그 질메엔 헌게 꼬부랑 헌거 두 개라.(그놈의 길마. 그 길마라고 하는 게 꼬부랑 한 거 두 개야.)

104007 @ 꼬부랑 한 거?(꼬부랑 한 거?)

104007 #1 질메가지가 두 개라. 그 다음에 도곰이 이서.(길맛가지가 두 개야. 그 다음에 떰치가 있어.)

104007 @ 도곰.(떰치.)

104007 #1 도곰이엔 헌건 그 욮이 넘어지지 못하게 톡허는 도곰. 그 우리가 산듸짚으로 짭니다.(떰치라고 하는 건 그 옆에 넘어지지 못하게 탁하는 떰치. 그 우리가 밭볏짚으로 짭니다.)

104007 @ 산듸짚으로.(밭볏짚으로.)

104007 #1 도곰을 짜면은 뒤 고들게라고 뒤 고정시키는 게 이수다. 고들게라고.(떰치를 짜면 뒤 껑거리라고. 뒤 고정시키는 게 있습니다. 껑거리라고.)

104007 @ 고들게.(껑거리.)

104007 #1 이거 이거. 이게 뒤 고들게.(이거 이거. 이게 뒤 껑거리.)

104007 @ 뒤 고들게마씨?(뒤 껑거리요?)

104007 #1 뒤에 갖당 이걸 탁 붙정.(뒤아 가져다 이걸 탁 붙여서.)

104007 @ 그믄 지금 소머리가 여기 이실 거 아니꽈.(그러면 지금 소머리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104007 #1 소머리가 여기 이시니까 이건 뒤에 고들게 끈 헤영은에 톡하게 강알로 강은엥에.(소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뒤에 껑거리 끈 해서 톡하게 샅으로 가서.)

104007 @ 아.(아.)

104007 #1 강알로 강은엥에 이걸로 야가지 우터레나 이 욥더레 잘라 뗍니다. 게난 요것만 우터레 올르지 안 허게.(샅으로 가서 이걸로 모가지 위로나 이 옆으로 졸

라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위로 올라오지 않게.)

104007 @ 음.(음.)

104007 #1 요거 우터레 올라노민 꼴리에강 좁져 노민 쉐가 들럭 퀴는 수가 있어.(이거 우로 올려놓으면 꼬리에 가서 사이에 끼어 놓으면 소가 날뛰는 수가 있어.)

104007 @ 예.(예.)

104007 #1 게난 꼴리 밑으로 헹, 요 정도 헹 ᄂᆞ려가도 안 하고 올라가도 안 하게 혜영 기자 이건 힘이 아이 드는 거난. 그건 고정시키는 거라.(그러니까 꼬리 밑으로 해서 이 정도 해서 내려가지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안 하게 해서 그저 이건 힘이 안 드는 것이니까. 그건 고정시키는 거야.)

104007 @ 질메 가지는 이름이 ᄯᅮ루 이수과?(길맛가지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104007 #1 에, 기냥. 앞가지 뒷가지. 그냥 질메가지 멘드는 방식만 틀려.(에, 그냥. 앞가지 뒷가지. 그냥 길맛가지 만드는 방식만 달라.)

104007 @ 음.(음.)

104007 #1 이건 조곰 높고 이건 얕고.(이건 조금 높고 이건 얕고.)

104007 @ 높고 얕고. 이게 도곰마씨?(높고 얕고. 이게 떰치예요?)

104007 #1 도곰.(떰치.)

104007 @ 이 옆으로 이어진 거 뭐마씨?(이 옆으로 이어진 거 뭐예요?)

104007 #1 요것이 도곰착. 도곰 받침대.(이것이 떰치짝. 떰치 받침대.)

104007 @ 어느 것이 도곰 받침대마씨?(어느 것이 떰치 받침대요?)

104007 #1 ᄒᆞ나는 도곰착이옌 하고 이거 두 개는 도곰이옌 하곡.(하나는 떰치짝이라고 하고 이거 두 개는 떰치라고 하고.)

104007 @ 아. 한 착씩!(아. 한 쪽씩!)

104007 #1 으. 두 개 다는 도곰.(응. 두 개 모두는 떰치.)

104007 @ 그믄 이건마씨?(그러면 이것은요?)

104007 #1 저, 게난 이건 도곰대엔 허는데.(저, 그러니까 이건 떰칫대라고 하는데.)

104007 @ 도곰대. 가지 받치는 거예?(떰칫대. 가지 받치는 거요?)

104007 #1 응.(응.)

104007 @ 이 구멍으로 지나가수게.(이 구멍으로 지나갔잖아요.)

104007 #1 이건 오랑코[170]허는 거.(이건 '오랑코' 하는 거.)

104007 @ 아, 오랑코.(아, '오랑코'.)

104007 #1 이거 영헹 일로 헤당은에 박 좁아뎅경 이걸 무꺼야 여기에 짐을 실러도 넘어나질 안 헤여.(이거 이렇게 해서 이리로 헤다가 박 잡아당겨 이걸 묶어야

170) '오랑코'는 말 등에 안장을 고정시키기 위해 말 앞가슴을 휘감아 안장 양 쪽에 묶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둥근 고리를 말한다.

여기에 짐을 실어도 넘어지지 않아.)

104007 @ 예.(예.)

104007 #1 이게.(사진을 가리키며) 이건 걷는데 균형을 잘 잡으레서 읏 소곱으로 오는 거고.(이게. 이건 걷는데 균형을 잘 잡으라고 요 속 안으로 오는 거고.)

104007 @ 예.(예.)

104007 #1 읏거 도곰코는 이디 영헹 딱 무꺼노민 넘어나질 안 헙니다.(이거 떰치코는 여기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104007 @ 배에 묵끄는 건 뭐렌 헤마씨?(바에 묶는 건 뭐라고 해요?)

104007 #1 건 오랑[171].(그건 '오랑'.)

104007 @ 그게 오랑마씨? 요거 끈 달린 거마씨?(그게 '오랑'이에요? 이거 끈 달린 거요?)

104007 #1 으. 끈 달린 게 오랑인데 오랑코가 잇주.(응. 끈 달린 게 '오랑'인데 '오랑코'가 있지.)

104007 @ 예.(예.)

104007 #1 오랑코는 윤유리낭으로 센 낭으로 이렇게 낭으로 멘듭니다. 동그랑허게.('오랑코'는 윤노리나무로 센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듭니다. 동그랗게.)

104007 @ 예.(예.)

104007 #1 멘들라서 여기에 미[172]배로 헹 장착시키민 저착으로 오랑을 메나, 이착으로 오랑을 메게 뒈민 거 헹 봑 즙아뎅기민양.(만들어서 여기에 '미'바로 해서 장착시키면 저쪽으로 '오랑'을 메거나 이쪽으로 '오랑'을 메면 그것으로 해서 박 잡아당기면.)

104007 @ 예.(예.)

104007 #1 그 동그랑헌 게. 낭으로 멘든 고리가 시방이민 기계로 둥기다지만 그때는 사람냥으로 둥겨도 꼬아지지 안 헤여마씨. 경헤서 이걸 오랑코라고 헙니께. 오랑끈으로 강알로 넘어왕.(그 동그란 게. 나무로 만든 고리가 시방이면 기계로 당긴다지만 그때는 사람이 당겨도 꼬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오랑코'라고 합니다. '오랑'끈으로 샅으로 넘어 와서.)

104007 @ 이 뒤에 끈들도 이름이 따로 이수과?(이 뒤에 끈들도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104007 #1 이것도 그것에 마찬가지. ᄀᆞ튼 거.(이것도 그것에 마찬가지. 같은 거.)

104007 @ 고들게에 연결하는 이런 거 이름은 따로 엇수과?(껑거리에 연결하는 이런 거 이름은 따로 없습니까?)

104007 #1 야. 이게 고들게인디, 고들게여 고들게끈이여 허는디 이게 별로 움직이질 안헙니다.(예. 이게 껑거리인데, 껑거리여 껑거리끈이다 하는데 이게 별로 움

171) '오랑'은 뱃대 끈을 말한다.
172)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직이지를 않습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이건 알로만 고정된 거난. 요게 벗어지면은 머리착더레 가 붑주게. 이게 엇이면은.(이건 아래로만 고정된 거이니까. 이게 벗겨지면 머리쪽으로 가 버립니다. 이게 없으면.)

104007 @ 그럼 질메하려면 이걸 올려 놓고 그 위에 짐을 올리는 거지예?(그럼 길마하려면 이걸 올려 놓고 그 위에 짐을 올리는 거지요?)

104007 #1 야.(예.)

104007 @ 짐을 통째로 싸는 배는 뭐렌 헤마씨?(짐을 통째로 싸는 바는 뭐라고 합니까?)

104007 #1 아, 그거 짐배, 짐배.(아, 그거 짐바, 짐바.)

104007 @ 그게 짐배. 짐 놓고 싸는 배.(그게 짐바. 짐 놓고 싸는 바.)

104007 #1 쉐 질메 짐배 아져오라. 영헤영은에. 게믄 흔 댓배씩 뒈는 거주게. 이게.(소 길마 짐바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한 댓 바 씩 되는 거지. 이게.)

104007 @ 질메 배. 물건 감앗다가 풀 때는마씨?(길마 바. 물건 감았다가 풀 때는요?)

104007 #1 풀 때는 또 그 식으로 원상으로 돌아가면 딱 풀어지게 뒈는 거.(풀 때는 또 그 식으로 원상으로 돌아가면 딱 풀어지게 되는 거.)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근데 촐짐은양 거 다 풀었다고 한번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 촐이 사십뭍씩 한 발인데 사십뭍씩 실으는데 요만씩한 촐. 잡초 빈 거.(근데 꼴 짐은 그거 다 풀었다고 한번에 풀어지는 게 아니. 꼴이 사십 뭇 씩 한 발인데 사십 뭇 씩 싣는데 이만씩 한 꼴. 잡초 벤 거.)

104007 @ 예.(예.)

104007 #1 건 게난. 한쪽에 서른 뭍씩 한 발이면 한쪽에 열 다섯 뭍씩인데 세 단계로 나눠 싣급니다.(그건 그러니까. 한쪽에 서른 뭇 씩 한 발이면 한 쪽에 열 다섯 뭇 씩인데 세 단계로 나눠 싣습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제일 첫 번에 다섯 뭇씩 무꺼놩, 배를 홀타.(제일 첫 번에 다섯 뭇씩 묶어 놓고 참바로 홅아.)

104007 @ 예.(예.)

104007 #1 쉐질메 쉐앗배[173]로 헤영은에 짐 싣그는 배로 꾀엇당 욜로 디물앙 다섯뭍 실러놩 또 요레로 가서 둥겨. 그믄 요거 다섯 뭍 고정.(소 길마 '쉐앗배'로 해서 짐 싣는 배로 꼬았다가 여기로 집어 넣어 다섯 뭇 싣고 또 여기로 가서 당겨. 그러면 이거 다섯 뭇 고정.)

173) '쉐앗배'는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굵직하고 기다란 참바를 말한다.

104007 @ 예.(예.)

104007 #1 또 다음에 다섯 뭍, 다섯 뭍 심어놩은에 마무리 됩니다.(또 다음에 다섯 뭇, 다섯 뭇 잡아놓고 마무리됩니다.)

104007 @ 차례 차례로예?(차례 차례로요?)

104007 #1 으. 그거 한 번에 실르는 게 아니라. 이 쉐 질메예.(으. 그거 한 번에 싣는 게 아니라. 이 소 길마에.)

104007 @ 음.(음.)

104007 #1 야, 야. 두 번, 세 번에 실러. 이 촐 ᄀᆞ튼 거. 게난 쉐앗배주, 쉐앗배. 짐 싣그는 거.(예, 예. 두 번 세 번에 실어. 이 꼴 같은 거. 그러니까 '쉐앗배'지. '쉐앗배'. 짐 싣는 거.)

104007 @ 쉐앗배.('쉐앗배'.)

104007 #1 쉐질메 배가 아니고 쉐앗배주.(소 길마 참바가 아니고 '쉐앗배'지.)

104007 @ 쉐앗배. 쉐 등에 저걸 바로 올려 놓습니까?('쉐앗배'. 소 등에 저걸 바로 올려 놓습니까?)

104007 #1 아니. 끌민 쉐등멩이 벗어지카부덴. 시방이난 끌암지만은 옛날은양 산듸짚으로 특히나 뚠거는 안 헙니다. 산듸짚으로만. 볏짚으로만.(아니. 깔면 소 등이 벗겨지까봐서. 시방이니까 깔지만 옛날에는 밭볏짚으로 특히나 딴 거는 안 합니다. 밭볏짚으로만. 볏짚으로만.)

104007 @ 음, 예.(음, 예.)

104007 #1 야, 볏짚이 독이 없다는 거라. 게서 볏짚 북삭지는 거. 볏짚. 헤벤은 보리짚.(예. 볏짚이 독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볏짚 폭신한 거. 볏짚. 해안마을은 보리짚.)

104007 @ 아, 여기는 산듸짚. 헤벤은 보리짚.(아, 여기는 밭볏짚. 해안 마을은 보리짚.)

104007 #1 이디는 산듸짚.(여기는 밭볏짚.)

104007 @ 산듸짚.(밭볏짚.)

104007 #1 야. 우리가 ᄀᆞᆫ는 대로 산듸짚. 게난 헤벤이 이걸 구하지 못하면은 산듸짚 구하지 못하면은 그자 보리짚으로 짜그넹예 허는 거.(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밭볏짚. 그러니까 해안 마을은 이걸 구하지 못하면 밭볏짚 구하지 못하면 그저 보리짚으로 짜서 하는 거.)

104007 @ 아.(아.)

104007 #1 게난 논는다 게 엇수다. 등멩이 벗어지지 안 허게 복삭한 담요. 아이고 요즘이주. 복삭한 담요 깔앙 허민 말이여 짐승도 호강이주만은 아이고.(그러니까 놓는다는 게 없습니다. 등이 벗겨지지 않게 폭신한 담요. 아이고 요즘이지. 폭신한 담요 깔아서 하면 말이야 짐승도 호강이지만 아이고.)

104007 @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난예.(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104007 #1 그때는양, 등멩이 벗어지면은 ᄑᆞ리, 농 앉앙양, 아이고.(그때는 등이

벗겨지면 파리, 고름 앉아서, 아이고.)

104007 @ 아이고. 그때 그거 낫게 허젠 허민 어떵헙니까?(아이고. 그때 그거 낫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4007 #1 그 때 약은양, 그때 약은 뭐 그자 쑥예?(그 때 약은, 그때 약은 뭐 그저 쑥이요.)

104007 @ 속?(쑥?)

104007 #1 야, 속. 그거 아졍하고. 또 죄약들도 다 잊어불언. ᄑᆞ린 ᄑᆞ리대로 하곡. 그 때 약이옌 허는 게 그자 오좀같은 거예.(예. 쑥. 그거 가지고 하고. 또 제조 약들도 다 잊어 버렸어. 파리는 파리대로 하고. 그 때 약이라고 하는 게 그저 오줌 같은 거요.)

104007 @ 아.(아.)

104007 #1 석은 오좀같은 거 헤당 손으로 닥닥 두드립니다. 그레 헤당 닥닥.(썩은 오줌 같은 거 해다가 손으로 탁탁 두드립니다. 거기에 해다가 탁탁.)

104007 @ 예.(예.)

104007 #1 게민 ᄑᆞ리도 아니 앉곡. 그기 물만 아이 들면은 ᄒᆞᆫ 이 삼일이민 딱지가 입어.(그러면 파리도 안 앉고. 거기 물만 안 들면 한 이 삼 일이면 딱지가 생겨.)

104007 @ 아.(아.)

104007 #1 꺼풀이. 겡허근에 일을 아니 허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다고 그 ᄒᆞᆫ 메칠을 그 일을 안 시킬수가 엇다 말입니다.(꺼풀이.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그 한 며칠을 그 일을 안 시킬 수가 없다 말입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겨믄 또 뒤집어져. 또 헤싸지면 또 오좀 헤놧당 그레예 강 닥닥 두드리면 ᄑᆞ리는 제거헤여. ᄑᆞ리.(그러면 또 뒤집어져. 또 헤벌어지면 또 오줌 해 놨다 거기에 가서 탁탁 두드리면 파리는 제거해. 파리.)

104007 @ 예.(예.)

104007 #1 쉬ᄑᆞ리는 또 더 더러운 것들. 경헤근에 그 약이엔 헌 게 엇어수다. 옛날은양 그 옛날도 아편은 이서실거우다만은 우린 그런 걸 구하지 못헤십주.(쉬파리는 또 더 더러운 것들. 그렇게 해서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옛날은 그 옛날도 아편은 있었을 겁니다만 우린 그런 걸 구하지 못했지요.)

104007 @ 아, 예.(아, 예.)

104007 #1 두린 애기도 설사나민 그 산듸짚 솔앙은에.(어린 아기도 설사 나면 그 밭볏짚 살라서.)

104007 @ 아.(아.)

104007 #1 산듸짚 솔앙. 두린 애기 설사헤나민 멕이멍 헤낫수다. 개영.(밭볏짚 살라서. 어린 아기 설사 하면 먹이면서 했었습니다. 개어서.)

104007 @ 아, 개영.(아, 개어서.)

104007 #1 개영. 그 불치를 수저로 막 개영.(개어서. 그 불티를 수저로 막 개어

서.)

104007 @ 물 ᄒᆞ꼼 놩마씨?(물 조금 놔서요?)

104007 #1 응. 물 ᄒᆞ꼼 놩은에 개영은에. 할마님 조순, 좋은 약이엔 허영 이 조순, 기자, 설세여 궂인 티, 궂인 가시 몬 걷어 줍서양.(응. 물 조금 놓고 개어서. 할머니 자손 좋은 약이라고 해서 이 자손 그저 설사여 궂은 티, 궂은 가시 모두 걷어 주십시오.)

104007 @ 아.(아.)

104007 #1 삼신할마님허멍. 영허멍.(삼신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04007 @ 예.(예.)

104007 #1 경허난 나 손은 약손이라 나 손은 약손이라.(그러니까 내 손은 약손이야. 내 손은 약손이야.)

104007 @ 예.(예.)

104007 #1 바로 그거 시방이나 마찬가지. 의사도 인연에 맞는 의사가 명인이고. 아무리 명인이라도 인연에 안 맞으면 안 좋는 거.(바로 그거 시방이나 마찬가지. 의사도 인연에 맞는 의사가 명인이고. 아무리 명인이라도 인연에 안 맞으면 안 좋은 거.)

104007 @ 예.(예.)

104007 #1 옛날도 그 아흐들 키우는 데 대개 경허멍 키왓수게. 그때는 조금만 허민 나아수다.(옛날도 그 아이들 키우는 데 대개 그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그 때는 조금만 하면 나았습니다.)

104007 @ 음.(음.)

104007 #1 경헌데 그런 식으로 산듸짚 이거 짜는 거, 술앙은에 멕이면 벵이 나아. 그거 신기헌 거주. 중간에 속이 낫주. 쑥.(그런데 그런 식으로 밭볏짚 이거 짜는 거. 살라서 먹이면 병이 나아. 그거 신기한 거지. 중간에 쑥이 났지. 쑥.)

104007 @ 아, 아.(아, 아.)

104007 #1 그거베끼 엇어수다. 게난양, 하.(그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

104007 @ 쉐는 겨울엔 집에서 나고 봄 나면 산에 가고 헤낫수과?(소는 겨울에는 집에서 나고 봄 나면 산에 가고 했었습니까?)

104007 #1 야. 봄 나민 산에 올리곡.(예. 봄 나면 산에 올라가게 하고.)

104007 @ 봄 나민마씨?(봄 나면요?)

104007 #1 야.(예.)

104007 @ 그건 누게가 관리합니까?(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104007 #1 관리라는 게 거우다. 바령도 중간에 헤낫주. 첫 번에 헤난 게 아니우다.(관리라는 게 그겁니다. '바령'도 중간에 했었지. 첫 번에 했었던 게 아닙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게난 소 임제는 무조건 소를 방목헹 내붑니께.(그러니까 소 임자는

무조건 소를 방목해서 내버립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사월절[174] 입하가 뒈면은 소가 닷 되를 뜯는답니다. 촐을. 물은 혼 말을 뜯곡.('사월절' 입하가 되면 소가 닷 되를 뜯는답니다. 꼴을. 말은 한 말을 뜯고.)

104007 @ 예.(예.)

104007 #1 경헤서 입하 사월절이 뒈면 소나 물이나 들로 나갑니다.(그렇게 해서 입하 '사월절'이 되면 소나 말이나 들로 나갑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경허면은 이 저울 농사 소서가 뒈면은 관리인들이 모두 관리를 헤야 뒈여. 관리를 안 하면은 여름 농서 지은 곡석들 몬 먹어분다 말이우다.(그러면 이 겨울 농사가 소서가 되면 관리인들이 모두 관리를 해야 되어. 관리를 안 하면 여름 농사 지은 곡식들 모두 먹어버린다 말입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헤서 관리를 허는데.(해서 관리를 하는데.)

104007 @ 예.(예.)

104007 #1 그 소를 혼 삼 사개월, 게니까 오월달이나 유월달에 소서가 들면은 여하튼 십일월 달이나 십이월 달 나면은 소 임대료를 받앙 먹을 곡식을 받앙은에 모두왕 ᄀᆞ꾸는 사람이 이서수다.(그 소를 한 삼 사개월, 그러니까 오월이나 유월에 소서가 들면 여하튼 십일월이나 십이월 되면 소 임대료를 받아서 먹을 곡식을 받아서 모아 가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4007 @ 아.(아.)

104007 #1 그 사람이 있는데 게서 만약에 보리 한 말이면 보리 한 말. 한 되민 한 되. 한 삼 사개월 동안 전부다 모두왕.(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리 한 말이면 보리 한 말, 한 되면 한 되. 한 삼 사개월 동안 전부다 모아.)

104007 @ 봐 주는 거꽈?(봐 주는 겁니까?)

104007 #1 경 모두왕 ᄀᆞ꾸는 사람이 있곡.(그렇게 모아서 가꾸는 사람이 있고.)

104007 @ 예.(예.)

104007 #1 순번대로 이 부락에서는 순번대로 돌아가멍 거 멕이곡 밤에 어디 강 메웁곡 허는 뭣이 있는데.(순번대로 이 마을에서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거 먹이고. 밤에 어디 가서 메우고 하는 뭣이 있는데.)

104007 @ 예.(예.)

104007 #1 그 전업으로 바령허는 사람은 송당사람도 몇 사름 하당 죽어불었는데. 하도, 종달, 저 어디 연평 할 것 엇이 구좌 쉐를 막 주문을 헤영양 뭘 헙니다.(그 전업으로 '바령'하는 사람은 송당사람도 몇 사람 하다가 죽어 버렸는데. 하도, 종달, 저 어디 연평 할 것 없이 구좌 소를 막 주문을 해서 뭘 합니다.)

174) '입하'는 음력 사월절이다.

104007 @ 예.(예.)

104007 #1 그때는 양식 보리 한 말이면 보리 한 말 모아 근에 바령 밧디 바령을 들이곡.(그때는 양식 보리 한 말이면 한 말, 보리 한 말을 모아서 '바령' 밭에 '바령'을 들이고.)

104007 @ 예.(예.)

104007 #1 바령을 들영 전업으로 줘 버리곡.('바령'을 들여 전업으로 줘 버리고.)

104007 @ 예.(예.)

104007 #1 또 모두왕 부락으로 허는 건 바령이 아니고 머쇠라고 헤서.(또 모아 마을로 하는 건 '바령'이 아니도 '머쇠'라고 했어.)

104007 @ 예.(예.)

104007 #1 쉐가 밤에 풀을 먹일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좋은데 아니면은 밤에 촐이 엇어도 데왕.(소가 밤에 풀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좋은데 아니면 밤에 꼴이 없어도 틀어.)

104007 @ 예.(예.)

104007 #1 밤에는 데우면은 사람도 아이 갑니다. 건.(밤에는 틀면 사람도 안 갑니다. 그건.)

104007 @ 아까 뭐마씨?(아까 뭐예요?)

104007 #1 도망가지 못하게 담을 다 추리는 거라. 쉐 에운 밧. 그 밧을.(도망가지 못하게 담을 다 치르는 거야. 소 감싼 밭, 그 밭을.)

104007 @ 예.(예.)

104007 #1 경허난. 그 뒷날 아첵이 또 일찍 갑주.(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 가지.)

104007 @ 예.(예.)

104007 #1 또 다른 당번이. 혹시나 쉐나 튀어 나와 어디 구석방에 들어신가 헤영 게난 그건 당번제로 곧곡.(또 다른 당번이. 혹시나 소나 뛰어 나와 어디 구석 방에 들어갔나 해서 그러니까 그건 당번제라고 말하고.)

104007 @ 예.(예.)

104007 #1 바령이렌 허는 건 전업으로.('바령'이라고 하는 건 전업으로.)

104007 @ 예.(예.)

104007 #1 그 무신 득수아린가 시방이면 임대료주. 임대료.(그 무슨 '득수아리'인가 시방이면 임대료지, 임대료.)

104007 @ 득수아리마씨?('득수아리'요?)

104007 #1 득수알[175]. 품 받는 것이.('득수알'. 품 받는 것이.)

104007 @ 품 받는 것이.(품 받는 것이.)

104007 #1 쉐 하나에 얼마헤서.(소 하나에 얼마 해서.)

175) '득수알'은 임대료처럼 품을 받는 것을 뜻한다.

104007 @ 게난 쉐 하나에 얼마 받습니까?(그러니까 소 하나에 얼마 받습니까?)

104007 #1 근데 우리는 안 헤부난. 그 당시에 쉐 하나에 보리 혼 관대가 뒈실 거우다.(근데 우리는 안 해버려서. 그 당시에 소 하나에 보리 한 관대가 되었을 겁니다.)

104007 @ 보리 혼 관대예?(보리 한 관대요?)

104007 #1 야. 경허난 그걸 서넉들을 보게 뒈난 잘허민 별방 ᄀᆞ튼 디는 보릿고단이니까 그런 일을 조금 한 사름은 후하게 주곡. 양 경 아녀면 보리 혼 말 정도.(예. 그러니까 그걸 서너 달을 보게 되니까 잘 하면 별방 같은 데는 보릿고개니까 그런 일을 조금 한 사람은 후하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리 한 말 정도.)

104007 @ 예.(예.)

104007 #1 쉐 서너 개, 댓 개 헹은에 붙져근에 허민 말이우다.(소 서너 개, 댓 개 해서 붙여서 하면 말입니다.)

104007 @ 예.(예.)

104007 #1 게난양 경허근에. 우수와, 옛날 헤난 생각헤민.(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스워. 옛날 했던 생각하면.)

104007 @ 여기는 마을에서 당번제로 핸마씨?(여기는 마을에서 당번제로 했습니까?)

104007 #1 야, 마을에서 당번제로.(예. 마을에서 당번제로.)

104007 @ 예.(예.)

104007 #1 게난 당번제도 구관이 이십니다. 이 동네 사름 당번제는 이 소시만 멕이곡. 저 동네 사름은 저 동네 소시에서만 멕이곡.(그러니까 당번제도 구역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 당번제는 이 근처만 먹이고. 저 동네 사람은 저 동네 근처에서만 먹이고.)

104007 @ 예.(예.)

104007 #1 당번제로 헤도 이 동네 사름이 저 위에 강 멕여가민 막 우스리 합니다.(당번제로 해도 이 동네 사람이 저 위에 가서 먹이고 가면 막 '우스리' 합니다.)

104007 @ 아.(아.)

104007 #1 막 싸움 만들곡 욕질덜 허곡. 야.(막 싸움 만들고 욕질들 하고요.)

104007 @ 하하하.(하하하.)

104007 #1 어디든 그 지경에서만 멕여.(어디든 그 지경에서만 먹여.)

104007 @ 예.(예.)

104007 #1 경허곡. 그 뭐헤노민 먹을 게 어습주게. 밤낮 멕여노민 말이여.(그렇게 하고. 그 뭐해 놓으면 먹을 게 없죠. 밤낮 먹여 놓으면 말이야.)

104007 @ 예.(예.)

104007 #1 게민 이 바령쉐라고 임대료헹은에 모인 쉐는 밀려낭 저 오름, 저 높은 디.야, 별도로 그런디 가붑니께.(그러면 이 '바령소'라고 임대료 해서 모은 소는 밀려나서 저 오름, 저 높은 데. 예, 별도로 그런 데 가 버립니다.)

104007 @ 아.(아.)

104007 #1 이 허허 벌판엔 못 와. 그런 것들은. 개인 쉐들을 멕이기 때문에.(이 허허 벌판에 못 와. 그런 것들은. 개인 소들을 먹이기 때문에.)

104007 #1 (그림 보며)하하하. 요거 산테도 나왔구나. 요건 산테주.(하하하. 요거 산태도 나왔구나. 요건 산태지.)

104007 @ 예.(예.)

104007 #1 이 놈의 산테도 부출[176]을 모르는 사람도 있관대. 요놈의 산테도 엇어져수다.(이 놈의 산태도 '부출'을 모르는 사람도 있길래. 요놈의 산태도 없어졌습니다.)

104007 @ 부출마씨?('부출'요?)

104007 #1 요거 산테 부출, 산테 살이곡, 요건 산테 죄우는 철사. 게도 요건 요즘 거로구나. 철사로 헹 다 허곡.(요거 산태 '부출'. 산태 살이고. 요건 산태 죄는 철사. 그래도 요건 요즘 거로구나. 철사로 해서 다 하고.)

104007 @ 하하하.(하하하.)

104007 #1 철사가 어디 셔서, 그때에.(철사가 어디 있었어. 그때에.)

104007 @ 철사 엇일 땐 뭘로 헤난마씨?(철사 없을 때는 뭘로 했었어요?)

104007 #1 으? 이건 흘락흘락 헤가민 조이는 거.(으? 이건 헐렁헐렁해 가면 조이는 거.)

104007 @ 철사 엇일 때는 뭘로 헤낫수과?(철사 없을 때는 뭘로 했었습니까?)

104007 #1 옛날은 유름줄이라고.(옛날은 으름줄이라고.)

104007 @ 유름줄. 이디 말로 뭐렌 헙니까?(으름줄. 여기 말로 뭐라고 합니까?)

104007 #1 유름줄. 종겡이.(으름줄. '종겡이'.)

104007 @ 종겡이마씨?(으름이요?)

104007 #1 종겡이 줄. 그게 헤당은에 허주. 이런 게 어디서나서. 곳새 아까 젯상 아이 봅데강.(으름줄. 그게 해다가 하지.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아까 아까 젯상 안 봤습니까?)

104007 @ 봐수다.(봤습니다.)

104007 #1 못 하나도 아이 들어간. 게난 못도 양, 귀헷수다. 그 당시에는.(못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못도 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4007 @ 이건 이름이 뭐꽈?(이건 이름이 무엇입니까?)

104007 #1 산테 살.(산태 살.)

104007 @ 산테 살은 다섯 개만 헤야 합니까?(산태 살은 다섯 개만 해야 합니까?)

104007 #1 아니, 다섯 개는. 네 개만 헤야 허는데 다섯 개는 부출이 기니까 다섯 살을 허는데.(아니. 다섯 개는. 네 개만 해야 하는데 다섯 개는 '부출'이 끼니까 다섯 살을 하는데.)

176) '부출'은 들것이나 덧 따위의 앞뒤를 깊게 양옆에 대어진 나무를 말한다.

104007 @ 보통은 네 개.(보통은 네 개.)

104007 #1 으, 보통은 네 개. 경허곡 부출도 죄옴는게 이쪽으로 죄옵고 이쪽으로 죄옵는 게 이쪽으로 죄옴는 게 아니.(응. 보통은 네 개. 그리고 '부출'도 조이는 게 이쪽으로 조이고. 이쪽으로 조이는 게 이쪽으로 조이는 게 아니.)

104007 @ 아.(아.)

104007 #1 양쪽에 이게 빠지지 못하게. 원래는 이쪽으로 죄옵는 거.(양쪽으로 이게 빠지지 못하게. 원래는 이쪽으로 조이는 거.)

104007 @ 아. 바깥으로.(아, 바깥으로.)

104007 #1 다섯 살 안 헤영. 넷 살만 헤영.(다섯 살 안해서. 네 살만 해.)

104007 @ 넷 살만 헤영.(네 살만 해.)

104007 #1 으.(응.)

말 기르기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1 하하하. 물도 그게 참. 명칭이 상당히 으라 가지라.(하하하. 말도 그게 참. 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야.)

104011 @ 예.(예.)

104011 #1 게난 요즘 사람들 보면 제멋대로들 곧는 거 닮아고라. 그 색 가졍 곧젠 헤도 다 잊어불언.(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제멋대로들 말하는 거 닮던데. 그 색 가지고 말하려고 해도 다 잊어버렸어.)

104011 @ 색깔에 따라서.(색깔에 따라서.)

104011 #1 야. 색깔에 따라서 허는데. 총머리 일청춘[177]이다 허는데, 에,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178], 삼적다[179] 영헤영 헤 가는데.(예. 색깔에 따라서 하는데. 총머리 '일청춘'이다 하는데. 에,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 '삼적다' 이렇게 해 가는데.)

104011 @ 예.(예.)

104011 #1 에. 고라물[180], 보라물, 그놈의 색이 다 가졍은에 크레용 가졍은에 긋으면 하면은 이건 무슨 물이다, 무슨 물이다 아는데 시방 고라물이렌 헤도 분간을 못하거든. 야?(예, '고라말', '보라물', 그 놈의 색이 다 가지고서 크레용 가져서 그으면 하면 이건 무슨 말이다 아는데 시방 고라말이라고 해도 분간을 못하거든. 예?)

104011 @ 그냥 거멍헌건가 헙니다.(그냥 거므스름한 것인가 합니다.)

104011 #1 가라물이나 적다물은 분간이 뒈는데 월라[181]같은 것도 분간이 뒈는데.('가라말'이나 '적다말'은 분간이 되는데 '월라' 같은 것도 분간이 되는데.)

---

177) '일청춘'은 청총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기와 꼬리가 푸르스름한 백마를 말한다.
178) '이가라'는 가라말. 털빛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179) '삼적다'는 적다마. 털빛이 붉은 말을 말한다.
180) '고라물'은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을 가리킨다.
181) '월라'는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을 가리킨다.

104011 @ 색이 다 다르구나예?(색이 다 다른군요?)

104011 #1 색이 틀린 거 마다 명칭이 다 따로 있어.(색이 다른 거 마다 명칭이 다 따로 있어.)

104011 @ 아.(아.)

104011 #1 크레용이 시방 저 집이 신가? 아, 엇다.(크레용이 시방 저 집에 있나? 아, 없다.)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2 #1 총하고 갈기렌 허는데.(총하고 갈기라고 하는데.)

104012 @ 총하고 갈기.(총하고 갈기.)

104012 #1 으으. 총ᄆᆞᆯ, 갈기. 희면은 벡메세키여, 무신 벡메여 허는 거주게.(으으. 총말, 갈기. 희면 백마 새끼여, 무슨 백마여 하는 거지.)

104012 @ 예.(예.)

104012 #1 게난 이 몸에 ᄯᅳ라서 그게 들어가. 그런데 간전이[182] 하고 테상박이[183]가 또 틀려.(그러니까 이 몸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 그런데 '간전이'하고 '태상박이'가 또 달라.)

104012 @ 간정이. 간전이.('간정이', '간전이'.)

104012 #1 으. 멘박에 길게 희영한 거 내려온거. 또 그리고 점 ᄒᆞ나 있는 거, 거 틀려 다.(응. 이마에 길게 하얀 게 내려온 거. 또 그리고 점 하나 있는 거. 그거 달라.)

104012 @ 테상박이가?('테상박이'가?)

104012 #1 으. 점 하나 이신거고. 이렇게 ᄂᆞ려온 건 간전이고.(응. 점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온 건 '간전이'고.)

104012 @ 간전이, 테상벡이, 예?('간전이', '테상박이', 예?)

104012 #1 예.(예.)

104012 @ 그럼 붉은 말은 무슨거렌 헤마씨?(그럼 붉은 말은 뭐라고 해요?)

104012 #1 그건 적다.(그건 적다말.)

104012 @ 그건 적다. 그 다음에 얼룩한 건마씨?(그건 적다말. 그 다음에 얼룩한 거는요?)

104012 #1 그건 월라ᄆᆞᆯ.(그건 얼룩말.)

104012 @ 월라ᄆᆞᆯ. 갈기는 검은 색, 배는 흰 색은마씨?(얼룩말. 갈기는 검은 색, 배는 흰색은요?)

104012 #1 갈기는 검은 색?(갈기는 검은색?)

104012 @ 예. 배에만 흰털 이신거.(예. 배에만 흰 털 있는 거.)

104012 #1 배에만 희곡. 그게.(배에만 희고. 그게.)

---

182) '간전이'는 이마와 빰이 흰말을 가리킨다.

183) '태상박이'는 이마에 흰털의 점이 마치 별처럼 박힌 말을 이른다.

104012 @ 그믄 유마는 어떤 거꽈?(그러면 유마는 어떤 겁니까?)

104012 #1 그 유마옌 헌 것이 여러 가지 잡둥이가 된 것을 유마옌 허는 거주게.(그 유마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잡종이 된 것을 유마라고 하는 거지.)

104012 @ 아, 잡둥이를.(아, 잡종을.)

104012 #1 으, 여러 가지주게. 으. 오유마라고.(응. 여러 가지지. 응. 오유마라고.)

104012 @ 예.(예.)

104012 #1 그게 오유마에 들어가.(그게 오유마에 들어가.)

104012 @ 음.(음.)

104012 #1 고라믈, 그 다음에 고라믈들 영헤영은에.(고라말. 그 다음에 '고라말'들 이렇게 해서.)

104012 @ 음.(음.)

104012 #1 고라믈은 또 갈색에서 또 좀 진헤분 거.('고라말'은 또 갈색에서 또 좀 진해 버린 거.)

104012 @ 털이 갈색에서 진헤분 거.(털이 갈색에서 진해버린 거.)

104012 #1 믈이 또 천상벡이가 이서. 천상불이[184].(말이 또 '천상벡이'가 있어. '천상불이'.)

104012 @ 천상불이마씨?('천상불이'요?)

104012 #1 천상불이라는 것은 사름에 이익을 안 주는 거.('천상불이'라는 것은 사람에 이익을 안 주는 거.)

104012 @ 아.(아.)

104012 #1 이익을 안 주는 말. 믈이 영 오그라진 거(얼굴을 가리키며).(이익을 안 주는 말. 말이 이렇게 오그라진 거.)

104012 @ 오그라진 거.(오그라진 거.)

104012 #1 경허곡 또 간전이 있잖아, 간전이.(그렇게 하고 또 '간전이' 있잖아, '간전이'.)

104012 @ 예, 예.(예, 예.)

104012 #1 간전이에도 대가 이서야 돼.('간전이'에도 대가 있어야 돼.)

104012 @ 대?(대?)

104012 #1 대라는 것은 이것(얼굴을 가리키며)에 표틱 나면은 테상벡이든, 간젠이든 대가 어성은 사납나고 헤서, 사름에 이익을 안 시킨다고 헤서양, 그건 대붑니께.(대라는 것은 이것에 표식이 나면 '테상박이'든, '간전이'든 대가 없어서는 사납다고 했어. 사람에 이익을 안 시킨다고 해서. 그건 던져 버립니다.)

104012 @ 대는 뭐마씨?(대가 뭡니까?)

104012 #1 나쁘게 본다. 대 본다는 건 나쁘게 본다.(나쁘게 본다. 대 본다는 건 나쁘게 본다.)

184) '천상불이'는 얼굴이 오그라진 모양이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

104012 @ 예.(예.)

104012 #1 나쁘게 보는데 이것에 영 헌 놈이나(손으로 얼굴 위에서 아래로 무늬를 만들 듯 하면서) 여기 텍상벡이가 이신 놈은 다리나 저 벳떼기에 흰 게 대가 이서야 돼.(나쁘게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 놈이나 여기 '테상박이'가 있는 놈은 다리나 저 배에 흰 게 대가 있어야 돼.)

104012 @ 아, 같이.(아, 같이.)

104012 #1 으. 같이. 하나가 점이 꼭 이서야 돼. ᄒᆞ나만 이서는.(응. 같이. 하나가 점이 꼭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서는.)

104012 @ 아, 얼굴에만 이시믄 안 뒈고 다리나 배에 이서야 헤마씨?(아, 얼굴에만 있으면 안 되고 다리나 배에 있어야 해요?)

104012 #1 으으. 배에 있든가, 갈기에 있든가.(어어. 배에 있던가, 갈기에 있던가.)

104012 @ 갈기에 있든가.(갈기에 있던가.)

104012 #1 으. 그건 대가 이서야 사름에 이익을 주는 거지. ᄒᆞ나만은 절대 사름에 이익을 주는 예가 업서.(응. 그건 대가 있어야 사람에 이익을 주는 거지. 하나만은 절대 사람에 이익을 주는 예가 없어.)

104012 @ 사름에 이익을 안 주는 ᄆᆞᆯ은 어떵 헤붑니까?(사람에 이익을 안 주는 말은 어떻게 해 버립니까?)

104012 #1 천상불이라고 이 주둥이 오그라진 게 이수다.('천상불이'라고 이 주둥이가 오그라진 것이 있습니다.)

104012 @ 예에.(예에.)

104012 #1 대개 그런 ᄆᆞᆯ이 어떤 ᄆᆞᆯ이 나오냐면 종내기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고라ᄆᆞᆯ이라고양 고라ᄆᆞᆯ이 좀 사나웁니다. 색이.(대개 그런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종 내기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고라말'이라고 '고라말'이 좀 사납습니다. 색이.)

104012 @ 예예.(예예.)

104012 #1 그게 갈색에서 좀 진한 거라.(그게 갈색에서 좀 진한 거야.)

104012 @ 갈색말. 등이 굽은 말도 이서마씨?(갈색말. 등이 굽은 말도 있어요?)

104012 #1 야야. 곱새마.(야야. 곱사등말.)

104012 @ 예. 곱새말.(예. 곱사등말.)

104012 #1 곱새마.(곱사등말.)

104012 @ 이건 어떤 ᄆᆞᆯ이꽈?(이건 어떤 말입니까?)

104012 #1 으, 이거 적다월라. 꼬리도 희곡 어디도 희곡헌거. 적다월라.(응. 이거 '적다월라'. 꼬리도 희고 어디도 희고한 거. '적다월라'.)

104012 @ 이건 적다월라. 이건마씨?(이건 '적다월라'. 이건요?)

104012 #1 으. 이건 가라월라. 이추룩 대가 이서야 돼. 어디든지 점이 이신 건 월라ᄆᆞᆯ이라.(응. 이건 '가라월라'. 이처럼 대가 있어야 돼. 어디든지 점이 있는 건 얼룩말이야.)

104012 @ 점이신 건 월라믈.(점있는 건 얼룩말.)

104012 #1 원래 월라믈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월라믈이라.(원래 얼룩말도 있긴 있지만 그게 얼룩말이야.)

104012 @ 예예.(예예.)

104012 #1 이것이 고라믈인 거 닮은 게. 이것이 성격이 날카로와.(이것이 '고라말'인 거 닮네. 이것이 성격이 날카로워.)

104012 @ 음. 고라믈.(음. '고라말'.)

104012 #1 이건 적다믈이고.(이건 '적다말'이고.)

104012 @ 예, 적다믈.(예. '적다말'.)

104012 #1 게난 이디 검은 건 가라적다렌도 허곡.(그러니까 여기 검은 건 '가라적다'라고도 하고.)

104012 @ 아, 예. 가라가 검은 거렌 허는 거구나예.(아, 예. '가라'가 검은 거라고 하는 거군요.)

104012 #1 아까 점 찍어진 거. 저것이 뭐옌 허드라만은. 무신 믈이렌 허라만은. 하.(아까 점 찍어진 거. 저것이 뭐라고 하더라만. 무슨 말이라고 하더라만. 하.)

104012 @ 이거마씨?(이거요?)

104012 #1 이거 노린털 이신거지?(이거 노란 털 있는 거지요?)

104012 @ 예.(예.)

104012 #1 이건 고라적다옌 허는 거. 이것도.(이건 '고라적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104012 @ 얼룩덜룩한건데마씨?(얼룩 덜룩한 건데요.)

104012 #1 얼룩얼룩한 건디. 고라적다, 저건.(얼룩 얼룩한 건데. '고라적다'. 저건.)

104012 @ 예.(예.)

104012 #1 게난 여기 코에도 이거 이거.(그러니까 여기 코에도 이거 이거.)

104012 @ 예.(예.)

104012 #1 이게 여기에 대가 엇어서는 믈이 사나왕 믈이 뭐 언낸 헤여. 질루질 안 헌덴 허는 (이게 여기에 대가 없어서는 말이 사나워서 말이 뭐 없다고 해. 키우지를 안 한다고 해.)

104012 @ 음.(음.)

104012 #1 겐디 주둥이 영 오그라진 게 이습주. 주둥이 오그라진 건 또 천상불이라고 헤서 사람 물믈 잘 물어.(그런데 주둥이 이렇게 오그라진 게 있지요. 주둥이 오그라진 건 또 '천상불이'라고 해서 사람 물기를 잘 물어.)

104012 @ 예? 주둥이 오그라진 게 천상불이.(예? 주둥이 오그라진 게 '천상불이'.)

104012 #1 야, 천상불이라고.(야, '천상불이'라고.)

104012 @ 이건마씨?(이건요?)

104012 #1 이건 좋은 거라. 앞발도 대가 이시니까.(이건 좋은 거야. 앞발도 대가 있으니까.)

104012 @ 얼굴에 얼룩한 건 간전이고예?(얼굴에 얼룩한 건 '간전이'고요?)

104012 #1 으. 주둥이 오그라진 천상불이가 이습니다. 그런 건 질루질 안 헤여. 집이서.(응. 주둥이 오그라진 '천상불이'가 있습니다. 그런 건 키우지를 않아. 집에서.)

104012 @ 이건 뭐꽈?(이건 뭐예요?)

104012 #1 이것도 다 고라물.(이것도 다 '고라말'.)

104012 @ 고라물.('고라말'.)

104012 #1 검은 빛에서 노린 빛 나는 거는 가라유마옌 허는 거.(검은 빛에서 노란 빛 나는 거는 '가라유마'라고 하는 거.)

104012 @ 섞이는구나. 검은 색이 가라구나예.(섞이는 구나. 검은 색이 '가라'군요.)

104012 #1 으으.(으으.)

104012 @ 누런 빛이 나는게 고라.(누런 빛이 나는 게 '고라'.)

104012 #1 누렁하고 아주 색이.(누렁하고 아주 색이.)

104012 @ 들렁물은 뭐마씨?('들렁말'은 뭐예요?)

104012 #1 들렁멀이?('들렁말이'?)

104012 @ 예.(예.)

104012 #1 헤헤. 들렁멀이는 물 시방 호마들 있잖아. 그거 들렁탕 들렁탕 타민.(헤헤. '들렁말이'는 말 시방 호마들 있잖아. 그거 '들렁탕 들렁탕' 타면.)

104012 @ 아, 그게 들렁물.(아, 그게 '들렁말'.)

104012 #1 으. 들렁물이옌 허는 거주게. 일청춘이옌 허는 게 옛날은 물이 순하니까 그거는 사름으로 제마를 만듭니다.(응. '들렁말'이라고 하는 거지. '일청춘'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말이 순하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제마를 만듭니다.)

104012 @ 제마.(제마.)

104012 #1 제마를 멘드는데 아주 일류 마상들은 멘드는 데 우리같은 놈 무꾼은 양 무척대고 고삐를 눕혔다 조였다 허는 기술을 못허여, 우리는.(제마를 만드는데 아주 일류 마상들은 만드는데 우리 같은 놈 무지렁이는 무턱대고 고삐를 눕혔다 조였다 하는 기술을 못해, 우리는.)

104012 @ 예.(예.)

104012 #1 떨어져불여. 마상 물 잘타는 분들은 그걸로 조중하멍 물 자국을 일정하게 놓게 만드는 거우다.(떨어져버려. 마상 말 잘타는 분들은 그걸로 조종하면서 말 자국을 일정하게 놓게 만드는 겁니다.)

104012 @ 예.(예.)

104012 #1 그게. 경허면은 그건 차 탕거나 마찬가지. 울리질 안 헤여.(그게. 그렇게 하면 그건 차 타거나 마찬가지. 울리질 않아.)

104012 @ 음.(음.)

104012 #1 들렁ᄆᆞᆯ이라 한 것은 호마 쯤 타근에 ᄃᆞᆫ당 보민.(‘들렁말’이라고 한 것은 호마 쯤 타서 달리다 보면.)

104012 @ 예.(예.)

104012 #1 들렁탕들렁탕 허민 그것에 좃이 안 맞이민 털어져부는 수가 이습주게. 게난 들렁ᄆᆞᆯ이렌 헌거곡, 그건.(‘들렁탕 들렁탕’ 하면 그것에 좇이 안 맞으면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렁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104012 @ 아, 예. 우리 조랑말이렌 허는 건 무신 말이꽈?(아, 예. 우리 조랑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104012 #1 그건 제주도에서. 몽골에서 들어온 제주도 말로 현지에 나온 겁주. 그 전이 조랑말이엔 헌 게 엇어수다.(그건 제주도에서. 몽골에서 들어온 제주도 말로 현지에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조랑말이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104012 @ 아, 기구나예. 무신거렌 ᄀᆞᆯ아수과?(아, 그렇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12 #1 기자 ᄆᆞᆯ.(그저 말.)

104012 @ 그냥 ᄆᆞᆯ마씨?(그냥 말이요?)

104012 #1 으으. 젠통이. 족은 건 젠통이.(응응. ‘젠통이’. 족은 건 ‘젠통이’.)

104012 @ 젠통이?(‘젠통이’.)

104012 #1 ᄆᆞᆼ셍이 족은 건 젠통이. 못낫다는 말입주양.(망아지 작은 건 ‘젠통이’. 못났다는 말이지요.)

104012 @ 쟁통이[185]마씨?(‘쟁통이’요?)

104012 #1 으. 쟁통이. 게난 우리 한국어로 그걸 써지쿠과?(응. ‘쟁통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그걸 쓸 수 있겠어요?)

104012 @ ᄆᆞᆼ셍이 보다 족은 거마씨?(망아지 보다 작은 거요?)

104012 #1 으. 아주 못난 거.(응. 아주 못난 거.)

104012 @ 쟁통이. 못난 거. 족은 게 아니고마씨?(‘쟁통이’. 못난 거. 작은 게 아니고요?)

104012 #1 작고 못난 거주게. 어떻든 간에. 꼭ᄀᆞ치 낭 해도.(작고 못난 거지. 어떻든 간에. 똑같이 나도.)

104012 @ 아.(아.)

104012 #1 아팡은에 줄이쳥 얼먹어부나, 젖물이, 에미 젖물이 황당하면은 꼭 ᄀᆞ튼 동기들에서 떨어진다 말이우다.(아파서 여위어서 얼먹으나, 젖물이, 에미 젖물이 황당하면 똑같은 동기들에서 뒤떨어진다 말입니다.)

104012 @ 예.(예.)

104012 #1 경허면은 에이 저, 얼룩쉐, 예를 들어서 저 얼룩쉐, 슥쉐 저 새끼, 저 쟁통이 쉐 새끼도 쟁통이. ᄆᆞᆯ 새끼도 쟁통이.(그러면 에이 저, 얼룩소 예를 들어서 저 얼룩소, 슥소, 저 새끼, 저 ‘쟁통이’ 소 새끼도 ‘쟁통이’. 말 새끼도 ‘쟁통이’.)

185) ‘쟁통이’는 마소의 새끼 가운데 제일 못나고 작은 것을 이른다.

104012 @ 아. 쉐도.(아, 소도.)

104012 #1 요즘 아이들 쟁통이옌 허면 모른다 말이우다.(요즘 아이들 '쟁통이'라고 하면 모른다 말입니다.)

104012 @ 게난마씨.(그러게요.)

104012 #1 제일 못난이가 쟁통이.(제일 못난이가 '쟁통이'.)

104012 @ 젠통이.('쟁통이'.)

104012 #1 야.(야.)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13 #1 ᄆᆞᆯ은 구루마도 옛날은 엇어수다.(말은 달구지도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104013 @ 그믄 뭐에 써마씨?(그러면 뭐에 씁니까?)

104013 #1 질배로 지어 날랐지.(질빵으로 지고 날랐지.)

104013 @ ᄆᆞᆯ질메마씨?(말길마요?)

104013 #1 ᄆᆞᆯ질메도 이섯주마씨. ᄆᆞᆯ에도 지와.(말길마에도 있었지만요. 말에도 지게 했지.)

104013 @ 소질메하고 틀립니까?(소길마하고는 다릅니까?)

104013 #1 ᄆᆞᆯ도 똑ᄀᆞ튼 거.(말도 똑같은 거.)

104013 @ 똑 같은 거.(똑같은 거.)

104013 #1 ᄆᆞᆯ은 왜정시대에 구루마가 나온 때에 ᄆᆞᆯ을 메어십주. 경 안헌땐 ᄆᆞᆯ도 질메.(말은 일제 강점기때에 달구지가 나온 때에 말을 매었지요. 그렇게 안 할 때는 말도 질빵.)

104013 @ 예.(예.)

104013 #1 보리밧 강은에 붋곡. 그 놈들이 그놈이주, 원.(보리밭 가서 밟고. 그 놈들이 그 놈이지, 원.)

104013 @ 하하하.(하하하.)

104014 @ 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4 #1 게난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면은 스물 아니 ᄆᆞᆯ이 삼십 년도 삽니다. 게난 삼십 살까지는 장팔수라고 합니다.(그러니까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면 스물 아니 말이 삼십 년도 삽니다. 그러니까 삼십 살까지 장팔수라고 합니다.)

104014 @ 한 살은마씨?(한 살은요?)

104014 #1 ᄒᆞᆫ 살은 금승. 송아기도 금승. ᄆᆞᆼ생이도 금승.(한 살은 금승. 송아지도 금승. 망아지도 금승.)

104014 @ 송아기도 금승, ᄆᆞᆼ생이도 금승.(송아지도 금승. 망아지도 금승.)

104014 #1 야야. 하하하.(예예. 하하하.)

104014 @ 경헹 이수, 삼수, 사수.(그렇게 해서 이수, 삼수, 사수.)

104014 #1 물, 물에만.(말. 말에만.)

104014 @ 팔수 이후로는.(팔수 이후로는.)

104014 #1 다 장팔수. 경만 헤불민 뒈는 거우다. 스무 살, 물이 삼십 살이 뒈어도. 물이 삼십 년은 산다는 데 삼십 세까지는 다 장팔수. 겐디 니빨이 이수다. 니빨이.(다 장팔수. 그렇게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스무 살, 말이 삼십 살이 되어도. 말이 삼십 년은 산다는데 삼십 세까지는 다 장팔수. 그런데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104014 @ 예예.(예예.)

104014 #1 전업자들은 그 물을 들렁 봥 아 요거는 몇 살까지쯤 뒈었다. 읏답 살 아래로는 다 판단됩니께.(전업자들은 그 말을 들추고 봐서 아, 요거는 몇 살까지 쯤 되었다. 여덟 살 아래로는 다 판단됩니다.)

104014 @ 이빨로마씨?(이빨로요?)

104014 #1 이빨 딱 걷엉 봥. 쉐도.(이빨 딱 걷어 봐서. 소도.)

104014 @ 아.(아.)

104014 #1 세 살 뒈면은 쉐는 니가 우알 두 개 두 개, 니 개가 빠져 붑니다.(세 살 되면 소는 이가 위 아래 두 개 두 개, 네 개가 빠져 버립니다.)

104014 @ 아.(아.)

104014 #1 경허민 사릅이 너머 사기 시작하면 니가 돋아 와.(그렇게 하면 사릅이 넘어 서기 시작하면 이가 돋아나와.)

104014 @ 음.(음.)

104014 #1 경허민 쉐는 아, 이거 멧 습짜리, 몇 살쯤 뒈었구나.(그렇게 하면 소는 아, 이거 몇 습 짜리. 몇 살 쯤 도었구나.)

104014 @ 아아.(아아.)

104014 #1 영 헹 알아집니다. 우리도 이땅 쉐 장사도 할 때 보민.(이렇게 해서 알아집니다. 우리도 이따금 소 장사도 할 때 보면.)

104014 @ 아. 예.(아. 예.)

104014 #1 말은 기냥 니 돋습디다. 게난 계속 장팔수라.(말은 그냥 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팔수라.)

104014 @ 아. 이가 계속 다 나니까.(아. 이가 계속 다 나니까.)

104014 #1 물은 다 나니까.(말은 다 나니까.)

먹이

104016 @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멕이는 거 말이꽈? 그거 초식동물들이우난양, 집에 봥 내불민 지네 ᄆᆞ음 맞은 풀 먹는 겁주.(먹이는 거 말입니까? 그거 초식동물들이니까 집에 놓아 내버리면 자기들 마음에 맞는 풀 먹는 거지요.)

104016 @ ᄆᆞ음에 맞는 풀. 하하.(마음에 맞는 풀. 하하.)

104016 #1 사름이 멕이는 건 요즘 들어서 사료여, 무신 목초여.(사람이 먹이는 건 요즘 들어서 사료여, 무슨 목초여.)

104016 @ 겨울에는 촐 헤다 줘야 할 거 아니꽈?(겨울에는 꼴 해다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6 #1 아, 겨울에는 야외에 촐을 빕니께. 비어당 그거 무꺼당 운반헤당 눌젠 허면은 만단 이만 단씩 눕니께.(아, 겨울에는 야외에 꼴을 베잖아요. 베어다가 그거 묶어서 운반 해다가 가리려고 하면 만 단, 이만 단씩 가립니다.)

104016 @ 뭇이렌 안 헙니까?(뭇이라고 안 합니까?)

104016 #1 예. 만 뭇. 이삼만 뭇 누는데.(예. 만 뭇, 이삼만 뭇 가리는데.)

104016 @ 헤.(헤.)

104016 #1 그 때 촐 뭇을 ᄒᆞᆫ 이삼만 뭇 눌어나면은 동무릎 다 끊어져불어.(그 때 꼴 뭇을 한 이삼 만 뭇 가리면 무릎 다 끊어져버려.)

104016 @ 아이고.(아이고.)

104016 #1 옷이 끈어지면 끈어지지 안 허게끔 발레[186]라고 이서. 가죽. 여기 동무릎에 끼는 거.(옷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않게끔 '발레'라고 있어. 가죽. 여기 무릎에 끼는 거.)

104016 @ 아, 발레. 뭘로 만들어마씨?(아, '발레'. 뭘로 만들어요?)

104016 #1 가죽.(가죽.)

104016 @ 쉐가죽마씨?(소가죽이요?)

104016 #1 쉐가죽도 뒈곡 고냉이 가죽이던 뭐던 개가죽이던 ᄆᆞᆯ카죽이던 가죽으로만 멘드는 거. 또 창신이라고.(소가죽도 되고 고양이 가죽이든 무엇이든 말가죽이든 가죽으로만 만드는 거. 또 창신이라고.)

104016 @ 가죽신?(가죽신?)

104016 #1 가죽으로만 만든 쉐가죽, ᄆᆞᆯ카죽으로 멘든 창신이 이서.(가죽으로만 만든 소가죽, 말가죽으로 만든 창신이 있어.)

104016 @ 예예.(예예.)

104016 #1 옛날에 우리양 멘발에 다녔주. 그런 창신 엇어수다.(옛날에 우리 맨발로 다녔지. 그런 창신이 없었습니다.)

104016 @ 아.(아.)

104016 #1 알암수과? 우리 앞서에 시방 ᄒᆞᆫ 백오십솔 나는 하르방들이 창신 신곡 발레 이딜 끼어십주.(알고 있습니까? 우리 앞서 시방 한 백오십 살 난 할아버지들이 창신 신고 '발레' 여기를 꼈지요.)

104016 @ 예.(예.)

104016 #1 우린 경ᄁᆞ지는 안 헤서. 작업복이 나니까. 작업복 끈어지민 기자 끈

186) '발레'는 방한하기 위해서 개가죽으로 각반처럼 만든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선 방한 용품이라기보다 일을 할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것이다.

어지는 건가 했고.(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작업복이 나오니까. 작업복 끊어지면 그저 끊어지는 건가 했고.)

104016 @ 아.(아.)

104016 #1 옛날은 옷이 끈어지니까예. 무릎 바데했고.(옛날에는 옷이 끊어지니까요. 무릎 바대했고.)

104016 @ 예.(예.)

104016 #1 들레 강 쉐가죽들이나 물이나 죽으면은 가죽을 털어 옵니다.(들에 가서 소가죽이나 말가죽이나 죽으면 가죽을 털어 옵니다.)

104016 @ 예.(예.)

104016 #1 괴기는 아지당 사름이 먹곡.(고기는 가져다가 사람이 먹고.)

104016 @ 예.(예.)

104016 #1 게민 가죽을 아지당 발려, 소금헤영. 막 발려헹.(그러면 가죽을 가져다가 발려서, 소금해다가 막 발려서.)

104016 @ 예.(예.)

104016 #1 시방도 막 가죽 수입허는 거 보난 소금했당 막 발령 나옵디다만은 그 식으로 막 발렸당 이걸 송곳이 뚤으는 ᄂᆞ은 송곳이 이십니다.(시방도 막 가죽 수입하는 거 보니까 소금했다가 막 발려서 나옵디다만 그 식으로 막 발렸다가 이걸 송곳으로 뚫는 날카로운 송곳이 있습니다.)

104016 @ 예.(예.)

104016 #1 송곳으로 헹은에 고망 뚤앙 발레를 끼곡.(송곳으로 해서 구멍 뚫어 '발레'를 끼고.)

104016 @ 예.(예.)

104016 #1 창신을 신지 안 허면은 그때 어디 경 양말이 이서수과.(창신을 신지 않으면 그때 어디 그렇게 양말이 있었습니까?)

10401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4016 #1 우린 맨발에양 계속 뎅겼는데 게난 경이나 안 허영은 촐 이삼만 단을 눌지 못헙니께.(우리는 맨발에 계속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나 안 해서는 꼴 이삼만 단을 가리지 못합니다.)

104017 @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게난 촐은 비는 낫이 이수다. 나 발로 ᄌᆞ룩은 하나 뒈어. 혼 발 혼뿜이 뒈어.(그러니까 꼴은 베는 낫이 있습니다. 나 발로 자루는 하나 되어. 한 발 한 뼘이 되어.)

104017 @ 아. ᄌᆞ룩이예?(아. 자루가요?)

104017 #1 ᄌᆞ룩이. 육지 사름들은 호미보고 제주도 호미보고 낫이렌 허는데. 시방도 저기 낫이 있는데 이수다만은 촐 비는 것이 이만이 질어. 두 뽐. 두 뽐이라.(자루가. 육지 사람들은 호미 보고 제주도 '호미' 보고 낫이라고 하는데. 시방도 저기 낫이 있는데 있습니다만 꼴 베는 것이 이만큼 길어. 두 뼘, 두 뼘이라.)

104017 @ 날이마씨?(날이요?)

104017 #1 으. 놀이. 이 정도.(응. 날이. 이 정도.)

104017 @ 그게 그 정도 헤마씨? 헤?(그게 그 정도 해요? 헤?)

104017 #1 거 대장간 가민 골안 강. 비는 거라.(그거 대장간 가면 갈고 가서. 베는 거야.)

104017 @ 사듬서?(서서?)

104017 #1 으. 사듬서 비는 거라.(응. 서서 베는 거야.)

104017 @ 예.(예.)

104017 #1 시방. 낫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미시거옌 헐 거만은. 비어낫수다.(시방. 낫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지만. 베었었습니다.)

104017 @ 예.(예.)

104017 #1 그게양 놀이나 잘들곡. 촐이나 좋은 디 가면은양 사십뭇씩 한 발인데, 잘 비면은 백이십 단을 흔숨에.(그게요 날이나 잘 들고. 꼴이나 좋은 데 가면 사십 뭇씩 한 발인데, 잘 베면 백이십 단을 한 숨에.)

104017 @ 아하.(아하.)

104017 #1 게난 보통 그 낫을 곰도 하루에. 하루 낮 전 두 번 낮 후제 두 번.(그러니까 보통 그 낫을 가는 것도 하루에. 하루 낮 전 두 번. 낮 후에 두 번.)

104017 @ 오랫동안 갈아야 뒈마씨?(오랫동안 갈아야 되요?)

104017 #1 오랫동안 갈아야 뒈어. 놀 나지 안 허민. 오랫동안 골아근엥에 가근에 잘 비면은 흑루 삼십 뭇.(오랫동안 갈아야 되어. 날 나지 않으면. 오랫동안 갈아가서 잘 베면 하루 삼십 뭇.)

104017 @ 혼자만 빕니까?(혼자만 벱니까?)

104017 #1 아이 혼자도 비곡 여러 무씩 상은에 비어가가면 춤 즈미지주.(아니. 혼자도 베고 여러 뭇씩 서서 베어가면 참 재미있지.)

104017 @ 예.(예.)

104017 #1 겐디 떨어지는 놈은 애 먹곡. 떨어지는 놈은 이레 미역, 저레 미역 허는 거라.(그런데 떨어지는 놈은 애 먹고. 떨어지는 놈은 여기서 베다가 저기서 베다가 하는 거야.)

104017 @ 예.(예.)

104017 #1 다들 이근역[187]들 헤가당 내분 것들 조름에 있는 놈들은 얼먹주게.(다들 '이근역'들 해가다가 내버린 것들 꽁무니에 있는 놈들은 얼먹지.)

104017 @ 예예.(예예.)

104017 #1 경허근에 두드려 패당 보민 낫즈룩도 다 걲엉 헤먹어불곡.(그렇게 해서 두드려 패다가 보면 낫 자루도 다 꺾어 해 먹어버리고.)

104017 @ 예.(예.)

104017 #1 따라가젠 허당 보민. 건디 것도 중간이우다. 중간. 하하하.(따라가려

187) '이근역'은 제일 첫 번째를 이르는 말이다.

고 하다가 보면. 그런데 그것도 중간입니다. 중간. 하하하.)

104017 @ 낫은 보통 때 쓰는 낫이랑 다르잖아예?(낫은 보통 때 쓰는 낫이랑 다르잖아요?)

104017 #1 으, 틀려.(으. 달라.)

104017 @ 이름 다르게 안 불러마씨?(이름 다르게 안 부릅니까?)

104017 #1 그냥 낫. 제주도선 낫. 촐 비는 건 낫.(그냥 낫. 제주도에서는 낫. 꼴 베는 건 낫.)

104017 @ 장낫이렌 안 헙니까?(장낫이라고 안 합니까?)

104017 #1 장낫이옌 무시 거엔 엇수다. 이거주게. 이건 ᄌᆞ룩, 이건 낫ᄂᆞᆯ, 이게 그 전부터 몇 백 년부터 대장간에서 만들어 놓은 거.(장낫이라고 무엇이라고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자루, 이건 낫날. 이게 그 전부터 몇 백 년부터 대장간에서 만들어 놓은 거.)

104017 @ 여기 이름은 엇수과?(여기 이름은 없습니까?)

104017 #1 아이 그건 띠를 두르는 디. 빼지지 못하곡 흔글흔글 허질 말렌. 써 가믄 움직이지 말렌. 그거 띠라, 띠.(아이 그건 띠를 두르는데. 빠지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지 말라고. 써 가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거 띠라. 띠.)

104017 @ 띠마씨?(띠요?)

104017 #1 으. 낫도 못 줍니께. 못으로.(응. 낫도 못 줍니다. 못으로.)

104017 @ 이름은마씨?(이름은요?)

104017 #1 이름은 ᄯᅳ로 엇수다. 요즘 세상 나난 못으로 허는 건데 그 전에는 못으로 안 헷수다.(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요즘 세상 나니까 못으로 하는 건데 그 전에는 못으로 안 했습니다.)

104017 @ 예.(예.)

104017 #1 대장간에서 딱 맞게 했는데 흔들어 가민 나뭇가지나 뭘로 찔러놩 돌로 닥닥 박으민 ᄃᆞᆫᄃᆞᆫ하주게.(대장간에서 딱 맞게 했는데 흔들어 가면 나뭇가지나 뭘로 찔러 놓고 돌로 딱딱 박으면 단단하지.)

104017 @ 따로 ᄀᆞᆫ는 말은 없고마씨?(따로 말하는 말은 없고요?)

104017 #1 그냥 세역[188]만 박으라. 경헤낫주.(그냥 '세역'만 박아라 그렇게 했었지.)

104019 @ 꼴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꼴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1 쉐질메로 날란. 근데 혼자만은 못헤. 될 수 이시면은 둘리. 이 사람이 다섯 뭇을 붙지면은 이 사람도 다섯 뭇을 붙져줘야헤. 뿔리.(소길마로 날랐어. 그런데 혼자만은 못 해. 될 수 있으면 둘이. 이 사람이 다섯 뭇을 붙이면 이 사람도 다섯 뭇을 붙여줘야 해. 빨리.)

104019 @ 아.(아.)

188) '세역'은 무엇을 물릴 때에 그 사이에 물리는 나뭇조각 따위를 말한다.

104019 #1 경 안 허면 기울어져불어.(그렇게 안 하면 기울어져버려.)

104019 @ 촐도 곡촐이 따로 이수과?(꼴도 곡식 꼴이 따로 있었습니까?)

104019 #1 촐이옌 헌게 곡식에 그 저 짚을 헌 것을 곡초옌 허는 건데 곡띠짚[189]이렌 허주.(꼴이라고 하는게 곡식에 그 저 짚을 한 것을 곡초라고 하는 건데 '곡띠집'이라고 하지.)

104019 @ 촐 뭇하고 곡띠짚 뭇하고 한 발이여 허믄 그 양이 다릅니까?(꼴 뭇하고 '곡띠집' 뭇하고 한 발이여 하면 그 양이 다릅니까?)

104019 #1 틀려. 다 틀려.(달라. 다 달라.)

104019 @ 아.(아.)

104019 #1 촐은 한 발이 사십 뭇.(꼴은 한 발이 사십 뭇.)

104019 @ 아.(아.)

104019 #1 헤벤이서는 삼십 뭇을 잡읍니다. 헤벤이는 이 낫으로 비는 사름이 어섯어. 그냥 좁음이로만 전부 비었다 말입니다.(해변 마을에서는 삼십 뭇을 잡습니다. 해변 마을에서는 이 낫으로 베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잡음으로만 전부 베었다 말입니다.)

104019 @ 아.(아.)

104019 #1 헤벤은 삼십 뭇이 한 발이고. 송당은 사십 뭇이 한 발이라. 요 걸로 비어근에 묶으는 걸 봐봐야 희안헤여.(해변 마을은 삼십 뭇이 한 발이고. 송당은 사십 뭇이 한 발이라. 요 걸로 베어서 묶는 걸 봐봐야 희한해.)

104019 @ 아.(아.)

104019 #1 묶으는 걸. 이걸로 한 뭇 한 단 할 정도로 비어가민 요쪽으로 잡아 치는 거라예.(묶는 걸. 이걸로 한 뭇 한 단 할 정도로 베어가면 요쪽으로 잡아 치는 거야.)

104019 @ 예.(예.)

104019 #1 잡아 치면은 또 그걸 비어서 모두왕 확 뒤집어.(잡아 치면 또 그걸 베어서 모아 확 뒤집어.)

104019 @ 예.(예.)

104019 #1 뒤집어 놓으면은 그 제라하게 잘 비어 들어간 것은 깨끗하게 잘 비어지고 가운데 너덜거리는 게 엇곡.(뒤집어 놓으면 그 제대로 잘 베어 들어간 것은 깨끗하게 잘 베어지고 가운데 너덜거리는 게 없고.)

104019 @ 예.(예.)

104019 #1 줄바로 비지 못허는 사름은 그 속이 살아.(똑바로 베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이 살아.)

104019 @ 예.(예.)

104019 #1 이쪽으로 비어가곡 이쪽으로 열 번, 또 이쪽으로 열 번 비어가면 가운데가 살아있어.(이쪽으로 베어가고 이쪽으로 열 번, 또 이쪽으로 열 번 베어가면

189) '곡띠집'은 곡식의 짚을 따로 부르는 말이다.

가운데가 살아있어.)

104019 @ 예.(예.)

104019 #1 경헌데 그게 쭉 비어지면은 기술적으로 당겨내엉 톡 뒤집으면은 묶으는 디도 막 수월헌데.(그런데 그게 쭉 베어가면 기술적으로 당겨내서 탁 뒤집으면 묶는 것도 막 수월한데.)

104019 @ 예.(예.)

104019 #1 경 안행 개판으로 놓은데 그걸 모두왕 물면서 묶으젠 허민 시간이 많이 걸려불어.(그렇게 안 해서 개판으로 놓은데 그걸 모아 말면서 묶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

104019 @ 아.(아.)

104019 #1 게난 이 낫으로 빈 것은 확 걷엉 무껑 던져 불기 전까지 묶으는 사름이 이서나서.(그러니까 이 낫으로 벤 것은 확 걷어서 묶어 던져 버리기 전까지 묶는 사람이 있었었어.)

104019 @ 아.(아.)

104019 #1 그렇게 동작이 뿔라. 하루 몇 벡 뭇 씩 무껑 돈도 벌곡 허는 사름들이 이서나서.(그렇게 동작이 빨라. 하루 몇 백 뭇 씩 묶어서 돈도 벌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104019 @ 예.(예.)

104019 #1 우린 군대 가부난 몰랐지만 이 낫으로 촐을 비는 사름들은 기술자라 낫수다.(우린 군대 가버리니 몰랐지만 이 낫으로 꼴을 베는 사람들은 기술자였습니다.)

104019 @ 예.(예.)

104019 #1 우리 할망도 모든 것을 남한테 떨어지게 안 헤봐십주. 팔십 넘어도 일이 안 떨어져.(우리 할머니도 모든 것을 남한테 떨어지지 않게 해봤습니다. 팔십 넘어도 일이 안 떨어져.)

104019 @ 예.(예.)

104019 #1 오늘도 노인회관 가난 할망 일 갓지? 허난 야. 헷주. '잘도 뎅겨.' 경들 허는데 오렌만 허난 어떵.(오늘도 노인회관 가니까 할머니 일 갔지? 하니까 야. 했지. 잘도 다녀. 그렇게들 하는데 오라고만 하니 어떻게.)

104019 @ 일을 꼼꼼하게 잘 헤부난.(일도 꼼꼼하게 잘 해버리니까.)

땔감

104022 @ 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1 지들커? 헤남 뿐이꽈. 지들커들은 다 알암구나.(지들커? 했기만 이겠습니까. 땔감들은 다 알고 있구나.)

104022 @ 예.(예.)

104022 #1 하이고. 그게 다 등짐으로 다 지어와수다. 척쉐에 쉐 출리지 안 허고.(하이고. 그게 다 등짐으로 다 지어 왔습니다. '척쉐'에 소 차리지 안 하고.)

104022 @ 예.(예.)

104022 #1 구루마 쉐가 경 ᄆᆞ음대로 아니 뒈낫수다. 경헤도 중 이상 중하에서는 쉐ᄆᆞᆯ도 경 엇어수다.(달구지 소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중 이상 중하에서는 마소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104022 @ 다 등에 지엉.(다 등에 지어서.)

104022 #1 등으로 지엉.(등으로 지어서.)

104022 @ 예.(예.)

104022 #1나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나 일곱 살에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데 어머니 슬하에서 살앗는데.(나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나 일곱 살에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데 어머니 슬하에서 살았는데.)

104022 @ 예.(예.)

104022 #1 지들커도 등으로. 먹을 것도 등으로 지엉. 뭐이든지 어깨로 실어 날아야 돼.(땔감도 등으로. 먹을 것도 등으로 지어서. 뭣이든지 어깨로 실어 날라야 돼.)

104022 @ 지들커는 뭐뭐 헤낫수과?(땔감은 뭐뭐 했었습니까?)

104022 #1 지들커는 우리 땔감인데, 검질게. 그 당시에는 그 비질 안 혜영 간세로. 낫 안 허민 못 비니까. 벌초 안헙니까 양. 벌초헤나믄 그걸 무꺼.('지들커'는 우리 땔감인데, 김. 그 당시에는 그 베질 안 하고 게으름으로. 낫 안 하면 못 베니까. 벌초 안 합니까요. 벌초하고 나면 그걸 묶어.)

104022 @ 무꺼 왕.(묶어 와서.)

104022 #1 그것도 사람마다 촞아노난 엇어. 영 봥 어느 산이 벌초허렌 왔다 허민 영 샀당 널어야 돼. 널면은 놀것보다 가볍다 말이우다.(그것도 사람마다 찾으니까 없어. 이렇게 봐서 어느 산이 벌초하러 왔다 하면 이렇게 섰다가 널어야 돼. 널면 날것보다 가볍다 말입니다.)

104022 @ 아.(아.)

104022 #1 그런 건 안 가져가. 아, 사름이 이건 관리를 했다 헹은에.(그런 건 안 가져가. 아, 사람이 이건 관리를 했다 해서.)

104022 @ 예.(예.)

104022 #1 겨곡 벌초 헤낭 무드락 무드락 담 베끗더레 내친다 말이우다. 내치지 안 헌건 누가 관리 안 했다. 그건 그 다음 사름이 봉그는 거라. 봉강 호미로 강 몬 널어.(그리고 벌초 해놔서 무드락 무드락 담 바깥으로 내친다 말입니다. 내치지 안 한 건 누가 관리 안 했다. 그건 그 다음 사람이 줍는 거야. 주워서 낫으로 가서 모두 널어.)

104022 @ 예. 예.(예. 예.)

104022 #1 널었다 무꺼야 돼.(널었다 묶어야 돼.)

104022 @ 예.(예.)

104022 #1 배 가져강 무꺼놩 지어 아졍 가는 거라.(바 가져가서 묶어놓고 지어 가져가는 거야.)

104022 @ 예.(예.)

104022 #1 눌어 놧당 비가 올 때는 눌에서 아졍 불을 짓곡.(가려 놨다가 비가 올 때는 가리에서 가지고 불을 지피고.)

104022 @ 예.(예.)

104022 #1 날 좋은 때는 그자 그 당시에는 나무도양 웬만한 거는 나무를 떼는데, 급하게 밥허젠 허는 거는 나무를 아니 뗍니다. 그냥 검질로 아졍 와랑와랑[190] 술아서.(날 좋은 때는 그저 그 당시에는 나무도 웬만한 거는 나무를 떼는데, 급하게 밥하려고 하는 거는 나무를 안 뗍니다. 그냥 김으로 가져와서 '와랑와랑' 살라서.)

104022 @ 예.(예.)

104022 #1 낭 ᄀᆞ튼 것은 무신양 떡 ᄀᆞ튼 거나 빙떡 지질 때. 달게도 안 허고 적게도 안 허고 적당하게 할 때. 그런때 써나 수다.(나무 같은 것은 무슨 떡 같은 거나 빙떡 지질 때. 달게도 안 하고 적게도 안 하고 적당하게 할 때. 그런 때 썼었습니다.)

104022 @ 예.(예.)

104022 #1 급하게 불을 쓸 때는 검질로 와랑와랑 술아수다.(급하게 불을 쓸 때는 김으로 '와랑와랑' 살랐습니다.)

104022 @ 낭 허레도 다녀나수과?(나무 하러도 다녔었습니까?)

104022 #1 낭허레 육이오 직전 끝나네. 아이고, 그 말을 ᄀᆞᆯ이민.(나무하러 육이오 직전 끝나서. 아이고, 그 말을 말하면)

104022 @ 낭 헤당 풀기도 허곡마씨?(나무 해다가 팔기도 합니까?)

104022 #1 낭을 풀레 뎅겨수다. 우리가.(나무 팔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104022 @ 기꽈?(그렇습니까?)

104022 #1 우리가 먹을 것도 엇곡 허난에 낭을 헤당 놧당.(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나무를 해다가 놨다가.)

104022 @ 예.(예.)

104022 #1 군대 제대헹 오난 육십 년대, 칠십 년대. 육십 년대 ᄉᆞ시로구나.(군대 제대해서 오니까 육십 년대, 칠십 년대, 육십 년대 무렵이로구나.)

104022 #1 쉐 시믄 쉐구루마 끗엉 가곡, 물 시민 물구루마 끗엉 가곡. 아이고 춤.(소 있으면 소달구지 끌어서 가고, 말 있으면 말달구지 끌어서 가고. 아이고 참.)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3 @ 쉐똥, 말똥도 주웡 헤난마씨?(쇠똥, 말똥도 주워서 했었습니까?)

104023 #1 야. 말똥, 쉐똥은 우리 화덕에 불은 아니 떼어 봐수다.(야, 말똥, 쇠똥

190) '와랑와랑'은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이다.

은 우리 화덕에 불은 안 떼어 봤습니다.)

104023 @ 예.(예.)

104023 #1 왜? 온돌양.(왜? 온돌요.)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온돌. 온돌에서 검질하고 낭을 하면은 화재에 위험헤여. 화재예.(온돌. 온돌에서 김하고 나무를 하면 화재에 위험해. 화재에.)

104023 @ 아.(아.)

104023 #1 위험하기 때문에 말똥하고 쉐똥은 소리 없이 불이 붙드는 거우다. 소리 없이.(위험하기 때문에 말똥하고 쇠똥은 소리 없이 불이 붙는 겁니다. 소리 없이.)

104023 @ 예.(예.)

104023 #1 불이 뭐 나올질 안 헤여. 그믄 말똥 강, 또 날 좋으민양, 그걸 강 구루마를 출령 가나, 사람이 강 줏엉 지어 와야 돼.(불이 뭐 나오질 안 해요. 그러면 말똥 가서, 또 날 좋으면요. 그걸 가서 달구지를 차려서 가나, 사람이 가서 주워서 져 와야 돼.)

104023 @ 어.(응.)

104023 #1 겡 굴묵에 잔뜩 비와.(그리고 아궁이에 잔뜩 비워.)

104023 @ 예.(예.)

104023 #1 비우면은 그 온돌에 저, 게난 어머니쯤은 일허레 가불믄. 굴묵에 불을 지드라 헙니께.(비우면 그 온돌에 저, 그러니까 어머니쯤은 일하러 가버리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라 합니다.)

104023 @ 예.(예.)

104023 #1 불을 지드라 하면은 쉐똥하고 ᄆᆞᆯ똥 막 관 거 허당. 너미 괄아[191]도 요건 뿔리 타불여.(불을 지피라 하면 쇠똥하고 말똥 막 관 거 하다가. 너무 괄아도 이건 빨리 타버려.)

104023 @ 아.(아.)

104023 #1 야. 뿔리 타불면 게난 그때도 꾀를 쓰멍 젖잉 거영 서트멍양.(야. 빨리 타버리면 그러니까 그 때도 꾀를 쓰면서 젖은 거하고 섞으면서요.)

104023 @ 아.(아.)

104023 #1 젖은거영 서트멍 발로 막 드믈리곡, 군대[192]엔 헌게 이수다. 군대.(젖은 거하고 섞으면서 발로 마구 드밀고, 고무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무래.)

104023 @ 예.(예.)

104023 #1 군대 걸로 들믈뢍 지푸라기 헹은에 불 노왕 불 ᄒᆞ쏠 붙영 내불어 놔두민 그게 열두 시간은 충분 가.(고무래 그걸로 드밀고 지푸라기 해서 불 놓고서 불 조금 붙여서 내버려 놔두면 그게 열두시간은 충분히 가.)

---

191) '괄아'는 '불기운이 세어'의 의미이다.

192) '군대'는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T자형의 연장이다.

104023 @ 아.(아.)
104023 #1 야, 야.(야, 야.)
104023 @ 쉐똥, 말똥이마씨?(쇠똥, 말똥이요?)
104023 #1 쉐똥 몰른거나 몰똥 몰른거나.(쇠똥 마른 거나 말똥 마른 거나.)
104023 @ 예.(예.)
104023 #1 장작불보단 이건 특이헙주.(장작불보다는 이건 특이하지요.)
104023 @ 아.(아.)
104023 #1 겨곡. 장작불 불치보단.(그리고 장작불 불티보단.)
104023 @ 예.(예.)
104023 #1 그 불 때 논 게. 그 몰똥 쉐똥 굴묵불치가 걸름이 걸어[193].(그 불 때 놓은 게. 그 말똥 쇠똥 아궁이 불티가 거름이 걸어.)
104023 @ 걸름으로?(거름으로?)
104023 #1 걸름으로.(거름으로.)
104023 @ 아.(아.)
104023 #1 모물 깔 때. 특히 그런 불치가 특흡주게. 게근에 그게 퇴비 역할을 많이 헷수다. 옛날은.(메밀 깔 때. 특히 그런 불티가 특효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퇴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옛날은.)
104023 @ 예.(예.)
104023 #1 그렇다고 헤서 몰똥 쉐똥 이성 밧디 강 어디 경 다 뿌릴 수가 이수과?(그렇다고 해서 말똥 쇠똥 있어서 밭에 가서 어디 그렇게 다 뿌릴 수 가 있습니까?)
104023 @ 음.(음.)
104023 #1 야, 겨난.(야, 그러니까.)
104024 @ 솔가지 긁으레 줏으레 다녀나수과?(솔가지 긁으러 주으러 다녀났습니까?)
104024 #1 솔잎은 요 중간. 저 헤벤에.(솔잎은 요 중간. 저 해변에.)
104024 @ 아.(아.)
104024 #1 지들커 어슬 때.(땔감 없을 때.)
104024 @ 이 동네는 경 안 헙니까?(이 동네는 그렇게 안합니까?)
104024 #1 이 동네는 경 안 헤봐수다. 이 동네는 검질이 많으니까.(이 동네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이 동네는 김이 많으니까.)
104024 @ 아.(아.)
104024 #1 검질헹. 수풀이 많으니까.(김매서 수풀이 많으니까.)
104024 @ 아.(아.)
104024 #1 헤벤이는 흔 두어 참썩 올라왕 그거 글겡이로 걷엉 답[194]을 짓엉 지

193) '걸어'는 흙에 식물의 양분이 될 성분이 많아의 의미이다.
194) '답'은 큰 돌들을 좀 너르고 둥그렇게 탑처럼 높이 쌓아올린 담을 말한다.

게 지엉 가야돼.(해변에는 한 두어 참씩 올라와서 그거 호미로 걷어서 담을 지어서 지게 지어서 가야돼.)

104024 @ 예.(예.)

104024 #1 야, 밑에 사름들은.(야, 밑에 사람들은.)

104024 @ 이 동네는 그런 건 엇어낫구나예.(이 동네는 그런 건 없었군요.)

104024 #1 야.(야.)

104026 @ 이 동네 숫은 헤낫수과?(이 동네 숯은 했었습니까?)

104026 #1 숫, 야. 숫 말엔양. 헤벤 사름들은 숫은 잘 모릅니다.(숯, 예. 숯 말엔. 해변 사람들은 숯은 잘 모릅니다.)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이딘양, 저 대천동 우에 원댕이드르[195], ᄎᆞ낭[196]밧이라고. 곧지 안헙디까? 초기 나무가 ᄎᆞ남이라.(여기는요, 저 대천동 위에 '원댕이드르', 'ᄎᆞ남밧'이라고. 말하지 않합니까? 버섯 나무가 'ᄎᆞ남'이야.)

104026 @ 아 맞다. ᄎᆞ남.(아 맞다. 'ᄎᆞ남'.)

104026 #1 원댕이 드르, ᄎᆞ남밧이라고 저, 대천동 우에.('원댕이 드르', 'ᄎᆞ남밧'이라고 저, 대천동 위에.)

104026 @ 예.(예.)

104026 #1 골아도 위치도 잘 모를 거라. 모르는 데. 그 거기가 흔 백만평 더 뒈우다. 거기 들어갓당은 까딱하당 질 일러.(말해도 위치도 잘 모를 거야. 모르는 데. 거기가 한 백만 평 더 됩니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까딱하다가 길 잃어.)

104026 @ 예.(예.)

104026 #1 ᄎᆞ낭밧을 숫을, 숫장사를.('ᄎᆞ낭밧' 숯을. 숯장사를.)

104026 @ 숫장사도 헤낫수과?(숯장사도 했었습니까?)

104026 #1 옛날은양 위신상 고사리 장사, 숫장사를 천헌 걸로 봐수다.(옛날은 위신상 고사리 장사, 숯장사를 천한 걸로 봤습니다.)

104026 @ 안 좋은 걸로 봣구나예.(안 좋은 거로 봤군요.)

104026 #1 예. 천한 걸로 봔에.(예. 천한 걸로 봐서.)

104026 @ 예.(예.)

104026 #1 먹엉 살젠 허난 고사리도 혼두 근 허민 세화장에 강 풀곡.(먹고 살려고 하니까 고사리도 한 두 근 하면 세화장에 가서 팔고.)

104026 @ 예.(예.)

104026 #1 숫도 먹엉 살젠 허민 원댕이드르 ᄎᆞ낭밧디 강 숫을 묻으면은.(숯도 먹고 살려고 하면 '원댕이드르' 'ᄎᆞ낭밧'에 가서 숯을 묻으면.)

104026 @ 예.(예.)

104026 #1 나대라고 이수다. 장호미양. 그때는 톱도 흔하지 안 헷수다.('나대'라

195) '원댕이드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지명이다.
196) 'ᄎᆞ낭'은 참나무, 떡갈나무를 이른다.

고 있습니다. ‘장호미’요. 그때는 톱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요즘은 돈만 주민 흔했는데 나대로 하고 호미로 헹 숫을 묻습니다. 나무를 짤랑 낭을 요만씩 짤라.(삼십 센티 미터 정도)(요즘은 돈만 주면 흔했는데 ‘나대’하고 호미로 해서 숯을 묻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요만큼 잘라.)(삼십 센티 미터 정도.)

104026 @ 요만치씩예?(요만큼씩요?)

104026 #1 짤라 놔서 굵은 놈은 노면 젤 우에 갑니다. 제일 ᄀᆞ는 놈은 밑에.(잘라 놔서 굵은 놈은 놓으면 젤 위에 갑니다. 제일 가는 놈은 밑에.)

104026 @ 아.(아.)

104026 #1 이 숫이옌 헌 게 우에서부터 불이 믄여 타불여.(이 숯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불이 먼저 타버려.)

104026 @ 아.(아.)

104026 #1 탕 알레레 가.(타서 아래로 가.)

104026 @ 예.(예.)

104026 #1 에, 겨난 그 숫 안 묻어난 사름은 모릅니께.(예, 그러니까 그 숯 안 묻어난 사람은 모릅니다.)

104026 @ 숫 묻는 방법도 이수과?(숯 묻는 방법도 있습니까?)

104026 #1 게난 묻는 게 바로 그거라, 요만씩씩 ᄌᆞ르면 한 삼십 센티, 사십 센티씩 자르는 거라.(그러니까 묻는 게 바로 그거야. 요만큼씩 자르면 한 삼십 센티, 사십 센티씩 자르는 거야.)

104026 @ 예.(예.)

104026 #1 이건 뒈도록 이면 쫄르게. 길면 잘 안 뒈는 거라.(이건 되도록 이면 짧게. 길면 잘 안 되는 거야.)

104026 @ 예.(예.)

104026 #1 쫄르게 허는데 숫낭을 재웁젠 허면은 그게 좀 어렵지.(짧게 하는데 숯나무를 재우려고 하면 그게 좀 어렵지.)

104026 @ 예.(예.)

104026 #1 만약에 우리 서너니 발 영 혜영 기걸 재웁나 이거라.(만약에 우리 서너네 발 이렇게 해서 그걸 재운다 이거야.)

104026 @ 재와마씨?(재워요?)

104026 #1 재운다는 건 그 끈은 놈을 하나하나 세와.(재운다는 건 그 끊은 놈을 하나하나 세워.)

104026 @ 세와마씨?(세워요?)

104026 #1 으.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ᄁᆞ지 넘으면은 우리 키가 모지련 ᄒᆞᆨ을 못 올려.(응.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까지 넘으면 우리 키가 모자라 흙을 못 올려.)

104026 @ 아.(아.)

104026 #1 계속 최고 헤야 삼 단계를 올려. 나무를.(계속 최고 해야 삼 단계를 올려. 나무를.)

104026 @ 그 위에 흙을 올리거라부난예?(그 위에 흙을 올리는 거라서요?)

104026 #1 겨난. 나중에 혹을 올려야 뭴 거라 부난예 낭을 궤우는디.(그러니까 나중에 흙을 올려야 될 거여서 나무를 괴는데.)

104026 @ 예.(예.)

104026 #1 일 단계 돌아가멍 죽 궤어낭.(일 단계 돌아가면서 쭉 괴어놔서.)

104026 @ 예.(예.)

104026 #1 이 단계 돌아가멍 궤와.(이 단계 돌아가면서 괴어.)

104026 @ 예.(예.)

104026 #1 궤운다는 것은 낭을 ᄌᆞ근ᄌᆞ근 쌓은다는 말입주.(괸다는 것은 나무를 차근차근 쌓는다는 말이지.)

104026 @ 예.(예.)

104026 #1 궤우민 삼 단계 ᄁᆞ지 하면은 우리 키 ᄁᆞ지 뭰단 말이우다양.(괴면 삼 단계 까지 하면 우리 키까지 된단 말입니다.)

104026 @ 아.(아.)

104026 #1 허면은 혹을 팡 올리게 뭬민 힘이 들어. 게난 삼 단계를 넘지 말앙 걸 ᄆᆞᆫ 궤아 논다 말이우다.(하면 흙을 파서 올리게 되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삼 단계를 넘지 말고 그걸 모두 괴어 놓는다 말입니다.)

104026 @ 아.(아.)

104026 #1 벵하게 궤아 노면은 그 다음에 그 요즘은 비니루나 있나, 검질 어웍.(뱅하게 괴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요즘은 비닐이나 있나, 김 어욱.)

104026 @ 예.(예.)

104026 #1 어웍 비어당 그 주위를 빙하게 막습니다. 혹 들어가지 못하게, 양.(어욱 비워다가 그 주위를 뱅하게 막습니다. 흙 들어가지 못하게, 양.)

104026 @ 이추룩마씨?(이렇게요?)

104026 #1 으으으. 저저, 저추룩.(으으으. 저저. 저렇게.)

104026 @ 아.(아.)

104026 #1 빙 둘러놩 혹을 올리는 거라.(빙 둘러 놓고 흙을 올리는 거야.)

104026 @ 예.(예.)

104026 #1 여기 돌 한 도리 쌓앙.(여기 돌 한 도량 쌓아서.)

104026 @ 예.(예.)

104026 #1 혹이 넘쳐 가민 두 도리를 쌓아.(흙이 넘쳐 가면 두 도량을 쌓아.)

104026 @ 예.(예.)

104026 #1 삼 단계 올린 건 다섯 도리민 됩니다.(삼 단계 올린 건 다섯 도량이면 됩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돌이 이 정도 뒌 돌이면은.(돌이 이 정도 된 돌이면.)
104026 @ 아.(아.)
104026 #1 게민 삼 단계에서 그 다섯 도리를 쌓아야 돼.(그러면 삼 단계에서 그 다섯 도량을 쌓아야 돼.)
104026 @ 예.(예.)
104026 #1 다섯 도리를 쌓아야 겅헤야 일 메타 오십 쯤 남아.(다섯 도량을 쌓아야 그렇게 해야 일 미터 오십 쯤 남아.)
104026 @ 예.(예.)
104026 #1 그 남으면은 그걸 마무리시키기 위헤서 혹을 막 올린단 말입니다.(그 남으면 그걸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흙을 마구 올린단 말입니다.)
104026 @ 아.(아.)
104026 #1 게민 그 검질양, 검풀이 다 가려집니께.(그러면 그 김요, 김이 다 가려지잖아요.)
104026 @ 예.(예.)
104026 #1 가려지면은 제일 쳇 번 쌀 때 구멍을 아궁이, 아궁이를 네 개나 세 개를 냅니다.(가려지면 제일 첫 번 켤 때 구멍을 아궁이, 아궁이를 네 개나 세 개를 냅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쳇 번 쌀 때, 그 아궁이를 요즘은 기름이나 있나.(첫 번 켤 때 그 아궁이를 요즘은 기름이나 있지.)
104026 @ 예.(예.)
104026 #1 아궁에 싸아 가지고 중간엔 신착, 헌 신착양.(아궁이에 켜 가지고 중간엔 신짝, 헌 신짝요.)
104026 @ 아. 초신마씨?(아. 짚신요?)
104026 #1 초신 말앙.(짚신 말고.)
104026 @ 그냥 신발마씨?(그냥 신발요?)
104026 #1 중간에 그냥 고무신착을 놧지.(중간에 그냥 고무신짝을 놨지.)
104026 @ 아.(아.)
104026 #1 그 전이는양 남신 썩은 놈.(그 전에는 나막신 썩은 놈.)
104026 @ 예.(예.)
104026 #1 겡 헹 가운데 놔 낭 나무를 싼단 말이여.(그렇게 해서 가운데 놔 놓고 나무를 쌓는단 말이야.)
104026 @ 예.(예.)
104026 #1 나무를 싸면은 연통을 고망을 네 개나 세 개를 냅니다.(나무를 쌓으면 연통을 구멍을 네 개나 세 개를 냅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내면은 불 지르는 굼기가 별도로 또 이서.(내면 불 지르는 구멍이 별도로 또 있어.)

104026 @ 아, 굼기가 별도로.(아, 구멍이 별도로.)

104026 #1 야,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재우면은 여기에 불쏘시게, 불쏘시게가 들어가는 거.(예,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재우면 여기에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들어가는 거.)

104026 @ 아, 가운데에.(아, 가운데에.)

104026 #1 어. 게믄 불쏘시게 들어간 후 그 구멍은 나중에 다 싸 노민 그 고망으로 불을 지른단 말이우다, 양.(어. 그러면 불쏘시개 들어간 후 그 구멍은 나중에 다 쌓아 놓으면 그 구멍으로 불을 지른단 말입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고망 연통이 다 이시니까.(구멍 연통이 다 있으니까.)

104026 @ 예.(예.)

104026 #1 겡 그 고망으로 그 삭은 나무에 불을 붙엉 놀 나무에 뿔리 붙어 불민 사름이 애를 먹지 안 허는디.(그렇게 그 구멍으로 그 삭은 나무에 불을 붙여서 생 나무에 빨리 붙어 버리면 사람이 애를 먹지 안 하는데.)

104026 @ 예.(예.)

104026 #1 그 놈우 삭은 나무는 다 붙어 불곡.(그 놈의 삭은 나무는 다 붙어 버리고.)

104026 @ 야이는 안 타불곡. 하하하.(이것은 안 타 버리고. 하하하.)

104026 #1 야이는 아니 탕 애 먹어불여. 애 먹어부는 거라.(이것은 아니 타서 애 먹어버려. 애 먹어버리는 거야.)

104026 @ 하하하.(하하하.)

104026 #1 햐, 요거 미칠 노릇이라.(햐, 이거 미칠 노릇이야.)

104026 @ 예.(예.)

104026 #1 그믄 또 삭은 낭 헤당 무껑 또 찔릅니다.(그러면 또 삭은 나무 해다가 묶어서 또 찌릅니다.)

104026 @ 예. 또 찔러예?(예. 또 찔러요?)

104026 #1 예. 계속.(예. 계속.)

104026 @ 계속마씨?(계속요?)

104026 #1 야, 놀 낭 탈 때ᄁᆞ지.(야, 생 나무 탈 때까지.)

104026 @ 예.(예.)

104026 #1 경허면은 불써 놀 낭은 이 주위에 세운 것은 까는 존존한 거고.(그렇게 하면 벌써 생 나무는 이 주위에 세운 것은 가는 자잘한 거고.)

104026 @ 예.(예.)

104026 #1 우에는 막 굵은 거라 말이우다.(위에는 마구 굵은 거라 말입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게민 이 화열로 우터레 불리 문여 올라.(그러면 이 화열로 위로 불이 먼저 올라.)

104026 @ 아.(아.)

104026 #1 올르면은 그 연기 나는 거 알아집니다. 흑 우로.(오르면 그 연기 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흙 위로.)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야, 거민 흑 우로. 아, 불이 어느 정도 붙엇구나.(야, 그러면 흙 위로. 아, 불이 어느 정도 붙었구나.)

104026 @ 예.(예.)

104026 #1 경허민 이제 그게 이십 사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기서.(그러면 이제 그게 이십 사 시간을 기다려야 돼. 거기서.)

104026 @ 음.(음.)

104026 #1 그게 이땅 타가면은 숫이 뒈면은 흑 부덩지가 터지는 수가 이서.(그게 이따가 타가면 숯이 되면 흙 '부덩지'가 터지는 수가 있어.)

104026 @ 아.(아.)

104026 #1 터져 불여.(터져 버려.)

104026 @ 그믄 어떵헤마씨?(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4026 #1 터지믄 불이 확 올라와.(터지면 불이 확 올라와.)

104026 @ 헤?(예?)

104026 #1 불이 확, 올라오민 그 저 불 날 거 아닙니까.(불이 확 올라오면 그 저 불 날 거 아닙니까.)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그런 것이 불안헤서 우리가 숯을 묻으민 거기 밤을 살아야 돼.(그런 것이 불안해서 우리가 숯을 묻으면 거기 밤을 살아야 돼.)

104026 @ 아.(아.)

104026 #1 밥 헹 먹으면서.(밥 해서 먹으면서.)

104026 @ 집 짓엉마씨?(집 지어서요?)

104026 #1 자는데 그 불을 흑이 터지게 뒈면 이만썩 터졍은에 사름 애 멕입니다게.(자는데 그 불을 흙이 터지게 되면 이만큼씩 터져서 사람 애 먹입니다.)

104026 @ 음.(음.)

104026 #1 겨면은 그 검질들을 헤다 놓읍니다. 어웍 ᄀᆞ튼 거 비어당.(그러면 그 검불들을 해다 놓습니다. 어욱 같은 거 베어다가.)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구멍 막기 위헤서.(구멍 막기 위해서.)

104026 @ 예.(예.)

104026 #1 불 터지면은 흑을 지어 넣을 수도 없어.(불 터지면 흙을 지어 넣을 수도 없어.)

104026 @ 터저불어마씨?(터져 버립니까?)

104026 #1 터질게 아니고 속으로 흑이 들어가면은 숯이 문 삭아불여.(터질 게 아니고 속으로 흙이 들어가면 숯이 모두 삭아버려.)

104026 @ 아.(아.)

104026 #1 거기서 불 다 붙어불여.(거기서 불 다 붙어버려.)

104026 @ 아.(아.)

104026 #1 게난 뒈도록 이면 흑 놓기 전에 검질을 몽크렁 확 담으면서 흑을 올리는 거라.(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흙 놓기 전에 김을 몽똥그려서 확 담으면서 흙을 올리는 거야.)

104026 @ 예.(예.)

104026 #1 검질에서 방비를 허는 거라.(검불에서 방비를 하는 거야.)

104026 @ 예.(예.)

104026 #1 경헹 헤야지 겅 안 하면 그냥 숯 몬 삭아불영.(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숯 모두 삭아버려.)

104026 @ 아.(아.)

104026 #1 그냥 재 뒈붑니다. 안네서 불이 살앙.(그냥 재 되어 버립니다. 안에서 불이 살아서.)

104026 @ 아.(아.)

104026 #1 겡헤근에 이제 불 다 돈 줄 알면은 삼단으로 싼 걸 보면은, 내가 아궁이를 세 개, 네 개 내지 안 헙니까?(그렇게 해서 이제 불 다 돈 줄 알면 삼단으로 싼 걸 보면, 내가 아궁이를 세 개, 네 개 내지 안 합니까?)

104026 @ 예.(예.)

104026 #1 영 헹 보면은 불이 봐저.(이렇게 해서 보면 불이 보여.)

104026 @ 보여마씨.(보여요.)

104026 #1 불이 보면은 아, 이쪽은 불이 돌앗구나. 거기는 거즘 다 탔구나. 헤영 검질 노멍 막아가는 거라.(불이 보면 아, 이쪽으로 불이 돌았구나. 거기는 거의 다 탔구나. 해서 김 놓으면서 막아가는 거야.)

104026 @ 막아.(막아.)

104026 #1 연통을 못 허게.(연통을 못하게.)

104026 @ 예.(예.)

104026 #1 그 또 그게 똑ᄀᆞ치 나오질 안 헙니다.(그 또 그게 똑같이 나오질 안 합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저쪽건 혼 삼십분이면 나올건가. 혼 시간이믄 나올건가.(저쪽 건 한 삼십분이면 나올건가. 한 시간이면 나올건가.)

104026 @ 예.(예.)

104026 #1 ᄇᆞᆯ리 헹은 아니 됩니다. 혼 삼십 분이믄 굼기 세 개나 네 개 ᄇᆞᆯ리 나

오는데 경 안 하믄 혼 시간도 두 시간도 더 걸려불여.(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삼십 분이면 구멍 세 개나 네 개 빨리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더 걸려버려.)

104026 @ 음.(음.)

104026 #1 불이 우에서 즈근즈근 내령 붙어 가나 크게 아니 붙어불령은 막 그 시간 걸립니다.(불이 위에서 자근자근 내려서 붙어 가나 크게 안 붙어 버려서는 막 그 시간 걸립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뒷날도 아이 나왕 애 먹는데 영 보면은 또 불이 나와.(뒷날도 안 나와서 애 먹는데 이렇게 보면 또 불이 나와.)

104026 @ 예.(예.)

104026 #1 그거 허물멍 그 단이 허물어 가면 흑이 허물어질 거 아니꽈. 그믄 불이 벌겅헤여.(그거 허물어서 그 단이 허물어 가면 흙이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이 벌게.)

104026 @ 아.(아.)

104026 #1 벌겅하면 또 검질을 헤서 또 담으멍 흑을 갖당 막 올려놓는 거라.(벌겋게 되면 또 김을 해서 또 담으면서 흙을 갖다 마구 올려놓는 거야.)

104026 @ 예.(예.)

104026 #1 경 안 허면 불을 감당을 못헤여.(그렇게 안 하면 불을 감당을 못해.)

104026 @ 아.(아.)

104026 #1 흑 들어가면 아니 뒈어.(흙 들어가면 안 돼.)

104026 @ 아.(아.)

104026 #1 숯이 아주 재 뒈불여.(숯이 아주 재 돼버려.)

104026 @ 아.(아.)

104026 #1 흑에서 불붙엉은엥에 거기서 그냥 타부는 거라.(흙에서 불붙고 나서 거기서 그냥 타버리는 거야.)

104026 @ 음.(음.)

104026 #1 숯이. 야, 경헤여근엥에 숯을 멘든다 말이우다.(숯이. 야, 그렇게 하고 나서 숯을 만든다 말입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멘들면은 바쁘면은 구뎅이드레 구멍을 뚤벙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만들면 바쁘면 구덩이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104026 @ 불 끄젱마씨?(불 끄려고요?)

104026 #1 뿔리 이것을 풀앙 고구마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우꽈, 양?(빨리 이것을 팔아서 고구마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4026 @ 예, 하하.(예, 하하.)

104026 #1 경허곡 경허지 안 허는 사름은 이십사 시간이나 스십 팔 시간을 그

냥 기다려.(그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십사 시간이나 사십 팔 시간을 그냥 기다려.)

104026 @ 음.(음.)

104026 #1 기다리당 있당 보민 간혹 불이 이십니다. 가당 파당 보민.(기다리면서 있다 보면 간혹 불이 있습니다. 가다가 파다 보면.)

104026 @ 아, 예.(아, 예.)

104026 #1 겨민 그 숯들이 겅 잘 뒈어. 아무래도 물 준 건 뿔리 나오긴 허는데 삭습니다.(그러면 그 숯들이 그렇게 잘 되어. 아무래도 물 준 건 빨리 나오긴 하는데 삭습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그 숯이 쒜 소리 안 낭 그냥 삭아 붑니다. 잔가지가 많아.(그 숯이 쇠 소리 안 나고 그냥 삭아 버립니다. 잔가지가 많아.)

104026 @ 아.(아.)

104026 #1 ᄇᆞ스레기 안 나오는 겁주게.(부스러기 안 나오는 거지요.)

104026 @ 아, 부스러기.(아, 부스러기.)

104026 #1 예, 부스러기. 경허근에 허곡. 잘 된 건 육지 모냥으로 불케왕 허질 안 헤영 그냥 뭐 허는데.(예, 부스러기. 그렇게 해서 하고. 잘 된 건 육지 모양으로 불 켜서 하질 안 하고서 그냥 뭐 하는데.)

104026 @ 예.(예.)

104026 #1 경형, 딱 카가믄 잘 된 건 쒜 소리가 나. 짜릉짜릉.(그렇게 해서 딱 타가면 잘 된 건 쇠 소리가 나. 쩌렁쩌렁.)

104026 @ 아.(아.)

104026 #1 거, 참. 메멩고냉이[197] 뒈지. 숫이영 허당 보민.(거, 참. '메멩고양이' 되지. 숯하고 하다가 보면.)

104026 @ 메멩고넹이마씨? 하하.('메멩 고양이'요?)

104026 #1 메멩고넹이가 뒈 부는 거라.('메멩고양이'가 되어 버리는 거야.)

104026 @ 시커멍예?(새까맣게요?)

104026 #1 으. 아주 희한하주.(으. 아주 희한하지.)

104026 @ 하하.(하하.)

104026 #1 게난 옛날도 숫굿디 들어난 놈 모냥, 모냥도 메멩 고넹이 뒈연. 영 골아낫주.(그러니까 옛날도 숯 구덩이에 들었던 놈 모양, 모양도 '메멩 고양이' 되었어. 이렇게 말했었지.)

104026 @ 숫굿디 들어난?(숯 구덩이 들었던?)

104026 #1 으. 숫굿디. 숫굿디 들어난 놈이나? 영 헤난.(응. 숯 구덩이. 숯 구덩이. 들었던 놈이나? 이렇게 했었어.)

197) '메멩고냉이'는 숯 작업을 하면 세수를 해야 할 만큼 재를 뒤집어 쓴 모습이라서 고양이 세수를 하는 고양이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메멩은 고양이 울음소리이거나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이다.

104026 @ 숫굿디는 어디마씨?(숯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104026 #1 숫 그, 무둠에 그, 헤낫다 허는 말입주게. 숫 구뎅이에 들어난 놈이다 허는 말.(숯 그, 모둠에 그, 했었다 하는 말입니다. 숯 구덩이에 들었던 놈이다 하는 말.)

104026 @ 숫 구덩이에 들어난 사름이다. 응.(숯 구덩이에 들었던 사람이다. 응.)

104026 #1 숫 묻어난 놈은 어디 손이고 몸이고 궂게 됩니다.(숯 묻어난 놈은 어디 손이고 몸이고 궂게 됩니다.)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흑광 연기에 막 싸와노민.(흙하고 연기에 마구 싸우면.)

104026 @ 음.(음.)

104026 #1 겡헤 노민 그놈의 숫을 다. 숫을 두드려 가면은양 쒜 소리 나멍 뚝뚝 졸라지는 게 이수다.(그렇게 놓으면 그놈의 숯을 다. 숯을 두드려 가면요. 쇠 소리 나면서 딱딱 잘라지는 게 있습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졸라져.(잘라져.)

104026 @ 예.(예.)

104026 #1 게난 긴 놈은 삼분의 일 남곡 밑에 세운 놈은 삼분의 이 남읍니다. 언제나.(그러니까 긴 놈은 삼분의 일 남고, 밑에 세운 놈은 삼분의 이 남습니다. 언제나.)

104026 @ 예.(예.)

104026 #1 어떤 젱이가 와서 하더라도.(어떤 쟁이가 와서 하더라도.)

104026 @ 예.(예.)

104026 #1 우에 것은 끄는 게 이정도 된다하면 ᄀᆞ치 불타 불여.(위에 것은 가는 게 이 정도 된다하면 같이 불타 버려.)

104026 @ 예.(예.)

104026 #1 알로 불이 나오면은 위에 것은 타 가지고 밑으로 왔구나.(아래로 불이 나면 위에 것은 타서 밑으로 왔구나.)

104026 @ 예.(예.)

104026 #1 그 숫 구뎅이라는 건, 숫이라는 건 불이 우에서부터 붙엉 내령오지 아래 건 붙으는 법이 엇수다. 먼여.(그 숯 구덩이라는 건, 숯이라는 건 불이 위에서부터 붙어서 내려오지. 아래 것은 붙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104026 @ 음.(음.)

104026 #1 야. 게난 아래 거는 ᄀᆞ는 것만 노는 거라. 하여튼 끄는 거. 우에는 막 굵은 걸 놓고.(야. 그러니까 아래 거는 가는 것만 놓는 거야. 하여튼 가는 거. 위에는 막 굵은 걸 놓고.)

104026 @ 아.(아.)

104026 #1 예 경허면은 그걸 헤쌍 보면은양, 짜릉짜릉 쒜소리가 나.(예. 그렇게

하면 그걸 헤쳐 보면요, 쩌렁쩌렁 쇠 소리가 나.)

104026 @ 그걸 지엉 강 풉니까?(그걸 지고 가서 팝니까?)

104026 #1 예, 그걸, 이제 숫구뎅이, 숫토리[198], 숫토리라고 이수다.(예, 그걸, 이제 숯구덩이, '숯토리', '숯토리'라고 있습니다.)

104026 @ 그건 뭐마씨?(그건 뭡니까?)

104026 #1 숫토리, 옛날 가마니 역할 허는 숫토리라고 이수다.('숯토리', 옛날 가마니 역할 하는 '숯토리'라고 있습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요만히 한 건데 요만히 둘레가 됩니다. 숫토리라고 헤서.(요만큼 한 건데 요만큼 둘레가 됩니다. '숯토리'라고 해서.)

104026 @ 그레 담아마씨?(거기로 담습니까?)

104026 #1 어웍으로 그걸 짜.(어욱으로 그걸 짜.)

104026 @ 어웍으로마씨?(어욱으로요?)

104026 #1 어웍으로 우리 뜸[199] 짜듯.(어욱으로 우리 뜸 짜듯.)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뜸 짜듯. 어웍으로 뜸 클 헤놩.(뜸 짜듯. 어욱으로 뜸 틀 해놓고.)

104026 @ 뜸 클로.(뜸 틀로.)

104026 #1 예. 뜸클로. 그게 요만씩 헌 겁주. 요만씩 지러기가 한 거라.(예. 뜸틀로. 그게 요만큼 한 거지. 요만큼 길이가 한 거야.)

104026 @ 지러기가.(길이가.)

104026 #1 야. 저 뜸은 나 발로 한 발 뒈지만은. 숫토리헤서. 우리말로 가마니라.(야. 저 뜸은 내 발로 한 발 되지만. '숯토리'해서. 우리말로 가마니라.)

104026 @ 가마니.(가마니.)

104026 #1 그 숫토리로 헤서 거기에 담아.(그 '숯토리'로 해서 거기에 담아.)

104026 @ 담앙예.(담아요)

104026 #1 양쪽에 검질 놩 봉헤부는 거라.(양쪽에 김 놓고 봉해버리는 거야.)

104026 @ 아.(아.)

104026 #1 양쪽에. 그 숫토리를 짜놩.(양쪽에. 그 '숯토리'를 짜놓고서.)

104026 @ 예.(예)

104026 #1 짜면은 이추룩 카페트 모냥으로 뒈면은 그걸 곱이 끈엉 이어.(짜면 이런 카페트 모양으로 되면 그걸 굽이 끊어서 이어.)

104026 @ 예.(예.)

104026 #1 양쪽을. 게서 이디는 검질 놩 끄나풀로 졸라메곡.(양쪽을. 그래서 여기는 김 놓고 끄나풀로 잘라매고.)

104026 @ 예.(예.)

198) '숫토리'는 숯의 수량 단위이다.

199) '뜸'은 짚, 띠, 부들 따위로 비, 바람, 볕을 막기 위하여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이다.

104026 #1 이쪽은 담아서 검질 놩 무꺼.(이쪽은 담아서 김 놓고 묶어.)

104026 @ 무꺼예?(묶어요?)

104026 #1 으, 으. 경허민 이거 잘 지는 놈은 세 개를 집니다.(응, 응. 그렇게 하면 이거 잘 지는 놈은 세 개를 집니다.)

104026 @ 아.(아.)

104026 #1 이 숫토리에 담은 것을. 담으면은 저 동남 수산.(이 '숯토리'에 담은 것을. 담으면 저 동남 수산.)

104026 @ 예.(예.)

104026 #1 수산, 동남 ᄀᆞ튼 디 가곡, 또 하도.(수산, 동남 같은 데 가고, 또 하도.)

104026 @ 예.(예.)

104026 #1 이 헤벤 부락에.(이 해변 마을에.)

104026 @ 세화리는마씨?(세화리는요?)

104026 #1 세화리. 서화리는 아니고. 서화리를 넘어야 송당이.(세화리. 세화리는 아니고. 세화리를 넘어야 송당.)

104026 @ 아, 세화는 아니고.(아, 세화는 아니고.)

104026 #1 이젠양, 서화리 사름들은 간혹 일본말로 게슴이라고 낭 카논 그 숫을 멘들앙 짓어낫수다. 우리도.(이젠, 세화리 사람들은 간혹 일본말로 '게슴'이라고 나무 탄 그 숯을 만들어 지어낫습니다. 우리도.)

104026 @ 아.(아.)

104026 #1 그 숫 믄 묻을 때는 게슴이라고 낭 카당 그 육지서 식으로 남을 카면은 막불이 불 막 붙은 나무가 있지 안 허꽈?(그 숯 모두 묻을 때는 '게슴'이라고 나무 타다가 그 육지서 식으로 나무가 타면 막불이 불 막 붙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104026 @ 예.(예.)

104026 #1 나무가 이시믄 그 사발 엎어 놩 그걸 숫을 멘들아.(나무가 있으면 그 사발 엎어 놓고 그걸 숯을 만들어.)

104026 @ 아.(아.)

104026 #1 야. 숫을 멘들앙 껏당은에 제사 때에 화리에 불 피왕 고기도 굽곡 뭘 헤나십주.(야. 숯을 만들어서 껐다가 제사 때에 화로에 불 피워서 고기도 굽고 뭘 했었지요.)

104026 @ 아.(아.)

104026 #1 그 숫이옌 헌게양. 이 송당 사름들은 숫이 흔햇지만은 헤벤 사름들은 힘들엇수다.(그 숯이라고 하는 게요. 이 송당 서람들은 숯이 흔했지만 해변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104026 @ 예.(예.)

104026 #1 경헹 지어 가믄 고구마, 숫 한 포에 그 때에 고구마가 거 저 관대

로.(그렇게 해서 지어 가면 고구마, 숯 한 포에 그 때에 고구마가 거 저 관대로.)

104026 @ 예.(예.)

104026 #1 옛날은 말이 이서수다. 시방 관대는 이홉짜리인데.(옛날은 말이 있었습니다. 시방 관대는 이홉짜리인데.)

104026 @ 예.(예.)

104026 #1 관대. 관대로 닷 대, 닷 대를 받아. 근데 그 관대로 고구마가 멫개 들거꽈? 관대에.(관대. 관대로 닷 대, 닷 대를 받아. 근데 그 관대로 고구마가 몇 개 들겠습니까? 관대에.)

104026 @ 아.(아.)

104026 #1 환장헤여.(환장해요.)

10402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26 #1 경헹 강. 것도 막 잘 줘사 닷 대, 닷 대라.(그렇게 해서 가서. 것도 막 잘 줘야 닷 대, 닷 대라.)

104026 @ 예.(예.)

104026 #1 경헤근에 걸 흔 세 포를 정가믄 흔 말 가웃 쯤은. 감저, 고구마 말 가웃 거 뭐이꽈.(그러고 나서 걸 한 세 포를 지어가면 한 말 가웃 쯤은. 감자, 고구마 말 가웃 거 뭡니까?)

104026 @ 하.(하.)

104026 #1 숫토리 ᄒᆞ나만도 못하주게. 숫 한 토리만도 안 뒈주게.('숯토리' 하나만도 못하지. 숯 한 '토리'만도 안 되지.)

104026 @ 예.(예.)

104026 #1 예. 부럭지가. 게서 숫 한토리가 최소한도 흔 이십오 킬로 정도 삼십 킬로 정도 됩니다.(예. 부스러기가. 거기서 숯 한토리가 최소한도 한 이십오 킬로 정도 삼십 킬로 정도 됩니다.)

104026 @ 헤? 아이고. 그믄 세 개를 어떵 지어마씨?(헤? 아이고. 그러면 세 개를 어떻게 집니까?)

104026 #1 게, 배로 지주게. 지게가 없어. 이 송당은.(그럼. 바로 지지. 지게가 없어. 이 송당은.)

104026 @ 아.(아.)

104026 #1 헤벤은 지게가 있는데 송당은 지게에 햇당 우습니다. 다. 지게에 짐 지었젠.(해변은 지게가 있는데 송당은 지게에 했다가는 웃습니다. 다. 지게에 짐 지었다고.)

104026 @ 아.(아.)

104026 #1 게서 그걸 배로 지엉 가는 거라. 배로 지엉 강 바꿩 오는 거라. 그 나 아들놈이 감저도이.(그래서 그걸 참바로 지어서 가는 거야. 참바로 지어서 가서 바꿔 오는 거야. 그 나 아들놈이 감자도요.)

104026 @ 하하하.(하하하.)

104026 #1 옛날 조팝 말했져마는. 조팝도 그거 참 좋은 때.(옛날 조밥 말했지만. 조밥도 그거 참 좋은 때.)

104026 @ 예.(예.)

104026 #1 야, 경헤근에 거 썰어놩 먹곡. 어거지 감저로 때 살앙.(야, 그렇게 하고서 거 썰어놓고 먹고. 억지로 감자로 때 살아.)

104026 @ 응.(응.)

104026 #1 아이 먹으민 굶는 거라.(아니 먹으면 굶는 거야.)

104026 @ 게난예.(그러게요.)

104026 #1 야.(야.)

104026 @ 아까 숫 묻는 건 가메옌 헙니까?(아까 숯 묻는 건 가마라고 합니까?)

104026 #1 숫 가마 아니. 숫토리.(숯 가마 아니. '숯토리.)

104026 @ 아니 거 말앙, 숫 묻을 때마씨.(아니 거 말고, 숯 묻을 때요.)

104026 #1 게난 건 숫굿, 숫굿.(그러니까 그건 '숫굿', 숯 구덩이.)

104026 @ 아. 숫굿.(아. 숯 구덩이.)

104026 #1 숫굿이옌 허는 거주.(숯 구덩이라고 하는 거지.)

104026 @ 음.(음.)

104026 #1 숫가마옌 아니 헤여. 숫굿.(숯가마라고 안 해. 숯 구덩이.)

104026 @ 굿이옌 ᄒᆞ는 구나예.(구덩이라고 하는 군요.)

104026 #1 낭 빙 둘러싸으고 구멍에 검질 올리고 흑 올리고.(나무 뱅 둘러쌓고 구멍에 김 올리고 흙 올리고.)

104026 @ 게난 그건 가마는 아니구나예.(그러니까 그건 가마는 아니군요.)

104026 #1 으. 가마가 아니고 숫굿. 해체 뒈부는 거.(응. 가마가 아니고 숯 구덩이. 해체되어버리는 거.)

104026 @ 아.(아.)

104026 #1 가마는 영구히 보존뒈는 게 가마고.(가마는 영구히 보존되는 게 가마고.)

104026 @ 예. 숫 헐 때 거멍허게 뒈는 건 뭐렌 헤마씨?(예. 숯 할 때 거멓게 되는 건 뭐라고 합니까?)

104026 #1 검뎅이. 숫 검뎅이.(검댕. 숯 검댕.)

104026 @ 검뎅이.(검댕.)

104026 #1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4026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4026 #1 저 선흘 곶에 그 자기 굽던 양반도 죽어 불고. 자기 가메도 허물어불엇주. 게난 이거 숫도 그자 숫굿.(저 선흘 곶에 그 자기 굽던 양반도 죽어버리고. 자기 가마도 허물어버렸지. 그러니까 이거 숯도 그저 숯 구덩이.)

104026 @ 숫굿.(숯 구덩이.)

104026 #1 으.(으.)

104026 @ 장작 때난 다음 나온 걸 숫 말앙 다르게도 부릅니까?(장작 땐 다음 나온 걸 숯 말고 다르게도 부릅니까?)

104026 #1 게슴은 일본 말이고. 숫 망데기[200]엔 ᄒᆞ주게.('게슴'은 일본 말이고. 숯 '망데기'라고 하지.)

104026 @ 숫 망데기마씨? 불 껐을 때 나온 거를 ᄀᆞᆯ읍니까?(숯 '망데기'요? 불 껐을 때 나온 거를 말합니까?)

104026 #1 으. 숫 망데기. 불 껐을 때 공기 통하지 못하게 무신 사발이나 '톡' 엎엉. 거 숫 망데기.(응. 숯 '망데기'. 불 껐을 때 공기 통하지 못하게 무슨 사발이나 '톡' 엎어서. 거 숯 '망데기'.)

104026 @ 음. 숫 망데기.(음. 숯 '망데기'.)

사냥

104028 @ 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28 #1 잡으나 뭐나 사냥 헤나십주.(잡으나 뭐나 사냥 했었지요.)

104029 @ 꿩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꿩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9 #1 예. 꿩도 잡으레 댕겨낫주만은.(예. 꿩도 잡으러 다녔었지만.)

104029 @ 꿩코 나나신가마씨?(꿩 올가미 놨었습니까?)

104029 #1 그 꿩도 머 무신. 옛날은 꿩코 놩 헌 것도 요 ᄒᆞ루기주.(그 꿩도 뭐 무슨. 옛날은 꿩 올가미 놔서 한 것도 요 하루지.)

104029 @ 예.(예.)

104029 #1 그 전이는 꿩 코도 말총. 말총 뽑아가지고 꿩코 놔낫수다. 옛날은.(그 전에는 꿩 올가미도 말총. 말총 뽑아서 꿩 올가미 놨었습니다. 옛날은.)

104029 @ 예.(예.)

104029 #1 시방은 정수리여, 뭐여. 벨 줄이 이성 꿩코를 놩 꿩을 잡앗주만.(시방은 정수리여, 뭐여. 별 줄이 있어서 꿩올가미를 놔서 꿩을 잡았지만.)

104029 @ 예. 어떵 잡는 거꽈?(예. 어떻게 잡는 겁니까?)

104029 #1 헤헤. 아, 꿩코 놔 사주게.(헤헤. 아, 꿩올가미 놔야지.)

104029 @ 꿩코는 어떵 놓는 거꽈? 말총으로 어떵 헤여.(꿩 올가미는 어떻게 놓는 겁니까? 말총으로 어떻게 해요?)

104029 #1 요즘은 정술. 좋은 고기 나끄는 그걸로 ᄒᆞ난 좋은데.(요즘은 정술. 좋은 고기 낚는 그걸로 하니까 좋은데.)

104029 @ 예.(예.)

104029 #1 옛날은 새 잡던 우리가 비둘기를 잡던 꿩을 잡던. 모두 말총으로만 헤서.(옛날은 새 잡던 우리가 비둘기를 잡든 꿩을 잡든. 모두 말총으로만 했어.)

---

200)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이다.

104029 @ 말총으로만.(말총으로만.)

104029 #1 꼬앙.(꼬아서.)

104029 @ 코를 놓는 건 어떵 허는 거마씨?(코를 놓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4029 #1 게난 그게 꿩 다니는 질. 새들은 우로만 다니지만은 꿩은 밑으로만 다닌다 말이우다. 그믄 꿩 다니는 질이 조금 알아집니다.(그러니까 그게 꿩 다니는 길. 새들은 위로만 다니지만 꿩은 밑으로만 다닌다 말입니다. 그러면 꿩 다니는 길이 조금 알아 집니다.)

104029 @ ᄋᆞ시록ᄒᆞᆫ[201] 디.('ᄋᆞ시록ᄒᆞᆫ' 데.)

104029 #1 으. ᄋᆞ시록ᄒᆞᆫ 디. 나가 시방 꿩코를 집안에 들어왕 꿩코를 놧는데게, 들지를 안 헴서.(응. '오시록한' 데. 내가 시방 꿩 올가미를 집안에 들어와서 꿩 올가미를 놨는데. 들지를 안 하네.)

104029 @ 하하하.(하하하.)

104029 #1 하하. 줄바로 아이 놔부난산듸.(하하. 똑바로 안 놔서인지.)

104029 @ 하하.(하하.)

104029 #1 요즘은 그런 걸 허지 안 헴수다만은. 거 이삼십 년 전ᄁᆞ지는 꿩코, 노리코 뭐 난리 나나십주.(요즘은 그런 걸 하지 안 합니다만. 거 이 삼십 년 전까지는 꿩 올가미, 노루 올가미 뭐 난리가 났었지요.)

104029 @ 음.(음.)

104029 #1 벨아벨. 야.(별별. 야.)

104032 @ 족제비 덧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족제비 덫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2 @ 이거 족제비 덧이꽈?(이거 족제비 덫입니까?)

104032 #1 으. 그거 족제비 덧이옌 헷어.(응. 그거 족제비 덫이라고 했어.)

104032 @ 예.(예.)

104032 #1 또 이게 갑이 많이 나가낫수다.(또 이게 값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104032 @ 아.(아.)

104032 #1 야, 족제비 덧이옌 헤영.(야, 족제비 덫이라고 해서.)

104032 @ 아.(아.)

104032 #1 이게. 갑이 많이 나갔는데 이건 저 어디 목장 가면은 이수장 경계에 이 잣담[202]이라고 이수다.(이게. 값이 많이 나갔는데 이건 저 어디 목장 가면 이소장 경계에 이 '잣담'이라고 있습니다.)

104032 @ 예, 예.(예, 예.)

104032 #1 잣담은 뭐냐면 경계를 측량헤분 거라.('잣담'은 뭐냐면 경계를 측량해 버린 거야.)

104032 @ 음.(음.)

---

201) '오시록한'은 되바라지지도 변화롭지도 않아서 구석지고 매우 고요한의 의미이다.
202) '잣담'은 자갈을 쌓아 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이다. 잣벽이라고도 한다.

104032 #1 경계를 측량헹 곱을 긋은 거라.(경계를 측량해서 금을 그은 거야.)
104032 @ 예.(예.)
104032 #1 이건 내 거다. 이건 당신네 거다.(이건 내 거다. 이건 당신네 거다.)
104032 @ 예, 예.(예, 예.)
104032 #1 이런 식으로 헤영 잣담이 있는데. 이 잣담, 족제비는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는 거우다. 속담에.(이런 식으로 해서 '잣담'이 있는데. 이 '잣담', 족제비는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는 겁니다. 속담에.)
104032 @ 아.(아.)
104032 #1 그래서 족제비는 그 잣담에 담 에염 구석 ᄀᆞ튼 디 강 노아.(그래서 족제비는 그 '잣담'에 담 가장자리 구석 같은 데 가서 놓아.)
104032 @ 음.(음.)
104032 #1 구석 ᄀᆞ튼 디 강 노면은 그 뭐, 그디 지나가던 놈은 여기에 고기를 놔.(구석 같은 데 가서 놓으면 그 뭐, 거기 지나가던 놈은 여기에 고기를 놔.)
104032 @ 아, 이 소곱에.(아, 이 속에.)
104032 #1 고기를 요기를 노나, 요기에 노면 (족제비 덫 사진을 보며) 욜로나베 끠 욜로는 못 들어가.(고기를 요기를 놓으나, 요기에 놓으면 (족제비 덫 사진을 보며) 요리로나 밖에 요리로는 못 들어가.)
104032 @ 음.(음.)
104032 #1 게민 일로 들어강 좁아 뎅기면은 이게 키라, 키. 달랭이허멍 이게 탁 털어져.(그러면 이리로 들어가서 잡아 당기면 이게 키라, 키. 달랑하면서 이게 탁 떨어져.)
104032 @ 하하하.(하하하.)
104032 #1 겨민 여기에 돌을 지들루는 거우다. 큰 돌을.(그러면 여기에 돌을 지지르는 겁니다. 큰 돌을.)
104032 @ 음.(음.)
104032 #1 야. 뒈진벵이[203]옝 콱 지둘영 쥑일 수 있는 큰 돌. 뒈진벵이.(야. '뒈진벵이'에 콱 지지르고 죽일 수 있는 큰 돌. 뒈진벵이.)
104032 @ 아.(아.)
104032 #1 겡 탁 노민 여기 잘빠지멍, 요게 탁 잘빠지멍 탁 내려 앉나 말입니다.(그리고 나서 탁 놓으면 여기 자빠지면서, 요게 탁 자빠지면서 탁 내려앉는단 말입니다.)
104032 @ 아.(아.)
104032 #1 내려 앗으면은 족제비나 꿩이던.(내려 가지면 족제비나 꿩이든.)
104032 @ 꿩도?(꿩도?)
104032 #1 으. 새던.(. 새든.)
104032 @ 새도?(새도.)

203) '뒈진벵이'는 내 힘에 딱 들어맞는 것을 이른다.

104032 #1 야. 들어강 요디 거. 뭐 신 거 줍아내엉 뭐 먹젠 헤영은 그냥 죽어.(야. 들어가서 요디 것. 뭐 있는 거 집어내서 뭐 먹으려고 해서는 그냥 죽어.)

104032 @ 음.(음.)

104032 #1 야.(야.)

104032 @ 이건 족제비만 잡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이건 족제비만 잡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104032 #1 족제비만 아니고 거기 들어간 놈은 다 죽어.(족제비만 아니고 거기 들어간 놈은 다 죽어.)

104032 @ 하하하.(하하하.)

104032 #1 족제비만이 아니고.(족제비만이 아니고.)

104032 @ 아.(아.)

104232 #1 겐디 대개 우리가 골을 때는 이걸 족제비 덧이옌 허주게. 대개 족제비 덧.(그런데 대개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걸 족제비 덪이라고 하지. 대개 족제비 덪.)

104032 @ 아. 그믄 꿩은 꿩코, 노리는 노리코옌 헤마씨?(아. 그러면 꿩은 꿩올가미, 노루는 노루올가미라고 합니까?)

104032 #1 으. 노리코여 꿩코여.(으. 노루올가미여, 꿩올가미여.)

104032 @ 아.(아.)

104032 #1 꿩코는 총 맞아 허고게, 노리코는 그 당시에는 끅으로.(꿩올가미는 총 맞아 하고요, 노루올가미는 그 당시에는 칡으로.)

104032 @ 아, 끅으로.(아, 칡으로.)

104032 #1 또 끅이양 엄청나게 질긴 거우다.(또 칡이요 엄청나게 질긴 겁니다.)

104032 @ 음.(음.)

104032 #1 칠팔월 뒈엉 강 끅을 걷어당 솖앙 뿔아. 우리 세탁하듯이.(칠팔월 되서 가서 칡을 걷어다가 삶아서 빨아. 우리 세탁하듯이.)

104032 @ 아.(아.)

104032 #1 그걸 뿔민 그게 하얗게 나옵니다.(그걸 빨면 그게 하얗게 나옵니다.)

104032 @ 아.(아.)

104032 #1 이 길쌈허는 사람 모냥으로 하얗게 나오민. 걸 배를 꼬아.(이 길쌈하는 사람 모양으로 하얗게 나오면. 걸 참바를 꼬아.)

104032 @ 예.(예.)

104032 #1 꿰여근에.(꿰어서.)

104032 @ 예.(예.)

104032 #1 베영광 하면은 노리코도 놔지고.(참바하고 같이 하면 노루 올가미도 놓을 수 있고.)

104032 @ 예.(예.)

104032 #1 물 ᄀᆞ튼 거 쉐ᄀᆞᆮ 은 것도 걸리민 죽어, 그냥.(말 같은 거 쇠 같은 것도 걸리면 죽어, 그냥.)

104032 @ 헤?(헤?)

104032 #1 경헌데 ᄆᆞᆯ, 노리, 쉐ᄒᆞ는 데 가질 말아야 헤여. 가면 위험헤.(그런데 말, 노루, 소하는 데 가질 말아야 해요. 가면 위험해.)

104032 @ 음.(음.)

104032 #1 노리 정도 뎅기는 거나 뭐헤서 허는데, 이거 코는 나무를 영 오그려야 돼.(노루 정도 다니는 거나 뭐해서 하는데 이거 올가미는 나무를 이렇게 오그려야 돼.)

104032 @ 낭을. 무슨 낭을마씨?(나무를. 무슨 나무를요?)

104032 #1 그 주위에 이신 나무.(그 주위에 있는 나무.)

104032 @ 아, 뎅겨 가야 헤마씨?(아, 당겨 가야 합니까?)

104032 #1 으. 노리가 걸리면은 잡아당겨서 넘어지지 않을 낭을 허곡.(응. 노루가 걸리면 잡아당겨서 넘어지지 않을 나무를 하고.)

104032 @ 예.(예.)

104032 #1 경 안 허면은 그냥 끈은 낭. 굵은 거.(그렇게 안 하면 그냥 끊은 나무. 굵은 거.)

104032 @ 예.(예.)

104032 #1 영 ᄀᆞ로 탁 놔.(이렇게 가로 탁 놔.)

104032 @ 예.(예.)

104032 #1 노면 이 알로 코를 노는 거라.(놓으면 이 아래로 올가미를 놓는 거야.)

104032 @ 음.(음.)

104032 #1 그믄 그 알로 지나가는 거라.(그러면 그 아래로 지나가는 거야.)

104032 @ 아, 지나갈 때 콱.(아, 지나갈 때 콱.)

104032 #1 게난 그 구부린 낭은 지날 때 코에 걸리면은 건드리면은 이쪽에 건 창 넘어가.(그러니까 그 구부린 나무를 지날 때 올가미에 걸리면 건드리면 이쪽에 건 쫙 넘어가.)

104032 @ 에? 하하하.(에? 하하하.)

104032 #1 경허곡.(그렇게 하고.)

104032 @ 영 논 건마씨?(이렇게 놓은 건요?)

104032 #1 ᄀᆞᄅᆞ 논 것은 막 끄서 나가.(가로 놓은 것은 막 끌어 나가.)

104032 @ 아. 끄서 나가당 어디레 탁 걸리게.(아. 끌고 나가다가 어디로 탁 걸리게.)

104032 #1 으으. 어디 걸리게.(응응. 어디 걸리게.)

104032 @ 아.(아.)

104032 #1 갸가 걸리지 안 허면은 이디 아장 보민 무진장 끗엉 나가는 거지.(그것이 걸리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보면 무진장 끌고 나가는 거지.)

104032 @ 하하하.(하하하.)

104032 #1 어디 걸리지 안 허면은 막 버둥켜 죽는 거주게. ᄌᆞ미지메.(어디 걸리지 않으면 막 버둥거리면서 죽는 거지. 재미있어.)

104031 @ 지달이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오소리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1 @ 지달이 사냥도 헤낫수과?(오소리 사냥도 했었습니까?)

104031 #1 아이고 말 맙써. 지달이 그 놈우 거.(아이고 말 마세요. 오소리 그놈의 것.)

104031 @ 무사마씨?(왜요?)

104031 #1 지달이 거. 혼 이삼십 메타 땅 팡 들어가야 돼.(오소리 거. 한 이삼십 미터 땅 파서 들어가야 돼.)

104031 @ 아.(아.)

104031 #1 우리 시대에도 지달이를 원.(우리 시대에도 오소리를 원.)

104131 @ 예.(예.)

104031 #1 송당서 날만이 지달이를 잡으레 다닌 사름도 엇일 거주만은.(송당에서 나만큼 오소리를 잡으러 다닌 사람도 없을 거지만.)

104031 @ 하하.(하하.)

104031 #1 경 못된 짓을 헌 거주.(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지.)

104031 @ 하하하.(하하하.)

104031 #1 왜냐? 지달이란 놈이양, 요 중간에 농사를 지엉 나두면은.(왜냐? 오소리란 놈이, 요 중간에 농사를 지어서 나두면.)

104031 @ 예.(예.)

104031 #1 고구마를 놓든 무신 조 같은 모믈 같은 것을 놓든 혼 두 마리 정도면은 괜찮읍니다만은양.(고구마를 놓든 무슨 조 같은 메밀 같은 것을 놓든 한 두 마리 정도면 괜찮습니다만.)

104031 @ 몬 식구가 다 옵니까?(모든 식구가 다 옵니까?)

104031 #1 식구가 오는데 울음소리를 봔에 허믄 막 모여들어. 집 주변에.(식구가 오는데 울음소리를 봐서 하면 막 모여들어. 집 주변에.)

104031 @ 아.(아.)

104031 #1 경허민 농사 밧을 막 망쳐붑니다. 막 젓어불여.(그러면 농사 밭을 마구 망쳐버립니다. 막 휘저어 버려.)

104031 @ 아이고.(아이고.)

104031 #1 게서 ᄀᆞ슬 때는 밤에.(그래서 가을 때는 밤에.)

104031 @ 예.(예.)

104031 #1 이디 호현경이 오곡 핸에.(여기 홀연히 오고는 해서.)

104031 @ 예.(예.)

104031 #1 캄캄한 밤에 특히 ᄒᆞ쏠 ᄇᆞ름 쎈 날이 좋고. 특히 개를 헤삽니다.(캄캄한 밤에 특히 조금 바람 쎈 날이 좋고. 특히 개를 해야 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요즘 똥개들 헤영은.(요즘 똥개들 해서는.)
104031 @ 예?(예?)
104031 #1 저것들은 잡앙 먹으렌 헤도 안 먹어 수다.(저것들은 잡아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습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그 때는 개들이 상당히 좋앗수다.(그 때는 개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개들이 반경 한 오백 메다, 천 메다 이신디 주둥이 영 들르민 지달이 어느 정도 먹는다는 걸 훤허니 알아불여.(개들이 반경 한 오백 미터, 천 미터 있는데 주둥이 이렇게 들면 오소리 어느 정도 먹는다는 걸 훤하니 알아버려.)
104031 @ 아.(아.)
104031 #1 개들이 꿍꿍 헙니다. 게믄 아 이거 뭐있다.(개들이 꿍꿍 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뭐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지달이 사뇽허는 개는 한 오백 메다 천 메다 나가도 담을 아니 뭘여불여.(오소리 사냥하는 개는 한 오백 미터 천 미터 나가도 담을 안 허물어.)
104031 @ 예.(예.)
104031 #1 오소리 흉내내는 개는 한 오백 미터 천 미터 나가도 담을 안 뭘영.(지달이 흉내 내는 개는 한 오백 미터, 천 미터 나가도 담을 안 허물어.)
104031 @ 예.(예.)
104031 #1 지달이 강 추격헤여근엥게 둘려드는데 이 덜된 것들 가민양, 담 올라가멍 담 다 뭘여 불면은.(오소리 가서 추격하고 나서 달려드는데 이 덜된 것들 가면 담 올라가면서 담 다 허물어 버리면.)
104031 @ 아. 하하하하하.(아. 하하하하하.)
104031 #1 이 지달이가 귀가 무지하게 세심한 거우다.(이 오소리가 귀가 무지하게 세심한 겁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게민 뭐 왐다하영 굴에 들어강 방어를 합니다.(그러면 뭐 온다 해서 굴에 들어가서 방어를 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게민 못된 강아지들 강 담들 다 뭘여불민 저 뭘하곡.(그러면 못된 강아지들 가서 담들 다 허물어버리면 저 뭘하고.)
104031 @ 예.(예.)
104031 #1 나 거기 가지 전에. 나 질루던 개는 벌써 오기들 전에 지달이를 강 구멍을 지켜여.(나 거기 가기 전에. 나 기르던 개는 벌써 오기들 전에 오소리를 가

서 구멍을 지켜.)

104031 @ 아.(아.)

104031 #1 구멍을 지킨다 말입니다.(구멍을 지킨다 말입니다.)

104031 @ 똑똑하기가.(똑똑하기가.)

104031 #1 구멍 지키면은 그게 들어오당은에, 겁절에 들어오당 걸립니께.(구명 지키면 그게 들어오다가 겁먹고 들어오다가 걸리잖아요.)

104031 @ 예.(예.)

104031 #1 걸리민양 개 ᄒᆞ나가 지달이 버칩니다.(걸리면요 개 하나가 오소리 힘에 부칩니다.)

104031 @ 하.(하.)

104031 #1 막 개가 울멍 막 앙작[204]ᄒᆞ멍 막 난리가 나.(막 개가 울면서 막 '앙작'하면서 막 난리가 나.)

104031 @ 예.(예.)

104031 #1 그믄 그 다음 간 개가 보조 역할을 헙니께.(그러면 그 다음 간 개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보조 역할을 허민 버쳐.(보조 역할을 하면 힘에 부쳐.)

104031 @ 예.(예.)

104031 #1 워낙 수오로가. 오로가 한 이삼십년 된 것을 수오로옌 헙니께.(워낙 수두더지가. 두더지가 한 이삼 십년 된 것을 수두더지라고 합니다.)

104031 @ 오로는 뭐꽈?(오소리는 뭡니까?)

104031 #1 지달이.(오소리.)

104031 @ 지달이마씨?(오소리요?)

104031 #1 으. 지달이라. 그게 오로옌도 허주.(으. 오소리라. 그게 오소리라고도 하지.)

104031 @ 아.(아.)

104031 #1 그게 이삼십 킬로 나가.(그게 이삼십 킬로 나가.)

104031 @ 무게가마씨?(무게가요?)

104031 #1 으. 무게가.(으. 무게가.)

104031 @ 예.(예.)

104031 #1 게서 그 개 두 개로 버칩니다.(그래서 그 개 두 개로 힘에 부칩니다.)

104031 @ 아.(아.)

104031 #1 버치면은 막 개들이 컹컹 주끄멍 막 사름을 뿔리 불러.(힘에 부치면 막 개들이 컹컹 짖으면서 막 사람을 빨리 불러.)

104031 @ 예.(예.)

104031 #1 불르면은 우린 밤중에 지팽이 작대기.(부르면 우린 밤중에 지팡이 작

204) '앙작'은 어린애가 엄살하며 우는 것이다.

대기.)
104031 @ 음.(음.)
104031 #1 작대기 헹 갑니다. 든든한 걸로.(작대기 해서 갑니다. 든든한 걸로.)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이젠 밤에 엎어지멍 대싸지멍 그 터전 든다[205] 말입니다. 그 개 이신디.(이젠 밤에 넘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그 터져서 달아난다 말입니다. 그 개 있는데.)
104031 @ 예.(예.)
104031 #1 개가 운덴 허는 거우다. 그 주인신디.(개가 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한테.)
104031 @ 예.(예.)
104031 #1 임자 부르는 걸 개가 운덴헙니다.(주인 부르는 걸 개가 운다고 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저기 개 울엄서 뿔리 가봐.(저기 개 울고 있어. 빨리 가봐.)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저, 뭐 ᄒᆞ나 헤서 허멍.(저, 뭐 하나 해서 하면서.)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엎어지멍 들아가당 보민 지달이를 딱 물엉은에 막 개가 풀락 풀락 죽을 정도라.(넘어지면서 달아가다 보면 오소리를 딱 물어서 막 개가 팔락 팔락 죽을 정도야.)
104031 @ 아.(아.)
104031 #1 경허민 호미 가정 가곡양. 든든한 지팽이를 가정갑니다.(그렇게 하면 낫 가지고 가고요. 든든한 지팡이를 가져갑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이 방어책으로.(이 방어책으로.)
104031 @ 예.(예.)
104031 #1 경헹 가민양 혼자만 간 때는 혼자만도 멧 번 뎅겨봣주만은 언제난 짐승를 들앙 가야 헙니다.(그렇게 해서 가면요. 혼자만 간 때는 혼자만도 몇 번 다녀봤지만 언제나 짐승들 데리고 가야 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 그 지달이 사뇽을 가젠 허민.(그 오소리 사냥을 가려고 하면.)
104031 @ 음.(음)
104031 #1 그 때에는 지달이 ᄒᆞᆫ 마리씩 두 마리씩은 지달이를 잡앙 와낫으니까.(그 때에는 오소리 한 마리씩 두 마리씩은 오소리를 잡아 왔으니까.)
104031 @ 예.(예.)

205) '돋다'는 온 힘을 내어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104031 #1 급할 땐 강 호미로 배떼기 체어야 뒈어.(급할 땐 가서 낫으로 배를 째야 되어.)

104031 @ 아.(아.)

104031 #1 배떼기 체영 허면은 개는양 사름 왔다 헤서 방심헹 퐉 내불여.(배 째여서 하면 개는요 사람 왔다 해서 방심해서 팍 내버려.)

104031 @ 아.(아.)

104031 #1 내불민 이 놈이 배설이 끈어져도양 막 혼 이십 메타 좔좔 끗엉가.(내버리면 이 놈이 창자가 끊어져도요 막 한 이십 미터 잘잘 끌고 가.)

104031 @ 아. 아이고.(아, 아이고.)

104031 #1 노리는 혼 오십 메타 더 갑니다.(노루는 한 오십 미터 더 갑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총 맞앙 배설 끈어져도. 노리는.(총 맞아서 창자 끊어져도. 노루는.)

104031 @ 아.(아.)

104031 #1 그것은 쓸개가 엇인 놈이라서.(그것은 쓸개가 없는 놈이라서.)

104031 @ 노리가?(노루가)

104031 #1 야, 노리는 오십 메타, 배설이 나와도 오십 메타 가불고.(야, 노루는 오십 미터, 창자가 나와도 오십 미터 가버리고.)

104031 @ 예.(예.)

104031 #1 요놈 지달이는 쓸개가 이시니까 혼 십여 메타 막 가가민 개가 숨을 노려 잡아 막 조집니다.(요놈 오소리는 쓸개가 있으니까 한 십여 미터 막 가면 개가 숨을 노려 잡아 막 조집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그 사름을 심어 아졍 겅헹 오곡.(그 사람을 잡아 가져 그렇게 오고.)

104031 @ 예.(예.)

104031 #1 지달이는 놈이 오소리여 오로여 우린 경 허는데.(오소리는 놈이 오소리여 오소리여 우린 그렇게 하는데.)

104031 @ 오로.(오소리.)

104031 #1 이 개가양 영리한 개는 지달이가 밤일 가나 낮일 가나 곰에 냄새를 헤영 딱 들어갑니다.(이 개가요 영리한 개는 오소리가 밤에 가나 낮에 가나 구멍에 냄새를 해서 딱 들어갑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곰이옌 허는 거는.(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104031 @ 구멍마씨?(구멍요?)

104031 #1 지달이가 움직이는 구멍이라.(오소리가 움직이는 구멍이라.)

104031 @ 지달이 굴마씨?(오소리 굴입니까?)

104031 #1 이거 코를 노나 지달이 덧을 노면은 요 중간에 엄청나게 쎈 덧이 나와낫수다.(이거 올가미를 놓으나 오소리 덫을 놓으면 요 중간에 엄청나게 센 덫이

나왔었습니다.)
104031 @ 아.(아.)
104031 #1 경헹 송애기도 딱 헤불고.(그렇게 해서 송아지도 딱 해버리고.)
104031 @ 이런 것과?(이런 것입니까?)
104031 #1 으. 이런 거.(으. 이런 거.)
104031 @ 오로 덧이옌 써져수다.(오소리 덫이라고 써졌습니다.)
104031 #1 으. 이거 엄청나게 많이 쎈 거라.(으.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센 거야.)
104031 @ 예.(예.)
104031 #1 송애기가 붋으면은 그냥 발 끈어져불여.(송아지가 밟으면 그냥 발 끊어져버려.)
104031 @ 아이고.(아이고.)
104031 #1 야, 이거, 이런 거. 다.(야, 이거, 이런 거. 다.)
104031 @ 이젠 이런 거 안 헙니까?(이젠 이런 거 안 합니까?)
104031 #1 이거 걸리민 우리 큰일 나.(이거 거리면 우리 큰일 나.)
104031 @ 그니까예.(그러니까요.)
104031 #1 겨난 그전에 이런 거 엇인 때는 개로만 사용했는데.(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거 없을 때는 개로만 사용했는데.)
104031 @ 예.(예.)
104031 #1 개가 딱 그 굴속에 들어간 거, 아니 들어간 거 훤하게 압니다.(개가 딱 그 굴속에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훤하게 압니다.)
104031 @ 아.(아.)
104031 #1 냄새 딱 맞추아서 엇이면은 그냥 쿵쿵 허멍 나오고.(냄새 딱 맞춰서 없으면 그냥 쿵쿵 하면서 나오고.)
104031 @ 예.(예.)
104031 #1 이시면은 개도 경헐 땐 멍청한 거라. 나올 때까지 영 헤영 아자.(있으면 개도 그렇게 할 땐 멍청한 거야. 나올 때가지 이렇게 해서 앉아.)
104031 @ 하하하.(하하하.)
104031 #1 도그[206] 가자.(도그 가자.)
104031 @ 하하하.(하하하.)
104031 #1 게민 개도 그때 같지 오곡 허는데.(그러면 개도 그때 같이 오곤 하는데.)
104031 @ 예.(예.)
104031 #1 아 지달이 있구나 허는데.(아 오소리 있구나 하는데.)
104031 @ 예.(예.)
104031 #1 그 지달이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달이 굼 판덴 합니다. 우리 지달이 굼 파레 간다. 우리 강 지달이 굼 파자.(그 오소리는 들어가면 우리가 오소리 구멍

206) '도그'는 제보자가 개를 부르는 말이다. 영어 'dog'를 문맥에서 사용한 것이다.

판다고 합니다. 우리 오소리 구멍 파러 간다. 우리 가서 오소리 구멍 파자.)

104031 @ 아.(아.)

104031 #1 경헹 사름으로 굼을 파젠 허면은 최소한도 서너 명이 갑니다. 지달이 굴을 파젠 허면은.(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구멍을 파려고 하면 최소한도 서너 명이 갑니다. 오소리 굴을 파려고 하면.)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시방이난 장비가 이시난 포크레인으로 부솨 자창 헹은엥에 그 전에는 괭이 가지고 골겡이 가지곡 호미 가지고 굴을 파가면은 이녁 지러기 파고 들어간다 말입니다.(시방이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부숴 젖혀서 그 전에는 괭이 가지고 호미 가지고 낫 가지고 굴을 파면 자기 키를 파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두 번착 놈은 그 놈 또꼬망에 들어간다 말입니다.(두 번째 놈은 그 놈 꽁무니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굴을 파면서 혹을 배떼기로 내칩니다.(굴을 파면서 흙을 배로 내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그믄 그 다음 놈이 또 혹을 내쳐.(그러면 그 다음 놈이 또 흙을 내쳐.)

10403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31 #1 그믄 세 번차 놈이 그 혹을 내쳐.(그러면 세 번째 놈이 그 흙을 내쳐.)

104031 @ 예.(예.)

104031 #1 베끗디 이신 놈은 마지막 내친 혹을 몬 담아 내쳐불여.(바깥에 있는 놈은 마지막 내친 흙을 모두 담아 내쳐버려.)

104031 @ 아.(아.)

104031 #1 경헤서 혼 십오 미터 쯤을 들어강 보면 그거 가기 전에 마작터[207]라고 이습니다.(그렇게 해서 한 십오 미터 쯤을 들어가서 보면 그거 가기 전에 '마작터'라고 있습니다.)

104031 @ 마작터마씨?('마작터'요?)

104031 #1 마작터는 지달이. 오루.('마작터'는 오소리. 오소리.)

104031 @ 예.(예.)

104031 #1 오소리 똥 싼 장소.(오소리 똥 싼 장소.)

104031 @ 아.(아.)

104031 #1 똥을 집결헹 쌉니다. 이 아무디나 강 싸지 안 헙니다.(똥을 집결해서 쌉니다. 이 아무데나 가서 싸지 안 합니다.)

---

207) '마작터'는 마작통이라고도 하고 오소리들이 똥을 싸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4031 @ 아.(아.)

104031 #1 게서 마작통이 딱 걸려. 그믄 하 이거 멫 메다 안에 있다.(그래서 마작통이 딱 걸려. 그러면 하 이거 몇 미터 안에 있다.)

104031 @ 아.(아.)

104031 #1 경허면은 불과 이삼 메타 안이라.(그렇게 하면 이삼 미터 안이라.)

104031 @ 음.(음.)

104031 #1 경허면은 막 파당 보민 눈들 말족말족.(그렇게 하면 막 파다가 보면 눈들 말똥말똥.)

104031 @ 예.(예.)

104031 #1 후라시 엇일 때는 촛불하멍 촛불 싸멍 헤낫수다.(후레쉬 없을 때는 촛불하면서 촛불 켜서 했었습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경허민 눈들이 말족말족한 게 이서.(그렇게 하면 눈들이 말똥말똥한 게 있어.)

104031 @ 하하하.(하하하.)

104031 #1 겐디 거기서 약한 놈은 걸리민 괜찮은디 그 이삼십 킬로 쯤 나가는 수오로[208] 쯤은.(그런데 거기서 약한 놈이 걸리면 괜찮은데 그 이삼십 킬로 쯤 나가는 '수오로' 쯤은.)

104031 @ 수오로?(수오로?)

104031 #1 수오로는 늙은 놈이라. 수오로라고.('수오로'는 늙은 놈이라. '수오로'라고.)

104031 @ 숫컷이라 수오로꽈?(수컷이라 '수오로'입니까?)

104031 #1 아니, 아니. 숫컷이나 암컷이나.(아니, 아니. 수컷이나 암컷이나.)

104031 @ 그믄 큰 거?(그러면 큰 거?)

104031 #1 커서 오렌 놈들.(커서 오렌 놈들.)

104031 @ 아.(아.)

104031 #1 그게 막 털에 기름 피고 술진덴 허주게.(그게 막 털에 기름 피고 살찐다고 하지.)

104031 @ 아.(아.)

104031 #1 게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로만 개 헤영 영헤영 도그 이레와.(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로만 개 해서 이렇게 해서 도그 이리 와.)

104031 @ 아.(아.)

104031 #1 개 들어오민 훤허게 압니다.(개 들어오면 훤하게 압니다.)

10403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31 #1 사름 트멍으로 들어가.(사람 구멍으로 들어가.)

104031 @ 예.(예.)

208) '수오로'는 늙은 오소리를 일컫는 말이다.

104031 #1 개가 버첨직 허민양. 창 이수다. 옛날 사삼사건 쓴 창.(개가 힘에 부칠 듯 하면요. 창 있습니다. 옛날 사삼사건 쓴 창.)

104031 @ 이런 거마씨?(이런 겁니까?)

104031 #1 응. 이런 창들이라.(응. 이런 창들이야.)

104031 @ 예.(예.)

104031 #1 창도 소소한 건 안 돼. 든든헤야 돼. 그 니빨도 사납고 힘이 무자게 쎈 거우다.(창도 소소한 건 안 돼. 단단해야 돼. 그 이빨도 사납고 힘이 무지하게 센 겁니다.)

104031 @ 사람도 물어마씨?(사람도 뭅니까?)

104031 #1 하이고. 그 사름 물민 놓는 성격이 아니라니까. 그 주석은. 딱 중강.(하이고. 그 사람 물면 놓는 성격이 아니라니까. 그 자식은. 딱 잠가서.)

104031 @ 아.(아.)

104031 #1 게난 개들이 얼먹엉 이디 다 끈어 먹고 헤부는 거.(그러니까 개들이 겁먹고 여기 다 끊어 먹고 해버리는 거.)

104031 @ 으.(으.)

104031 #1 물었다 하면 혼이 나.(물었다 하면 혼이 나.)

104031 @ 예.(예.)

104031 #1 게서 이런 든든한 창을 가졍 가. 개들이 버청 앙앙 할 때는 창으로 찔러야 돼.(그래서 이런 단단한 창을 가져 가. 개들이 힘에 부쳐서 앙앙 할 때는 창으로 찔러야 돼.)

104031 @ 아, 찔러.(아, 찔러)

104031 #1 찔렁 힘을 다진하게 헤 놔야 가 돌려들어.(찔러서 힘을 '다진하게' 해 놔야 가 달려들어.)

104031 @ 아.(아.)

104031 #1 개가 버첨진 허민양 돌아만 나와불젠 헙니다.(개가 힘에 부칠 듯 하면 달아나 버리려고 합니다.)

104031 @ 개가예.(개가요?)

104031 #1 야. 돌아만 나오젠. 게난 사름이 막 협조를 헤 줘야주. 게사 그게 돌려 들엉 물어.(야. 달아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협조를 해 줘야지. 그래야 그게 달려들어서 물어.)

104031 @ 예.(예.)

104031 #1 게민 그걸 물면 거기서 거기 있는 디는 조금 공간이 이서.(그러면 그걸 물면 거기서 거기 있는 데는 조금 공간이 있어.)

104031 @ 예.(예.)

104031 #1 게민 개가 거기서 돌앙춤헤영 다운시켜 붐니께.(그러면 개가 거기서 반무해서 다운시켜 버립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다운 시키면 기자 사름이 조름으로부터 나가렌 혜영 두 번 세 번 들어간 놈 나오민 기자 마지막 쳇번 들어간 놈이 그 지달이 끗엉 나오주.(다운 시키면 그저 사람이 꽁무니로부터 나가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들어간 놈 나오면 그저 마지막 첫 번 들어간 놈이 그 오소리 끌고 나오지.)

104031 @ 아.(아.)

104031 #1 또 갈구리도 혜영 갑니다. 우리가.(또 갈고리도 해서 갑니다. 우리가.)

104031 @ 예.(예.)

104031 #1 경헹 톡 찍엉 끗어내영 나오는 거.(그렇게 해서 톡 찍어서 끌어내어 나오는 거.)

104031 @ 아.(아.)

104031 #1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31 @ 지달이 사냥은 경허는 거구나예.(오소리 사냥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104031 #1 지달이 사냥.(오소리 사냥.)

104031 @ 예.(예.)

104031 #1 견디 막 ᄌᆞ미짐은 합니다.(그런데 막 재미있기는 합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담싸롱이라고 개가 좋아노니깐양 한 이십년을 뎅겨봤는데.('담싸롱'이라고 개가 좋으니깐요 한 이십년을 다녀 봤는데.)

104031 @ 예.(예.)

104031 #1 지달이 갑도 많이 가고 맛이 좋아노니까 게나제나 가자고만 한단 말입니다.(오소리 값도 많이 나가고 맛이 좋으니까 그나저나 가자고만 한단 말입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게민양 밤이 흔 아홉 시 열 시 뒈가민 나가는 거라. 지팽이 들고.(그러면요 밤에 한 아홉 시 열 시 되어 가면 나가는 거야. 지팡이 들고.)

104031 @ 예.(예.)

104031 #1 게난양 그때는 젊은 때는 무서운 것이 어십디다.(그니까요 그때는 젊은 때는 무서운 것이 없습디다.)

104031 @ 음.(음.)

104031 #1 도깨비불도 아니 무섭고.(도깨비불도 안 무섭고.)

104031 @ 예.(예.)

104031 #1 좋은 개 둘곡 든든한 곤봉인가 뭔가 무신 작대기 가졍 가노니까.(좋은 개 데리고 단단한 곤봉인가 뭔가 무슨 작대기 가져 가 놓으니까.)

104031 @ 아, 아.(아, 아.)

104031 #1 무ᄉᆞ와베도 안 허고. 게헹 지달이 사뇽이라는 건 ᄇᆞ름 알로 가야 뒈어.(무서워 보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오소리 사냥이라는 건 바람 아래로 가야

되어.)

104031 @ 그건 무슨 말이꽈?(그건 무슨 말입니까?)

104031 #1 저기 어디 지달이 있다하면 ᄇᆞ름 알로 가야 지달이 놈들이 냄새를 못 맡아.(저기 어디 오소리 있다하면 바람 아래로 가야 오소리 놈들이 냄새를 못 맡아.)

104031 @ 아.(아.)

104031 #1 바람으로 가면 저기가 먼저 맡아부는 거라.(바람으로 가면 저기가 먼저 맡아버리는 거야.)

104031 @ 아.(아.)

104031 #1 게난 ᄇᆞ름 알로.(그러니까 바람 아래로.)

104031 @ 예.(예.)

104031 #1 게난 잘 판단헤야 합니께. 사뇽쟁이.(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냥꾼이.)

104031 @ 사뇽쟁이?(사냥꾼이?)

104031 #1 야. 사농쟁이. 하하.(야. 사냥꾼이. 하하.)

104031 @ 예.(예.)

104031 #1 사냥꾼을 말허는 거 사농쟁이 허는데.(사냥꾼을 말하는 거 '사냥쟁이' 하는데.)

104031 @ 사농쟁이.(사냥꾼.)

104031 #1 경헹 나가면은 이틀이나 삼일에 ᄒᆞᆫ 번은 ᄒᆞᆫ 두 개는 꼭 잡아.(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은 한두 개는 꼭 잡아.)

104031 @ 아.(아.)

104031 #1 게난 개들이양 ᄀᆞᆺ사도 ᄀᆞᆯ아주만은 멍청한 개들 사농을 배우겠다 헹 ᄀᆞ치들 나가면은 몬 개판이 뒈어.(그러니까 개들이요 금방도 말했지만 멍청한 개들 사냥을 배우겠다 해서 같이들 나가면 모두 개판이 돼.)

104031 @ 헤헤헤헤.(헤헤헤헤.)

104031 #1 사람 조름만 멍청한 개들은 사람 조름만 쫓으곡.(사람 꽁무니만 멍청한 개들은 사람 꽁무니만 쫓고.)

104031 @ 예.(예,)

104031 #1 또 어떤 것들은 담이나 뭘영 데껴불곡.(또 어떤 것들은 담이나 허물어 던져버리고.)

104031 @ 뭘영 뎅겨 불곡. 하하하하.(허물어 던져 버리고. 하하하하하.)

104031 #1 이 훌투는 개는 막 반경 오백 메다, 천 메다 우리 알아듣지 못허는 정도까지 가불여.(이 홅는 개는 막 반경 오백 미터, 천 미터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버려.)

104031 @ 헤.(헤.)

104031 #1 개소리 안 헤영은 우리가 개 어디신디를 몰라.(개소리 안 해서는 우

리가 개 어디 있는 데를 몰라.)

104031 @ 아.(아.)

104031 #1 개가 사농헹 물엉 울어. 개가 사름한테 연락을 허는 걸 운덴 헙니다.(개가 사냥해서 물어서 울어. 개가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걸 운다고 합니다.)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경 안 허면 개 어디 방향 신 걸 모릅니께.(그렇게 안 하면 개 어디 방향 있는 걸 모릅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경 헤영 ᄒᆞ나나 두 개.(그렇거 해서 하나나 두 개.)

104031 @ 예.(예.)

104031 #1 거 암캐옌 헌디 개도 아주 못 생긴 개주. 색도 아주 고라개[209]라고.(거 암캐라고 하는데 개도 아주 못 생긴 개지. 색도 아주 '고라개'라고.)

104031 @ 고라개. 하하하하.('고라개'. 하하하.)

104031 #1 고라개. 왜정 말로 고라개고 색도 고라갠디.('고라개'. 일본 말로 '고라개'고 색도 '고라개'인데.)

104031 @ 색도 고라개.(색도 '고라개'.)

104031 #1 ᄀᆞᆺ사 고라말. 색도 못생겨서.(금방 고라말. 색도 못생겨서.)

104031 @ 예.(예.)

104031 #1 겐디 사농을 경 잘헤서.(그런데 사냥을 그렇게 잘했어.)

104031 @ 아. 사냥을 잘핸마씨?(아. 사냥을 잘했습니까?)

104031 #1 으. 사농만 가자 허민 벌써 개가 컹컹 헤영 주껑 사름한테 알려.(사냥만 가자 하면 벌써 개가 컹컹 해서 지으면서 사람한테 알려.)

104031 @ 음.(음.)

104031 #1 야, 경 안 허면은 개를 촞젠 허면은 워낙 개가 멀리 가부나 어떵 헹 멀리 강 돌아 나오젠 허민 휘바람양.(야, 그렇게 안 하면 개를 찾으려고 하면 워낙 개가 멀리 가버리나 어떻게 해서 멀리 가서 돌아 나오려고 하면 휘파람.)

104031 @ 휘파람.(휘파람.)

104031 #1 야. 휘ᄇᆞ름으로 쉬악쉬악[210] 헤영 허믄 개가 돌아옵니다. 사농개가 그렇게 영리한 개입니다.(야. 휘파람으로 '쉬악쉬악' 해서 하면 개가 돌아옵니다. 사냥개가 그렇게 영리한 개입니다.)

104031 @ 음.(음.)

104031 #1 게서 강 보면은, 개가 주껑 강 보면은양, 물엉 이서.(그래서 가서 보면 개가 짖어서 가 보면 물고 있어.)

104031 @ 예.(예.)

104031 #1 개도 죽저, 지달이도 죽저.(개조 죽겠다 지달이도 죽겠다.)

---

209) '고라개'는 고라말이라고 일컬을 때처럼 등에 누런 털이 난 말을 고라말이라고 하듯이 색깔이 누런색과 검은 색이 뒤섞인 개를 '고라개'라고 부른다.

210) '쉬악쉬악'은 휘파람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104031 @ 예.(예.)

104031 #1 잔뜩 물엉 이시믄 그 보조 역할 허는 거 조름에 강 물엉 허영 경허멍 우리가 지달이를 잡아 낫수다만은.(잔뜩 물고 있으면 그 보조 역할 하는 거 꽁무니에 가서 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소리를 잡았었습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아이고 것도 이젠 지달이도 힘들고. 오소리. 제주도에.(아이고 것도 이젠 오소리도 힘들고. 오소리. 제주도에.)

104031 @ 예.(예.)

104031 #1 그게 상강일 넘으면은 그 자기 둥지, 굴에서 백메다 이백 메다 상강일 넘으면은 나오질 안 헙니다.(그게 상강일 넘으면 그 자기 둥지, 굴에서 백 미터 이백 미터 상강일 넘으면 나오질 안 합니다.)

104031 @ 아. 추워지면마씨?(아. 추워지면요?)

104031 #1 추워지면.(추워지면.)

104031 @ 예.(예.)

104031 #1 막 나와야 모양지 헤난 디 쉐똥에 쉐똥벌레가 이수다. 이 벌레만 잡앙 먹엉 들어가.(막 나와야 '모양지' 했던 데 쇠똥에 쇠똥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만 잡아서 먹고 들어가.)

104031 @ 아.(아.)

104031 #1 봄 때에는 어떵헹 나오냐면 두메기라고 고사리. 고사리 세면은 파랑한 벌레 있지 안 허우꽈.(봄 때에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풍뎅이라고 고사리. 고사리 쇠면 파랑한 벌레 있지 안합니까.)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나오고.(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나오고.)

104031 @ 예.(예.)

104031 #1 상강 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기 울에서 오백 메다도 안 나옵니다. 쉐똥벌레 잡아먹을라고.(서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자기 울에서 오백 미터도 안 나옵니다. 쇠똥벌레 잡아먹으려고.)

104031 @ 그 벌레는 뭐렌 골아마씨?(그 벌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104031 #1 쉐똥벌레. 떠렁쉐.(쇠똥벌레. 투구풍뎅이.)

104031 @ 떠렁쉐.(투구풍뎅이.)

104031 #1 그 떠렁쉐도 여러 가지입디다. 하늘떠렁쉐여, 뭐여. 무신거여. 여러 가지인디.(그 투구풍뎅이도 여러 가지입디다. 투구풍뎅이여, 뭐여. 무엇이여. 여러 가지인데.)

104031 @ 예.(예.)

104031 #1 우린 기자 큰 떠렁쉐여, 족은 떠렁쉐여 허는 디. 그 쉐똥 벙뎅이[211]

211) '벙뎅이'는 가루, 흙, 똥 따위가 작거나 크게 덩어리져서 뭉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덩어리진 것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

동그리는 거양.(우리 그저 큰 풍뎅이여, 작은 풍뎅이여 하는 데. 그 쇠똥 '벙뎅이' 동그리는 거요.)

104031 @ 예, 쉐똥 벙뎅이 둥굴리는 거.(예, 쇠똥 '벙뎅이' 굴리는 거.)

104031 #1 그게 그 떠렁쉐만 잡아먹는 거라.(그게 그 풍뎅이만 잡아먹는 거야.)

104031 @ 지달이들이예?(오소리들이요?)

104031 #1 야. 겡허근에 겨울이는 힘이 듭주마씀.(야. 그렇게 해서 겨울에는 힘이 듭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이 녀석이 나왔냐 아니냐는 표석을 세웁니다.(이 녀석이 나왔냐 아니냐는 표시를 세웁니다.)

104031 @ 입구에마씨?(입구에요?)

104031 #1 굴에 ᄀᆞ는ᄀᆞ는[212] 막대기를 들어가는 구멍에.(굴에 'ᄀᆞ는ᄀᆞ는' 막대기를 들어가는 구멍에.)

104031 @ 굴도에?(굴 입구에?)

104031 #1 으. 굴도에. 고사리 대기나 헹 세우면 두 개쯤 세와.(으. 굴 입구에 고사리 대나 해서 세우면 두 개쯤 세워.)

104031 @ 예.(예.)

104031 #1 나와 난 건 고사리 껍을 영 지와불곡.(나왔던 건 고사리 껍질을 이렇게 꺾어버리고.)

104031 @ 고사리 껍마씨?(고사리 껍질요?)

104031 #1 고사리 껍이옌 헌건 그 표시헌 거게. 풀떼기주게.(고사리 껍질이라고 하는 건 그 표시한 거. 풀이지.)

104031 @ 예.(예.)

104031 #1 들어간 건 저짝 더레 꺾어지곡.(들어간 건 저쪽으로 꺾어지고.)

104031 @ 아. 들어간지 나간지 모르니까예.(아.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모르니까요.)

104031 #1 으. 들어간지 나간지 모르니까. 개는 알겠지만은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으.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모르니까. 개는 알겠지만.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

104031 @ 사람은 모릅니께.(사람은 모르잖아요.)

104031 #1 게서 그걸 표시한다 말입니다.(그래서 그걸 표시한다 말입니다.)

104031 @ 예.(예.)

104031 #1 딱 나놧당 굴도 파곡. 밤이 강 ᄇᆞ름 알로.(딱 나놨다가 굴도 파고. 밤에 가서 바람 아래로.)

104031 @ 예.(예.)

104031 #1 요디 굴이민 요만치 알로 나와실 거라.(요기 굴이면 요만큼 아래로 나왔을 거야.)

---

212) 'ᄀᆞ는ᄀᆞ는'은 'ᄀᆞ늘다'에서 나온 말로 가는 것을 강조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104031 @ 예.(예.)

104031 #1 그믄 우린 저만치 더 가.(그러면 우린 저만큼 더 가.)

104031 @ 예.(예.)

104031 #1 개는 코 들렁 냄새를 맡아. 건내[213]헌덴 허는 거라.(개는 코 들고 냄새를 맡아. 건대한다고 하는 거야.)

104031 @ 건내.('건내'.)

104031 #1 개 건내한다고. 게문 아하 물건이 나타낫다 허는 거라.(개 '건내'한다고. 그러면 아하 물건이 나타났다 하는 거야.)

104031 @ 예.(예.)

104031 #1 게문 사람이 훤하게 사람이 판단허는 거라.(그러면 사람이 훤하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104033 @ 사냥에 대한 추억,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사냥에 대한 추억,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33 @ 뭐 하영 잡아낫수과?(뭐 많이 잡았었습니까?)

104033 #1 뭐 하영 잡아난 거, 무신. 기자, 놈 허는 거 다 하니까 혼 두ᄆᆞ리 썩 그냥 기자.(뭐 많이 잡아났던 거, 무슨. 그저, 남 하는 거 다 하니까 한두 마리씩 그냥 그저.)

104033 @ 아. 한두 마리.(아. 한두 마리.)

104033 @ 꿩이영 누리영 다 먹는 거지예?(꿩하고 노루하고 다 먹는 거지요.)

104033 #1 다 먹는 거.(다 먹는 거.)

104031 @ 예.(예.)

104031 #1 이젠 옛날은 노리 괴기가 그렇게 맛 좋아낫어.(이젠 옛날은 노루고기가 그렇게 맛 좋았었어.)

104033 @ 아.(아.)

104033 #1 입이 틀려부니까양.(입이 달라버리니까요.)

104033 @ 하하하.(하하하.)

104033 #1 이젠 노리고기도 안 먹곡. 멧돼지 잡앙 오켄 헤도 나 멧돼지 안 먹켄 헷수다.(이젠 노루고기도 안 먹고. 멧돼지 잡아서 온다고 해도 나 멧돼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104033 @ 아. 맛 좋덴 허던데마씨?(아. 맛 좋다고 하던데요?)

104033 #1 글쎄.(글쎄.)

104033 @ 하하하.(하하하.)

104033 #1 멧돼지가 맛 좋는 건 우리 농촌에선 기름진 게 이서야 됩니다. 돼지고기도양 기름 엇인 건 우리 마릿걸레 씹는 맛이라. 알암수광?(멧돼지가 맛 좋은 건 우리 농촌에선 기름진 게 있어야 됩니다. 돼지고기도요 기름 없는 건 우리 마룻걸레 씹는 맛이라. 알고 있습니까?)

---

213) '건내'는 '킁킁' 냄새를 맡아 보는 것을 말한다.

104033 @ 음.(음.)

104033 #1 기름이 셔사. 앞으로 봅서만은양. 좀 기름이 섞인 돼지고기라야 맛이 있지.(기름이 있어야.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좀 기름이 섞인 돼지 고기라야 맛이 있지.)

104033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33 #1 멧돼지는 기름이 없대.(멧돼지는 기름이 없대.)

104033 @ 아.(아.)

104033 #1 제주도에 많이 있는데.(제주도에 많이 있는데.)

104033 @ 하도 움직여부난인가?(하도 움직여서인가?)

104033 #1 야. 많이 움직여노니깐.(야. 많이 움직이기까.)

104031 @ 아.(아.)

104031 #1 움직이는 건 기름이 어십니다. 겡 잡아오지 말렌 헷수다. 멧돼지영.(움직이는 건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멧돼지하고.)

104033 @ 여기 지금도 멧돼지 이수과?(여기 지금도 멧돼지 있습니까?)

104033 #1 아, 이서네.(아, 있어서.)

104033 @ 아.(아.)

104033 #1 이제라도 전화허민 잡앙 와.(이제라도 전화하면 잡아서 와.)

104033 @ 하하하.(하하하.)

104033 #1 어이구. 그 담이부터 아이 먹켄 경허멍 했는디. 멧돼지 한 모냥입디다.(어이구. 그 다음부터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멧돼지 많은 모양입디다.)

104033 @ 아.(아.)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06001 #2 나 시집 올 땐 우리 어머니 막 잘해주느렌 허연, 비로도.(나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 막 잘해주느라 하셔서, 벨벳.)

106001 @ 비로도, 이런 것도 이서나수과?(벨벳, 이런 것도 있었어요?)

106001 #2 응. 비로도 치메에 양단 저고리에.(응. 벨벳 치마에 양단 저고리에.)

106001 @ 양단도 있고.(양단도 있고.)

106001 #2 응.(응.)

106001 @ 또 뭐 이서나수과?(또 뭐 있었습니까?)

106001 #2 멩지.(명주.)

106001 @ 멩지, 또 뭐 이수과?(명주. 또 뭐 있습니까?)
106001 #2 또시.(그리고)
106001 #1 미녕이라고. 거 무명치메 무명저고리, 그게 뭐 보통이주, 보통으로.(무명이라고. 그 무명치마, 무명저고리, 그게 뭐 보통이지, 보통으로.)
106001 #2 미녕치메, 미녕 저고리 뭐.(무명치마, 무명저고리 뭐.)
106001 #1 멩지 저고리영. 무시거영 (명주 저고리하고. 무엇하고)
106001 #2 모시영.(모시하고.)
106001 @ 또?(또?)
106001 #2 베영.(베하고.)
106001 @ 예.(예.)
106001 #2 광목이영, 오광목이영.(광목하고 오광목하고)
106001 #1 거 한량들 입는 거주.(그거 한량들 입는 거지.)
106001 #2 옛날은 유동.(옛날은 유동)
106001 @ 음, 그런 것도 있고마씨?(음,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106001 #2 유동은 비로도 치메 다음이라, 유동치메, 호박단추저고리. 난 시집오난 우리 시어머니 호박단추 저고리에 유동치메에 해줜게.(유동은 벨벳 치마 다음이야. 유동치마, 호박단추 저고리. 난 시집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 호박단추 저고리하고 유동치마하고 해줬는데.)
106001 @ 음,(음)
106001 #1 혼 육십년 전에.(한 육십년 전에.)

명주

106002 @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06002 #2 옷감은.무사 우리 옛날에 치메도 멘들고 적삼도 멘들고.(옷감은. 왜 우리 옛날에 치마도 만들고 적삼도 만들고.)
106002 @ 아니 옷은 만드는데 실, 실마씨. 실 만들어나수과?(아니 옷은 만드는데 실, 실이요. 실 만들어 봤습니까?)
106002 #2 아니 실은 안 멘들어난.(아니 실은 안 만들어 봤어.)
106004 @ 명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명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2 멩지로 치메도 ᄒᆞ곡, 저고리도 ᄒᆞ곡 ᄒᆞ는디. 지금은 그거 호상 아니라?(명주천으로 치마도 하고, 저고리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 수의 아니야?)
106004 @ 음.(음)
106004 #2 죽은 사름 입엉 가는 거.(죽은 사람 입고 가는 거.)
106004 @ 예. 예.(예. 예.)
106004 #2 멩지로 장옷도 ᄒᆞ고, 치메, 저고리, 바지여.(명주로 장옷도 하고, 치마, 저고리, 바지하고.)

106004 #1 스의, 스의주.(수의, 수의지.)
106004 #2 살마다 그거 다 뭐 호상허는 거.(괜티 그거 다 뭐 수의하는 거.)
106004 @ 예예.(예. 예.)
106006 @ 누에치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누에치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06 #2 옛날은 누에질환 멩지해낫나?(옛날은 누에 길러서 명주했었어?)
106006 @ 예.(예.)
106006 #1 멩지는 누에고치 실 빼엉으네 실 멘드는 거고.(명주는 누에고치 실 빼서 실 만드는 것이고.)
106006 @ 누에 헤난 건 없지예?(누에 했었던 건 없지요?)
106006 #1 누에 헤난 건 이수다.(누에 했었던 건 있습니다.)
106006 #2 옛날도 누에 질롸난 지 요 송당도 이서.(옛날도 누에 길러난 데 여기 송당도 있어.)
106006 @ 기마씨?(그렇습니까?)
106006 #2 어. 뽕남썹 해당 주국.(네, 뽕나무 잎 해다가 주고.)
106006 #1 뽕남도 싱그곡. 밧드로 전역으로 싱경. 정부에도 권장헤낫수다.(뽕나무도 심고 밭으로 전역으로 심어서. 정부에도 권장했었습니다.)
106006 @ 아.(아.)
106006 #1 중간에 (중간에)
106006 #2 뽕남썹 해당 먹이멍 누에 질롸난 거 알아져.(뽕나무 잎 해다가 먹이면서 누에 길러난 거 알 수 있어.)
106006 #1 흔 사십 년.(한 사십년)
106006 @ 이제는 없지예?(이제는 없지요?)
106006 #2 엇어.(없어,)
106006 #1 육지 핫주, 시방도.(육지 많지. 시방도.)
106006 @ 기구나예.(그렇군요.)

무명

106007 @ 무명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무명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08 @ 무명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무명을 무엇을 만듭니까?)
106008 #2 미녕으로 엿날 갈적삼[214] 만들고.(무명으로 옛날 '갈적삼' 만들고.)
106008 @ 갈적삼.('갈적삼'.)
106008 #2 갈중이[215] 만들고, 기자.('갈중이' 만들고, 그저.)
106008 #1 갈옷.(갈옷.)

214)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215) '갈중이'는 풋감으로 물들인 바지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106008 @ 요새는 광목으로 허는데 옛날에 미녕으로 만들었구나예.(요즘은 광목으로 하는데 옛날에 무명으로 만들었군요.)

106008 #2 응, 미녕. 미녕으로 갈중이하고 갈적삼하고.(응, 무명. 무명으로 '갈중이'하고 '갈적삼'하고.)

106010 @ 광목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광목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2 광목도이, 옛날엔 이불안, 요안.(광목도, 옛날에는 이불안, 요안)

106010 @ 아.(아.)

106010 #1 거 막 다림질헤여.(그거 마구 다림질해요.)

106010 #2 광목으로 이불안, 요안.(광목으로 이불 안, 요 안.)

106010 @ 다림질헤영은에.(다림질한 다음에.)

106010 #1 뿔앙 몬 다듬이로 다령.(빨아서 모두 다듬이로 다려서)

106010 #2 그거 풀헤영게, 마께로 두드령, 안반에 놩.(그거 풀해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안반에 놔서.)

106010 @ 예.(예.)

106010 #2 경헤영, 이불안ᄒᆞ곡, 요안ᄒᆞ곡.(그렇게 해서 이불안하고, 요안하고.)

106010 #1 그게 최고랏주.(그게 최고였지.)

106010 @ 음.(음.)

106011 @ '홍세미녕'[216]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홍세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6011 #2 홍세[217]?('홍세'?)

106011 @ 예.(예.)

106011 #2 홍세는게 장개가젠 허믄게 홍세 놓는 거.('홍세'라는 건 장가가려고 하면 '홍세' 놓는 거지.)

106011 @ 아.(아.)

106011 #1 시라목[218], 시라목.(무명천, 무명천.)

106011 #2 지금은 시라목ᄒᆞ주만은 옛날은 미녕. 미녕 혼필.(지금은 무명천을 하지만은 옛날은 무명. 무명 한 필.)

106011 @ 아, 옛날에는.(아, 옛날에는.)

106011 #2 옛날에는 미녕 혼 필, 홍세함에.(옛날에는 무명 한 필, '홍세함'에.)

106011 @ 홍세함?(납폐함.)

106011 #1 그게 조건부를 알아야 돼. 그 홍세함에 기저귀 멘들라 ᄒᆞ는 거, 그거(그게 조건부를 알아야 돼. 그 납폐함에 기저귀 만들라고 하는 거. 그거.)

106011 #2 거이, 중간이부터는 시라목헹으네 애기들 허렌 해낫주.(그거. 중간부터는 무명천으로 해서 아기들 하라고 했었지.)

---

216)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천이다.
217) '홍세'는 문맥상 홍세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에 가지고 가는 납폐함을 말한다.
218) '시라목'은 무명천의 하나이다. 시렁목이라고도 한다.

106011 @ 옛날에는 미녕으로?(옛날에는 무명으로?)
106011 #2 응, 미녕으로. 홍세 놓첸 ᄒᆞ믄 미녕해당으네.(응, 무명으로. '홍세' 놓으려고 하면 무명으로 해서)
106011 @ 기저기 만들라, 영 헹으네예?(기저귀 만들라, 이렇게 해서요?)
106011 #2 응.(응.)
106011 @ 지성기예?(기저귀요?)
106011 #2 근디 요즘은 그냥 시라목헹 헹은에 기영 기자.(그런데 요즘은 그냥 무명천해서 그렇게 그저.)
106011 #1 기성기주, 옛날 기성기.(기저귀지, 옛날 기저귀.)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목화 농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12 #1 멘화를? 멘화는 안 헤나고.(목화를? 목화는 안 했었고.)
106012 @ 그냥예?(그냥요?)
106012 #1 야, 야.(야, 야.)

모시

106013 @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106014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4 #2 모시로 뭐, 뭐 만들어. 치메도 만들엉 입곡, 모시적삼도 만들어 입곡.(모시로 뭐, 뭐 만들어. 치마도 만들어서 입고, 모시적삼도 만들어 입고.)
106014 #1 모시적삼. 그게 삼베 적삼이주.(모시적삼. 그게 삼베 적삼이지.)
106015 @ 모시 재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모시 재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15 #2 아니, 키우진 안 헤연.(아니, 키우지는 안 했어.)
106015 @ 모시 적삼, 치메 만들고?(모시 적삼, 치마 만들고?)
106015 #2 그런 거 만들고.(그런 거 만들고.)

삼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6 #2 삼이옌 헌건 몰라, 우린.(삼이라고 하는 건 몰라, 우린.)
106016 @ 신도 만들곡 헤난 거.(신도 만들고 했던 거요.)
106016 #1 무신거?(뭐라고?)
106016 @ 삼베에 삼, 삼.(삼베에 삼, 삼,)
106016 #1 아, 삼. 그건 우리로 말하면 대마촌데.(아, 삼. 그건 우리로 말하면 대마초인데.)

106016 @ 아, 기꽈?(아, 그래요?)

106016 #1 모시, 모시가 뜻로 있고, 대마초 삼이 이서수다.(모시, 모시가 따있고 대마초 삼이 있었습니다.)

106016 @ 아.(아.)

106016 #1 예. 대마초 삼으로 옷을 짜서.(예, 대마초 삼으로 옷을 짰어.)

106016 @ 아.(아.)

106016 #1 모시도 짜긴 합니다.(모시도 짜긴 합니다.)

106016 @ 예.(예.)

106016 #1 예, 견디, 육지서 보민 베틀해서 모시실 내오고 삼이우다.(예, 그런데 육지서 보면 베틀해서 모시실 내오고 삼입니다.)

옷 종류

106024 @ 남자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남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4 #2 남제옷도 마찬가지주, 뭐. 바지, 저고리, 적삼. 뭐, 후루메, 두루메기.(남자 옷도 마찬가지지, 뭐 바지, 저고리, 적삼. 뭐 두루마기, 두루마기.)

106024 @ 두루메기.또 뭐 이수과?(두루마기. 또 뭐가 있습니까?)

106024 #2 남자들 마첸가지.(남자들 마찬가지.)

106024 #1 또 베랑 이서게. 도복도 들어가고게.(또 별거 있어? 도포도 들어가고)

106024 #2 도복은 거, 호상으로 죽어갈 때 멘 우에 입는 거.(도포는 그거, 수의로 죽어갈 때 맨 위에 입는 거.)

106024 @ 아.(아.)

106024 #1 음, 음. 건 여기서만 죽어갈 때 입는 거주. 큰 제를 보게 뒈민 도복을 입는 거, 유건 쓰고. 남자들은.(음, 음, 그거는 여기서만 죽어갈 때 입는 거지. 큰 제를 보게 되면 도포를 입는 거지. 유건 쓰고. 남자들은.)

106024 @ 유건 쓰고, 아.(유건 쓰고, 아.)

106024 #2 거, 뭐. 동네 포제나 할 때.(그거 뭐, 동네 포제나 할 때.)

106025 @ 여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5 #2 치메, 저고리, 바지, 속곳[219]이영. 살마다.(치마, 저고리, 바지, 속곳하고, 팬티.)

106025 @ 살마다[220]는 뭐꽈?('살마다'는 뭡니까?)

106025 #2 살마다가 뭐라?('살마다'가 뭐라?)

106025 #1 빤슨데.(팬티인데.)

106025 #2 빤스.(팬티.)

106025 @ 아.(아.)

---

219) '속옷'은 속속곳과 단속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20) '살마다'는 다리 부분은 거의 없고 허리에 꼭 붙는 속옷이다.

106025 #2 빤스ᄀᆞ라 옛날에는 살마다. 흐흐흐.(팬티더러 옛날에는 '살마다' 흐흐흐,)

106025 @ 살마다, 치메, 저고리, 바지, 속곳. 또마씨?(팬티, 치마, 저고리, 바지, 속곳. 또요?)

106025 #2 으. 속곳은 옛날이고, 살마다는 이 중간이 나온 거고.(으. 속곳은 옛날이고, 팬티는 중간에 나온 것이고.)

106025 @ 중간?(중간?)

106025 #1 왜정말이주. 살마다. 팬티는 미국말이고.(일본말이지. 팬티. 팬티는 미국말이고.)

106025 @ 흐흐흐.(흐흐흐.)

106025 #2 하하.(하하.)

106025 @ 또 뭐 이수과?(또 뭐 있습니까?)

106025 #2 장옷.(장옷.)

106025 @ 여자는 두루메기 안 입어마씨?(여자는 두루마기 안 입습니까?)

106025 #2 여자는 무사 여자도 입는 사름은 두루메기 입주.(여자는 왜? 여자도 입는 사람은 두루마기 입지.)

106025 @ 아, 예.(아, 예.)

106025 #2 겐디, 여자는 장옷 하나 입으민 마는 거.(그런데, 여자는 장옷 하나 입으면 마는 거.)

106025 @ 음. 결혼 할 때 남자는 사모관대꽈?(음. 결혼 할 때 남자는 사모관대입니까?)

106025 #2 응. 사모관대. 갓 썽은에 영 뿔 돋은 거. 사모관대. 흐흐흐.(응, 사모관대. 갓 써서 이렇게 뿔 돋은 거, 사모관대. 흐흐흐)

106025 @ 아.(아.)

106026 @ 아이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아이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6 #2 지성치메, 빳지, 흐흐흐.(처네, 내복바지, 흐흐흐.)

106026 @ 맞다, 빳지예?(맞다, 내복바지죠?)

106026 #2 샤쓰도.(셔츠도.)

106026 #1 똥빠대도 있쭈. 똥빠대. 아이들. 쬐깨 닮은 똥빠대.(똥바대도 있지. 똥바대.아이들. 조끼 같은 똥바대.)

106026 @ 똥빠대.(똥바대.)

106026 #1 어때말이라고 거.(조끼라고 그거.)

106026 #2 쬐깨, 어깨말이주.(조끼. 조끼지.)

106026 @ 어깨말이가 이거꽈?(조끼가 이겁니까?)

106026 #2 어깨말이라고.(조끼라고.)

106026 #1 여자들.(여자들.)

106026 @ 여자들마씨?(여자들입니까?)
106026 #1 응, 여자나 남자나 게.(여자나 남자나지.)
106029 @ 단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단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9 #2 응, 볼모작.(응, 벌매듭.)
106029 @ 아, 볼모작마씨?(아, 벌매듭입니까?)
106029 #2 응, 그거. 험벅세기 막 대왕은에 짜는 거. 멘드는 거. 볼모작.(응, 그거 헝겊 마구 꼬와서 짜는 거. 만드는 거, 벌매듭.)
106029 @ 이건 뭐꽈?(이건 뭡니까?)
106029 #2 그건 그냥 단추.(그건 그냥 단추.)
106029 @ 단추마씨?(단추입니까?)
106029 #2 응, 단추. 보당.(응, 단추. 똑딱단추.)
106029 #1 보당은 일본말이라.('보당'은 일본말이야.)
106029 @ 보당은 뭐꽈?('보당'은 뭡니까?)
106029 #1 보당은 일본말.('보당'은 일본말.)
106029 #2 보당은 두 개 영 꾹 찔르는 거.('보당'은 두 개 이렇게 꾹 찌르는 거.)
106029 @ 아. 똑허는 거마씨?(아. 똑하는 겁니까?)
106029 #2 응. 두 개 헹 똑헤영 찔르는 거.(응. 두 개 해서 똑해서 찌르는 거.)
106029 #1 찔르는 거. 똑 소리 나는 거.(찌르는 거. 똑 소리 나는 거.)
106029 #2 것 골앙 보당이렌 해낫주게.(그것 말해서 똑딱단추라고 했었지.)

재단과 염색

106031 @ 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2 갈옷 염색이라 허주게.(갈옷 염색이라고 하지.)
106031 @ 건 어떵헙니까?(그건 어떻게합니까?)
106031 #2 감 뽀상으네.(감 뿌셔서.)
106031 #1 무신 감마씨?(무슨 감입니까?)
106031 #2 감 옷에 들이는 거 헤사주. 든 감 말고. 쪼락진 감. 풋감헤당은네.(감옷에 들이는 거 해야지. 단감 말고. 떫은 감, 풋감하고 와서.
106031 @ 쪼락진 감으로예?(떫은 감으로요?)
106031 #2 응.(응.)
106031 #1 막 뜰븐거. 뜰븐감.(아주 떫은 거, 떫은 감.)
106031 @ 아, 예.(아, 예.)
106031 #2 쪼락진 감 마께로 두드령.(떫은 감 방망이로 두드려서.)
106031 @ 두드령마씨.(두드려서요?)
106031 #2 복삭 두드령은넹에 험벅세기 영 막 물쫘낭. 물쫘낭 옷 우터레 이리저

리 막 멕여그넹.(마구 두드린 다음에 헝겊 이렇게 마구 물 짜 놓고. 물 짜놓고 옷 위에 이래저래 마구 먹여서.)

106031 @ 험벅세기에 놩 막 쫘놩, 물만 나오게.(헝겊에 놓고 마구 짜 놓고, 물만 나오게.)

106031 #1 응. 막 물만 나오게. 경해놩 삼베를 우에 놔사주.(응, 마구 물만 나오게. 그렇게 해 놓고 삼베를 위에 놔야지.)

106031 #2 그걸 또 막 놀려사주. 막 놀려.(그걸 또 마구 빨아야지. 마구 빨아.)

106031 #1 골로로 가게.(골고루 가게.)

106031 @ 삼베를 놓고마씨?(삼베를 놓고요?)

106031 #2 응. 삼베 우이 그걸 놩. 삼베를 물에 당강 놓고. 그 삼베를 막 놀려야 뒈어.(응. 삼베 위에 그걸 놔서 삼베를 물에 담궈 놓고 그 삼베를 마구 빨아야 돼요.)

106031 @ 아. 막 주물락주물락 헤마씨?(아, 마구 주물락주물락 합니까?)

106031 #2 응. 막 그걸 놀려.(응 마구 그걸 빨아.)

106031 @ 놀려 놩 그 다음은마씨?(빨아 놓고 그 다음은요?)

106031 #2 놀령 터렁 널엉 물려와.(빨고 털고 널고 말려.)

106031 @ 널엉 말려마씨?(널어서 말립니까?)

106031 #2 응. 물 적시멍 메날 발래여야 뒈어. 벌겅ᄒᆞ게.(응. 물 적시면서 맨날 바래게 해야 돼, 벌겋게.)

106031 @ 마르민 물적셩 물리곡 또 물젹시고 물리고.(마르면 물 적셔서 말리고 또 물 적시고 말리고.)

106031 #2 으. 또 물 적시고 뒷날은 벳나민 물리곡.(으. 또 물 적시고 뒷날은 볕 나면 말리고.)

106031 #1 경헤야 벌경한 색이 나와.(그렇게 해야 벌건 색이 나와.)

106031 #2 경허민 그것이 벌겅ᄒᆞ게 바라.(그렇게 하면 그것이 벌겋게 바래.)

106031 @ 아. 바라.(아, 바래.)

106031 #2 응. 허영헤난 것이 벌겅ᄒᆞ여.(응, 하얗던 것이 벌겋게 돼.)

106031 #1 물이 엇인 때는 이슬, 그 밤이슬.(물 없을 때는 이슬, 밤이슬.)

106031 @ 예.

106031 #1 밤이슬을 맞기 위해서 널엉 내불여.(밤이슬을 맞히기 위해서 널어서 내버려.)

106031 @ 아하.(아하.)

106031 #1 경헤민 이슬에 축축헌다 말입니다. 겨민 그 이슬이 물라 가면은 발강해가.(그렇게 하면 이슬에 축축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슬이 말라가면 발갛게 되어 가.)

106031 @ 그냥 내불민 뒈는 거구나예.(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군요?)

106031 #1 기냥 내불어도 뒈어. 비만 맞히지 말아.(그냥 내버려도 돼. 비만 맞히

지 마라야.)

106031 #2 비만 맞히지 말민.(비만 맞히지 않으면.)

106031 @ 비 맞히믄 안 뒈고.(비 맞히면 안 되고.)

106031 #1 으. 밤이슬을 맞아야 뒈어. 원래는.(으. 밤이슬을 맞아야 돼. 원래는.)

106031 @ 아.(아.)

106031 #1 물로 적시믄 요 중간에 물로 적셨지. 그 전에는 노다지 밤이슬만 맞혀수다.(물로 적시면 요 중간에 물로 적셨지. 그 전에는 '노다지' 밤이슬만 맞혔습니다.)

106031 @ 아. 경허민 나중에 벌경케 뒈는 거구나예.(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벌겋게 되는 거군요?)

106031 #1 벌경헤여, 나중에.(벌게. 나중에.)

106031 #2 응. 벌경헤여.(응. 벌게.)

106031 @ 경헹 이걸로 뭐 만들어나수과?(그렇게 해서 이걸로 뭐 만들었습니까?)

106031 #2 무신 걸 만들어. 갈옷이라고게.(무슨 걸 만들어? 갈옷이지.)

106031 @ 기꽈?(그렇습니까?)

106031 #2 갈적삼, 갈중이.('갈적삼', '갈중이'.)

106031 #1 그게 제라흔 거주게.(그게 제대로인 거지.)

106031 @ 갈중이, 갈적삼은 어떵 만듭니까?('갈중이', '갈적삼'은 어떻게 만듭니까?)

106031 #2 어떵 만들어게? 갈중이. 옛날은 할망들 갈중이 이만이 퍼진 거 입엉은에 이디 다림 치고.(어떻게 만들어? '갈중이'. 옛날은 할머니들 '갈중이' 이만큼 퍼진 것을 입고 여기 대님 매고.)

106031 #1 그건 굴중의[221]라고. 또 ᄐᆞ로 이서.(그건 '굴중의'라고. 또 따로 있어.)

106031 #2 응. 굴중의라고.(응. '굴중의'라고.)

106031 @ 다 자르곡헹 만듭니까?(다 자르고 해서 만듭니까?)

106031 #2 응. 기자 이녁 짐작대로 ᄆᆞᆯ랑은에 손으로 다 했주게.(응. 그저 자기 짐작대로 마름질해서 손으로 다 했지.)

신발

106033 @ 가죽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가죽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3 #1 그건 실도 안 들어가 가죽으로 신을 박아. 가죽을 ᄀᆞ세로 ᄀᆞᆺ앙 실을 멘들아. 그 가죽신ᄀᆞ라 뭐렌 허드라만은.(그건 실도 안 들어가서 가죽으로 신을 박아. 가죽을 가위로 자르고 나서 실을 만들어. 그 가죽신을 뭐라고 하더라만.)

221) '굴중의'는 허리 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토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이다.

106033 @ 창신 말앙 다른 신발도 이서마씨?(창신 말고 다른 신발도 있습니까?)

106033 #1 것도 잊어불었네. 창신 멘드는 실 말이여.(그것도 잊어버렸네. 창신 만드는 실 말이야.)

106034 @ 나막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나막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4 #2 그건 목시가 멘들아. 목시가.(목수가 만들어. 목수가.)

106034 @ 목시가?(목수가?)

106034 #1 건 ᄀᆨ쉐헹 파는 거.(그건 호비칼 해서 파는 거.)

106034 #2 ᄀᆨ쉐로 팍곡.(호비칼로 파고.)

106034 #1 숫구락 닮은 거 낭 파는 거 이서낫수다.(숟가락 같은 거 놓고 나무 파는 거 있었습니다.)

106034 @ 예.(예.)

106034 #1 ᄀᆨ쉐렌 허는 게. 수제 모냥으로.(호비칼이라고 하는 게. 수저 모양으로.)

106034 @ 예.(예.)

106034 #1 여러 가지로. 그게 ᄒᆞᆫ 서너너질 뒈는데. 족은 고망 팔 때는 ᄒᆞ꼼 족은 걸로.(여러 가지로. 그게 한 서너 가지 종류가 되는데. 작은 구멍 팔 때는 조금 작은 걸로.)

106034 @ 예.(예.)

106034 #1 저 커피 숫구락 닮은 걸로양.(저 커피 숟가락 같은 걸로요.)

106034 @ 예.(예.)

106034 #1 ᄒᆞ꼼 큰 고망 팔 때는 큰 숫구락 닮은 걸로 헹은에 복복 파가민 신이 모양이 다 나와. 기민, 통나무 같은 걸 갖다당.(조금 큰 구멍 팔 때는 큰 숟가락 같은 걸로 해서 박박 파 가면 신이 모양이 다 나와. 그러면, 통나무 같은 걸 가져다가.)

106034 @ 복복 긁엉 팡.(박박 긁으면서 파서.)

106034 #2 남신이라고 게 (나막신이라고.)

106034 @ 언제 신어마씨?(언제 신습니까?)

106034 #2 비 온 날 신곡게, 비 온 날. 눈 온 날도 신곡게.(비 온 날 신고, 비 온 날. 눈 온 날도 신고.)

106034 @ 음.(음)

106034 #2 기민 우리도 그거 끗엉 아졍 다니젠 허민 발에 막 눈덩어리 부뜨민 막 잘빠지멍 뎅겨나서.(그러면 우리도 그거 끌면서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발에 마구 눈덩어리 붙어서 마구 자빠지면서 다녔어.)

106034 @ 굽에 눈이 부떵마씨?(굽에 눈이 붙어서요?)

106034 #2 응. 굽에 막 눈 부떵.(응. 굽에 막 눈 붙어서.)

106034 #1 잘 뿌러지곡, 굽 아리 다 꺾어지곡. 혼이 나주. 그런 거.(잘 부러지고,

굽 아래 다 꺾어지고. 혼이 나지. 그런 거.)

106034 #2 어른들은 그 남신 신엉 저을 들어 보리 밧디 검질 메곡.(어른들은 그 나막신 신어서 겨울 들어 보리 밭에 김매고.)

106034 @ 허.(허.)

106034 #2 비 온 날도 그 남신 신엉 뎅기곡. 우리 어머니네 남신 신엉 뎅겨낫주게. 보리밧디 가곡게.(비 온 날도 그 나막신 신어서 다니고. 우리 어머니네 나막신 신어서 다녔었지. 보리밭에 가고.)

106034 #1 우리 조상들은 조끄티옌 해서 그 남신 신엉 걸어가도 못헤낫어.(우리 조상들은 가까운 데라고 해서 그 나막신 신어서 걸어가지도 못했었어.)

106034 @ 초신은 또 뭐 잇덴 햇져마는, (짚신은 또 뭐 있다고 했는데.)

106034 #2 초신은 저 산듸짚으로 ᄌᆞ는 거난게.(짚신은 저 밭볏짚으로 겯는 것이니까.)

106034 @ 아, 예.(아, 예)

106034 #2 줄앙 깍내멍.(결으면서 깍 내면서.)

106034 #1 이딧 말로 ᄌᆞ는 거주. 짠덴 말을.(여기 말로 겯는 거지. 짠다는 말을.)

106034 #2 줄앗주. 줄아. 초신 줄아. 우리 족은 할으방 게나제나 그 신클에서 초신 삼앙 김녕 장에 강 풀멍 혜낫주.(결었지. 결어. 짚신 결어. 우리 작은 할아버지 그나저나 그 신틀에서 짚신 만들어서 김녕 장에 가서 팔곤 했었지.)

106034 @ 그때 부깍신이여, 비빔깍신이여 그런 거 이서낫덴 햇지예?(그 때 부깍신이라고, 비빔깍신이라고 그런 거 있었다고 했었지요?)

106034 #2 응, 응. 부깍신을 북베기[222]로 깍[223]내멍 ᄌᆞ는 거곡, 깍신은 꼽닥허게 깍 내엇당 붙이멍 ᄌᆞ는 거곡.(응, 응. '부깍신'을 '북베기'로 '깍 내면서 겯는 것이고, '깍신'은 예쁘게 '깍' 내었다가 붙이면서 겯는 것이고.)

106034 @ 맞다예.(맞네요.)

106034 #2 깍 내멍 허는 건 비빔깍신, 그냥 내멍 허는 건 부깍신.('깍' 내면서 하는 건 '비빔깍신'. 그냥 내면서 하는 것은 '부깍신'.)

모자 등

106037 @ 모자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모자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106037 #1 벌립?(벌립?)

106037 #2 모자? 뭐 무신, 옛날은 삿갓모, 대패랭이. 기자.(모자? 뭐 무슨, 옛날은 삿갓, 대패랭이. 그저.)

106037 @ 삿갓, 대패랭이마씨?(삿갓, 대패랭이요?)

106037 #2 옛날은 기자 그거.(옛날은 그저 그거.)

---

222) '북베기'는 밭볏짚을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것을 말한다.
223) '깍'은 총을 말한다. 짚신의 운두를 이루는 낱낱의 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106037 #1 벌립[224], 벌립이 이섯주.(벙거지, 벙거지가 있었지.)

106037 #2 벌립이예, 벙것이 이섯주.(벙거지요. 벙거지가 있었지.)

106037 #1 벌립이렌 헌게 있고, 벙것이렌 헌게 이섯주.(벙거지라고 하는 게 있고, 벙거지라고 하는 게 있었지.)

106037 #2 터럭벙것이렌 헌게 이서나서.(털벙거지라고 한 게 있었지.)

106037 @ 터럭벙것마씨?(털벙거지요?)

106037 #2 으, 터럭벙것. 옛날.(으, 털벙거지. 옛날.)

106037 #1 끅 걱그레 갔당으네 베 아이 가져가난 저 벌립 튿엉은에 베 줄앙 끅정 오라낫덴 헹게. 그게 정당 벌립이주. 정당벌립.(칡 꺾으러 갔다가 바 안 가져 가니까 저 벙거지 뜯어서 바를 결어서 칡 지고 왔었다고 했는데. 그게 댕댕이덩굴 벙거지지. 댕댕이덩굴 벙거지.)

106037 @ 정당으로 만들어마씨?(댕댕이덩굴로 만듭니까?)

106037 #1 응. 정당으로 만든 벌립.(응, 댕댕이덩굴로 만든 벙거지.)

106037 #2 정당으로 짠 거. 그거 패랭이라.(댕댕이덩굴로 짠 거. 그거 패랭이이야.)

106037 #1 패랭이.(패랭이.)

106037 @ 아, 아.(아, 아.)

106037 #2 패랭이 닮은 거. 모저.(패랭이 같은 거. 모자.)

106037 #1 정당벌립. 그 끅 거끄레 갔다기네, 베를 아이 가졍 가져서 잊어불엉.(댕댕이 덩굴 벙거지, 그 칡 꺾으러 갔다가 바를 안 가지고 가서 잊어버려서.)

106037 @ 아, 예.(아, 예)

106037 #1 무껑 지어와야 될 거 아니야?, 베 대신. 근디 그 멍청한 사름이.(묶어서 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바 대신. 그런데 그 멍청한 사람이.)

106037 #2 흐흐흐 (흐흐흐)

106037 #1 정당으로 짠 패랭이를 튿엉은에.(댕댕이 덩굴로 짠 패랭이를 뜯어서.)

106037 #2 옛날 할르방들게.(옛날 할아버지들.)

106037 #1 그 끅으로 지엉 오민 될건데, 정당벌립을 다 튿어네 베로 헹에 지엉 왕 집이 왕 보니까 멍텅헌 짓을 해졌거든.(그 칡으로 지어서 오면 될건데, 댕댕이 덩굴을 다 뜯어서 바로 해서 지어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멍청한 짓을 해졌거든.)

106037 @ 아, 예.(아, 예)

106037 #1 게난 끅 끌르레 간 놈이 베 아이 가져가졌ᄀᆞ렌 정당벌립 튿어 아졍 배로 헹 정 아져 왔덴 헌다.(그러니까 칡 캐러 간 놈이 바 안 가져가졌다고 댕댕이 덩굴 벙거지를 뜯어 가지고 바로 해서 저렇게 가지고 왔었다고 한다.)

106037 @ 아! (아!)

106037 #1 속담에 그 말이 나옵니다.(속담에 그 말이 나옵니다.)

106037 @ 바보 같은 행동을 헷덴 헌 말이구나예.(바보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

224) '벌립'은 모자의 종류인데 벙거지를 가리키는 말로 벙것과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말이군요?)

106037 #1 으으. 바보 곶지 헤여졋다 이 말이우다. 끅으로 허민 베가 얼마든지 뒈곡 할 건디.(으으. 바보같이 했었다 이 말입니다. 칡으로 하면 바가 얼마든지 되고 할 건데.)

106037 @ 게매예.(그러게요.)

106037 #1 그건 생각 안 허고 썽 간 패랭이 그 정당으로 짠.(그건 생각 안 하고 쓰고 간 패랭이 그 댕댕이덩굴로 짰어.)

106037 @ 정당만 생각헌 거라예.(댕댕이덩굴만 생각한 거예요.)

106037 #2 정당 벌립. 흐흐.(댕댕이덩굴 벙거지. 흐흐)

106037 #1 패랭이만 생각허연. 정당벌립, 정당벌립 헙주.(패랭이만 생각했어. 댕댕이, 덩굴 벙거지. 댕댕이덩굴 벙거지 했지.)

106037 @ 정당벌립은 여름에만 쓰겟다예?(댕댕이덩굴 벙거지는 여름에만 쓰겠네요?)

106037 #1 예, 여름에.(예, 여름에.)

106038 @ 여름에는 어떤 모자를 씁니까?(여름에는 어떤 모자를 씁니까?)

106038 #1 여름에는 기자, 패랭이게.(여름에는 그저, 패랭이지.)

106038 #2 대패랭이, 뭐, 삿갓.(대패랭이, 뭐, 삿갓.)

106038 @ 다 여름에만 씁니까?(다 여름에만 씁니까?)

106038 #2 응.(응.)

106039 @ 겨울에는 어떤 모자를 씁니까?(겨울에는 어떤 모자를 씁니까?)

106039 #1 감티[225]라고. 지달피 감티여 뭐 뮈신, 털 벙것이여 헹은에 거 아무나 아이 씁니다.('감티'라고. 오소리 가죽 '감티'하고 뭐 무슨, 털 벙거지라고 해서 거 아무나 안 씁니다.)

106039 #2 옛날 벙것이렌 헌 것도 아무나 아이 써 낫주.(옛날 벙거지라고 한 것도 아무나 안 썼었지.)

106040 @ 양태겯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양태겯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0 #2 양태가 탕근 아니?(양태가 탕건 아니?)

106040 #1 탕근에서 양태 그.(탕건에서 양태 그.)

106040 #2 양태가 탕건일거라.(양태가 탕건일거야.)

106040 #1 탕근이여 무시거영 멘들어난 거주.(탕건하고 무엇 하고 만들었었지.)

106040 @ 탕건은 만들어나수과?(탕건은 만들었었습니까?)

106040 #2 탕근 우리 안 만들어봔. 옛날 우리 어머니네 만들어 봤주.(탕건 우리 안 만들어 봤어. 옛날 우리 어머니네 만들어 봤었지.)

106040 #1 함덕 살 때들 멘들어낫주. 함덕 사름은 시방도 멘들아.(함덕 살 때에

225) '감티'는 짐승의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든 방한모의 총칭이다. 예전에 산간 마을 사람들이 주로 썼다고 한다.

만들었었지. 함덕 사람은 시방도 만들어.)

106040 @ 탕건은 만든다고 합니까, 졸인다고 합니까?(탕건은 만든다고 합니까? 겯는다고 합니까?)

106040 #2 실로 짜는 거.(실로 짜는 거.)

106040 @ 짜는 거마씨?(짜는 거입니까?)

106040 #2 말총으로 헹은에 물꼴렝이에 거 헹은에 짜는 거.(말총으로 해서 말꼬리에 그거 해서 짜는 거.)

106040 @ 아, 아.(아, 아)

106040 @ 총모자는 뭐렌 허는 것과?('총모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106040 #2 총모자?('총모자'?)

106040 @ 예, 총모자.(예, '총모자'.)

106040 #2 물총으로 만드는 거 아니? 총모자.(말총으로 만드는 거 아니? '총모자'.)

106040 @ 물총으로.(말총으로.)

106040 #2 응.(응.)

106040 @ 물총으로 탕건 망건 말고 또 뭐 만듭니까?(말총으로 탕건 망건 말고 또 무엇을 만듭니까?)

106040 #2 탕근 말앙, 무시거, 멩긴?(탕근 말고, 무엇, 망건?)

106040 #1 탕근이여 멩긴이여.(탕건하고 망건하고.)

106040 #2 탕근 우이 쓰는 게 멩긴 아니?(탕건 위에 쓰는 게 망건 아니?)

106040 @ 탕근은예, 여기 게 맞고예. 멩근은 그 위에 영 쓰는 걸거우다.(탕건은요, 여기 것이 맞고요. 망건은 그 위에 이렇게 쓰는 것일 겁니다.)

106040 #1 멩긴은 머리띠를 말허는 거구나.(망건은 머리띠를 말하는 거구나.)

106040 #2 탕근, 멩긴. 탕근 우이 영 패랭이 곳지 쓰는 게 멩긴 아니?(탕건, 망건, 탕건 위에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이 망건 아니?)

106040 @ 패랭이 같이 쓰는 거마씨?(패랭이 같이 쓰는 것입니까?)

106040 #1 건 갓이주, 갓.(그건 갓이지. 갓.)

106040 @ 예.(예)

106040 #1 갓이 있고. 탕건은 그 앞에 두건 모냥으로 쓰는 거고.(갓이 있고. 탕건은 그 앞에 두건 모양으로 쓰는 것이고.)

106040 #2 탕근은 앞이 영 톡지엉은에 영.(탕건은 앞이 이렇게 턱지어서 이렇게.)

106040 #1 응. 톡진 거고. 이 우이 쓰는 건 갓.(응. 턱진 것이고. 이 위에 쓰는 것은 갓.)

106040 @ 갓, 갓마씨.(갓, 갓입니다.)

106040 #1 탕근, 갓.(탕건, 갓.)

106040 @ 갓도 말총으로 만들어마씨?(갓도 말총으로 만들어요?)

106040 #2 이. 갓도 ᄆᆞᆯ총으로 멘들아.(이. 갓도 말총으로 만들어.)

106044 @ 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4 #2 도롱이?(도롱이?)

106044 @ 예.(예)

106044 #2 도롱이가 무시 거라. 개 우이나 도롱이 올른덴 허주.(도롱이가 뭐지? 개 위에 도롱이 옮긴다고 하지.)

106044 #1 하하하. 그건 (하하하. 그건)

106044 #2 개 우이나 도롱이 올른덴 허주.(개 위에 도롱이 옮긴다고 하지.)

106044 @ 피부병?(피부병?)

106044 #2 피부병 닮은 거주. 개 터럭 먼짝 벗어부는 거. 도롱이 올랐덴 허주.(피부병 같은 거지. 개 털 모두 벗겨지는 거. 도롱이 옮겼다고 하지.)

106044 @ 아하. 도롱이 올랐덴 예? 하하. 우장마씨.(아하. 도롱이 옮긴다고요? 하하. 도롱입니다.)

106044 #2 우장?(도롱이?)

106044 @ 예. 안 들어봐나수과?(예. 안 들어 봤습니까?)

106044 #1 여기는 우장이렌 허주.(여기는 '우장'이라고 하지.)

106044 #2 우장?('우장'?)

106044 #1 주젱이[226] ᄀᆞ튼 거 그런 건 눌 덕그는 거고. 놀암지, 주젱이.(주저리 같은 거 그런 건 가리 덮는 거고. 날개, 주저리.)

106044 @ 비올 때 쓰는 거 뭐마씨?(비올 때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106044 #2 비올 때 쓰는 거 뭐? 우장?(비올 때 쓰는 거 뭐? 도롱이?)

106044 @ 우장, 게난.(도롱이, 그러니까.)

106044 #2 응, 우장.(응, 도롱이.)

106044 @ 우장은 어떵 만들어마씨?(도롱이는 어떻게 만듭니까?)

106044 #1 아이고, 그거 상당히 어려와.(아이고, 그거 상당히 어려워.)

106044 #2 우장도 짜는 사름은 짜주.(도롱이도 짜는 사람은 짜지.)

106044 @ 긴 거, 짧은 거 이수과?(긴 거, 짧은 거 있습니까?)

106044 #1 아이 똑 ᄀᆞ치 들어갑니다만.(안 똑 같이 들어갑니다만.)

106044 @ 예.(예)

106044 #1 근디 그거 모작 수가 엄청나게 만하여.(그런데 그거 매듭 수가 엄청나게 많아.)

106044 @ 아, 기꽈? 모작 수.(아, 그렇습니까? 매듭 수.)

106044 #2 벳긔디는 멘 떠럭이고 안네는 멘 모작이라, 모작.(바깥에는 모두 털이고 안에는 모두 매듭이야. 매듭.)

---

226)'주젱이'는 주저리를 말한다.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을 가리킨다.

106044 @ 아.(아.)
106044 #2 노끈 모작.(노끈 매듭.)
106044 #1 게난 어떤 태풍이 불어도.(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불어도.)
106044 #2 우장이렌 헌거는.(도롱이라고 하는 거는.)
106044 #1 우장 쓰고 우이 감테같은 거나 씌민 끄덕 어서 낫주. 불려나가지나 안 허민.(도롱이 쓰고 위에 감태같은 거나 쓰면 끄떡없었지. 불려나가지나 않으면.)
106044 @ 아.(아.)
106044 #1 어떤 비ᄇᆞ름이 불어도 방지뒈는 거주. 그 이상 우의가 좋은 게 어서 낫주.(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방지되는 거지. 그 이상 우의가 좋은 게 없었지.)
106044 #2 옛날엔 게 우장베끼 어서낫주게. 비옷이렌 헌 게게.(옛날에는 도롱이밖에 없었지. 비옷이라고 하는 게.)
106044 @ 안에는 실 짜듯이 영 모작으로 짜고.(안에는 실 짜듯이 이렇게 매듭으로 짜고.)
106044 #2 안에는 ᄆᆞ딱 모작.(안에는 모두 매듭.)
106044 @ 위에는 나풀나풀.(위에는 나풀나풀.)
106044 #2 터럭, 새[227].(털, 띠.)
106044 #1 새, 새.(띠, 띠.)
106044 @ 아, 새.(아, 띠.)
106044 #2 새 터럭. 비가 반경.(띠 털. 비가 '반경')
106044 @ 새는 나는 생이꽈?(띠는 나는 새입니까?)
106044 #2 아니, 집 잇는 새.(아니 집 잇는 띠.)
106044 @ 아, 그냥 새.(아, 그냥 띠.)
106044 #1 집 잇는 새도 몬 다듬어야 돼.(집 잇는 띠도 모두 다듬어야 돼.)
106044 @ 아.(아.)
106044 #1 새 사이에 나무 땅땅한 거. 거 어셔불어사메.(띠 사이에 나무 단단한 거. 그거 없애버려야 돼.)
106044 @ 아, 얇게 깎으멍예?(아, 얇게 깎으면서요?)
106044 #1 응, 얇게. 야.(응, 얇게.)
106044 @ 그걸 터럭이렌 허는구나.(그걸 털이라고 하는구나.)
106044 #1 응, 그거 터럭.(응, 그거 털.)
106044 @ 나풀나풀한 걸.(나풀나풀한 걸.)
106044 #1 하하하.(하하하.)

7. 식생활

227) '새'는 볏과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띠, 억새 따위가 있다.

죽류

107024 @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4 #1 재료에 따라서 죽이 다르난 게.(재료에 따라서 죽이 다르니까.)

107024 #2 콩죽도 있고 풋죽도 있고.(콩죽도 있고, 팥죽도 있고.)

107024 #1 곤죽[228]도 있고.('곤죽'도 있고.)

107024 @ 아, 곤죽.(아, '곤죽'.)

107024 #1 피국죽도 있주.(피갱죽도 있지.)

107024 @ 곤죽하고 흰죽하고 틀립니까?('곤죽'하고 흰죽하고 다릅니까?)

107024 #2 아니라. 곤죽이옌 헌 건 지름 놩은에 곤죽을 쑤어 먹주.(아니야. '곤죽'이라고 하는 건 기름에 놔서 흰죽을 쑤어 먹지.)

107024 @ 아.(아.)

107024 #1 쌀만 놩 죽을 쑤는 걸 곤죽을 말허는 거고.(쌀만 놔서 죽을 쑤는 것을 흰죽을 말하는 거고.)

107024 @ 어떵 멘듭니까?(어떻게 만듭니까?)

107024 #2 어떵해 지름 볶앙은에게 겅헹 죽 쑤는 거.(어떻게 기름 볶아서 그렇게 해서 죽 쑤는 거.)

107024 @ 찬물 놩마씨?(찬물 놉니까?)

107024 #2 응. 언물[229]. 찬물이옌 헤여? 언물이옌 허주.(응. '언물'. 찬물이라고 해요? '언물'이라고 하지.)

107024 @ 언물을 놔.(찬물을 놔.)

107024 #2 언물을 놩 죽 끓영 먹주 뭐. 많이 있주 뭐. 모믈죽도 있고.(찬물을 놔서 죽 끓여서 먹지 뭐. 많이 있지 뭐. 메밀죽도 있고.)

107024 @ 모믈죽도 있고.(메밀죽도 있고.)

107024 #2 으. 피쏠죽도 있고 뭐.(으. 피쌀죽도 있고 뭐.)

107024 #1 피국죽을 혼 번 ᄂᆞ물이영 담아 놩 멕여 봐사 맛을 알게.(피갱죽을 한 번 나물하고 담아 놓고 먹여 봐야 맛을 알게.)

107024 #2 하하하.(하하하.)

107024 @ 피국죽마씨?(피갱죽입니까?)

107024 #2 국죽, 국죽.(갱죽, 갱죽.)

107024 @ 그냥 국죽.(그냥 갱죽.)

107024 #2 그냥 국죽. 막 숭키 담아 놓고 아무 쏠이라도 놩.(그냥 갱죽. 마구 푸성귀 담아 놓고 아무 쌀이라도 놔서.)

107024 #1 아무 쏠이라도 놩.(아무 쌀이라도 놔서.)

107024 #2 막 ᄂᆞ믈[230] 담아 놓곡 무신 놈삐도 썰어 놓공 헹은에.(마구 나물 담

228) '곤죽'은 기름을 넣고 끓인 흰죽을 말한다.
229) '언물'은 찬물을 말한다.
230) 'ᄂᆞ믈'은 일반적인 채소류를 가리키지만 특히 배추 따위를 말한다.

아 놓고 무슨 무도 썰어 놓고 해서.)

107024 #1 불려 먹기 위해서 (불려 먹기 위해서)

107024 #2 경헹 국죽.(그렇게 해서 갱죽.)

107024 @ 국죽. 이건 국죽마씨? 쌀하고 숭키 같이마씨?(갱죽. 이건 갱죽입니까? 쌀하고 푸성귀 같이입니까?)

107024 #2 아니 쏠 놩 쑤어져가민 숭키 놩.(아니 쌀 놔서 쑤어지면 푸성귀 넣어서.)

107024 @ 숭키 나중에 (푸성귀 나중에.)

107024 #1 응. 숭키. 채소를 놓는다 말이우다. 아무 채소나.(응. 푸성귀. 채소를 놓는다 말입니다. 아무 채소나.)

107024 #2 아무거나 ᄂᆞ믈도 담아 놓곡게.(아무거나 배추도 담아 놓고.)

107024 #1 고사리를 놔서 쑤던, 배추를 놓던, 무수를 놓던.(고사리를 놓고 쑤든지, 배추를 놓든지, 무를 놓든지.)

107024 @ 아.(아.)

107024 #1 불와 먹기 위해서. 옛날.(불려 먹기 위해서. 옛날.)

107024 @ 음.(음.)

107024 #1 보리 국죽. 보리쏠로 죽을 쑵니께. 여기 좁쏠이나 곤쌀이나 아무 쏠이나 놩은에 불와 먹기 위해서.(보리 국죽. 보리쌀로 죽을 쑤잖습니까? 여기 좁쌀이나 흰쌀이나 아무 쌀이나 놓고서 불려 먹기 위해서.)

107024 @ 아.(아.)

107025 @ 곤죽하고 흰죽은 틀린 거라고마씨?('곤죽'하고 흰죽은 다른 거라고요?)

107025 #2 으. 흰죽은 그냥 심심하게 쑤엉 먹는 거.(으. 흰죽은 그냥 심심하게 쑤어 먹는 거.)

107025 @ 아. 흰죽은 그냥 쏠만.(아. 흰죽은 그냥 쌀만.)

107025 #2 으으. 쏠만.(으으. 쌀만.)

107025 @ 그건 흰죽이꽈?(그건 흰죽입니까?)

107025 #2 으. 흰죽. 모물죽. 모물쏠 놩 쑤는 건 모물죽.(으. 흰죽. 메밀죽. 메밀쌀 놔서 쑤는 건 메밀죽.)

107027 @ 풋죽은마씨?(팥죽은요?)

107027 #2 풋죽은 그냥 풋죽이주게. 녹디죽도 있고.(팥죽은 그냥 팥죽이지. 녹두죽도 있고.)

107027 #1 풋죽, 녹지죽은 옛날엔 이젠 떡들허멍 ᄌᆞ베기들 허멍 헙디다들. 옛날은 그런 법이 어서수다.(팥죽, 녹두죽은 옛날엔 이젠 떡들 하고 수제비들 하면서 합디다들. 옛날은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107027 @ 풋죽은 어떵 쑵니까?(팥죽은 어떻게 쑵니까?)

107027 #2 무시거 풋 솖앙은에게.(무엇 팥 삶아서.)

107027 @ 풋을 솖아.(팥을 삶아.)
107027 #2 그냥 무시거게 문대경은에게 (그냥 무엇 문대서)
107027 @ 아, 문대겨.(아, 문대서.)
107027 #2 그냥 물 놩 쏠 놩 쑤면 뒈주게.(그냥 물 놓고 쌀 놔서 쑤면 되지.)
107027 @ 솖은 물 안 버립니까?(삶은 물 안 버립니까?)
107027 #2 물 안 버려.(물 안 버려.)
107027 #1 물 버려 뒈어게.(물 버리면 되어.)
107027 #2 물 버리민 맛이서게? 멋엇주.(물 버리면 맛있어요? 맛없지.)
107027 @ 풋 솖아난 다음에 호끔 문대겨.(팥 삶아난 다음에 조금 문대서.)
107027 #1 ᄀᆞ치 그것에 문대겨.(같이 그것에 문대서)
107027 #2 국자 신 때 국자로 꾹꾹 눌렁 문대경은에 풋죽 쑤어.(국자 있을 때 국자로 꾹꾹 눌러서 문대고 난 다음에 팥죽 쑤어요.)
107027 #1 설사 난 사람도 그거 막 단 약이라.(설사 난 사람도 그거 아주 단 약이야.)
107027 @ 문대겨 놩 물 놩 쑤어?(문질러서 놓고 물 놔서 쑤어요?)
107027 #2 으. 물 더 놩. 경 헹 쏠 놩 쑤민 뒈주.(으. 물 더 놓고. 그렇게 해서 쌀 놓고 쑤면 되지.)
107027 #1 풋죽도 쑤는 거 몰라?(팥죽도 쑤는 거 몰라?)
107027 @ 어떵 헐 때 풋죽은 먹는 것과?(어떠할 때 팥죽은 먹는 것입니까?)
107027 #2 풋죽은 동지에도 먹곡.(팥죽은 동지에도 먹고.)
107027 @ 동지에.(동지에.)
107027 #1 이디 큰일 나크라. 동지에 방서로 쑤어 먹는다. 아귀를 쫓기 위해서.(여기 큰일 나겠네. 동지에 방사로 쑤어 먹는다. 아귀를 쫓기 위해서.)
107027 #2 절간에서도 그건 쑤어 먹곡.(절간에서도 그건 쑤어 먹고.)
107027 @ 예.(예.)
107027 #1 풋죽을 쑤엉 문에도 잡앙 던지곡.(팥죽을 쑤어서 문에도 잡아서 던지고.)
107027 @ 예.(예.)
107027 #1 저런 디도 만딱 돌아가멍 ᄒᆞ쏠씩 뭐, 캐우립니다.(저런 데도 모두 돌아가면서 조금씩 뭐, 고수레합니다.)
107027 @ 예.(예.)
107027 #2 풋으로이, 풋은 귀신을 방비허는 거난.(팥으로, 팥은 귀신을 방비하는 거니까.)
107027 #1 방비허는 거우다.(방비하는 겁니다.)
107027 @ 예.(예.)
107027 #2 저 이사나 가젠 허민 집이 상 가나 이사 가젠 허민 그 집이 강 풋을 막 뿌리는 거라.(저 이사나 가려고 하면 집을 사서 가거나 이사 가려고 하면 그 집

에 가서 팥을 마구 뿌리는 거야.)

107027 @ 아.(아.)

107027 #1 소곰, 소곰. 풋이나.(소금, 소금. 팥이나.)

107027 #2 겡이나 안 허면 동지에.(그렇게 안 하면 동지에.)

107027 #1 방사로 경허고. 바싹 추우민 풋죽 쑤어 먹어 좋은 거주게.(방사로 그렇게 하고. 바싹 추우면 팥죽 쑤어 먹어 좋은 거지.)

107027 #2 추울 때 뜻뜻허주게.(추울 때 따뜻하지.)

107027 @ 예.(예.)

107028 @ 콩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콩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8 #2 콩을 골아당. 옛날은 기계 엇으난에 돌ᄀᆞ레에 콩 골앙.(콩을 갈아다가. 옛날은 기계 없으니까 돌맷돌에 콩 갈아서.)

107028 @ 돌ᄀᆞ레에마씨?(돌맷돌에 입니까?)

107028 #2 응.(응.)

107028 #1 정ᄀᆞ레[231], 정ᄀᆞ레.(돌맷돌, 돌맷돌.)

107028 #2 정ᄀᆞ레에 골앙 경헹.(돌맷돌에 갈아서 그렇게 해서.)

107028 @ 그믄 그 ᄀᆞ루로 바로 끓입니까?(그러면 그 가루로 바로 끓입니까?)

107028 #2 아니, 쏠 놩 쑤당게.(아니, 쌀 놔서 쑤다가.)

107028 @ 아, 쑤당.(아, 쑤다가.)

107028 #2 쏠 놩 쑤당 괴여가민 콩ᄀᆞ루를 놩 남죽으로 휘 젓으멍.(쌀 놔서 쑤다가 끓어 가면 콩가루를 놔서 죽젓개[232]로 휘 저으면서.)

107028 @ 남죽으로 젓으멍.(죽젓개로 저으면서.)

107028 #2 으. 눌카부덴[233]. 남죽으로 젓으멍게.(으. 눌까봐 죽젓개로 저으면서.)

107028 @ 예.(예.)

107028 #2 쑤멍 먹엇주.(쑤면서 먹었지.)

107028 #1 콩죽 쑤어 먹어난 거로구나. 하하. 오렌 역사주.(콩죽 쑤어 먹었던 거였구나. 하하. 오렌 역사지.)

107028 @ 예.(예.)

107029 @ 모물죽마씨. 그건 어떵헙니까?(메밀죽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107029 #2 어떵헤여게? 물놩 쑤민 뒈는 거주.(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놔서 쑤면 되는 거지.)

107029 #1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29 @ 그냥 물 노민 뒈마씨?(그냥 물 놓으면 됩니까?)

107029 #2 으. 물만 놔.(으. 물만 놔.)

107029 #1 쏠만 노민.(쌀만 놓으면.)

107029 @ 모물에 쌀도 놓고마씨?(메밀에 쌀도 놓습니까?)

---

231)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이다.

232) '죽젓개'는 죽을 쑬 때에 고르게 끓이기 위해서 죽을 휘젓는 나무방망이를 말한다.

233) '눋다'는 누런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는 의미이다.

107029 #2 으. 쏠 놩.(으. 쌀 놔서.)

107029 #1 모물쏠게. 모물.(메밀쌀. 메밀.)

107029 @ 아, 모물만.(아, 메밀만.)

107029 #1 모물이 아니고 모물쌀. 모물은 껍질이고.(메밀이 아니고 메밀쌀. 메밀은 껍질이고.)

107029 @ 하하하.(하하하)

107029 #1 모물은 껍질을 말허는 거고. 모물에 껍질을 벗어난 것은 쌀, 모물쌀.(메밀은 껍질을 말하는 거고, 메밀에 껍질을 벗겨낸 것은 쌀, 메밀쌀.)

107029 #2 모물쌀.(메밀쌀.)

107029 @ 예. 벗겨 놓은 거예?(예. 벗겨 놓은 것입니까?)

107029 #1 으. 그건 벼도 마찬가지라. 벼 껍질광 볍쌀이 또 틀린 거주게.(으. 그건 벼도 마찬가지라. 벼 껍질과 볍쌀이 또 다른 거지.)

107029 @ 아.(아.)

107029 #1 껍질을 벗어나야 벼도 쌀이 나오게 뒈는 거.(껍질을 벗겨내야 벼도 쌀이 나오게 되는 거.)

107029 @ 모물 껍데기는 뭐렌 골아마씨?(메밀 껍데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7029 #2 모물체. 베개도 허고 허주게.(메밀겉겨. 베개도 하기도 하지.)

107029 @ 모물체하고 쌀 사이에 있는.(메밀겉겨하고 쌀 사이에 있는.)

107029 #1 그건 느젱이.(그건 나깨.)

107029 @ 아, 느젱이.(아, 나깨.)

107029 #1 그건 느젱이옌 곧는 거.(그건 나깨라고 말하는 거.)

107029 #2 하하하.(하하하.)

107029 #1 막 궂인 것을 말허는 거.(아주 궂은 것을 말하는 거.)

107029 #2 느젱이는 시커멍헌 거.(나깨는 시커먼 거.)

107029 @ 느젱이는 모믈에만 이신 거꽈?(나깨는 메밀에만 있는 겁니까?)

107029 #1 응. 모물에만.(응. 메밀에만.)

107029 #2 모믈에만 있주게게. 쏠 골아나민.(메밀에만 있지. 쌀 갈아나면.)

107029 @ 예예.(예예.)

107029 #2 느젱이.(나깨.)

107029 #1 피쏠같은 거 골아 나민 또 피보미가 있주. 그냥.(피쌀[234]같은 거 갈고 나면 또 피 쌀겨가 있지. 그냥.)

107029 @ 피보미는 피쏠하고 피 껍데기 사이에 있는 거꽈?(피 쌀겨는 피쌀하고 피 껍데기 사이에 있는 겁니까?)

107029 #2 피 골아나민 체에 치면은 보미가 나와.(피 갈고 나면 체에 치면 쌀겨가 나와.)

107029 @ 하얗게 가루 같은 거마씨?(하얗게 가루 같은 겁니까?)

234) '피쌀'은 피의 겉피를 찧어 겉겨를 벗긴 쌀이다.

107029 #1 쥐색 닮은 ᄀᆞ루가 나와.(쥐색 같은 가루가 나와.)

107029 @ 아.(아.)

107029 #1 쏠이 검습니다. 쏠이 검으니까 쏠 일부 벗어지멍 그 ᄀᆞ루가 나와.(쌀이 검습니다. 쌀이 검으니까 쌀 일부 벗겨지면서 그 가루가 나와.)

107029 @ 보미는 피에만 이수과? 다른 쏠에는 엇수과?(쌀겨는 피에만 있습니까?)

107029 #2 으서.으서.(없어. 없어.)

107029 #1 뚠 쏠에는 어서. 피에만.(다른 쌀에는 없어. 피에만.)

107029 @ 피에만.(피에만.)

107029 #2 피에만 이서. 느젱이도 모물에만.(피에만 있어. 나깨도 메밀에만.)

107029 #1 으. 모물에만 잇곡. 느젱이도.(으. 메밀에만 있고. 내깨도.)

107029 @ 보미는 주워 먹는 거꽈? 죽이라도 쑤엉 먹는 거꽈?(쌀겨는 주워 먹는 겁니까? 죽이라도 쑤어서 먹는 겁니까?)

107029 #2 느젱이?(나깨?)

107029 @ 아니 보미.(아니. 쌀겨.)

107029 #2 보미? 아니 그냥 ᄒᆞ쏠 좁아 먹으민 ᄃᆞᆯ큰은 헤여.(쌀겨? 아니 그냥 조금 집어 먹으면 달콤은 해.)

107029 @ 좁아 먹어마씨?(집어 먹습니까?)

107029 #2 으. 먹지 안 헤여.(으. 먹지 않아.)

107029 @ 헤 먹지 안 헤여마씨?(해 먹지 안합니까?)

107029 #2 으. 먹지 안 헤여.(으. 먹지 않아.)

107029 #1 아, 겐디 우린 먹어낫주. 흉년에.(아, 그런데 우린 먹었었지. 흉년에.)

107029 #2 무시걸 헹 먹습니까?(무슨 걸 해서 먹습니까?)

107029 #1 겐디 많이 먹지는 못헤여. 막 독헤여.(그런데 많이 먹지는 못해요. 아주 독해요.)

107029 @ 아아.(아아.)

107029 #2 목이 막 웨허영 못 먹어.(목이 아주 싸해서 못 먹어.)

107029 #1 게난 간식으로 밥 대신 조금 그자. 사발에 숫구락 두어 숫구락 그자.(그러니까 간식으로 밥 대신 조금 그저. 사발에 숟가락 두어 숟가락 그저.)

107029 @ 아.(아.)

107029 #1 옛날이사 게역헹 먹주.(옛날이야 미숫가루해서 먹지.)

107029 #2 옜날이 게역이 어디 셔서. 게역.(옛날에 미숫가루가 어디 있었어? 미숫가루.)

107029 @ 하하하.(하하하.)

107029 #1 우린 그때 송당서 보리를 갈앗어.(우린 그때 송당에서 보리를 갈았어.)

107029 #2 아니 물룻이라도 솖앙 먹주.(아니 무릇이라도 삶아서 먹지.)

107029 #1 게, 옛날은 물룻 솖아서.(그럼, 옛날에는 무릇 삶아서.)

107029 @ 물룻은 어떵 솖아 먹습니까?(무릇은 어떻게 삶아서 먹습니까?)

107029 #2 물룻 솖앙 막 풀레 뎅겨낫주게.(무릇 삶아서 마구 팔러 다녔었지.)

107029 #1 물룻 솖으면은 정각 노으메(무릇 삶으면 청각를 놓아요.)

107029 @ 정각?(청각?)

107029 #2 패[235]주 무신 정각?(패지. 무슨 청각?)

107029 #1 아, 패, 패! 정각은 우리 생차로 먹는 거고. 패, 넙패라고.(아, 패, 패! 청각은 우리 생채로 먹는 거고. 패, 넓패[236]라고.)

107029 #2 물룻에 놩 솖아.(무릇에 놓고 삶아.)

107029 #1 넙패 놩 막 솖아 가민 이게 둘아.(넓패 놓고 마구 삶아 가면 이게 달아.)

107029 @ 넙패하고 물룻하고 ᄀᆞ치 솖으민마씨?(넓패하고 무릇하고 같이 삶으면 입니까?)

107029 #1 막 계속 솖아 가민 한 이십사 시간 이상 솖아야 돼.(막 계속 삶으면 한 이십사 시간 이상 삶아야 돼.)

107029 @ 예. 예.(예. 예.)

107029 #1 게믄 이게 새카망 헤여. 엿이 뒈어.(그럼 이게 새까매. 엿이 되어.)

107029 @ 예?(예?)

107029 #1 야. 겡 먹으민 둘아. 든데 많이 먹으면 여기 목 아파.(야. 그렇게 먹으면 달아. 단데 많이 먹으면 여기 목 아파.)

107029 @ 아.(아.)

107029 #2 모가지 아팡 하영 못 먹어.(목 아파서 많이 못 먹어.)

107029 @ 겡 무시거옌 ᄀᆞᆫ습니까?(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7029 #2 무시거옌 ᄀᆞᆯ아?(뭐라고 말해?)

107029 @ 그냥 물룻 솖은 거마씨?(그냥 무릇 삶은 겁니까?)

107029 #1 야, 야. 경헤영 그거 이 촌더레 나옵니다. 그거 ᄒᆞᆫ 사발에 쏠 ᄒᆞᆫ 홉이면 ᄒᆞᆫ 홉 바꽈.(야, 야. 그렇게 해서 그거 이 마을로 나옵니다. 그거 한 사발에 쌀 한 홉이면 한 홉 바꿔.)

107029 #2 쏠 줭 바꽝 먹엇주게.(쌀 줘서 바꿔서 먹었지.)

107029 #1 견디 부제 이 양반네들은 경헹 바꽝 먹었지만은 우리는 옛날 보리도 안 갈아낫수다. 송당에는.(그런데 부자 이 양반네들은 그렇게 해서 바꿔 먹었지만은 우리는 옛날 보리도 안 갈았었습니다. 송당에는.)

107029 @ 예.(예.)

107029 #1 겡헹 그 보미를 연자방에에 강 피 ᄀᆞᆯ아가가민 그걸 치면은 피쏠, 좀쏠[237]이 이수다. 좀쏠이라고.(그렇게 해서 그 쌀겨를 연자방아에 가서 피 갈면서 그

235) '패'는 흑갈색 해조류이다.

236) '넓패'는 갈조류 패과의 해조이다. 가지 끝부분은 기낭처럼 부풀어 있고 황갈색인데 건조하면 검은색으로 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걸 치면 피쌀, ‘즘쏠’이 있습니다. ‘즘쏠’이라고.)

107029 @ 예.(예.)

107029 #2 가시 피쏠.(가시 피쌀.)

107029 @ 가시 피쏠마씨?(가시 피쌀입니까?)

107029 #2 그것ᄀᆞ라 아시, 아시 피쏠.(그것더러 아시, 아시 피쌀.)

107029 #1 아시 피쏠인데 그거 혜영 또 치어난 사민 보미가 나와. ᄀᆞ루가.(아시 피쌀인데 그거 많이 또 찧고 나면 쌀겨가 나와. 가루가.)

107029 @ 음.(음.)

107029 #1 겨민 우린 그걸 간식으로양 우리 빵이영 우유 먹듯 그거 두어 숫구락 먹엉 점심 때우고.(그러면 우린 그걸 간식으로 우리 빵하고 우유 먹듯 그거 두어 숟가락 먹고서 점심 때우고.)

107029 @ 음.(음.)

107029 #1 야, 영헤낫수다.(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107029 @ 아까 물릇 솖은 건 어떵홀 때 먹는 거마씨?(아까 무릇 삶은 건 어떨 때 먹는 겁니까?)

107029 #2 그거 그자 간식으로 사 먹어 낫주.(그거 그저 간식으로 사 먹었었지.)

107029 #1 그건 간식으로. 그거 막 둡니다. 둘아. 그게.(그건 간식으로. 그거 아주 답니다. 달아. 그게.)

107029 @ 아. 헤벤이서 만들엉 이디 가졍 와마씨?(아. 해변에서 만들어서 여기 가져 옵니까?)

107029 #2 아니, 아니. 마을에서 헤낫주.(아니, 아니. 마을에서 했었지.)

107029 @ 촌에서.(마을에서.)

107029 #2 촌에. 이디 못 사난, 못 사난.(마을에. 여기 못 사니까, 못 사니까.)

107029 @ 아, 이런 디서 만들어마씨?(아, 이런 데서 만듭니까?)

107029 #2 으, 먹을 거 엇으난 그것도 매 집에 안 허주게.(으, 먹을 거 없으니까 그것도 모든 집에서 안 하지.)

107029 @ 아.(아.)

107029 #2 어떵헹 그거 허는 집이서가 솖앙 물릇 솖앙 풀암져 허믄 쏠 가졍강 바꽝 오는 사람도 잇곡. 동네서.(어떻게 해서 그거 하는 집에서 삶아서 무릇 삶아서 판다고 하면 쌀 가져가서 바꿔 오는 사람도 있고. 동네서.)

107029 @ 간식으로마씨?(간식으로요?)

107029 #2 우리도 송당서 덕천 풀레 가난.(우리도 송당에서 덕천으로 팔러 갔었지.)

107029 @ 물릇 솖앙은에마씨?(무릇 삶아서요?)

107029 #2 으으. 바꽝 먹어 낫주게.(으으. 바꿔 먹었었지.)

107029 #1 경헌디 그 애월 소실에서가 이 과질, 시방 과질 있지 안헙니까양?(그

237) ‘즘쏠’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이다.

런데 그 애월 근처에서 이 과줄[238], 시방 과줄 있지 안합니까?)

107029 @ 예에.(예에.)

107029 #1 거기 공단 출려놩 대대적으로 향토음식으로 혜영 방송헙디다.(거기 공장 차려서 대대적으로 향토음식으로 해서 방송합디다.)

107029 @ 아.(아.)

107029 #1 그건 송당 사름도 멘들당 못 먹어부난 뭘 했는데 저 수산 가시리서 저게 옛날부터 나온 거우다. 저 과질이.(그건 송당 사람도 만들다 못 먹으니까 뭘 했는데 저 수산 가시리에서 저게 옛날부터 나온 겁니다. 저 과줄이.)

107029 @ 예.(예.)

107029 #1 경헌디, 애월서 이 제주 향토음식이렌 허영 공장을 출령 막 스무나무 들앙 헴십디다. 방송에 보난.(그런데 애월에서 이 제주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마구 스무 명 남짓 데리고 합디다. 방송에 보니까.)

107029 @ 음.(음)

107029 #1 옛날 그런 식으로 과질도 꽤 오래헷수다. 그것도.(옛날 그런 식으로 과줄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것도.)

107029 #2 과질이 그거 일본 법으로 나와실 거라게. 그게.(과줄이 그거 일본 법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게.)

107029 #1 그난 이디서 피 내영 피보미. 아이고 참. 물룻 솖은 거, 그거 누게 송당에 아는 사름 엇일 거우다.(그니까 여기서 피 내여서 피보미. 아이고 참. 무릇 삶은 거, 그거 누구 송당에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107029 @ 예, 물룻 솖은 거.(예, 무릇 삶은 거.)

107029 #1 또 뚠 부락에서는 몰라.(또 다른 마을에서는 몰라.)

107029 @ 물룻은 그냥 풀이꽈?(무릇은 그냥 풀입니까?)

107029 #2 그냥 밧디 나는 거.(그냥 밭에 나는 거.)

107029 @ 검질예?(김이요?)

107029 #2 으, 검질. 지금은 물룻도 어려와. 막 약 쳐부난.(으, 김. 지금은 무릇도 어려워. 마구 약 쳐서.)

107029 @ 아.(아.)

107029 #2 지금은 물룻 어려와.(지금은 무릇 어려워.)

107029 @ 음.(음)

107029 #2 물룻 그자 마농ᄀᆞ치 나오는 거.(무릇 그저 마늘같이 나오는 거.)

107029 @ 마농ᄀᆞ치 나와마씨?(마늘같이 나옵니까?)

107029 #2 마농ᄀᆞ치 나오주게. 이파리 넙적넙적하게.(마늘같이 나오지. 잎이 넙적넙적하게.)

107029 #1 그놈의 넙패를 아니 노면은양 그 독성이 제헤지지 안헌답니다.(그놈

238) '과줄'은 밀가루로 네모지게 얇게 만든 떡을 기름에 튀긴 후 엿물을 발라 그 위에 튀밥 등의 고물을 붙여 만든 음식이다.

의 넓패를 안 놓으면 그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107029 @ 아, 예. 거나 ᄀᆞ치 놓는 거마씨?(아, 예. 그래서 같이 놓는 겁니까?)
107029 #1 야. 게서 필히 헤벤에 강 넙패를 튿앙 와.(야. 그래서 필히 해변에 가서 넓패를 뜯어 와.)
107029 #2 응.(응.)
107029 @ 아.(아.)
107029 #1 겡 넙패가 요 중간ᄁᆞ지 먹엇수다.(그래서 넙패가 요 중간까지 먹었습니다.)
107029 #2 이젠 넙패도 어려와.(이젠 넓패도 어려워.)
107029 #1 넙패도 어서. 이젠 몬 튿어 가불연. 가시리ᄀᆞ튼 거, 넙패 전연 못 봐.(넓패도 없어. 이젠 모두 뜯어 가버렸어. 풀 가사리같은 거, 넓패 전혀 못 봐.)
107029 @ 아.(아.)
107030 @ 녹두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녹두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0 #1 풋죽하고 꼭 ᄀᆞᆺ아.(팥죽하고 똑같아.)
107030 @ 녹두죽이마씨?(녹두죽이요?)
107030 #2 녹디도 흔번 숢앙 ᄒᆞ꼼 문대겨.(녹두도 한번 삶아서 조금 문대.)
107030 @ 문대겨마씨?(문댑니까?)
107030 #2 으. 경헹 쏠 놓곡 물 놓곡 헤영 쑤어.(으. 그렇게 해서 쌀 놓고 물 놓고 해서 쑤어.)
107030 #1 잘 쑤지 안 허민 설사나메.(잘 쑤지 않으면 설사해.)
107030 @ 녹디는마씨?(녹두는요?)
107030 #1 으.(으.)
107030 #2 콩죽, 콩죽.(콩죽, 콩죽.)
107030 #1 콩죽하고 녹디죽은. 하여튼 콩 종류는.(콩죽하고 녹두죽은. 하여튼 콩 종류는.)
107030 #2 잘 쑤어사주게.(잘 쑤어야지.)
107030 #1 녹디는 생차로도 먹는디, (녹두는 생채로도 먹는데.)
107030 #2 설사나는 게 아니고 배 아푸주. 두루 숢으민.(설사하는 게 아니고 배 아프지. 두루 삶으면.)
107030 #1 게난 잘못 쑤민 설사 나는 거라.(그러니까 잘못 쑤민 설사 나는 거야.)
107030 #2 모큰 오래 쑤어사.(푹 오래 쑤어야.)
107030 @ 모큰?(푹?)
107030 #2 으, 모큰 오래쑤어사.(으, 푹 오래 쑤어야.)
107030 #1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30 @ 콩죽은 안 먹어낫수다.(콩죽은 안 먹어봤습니다.)

107030 #1 죽은 돼지고기나 쉐고기. 물론 고기는 죽어야 잡지만은양.(죽은 돼지고기나 쇠고기. 물론 고기는 죽어야 잡지만.)

107030 @ 예. 예.(예. 예)

107030 #1 옛날은 눈이 이만씩 오면양 물, 소 같은 거베끠 내놧당 통제하지 못헤영 그냥 죽어.(옛날은 눈이 이만큼씩 오면 말, 소 같은 거 밖에 내놓았다가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

107030 @ 예. 예.(예. 예)

107030 #1 죽으민 강 그 괴기 잡앙 올 거 아니꽈. 잡아 오면 필히 이런 벡사기에 모사놔야.(죽으면 가서 그 고기 잡아올 것 아닙니까? 잡아 오면 필히 이런 백사기를 부수어 놔야.)

107030 @ 예, 예.(예. 예.)

107030 #1 그게 살을 죽이는 거주. 거기 신 충을. 그런 비결이수다. 시방은 뭐 그런 고기 아이 먹읍니다만은.(그게 살을 죽이는 거지. 거기 있는 충을. 그런 비결 있습니다. 시방은 뭐 그런 고기 안 먹습니다만.)

107030 @ 예, 예.(예. 예.)

107031 @ 돍죽도 쑤엉 먹어낫주예?(닭죽도 쑤어서 먹었었지요?)

107031 #2 쑤엉 먹어낫주.(쑤어서 먹었었지.)

107031 @ 돍.(닭.)

107031 #2 돍? 으, 쑤엉 먹어낫주.(닭? 으, 쑤어서 먹었었지.)

107031 @ 어떤 때 먹는 거꽈?(어떤 때 먹는 겁니까?)

107031 #1 유월 스무날.(유월 스무날.)

107031 #2 유월 스무날.(유월 스무날.)

107031 @ 하하하. 유월 스무날.(하하하. 유월 스무날.)

107031 #2 으. 유월 스무날 빙애기 꾀왕.(으, 유월 스무날 병아리 깨워서.)

107031 #1 시방은 초복에 헹 먹주만은.(시방은 초복에 해서 먹지만.)

107031 #2 빙애기 꾀왕 빙애기 크민.(병아리 깨워서 병아리 크면.)

107031 @ 예.(예.)

107031 #2 그거 저 빙애기 하나 줭 검질도 빌어 매곡.(그거 저 병아리 하나 줘서 김도 빌려서 매고.)

107031 @ 예?(예?)

107031 #2 빙애기 하나 줭 검질도 빌어 매어.(병아리 하나 줘서 김도 빌려서 매.)

107031 @ 누게 신디 줘마씨?(누구한테 줍니까?)

107031 #2 동네 사름게.(동네 사람이지.)

107031 @ 아.(아.)

107031 #2 동네게 빙애기 안 질루는 사름덜 경허민 검질 하루 매민 빙애기 ᄒᆞ나 주민.(동네에 병아리 안 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김 하루 매면 병아리 하나

주면.)

107031 @ 아.(아.)

107031 #2 빙애기 딱 흔 사름 먹을 만이 허메게.(병아리 딱 한 사람 먹을 만큼 해.)

107031 @ 아. 그믄 고기 먹어난 다음에 죽 쑵니까?(아. 그럼 고기 먹은 다음에 죽 쑵니까?)

107031 #2 아니. 우리 옛날이는 그자 돍 신냥 죽 쑤어나서.(아니. 우리 옛날에는 그저 닭 있는 채 죽 쑤었었지.)

107031 @ ᄀᆞ치마씨?(같이요?)

107031 #2 으. 지금은 돍 건졍동덜 쑤엉 먹엄지만은.(으. 지금은 닭 건지고 나서들 쑤어 먹지만.)

107031 @ 그디 마농이영 무신거 놉니까?(거기 마늘하고 무엇 놉니까?)

107031 #2 아이고 옛날은 마농이 어디셔게.(아이고 옛날은 마늘이 어디 있었어?)

107031 @ 나영 영 똑같은 말 허염수게.(나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7031 #2 그자 돍하고 쏠만 놩 쑤엉 먹엇주게.(그저 닭하고 쌀만 놔서 쑤어서 먹었었지.)

107031 #1 방세 하나. 새나 털어졍 죽은 거 줏으거나 이시민양, 게믄 고기가 어려운 때 그 고기를 해다 노민 그때는 백사기를 뻣아 놔야 해. 백사기를 놔야 뒈어.(방세 하나. 새나 떨어져 죽은 거 줍거나 있으면, 그러면 고기가 어려운 때 그 고기를 해다 놓으면 그때는 백사기를 빻아 놔야 해. 백사기를 놔야 되어.)

107031 @ 백사기가 뭐꽈?(백사기가 뭡니까?)

107031 #2 사기 그릇.(사기 그릇.)

107031 @ 아.(아.)

107031 #1 사기를 놔야 뒈어.(사기를 놔야 되어.)

107031 #2 아니 돍 솖을 때도 그거 놔낫주.(아니 닭 삶을 때도 그거 놓았었지.)

107031 @ 그거 놔 낫수과?(그거 놓았었습니까?)

107031 #2 으. 새금파리 봉가당게, 새혜영한 거. 벌러진 거.(으. 사금파리 주워다가, 새하얀 거. 깨진 거.)

107031 @ 독을 제거허는 거.(독을 제거하는 거.)

107031 #2 응. 돍죽 쑬 때 그거 놩 헤낫주게. 지금은 안 놈주게, 지금은 마농도 놓곡게.(응. 닭죽 쑬 때 그거 놔서 했었지. 지금은 안 놓지. 지금은 마늘도 놓고.)

107031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31 #2 옛날은 첨, 마농 어서부난 그 새금파리 놔낫져.(옛날은 참, 마늘 없어서 그 사금파리 놓았었지.)

107031 @ 음.(음.)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범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4 #2 밀주시는 안 먹어봤주, 김녕서는. 겐디 이디 오난 밀주시를 먹었어.(‘밀주시’는 안 먹어 봤지. 김녕에서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밀주시’ 먹었어.)

107034 @ 밀주시.(‘밀주시’.)

107034 #2 밀주시게. 지금은 소나 먹엄지게. 소 사료야, 그거.(‘밀주시’. 지금은 소나 먹지, 소 사료야, 그거.)

107034 @ 그땐 뭐 어선게 예?(그땐 뭐 없어서요?)

107034 #2 그거 헹 범벅해노민 진짜 먹젠 허민 힘들어.(그거 해서 범벅해 놓으면 진짜 먹으려고 하면 힘들어.)

107034 @ 범벅도 이섰구나.(범벅도 있었구나.)

107034 #2 사락사락사락헹은에 힘들어.(사락사락사락해서 힘들어.)

107034 @ 사락사락헹.(사락사락해서.)

107034 #2 감저 빼떼기 사당 감자ᄀᆞ룰 멘들앙.(감자 빼떼기 사다가 감자가루를 만들어.)

107034 @ 범벅으로마씨?(범벅으로요?)

107034 #2 으. 범벅으로.(으. 범벅으로.)

107034 @ 감저 범벅은 어떵 멘드는 것과?(감자 범벅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107034 #2 감저 범벅 마찬가지주.(감자 범벅 마찬가지지.)

107034 @ 빼떼기를.(빼떼기를.)

107034 #2 빼떼기 솖앙 먹엇주. 빼떼기 ᄲᅩᆺ으민 ᄀᆞ루헤영 그걸로 범벅헹.(빼떼기 삶아서 먹었지. 빼떼기 빻으면 가루해서 그걸로 범벅해서.)

107034 @ 음. 범벅은 어떤 거 이수과?(음. 범벅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7034 #2 범벅이 하주게. 느젱이 범벅도 잇곡.(범벅이 많지. 나깨범벅도 있고.)

107034 @ 느젱이 범벅?(나깨 범벅?)

107034 #2 모믈. 모믈 느젱이.(메밀. 메밀 나깨.)

107034 @ 모믈 느젱이. 밀주시 범벅도 있고.(메밀 나깨. ‘밀주시’ 범벅도 있고.)

107034 #2 밀주시 범벅은 ᄉᆞ태에. 막 어려운 때에.(‘밀주시’ 범벅은 사태에. 아주 어려운 때에.)

107034 @ 또 아까 뭘로 범벅한덴 해수과?(또 아까 뭘로 범벅한다고 했습니까?)

107034 #2 감저 빼떼기로 ᄀᆞᆯ면 ᄀᆞ루헹 범벅도 허고 떡도 헹 먹곡. 돌레떡[239].(감자 빼떼기로 갈면 가루해서 범벅도 하고 떡도 해서 먹고. ‘돌레떡’.)

239) ‘돌레떡’은 메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넣고 동글납작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참기름을 발라 먹는 떡이다.

107034 @ 범벅이 지금은 별미라도 그때는 밥 대신 먹은 거지예?(범벅이 지금은 별미여도 그때는 밥 대신 먹은 거지요?)

107034 #2 밥 대신게. 쏠이 귀하니까.(밥 대신. 쌀이 귀하니까.)

107034 @ 밥 대신에.(밥 대신에.)

107034 #2 그때는 쏠도 알량미 쏠이야. 알량미쏠.(그때는 쌀도 안남미 쌀이야. 안남미쌀.)

107034 @ 알량미쏠. 범벅은 또 뭘로 해 먹습니까?(안남미쌀. 범벅은 또 뭘로 해 먹습니까?)

107034 #2 범벅 해먹는 거. 아무 ᄀᆞ룰이라도 범벅이주. 뭐. 아무 거라도.(범벅 해먹는 거. 아무 가루라도 범벅이지. 뭐. 아무 거라도.)

107034 @ 어떵 만들어마씨?(어떻게 만듭니까?)

107034 #2 무수 썰엉 물에 솖앙 익으면은 ᄀᆞ루를 노앙.(무 썰어서 물에 삶아서 익으면 가루를 놔서.)

107034 @ ᄀᆞ루 놩.(가루 놔서.)

107034 #2 익으면은 ᄀᆞ루 노앙 한동안 불 솜앗당 익으면은 남죽으로 젓주게.(익으면 가루 놔서 한동안 불 살랐다가 익으면 죽젓개로 젓지.)

107034 @ 젓어.(저어.)

107034 #2 어. 겨민 범벅.(응. 그러면 범벅.)

107034 @ 범벅.(범벅.)

107034 #2 하하하.(하하하.)

107034 @ 우리 어머니도 오빠 장가가는 날 일하는 사람들한테 범벅해 줘난 거 닮수다. 모믈로.(우리 어머니도 오빠 장가가는 날 일하는 사람들한테 범벅해줬던 거 같습니다. 메밀로.)

107034 #2 모물ᄒᆞ루로 하민 헤영허곡. 느젱이범벅은 거멍하곡.(메밀가루로 하면 하얗고 나깨 범벅은 거멓고.)

107034 @ 거멍하고. 모믈 범벅.(검고. 메밀 범벅.)

107035 @ ᄌᆞ베기는 안 헹 먹엇수과?(수제비는 안 해서 먹었습니까?)

107035 #2 무사 안 헹 먹어? ᄌᆞ베기도 헹 먹곡.(왜 안 해서 먹어? 수제비도 해서 먹고.)

107035 @ ᄌᆞ베기는 뭘로 만들어나수과?(수제비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107035 #2 밀ᄀᆞ루도 허곡게. 모믈ᄀᆞ루도 허곡게.(밀가루도 하고. 메밀가루도 하고.)

107035 @ 예.(예.)

107035 #2 이녁 먹구정 헌대로 아무거나 먹주무신.(자기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지.)

107035 @ 하하하하. 모믈 ᄌᆞ베기는 언제 먹는 거꽈?(하하하하. 메밀 수제비는 언제 먹는 것입니까?)

107035 #2 모물ᄀᆞ루 국시.(메밀가루 국수.)

107035 @ 모물ᄀᆞ루 국시는 먹는 때가 이수과?(메밀가루 국수는 먹는 때가 있습니까?)

107035 #2 옛날은 모룰ᄀᆞ루 국시. 지금은 보통 다 설렀어. 정월 멩질에 아침 세백이 떡국 먹듯이 고기나 놩 국시를 헤여.(옛날은 메밀가루 국수. 지금은 보통 다 그만뒀어. 정월 명절에 아침 새벽에 떡국 먹듯이 고기나 놔서 국수를 해요.)

107035 @ 모물 국수를.(메밀 국수를.)

107035 #2 모물 국시를 아침 세백이 허는 거라. 국시헤여.(메밀 국수를 아침 새벽에 하는 거야. 국수해.)

107035 @ 아.(아.)

107035 #2 이건 무사 새벡이 헴신가 하면은 조상들이 새벡이 오젠 허난 속앗다고. 추운디 오젠 허난 속앗다고 그 국시를 몬녀 헹 안내는 거라.(이건 왜 새벽에 하는가 하면 조상들이 새벽에 오려고 하니까 고생했다고. 추운데 오려고 하니까 고생했다고. 그 국수를 먼저 해서 주는 거야.)

107035 @ 아. 새벡에. 그거 무신 국물에 국시헙니까?(아. 새벽에. 그게 무슨 국물에 국수합니까?)

107035 #2 국시?(국수?)

107035 @ 예.(예.)

107035 #2 아, 아무 거라도. 소고기 놩 해도 뒈곡. 돼지고기 놩 해도 뒈곡.(아, 아무것이라도. 소고기 놔서 해도 되고. 돼지고기 놔서 해도 되고.)

107035 @ 아, 고기 놩 헤여예?(아, 고기 놔서 하지요?)

107035 #2 으. 경헹 허주.(으. 그렇게 하지.)

107035 @ 꿩메밀 국수 이런 건 안 헤마씨?(꿩메밀 국수 이런 건 안합니까?)

107035 #2 아, 그런 것도 놩 헤여.(아, 그런 것도 놔서 해.)

107035 @ 그런 것도 헤마씨?(그런 것도 해요?)

107035 #2 꿩도 시민 꿩국시 허곡.(꿩도 있으면 꿩국수 하고.)

107035 @ 하하하.(하하하.)

107035 #2 근디 꿩은 경 보통으로 허나게.(그런데 꿩은 그렇게 보통으로 하는가.)

107035 @ 세백 국시 해놓고 또 제를 지내마씨?(새벽 국수 해 놓고 또 제를 지냅니까?)

107035 #2 으. 그다음엔 멩질 허주게.(으. 그 다음엔 명절 하지.)

107035 @ 아, 경해놩 제를 지내고.(아, 그렇게 해서 제를 지내고.)

107035 #2 저, 국시는 조상님들이 오멍 추운디 오젠 허난 좀 속앗다고.(저, 국수는 조상님들이 오면서 추운데 오려고 하니까 좀 고생했다고.)

107035 @ 상에 올리는 거 아니고마씨?(상에 올리는 거 아니고요?)

107035 #2 간식으로 헤여. 메, 갱 하기 전에 아척 새벡이.(간식으로 해요. 메, 갱

하기 전에. 아침 새벽에.)

107035 @ 새벡이.(새벽에.)

107035 #2 으. 새벡이. 지금이믄 혼 ᄋᆞ섯시 반.(으. 새벽에. 지금이면 한 여섯 시 반.)

107035 @ 상에 올려마씨?(상에 올립니까?)

107035 #2 상에 허는 사람은 상에 헤도 우리는 상에 안 헤봐서. 그냥 아래. 젯자리 끌곡 아래.(상에 하는 사람은 상에 해도 우리는 상에 안 해봤어. 그냥 아래. 제석 깔고 아래.)

107035 @ 아래에.(아래에.)

107035 #2 으. 그건 간식으로 허는 거니까. 지금은 국시허는 거 보통 다 설러불었어.(으. 그건 간식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국수하는 거 보통 다 그만뒀어.)

107035 @ 예.(예.)

107035 #2 다 설러불어신디 우리도 헤낫어.(다 그만뒀는데 우리도 했었지.)

107035 @ 정월 멩질에예?(정월 명절에요?)

107035 #2 으. 정월 멩질에.(으. 정월 명절에.)

107035 @ 애기 나난 다음에 모믈로 된 거 먹지 안 헤수과?(애기 난 다음에 메밀로 된 거 먹지 않았습니까?)

107035 #2 아이고. 모물ᄀᆞ루. 뭐 헤다줭 먹는 사람은 먹주만은 우리는 헤다주기 안 헤나난 못 먹어 봐서. 애기 나도.(아이고. 메밀가루. 뭐 해다 줘서 먹는 사람은 먹지만 우리는 해주지 않았었으니까 못 먹어 봤어. 아기 낳아도.)

107035 @ 메누리한테 헤주지 안헨마씨?(며느리한테 해주지 않았습니까?)

107035 #2 메누리들 모물 ᄌᆞ베기 헤주민 먹어? 안 먹주.(며느리들 메밀 수제비 해주면 먹어? 안 먹지.)

107035 @ 우리 어머니는 메누리한테 해줍디다.(우리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해줍디다.)

107035 #2 우리 메누리들은 다 빙원에서 나부난, 원.(우리 며느리들은 다 병원에서 낳아서, 원.)

107035 @ 경해도 해줍디다.(그래도 해줍디다.)

107035 #2 우린 안 해줘봔. 하하.(우린 안 해줘봤어. 하하.)

107035 @ 국도 미역국에 ᄀᆞ루 놩 끓영게마씨.(국도 미역국에 가루 놔서 끓이던데요?)

107035 #2 게민 좋주게. 푸달푸달.(그렇게 하면 좋지. 걸죽걸죽.)

107035 @ 하하하.(하하하.)

107036 @ 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6 #2 국수도 모믈 ᄀᆞ루로 허는 거.(국수도 메밀 가루로 하는 거.)

107036 @ 모믈 가루로마씨?(메밀 가루로요?)

107036 #2 저 밀ᄀᆞ루도 하곡. 왜밀ᄀᆞ루.(저 밀가루도 하고. '왜밀가루'.)

107036 @ 왜밀가루마씨?('왜밀가루'요?)

107036 #2 옛날에 토종 밀ᄀᆞ루도 있고 왜밀ᄀᆞ루도 이서나서. 지금이야 밀ᄀᆞ루 나오는 시난 헴주만은.(옛날에 토종 밀가루도 있고 '왜밀가루'도 있었는데. 지금이야 밀가루 나오는 게 있어서 하지만.)

107036 @ 파는 거예.(파는 거요?)

107036 #2 근디 옛날은. 왜밀ᄀᆞ루. 토종도 밀이 이서나고.(그런데 옛날은. '왜밀가루'.토종도 밀이 있었고.)

107036 @ 왜밀ᄀᆞ루하고 토종 밀ᄀᆞ루는 뭐가 달라마씨?('왜밀가루'하고 토종 밀가루는 뭐가 다릅니까?)

107036 #2 에이. 다 같으주만은 왜밀이 토종보다 희주게.(에이. 다 같지만 '왜밀'이 토종보다 희지.)

107036 @ 아, 색깔이.(아, 색깔이.)

107036 #2 으. 색깔이.(으, 색깔이.)

107036 @ 둘 다 농사 지엇수과? 아니믄 ᄀᆞ루로 사당 핸마씨?(둘 다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가루로 사다가 했습니까?)

107036 #2 으. 옛날은 밀농사 해낫주. 밀도 왜밀이나 토종밀이나 ᄀᆞ레에 놩 ᄀᆞᆯ아.(으. 옛날은 밀농사 했었지. 밀도 '왜밀'이나 토종밀이나 맷돌에 놔서 갈아.)

107036 @ 음.(음.)

107036 #2 ᄀᆞ레에 ᄀᆞᆯ아서 ᄌᆞ베기도 헹 먹고 범벅도 헹 먹곡.(맷돌에 갈아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범벅도 해서 먹고.)

107036 @ ᄀᆞ레에 놩예?(맷돌에 놔서요?)

107036 #2 모믈쏠도 ᄀᆞ레에 ᄀᆞᆯ아가지고. 옛날은 암반.(메밀쌀도 맷돌에 갈아가지고. 옛날은 암반.)

107036 @ 암반[240]?('안반'?)

107036 #2 암반에서 밀어. 경헹 썰어.(안반에서 밀어. 그렇게 하고 나서 썰어.)

107036 @ 썰엉.(썰어서.)

107036 #2 암반은 옛날에 이불안 ᄀᆞ튼 거 요안 ᄀᆞ튼 거 ᄆᆞ딱 광목으로만 했어. 지금은 일천 거 다 나니까 헤도 옛날은 광목베끼 엇어낫어이.(안반은 옛날에 이불안 같은 거 요안 같은 거 모두 광목으로만 했어. 지금은 일천 게 다 나니까 해도 옛날은 광목 밖에 없었지.)

107036 @ 예.(예.)

107036 #2 광목으로 이불안 요 ᄀᆞ튼 걸 숢아. 경헹 벳디 발래여. 풀해낭 그 암반에 놩 두드려.(광목으로 이불안 요 같은 걸 삶아. 그렇게 하고 나서 볕에 바래게 해. 풀 해 놓고 그 안반에 놓고 두드려.)

240) '암반'은 안반을 제보자가 발음하는 과정에서 암반으로 들린 것으로 보인다.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거나 민 것을 썰 때에 받치는 두껍고 넓은 직사각형의 나무 판이다.

107036 @ 그냥 두드려마씨?(그냥 두드립니까?)

107036 #2 짜글짜글한게 쫙 페와지거든.(쭈글주글한 게 쫙 펴지거든.)

107036 @ 국시할 때는 아무것도 안놔마씨?(국수할 때는 아무것도 안 놓습니까?)

107036 #2 아무것도 안 놔.(아무것도 안 놔.)

107036 @ 깨도 안 놔마씨?(깨도 안 놓습니까?)

107036 #2 노민 먹기 좋주만은 아무것도 안 놔. 간이나 헹.(넣으면 먹기 좋지만 아무것도 안 놔. 간이나 해서.)

젓갈

107048 @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8 #2 자리젓, 각제기젓, 멜젓.(자리젓, 각제기젓, 멜젓.)

107048 @ 뭐 담아나수과?(뭐 담가봤습니까?)

107048 #2 멜[241]첫[242]도 담곡, 자리젓도 담곡. 근디 난 멜첫베끼 안 담아난.(멸치젓도 담고, 자리젓도 담고. 그런데 난 멸치젓 밖에 안 담가봤어.)

107048 #1 고도리젓[243]도.('고도리젓'도.)

107048 #2 고도리젓도 셔.('고도리젓'도 있어.)

107048 @ 아, 고도리젓도마씨?(아. '고도리젓'도요?)

107048 #1 갈치젓도 담앙 사당 먹어봐수다만은 거기가 거기야.(갈치젓도 담가서 사다가 먹어 봤지만 거기가 거기야.)

107049 @ 자리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자리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9 #2 앞으로 자리 나가민 담주게.(앞으로 자리 나오면 담글 거지.)

107049 @ 몇 월쯤 뒈민마씨?(몇 월쯤 되면요?)

107049 #2 그걸 알 벤 때 담젠 허민 유월 둘 전이 담아야.(그걸 알 벨 때 담그려고 하면 유월 달 전에 담가야.)

107049 #1 유월절 전이.(유월절 전에.)

107049 #2 칠월절 전이.(칠월절 전에.)

107049 @ 칠월절 전이마씨?(칠월절 전에요?)

107049 #2 으. 칠월절 전이.(으. 칠월절 전에.)

107049 #1 알 싸지 안 헌 때, 그 때 새끼.(알 낳지 않은 때. 그 때 새끼.)

107049 #2 칠월절 들어가가면은, 칠월절 보뎌 가면은 알 싸불영 맛이 어서.(칠월절 들어가면. 칠월절 가까이 가면 알 낳아버려서 맛이 없어.)

107049 @ 아.(아.)

---

241) '멜'은 멸치이다.

242) '멜첫'은 멸치로 담은 젓갈을 말한다.

243) '고도리'는 고등어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 고도리젓은 고도리로 담가 만든 젓갈이다.

107049 #1 보리 빌 때. 그때. 망종 소시.(보리 벨 때. 그때. 망종 무렵.)
107049 @ 지금마씨?(지금입니까?)
107049 #2 지금은 보리 이제사 단풍 드는 디.(지금은 보리 이제야 단풍 드는데.)
107049 @ 하하하.(하하하.)
107049 #2 음력 오월 쯤에.(음력 오월 쯤에.)
107049 @ 보통 언제 얼마나 담앗수과?(보통 언제 얼마나 담갔습니까?)
107049 #2 옛날에, 자리젓[244] 안 담그어 봔.(옛날에, 자리젓 안 담가봤어?)
107049 @ 아, 안 담안.(아, 안 담갔어.)
107049 #2 옛날에 어디 자리가 셔서. 정 메날 풀레 다녀도 자리도 어려완.(옛날에 어디 자리가 있었어. 저렇게 맨날 팔러 다녀도 자리도 어려웠어.)
107049 @ 밧디 강 먹젠 허민 자리젓이나 멜첫 안 담아수과?(밭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자리젓이나 멸치젓 안 담갔습니까?)
107049 #2 아유, 뭰장만 앗앙 갔주.(아유, 된장만 가지고 갔지)
107049 @ 하하하.(하하하.)
107049 #2 옛날은 밧디 가젠 하민 마농지 시민. 아이구.(옛날은 밭에 가려고 하면 마늘 장아찌 있으면. 아이구.)
107049 #1 거, 호강의 소리. 호강의 소리.(거, 호강의 소리. 호강의 소리.)
107049 @ 예.(예.)
107049 #1 하하하.(하하하.)
107049 @ 그믄 자리 담을 때 소금 알아지구과?(그러면 자리 담글 때 소금 알겠습니까?)
107049 #2 자리 흔 관대에 소곰 흔 사발.(자리 한 관대에 소금 한 사발)
107049 @ 아, 소곰 흔 사발.(아, 소금 한 사발.)
107049 #1 그것도 사발로 가난 그건 전업자한테 물어.(그것도 사발로 하난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
107049 @ 하하하.(하하하.)
107049 #2 자리 장시한테 빌엉 담아도 맛 어성게.(자리 장사한테 부탁해서 담가도 맛 없더라고.)
107049 #1 할망 자리젓 몃번 실수헹은에.(할머니 자리젓 몇 번 실수 했어.)
107049 @ 하하하.(하하하.)
107047 #1 짜불여, 고려불여. 고린 게 맛은 좋아. 싱거운 거. 냄새가 거 ᄒᆞ나 꺼내노민 집안에 냄새가 난리 나. 맛은 좋은데.(짜버리고, 곯아 버리고. 곯은 게 맛은 좋아. 싱거운 거 냄새가 그거 하나 꺼내놓으면 집안에 냄새가 난리나. 맛은 좋은데.)
107049 @ 예에, 하하하.(예에, 하하하.)
107049 #1 겡혜근에 앗아당 먹질 못허곡. 짠 건 또양.(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먹

244) '자리젓'은 자리돔으로 담은 젓갈을 말한다.

지 못하고. 짠 건 또.)

107049 #2 너미 짜도 맛 어서.(너무 짜도 맛없어.)

107049 @ 예.(예.)

107049 #1 으. 짜도 그 겍겍[245]. 짜다는 말은.(으. 짜도 그 '겍겍'. 짜다는 말은.)

107049 #2 그 자리 장시한테 빌엉 담은 건 뭐 맛좋읍디가? 잘 ᄒᆞ노렌 헤도, 원.(그 자리 장수한테 부탁해서 담근 건 뭐 맛 좋습디까? 잘 한다고 해도, 원.)

107049 #1 짠짠하단 말은 겍겍헤여.(짜디짜단 말은 아주 '겍겍해'.)

107049 @ 겍겍헤여.('겍겍해'.)

107049 #1 짜단 말은 겍겍헤여. 경헙니다.(짜다는 말은 '겍겍해'. 그렇습니다.)

107049 #2 하하하.(하하하.)

107049 #1 겍겍하민양, 그 자리젓 ᄒᆞᆫ 삼년 된 거 우리도 시방 저기 이수다.('겍겍하면' 그 자리젓 한 삼년 된 거 우리도 시방 저기 있습니다.)

107049 @ 안 썩습니까?(안 썩습니까?)

107049 #2 자리 장시한테 빌엉 담아도 뭐 짠짠헌게.(자리 장수한테 빌려서 담가도 뭐 짠짠하던데.)

107049 #1 하하하.(하하하.)

107049 #2 맛 어서.(맛 없어.)

107049 #1 겍겍헤여부난. 맛 어성 말이여.('겍겍해서'. 맛없어서 말이야.)

107049 @ 하하하.(하하하.)

107049 #1 짜민 맛이 엇고. 싱거우면 냄새는 이서도 맛이 나.(짜면 맛이 없고. 싱거우면 냄새는 있어도 맛이 나.)

107049 #2 ᄀᆞᆫ이 잘 맞아사.(간이 잘 맞아야.)

107049 @ 예. ᄀᆞᆫ이 잘 맞아사.(예. 간이 잘 맞아야.)

107049 #2 ᄀᆞᆫ이 잘 맞아사.(간이 잘 맞아야.)

107049 #1 하하하.(하하하.)

107049 @ 얼마나 묵히민 먹어집니까?(얼마나 묵히면 먹을 수 있습니까?)

107049 #2 담앙 ᄒᆞᆫ 두 달만 시민 먹주게.(담고 한 두달만 있으면 먹지.)

107049 @ 두 달만.(두 달만.)

107049 #1 으, ᄒᆞᆫ 달이민 먹어, ᄒᆞᆫ 달이믄.(으, 한 달이면 먹어. 한 달이면.)

107049 @ 무신거에 담아놔마씨?(무엇에 담가 놓습니까?)

107049 #2 무시 거, 단지에 담주.(무엇, 단지에 담지.)

107049 @ 단지에.(단지에.)

107049 #1 막 많이 허젠 허민 뭐 황아리에도 담아도 뒈주, 뭐.(아주 많이 하려고 하면 뭐 항아리에도 담가도 되지, 뭐.)

107049 #2 하하하하.(하하하하.)

---

245) '겍겍하다'는 말은 음식의 간이 너무 짜서 구토가 날 정도를 말한다. 우웩할 정도로 짜다는 말이다.

107049 @ 버므려놩 담습니까?(버무려놓고 담습니까?)
107049 #2 으. 버므려놩 담아.(으, 버무려놓고 담가.)
107049 @ 소곰에예?(소금에요?)
107049 #2 응. 버므령. 버므령 담아.(응. 버무려서. 버무려서 담가.)
107049 @ 단지에 담아.(단지에 담가.)
107049 #1 멜첫이나 자리젓이나 그 멜깔치[246]덜 젠젠흔 것들.(멸치젓이나 자리젓이나 그 갈치젓들 자잘한 것들.)
107049 @ 예.(예.)
107049 #1 그런 거 대개 갈치젓은 창란젓이옌 허곡 갈치가 그 담는 게 이수다게.(그런 거 대개 갈치젓은 창난젓이라고 하고 갈치가 그 담는 게 있습니다.)
107049 @ 예예.(예예.)
107049 #1 갈치젓, 그 젠젠흔 것들. 갈치젓은 양념 잘 하면 맛이 이서.(갈치젓, 그 자잘한 것들. 갈치젓은 양념 잘 하면 맛이 있어.)
107049 @ 예.(예.)
107049 #1 자리젓은 옛날 자리젓이지. 가시가 쎄어.(자리젓은 옛날 자리젓이지. 가시가 세.)
107049 @ 예. 가시가 쎄어.(예. 가시가 세.)
107049 #1 가시가 뒈게 쎄어. 경허고 요놈의 거 대가리 뭣이가 이서? 머릿박에.(가시가 되게 세. 그리고 이놈의 그 대가리 무엇이 있어? 머리에.)
107049 @ 예? 뭐마씨?)(예? 뭐요?)
107049 #2 아니 뭐 무신(아니 뭐 무슨)
107049 #1 딱딱해, 돌돌돌.(딱딱해, 돌돌돌.)
107049 @ 돌마씨?(돌요?)
107049 #1 무신 보석 모냥으로. 흰흰.(무슨 보석 모양으로. 희디 흰.)
107049 @ 예. 예.(예. 예.)
107049 #1 머릿박 깨엉 보면 머리, 우리 볶아 먹을 때 보면양, 그게 바로 사기 닮은 게 이서. 두 방울 들어가는 게 있고. 혼 방울 들어가는 게 이서.(대가리 깨 보면 머리. 우리 볶아 먹을 때 보면 그게 바로 사기 같은 게 있어. 두 방울 들어가는 게 있고. 한 방울 들어가는 게 있어.)
107049 @ 두 개 들어가는 게 이서마씨?(두 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107049 #1 암놈은 하나도 안 들어가.(암컷은 하나도 안 들어가.)
107049 @ 아.(아.)
107049 #1 자리도. 그게 성가시곡. 가시 자리 웁 가지도 상당히 사납수다게.(자리도. 그게 성가시고. 가시 자리 옆 가지도 상당히 사납습니다.)
107049 @ 예 맞아마씨.(에. 맞습니다.)
107049 #1 경허는데 고도리젓하고 이 멜첫하고 갈치젓은 가시가 수월헙니께.(그

246) '멜갈치'는 자잘한 갈치이다.

런데 ‘고도리젓’하고 이 멸치젓하고 갈치젓은 가시가 수월하잖습니까?)

107050 @ 멸치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멸치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0 @ 멜첫하고 자리젓하고 비슷할 때 담아마씨?(멸치젓하고 자리젓하고 비슷할 때 담습니까?)

107050 #2 멜첫은 저 가을 들엉 혼 구월.(멸치젓은 저 가을 들어서 한 구월.)

107050 @ 음.(음.)

107050 #2 그 때 담아야주.(그 때 담가야지.)

107050 @ 멜에는 소곰 얼마나 놓읍니까?(멸치에는 소금 얼마나 놓습니까?)

107050 #2 어?(어?)

107050 @ 소곰마씨.(소금요.)

107050 #2 무신 것에.(무슨 것에.)

107050 @ 멜마씨.(멸치요.)

107050 #2 멜도 마찬가지라. 혼 관대에 소곰 혼 사발.(멸치도 마찬가지라. 한 관대에 소금 한 사발.)

107050 @ 이것도 버믈립니까?(이것도 버무립니까?)

107050 #2 버믈령 담아.(버무려서 담가.)

107051 @ 아감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아감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1 #2 아가미젓?(아감젓?)

107051 @ 아가미젓이엔 허는구나.(‘아가미젓’이라고 하는구나.)

107051 #2 아가미, 아가미. 배설 창지 빼내는 거.(아가미, 아가미. 배설 창자 빼내는 거.)

107051 @ 예.(예.)

107051 #1 아가미가 일본말이라.(아가미가 일본말이야.)

107051 #2 아가미, 아가미.(아가미, 아가미.)

107051 #1 아우셍이[247].(아감이)

107051 @ 그것도 젓 담아마씨?(그것도 젓 담급니까?)

107051 #2 아가미도 젓 담는 사람은 담주.(아가미도 젓 담그는 사람은 담지.)

107051 @ 무슨 고기 아가미로마씨?(무슨 고기 아가미로요?)

107051 #1 아니. 어우셍이 젓은 우리 아이 먹어보난 모르크라.(아니. 아감젓은 우리 안 먹어 봐서 모르겠어.)

107051 @ 예.(예.)

107051 #1 젓 담넨 말만 들어봤주.(젓 담근다고 말만 들어봤지.)

107052 @ 게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게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2 @ 깅이젓은 안 헙니까?(게젓은 안합니까?)

---

247) ‘아우셍이’는 ‘생선의 아가미와 이리로 담근 젓’의 제주 방언이다.

107052 #1 깅이젓?(게젓?)

107052 #2 무사 깅이젓도 장에 가민 천지만지 뭐.(왜 게젓도 장에 가면 천지만지지 뭐.)

107052 @ 이 동네는 엇이난 안 담아신가마씨?(이 동네는 없으니까 안 담았을까요?)

107052 #2 아유, 이 동네는 어서.(아유. 이 동네는 없어.)

107052 #1 볶앙 먹기도 바쁩니게. 젓을 어떵 담아?(볶아서 먹기도 바쁩니다. 젓을 어떻게 담가?)

107052 @ 하하하.(하하하.)

107052 #2 잡아와져나 시민 볶앙이라도 먹주만은.(잡아 올 수 있어야 볶아서라도 먹지만.)

107052 @ 민물 깅이도 있지 안헙니까?(민물 게도 있지 않습니까?)

107052 #2 민물 깅이 어서.(민물 게는 없어.)

107052 #1 야, 민물깅이가 가재하고 비슷한 건데.(야, 민물게가 가재하고 비슷한 건데.)

107052 @ 예.(예.)

107052 #1 그게 우리가 아이 먹어보난 모르쿠다.(그게 우리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107052 @ 예.(예)

107052 #1 강원도 같은 디서 가재도 잡아먹고 게도 잡곡 군인 간 때 보난 우리도 심어봐수다 만은.(강원도 같은 데서 가재도 잡아먹고 게도 잡고 군인 갈 때 보니까 우리도 잡아 봤지만.)

107054 @ 출레[248]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반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4 #2 출레?(반찬?)

107054 @ 예.(예.)

107054 #1 촐레?(반찬?)

107054 #2 아, 게 무신 하간 반찬ᄀᆞ라 출레엔 허주.(아, 그거 무슨 여러 가지 반찬더러 '촐레'라고 하지.)

107054 #1 그 이 젓갈 보고 출레.(그 이 젓갈 보고 반찬.)

107054 @ 아, 젓갈종류.(아, 젓갈 종류.)

107054 #1 젓갈 보고 출레. 무신 육식의 반찬들은 반찬이여 무신 괴기이고.(젓갈한테 반찬. 무슨 육식의 반찬들은 반찬이야. 무슨 고기고.)

107054 #2 무신 출레 출리곡 아무거라도 옛날은 출레.(무슨 반찬 차리고 아무것이라도 옛날은 반찬.)

107054 #1 출레는 해어[249]. 이 종류 ᄀᆞ튼 걸 출레.(반찬은 해어. 이 종류 같은

248) '촐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이다.
249) '해어'는 바다에서 나는 고기 종류를 말한다.

걸 반찬.)

107054 @ 음. 이런 장아찌는 아니고마씨?(음. 이런 장아찌는 아니고요?)

107054 #1 장아찌는 별도로 있주게.(장아찌는 별도로 있지.)

107054 @ 그니까 장아찌는 빼고 젓갈만 출레엔 골아수과?(그러니까 장아찌는 빼고 젓갈만 반찬이라고 말합니까?)

107054 #1 응, 겨난 젓갈에만 출레.(응. 그러니까 젓갈에만 반찬.)

107054 #2 아니 무시 거게 멜도 지지난 출레, 갈치도 지지난 출레. 옛날은.(아니 무슨 건데. 멸치도 지지니까 반찬. 갈치도 지지니까 반찬. 옛날은.)

107054 @ 반찬이 다 출레구나예.(반찬이 다 '촐레'네요.)

107054 #2 으. 반찬ᄀᆞ라 출레.(으, 반찬더러 '촐레'.)

107054 #1 출레. 반찬 보고 여러 가지 반찬 보고 출레들 보라 무시 거 떨어진 거 시냐? 영 해낫주.(반찬. 반찬더러 여러 가지 반찬더러 반찬들 보라. 무엇 떨어진 거 있습니까? 이렇게 했었지.)

107054 #2 옛날은 출레주, 출레.(옛날은 반찬이지. 반찬.)

107054 @ 젓갈만 출레엔 허는 게 아니라.(젓갈만 반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7054 #1 야. 반찬야. 출레에서 간장도 들어갑니다.(예, 반찬. 반찬에서 간장도 들어갑니다.)

107054 @ 간장도?(간장도?)

107054 #1 야, 간장도. 싱겁건 거 장물 앗아내라[250] 영 헤낫다 말입니다.(예. 간장도. 싱거우면 그 장물 '앗아내라' 이렇게 했었다 말입니다.)

107054 @ 예.(예.)

107054 #1 소곰 앗아내라 영허곡. 반찬보고 출레엔 헤시난 전부.(소금 '앗아내라' 이렇게 하고, 반찬보고 '촐레'라고 했으니까 전부.)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5 #2 옛날은 패마농 지시, 콥대산이 지시.(옛날은 파 장아찌. 마늘 장아찌.)

107055 #1 패마농지시건, 콥대산이 지시건 말합니다. 들으마농, 저 달래도 지시를 담곡.(파 장아찌든지, 마늘 장아찌든지 말합니다. 달래, 저 달래도 장아찌로 담그고.)

107055 @ 것도 지시 담아마씨?(그것도 장아찌 담가요?)

107055 #1 예, 아이고, 그게 상당히 쿠십니다.(예, 아이고, 그게 상당히 구수합니다.)

107055 @ 양훼도 하고?(양하도 하고?)

250) '앗아내다'는 물건을 손에 집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놓다.

107055 #2 양훼는 지시 못 담아.(양하는 장아찌 못 담가.)

107055 #1 양훼는 지시 못 담곡.(양하는 장아찌 못 담그고.)

107055 @ 아.(아.)

107055 #1 건 대평만 먹는 거주. 생차 먹곡.(그건 데워서만 먹는 거지. 생으로 먹고.)

107055 @ 아.(아.)

107055 @ 게서 패농 지시하고 콥대사니 지시하고 들은 마농 지시 영헹 허면은 그게 구구 각각이 맛이 틀립니다.(그래서 파 장아찌하고 마늘 장아찌하고 달래 장아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구구 각각이 맛이 다릅니다.)

107055 @ 예.(예.)

107055 #1 하하하.(하하하.)

107055 @ 혹시 파초[251], 반치[252]도 지시 담아낫수과?(혹시 파초, 파초도 장아찌 담았었습니까?)

107055 #1 야, 반치. 야. 반치.(예. 파초. 예. 파초.)

107055 @ 예, 반치지시도 담아마씨?(예. 파초 장아찌도 담급니까?)

107055 #1 그게 반치. 저디 시방 반치 있주만은 그 반치 지시는 무맛인데.(그게 파초. 저기 시방 파초 있지만 그 파초 장아찌는 무맛인데.)

107055 @ 예.(예.)

107055 #1 그게 약재우다.(그게 약재입니다.)

107055 @ 아.(아.)

107055 #1 나이 많이 갈수록 전립선이 생겨갑니다.(나이 많이 갈수록 전립선이 생깁니다.)

107055 @ 예.(예.)

107055 #1 경허면은 그거 방지인데 옛날은.(그렇게 하면 그거 방지인데. 옛날은.)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1 또 상기 걸렸다믄 여자든 소나이든 그게 전립선입주.(또 상기증 걸렸다면 여자든 남자든 그게 전립선이지.)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1 상기라는 게 두더니[253] 아프고 여자들이나 소나이나. 홀 경우엔 반치 굽에 강 오좀을 싸 불면은.(상기증이라는 게 '두더니' 아프고 여자들이나 남자나. 할 경우에는 파초 뿌리에 가서 오줌을 싸 버리면.)

107055 @ 반치 굽에 강?(파초 둥치에 가서?)

107055 #1 응. 반치 굽에 강. 줄라난 굽에.(응, 파초 둥치에 가서. 잘라낸 둥치

251) '파초'는 파초 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2미터 잎은 뭉쳐나고 긴 타원형이다. 여름에 노란색을 띤 흰색의 단성화가 피고 열매는 육질의 원기둥 모양이다. 약재로 쓰고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252) '반치'는 '파초 과의 여러해살이 풀'의 제주 방언

253) '두더니'는 불두덩, 씹두덩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에.)

107055 @ 예.(예.)

107055 #1 옛날 반치 먹엉 허젠 허민 ᄀᆞ슬 들어가민 그거 캐어붑니다.(옛날 파초 먹으려고 하면 가을 들어가면 그거 캐버립니다.)

107055 @ 예.(예.)

107055 #1 캐엉 그거 장물에 컷당은에 먹곡 허는데. 시방 저디 헹 나도 작년에 헤영 먹어 봤는데 맛다가리가 어십니다.(캐서 그거 장물에 담갔다가 먹고는 하는데. 시방 저기 해 나둬도 작년에 해서 먹어 봤는데 맛이 없습니다.)

10705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55 #1 게난 차라리 콥대사니 지시나 패마농 불리 지시나 들은마농은 또 보통 이것저것 먹어지지 안 헤영 아이들 왕 기자 이만씩 아졍 돌아나불곡, 돌아나불곡 허는데.(그러니까 차라리 마늘 장아찌나 파 뿌리 장아찌나 달래는 또 보통 이것저것 먹어지지 않아서 아이들 와서 그저 이만큼 가지고 달아나 버리고. 달아나버리고 하는데.)

107055 @ 짐치가 아니고 지시로예?(김치가 아니고 장아찌로요?)

107055 #1 옛날 같으민 그걸 지시를 담앙 먹는데 (옛날 같으면 그걸 장아찌를 담가서 먹는데.)

107055 @ 아.(아.)

107055 #1 이젠 그걸 아니 담읍주게. 콥대사니나 ᄒᆞ곡 패마농 뿔리만 담앙.(이젠 그걸 안 담지. 마늘이나 하고 파 뿌리만 담궈.)

107055 @ 유입은마씨?(깻잎은요?)

107055 #1 유잎 그거 요즘 장아찌, 장아찌허는데, 하하 나 그거 춤. 유잎은 옛날도 장물에 미쳥 먹어낫수다.(깻잎 그거 요즘 장아찌, 장아찌하는데, 하하 나 그거 참. 깻잎은 옛날도 장물에 무쳐서 먹었습니다.)

107055 @ 예.(예.)

107055 #1 장물에 미쳥 먹곡. 경남 양산을 강 보난 콩잎 튿아당 장물에 막 절연. 장물에 절이니까 콩잎을 아져당 상에 반찬으로 노난, 보니 콩잎이라.(장물에 무쳐서 먹고. 경남 양산을 가서 보니까 콩잎 뜯어서 장물에 마구 절였습니다. 장물에 절이니까 콩잎을 가져다가 상에 반찬으로 놓으니까 보니 콩잎이라.)

107055 @ 예(예.)

107055 #1 먹어보니 그냥 간장 맛.(먹어보니 그냥 간장 맛.)

107055 @ 하하하. 간장 맛.(하하하. 간장 맛.)

107055 #1 콩잎도 그때 지시한 걸 처음 봤는데, 양산서 처음 봣수다.(콩잎도 그때 장아찌 한 걸 처음 봤는데, 양산에서 처음 봤습니다.)

107055 @ 아.(아.)

107055 #1 근데 유잎은 그냥 봣당 장물에 미쳥 장물에 그냥 ᄃᆞᆼ강 봣당 허면은 흔엇이 색이 아이 변헙니다.(그런데 깻잎은 그냥 놓았다가 장물에 무쳐서 장물에

그냥 담갔다 놨다 하면은 별로 색이 안 변합니다.)

107055 @ 음.(음.)

107055 #1 짜서 반찬 담지 안 허난 그렇지.(짜서 반찬 담지 안 하니까 그렇지.)

107055 @ 예.예.(예.예.)

107055 #1 경허고 요즘은 수시로 유입이 나 노니까.(그리고 요즘은 수시로 깻잎이 나서 있으니까.)

107055 @ 예.(예.)

107055 #1 육지서도 콩잎 듕글 때는 유잎이 나가 혼 이십년 뒈었으니까 경 엇은 때니까 하우스가 엇곡 허난 그 콩잎을 듕갔단에 지시로 내놩은에 잘 먹곡.(육지서도 콩잎 뒹글 때는 깻잎이 내가 한 이십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없을 때니까 하우스가 없고 하니까 그 콩잎을 담갔다가 장아찌로 내놓아서 잘 먹고.)

107055 @ 예.(예.)

107055 #1 이디도 오래 먹젠 허면은 이 할망도 혼 두어달은 나 둡니다. 유잎 다 가물아불민 엇다 말입니다.(여기도 오래 먹으려고 하면은 이 할머니도 한 두어 달은 놔 둡니다. 깻잎 다 가물어버리면 없다 말입니다.)

107055 @ 예.(예.)

107055 #1 겨믄 마트에 강 사와야 뒈어 몇 천원 주곡. 사오민 듕강 나두민 아사하게 먹으민 맛이 좋아 그렇게.(그러면 마트에 가서 사와야 돼 몇 천원 주고. 사오면 담가 나두면 아삭하게 먹으면 맛이 좋아 그렇게.)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1 엇엉 귀한 때니까양. 경헝 그 유잎을 듕갓당 지시로 먹읍니다.(없어서 귀한 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깻잎을 담갔다가 장아찌로 먹습니다.)

107056 @ 마늘 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마늘 짱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6 #2 마농지시라.(마늘 장아찌라.)

107056 @ 콥대사니 지시꽈?(마늘 장아찌입니까?)

107056 #2 콥대사니 지시.(마늘 장아찌.)

107056 #1 패마농 불리는 벳겨야 뒈어, 껍질.(파 뿌리는 벗겨야 돼, 껍질.)

107056 #2 콥대사니 지시게. 우린 아무것도 안 놩 장물에만 듕강 먹엄주.(마늘 장아찌말이야. 우린 아무것도 안 놓고 장물에만 담가서 먹지.)

107056 @ 콥대사니를 어떵 헤마씨?(마늘 장아찌를 어떻게 합니까?)

107056 #2 콥대사니? 지금은 믄 새불연.(마늘 장아찌? 지금은 모두 쇠버렸어.)

107056 #1 혼 달 앞서 사월달에.(한 달 앞서 사월 달에.)

107056 @ 사월달에예?(사월 달에요?)

107056 #2 으. 음력으로 이월 그물어 가거든. 혼 삼월 초이.(으. 음력으로 이월 그물어. 한 삼월 초에.)

107056 @ 예. 예.(예. 예.)

107056 #2 경헌때 해사.(그러한 때 해야.)
107056 @ 그때 잘랑 왕.(그때 자르고 와서.)
107056 #2 경헹 그추룩 줄랑.(그렇게 그처럼 잘라서.)
107056 @ 예.(예.)
107056 #2 우린 기자 저런 통에 담앙 장물 비와나부난 몰라.(우린 그저 저런 통에 담가서 장물 비웠으니까 몰라.)
107056 #1 임시 먹을 거.(임시 먹을 거)
107056 @ 콥대사니를.(마늘을.)
107056 #2 다른 사름들은 지금 ᄀᆞ는 거 보민 장물에 무신거 놩 궤엇당 담아라만은 난 끓엿다가 안 허고 그대로.(다른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장물에 뭐 놔서 괴었다가 담더라만은 난 끓이지도 안 하고 그대로.)
107056 #1 그대로 비와, 그대로. 자연 우리 그대로.(그대로 비워, 그대로. 자연 우리 그대로.)
107056 @ 예.(예.)
107056 #2 우린 그대로 담아.(우린 그대로 담가.)
107056 @ 장물은 사당 헴수과, 집에서 담앙 헴수과?(장물은 사다가 합니까, 집에서 담가서 합니까?)
107056 #2 이젠 뒌장 안 담앙 장물 어서부난 사온 걸로 혜여.(이젠 된장 안 담가서 장물 없어서 사온 거로 해.)
107056 @ 헤헤.(헤헤.)
107056 #2 오복간장으로.(오복간장으로.)
107056 @ 오복간장? 하하.(오복간장? 하하.)
107056 #2 으.(으.)
107056 #1 그 전이는 이녁 담은 장물이주. 자연 그대로.(그 전에는 자기 담은 장물이지. 자연 그대로.)
107056 #2 그 전이는 장 담아낫주. 요즘은 장 안 담아부난 장물 사당.(그 전에는 장 담았지. 요즘은 장 안 담그니까 장물 사다가.)
107056 @ 담앙 얼마 만에 꺼냉 먹읍니까?(담가서 얼마 만에 꺼내서 먹습니까?)
107056 #2 혼 달만 뒈민 먹주게.(한 달만 되면 먹지.)
107056 #1 무시 거 혼 달. 그 뭐, 그 즉시 먹주 뭐.(무엇 한 달, 그 뭐, 그 즉시 먹지. 뭐.)
107056 @ 그 즉시 먹어도 뒈마씨?(그 즉시 먹어도 됩니까?)
107056 #1 무신 그냥 뒌장에 찍엉도 먹는디, 무신. 겐디 패마농 지시는 쪼곰 오래 ᄒᆞ쏠 셔사.(무슨 그냥 된장에 찍어도 먹는데, 무슨. 그런데 파 장아찌는 조금 오래 조금 있어야.)
107056 @ 패마농 지시는 어떵헤여.(파 장아찌는 어떻게 합니까?)
107056 #1 패마농 지시는 뿔리도 허곡 썹도 허는데 썹은 떼여불여.(파 장아찌는

뿌리도 하고 잎도 하는데 잎은 떼어버려.)

107056 #2 에이 썹은 안 헤여.(에이 잎은 안합니다.)

107056 #1 뿔리로만 헴서. 뿔리. 뿔리로만.(뿌리로만 합니다. 뿌리. 뿌리로만.)

107056 #2 패마농 뿔리 벳경 놩.(파 뿌리 벗겨서 놓고.)

107056 #1 큐셔.(고소해.)

107056 #2 벳경은에 그건 ᄒᆞ쏠 시들왕.(벗겨서 그건 조금 시들게 해서.)

107056 @ 아. ᄒᆞ꼼 시들왕.(아, 조금 시들게 해서.)

107056 #2 으. 베끗디서 ᄒᆞ쏠 시들왕은에 그것도 그냥 장물에 ᄃᆞᆼ가.(으. 바깥에서 조금 시들게 한 다음에 그것도 그냥 장물에 담가.)

107056 #1 패마농 지시가 그게 색은 거멍해도 쿠십니다.(파 장아찌가 그게 색은 검어도 고소합니다.)

107056 @ 들은 마농 지시는마씨?(달래 장아찌는요?)

107056 #2 들은 마농 지시도 마찬가지주게. 것도 ᄒᆞ쏠 뿔리를 시들롸야 뒈어.(달래 장아찌도 마찬가지지. 그것도 조금 뿌리를 시들게 해야 돼.)

107056 @ 시들롸야 뒈어.(시들게 해야 돼.)

107056 #2 으.(으.)

107056 #1 그냥 장물에 앗당, 그냥 소곰물에 앗당 담앙 해도 맛이 나낫수다.(그냥 장물에 가져다가, 그냥 소금물에 가져다가 담가서 해도 맛이 있었습니다.)

107056 @ 우에 썹은 안 하고 밑에 것만?(위의 잎은 안 하고 밑에 것만?)

107056 #2 밑에 것만.(밑에 것만.)

107056 #1 어디?(어디?)

107056 #2 춤, 우에 거는 짐치 담앙 먹주게.(참, 위의 것은 김치 담가서 먹지.)

107056 @ 건 짐치로 허고.(그건 김치로 하고.)

107056 #1 짐치. 짐치 담아.(김치. 김치 담가.)

107056 @ 그믄 들은 마농 아래 쪼그락한 걸로만마씨?(그러면 달래 마농 아래 조그마한 걸로만요?)

107056 #2 으. 뿔리만 헤영.(으. 뿌리만 해.)

107056 #1 뿔리만은 어디 경 이서. 썹도 다 헹.(뿌리만은 어디 그렇게 이서? 잎도 다 해서.)

107056 #2 옛날이주. 지금은 그런 거 담는 사름 어서.(옛날이지. 지금은 그런 거 담그는 사람 없어.)

107056 @ 이젠 짐치추룩 그냥 무쳥 먹엄주예?(이젠 김치처럼 그냥 무쳐서 먹고 있지요?)

107056 #2 응. 기자 경 헹 무쳥 먹엄주.(응, 그저 그렇게 해서 무쳐서 먹지.)

107056 #1 그냥 것절이로 무쳥 먹엇주만은 짐치를 제라하게 담으민 그게 진짜 쿠셔.(그냥 겉저리로 무쳐서 먹었지만 김치를 제대로 담그면 그게 진짜 고소해.)

107056 @ 아.(아.)

107056 #1 저게 소곰물에만 헹 담아도. 저 맛을 몰라서들 시방 경헤.(저것에 소금물에만 해서 담가도. 저 맛을 몰라서들 시방 그래.)

107056 @ 유썹은 어떵 만듭니까?(깻잎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56 #2 유썹은 뭐 장물에게. 무시거 양념게.(깻잎은 뭐 장물에. 무엇 양념.)

107056 @ 양념 좀 헤마씨?(양념 좀 합니까?)

107056 #2 유썹은 우리 몰라. 우린 뭐 츰지름만 장물에 놩 헤나난. 몰라.(깻잎은 우리 몰라. 우린 뭐 참기름만 장물에 놔서 해낫으니까. 몰라.)

107056 @ 헤난 거 굴아줍서.(했던 거 말해주십시오.)

107056 #2 츰지름하고 장물하고 섞어.(참기름하고 장물하고 섞어.)

107056 #1 섞엉게 고치장하고 영영 섞어놔근에 한 잎, 한 잎 불른다 말입니다.(섞어서 고추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섞어 놓고서 한 잎, 한 잎 바른다 말입니다.)

107056 #2 유썹에 무치멍 담주게.(깻잎에 무치면서 담지.)

107056 #1 나원 시끄러와서.(나원 시끄러워서.)

107056 #2 그거 막 공들어, 공들어.(그거 막 공들어. 공들어.)

107056 #1 공들면 맛이 좋은데이. 나 먹어보민 꼭 같아. 경헹 공 들인 거나 그대로 아멩이나 비와낭 그냥 숫구락으로 뒤집엉 미칭거나. 간장만 들어가민 뒈어.(공들면 맛이 좋은데요, 나 먹어보면 똑같아. 그렇게 공 들인 거나 그대로 아무렇게나 비워놓고 그냥 숟가락으로 뒤집어서 무친거나. 간장만 들어가면 돼.)

107056 #2 하하하.(하하하.)

107056 @ 예.(예.)

107056 #2 경허민 골고루 안 미쳐져.(그렇게 하면 골고루 안 무쳐져.)

107056 @ 골고루 안 뒈어예?(골고루 안 됩니까?)

107056 #2 골로루 안 뒈어. 가는 디 가곡.(골고루 안돼. 가는 데 가고.)

107056 #1 게난 ᄒᆞ나 ᄒᆞ나라. ᄒᆞ나 ᄒᆞ나 뒤집으멍 시끄럽게 그거 본다가리 좋은 거.(그러니까 하나 하나라. 하나 하나 뒤집으면서 시끄럽게 그거 모양 좋은 거.)

10705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56 #2 요즘 뭐 마농지시 담는 말들 곧는 거 보면 뭐.(요즘 뭐 마늘장아찌 담는 말들 말하는 거 보면 뭐.)

107056 #1 식초 놓고, 사이다 놓고 하이고 (식초 놓고, 사이다 놓고 하고.)

107056 #2 유슈가 놓고 사이다 놓고 뭐.(사카린[254] 놓고 사이다 놓고 뭐.)

107056 @ 양훼끈[255]은 안 헙니까?('양훼끈'은 안합니까?)

107056 #2 무사 양훼끈도. 지시허는 사름은.(왜 '양훼끈'도. 장아찌하는 사람은.)

107056 @ 이디서는 안 헙니까?(여기서는 안합니까?)

107056 #2 우린 그냥 숢앙 먹주.(우린 그냥 삶아서 먹지.)

107056 @ 음. 그냥 숢앙만 예?(음. 그냥 삶아서만 입니까?)

---

254) '사카린'은 톨루엔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인공 감미료. 무색의 고체로, 단맛이 자당의 500배 정도로 강해서 설탕 대용품으로 쓴다.

255) '양훼끈'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 이삭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107056 #2 솖앙 그냥 뭰장에 먹곡.(삶아서 그냥 된장에 먹고.)

107056 #1 그게 무신 흔엇이 귀한 거라.(그게 무슨 한없이 귀한 거야.)

107056 #2 미쳥도 먹곡.(무쳐서도 먹고.)

107056 #1 아니 일년이 넘어가난양 칮어놩 놈 해논 거 서너 개 씩 보시에도 아니랑 시접[256]이라이. 시접이옌 헌건 좀 얇주룩헌거, 베조록한 게 시접이고.(아니 일년이 넘어가니까 말입니다. 찾아서 남 해 놓은 거 서너 개씩 보시기[257]에도 아니고 시접이에요. 시접이라고 하는 건 좀 얄팍한 거, 얕은 게 시접이고.)

107056 @ 예.(예.)

107056 #2 헤헤.(헤헤.)

107056 #1 보시는 움트랑[258] 헌 게 보시인데.(보시기는 우묵한 게 보시기인데.)

107056 @ 예.(예.)

107056 #2 하하하.(하하하.)

107056 #1 것도 맛이 그릇에 달라. 그릇에. 보시에 논 것광 영 베조록한 시접에 논 것이. 시접에 영 체영 노난양 그렇게 맛이 좋읍디다.(그것도 맛이 그릇에 달라. 그릇에. 보시기에 놓은 것과 이렇게 얄팍한 접시에 놓은 얕은 접시에 이렇게 체해서 놓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맛이 좋습디다.)

10705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56 #2 놈이 앗당 주난 맛 좋주.(남이 가져다가 주니까 맛 좋지.)

107056 #1 맛이 경헙디다.(맛이 그렇습디다.)

107056 @ 누구랑 먹으난 맛 좋앗수과?(누구랑 먹으니까 맛이 좋았습니까?)

107056 #1 하하하하 아니 그게 누구랑 안 먹어도 그릇에 논 거에 따라 맛이 틀립디다. 그게 비결입디다.(하하하하 아니 그게 누구랑 안 먹어도 그릇에 놓은 거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그게 비결입디다.)

107056 #2 놈의 집이 강 먹으난 맛 좋은 거주.(남의 집이 가서 먹으니까 맛 좋은 거지.)

107056 @ 놈의 집이 강 먹으난?(남의 집에 가서 먹으니까요?)

107056 #2 어디 식당에 강 먹으나.(어느 식당에 가서 먹으나.)

107056 @ 또 다른 건 지시 안 당급니까? 반치도 할아버지 굴안게만은.(또 다른 건 장아찌를 안 담급니까? 파초도 할아버지 말씀하셨는데.)

107056 #2 아이고 반치도 지시 담주게.(아이고 파초도 장아찌 담그는 거지.)

10705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56 #2 반치도 지시 담아.(파초도 장아찌 담가.)

107056 @ 것도 똑같읍니까?(그것도 똑같습니까?)

---

256) '시접'은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이다. 시접은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수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 뚜껑을 달기도 하였다.

257) '보시기'는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이다.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258) '움트랑'은 물체의 바닥이나 면이 우묵하게 쑥 들어간 모양이다.

107056 #2 우린 몰라. 반치 지시 담는 건. 아니 헤봐나부난. 장물에 ᄃᆞᆼ그는 거주게.(우린 몰라. 파초 장아찌 담는 건. 안 해봤으니까. 장물에 담그는 거지.)

107056 #1 할망네 몰라.(할머니네는 몰라.)

107056 @ 할망네 몰라마씨?(할머니네 모릅니까?)

107056 #1 으. 이 할망들은이 외뚤로 헹 부제칩이 살아노난.(으. 이 할머니들은 외딸로 해서 부자집에 살았으니.)

107056 #2 하하하.(하하하.)

107056 #1 우리 어떵 살아난 걸 몰른덴 허난.(우리 어떻게 살았던 걸 모른다고 하니까.)

107056 #2 우리 부제라도 톨밥도 먹고 헤낫수다게.(우리 부자라도 톳밥도 먹고 했었습니다.)

107056 @ 톨밥도 헹 먹곡.(톳밥도 해서 먹고.)

107056 #1 톨밥, 무수밥은 보통 다 먹어서. 그 때 오십오 년돈가 오십삼 년도에. 저 사람뿐이 아니라. 제주도 일원에 전부 다 경헹 먹어서.(톳밥, 무밥은 보통 다 먹어서. 그 때 오십오 년도인가 오십삼 년도에. 저 사람 뿐이 아니라. 제주도 일원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56 @ 으흐흐흐.(으흐흐흐.)

107056 #2 어디 제주도 일원에 다 먹엇수과? 어디 ᄉᆞ태에만 경 먹엇주.(어디 제주도 일원에 다 먹었습니까? 어디 사태에만 그렇게 먹었지.)

107056 #1 아이가, 아이가.(아닌가, 아닌가.)

107056 #2 ᄉᆞ태에 아무것도 엇인 사름들 먹엇주. 헤벤 부제 사름들 그런 거 안 먹엇수다.(사태에 아무것도 엇인 사람들 먹었지. 해변 부자 사람들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107056 #1 부제 사름도 톨밥 너미만 먹어서. 말말아.(부자 사람도 톳밥 너무 먹었어. 말마라.)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2 장? 요즘덜은 섣달그믐들 담곡 헌디, 우린 아이들 셩이 장 담그젠 그허민 메주 솖젠 헤도 날봥 영 좋은 날 헤영 ᄆᆞᆯ날이나.(장? 요즘들은 섣달그믐에 담그고 하는데. 우린 아이들 있어서 장 담그려고 하면 메주 삶으려고 헤도 날 봐서 이렇게 좋은 날 해서 말날이나.)

107059 @ ᄆᆞᆯ날이나.(말날이나.)

107059 #2 또 개날 허젠 해도 우리가 개 해치라부난 못 헤여.(또 개날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개 해치라서 못 해요.)

107059 @ 예.(예.)

107059 #2 ᄆᆞᆯ날이나 토끼날이나 영 날 좋은 날 봥. 이녁집이 본명일 엇은 날.

(말날이나 토끼날이나 이렇게 날 좋은 날 봐서. 자기 집에 본명일 없는 날.)

107059 @ 음.(음.)

107059 #2 그런 날 촞앙 메주를 솖으곡.(그런 날 찾아서 메주를 삶고)

107059 @ 예.(예.)

107059 #2 또 장 담을 때도 경허지.(또 장 담글 때도 그렇게 하지.)

107059 @ 아.(아.)

107060 @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7060 @ 이디선 고추장은 안 담가나수과?(여기선 고추장은 안 담갔습니까?)

107060 #2 고추장 우린 안 담아봔.(고추장 우린 안 담가봤습니다.)

107060 #1 중간에 담아낫수다, 중간에. 업자들 완에.(중간에 담갔습니다, 중간에. 업자들 와서.)

107060 @ 아.(아.)

107060 #1 고추ᄀᆞ루들 가졍 오난에.(고춧가루들 가져 오니까.)

107060 @ 음.(음.)

107060 #1 요새 간새헹 기자 뭐, 다. 사당 먹주. 아멩 들어 허젠[259] 해도 아니꼽거든.(요새 게으름피워서 기자 뭐, 다. 사서 먹지. 아무리 들어서 하려고 해도 아니꼽거든.)

107060 @ 사당 먹엄수다.(사다가 먹습니다.)

107060 #1 ᄒᆞ나 강 사와불게. 이거라. 우리도 마찬가지.(하나 가서 사와 버리지. 이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107060 @ 그게 더 싼 거 닮아마씨?(그게 더 싼 거 같습니까?)

107060 #1 어차피 그런 것이 어섬시면은 담아얍주. 어떵헙니까?(어차피 그런 것이 없으면 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107060 @ 예.(아.)

107060 #1 고추장도 담아얍주.(고추장도 담가야지.)

107060 #2 아니 저, 육지서 온 사름들은 고치장도 담암주게.(아니 저, 육지서 온 사람들은 고추장도 담그지.)

107060 @ 예, 예.(예. 예.)

107060 #2 육지서 온 사름들은 담아. 육지 여자들이 먹는 거는 잘헤여.(육지서 온 사람들은 담아. 육지 여자들이 먹는 거는 잘해요.)

107060 @ 여러 가지 잘헤여예?(여러 가지 잘하지요?)

107060 #2 육지 사름들은 여자는 놀곡 남자만 일허난 여자는 먹는 거는 잘 헤여.(육지 사람들은 여자는 놀고 남자만 일하니까 여자는 먹는 거는 잘해요.)

107060 #1 실상은 그게 아니라게.(실상은 그게 아니지.)

107060 #2 우리 제주도는 여자는 죽자살저 일허곡 남자는 놀아부난 여자들 먹

259) '들어 허젠 한다'는 직역을 하면 들어서 한다. 의미는 '관여한다'는 의미이다.

을 거 헐 줄 몰라.(우리 제주도는 여자는 죽자 살자 일하고 남자는 놀아나서 여자들 먹을 거 할 줄 몰라.)

107060 #1 게, 혼 사십년 전이꼬지는 경 했주만은 이젠 경 안 헴서.(그럼, 한 사십년 전에 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젠 그렇게 안 합니다.)

107060 @ 하하하.(하하하.)

107060 #1 스나이 다 그릇 씻엄서.(사나이 다 그릇을 씻고 있어.)

107060 #2 하하하.(하하하.)

107060 #1 하르방도 다 헴서.(할아버지도 다 해요.)

107060 #2 제주도 여자들은 먹을 거 헐 줄 모릅니다.(제주도 여자들은 먹을 거 할 줄 모릅니다.)

107060 #1 시대에 따라 변허는 거라.(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107060 #2 육지 여자들은 먹을 건 잘 헤여. 맛있게도 허곡.(육지 여자들은 먹을 건 잘 해요. 맛있게도 하고.)

107060 #1 육지 남자들 제주도 왕 우리들 일허는 거 봉 노래멘.(육지 남자들 제주도 와서 우리들 일하는 거 봐서 놀래요.)

107060 @ 맞아마씨.(맞습니다.)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게 쑵니까?(메주는 언제 어떻게 쑵니까?)

107062 #2 콩 솖앙.(콩 삶아서.)

107062 @ 콩 솖앙.(콩 삶아서.)

107062 #2 지금은 막 하영 안 허난 발에 보선 신엉 쏠 마다리에 담앙 그냥 막 발로 볼람주마는.(지금은 아주 많이 안 하니까 발에 버선 신어서 쌀 마대에 담아서 그냥 마구 발로 밟지만.)

107062 @ 예(예.)

107062 #2 옛날엔게 우리도 콩을 닷 말씩 솖아낫어.(옛날엔 우리도 콩을 다섯 말씩 삶았었지.)

107062 @ 아.(아.)

107062 #2 콩 혼 두 말썩 놔근엥에 큰 솟디 헤영 경헹 우리도 메주 혼 닷 말 솖으민 물을 혼 으덥 허벅 일곱 허벅.(콩 한 두 말씩 놓고서 큰 솥에 해서 그렇게 우리도 메주 한 다섯 말 삶으면 물을 한 여덟 '허벅' 일곱 '허벅'.)

107062 @ 헤?(헤?)

107062 #2 소곰 놩 골앙 메주헤영 담으멍 해낫주.(소금 놓고 갈아서 메주해서 담곤 했었지.)

107062 @ 하. 양 많아서 볼르지 못하민 어떵헙니까?(하. 양 많아서 밟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07062 #2 옛날에 방에 신디 방에에 지엉.(옛날에 방아 있는데 방아에 찧어서.)

107062 @ 아, 방에예.(아, 방아요.)

107062 #2 응. 방에예 ᄲᅡ상. 방에예 지어근에 허곡. 그로 후절, 그로 후젠 기계

나난 기계방에 강 ᄀᆞᆯ앙 오곡.(응. 방아에 빻아서. 방아에 찧어서 하고. 그런 후에, 그런 후에는 기계 놓은 방앗간에 가서 갈아서 오고.)

107062 @ 숢아근에마씨?(삶아서 입니까?)

107062 #2 숢앙. 지금도 기계방에 가민 ᄀᆞᆯ아줌주. 떡칩이 가민.(삶아서. 지금도 방앗간에 가면 갈아주지. 떡집에 가면.)

107062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7062 #2 응. 돈만 주민, 뭐.(응. 돈만 주면, 뭐.)

107062 @ 아, 숢은 콩을?(아, 삶은 콩을?)

107062 #2 응. 메주콩.(응. 메주콩.)

107062 @ 메주콩을마씨?(메주콩을요?)

107062 #2 응. 숢앙 가도 ᄀᆞᆯ아주곡. 그디서 숢앙 ᄀᆞᆯ아도렌 허민 숢앙 ᄀᆞᆯ아주곡.(응. 삶아서 가도 갈아주고. 거기서 삶아서 갈아달라고 하면 삶아서 갈아주고.)

107062 @ 아.(아.)

107062 #2 경헤여 지금도.(그렇게 해 지금도.)

107062 @ 경헹 메주 만들어살 거 아니꽈?(그렇게 메주 만들어야할 거 아닙니까?)

107062 #2 메주 만들아.(메주 만들어.)

107062 @ 어떵 만들어?(어떻게 만들어?)

107062 #2 어떵 만들어. 동글랑허게 만들곡.(어떻게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고.)

107062 @ 동글랑하게마씨?(동그랗게요?)

107062 #2 으. 동글랑허게 만들아근에.(응. 동그랗게 만들어서.)

107062 @ 네모나게 허는 거 아니고마씨?(네모나게 하는 거 아니고요?)

107062 #2 아니, 네모나게 허는 사름도 싯곡, 동글랑허게 허는 사름이 하주게.(아니, 네모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동그랗게 하는 사람이 많지.)

107062 @ 아.(아.)

107062 #2 어디 기계방에 강 맞추민 네모나게.(어디 방앗간에 가서 맞추면 네모나게.)

107062 @ 아. 할머니는 동그랑허게 헤낫수과?(아. 할머니 동그랗게 했습니까?)

107062 #2 응. 그냥 동그랑허게.(응. 그냥 동그랗게.)

107062 @ 메주를 멘들앙.(메주를 만들어서.)

107062 #2 메주를 동글랑허게 멘드랑게 무신 산듸짚 시믄 산듸짚에 싸멍 ᄃᆞᆯ아메영.(메주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무슨 밭볏짚 있으면 밭볏짚에 싸면서 달아 메고서.)

107062 @ 무신거 만들엉 ᄃᆞᆯ아메영마씨?(뭐 만들어서 달아멥니까?)

107062 #2 산듸짚헤영.(밭볏짚 해서.)

107062 @ 산듸짚으로.(밭볏짚으로.)

107062 #2 영 멧겁 심엉 뎅가리 똑허게 줄라 메영.(이렇게 몇 겹 잡아서 대가리

똑하게 잘라 메어서.)
107062 @ 예.(예.)
107062 #2 혼 가달이나 네 가달에 영 벌령.(한 가닥이나 네 가닥에 이렇게 벌려서.)
107062 @ 아, 벌령.(아, 벌려서.)
107062 #2 메주 덩어리를 놩.(메주 덩어리를 놔서.)
107062 @ 예.(예.)
107062 #2 이젠 부리 똑허게 영허게 무꺼근에.(이젠 부리 똑하니 이렇게 묶어서.)
107062 @ 무꺼근에.(묶어서.)
107062 #2 또 하나 만들민 영허게.(또 하나 만들면 이렇게.)
107062 @ 두 개마씨?(두 개입니까?)
107062 #2 으. 두 개에 졸라 메영. 경헹 저 공장[260]에 돌아메영.(으. 두 개에 잘라매서. 그렇게 해서 저 '공장'에 달아매어서.)
107062 @ 이 공장에 돌아메여.(이 '공장'에 달아매.)
107062 #2 경헹 몰리민 게.(그렇게 말리면.)
107062 @ 아.(아.)
107062 #2 우린 이제 하영 안 헤여. 저 창고에 강 메영 나두민 몰라불주게.(우린 이제 많이 안 해. 저 창고에 가서 메고 놔두면 말라버리지.)
107062 @ 몰리민 그 다음은 어떵헙니까?(말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107062 #2 몰리민 게 섣달 그믐날 게 ᄂᆞ려.(말리면 섣달 그믐날 되면 내려.)
107062 @ 내리민 그걸 씻읍니까?(내리면 그걸 씻습니까?)
107062 #2 으. 씻어사주. 씻어사.(으. 씻어야지. 씻어야.)
107062 @ 무사마씸?(왜요?)
107062 #2 거 막 곰셍이 피어나부난.(그거 막 곰팡이 피어나니까.)
107062 #1 거 막 솔로 헹 닦아사.(그거 마구 솔로 해서 닦아야.)
107062 @ 솔 엇인 때는 뭘로 헤낫수과?(솔 없을 때 뭘로 했었습니까?)
107062 #2 옛날에는 산듸짚 수세.(옛날에는 밭볏짚 수세미.)
107062 #1 산듸짚 수세 몽크령.(밭볏짚 수세미 뭉쳐셔.)
107062 @ 예.(예.)
107062 #1 밭볏짚 수세 몽크령 그레 막 밀주.(밭볏짚 수세미 뭉쳐서 거기를 마구 밀지.)
107062 #2 옛날은 무시거 셔게. 솟도 씻젠 허민 산듸짚.(옛날은 무엇 있어? 솥도 씻으려고 하면 밭볏짚.)
107062 @ 음.(음.)

260)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방안의 벽 같은 데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걸이의 한 가지이다.

107062 #2 그릇, 사발도 씻젠 허민 산듸짚.(그릇, 사발도 씻으려고 하면 밭볏짚.)

107062 #1 산듸짚하고 재.(밭볏짚하고 재.)

107062 @ 불치마씨?(불티입니까?)

107062 #2 재는 사발ᄀᆞ튼 데. 아니 불치로 안 뒈어.(재는 사발 같은 데. 아니 불티로 안 돼.)

107062 @ 그믄 뭘로마씨?(그러면 뭐입니까?)

107062 #2 사리(화로)에 불 술라난 거. 그건 재라사.(화로에 불 살려난 거. 그건 재라야.)

107062 @ 재라사.(재라야.)

107062 #1 건 재.(그건 재.)

107062 @ 아.(아.)

107062 #2 재라사 그릇도 닦아지주. 불치로는 안 뒈어.(재라야 그릇도 닦아지지. 불티로는 안 돼.)

107062 #1 솟 강알에는 불치.(솥 다리아래에는 불티.)

107062 @ 음.(음.)

107062 #1 것도 종류가 다 틀리우다.(그것도 종류가 다 다릅니다.)

107062 @ 사리에 이신 건 재예?(화로에 있는 건 재예요?)

107062 #2 으.(응.)

107062 @ 메주 씻어낭 물 빠지와마씨?(메주 씻어나서 물 빠지게 합니까?)

107062 #2 그냥 씻엉 항에 담앙 ᄀᆞᆫ물 퍼 노민 뒈주게.(그냥 씻고서 항아리에 담가서 간수 퍼 놓으면 되지.)

107062 @ ᄀᆞᆫ물은 어떵 소금을 얼마나 놔야 헙니까?(간수는 어떻게 소금을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

107062 #2 물 한 허벅에 소곰 한 세 관대.(물 한 '허벅'에 소금 한 세 관대.)

107062 @ 물 흔 허벅에 세 관대.(물 한 허벅에 세 관대.)

107062 #2 세 관대.(세 관대.)

107062 @ 음.(음.)

107062 #1 그 비율로 육지 어디 어디여도 다 경 담주게.(그 비율로 육지 어디 어디여도 다 그렇게 담는 거지.)

107062 #2 선흘도 뒌장 장시도 저 정칠이 누이도게.(선흘도 된장 장수도 저 정칠이 누이도.)

107062 #1 육지서 보민 막 고치도 ᄃᆞᆯ아메곡 숯도 놓곡 계란도 놓곡.(육지서 보면 마구 고추도 달아 메고 숯도 놓고 계란도 놓고.)

107062 @ 그런 거 안 놉니까?(그런 거 안 놉니까?)

107062 #1 여기는 그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젠 허민 장이 변동이 생겨불여.(여기는 그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려고 하면 장에 변동이 생겨버려.)

107062 @ 아.(아.)

107062 #2 장도 싱거우면은 ᄇᆞ렝이만 일곡 장이 맛이 어서.(장도 싱거우면은 벌레만 생기고 장이 맛이 없어.)

107062 @ 예. 장버렝이는 뭐렌 헙니까?(예. 장벌레는 뭐라고 합니까?)

107062 #2 장버렝이주게. 장버렝이 헤영헌 게 그믈락그믈락 뒌장에 바글바글헤 불어.(장벌레지. 장 벌레 하얀 것이 꾸물꾸물 된장에 바글바글해버려.)

107062 #1 옛날엔 징그로와.(옛날엔 징그러워.)

107062 @ 예.(예.)

107062 #2 옛날은 징그로와. 옛날은 국도 끓영 보민 장버렝이가. 흐흐흐.(옛날은 징그러워. 옛날은 국도 끓여서 보면 장 벌레가.흐흐흐.)

107062 #1 나와, 으. 흐흐흐.(나와, 으. 흐흐흐.)

107062 @ 흐흐흐.(흐흐흐.)

107062 #1 배치국에라도.(배춧국에라도.)

107062 #2 밧디도 뒌장 앗아강 보민 그믈락그믈락.(밭에도 된장 가져가서 보면 꾸물꾸물,)

107062 #1 살앙 밧디 뒌장에도. 아이 더러와.(살아서 밭에 된장에도. 아이 더러워.)

107062 @ 싱거우면 장버렝이 생기고.(싱거우면 장 벌레가 생기고.)

107062 #2 싱거우민 맛이 어성 벌거지가 더 생겨 게.(싱거우면 맛이 없어서 벌레가 더 생기지.)

107062 @ 아. 짜도 벌레 생겨마씨?(아. 짜도 벌레 생깁니까?)

107062 #1 생겨, 버렝이.(생겨, 벌레.)

107062 #2 생겨도 하영은 안 생기주게. 싱거우면 더 생겨.(생겨도 많이는 안 생기지. 싱거우면 더 생겨.)

107062 #1 집 안이 우환이 생기젠 허민 장이 변덕이 옵니다. 변덕이 와.(집 안에 우환이 생기려고 하면 장에 변덕이 옵니다. 변덕이 와.)

107062 @ 예.(예.)

107062 #1 경허민 계란도 놓곡 요즘은 뭐 근물을 골면은 그 근물 도수를 맞추젠 허니까 (그러면 계란도 놓고 요즘은 뭐 간수를 바꾸면 그 간수 도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107062 @ 예.(예.)

107062 #1 계란을 놩 요즘 학자들 보니까 계란이 어느 정도 뜨면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계란을 놔서 요즘 학자들 보니까 계란이 어느 정도 뜨면 어느 정도 적합하다.)

107062 @ 예.(예.)

107062 #1 근데 옛날 할망들은 그거 기준으로만 근물을 골아근엥에 ᄒᆞᆫ 열두 시간쯤 근물을 골앙 나뒀당.(근데 옛날 할머니들은 그거 기준으로만 간수를 바꿔서 한

열두 시간 쯤 간수를 바꿔서 놔두었다가.)

107062 @ 예.(예.)

107062 #1 곶인 거 믄딱 제하고 우에 올라온 것은 올라 온대로 믄딱 건져불곡 아래 거 뚤라놔근엥에.(곶은 거 모두 제거하고 위에 올라온 것은 올라 온대로 모두 건져버리고 아래 거 따르고 나서.)

107062 @ 예.(예.)

107062 #1 소곰에도 나쁜 흑이 있습니다. 게서 그런 거 다 뚤랑 데껴 동 메주를 담는 거라.(소금에도 나쁜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따라 버리고 메주를 담는 거야.)

107062 @ 곤물은 소곰하고 물마씨?(간수는 소금하고 물입니까?)

107062 #1 야, 곤물 야.(네, 간수.)

107062 @ 곤물 비와 낭 얼마나 지나야 열어마씨?(간수를 비워서 놓고 얼마나 지나야 엽니까?)

107062 #1 혼 두 달? 혼 달?(한 두 달? 한 달?)

107062 @ 언제 메주 건집니까?(언제 메주 건집니까?)

107062 #2 건 기자 이녁 헤지는 게 다르주게.(그건 그저 자기 하는 게 다르지.)

107062 @ 할머니는 어떵 헤낫수과?(할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62 #2 우리는 옛날에는 게 혼 이월쯤에.(우리는 옛날에는 한 이월쯤에.)

107062 @ 메주 건젼마씨?(메주 건졌습니까?)

107062 #2 으. 장을 ᄒᆞ쏠 일찍 담으면은 뒌장을 ᄒᆞ쏠 일찍 건지곡.(응. 장을 조금 일찍 담그면 된장을 조금 일찍 건지고.)

107062 @ 예.(예.)

107062 #2 뒌장이 이 새해 낭 담으나 담으민.(된장이 이 새해 나서 담그나 담그면.)

107062 #1 혼 이 개월.(한 이 개월.)

107062 #2 혼 삼 개월이나 셔사.(한 삼 개월이나 있어야.)

107062 @ 음.(음.)

107062 #2 뒌장이 막 흐랑하게 물이 울어사 건지주게.(된장이 마구 흐물하게 물이 우려나야 건지지.)

107062 #1 견데 경헤사 뀌어낭 별도로 건졍 청국장을 멘드나 뭘 멘드는 헐 거 아니꽈.(그런데 그렇게 해서 띄우고 나서 별도로 건져서 청국장을 만드나 뭘 만드는 할 것 아닙니까?)

107062 @ 뒌장 거린 후에는마씨?(된장 뜬 후에는요?)

107062 #2 뒌장 거려근에.(된장 뜨고 나서.)

107062 @ 메주를 건졍?(메주를 건져서?)

107062 #2 메주를 건졍 옛날은 무신 도구리[261]에 건져 놩게 막 뀌어근에 담주.

261) '도구리'는 지역에 따라 도고리라고도 부르는 도구리는 넓고 낮은 불완전 원형으로 만든 생활 용

(메주를 건져서 옛날은 무슨 함지박에 건져 놓고 마구 띄어서 담지.)

107062 @ 예.(예.)

107062 #2 견디 옛날은 겅 뀌엉도 아이 담아나서.(그런데 옛날은 그렇게 띄어서도 안 담았었어.)

107062 @ 예.(예.)

107062 #2 뒌장을 먹젠 허민 강, 뒌장 벙뎅이[262] 그냥 건져 오난 하영 먹젠 허민 혼 덩어리 그냥 건져 오곡.(된장을 먹으려고 하면 가서, 된장 덩어리 그냥 건져 오니 많이 먹으려고 하면 한 덩어리 그냥 건져 오고.)

107062 @ 아.(아.)

107062 #2 경 안 허민 그 장항에서 뒌장을 끈엉 가졍오곡 했주게.(그렇게 하면 그 장 항아리에서 된장을 끊어서 가져오고는 했지.)

107062 @ 아.(아.)

107062 #2 경허민, 경허당 보민 버렝이가 붙엉 오는 거라. 흐흐.(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벌레가 붙어서 오는 거야. 흐흐.)

107062 @ 예.(예.)

107062 #1 그 버렝이 간수 잘못 헤부난, 우에 쌈을 잘못 헤부니까 픠리가 아자서 픠리 똥을 싸부난 그거주게.(그 벌레 간수 잘못 해서, 위에 싸기를 잘못 해버리니까 파리가 앉아서 파리 똥을 싸버리니까 그거지.)

107062 @ 예.(예.)

107062 #1 옛날은 경양 뭐 겅 신경을 겅 안 써수다.(옛날은 그렇게 뭐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안 썼습니다.)

107062 @ 예.(예.)

107062 #1 그런데 하나 비결이양, 일 개월만 뒈면은 뒌장 담앗당 일 개월만 뒈면은 그 보듯 물이 열거 아니꽈.(그런데 하나 비결이요, 일 개월만 되면 된장 담갔다가 일 개월만 되면 그 바듯 물이 '열거' 아닙니까?)

107062 @ 예.(예.)

107062 #1 뒌장이 막 헤카지기 전이 아니꽈.(된장이 막 흐트러지기 전에 아닙니까.)

107062 @ 예.(예.)

107062 #1 그걸 반착만 끈어 당 기름 놩 그걸 지정 먹어봅써. 그 이상 맛이 엇수다.(그걸 반만 끊어다가 기름 놓고 그걸 지져서 먹어보십시오. 그 이상 맛이 없습니다.)

107062 #2 하하하.(하하하.)

107062 @ 뒌장을마씨?(된장을요?)

107062 #1 뒌장을 마농 썰어놩 지정 먹어봅써. 대산이 썰어 놩.(된장을 마늘 썰

구로서, 제주 지역에서 흔하게 쓰이던 나무 그릇이다.

262) '벙뎅이'는 가루로 된 물건이 엉키어 붙은 작은 덩어리를 말한다.

어놓고 지져서 먹어보십시오. 마늘 썰어 놓고서.)

107062 #2 뒌장 벙뎅이.(된장 덩어리.)

107062 @ 아.(아.)

107062 #1 계란 아니 벨 거보다 베지근하니[263] 맛이 좋아.(계란 아니 별 거보다 구미가 당겨서 맛이 좋아.)

107062 @ 예.(예.)

107062 #1 우리 족은 아들은 그거 먹어봥 뒌장 지정 노민 그거 냄비짜 가정 가불여.(우리 작은 아들은 그거 먹어보고서 된장 지져서 놓으면 그거 냄비채로 가져가 버려.)

107062 #2 하하하.(하하하.)

107062 @ 하하하.(하하하.)

107062 #1 뚠 놈들은 가정가켄 소리를 안 허주. 지정먹는 거 봐낭 그거 부모들 사는 거 생각혜영 반찬이난 부모들 먹는 거렌 생각헤영.(다른 사람들은 가져간다고 소리를 안 하지. 지져서 먹는 거 봤다가 그거 부모들 사는 거 생각해서 반찬이니까 부모들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107062 @ 예.(예.)

107062 @ #1 근디 족은 아들은 아정가불여.(그런데 작은아들은 가져가 버려.)

107062 @ 족은 아들 아니꽈? 흐흐.(작은 아들 아닙니까? 흐흐)

107062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62 #1 아니. 그 진미가 나와. 그렇게.(아니. 그 진미가 나와. 그렇게.)

107062 @ 맛이.(맛이.)

107062 #1 지름 놓곡양 콥대사니 이만씩 썰엉 노민 그렇게 맛이 낫다니까.(기름 놓고 마늘 이만큼씩 썰어서 놓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다니까.)

107062 @ 음.(음.)

107062 #1 고기 안 바꿔줘, 우린.(고기 안 바꿔줘, 우린.)

107062 @ 메주하고 장하고 따로따로 놔두진 안 헙니까?(메주하고 장하고 따로 따로 놔두지는 안 합니까?)

107062 #1 뜨루 놓주게.(따로 놓지.)

107062 #2 뒌장 지정 먹음도 건지기 전이.(된장 지져서 먹음도 건지기 전에.)

107062 @ 건지기 전에 흔 달만 이시믄 먹는덴예?(건지기 전에 한 달만 있으면 먹는다고요?)

107062 #2 막 물우지 안 헌 때에.(마구 무르지 안 한 때에.)

107062 @ 뒌장을 따로 놓고 그 다음엔마씨?(된장을 따로 놓고 그 다음에는요?)

107062 #2 으. 무시 거게? 냄지에 뒌장 봥 지저먹는 거?(응. 무엇? 냄비에 된장 놔서 지져먹는 거?)

107062 @ 아니 그냥 뒌장 만들 때마씨.(아니 그냥 된장 만들 때요.)

---

263) '베지근하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이 맛이 돌아 구미가 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107062 #2 뒌장 허는 거게. 그냥 건져놩 뀌여근에게 뜻ᄅᆞ 무시 거에 담주게.(된장하는 거지. 그냥 건져놔서 띄어서 따로 무엇에 담지.)

107062 @ 따루 나두면 뒈는 거꽈?(따로 놔두면 되는 겁니까?)

107062 #2 아니, 아니. 요즘은 하영 안해부난 두껑 두 개에 닫앙 냉장고에 담아.(아니, 아니. 요즘은 많이 안 하니까 뚜껑 두 개에 닫아서 냉장고에 담가.)

107062 @ 하난 뒌장, 하난 간장 뒈는 거꽈?(하나는 된장, 하나는 간장 되는 겁니까?)

107062 #1 야, 게난 장물이 간장. 장물을 또 솖습니다.(예, 그러니까 장물이 간장. 장물을 또 삶습니다.)

107062 @ 솖아마씨?(삶아요?)

107062 #2 에, 솖으는 사름은 솖주. 난 안 솖아.(에, 삶는 사람은 삶지. 난 안 삶아.)

107062 #1 솖으므로써 장물이 진미가 더 납니다.(삶음으로써 장물이 진미가 더 납니다.)

107062 #2 무신 더 나와?(무슨 더 나와?)

107062 #1 아무래도 그냥보다 맛이 더 나온다니까.(아무래도 그냥보다 맛이 더 나온다니까.)

107062 #2 장물이 장이 싱거와근에 벵 들엄직 허믄 혼 번 솖아 부는 거.(장물이 장이 싱거워서 병 듬직하면 한 번 삶아 버리는 거.)

107062 @ 아, 예.(아, 예.)

107062 #2 소곰 더 놩은에 솖아부는 거.(소금 더 놔서 삶아버리는 거.)

107062 #1 소곰 더 놩 솖아야 돼.(소금 더 놔서 삶아야 돼.)

107062 #2 우린 솖아부지 안 해부난 모르켜.(우린 삶지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

107062 @ 헤헤.(헤헤.)

107062 #2 우리 안 솖아 봔.(우린 안 삶아 봤어.)

107062 @ 근물 놩 헐 때 뚜껑도 열곡 닫곡 해야할 거 아니마씨?(간수 놔서 할 때 뚜껑도 열고 닫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62 #2 아이고.(아이고.)

107062 @ 장뚜껑은 뭐렌 헙니까?(장 뚜껑은 뭐라고 합니까?)

107062 #2 무시거 항 뚜껑이주.(무엇 한 뚜껑이지.)

107062 #1 장탱이, 장탱이.(장태, 장태.)

107062 #2 장탱이 그냥 덕엉만 내부난.(장태 그냥 덮어서만 내놔버리니까.)

107062 @ 벳 날 때 열어살 거 아니꽈?(볕 날 때 열어야할 거 아닙니까?)

107062 #1 우린 열어주질 안 헙니다. 겐디 그게 열 중 쉬엉 열어 주면은 곰팡이양, 갓.(우린 열어주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열 중 쉬어서 열어 주면 곰팡이, 곰팡이.)

107062 @ 갓?(곰팡이?)

107062 #1 곰팡이 피는 걸 갓이옌 헙니다. 담앙 나두민 태양열을 아니 받으민 갓이 허영케 피어.(곰팡이 피는 걸 곰팡이라고 합니다. 담가서 놔두면 태양열을 안 받으면 곰팡이가 하얗게 펴.)

107062 @ 예.(예.)

107062 #1 게민 그게 열어준다 말이우다. 열어줘. 그믄 태양열을 받을 거 아니꽈 그럼 갓이 츠츠츠 제거뒈여. 건데 거기서 단점이 하나 밧디 게당.(그러면 그게 열어준다 말입니다. 열어줘. 그러면 태양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곰팡이가 차차차 제거되게 돼. 그런데 거기서 단점이 하나 밭에 그러다가.)

107062 @ 비 와불민.(비 와버리면.)

107062 #1 장텡이, 장항 열어동 간다 말이우다. 갑자기 비가 터질 땐 걸엉댐이 뭐라 들아와도 감당이 어서.(장태, 장항아리 열어두고 간다 말입니다. 갑자기 비가 터질 땐 걸어다님이 뭣이야. 달려와도 감당이 없어.)

107062 @ 물 들어예?(물이 듭니까?)

107062 #1 물 들어불민 장이 골여불여.(물 들어버리면 장이 곯아버려.)

107062 @ 아이고.(아이고.)

107062 #1 경혜근에 욕도 듣고 매도 맞아 낫수다. 어멍한티.(그렇게 해서 욕도 듣고 매도 맞았었습니다. 어머니한테.)

107062 @ 하하하.(하하하.)

107062 #1 이놈의 시키들 집이서 방뎅이 허지 말앙은에.(이놈의 새끼들 집에서 장난 하지 말고서.)

107062 #2 장항 덖으크라녜.(장항아리 덮을 거 아니냐.)

107062 #1 장항 덖으크라녜. 비와 가건.(장항아리 덮을 거 아니냐. 비가 오면.)

107062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62 #1 잊어불었다 말이여. 놀당 보민.(잊어버렸다 말이야. 놀다 보면.)

107062 @ 예.예.(예.예.)

107062 #1 겡헹 우리가 매도 멧 번 맞아나곡 헤낫고양. 맹심헤집니께.(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도 몇 번 맞았었어요. 명심해집니다.)

107062 @ 예.예.(예.예.)

107062 #1 이 할망들은 관심 안 가집니다. 쳇째 그런건 내가 멩심해집니다. 장황 ᄀᆞ튼 거라도. 이 할망은 세상을 몰랑 큰 할망이라부난 모릅니다.(이 할머니들은 관심 안 가집니다. 첫째 그런 건 내가 명심해집니다. 장항아리 같은 거라도. 이 할머니는 세상을 모르고 큰 할머니라서 모릅니다.)

107062 #2 하하하.(하하하.)

107062 @ 하하하.(하하하.)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장 담글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63 #1 무사게 몸 궂인 사름은 뒈도록이민 접근을 마는 게 낫주.(왜 몸 궂은

사람은 되도록 접근을 마는 게 낫지.)

107063 #2 이, 장 담글 때 아무충도 안 헤여.(이 장 담글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107063 @ 괜찮아마씨?(괜찮습니까?)

107063 #2 이녁이 몸 궂인 때 허질 마는 거주, 무신.(자신이 몸 궂을 때 하질 마는 거지, 무슨.)

107063 #1 그게 정성이기 때문에 뒈도록이민 깨끗허고 깨끗한 사름이 해지면 좋은 거우다게.(그게 정성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107063 @ 음.(음.)

107063 #1 이건 구신도 먹어가는 음식이고 생인도 먹어가는 음식이난 뒈도록이민 깨끗할수록 좋은 거 아니꽈? 장이.(이건 귀신도 먹어가는 음식이고 산 사람도 먹어가는 음식이니까 되도록 깨끗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107063 @ 예.(예.)

107063 #2 겨난 날 봉 숢으곡 날 봉 담곡 게.(그러니까 날 봐서 삶고 날 봐서 담는 거지.)

107063 @ 음.(음.)

107063 #1 날 봉 메주도 숢곡 날 봉 담곡.(날 봐서 메주도 삶고 날 봐서 담그고.)

떡류

107076 @ 지난번에 굿할 때 우리 갖당 먹은 건 뭐마씨?(지난번에 굿할 때 우리 가져다가 먹은 건 뭡니까?)

107076 #2 돌레떡[264].('돌레떡'.)

107076 @ 돌레떡은 쌀로 한 거예?('돌레떡'은 쌀로 한 거요?)

107076 #2 쌀로 한 거. 당에만 가는 거. 돌레떡은.(쌀로 한 거. 당에만 가는 거. '돌레떡'은.)

107076 @ 아, 당에만 가는 거예.(아, 당에만 가는 거예요.)

107076 #1 모믈쏠로도 하곡. 모물ᄀᆞ루.(메밀가루도 하고. 메밀가루.)

107076 @ 아, 모믈도 헙니까?(아, 메밀도 합니까?)

107076 #2 모믈ᄀᆞ루도 허곡게.(메밀가루도 하고게.)

107076 @ 모믈도 허곡, 쏠도 하곡.(메밀도 하고, 쌀도 하고.)

107076 #2 응. 돌레떡. 돌레떡만 헹 가민 뒈는 거.(응. '돌레떡'. '돌레떡'만 해서 가면 되는 거.)

---

264) '돌레떡'은 메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넣고 동글납작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참기름을 발라 먹는 떡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떡을 염할 때 망자의 가슴과 양손에 3개씩 얹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망자가 저승문에 들어갈 때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돌레떡'을 주어 귀찮게 하는 것을 쫓아 버리기 위함이다.

107076 @ 음.(음.)
107076 #1 모를ᄀᆞ루로 하민 (메밀가루로 하면.)
107076 @ 모믈 돌레.(메밀 돌레.)

소와 고물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9 #2 숨메.(소)
107079 @ 아, 안에 놓는 건 숨에. 침떡 위에 놓는 건.(아, 안에 놓는 건 소. 시루떡 위에 놓는 건.)
107079 #2 건 쉬. 곤떡 안에 담는 건 숨메 담는 거고, 침떡에 놓는 거 쉬.(그건 고물. 송편 안에 담는 건 소 담는 거고, 시루떡에 놓는 건 고물.)
107080 @ 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고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107080 #2 콩도 숨메하곡, 풋도 숨메하곡, 녹디도 숨메하곡, 꿰도 숨메하곡.(콩도 소를 하고 팥도 소하고, 녹두도 소하고, 깨도 소하고,)
107080 #1 설탕도 놔.(설탕도 놓지.)
107080 #2 설탕도 숨메하곡 뭐.(설탕도 소하고 뭐.)
107080 #1 헤헤. 숨메옌 허는 게 흔이 없는 거라.(헤헤. 소라고 하는 게 한이 없는 것이야.)
107080 @ 떡 소곱에 담는 것도 숨메. 바깥에 미치는 것도 숨메마씨?(떡 안에 담는 것도 고물, 바깥에 묻히는 것도 고물입니까?)
107080 #2 아니 그건 쉬 미치는 거.(아니. 그런 고물 묻히는 거야.)
107080 @ 아, 그건 쉬?(아. 그건 고물?)
107080 #2 베낏디는 쉬 미치는 거.(바깥에는 고물 묻히는 거야.)
107080 @ 쉬는 또 어떤 거 이수과?(고물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107080 #2 쉬도 마찬가지게. 콩쉬나 풋쉬나, 녹디 쉬나, 뭐. 그거주게.(고물도 마찬가지지. 콩고물이나 팥고물이나, 녹두고물이나, 뭐. 그거지.)
107080 @ 음. 침떡 같은 거 헐 때 우에 허는 것도 쉬마씨?(음. 시루떡 같은 거 할 때 위에 하는 것도 고물입니까?)
107080 #2 거, 쉬이.(그거, 고물.)
107080 @ 쉬이.(고물.)
107080 #2 응.(응.)
107080 @ 송편 안에 놓는 건 숨메고마씨?(송편 안에 놓는 건 소입니까?)
107080 #2 으. 숨메.(응. 소.)
107080 @ 아, 풋이나 녹디는 솖앙 헤마씨?(아, 팥이나 녹두는 삶아서 합니까?)
107080 #2 솖앙. 숨메허젠 허민 옛날인 뻣앙 햇주만은 지금은 떡칩이 가민 그냥 헴주, 무신.(삶아서. 소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빻아서 했지만은 지금은 떡집에 가면 그냥 하지. 무슨.)

107080 @ 헤헤.(헤헤.)

107080 #2 솖앙 뻣앙 소곱에도 놓고 위도 쉬 미치고.(삶아서 속안에도 놓고 위에도 고물 무치고.)

107080 @ 위에 쉬 미치는 것도 뻣앙 헤마씨?(위에 고물 묻히는 것도 빻아서 합니까?)

107080 #2 으. 뻣앙. 온차허민 털어졍 부트질 안 허주게.(응. 빻아서. 온채하면 떨어져서 붙지 안 하지.)

107080 @ 아.(아.)

107080 #1 간혹 큰 거 이서도 상관엇수다.(간혹 큰 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07080 #2 뻣아사 옛날 만디떡에도. 영영 허끄민 옛날 만디떡에도 부트주..(빻아야 옛날 '만디떡'에도.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옛날 '만디떡'에도 붙지.)

107080 @ 음.(음.)

107080 #2 통차 노민 털어져불어. 다 부트질 안 허주게.(통째로 놓으면 떨어져 버려. 다 붙질 안 하지.)

107081 @ 숨메 놓는 떡은 무신 떡들 이수과?(소 놓는 떡은 무슨 떡들이 있습니까?)

107081 #2 무신 떡이라 곤떡[265]에 새미떡[266], 만디떡[267].(무슨 떡이라 송편에 '새미떡', '만디떡'.)

107081 #1 송편, 송편.(송편, 송편.)

107081 #2 곤떡이렌 헷주게 송편도 이제사 난 말이곡.('곤떡'이라고 했지. 송편도 이제야 생겨난 말이고.)

107081 @ 곤떡이 송편이라예? 새미떡, 만디떡. 소곱에 담는 게예? 또마씨?('곤떡'이 송편이지요? '새미떡', '만디떡'. 안에 담는 거요? 또요?)

107081 #2 빙떡[268].(빙떡.)

107081 @ 빙떡도 픗 담앙 합니까?(빙떡도 팥 담아서 합니까?)

107081 #2 으. 픗 담아.(으. 팥 담아서.)

107081 @ 아, 빙떡. 그 다음에 소곱에 뭐 담는 거는.(아, 빙떡. 그 다음에 안에 뭐 담는 거는.)

107081 #1 숨메옌 허주. 숨메.(소라고 하지. 소.)

107081 @ 숨메 담는 거는게?(소 담는 거는요?)

---

265) '곤떡'은 송편을 말한다.

266) '새미떡'은 메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근 사발로 모양을 떠서 가운데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눌러준 다음 삶아 찬물에 헹궈 참기름을 바른 떡이다. 반달 보양의 '새미'(만두의 제주도 방언)와 비슷하여 이름 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추석 명절이나 작은 제사의 세상에 올리는 떡이다.

267) '만디떡'은 메밀가루로 동그랗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268) '빙떡'은 메밀가루 전병에 채 썰어 데쳐낸 무소를 넣고 말아서 만드는 제주도의 향토 떡이다. 미지근한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한 메밀가루 반죽을 둥글납작하게 지진 다음 굵게 채 썰어 푹 삶아 물기를 뺀 무에 쪽파, 참기름, 소금, 깨소금으로 양념하여 만든 소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서 만든다.

107081 #2 소곱에 건 숨메.(안에 그건 소.)

107081 @ 겉에 쉬 미치는 건 무신 떡이꽈?(겉에 고물 묻히는 건 무슨 떡입니까?)

107081 #2 건 만디떡만 쉬 미치주게.(그건 '만디떡'만 고물 묻히는 거지.)

107081 @ 만디떡만마씨?('만디떡'만요?)

107081 #2 으.(응.)

107081 @ 아까 그믄 침떡은?(아까 그럼 시루떡은?)

107081 #2 침떡도 게 건 쉬 놔.(시루떡도 그건 고물 놓지.)

107081 #1 그건 징[269] 놓는 거.(그건 '징' 놓는 거.)

107081 @ 아, 징 놓는 거.(아, '징' 놓는 거.)

107081 #1 곱 갈랑 징 놓는 거.(굽 갈라서 '징' 놓는 거.)

107081 @ 아, 곱 갈랑.(아, 굽 갈라서.)

107081 #1 단계적으로.(단계적으로.)

107081 @ 그건 쉬 아니꽈?(그건 고물 아닙니까?)

107081 #2 것도 쉬주게.(그것도 고물이지.)

107081 #1 그놈의 숨메. 혼 줌 쥐엉 앗당 어멍한티 매를 맞아낫수다.(그놈의 소. 한 줌 쥐어 자져다가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었습니다.)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1 풋 숨메가 어떵사 맛 좋은 디사 그 때 혼 줌을 확 앗앙 들아나불엇다 말이우다.(팥 소가 어떻게나 맛 좋은지 그 때 한 줌을 재빨리 가져서 달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1 아이고 저 놈의 새키. 부지땡이 아졍 오랑은. 아이고. 그 놈의 숨메 혹쏠 아졍 먹엇당은 매 맞아나고. 게난 그 벵을 지지면양.(아이고 저 놈의 새끼. 부지깽이 가져 와서는. 아이고, 그 놈의 소 조금 가져다 먹었다가는 매 맞았었고, 그러니까 빙떡을 지지면요.)

107081 @ 예. 벵? 빙?(예. 벵? 빙?)

107081 #1 벵떡, 빙떡이라고.(빙떡, 빙떡이라고.)

107081 @ 빙떡을 벵이렌 헤마씨?(빙떡을 빙떡이라고 합니까?)

107081 #1 벵떡, 벵떡이렌 헤낫주. 옛날은, 옛날도 무수채를 놉니다. 무수채에 패마농 썰어놩.(빙떡, 빙떡이라고 했었지. 옛날은, 옛날도 무채를 놉니다. 무채에 파 썰어놓고.)

107081 @ 패마농.(파.)

107081 #1 꿰도 놓고 미칩니다. 잘허젠 허믄 경허는데.(깨도 놓고 묻힙니다. 잘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107081 @ 예, 예.(예, 예.)

---

269) '떡징'은 켜를 말하는데 시루에 떡을 찔 때 소를 넣어 뗄 수 있게 한 층을 말한다.

107081 #1 그 놈의 숨메는 먹으면은. 그때는 놈삐도 어려왓수다. 놈삐도.(그 놈의 소는 먹으면. 그때는 무도 어려웠습니다. 무도.)

107081 @ 아.(아.)

107081 #1 꿰도 검은 꿰베끠 안 갈아낫수게.(깨도 검은 깨 밖에 안 갈았었습니다.)

107081 @ 예.(예.)

107081 #1 흰 꿰가 엇어수다.(흰 깨가 없었습니다.)

107081 @ 아, 예.(아, 예.)

107081 #1 아, 야. 꿰가 엇엉 검은꿰만 노앙 허민, 꿰도 흔 빵울 놓곡 헹 허민, 그 숨메는 먹어도 매를 아니 맞아십주.(아, 야. 깨가 없어서 검은 깨만 놓고서 하면, 깨도 한 방울 놓고 하면, 그 소는 먹어도 매를 안 맞았었죠.)

107081 @ 흐흐.(흐흐.)

107081 #1 아, 폿 숨메는 중간이 폿 어려울 때 헹 바싹 먹구젱 헹, 흔 굴레를 먹엇당 부지땡이 아져당 서너 번을 맞이난. 이거 이거 이거, 사름 못 먹을 노릇이구나. 야, 이거 우리가 세상 영 허멍 컷으니.(아, 팥소는 중간에 팥 어려울 때 해서 몹시 먹고 싶어 해서, 한 입을 먹었다가 부지깽이 가져다가 서너 번을 맞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사람 못 먹을 노릇이구나. 야, 이거 우리가 세상 이렇게 하면서 컸으니.)

10708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1 #1 영 헤져낫서. 경허곡 또 그 꿰하곡 패마농하곡 저 무수가 엇인 땐양, 뭘 놓질 안 허주. 그믄 놈삐 숨메가 맛이 엇어.(이렇게 했었지. 그렇고 또 그 깨하고 파하고 저 무가 없을 땐, 뭘 놓지를 않지. 그러면 무 소가 맛이 없어.)

107081 @ 아.(아.)

107081 #1 견데 떡을 많이 분량을 불루우젠 허면은 고량창에 담앙양, 제사상에 올리젠 허면, 이 할망도 많이 해봇주만은 그 무수채를 많이 담아야 떡이 술질 거 아니꽈?(그런데 떡을 많이 분량을 불리려고 하면 '고량창'에 담아서요,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면, 이 할머니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 무채를 많이 담아야 떡이 살찔 거 아닙니까?)

107081 @ 예.(예.)

107081 #1 열 개 담을 거, 열다섯만도 담을 수 있고.(열 개 담을 거, 열다섯만도 담을 수 있고.)

107081 @ 예.(예.)

107081 #1 또 다섯 개 담을 거 열 개 담을 수도 이서. 숨메가 좋으면은.(또 다섯 개 담을 거 열 개 담을 수도 있어. 소가 좋으면.)

107081 @ 예, 예.(예. 예.)

107081 #1 견데 저 김녕 어른들은, 여(할머니를 가리키며) 알거우다만은.(그런데 저 김녕 어른들은 여기(할머니를 가리키며)는 알겁니다만.)

107081 @ 예, 예.(예. 예.)

107081 #1 우리 노인당에서도 골앗주만은, 동네 제사 먹으러 갈 땐, 빵, 떡. 그 낭푼이가 요만히 헌 사발이 있다 말이우다.(우리 노인당에서도 말했지만, 동네 제사 지내러 갈 땐, 빵, 떡. 그 양푼이 이만한 사발이 있다 말입니다.)

107081 @ 예.(예.)

107081 #1 동네 먹으러 갈 때는 다섯 개 담곡.(동네 지내러 갈 때는 다섯 개 담고.)

107081 #2 아까 우리 속 먹은 낭푼 닮은 거.(아까 우리 쑥 먹은 양푼 닮은 거.)

107081 #1 아, 곧건 들어.(아, 말하면 들어.)

107081 @ 예.(예.)

107081 #1 경헹 또 제라하게 부모집에 갈 땐, 동이가 있덴.(그렇게 해서 또 제대로 부모님 집에 갈 땐, 동이가 있다고 해.)

107081 @ 아. 좀 더 큰 디.(아. 좀 더 큰 데.)

107081 #1 예. 동이에 상웨떡[270]을 헹 가곡 헌디. 그 김녕을 식게 먹으레 강 보나 꼭 그 왕대접에 떡다섯 개씩 제사 먹으레 갈 때 대접에 놩 갔더라 헤여.(예. 동이에 상화병[271]을 해서 가고는 하는데. 그 김녕에 제사 지내러 가서 보니까 꼭 그 왕대접에 떡 다섯 개씩 제사 지내러 갈 때 대접에 놔서 갔더라 했어.)

107081 @ 무신 떡마씨?(무슨 떡입니까?)

107081 #1 상웨떡.(상화병)

107081 @ 아, 상웨떡.(아, 상화병.)

107081 #1 야, 야. 보리 ᄀᆞ루로 멘 든 상웨떡.(야, 야. 보리 가루로 만든 상화병.)

107081 @ 예, 예.(예, 예.)

107081 #1 야, 그 메밀ᄀᆞ루하고 해서 흰 빵이 어서수다. 저 신촌에 보리빵 있지 안 허우꽈?(야, 그 메밀가루하고 해서 흰 빵이 없었습니다. 저 신촌에 보리빵 있지 않습니까?)

107081 @ 예, 보리빵.(예. 보리빵.)

107081 #1 그런식으로 거멍케 헤영 멘드랑.(그런 식으로 검게 해서 만들어서.)

107081 @ 예. 예.)

107081 #1 겡 그런 떡을 헹 가민 나도 봐 나긴 헤낫수다. 견디 우리 밑에 놈들이 그 말을 허길래. 으, 그게 풍습이다.(그리고 나서 그런 떡을 해서 가면 나도 봐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놈들이 그 말을 하길래. 응, 그게 풍습이다.)

107081 @ 제사 먹으레 갈 때.(제사 지내러 갈 때.)

107081 #1 우리는 메쏠을 가졍갔다. 게믄 벵떡을 안 해문 작박으로 혼 작박 메

270) '상웨떡'은 밀가루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한다.

271) '상화병'은 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발효시킨 다음 그 안에 팥이나 깨, 고기, 나물을 넣고 둥글게 빚어 찐 음식. <동국세기>에 유두날에 먹는 절식이라 하였으며, 주로 여름에 먹는다. 제주도에서는 상애떡이라 한다.

쏠을 낭푼에 놩 가졍 가수다.(우리는 멥쌀을 가져갔다. 그러면 빙떡을 안 하면 주걱으로 한 주걱 멥쌀을 양푼에 놔서 가져갔습니다.)

107081 @ 아.(아.)

107081 #1 메쏠.(멥쌀.)

107081 @ 산듸쏠마씨?(밭벼입니까?)

107081 #1 으. 산듸쏠. 그렇게 귀헤십주게.(응. 밭벼. 그렇게 귀했습니다.)

107081 @ 예.(예.)

107081 #1 그 부락에 풍습으로 갑니다.(그 마을에 풍습으로 갑니다.)

107081 @ 예.(예.)

107081 #1 경허난 저 사람이 김녕에 이서나난 상웨떡들 지세 좋게 낭푼이여 무신 사발이여 놩 간 거 아이 봐나서?(그러니까 저 사람이 김녕에 있었으니까 상화병을 기세 좋게 양푼하고 무슨 사발하고 놔서 간 거 안 봤었습니까?)

107081 #2 낭푼이에 놩 뎅겻주게.(양푼에 놔서 다녔지요.)

107081 @ 아까 쑥 먹어난 낭푼이 닮은 거에마씨?(아까 쑥 먹었던 양푼 같은 것입니까?)

107081 #2 그보다 족은 거. 그 낭푼이 닮은 거에 상웨떡 읏남은 게 놩.(그보다 작은 거. 그 양푼 같은 것에 상화병 여남은 거 놔서.)

107081 #1 다섯 개옌 허난.(다섯 개라고 하니까.)

107081 @ 제사 먹으레.(제사 지내러.)

107081 #2 식게 먹으러 갈 때. 김녕이 제일 짜주게 짜.(제사 먹으러 갈 때. 김녕이 제일 짜지. 짜.)

107081 @ 풍습이예?(풍습이요?)

107081 #2 김녕이 제일 부자니까 풍습이 겅헤여.(김녕이 제일 부자니까 풍습이 그래요.)

107081 @ 아. 밥 헐 때 콩이나 풋 노는 것도 숨메옌 헙니까?(아. 밥 할 때 콩이나 팥 놓는 것도 소라고 합니까?)

107081 #1 밥 숨메게.(밥 소지.)

107081 #2 것도 숨메옌 골아.(그것도 소라고 말해.)

107081 @ 밥 숨메마씨?(밥 소요?)

107081 #1 으. 밥 숨메.(으. 밥 소.)

107081 #2 숨메 놩 했젠 곧주.(소 놔서 했다고 말하지.)

107081 @ 숨메 놩 밥 했덴 골아?(소 놔서 밥 했다고 말해?)

107081 #2 으.(으.)

107081 @ 숨메마씨?(소요?)

107081 #2 숨메, 숨메. 밥 헤영 풋을 노나, 콩을 노나.(소, 소. 밥 해서 팥을 놓으나, 콩을 놓으나.)

107081 @ 아.(아.)

107081 #2 아이고 콩난 밥했구나게. 영 골으멍.(아이고 콩 놓고 밥 했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107081 #1 그 전이는양, 콩 ᄀᆞ튼 거, 숨메밥을 하영 안 헷수다.(그 전에는, 콩 같은 거 소밥을 많이 했습니다.)

107081 @ 음.(음.)

107081 #1 야. 콩 ᄀᆞ튼 거 전혀 아이 가졍 다니곡. 시방은 약콩이여 푸린 콩이여 두불콩이여 놉니께. 콩밥은 교도소.(야. 콩 같은 거 전혀 안 가져 다니고. 시방은 약콩이다 청대콩[272]이다 두불콩[273]이다 놓습니다. 콩밥은 교도소.)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1 지녁 간 놈 옛날은 진역 간 놈.(징역 간 놈 옛날은 징역 간 놈.)

107081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1 #1 진역 간 놈만 콩밥을 먹는다. 경허는 말 때문에양 밥에 숨메를 아니 놔낫수다.(징역 간 놈만 콩밥을 먹는다. 그렇다는 말 때문에. 밥에 소를 안 놨습니다.)

107081 @ 아. 콩으로는예?(아. 콩으로는요?)

107081 #1 야, 일절. 견디 요즘은 그게.(야, 일절. 그런데 요즘은 그게.)

107081 @ 건강에 좋덴 헙니께.(건강에 좋다고 한답디다.)

107081 #1 건강에 좋덴허난 콩밥, 벨 밥 다 나왐서.(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콩밥, 별 밥 다 나와.)

107081 @ 예.(예.)

107081 #1 대추여, 무신 밤도 막 깡 썰엉 오곡밥이여 막 끓여 놓는 거 보민, 원. 게난 우리도 텔레비에 나오난 보름이여 개데멩이여 했주. 옛날에 오곡밥, 아이구.(대추하고 무슨 밤도 마구 까서 썰어서 오곡밥하고 마구 끓여 놓는 거 보면, 원. 그러니까 우리도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보름이다 개대라기다 했지. 옛날에 오곡밥, 아이구.)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1 어디 제주도사. 쯧.(어디 제주도야. 쯧.)

107078 @ 만디[274]도 해난마씨, 옛날에?('만디'도 했습니까? 옛날에?)

107078 #2 만디도 해난. 옛날 해낫주게.('만디'도 했지. 옛날 했었지.)

107078 #1 만디가 있고, 새미[275]가 있고.('만디'가 있고, '새미'가 있고.)

---

272) '청대콩'은 콩의 한 종류로 푸르대콩 또는 청태, 풋콩이라고도 한다. 열매의 껍질과 속살이 다 푸른 색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겉은 검은색이지만 속은 푸른색인 것은 속청태라고 부른다. 다 익어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어, 여문 상태를 겉으로 보아서는 잘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청태콩이 여물어야 여물었나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필수아미노산인 리신이 풍부하여 조림이나 장조림에 많이 이용되고, 메주나 두부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

273) '두불콩'은 한 해에 두 번 심어 거두는 콩이다.

274) '만디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어 반달처럼 집어서 삶거나 찐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275) '새미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갸름한 반달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 떡이

107078 @ 어떵 다릅니까?(어떻게 다릅니까?)

107078 #1 물떡[276]이 있고.('물떡'이 있고.)

107078 #2 만디옌 헌건 풋 쉬 미쳐 허는 게.('만디'라고 하는 건 팥고물 묻혀서 하는 게.)

107078 @ 바깥디마씨?(바깥에요?)

107078 #2 그게 만디.(그게 '만디'.)

107078 @ 음.(음.)

107078 #1 우리 오메기떡[277] 멘들 듯.(우리 '오메기떡' 만들 듯.)

107078 @ 예, 예. 무치는 거.(예, 예. 묻히는 거.)

107078 #2 무치는 게 만디. 물떡은 (묻히는 게 '만디'. '물떡'은.)

107078 @ 새미떡은마씨?('새미떡'은요?)

107078 #2 새미떡은 아무것도 아니 미친게 새미떡.('새미떡'은 아무것도 안 묻힌 게 '새미떡'.)

107078 @ 안에 숨메 놔마씨?(안에 소를 놓습니까?)

107078 #1 숨메 놔.(소를 놓아요.)

107078 #2 숨메 ᄒᆞ쏠 나도 좋곡. 안 나도 뒈곡.(소를 조금 놔도 좋고 안 놔도 되고.)

107078 @ 풋예?(팥요?)

107078 #1 풋이라게 녹디 숨메주.(팥이요? 녹두 소지.)

107078 #2 풋이라도 홈방울.(팥이라도 한방울,)

107078 #1 그거 아니 담으민 거짓말헌데 허메.(그것 안 담그면 거짓말한다고 해.)

107078 @ 하하하.(하하하.)

107078 #1 조상 위해 올리는 건데, 제사 때.(조상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 제사 때.)

107078 #2 놓는 첵만 허는 거.(놓는 척만 하는 거야.)

107078 #1 거짓말 허는 ᄌᆞ순 나온덴 헤영 꼭 서너방물이라도 놔야 뒈어.(거짓말 하는 자손 나온다고 해서 꼭 서너방울이라도 놔야 돼.)

107078 @ 새미떡에는마씨?('새미떡'에는요?)

107078 #1 새미떡에는. 만디떡에는 쉬 미치는 거.('새미떡'에는 '만디떡'에는 고물 묻히는 거야.)

107078 @ 만디떡에는 숨메 안 놔마씨?('만디떡'에는 소에 안 놓습니까?)

107078 #1 무수.(무.)

107078 #2 무수 놔.(무를 놔.)

다.

276)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이다.

277) '오메기떡'은 제주에서 차좁쌀을 익반죽해서 둥글게 만든 것이다. 고물을 묻혀 떡으로 먹기도 하고, 고물을 묻히지 않고 술을 빚기도 한다.

107078 #1 요새 벵떡 모냥으로 무수 놔.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아.(요새 빙떡 모양으로 무 놔.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아.)

107078 #2 그런 떡을 헹 먹어지믄 좋주만은.(그런 떡을 해서 먹으면 좋지만.)

107078 @ 만디는 속에 무수 숨메 담앙, 겉에는 픗 쉬 미쳐.('만디'는 속에 무 소 담아서 겉에는 팥 고물 묻혀.)

107078 #2 픗 쉬 미쳐.(팥 고물 묻혀.)

107078 @ 아.(아.)

107078 #1 물떡을 숫자 불루기 위해서 양훼썹 담앙. 그 종류가 세 가지우다.('물떡'을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양하 잎 담았어. 그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107078 @ 만디, 새미, 물떡.('만디', '새미', '물떡'.)

107078 #1 아니, 새미, 만디, 물떡.(아니, '새미', '만디', '물떡'.)

107078 #2 나 순[278] 할 때 만디떡 해당.(나 순할 때 '만디떡' 해다가.)

107078 @ 순이 뭐꽈?(순이 뭡니까?)

107078 #2 영장 나민 방상[279] 해당 멕이는 거.(영장나면 방상에게 해서 먹이는 거.)

107078 @ 그걸 순 멕인덴 허는 구나예.(그걸 순 먹인다고 하는 군요.)

107078 #2 어어. 요즘은 뭔 라멘이나 나난 헴주.(어어. 요즘은 무슨 라면이나 하지.)

107078 @ 음.(음.)

107078 #2 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엇이난 방상에 영장이 나나 무신거 허면 물떡, 만디떡 해당 멕이는 거.(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방상에 영장이 나니까 무엇하면 '물떡', '만디떡'을 해다가 먹이는 거.)

107078 @ 음.(음.)

107078 #2 혼 사름에 두 개를 주나 세 개를 주나.(한 사람에 두 개를 주나 세 개를 주나.)

107078 @ 물떡도 하고 만디떡도 하고마씨?('물떡'도 하고 '만디떡'도 하고요?)

107078 #1 아니. 만디떡은 안 헤여.(아니. '만디떡'은 안해요.)

107078 #2 물떡, 물떡. 만디떡은 제삿날이라도 먹젠 헤여.('물떡', '물떡'. '만디떡'은 제삿날이라도 먹으려고 해요.)

107078 @ 아, 물떡만 영장밧디서.(아, '물떡'만 영장밭에서.)

107078 #1 만디는 그런 때 안 허고. 만디는 제사때.('만디'는 그런 때 안 하고. '만디'는 제사 때.)

107078 #2 만디는 제사먹기 위해서 허는 거.('만디'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

107078 @ 제사 때.(제사 때.)

---

278) '순'은 영장이 나면 떡을 해다가 친척들에게 나눠 먹이는 것을 말한다. '순 먹인다'라고 한다.
279) '방상'은 일가붙이의 집안이다.

107078 #1 쉬 미친 만디떡이옌 허메.(고물 묻힌 '만디떡'이라고 하지.)

107078 @ 아, 미치다고. 모양은 다 반으로 접은 거마씨?(아, 묻힌다고. 모양은 다 반으로 접은 거요?)

107078 #2 응. 모양은 다 영 접어진 거.(응. 모양은 다 이렇게 접어진 거.)

107078 #1 모양은 똑ᄀᆞ튼 거라. 새미나 만디나 물떡이나.(모양은 똑같은 거야. '새미'나 '만'디나 '물떡'이나.)

107078 #2 똑같아.(똑같아.)

107078 @ 아.(아.)

별식

107082 @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2 #2 순대도 만들주게.(순대도 만들지.)

107082 @ 순대는 어떵 만들어난마씨?(순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82 #2 순대를 어떵 만들아. 모물ᄀᆞ루헤영. 큰 다라에나 도구리에나 카근에.(순대를 어떻게 만들어. 메밀가루해서. 큰 대야에 함지박에나 타서.)

107082 @ 모물ᄀᆞ루에.(메밀가루에.)

107082 #2 두박하게 카근에. 물 놓고 ᄀᆞ루 놔근에.(걸죽하게 타서, 물 놓고 가루 놓고서.)

107082 @ 그 다음은마씨?(그 다음은요?)

107082 #2 도새기 베설에 그걸 다 담앙.(돼지 창자에 그걸 다 담아서.)

107082 @ 다른 건 안 놉니까?(다른 건 안 놉니까?)

107082 #2 도새기 피도 섞엉. 베설에 담앙.(돼지 피도 섞어서. 창자에 담아서.)

107082 #1 아, 수에?(아, 순대?)

107082 @ 예, 수에.(예, 순대.)

107082 #1 하하하하. 그거.(하하하하. 그거.)

107082 #2 경헹 베설에 담앙 베설 솖으민 수에주게.(그렇게 창자에 담아서 창자 삶으면 순대지.)

107082 @ 언제 헙니까?(언제 합니까?)

107082 #2 거, 아무 때라도 뭐.(거, 아무 때라도 뭐.)

107082 @ 먹구정 허믄?(먹고 싶어 하면?)

107082 #2 다 어디강 베설 사 오지 안 헤여.(다 어디 가서 창자 사 오지 않아요.)

107082 @ 옛날은마씨?(옛날은요?)

107082 #2 옛날에는 어디 저 큰일 칩이나.(옛날에는 어디 저 큰일 집이나.)

107082 @ 큰일칩이나 베끼.(큰일집이나 밖에.)

107082 #2 게. 수에 담으멍 해서, 옛날은. 솖앙 두어 점 썰엉 먹엇주.(그럼. 순대 담으면서 했어. 옛날은. 삶아서 두어 점 썰어서 먹었지.)

107082 #1 먹기는 헷주. 근디.(먹기는 했지. 그런데)

107082 #2 궤기 서넉 점 먹고 수에 베설 흔 점 놓곡 했주.(고기 서너 점 먹고 순대 창자 한 점 놓고 했지.)

107082 #1 시방ᄀᆞ치 수에 담는 디 양념을 아이 놉니께게.(시방같이 순대 담는데 양념을 안 놓습니다.)

107082 @ 아.(아.)

107082 #1 피. 경 안 헤영 고기로 먹는 것은 열두 뻬, 전각, 후각, 갈리, 수에. 열두 뻬배 고기를 다 담아놩. 시방은 믹사나 있지만은 난도질 헙니다. 막 ᄆᆞ사. 즘질게. 고기 끈어 놓은 걸.(피. 그렇게 안해서 고기로 먹는 것은 열두 뼈, 앞다리, 뒷다리. 갈비. 순대. 열두 뻬 고기를 다 담아놓고. 시방은 믹서나 있지만 난도질 합니다. 마구 깨. 작게. 고기 끊어 놓은 걸.)

107082 @ 아, 예. 예.(아, 예.예.)

107082 #1 믄 믓앙 수에에 피에양 내장도 믄 끈어 놓고 경헹 믄딱 끈어놩 그걸 수에 담읍주.(모두 마서 순대에 피에. 내장도 모두 끊어 놓고 그렇게 해서 모두 끊어놓고 순대 담지.)

107082 #2 아이고, 그거 부제칩이나 경 헷주.(아이고, 그거 부잣집이나 그렇게 했지.)

107082 #1 경 헹 수에를 담으면은 그게 보약도 된단 거주. 옛날은 고기 흔 마리치 고기를 다 먹는 거니까.(그렇게 해서 순대를 담으면 그게 보약도 된다는 거지. 옛날은 고기 한 마리어치 고기를 다 먹는 거니까.)

107082 #2 고기 반에 베설 흔 점썩 썰엉 줘낫주.(고기 반에 순대 한 점씩 썰어 나서 줬었지.)

107082 #1 경헹근에 수에를 담으면 맛은 좋은데. 누게 말맞잖아구라, 그건 보신탕 하기 위해서 허는 거고.(그렇게 해서 순대를 담으면 맛은 좋은데. 누구 말같이, 그건 보신탕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107082 @ 예, 예.(예. 예.)

107082 #1 요 중간에는 수에 담을 저르가 엇엇수다. 잔치라는 게. 대소상 때도 바쁘면은 그자 베설 솖앙양.(여기 중간에는 순대 담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잔치라는 것이. 대소상 때도 바쁘면 그저 창자 삶아서요.)

107082 @ 음.(음.)

107082 #1 썰엉 대창 ᄀᆞ튼 거 기자 썰엉 흔두 점 씩 놓고 괴기 흔두 점씩 놓앙.(썰어서 대창 같은 거 그저 썰어서 한두 점씩 놓고 고기 한두 점씩 놓고서.)

107082 #2 경허고 준 베설은 회헹 먹어불구게.(그렇게 하고 작은 창자는 회해서 먹어버리고요.)

107082 @ 훼도 헹 먹언마씨?(회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82 #2 막 모다 아졍 훼헹 먹어불어.(마구 모여 앉아서 회로 먹어버려.)

107082 @ 육고기 훼는 어떵 거 헹 먹어낫수과?(육고기 회는 어떤 거 해서 먹었

었습니까?)

107082 #2 새끼회도 하고 즌 베설하곡. 큰 베설은 솖앙 먹곡.(새끼회도 하고 작은 창자하고. 큰 창자는 삶아서 먹고.)

107082 @ 솖앙 먹곡.(삶아서 먹고.)

107082 #1 아니 그난, 으 호르기 초밥을 상 왓는데 아흐들이.(아니 그러니까, 요전 날에 초밥을 사서 왔는데 아이들이.)

107082 @ 예.(예.)

107082 #1 보난 갈치도양, 초밥 우에 덮으곡양, 벨랑 이름 모를 새우도 덮으고양, 베라벨 놈우 방어여 무시 거여 우린 모르큽디다. 벌경헌 거예, 노랑한 거예.(보니깐 갈치도 초밥 위에 덮고요, 별 이름 모를 새우도 덮고요, 별의별 놈의 방어다 무엇이다 우린 모르겠습디다. 벌건 거요. 노란 거요.)

107082 @ 예.(예.)

107082 #1 갈치를 먹어보니, 갈치도양, 초밥에 적셩 먹어보니 맛이 나긴 해. 허허 이거 세상은 벨로무 세상이구나.(갈치를 먹어보니, 갈치도요, 초밥에 적셔서 먹어보니 맛이 있긴 해. 허허 이거 세상은 별놈의 세상이구나.)

107082 @ 하하하.(하하하.)

107082 #1 왜 옛날은 깃사 골앗주만은 영 거, 돗베설 회라는 것도양, 어느 의학 박사가 골아서 이걸 먹기 시작했는지 옛날은 경도 아니 먹엇수다.(왜 옛날은 금방 말했지만 이런 거 돼지 창자 회라는 것도, 어느 의학 박사가 말해서 이걸 먹기 시작했는지 옛날은 그렇게도 안 먹었습니다.)

107082 @ 음.(음.)

107082 #1 회 아니 먹어봔. 무주건 솖앗어, 솖안.(회 안 먹어봤어. 무조건 삶앗어. 삶아.)

107082 @ 예.(예.)

107082 #1 야, 솖앙 썰엉 정반에 노멍 먹어십주.(야, 삶아서 썰어서 쟁반에 놓으면서 먹었었지.)

107082 #2 겨당 충들이 난 거주.(그러다가 충들이 생긴 거지.)

107082 @ 아.(아.)

107082 #1 게서 이 회라는 것도 (그래서 이 회라는 것도)

107082 #2 우리 키울 때 옛날은 일절 회 아니 먹어서.(우리 키울 때 옛날은 일절 회 안 먹었어.)

107082 @ 새끼회도마씨?(새끼회도요?)

107082 #1 새끼회 좋주게. 솖으나 회라 해도. 요건 보약으로 그때부터도 헤십주.(새끼 회 좋은 거지. 삶거나 회라고 해도. 이건 보약으로 그때부터도 했었지.)

107082 @ 어떵 만듭니까?(어떻게 만듭니까?)

107082 #2 새끼회?(새끼회?)

107082 @ 예.(예.)

107082 #1 믹사로 글으나양.(믹서로 갈거나요.)

107082 #2 옛날은 새끼회도 돔베에서 줌질게 썰어나지 안헷어?(옛날은 새끼회도 도마에서 자잘하게 썰었었지 않았어?)

107082 @ 아.(아.)

107082 #1 썰어낫주게. 믹사 엇인 땐.(썰었었지. 믹서 없을 땐.)

107082 #2 옛날 믹사가 어디싯과게.(옛날 믹서가 어디 있었습니까?)

107082 #1 돔베로 다 찌언.(도마로 다 찧었어.)

107082 #2 돔베로 다 썰어나서. 막 난두질 헤영.(도마로 다 썰었었지. 마구 난도질해서.)

107082 @ 경허고마씨?(그렇게 하고요?)

107082 #2 경헹 무신거.(그렇게 무엇.)

107082 #1 시방 ᄀᆞ튼 양념을 해봅서 참말로 진미가 나올 거우다. 근디 옛날은 무시 거 이수과? 소곰 놓고 간장 놓고. 무신 고치장이 이서수과? 마농이나 신 집인 마농 놓고.(시방 같은 양념을 해보십시오. 참말로 진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옛날은 무엇 있습니까? 소금 놓고 간장 놓고. 무슨 고추장이 있었습니까? 마늘이나 있는 집은 마늘 놓고.)

107082 #2 무신 식초 서나신가? 흐흐.(무슨 식초 있었습니까?)

107082 #1 이젠 식초나 흔하난. 옛날은 식초 담앙 먹어수게. 담앙.(이젠 식초나 흔하니까. 옛날은 식초 담가서 먹었잖습니까. 담가서.)

107082 @ 예.(예.)

107082 #1 밥 쉰 거 쉰다리[280] 헹은에 식초를 멘들아.(밥 쉰 거 쉰다리 해서 식초를 만들어.)

107082 @ 아, 예.(아, 예.)

107082 #1 육지서 보난 감으로 헹 식초를 멘들아.(육지서 보니까 감으로 해서 식초를 만들어.)

107082 #2 그 옛날이는 새끼회 보통으로 아니 해연. 막 부제칩이나 어떵헹 큰일로 했주. 그런 거 보통으로 허질 안 헤여.(그 옛날에는 새끼회 보통으로 안 했어. 막 부잣집이나 어떻게 해서 큰일로 했지. 그런 거 보통으로 하지를 않아.)

107082 #1 그거 소 한 마리 잡음이나, 우리 ᄀᆞ튼 놈은 맛도 못 봐수다. 크난 맛봐봣주.(그거 소 한 마리 잡음이나, 우리 같은 놈은 맛도 못 봤습니다. 크니까 맛봤지.)

107082 #2 이 중간이부터 새끼회여 베설회여 했주. 것도 옛날이는.(이 중간에서부터 새끼회하고 창자회하고 했지. 그것도 옛날에는.)

107082 #1 그기 요즘 시방 놓는 양념, 야, 양념만 노민 뭐, 으뜸이주게. 옛날 어디 양념. 아이고. 겨 안해도 똥창 ᄀᆞ듭지 못헤영 허는디.(거기 요즘 시방 놓는 양념, 야, 양념만 놓으면 뭐, 으뜸인거지. 옛날 어디 양념이. 아이고 그거 안해도 창자 가

280)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는다.

득하게 못해서 하는데.)

107082 #2 호흐흐.(흐흐흐)

107082 #1 양념이 싯고 엇고.(양념이 있고 없고.)

107082 #2 드르에 난 멜순이나 걷어당 뒌장에다 먹곡.(들에 난 밀나물 걷어다가 된장에 먹고.)

107082 @ 멜순?(밀나물?)

107082 #2 으. 멜순. 집에 오민 양훼나 콩잎이나 튿어당 뒌장에 먹곡들 했주. 무신. 옛날 어디 경 기자. 무신 출레는 이서서? 뒌장이 출레주.(응. 밀나물. 집에 오면 양하나 콩잎이나 뜯어다가 된장에 먹고들 했지. 무슨. 옛날 어디 그렇게 그저. 무슨 반찬은 있었어?)

107083 @ 두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두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3 #2 두부가 뭐라?(두부가 뭐라?)

107083 @ 둠비마씨.(두부입니다.)

107083 #2 안 만들언.(안 만들었어.)

107083 @ 큰일칩[281]이선마씨?(큰일집에서는요?)

107083 #2 큰일칩이도 보통으로 둠비 아니 헤낫어.(큰일집에도 보통으로 두부 안 했었지.)

107083 @ 아.(아.)

107083 #1 거 ᄀᆞ레에 ᄀᆞᆯ앙 둠비를 헤여게.(그 맷돌에 갈아서 두부를 하지.)

107083 #2 옛날도 둠비를 허젠 허민 콩을 ᄀᆞ레에 ᄀᆞᆯ아사 할거난 게.(옛날도 두부를 하려고 하면 콩을 맷돌에 갈아서 할 거니까.)

107083 @ 예 예.(예. 예.)

107083 #2 보통은 둠비 안 해봔.(보통은 두부 안 해봤어.)

107083 #1 아니 몇 번 기계에당 ᄀᆞᆯ아당 멘들아 봣주만은.(아니 몇 번 기계에다가 갈아다가 만들어 봤지만.)

107083 @ 아. ᄀᆞᆯ앙 어떵헙니까?(아.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107083 #1 할망이 멧번 잘 만들어 나성게.(할머니가 몇 번 잘 만들었었지.)

107083 @ 집이서 만들언마씨?(집에서 만들었습니까?)

107083 #1 콩ᄀᆞ루 ᄀᆞᆯ아당 큰 무쇠 솟디 놩 그걸 막 쑤엉.(콩가루 갈아다가 큰 무쇠 솥에 놔서 그걸 마구 쑤어서.)

107083 @ 예.(예.)

107083 #2 콩ᄀᆞ루 익게 스리 쑤어근에 무신 얇은 사나 무신 시나지 ᄀᆞ튼 거이 얄룬 거.(콩가루 익게 시리 쑤어서 무슨 얇은 천이나 무슨 '시나지' 같은 거요. 얇은 거.)

107083 @ 예.(예.)

---

281) '큰일칩'은 경조사 등 큰 예식을 치르는 일을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을 이르는 말이다.

107083 #2 그런 거 무신 큰 차롱[282]에 끌앙.(그런 거 무슨 큰 채롱에 깔아서.)

107083 @ 예.(예.)

107083 #2 끌아근에게 솟디 거 풀어 놩 .(깔아서 솥에 것 풀어 놓고.)

107083 @ 예.(예.)

107083 #2 퍼 놩 이제 옛날은 무슨 암반. 암반이 지둘룅 우이 ᄀᆞ레착 지둘룅(퍼 놔서 이제 옛날은 무슨 안반. 안반에 눌러 위에 맷돌짝 눌러놓고.)

107083 @ 하하, 예.(하하, 예.)

107083 #2 우이 ᄀᆞᆯ레착 지둘롯주.(위에 맷돌짝 눌러놨지.)

107083 @ 쑬 때 뭐 놓지 안 헙니까?(쑬 때 뭐 놓지 안합니까?)

107083 #2 무신거 놔?(뭐 놔?)

107083 #1 에이 ᄀᆞ수 노는 말도 아이 ᄀᆞᆯ암서, 할망.(에이 간수 놓는 말도 안 말하네, 할머니.)

107083 #2 소곰이나 놓주 무신.(소금이나 놓지 무슨.)

107083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3 #1 큰 일, 큰 일이여, 저.(큰 일, 큰 일이야, 저.)

107083 #2 무신거 노는 거 셔.(무엇 놓는 거 있어?)

107083 #1 물, 소곰물 노멍 헹게게.(물, 소금물 놓으면서 하던데.)

107083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3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3 #1 참.(참.)

107083 #2 그건 ᄀᆞ이주게. ᄀᆞ.(그건 간이지. 간.)

107083 @ ᄀᆞ.(간.)

107083 #1 우리 할망 큰일 낫져. 완전히 머리가 어떵. 원 이녁 해난 것도 다 잊어불엉 안 뒈크냐 원.(우리 할머니 큰일 났네.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원 자기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서 안 되겠네 원.)

107083 #2 하하하.(하하하.)

107083 #1 난 그거 보앗거든.(난 그거 보았거든.)

107083 @ 콩물을 떵 ᄀᆞ레착으로 눌러.(콩물을 떠서 맷돌짝으로 눌러.)

107083 #2 암반 엎엉 지둘룅 ᄀᆞ레착 암반 우이 들러당 놩.(반반 엎어서 눌러놓고 맷돌짝 반반 위에 들어다가 놓고.)

107083 @ 경해낭 얼마나 있당마씨.(그렇게 해 놓고 얼마나 있다가 입니까?)

107083 #2 경해낭 물이 쫙 빠져사.(그렇게 해 놓고 물이 쫙 빠져야.)

107083 #1 ᄀᆞ레착 무거우나. 무거운 거 우이 지둘롸사.(맷돌짝 무거우니. 무거운 거 위에 눌러놔야.)

107083 #2 물이 짝 빠지믄 칼로 강 끈엉.(물이 짤 빠지면 칼로 가서 끊어서.)

---

282) '차롱'은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의 오리를 걸어서 함 모양으로 만든 채그릇이다. 안팎에 종이를 바르기도 한다. 제주의 차롱은 대부분 대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107083 #1 막 모여, 모여.(마구 찰져, 찰져.)

107083 #2 게난 그런 둠비는 막 부제칩이나 옛날 그런 둠비 헤여 놩.(그러니까 그런 두부는 마구 부잣집이나 옛날 그런 두부 해 놔.)

107083 #1 막 모영 맛있어. 그 식은 막 베지근헤여.(아주 찰지고 맛있어. 그 식은 막 구미당기지.)

107083 @ 예.(예.)

107083 #1 할망이 멧 번 해낫주, 뭐.(할머니가 몇 번 했었지, 뭐.)

107083 #2 몰라. 난 흔 두어번쯤 헤져나신가.(몰라. 난 한 두어 번쯤 했었나.)

107083 @ 옛날에는 바당에 강 물 떠낭 헤수과?(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물 떠서 했습니까?)

107083 #2 둠비허젠 허문 바당물, 쯘물.(두부하려고 하면 바닷물, 짠물.)

10708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83 #2 질어와당 허는 사름은 질어당 헴젠 헨게, (길어 와서 하는 사람은 길어다가 했다고 하더라고.)

107083 @ 기지예?(그렇지요?)

107083 #2 옛날은 소곰도 어려우난 아멩이도 그 쯘물을 가져당 헤나신디.(옛날은 소금도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 짠물을 가져다가 했었는데.)

107083 @ 음.(음.)

107089 @ 쉰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쉰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9 #2 밥 쉬믄 물놩 누룩 덩어리 들이쳥 나두민 부게기 괴민, 그걸 솖으민 그게 쉰다리주게.(밥 쉬면 물 놓고 누룩 덩어리 넣고 나두면 보각하게 궤면 그걸 삶으면 그게 쉰다리지.)

107089 #1 맛은 좋아.(맛은 좋아.)

107089 @ 솖아사마씨?(삶아야 해요?)

107089 #2 솖아사주게.(삶아야지.)

107089 #1 괴와야 돼, 거 막.(끓어야 돼, 그거 마구.)

107089 #2 솖아사.(삶아야.)

107089 #1 바글바글.(바글바글.)

107089 @ 아, 솖아야.(아, 삶아야.)

107089 #2 식엉 먹으민 쉰다리.(식어서 먹으면 쉰다리.)

107089 #1 견디 그거 설사 남직 해도 참 맛이 잇곡, 새콤 ᄃᆞ콤허게 맛이 이슨 게 막 조습니다.(그런데 그거 설사 날 것 같아도 참 맛이 있고. 새콤달콤하게 맛이 있는 게 마구 좋습니다.)

107089 #2 밥 쉰거나 시그름헤여 밥 덱겨불지 안첸.(밥 쉰거나 시큼해서 밥 던져 버리지 않으려고.)

107089 #1 거 골감지[283]난 마찬가지주. 골감지.(그거 골감주나 마찬가지지. 골

감지.)

107089 @ 골감지는 어떤 거꽈?(골감주는 어떤 겁니까?)

107089 #2 흐린 좁쏠 헤영게 된죽 ᄀᆞ추룩 풀풀 하게 죽 쑤엉게.(차조 해서 된죽 같이 풀풀하게 죽 쑤어서.)

107089 @ 흐린 조로.(차조로.)

107089 #2 이젠 무신 그릇에 퍼 놩. 이젠 물 노왕. 그것도 막 뒈분 때 골을 노민 골이 익어 안 뒈불여. 게난 손 영영 해보멍.(이젠 무슨 그릇에 퍼 놓고. 이젠 물 놓고 그것도 마구 될 때 엿기름을 놓으면 엿기름이 익어서 안 돼. 그러니까 손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107089 @ 식었을 때마씨?(식었을 때요?)

107089#2 응. 손 영 헤보멍 식은 때예 골 헤영 허꺼근 영 나중에 부각하게 괴주.(응. 손 이렇게 해보면서 식은 때에 엿기름 해서 섞어서 이렇게 나중에 보각하게 궤지.)

107089 @ 예.(예.)

107089 #2 겐디 이젠 미시 거로 걸렁. 체로.(그런데 이젠 무엇으로 걸러서. 체로.)

107089 @ 예.(예.)

107089 #2 걸러근에 솖으민 감쥐.(걸러서 삶으면 감주.)

107089 @ 솖으민.(삶으면.)

107089 #2 으으.(으으.)

107090 @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0 @ 골은 보릿골 하는 거꽈?(엿기름은 보리 엿기름으로 하는 겁니까?)

107090 #2 으. 주넹이 보기 골. 옛날은 주넹이 보리 골.(지네 보리 엿기름. 옛날은 지네 보리 엿기름.)

107090 @ 주넹이 보리골.(지네 보리 엿기름.)

107090 #1 골은 그거 술 내오는 거.(엿기름은 그거 술 내오는 거.)

107090 @ 골은 어떵 허는 거꽈?(엿기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90 #2 보리 물 컸당, 물 울민. 건정 장탱이에나 나두민 뿔이 뿌죽뿌죽 나주게 수염발도 박섹이 나곡.(보리 물 담갔다가 물이 우러나면. 건져서 장태에나 나두면 뿔이 뾰족뾰족 나지. 수염발도 빽빽이 나고.)

107090 #1 콩나물 키우듯.(콩나물 키우듯.)

107090 @ 예예.(예.예.)

107090 #1 밀골이나 보리골.(밀엿기름이나 보리엿기름이지.)

107090 #2 베겟디 널어 ᄆᆞᆯ리와.(바깥에 널어서 말려요.)

107090 @ 아, ᄆᆞᆯ리와.(아, 말려요.)

283) '골감지'는 좁쌀로 빚은 감주를 말한다.

107090 #1 밀콜이나 보리골이나 ᄆᆞᆯ리왕 그걸 ᄀᆞ레에 ᄀᆞᆯ아사.(밀엿기름이나 보리엿기름이나 말려서 그걸 맷돌에 갈아야.)

107090 @ ᄆᆞᆯ리왕 ᄀᆞ레에 ᄀᆞᆯ민 그게 보리골.(말려서 맷돌에 갈면 그게 보리엿기름.)

107090 #2 그게 보리골.(그게 보리엿기름.)

107090 #1 골, 골. 골ᄀᆞ루.(엿기름. 엿기름. 엿기름 가루.)

107090 #2 응. 골ᄀᆞ루.(응. 엿기름 가루.)

107090 @ 아, 골ᄀᆞ루마씨?(아, 엿기름 가루요?)

107090 #2 야, 보기ᄀᆞ루가 아니고 보리골ᄀᆞ루, 밀골ᄀᆞ루.(야, 보릿가루가 아니고 보리엿기름 가루, 밀엿기름 가루.)

107090 @ 아. 밀도 골 만드는구나예?(아. 밀도 엿기름 만드는군요?)

107090 #2 으. 밀도 골 만드주게.(으. 밀도 엿기름 만드는 거지.)

107090 #1 골. 그게. 중요한 거우다. 골감지, 시방.(엿기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골감주, 시방.)

107090 #2 이젠 골감지 허는 디도 어서.(이젠 골감주 하는 데도 없어.)

107090 #1 민속촌에 헴실거라. 성읍리.(민속촌에 할 겁니다. 성읍리.)

107090 #2 이제는 식훼만 허주. 우리 며느리들도 식훼만 헤여.(이제는 식혜만 해요. 우리 며느리들도 식혜만 해요.)

107090 @ 음, 식혜.(음, 식혜.)

107090 #2 골감주 허미 쉬운 거 아니난.(골감주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107090 #1 게난 골감주옌 헌건 (그러니까 골감주라고 하는 건.)

107090 #2 흐린 좁쏠헤사 허고. 지금은 뭐 춥쏠로 허민 뒈주만은.(차조로 해야 하고, 지금은 뭐 찹쌀로 하면 되지만.)

107090 @ 아.(아.)

107092 @ 감주는 해납디가?(감주는 했었습니까?)

107092 #2 감주는 해낫주게.(감주는 했었지요.)

107092 @ 감주는 어떵 허는 거꽈?(감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92 #2 흐린 좁쌀헤영 밥 헤영 물놩 젓엉. 골.(차조하고 밥해서 물 놓고 저어서. 엿기름.)

107092 @ 골? 보리골예?(엿기름? 보리엿기름요?)

107092 #2 으. 보리골 놩 젓엉 나두민 그게 보겍이 괴어.(응. 보리엿기름 놓고 저어서 나두면 그게 보각하게 궤여.)

107092 @ 예.(예.)

107092 #2 보겍이 괴민 그걸 체로 걸러.(보각하게 궤면 그걸 체로 걸러.)

107092 @ 예.(예.)

107092 #2 체로 걸렁 딸령.(체로 걸려서 달여서.)

107092 @ 아하.(아하.)

107092 #2 경허민 감쥐.(그러면 감주.)
107092 @ 감쥐?(감주?)
107092 #2 으.(으.)
107092 @ 감쥐 맛은 어떵해마씨?(감주 맛은 어떠합니까?)
107092 #2 어떵해. 골 노민 돌하주.(어때. 엿기름 놓으면 달지.)
107092 @ 돌하여.(달아.)
107092 #2 골을 노민 돌허여. 흐린 좁쏠 하곡 허면은.(엿기름을 놓으면 달아. 차조하고 하면.)
107092 @ 아하.(아하.)
107092 #2 아이고 제사할 때 헷주. 이젠 제사도 안 허난.(아이고 제사 지낼 때 했지. 이젠 제사도 안 하니까.)
107092 @ 옛날에예?(옛날에요?)
107092 #2 으.(으.)
107092 @ 술도 옛날에 헤낫수과?(술도 옛날에 했었습니까?)
107092 #2 아니. 술은 안혀보고.(아니. 술은 안 해봤고.)
107092 @ 술은 안해난마씨?(술은 안했었습니까?)
107092 #2 으.(응.)

9. 신앙

109002 @ 성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성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9002 #2 성주는 집 문딱 지서낭은에 성주 ᄂᆞ렵넹 허는 거.(성주는 집 모두 지어서 성주 내립네 하는 거.)
109002 @ 그건 어떵합니까?(그건 어떻게 합니까?)
109002 #1 그건 목시레들 허는 거 그건.(그거는 목수네들 하는 거 그건.)
109002 @ 게믄 어떵헙니까?(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9002 #2 그거 허젠 허믄 심방 빌어사주게.(그거 하려고 하면 무당을 빌려야지.)
109002 @ 뭐 준비헙니까?(뭐 준비합니까?)
109002 #2 무시 거 허여? 것도 떡허곡, 밥허곡, 국허곡, 바닷고기 굽곡.(무엇 해? 그것도 떡하고, 밥하고, 국하고, 바닷고기 굽고.)
109002 @ 예.(예.)
109002 #2 제숙이라고.(제수라고.)
109002 #1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들어가. 일절.(돼지고기 같은 건 안 들어가. 일절.)
109002 #2 돼지고지 안 들어 가주게. 바닷고기베끼 안 들어.(돼지고기 안 들어

가지. 바닷고기 밖에 안 들어.)

109002 #1 바닷고기베끼. 계란ᄒᆞ고.(바닷고기밖에. 계란하고.)

109002 #2 옛날도게 감주하고 술하곡.(옛날도 감주하고 술하고.)

109002 @ 예. 그믄 집 다 지어낭 아무 때나 허믄 뒙니까?(예. 그러면 집 다 지어놓고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109002 #2 아니, 날 봐사주게.(아니. 날 봐야지.)

109002 @ 아, 날 봥.(아, 날 봐서.)

109002 #1 날봐야 헤여. 가족들 숫자에 다 맞추왕.(날 봐야 해. 가족들 숫자에 다 맞춰서.)

109002 @ 해치 맞추웡마씨?(띠 맞춰서요?)

109002 #1 에이, 우리가 경헷주마는. 몰라. 요즘은 말이여. 경허는지.(에이,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몰라. 요즘은 말이야. 그렇게 하는지.)

109002 @ 해난 거 골아주민 뒙니다.(했던 거 말해주면 됩니다.)

109002 #2 지금은 경 헴주기.(지금은 그렇게 하지.)

109002 @ 난 헷수다. 하하하.(난 했습니다. 하하하.)

109002 #1 멩심ᄒᆞ는 사람들은 허여. ᄌᆞ순들 연영들 다 놔아.(명심하는 사람들은 해. 자손들 연령들 다 놔.)

109002 #2 ᄂᆞ려야 주게. 새 집 지시믄 성주 ᄂᆞ려사주게. 집 지시믄 성주 ᄂᆞ려야 제사 명절 허는 거.(내려야지. 새 집 지으면 성주 내려야지. 집 지으면 성주 내려야 제사 명절 하는 거.)

109002 @ 예, 제사ᄒᆞ젠 해부난예, 성주 핸마씨.(예, 제사하려고 하니까, 성주 했습니다.)

109002 #2 음.(음.)

109002 #1 성주가 딱 직형은네 조상들 못 들어온게 헌다는 거주.(성주가 딱 지켜서 조상들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지.)

109002 @ 아.(아.)

109002 #1 성주 귀신이.(성주 귀신이.)

109002 @ 예.(예.)

109002 #1 게민 조상들은 성주 ᄂᆞ립기 전에 제사가 닥치면은 여기에 잡몽[284]이나 자귀 아땅은에 딱 박아놩 제사해야 뒈어.(그러면 조상들은 성주 내리기 전에 제사가 닥치면 여기에 잡목이나 자귀 가져다가 딱 박아놓고 제사해야 되어.)

109002 @ 무사마씨?(왜입니까?)

109002 #2 아, 저 아이들이나 아팡은에 새풀이[285]라도 허젠허민 짚가지에 칼을 찔렁 헌덴 해낫주게.(아, 저 아이들이나 아파서 '새풀이'라도 하려고 하면 짚가지에 칼을 찔러서 한다고 했었지.)

---

284) '잡몽'은 제보자가 '잡목'을 발음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온 것이다. 아무 나무나 가리키는 말이다.
285) '새풀이'는 사를 풀어내는 의례이다.

109002 @ 아.(아.)

109002 #2 성주 아니 ᄂᆞ린 집인.(성주 안 내린 집에는.)

109002 @ 아.(아.)

109002 #1 그게 잡귀같은 것들을 범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그게 잡귀같은 것들을 범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9002 #2 경해도 성주 아니 ᄂᆞ린 집이는 아팡은네 새풀이 허젠 해도 집이 가지에 칼을 찔렁 헌덴 헤낫어.(그렇게 해도 성주 안 내린 집에는 아파서 '새풀이'라도 하려고 해도 집의 가지에 칼을 찔러서 한다고 했었어.)

109002 @ 새풀이마씨?('새풀이'입니까?)

109002 #2 응. 새풀이허젠 허민.(응, '새풀이'하려고 하면.)

109002 @ 아픈 사람 구환하는 거예?(아픈 사람 구환하는 거요?)

109002 #2 응. 구환하젠 허민 새풀이 ᄀᆞ튼 거 허젠 허민.(응. 구환하려고 하면 '새풀이' 같은 거 하려고 하면.)

109002 @ 칼을 꽂앙 헤마씨?(칼을 꽂아서 합니까?)

109002 #1 게매 것도 악귀로 알면은 그런 칼을 사용하고. 삼신할머니들 아이들 아플 때는 그런 거 어심니다.(그러게 그것도 악귀로 알면 그런 칼을 사용하고. 삼신할머니들 아이들 아플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109002 @ 아? 예.(아? 예.)

109002 #1 기자, 삼신할머니가 초삼일, 초이레 , 열이레. 뭐.(그저, 삼신할머니가 초삼일, 초이레. 뭐.)

109002 #2 아이들 아플 때 넋 들여나는 거주, 그런 건.(아이들 아플 때 넋 들였던 거지, 그런 건.)

109002 #1 초삼일, 사흘에 지곡허는 할망. 초이레에 지곡허는 할망. 구삼승[286] 이라고 아흐레 지곡허는 할망.(초삼일, 사흘에 지극하신 할머니. 초이레에 지극하신 할머니. '구삼승'이라고 아흐레 지극하신 할머니.)

109002 @ 예.(예.)

109002 #1 삼승, 삼신이 세 개가 있넨 허는 거우다. ᄌᆞ식들, 손지들 열다섯살 안네에 이 키우젠 허면은.(삼승, 삼신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 손자들 열다섯 살 안에요 키우려고 하면은.)

109002 @ 예.(예.)

109002 #1 열다섯이 넘으면 그건 복력이렌 허곡. 그 안네는 삼신이 보호한덴 허는 겁주.(열다섯이 넘으면 그건 복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삼신이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109002 #2 삼신할망이 키와준다, 허는 거주게.(삼신할머니가 키워준다, 하는 거지.)

109002 @ 음, 예.(음, 예.)

286) '구삼승'은 저승에서 죽은 아이의 영혼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109002 #1 구삼승이라고 해서.('구삼신'이라고 해서.)

109003 @ 문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문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3 #2 문전도 마찬가지주 뭐.(문전도 마찬가지지 뭐.)

109003 @ 문전은 무사하는 거마씨?(문전은 왜하는 겁니까?)

109003 #1 그거 그전이 곧지 안 헙디까? 강태공 할로산에 강. 나무 끈는 사람 강태공 서목시 직시라고.(그거 그 전에 말하지 안 합디까? 강태공 한라산에 가서. 나무 베는 사람 강태공 서목수 몫이라고.)

109003 #2 성주 ᄂᆞ리젠 허민 목시 정 불리지 안 허여. 강태공 서목시.(성주 내리려고 하면 목수 저렇게 부르지 않아. 강태공 서목수.)

109003 @ 오허.(오허.)

109003 #2 멜망텡이 둘러메곡. 도치 노앙 둘러멩 헹 돌아다니곡.(망태기 둘러메고. 도끼 놓고서 둘러메서 하고 돌아다니고.)

109003 @ 아.(아.)

109003 #2 하하하.(하하하.)

109003 #1 나무꾼 헹 다니는 형국이주게.(나무꾼 해서 다니는 형국이지.)

109003 @ 문을 향해 절을 몇 번 허지 말렌 헷지예?(문을 향해 절을 몇 번 하지 말라고 했지요?)

109003 #2 문전에 절을 헐 때?(문전에 절을 할 때?)

109003 @ 예.(예.)

109003 #1 문전에 하직?(문전에 하직?)

109003 @ 예.(예.)

109003 #1 게난 그거 가온마다 틀립니다.(그러니까 그거 집집마다 다릅니다.)

109003 @ 예.(예.)

109003 #1 이 성주라는 것은 문지방에 언제나 귀신이 있다허는 의미에서 하직을 말곡. 뚠 디는 하직을 세 번을 합니다. 잘 갑서 성주귀신. 혜영. 돌아가서 혜영.(이 성주라는 것은 문지방에 언제나 귀신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직을 말고. 딴 데는 하직을 세 번을 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성주 귀신. 해서. 돌아가서 해.)

109003 @ 예.(예.)

109003 #1 근디 성주귀신이 이 집안에 있는 거우다. 그게 아니고.(그런데 성주귀신이 이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109003 @ 문전제는 그거마씨?(문전제는 그겁니까?)

109003 #1 헤헤.(헤헤.)

109004 @ 조왕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조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4 #1 조왕은 절이 어십니다. 심방들 헹 조왕.(조왕은 절기가 없습니다. 무당들 해서 조왕.)

109004 #2 조왕제라고 기자 조왕에 아장 조왕할망들한테 비는 거.(조왕제라고 그저 조왕에 앉아서 조왕할머니들한테 비는 거.

109004 @ 예. 어디서마씨?(예. 어디서요?)
109004 #1 심방들 아장.(무당들 앉아서.)
109004 #2 게, 부엌에 강게. 정지예.(그럼, 부엌에 가서. 부엌이오.)
109004 #1 정지가 부엌.('정지'가 부엌.)
109004 @ 예.(예.)
109004 #2 옛날 솟 아찐디 정지.(옛날 솥 얹힌 데 부엌.)
109004 @ 예. 솟 아찐 정지, 부엌예?(예. 솥 얹힌 부엌, 부엌이오?)
109004 #2 솟 아찐디 아장 조왕할마님한테 비는 거주.(솥 얹힌 데 앉아서 조왕할머님한테 비는 거지.)
109004 @ 예.(예.)
109004 #2 아무 일도 엇이 헙서. 영 헹.(아무 일도 없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109004 @ 아, 예. 이건 따로 준비헹은네 허는 거 엇수과?(아, 예. 이건 따로 준비해서 하는 거 없습니까?)
109004 #1 문전코시옌 험니다. 그 조왕제를 허게 뒈민.(문전고사라고 합니다. 그 조왕제를 하게 되면.)
109004 @ 아, 예.(아, 예.)
109004 #1 문전 코시라고 해서.(문전고사라고 해서.)
109004 @ 이거 그럼 같은 말마씨?(이거 그럼 같은 말입니까?)
109004 #2 그 제를 하민 문젠코시고, 조왕제만 허는 사름은 조왕제만 하고.(그 제를 하면 문전 고사고, 조왕제만 하는 사람은 조왕제만 하고.)
109004 #1 조왕제, 조왕제.(조왕제, 조왕제.)
109004 @ 예.(예.)
109004 #2 조왕제만 허는 사람은 조왕제만 허곡, 문전에 허는 사름은 문전코시렌 허영 문전에 허곡.(조왕제만 하는 사람은 조왕제만 하고, 문전에 하는 사람은 문전고사라고 해서 문전에 하고.)
109004 @ 예.(예.)
109004 #2 경허주게.(그렇게 하지.)
109004 @ 조왕에 허젠 허민 준비허는 거 똑같아마씨?(조왕에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거 똑같습니까?)
109004 #2 아니. 문전할 때 만이 안들어, 조왕에는.(아니. 문전제 할 때만큼 안들어. 조왕에는.)
109004 @ 문전에는 뭐 준비해야 뒈어마씨?(문전에는 뭐 준비해야 됩니까?)
109004 #2 문전에 허젠 허민게. 떡도 들고 밥도 들고.(문전에 하려고 하면. 떡도 들고 밥도 들고.)
109004 @ 이건 몇 개 들곡 안헙니까?(이건 몇 개 들지 않습니까?)
109004 #2 메 하나민.(메 하나면.)

109004 #1 다 ᄒᆞ나주.(다 하나지.)
109004 @ 예.(예.)
109004 #2 조왕할망이 세갠가?(조왕할머니가 세 개인가?)
109004 @음.(음.)
109004 #1 심방들 허는 거 아이 봐서?(무당들 하는 거 안 봤어?)
109004 #1,2 하하하.(하하하.)
109004 @ 또 뭐 들어마씨?(또 뭐 듭니까?)
109004 #2 고기여, 술이여, 감주여.(고기하고, 술하고, 감주하고.)
109004 @ 이거 다 준비해야 합니까?(이거 다 준비해야 합니까?)
109004 #2 으. 채, 콩ᄂᆞ물이여, 뭐.(응. 채소, 콩나물하고, 뭐.)
109004 @ 아, 채소도 다.(아, 채소도 다.)
109004 #2 으.(으.)
109004 @ 세 개마씨?(세 개입니까?)
109004 #2 으. 무수채나 무신거 그런 거 헤여지믄 다허는 거주게.(으, 무채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다하는 거지.)
109004 @ 예. 고기영, 술이영, 떡이여, 과일이영.(예. 고기하고, 술하고, 떡하고, 과일하고.)
109004 #1 신 가지 지물이라. 이시믄 이신양 다 헤여.(있는 게 제물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
109004 @ 감주영.(감주하고.)
109004 #2 응. 감주영.(응. 감주하고.)
109004 @ 다 준비헤영 문전허는 거마씨?(다 준비해서 문전하는 겁니까?)
109004 #2 으으. 문전에.(으으. 문전에.)
109004 @ 이거 제사 때 말고 따로 하는 거지예?(이거 제사 때 말고 따로 하는 거지요?)
109004 #2 응. 따로 허는 사름 있주게.(응, 따로 하는 사람 있지.)
109004 @ 그믄 문전은 언제 허는 거꽈?(그러면 문전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9004 #2 문전게 이녁 날 봐사 허는 거주. 것도게.(문전은 자기 날을 봐야 하는 거지. 그것도.)
109004 @ 이건 무사헤마씨? 무슨 일 이실 때 허는 거마씨?(이건 왜합니까? 무슨 일 있을 때 하는 겁니까?)
109004 #2 아니, 아니. 지금도 허는 사름들은 헴주게.(아니, 아니. 지금도 하는 사람들은 하지.)
109004 #1 문전은 그전부터 날 봐사 허여.(문전은 예전부터 날을 봐야 해.)
109004 #2 문전코시게.(문전고사.)
109004 @ 날 봥 뭐 좋으렌 허는 거꽈?(날 봐서 뭐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109004 #2 시님 빌어당 허는 사름도 있고.(스님 부탁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9004 @ 뭐에 도움뒈옌 허는 거꽈?(뭐에 도움된다고 하는 겁니까?)

109004 #2 뭐에게? 집안에 기자 다 펜안협서 헹은네.(뭐에? 집안에 그저 다 편안하십시오 해서.)

109004 @ 구진일 이시믄마씨?(궂은 일 있으면요?)

109004 #2 으.(으.)

109004 @ 아, 편안협서 헹은네.(아, 편안하십시오 해서.)

109004 #2 편안협서.(편안하십시오.)

109004 @ 성주는 집 짓으니까 허곡 문전은 ᄒᆞ꼼 궂인 거 담다 허믄 허는 거곡.(성주는 집 지으니까 하고 문전은 조금 궂은 거 같다 하면 하는 거고.)

109004 #2 어어.(어어.)

109004 #1 손이영 뭐영 뭐든 편하게 혜줍서 허는 거주.(자손하고 뭐하고 뭐든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지.)

109004 @ 조왕은마씨?(조왕은요?)

109004 #2 조왕제도 허민 날봐사 허는 거.(조왕제도 하면 날 봐야 하는 거.)

109004 @ 예, 이거는 무사 헙니까?(예, 이거는 왜 합니까?)

109004 #2 무사헤여? 것도게 조왕에게 궂인 일도 나지 맙서. 기자.(왜 해요? 그것도 조왕에게 궂은일도 나지 마세요. 그저.)

109004 @ 이거 다 갖춰 하젠 허민 다 해사쿠다예.(이거 다 갖춰서 하려고 하면 다 해야겠습니다.)

109004 #2 아니. 조왕에는 문전만이 안 들어.(아니. 조왕에는 문전만큼 안 들어.)

109004 @ 아, 안 들어.(아, 안 들어.)

109004 #2 조왕제는 기자 쏠이나 ᄒᆞᆫ 사발, 물이나 ᄒᆞᆫ 사발 걸여 나도 뒈곡이.(조왕제는 그저 쌀이나 한 사발, 물이나 한 사발 떠서 나도 되고요.)

109004 @ 아니면 메 올리곡?(아니면 메 올리고?)

109004 #2 으. 기자 헤지믄 허곡.(으, 그저 할 수 있으면 하고.)

109004 @ 예.(예.)

109005 @ 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5 #2 칠성이라고. 게. 칠성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네가 칠성제를 해 낫는디.(칠성이라고. 그게. 칠성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네가 칠성제를 했었는데.)

109005 @ 예.(예.)

109005 #2 칠성제를 허젠 허민 막 두 이레 열아흘, 그릇들도 베껫디 내놩 이슬 맞히멍 발레곡.(칠성제를 하려고 하면 막 두 이레 열아흐레, 그릇들도 바깥에 내놔서 이슬 맞히면서 말리고.)

109005 @ 아.(아.)

109005 #2 칠성제 허젠 허민.(칠성제 하려고 하면.)

109005 @ 막 정성을 허야 하는 거구나예.(아주 정성을 해야 하는 거군요.)

109005 #2 으으. 두일레 열아흘. 베겟디 새 끝앙 그릇 싯으멍 그디 엎엉 이슬 맞촹.(으응. 두이레 열아흐레. 바깥에 띠 깔아서 그릇 씻으면서 거기에 엎어서 이슬 맞히면서.)

109005 @ 아.(아.)

109005 #2 막 두일레 열아흘 그걸 막. 그릇들을.(막 두이레 열아흐레 마구. 그릇들을.)

109005 @ 음.(음)

109005 #2 경헤영 칠성제 허는 거 봐나서 게.(그렇게 해서 칠성제 하는 거 봤었지.)

109005 @ 음.(음)

109005 #1 칠성제옌 헌게이.(칠성제라고 하는 것이.)

109005 @ 이거는 무신 일 생기면 헤마씨?(이거는 무슨 일 생기면 합니까?)

109005 #2 칠성이엔 헌 게 배염이라. 배염.(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뱀이라. 뱀.)

109005 @ 예.(예.)

109005 #1 토산 한집.(토산 한집.)

109005 #2 토산 한집이라고.(토산 한집이라고.)

109005 #1 저 남군에.(저 남군에.)

109005 #2 저, 정의레 하주게. 정의레. 시방 성읍리 쪽더레 하주게. 그런 거.(저, 정의골 하지. 정의골. 시방 성읍리 쪽에서 하지. 그런 거.)

109005 @ 예. 그 막 정성으로 모심으로 하는 거 아니예?(예. 그 막 정성으로 모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9005 #2 응.(응.)

109005 @ 궂은 일 낫덴 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꽈?(궂은 일 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까?)

109005 #2 그냥게.(그냥요.)

109005 @ 해마다, 달마다 허는 거마씨?(해마다, 달마다 하는 겁니까?)

109005 #2 혼 해에 혼 번 ᄒᆞ는 거주게. 두 해에 혼 번도 ᄒᆞ곡.(한 해에 한번 하는 거지. 두 해에 한 번도 하고.)

109005 @ 아, 예. 정성으로 허는 거구나예.(아, 예. 정성으로 하는 거군요.)

109005 #2 응. 정성으로 허는 거.(응. 정성으로 하는 거.)

109005 #1 게난 칠성도 옌날 고팡에 모시는 사름도 싯고,(그러니까 칠성도 옛날 광에 모시는 사람도 있고.)

109005 @ 예.(예.)

109005 #1 베겟디 저 기왓장 ᄒᆞ나 놔그네, 주집 씌어놔그네 모시는 사름이 이서낫수다.(바깥에 저 기왓장 하나 놔서, 짚 씌어놓고서 모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9005 @ 아.(아.)

109005 #2 안칠성[287], 밧칠성[288]이라고.('안칠성', '반칠성'이라고.)

109005 @ 아. 안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거마씨?(아. '안칠성'은 광에 모시는 겁니까?)

109005 #1 야.(야.)

109005 #2 안칠성, 밧칠성이옌 ᄒᆞ영.('안칠성', '밧칠성'이라고 해서.)

109005 @ 기구나예. 안칠성하고 밧칠성은 틀린 거꽈?(그렇군요. '안칠성'하고 '밧칠성'은 다른 겁니까?)

109005 #2 ᄀᆞ튼 거주. 칠성이라고.(같은 거지. 칠성이라고.)

109005 @ 예.(예.)

109005 #1 그거 배염이우다. 배염.(그거 뱀입니다. 뱀.)

109005 @ 예.(뱀.)

109005 #1 저 벡조할망이 일부 ᄌᆞ식이 ᄒᆞ나 토산 감시난 그 조상 노릇하멍 시방 얻어먹엉 살암수다.(저 백조할머니가 일부 자식이 하나 토산 가니까 그 조상 노릇하면서 시방 얻어먹으면서 삽니다.)

109005 @ 예.(예.)

109005 #1 게난 ᄌᆞ식을 못 키우는 사름은양.(그러니까 자식을 못 키우는 사람은.)

109005 @ 예.(예.)

109005 #1 대개 칠성제를 홈니께.(대개 칠성제를 하는 거지요.)

109005 @ 아, 자식 없거나 하면.(아, 자식 없거나 하면.)

109005 #1 예. ᄌᆞ식들 무사안녕이나 집안의 모든 곡식 모든 걸 무사안녕 하기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예. 자식들 무사안녕이나 집안의 모든 곡식 모든 걸 무사안녕하기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

109005 @ 예.(예.)

109005 #1 첫째, ᄌᆞ식의 무사안녕을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첫째, 자식의 무사안녕을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

109005 @ 예. 자식 잘 뒈젠 허민 칠성제를 해야 하는 거구나예.(예. 자식 잘 되려고 하면 칠성제를 하는 거군요.)

109005 #1 야.(야.)

109005 #2 자식들 펜안ᄒᆞ렌.(자식들 편안하라고.)

109005 @ 나도 헤사큰가마씨?(나도 해야 하겠습니까?)

109005 #1 ᄌᆞ식 나지 못하고 헤도 경헤도 ᄒᆞ는 거.(자식 나지 못하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

109005 @ 아. 자식 귀해도 하는 거고, 이서도 하는 거고.(아. 자식 귀해도 하는 거고, 있어도 하는 거고.)

109005 #1 예. 이성 ᄌᆞ들라도 허는 거고. 칠성제가 잇고, 마제 치는 것도 이수

287) '안칠성'은 제주도에서 고방에 모시는 여자 귀신이다. 뱀의 화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쌀뚝 위에 무명 일곱 자를 접어서 폐백으로 놓는다.

288) '밧칠성'은 뒤칠성, 뒷할망. 집 뒤에 모시는 뱀 신을 일컫는 말이다.

다.(예. 있어서 걱정해도 하는 거고. 칠성제가 있고, 마제 치는 것도 있습니다.)
109005 @ 마제 치는 거.(마제 치는 거.)
109005 #1 마제 치는 거렌 허는 거는 ᄌᆞ식을 위해 ᄒᆞ는 거.(마제 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 하는 거.)
109005 @ 예. 이건 뭐꽈?(예. 이건 뭡니까?)
109005 #2 마제는 집에 굿할 때(마제는 집에 굿할 때)
109005 @ 굿할 때마씨?(굿할 때 입니까?)
109005 #2 굿할 때 마제 치는 거.(굿할 때 마제 치는 거.)
109005 #1 아니 별도로 마제를 치주게.(아니 별도로 마제를 치는 거지.)
109005 #2 마제 치는 거, 아이들 별도로 애기 못 나는 사름도 ᄒᆞ곡.(마제 치는 거, 아이들 별도로 애기 못 나는 사람도 하고.)
109005 @ 예.(예.)
109005 #2 애기 낭 ᄒᆞ도 ᄌᆞ들라도 허는 거.(애기 나서 하도 걱정해도 하는 거.)
109005 @ 예.(예.)
109005 #2 키우지 못해가도 ᄒᆞ곡.(키우지 못해도 하고.)
109005 @ 예.(예.)
109005 #2 아오. 우리도 옛날 하도 그냥 넣만 들여줍센 가민 에에, 마제치렌 하민 안 헤여.(아오. 우리도 옛날 하도 그냥 넣만 들여 주십시오 가면 에에, 마제치라고 하면 안해요?)
109005 @ 아, 마제치렌 하는 구나.(아, 마제 치라고 하는구나.)
109005 #2 넣들여 줍서, 넣만 들여 줍서 헴덴. 들으멍 헤낫어.(넣들여 주십시오. 넣만 들여 주십시오 한대. 들으면서 했었어.)
109005 @ 마제치렌 ᄒᆞ는구나예. 그거보고.(마제 치라고 하는 거군요. 그거 보고.)
109005 #2 응.(응.)
109005 @ 아이들 잘 뒈렌 하는 거.(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거.)
109005 #1 무사 안녕ᄒᆞ라 허는 거라, 아이들이.(무사 안녕해라 하는 거야. 아이들이.)
109005 #2 우리도 굿헤영 마제 쳥 낫곡.(우리도 굿해서 마제 쳐났었고.)
109005 #1 ᄌᆞ식 못 나는 사름도 ᄌᆞ식 낳게 허는 거곡.(자식 못 나는 사람도 자식 낳게 하는 거고.)
109005 @ 음. 예.(음. 예.)
109005 #1 마제 치젠 ᄒᆞ민 상단 초사흘 할망 나시 뫼 놓고.(마제 치려고 하면 상단 초사흘 할머니 몫 메 놓고.)
109005 @ 예.(예.)
109005 #1 초일레 할망 나시 뫼 놓고.(초이레 할머니 몫 메 놓고.)
109005 @ 마제칠 때마씨?(마제칠 때 입니까?)

109005 #1 야. 마제 칠 때. 구삼승[289] 나시라고 아흐레.(야, 마제 칠 때. '구삼승' 몫이라고 아흐레.)

109005 @ 아.(아.)

109005 #1 이 아흐레 오는 할망은 악할망이고, 중간에건 중간이고, 초사흘에 지곡흔 할망은 순한 할망이곡.(이 아흐레 오는 할머니는 악할머니고, 중간에건 중간이고, 초사흘에 지극하신 할머니는 순한 할머니고.)

109005 @ 예. 언제 언제마씨?(예. 언제입니까?)

109005 #1 초사흘, 초일레, 초아흐레.(초사흘, 초이레, 초아흐레.)

109005 @ 초아흐레.(초아흐레.)

109005 #1 아기 구덕 흔들 때도. 에, 경허주. 초사흘에 지곡하신 할마님아, 초일뤠에 지곡하신 할마님아, 초 아흐레에 지곡하신 할마님. 웡이 자랑[290] 웡이 자랑, 웡이.(아기 구덕 흔들 '때도, 에, 그렇게 하지. 초사흘에 지극하신 할머님아, 초이레에 지극하신 할머님아, 초아흐레에 지극하신 할머님.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웡이'.)

109005 #2 흐흐흐.(흐흐흐.)

109005 #1 할마님이 도와줍서. 어우 우리 애기. 웡이 자랑 웡이 자랑.(할머님이 도와주십시오. 어우 우리 애기. '웡이 자랑 웡이 자랑'.)

109005 #2 흐흐흐.(흐흐흐.)

109005 #1 경허멍 입담을 헤여 가민 아이들도 입담을 들어가민 즘을 잘 들어.(그러면서 입담을 하면 아이들도 입담을 들으면서 잠을 잘 들어.)

109005 @ 잘 자마씨?(잘 잡니까?)

109005 #1 응. 즘을 그렇게 잘 자. 패라왕 막 앙작만 하던 것들이.(응. 잠을 그렇게 잘 자. 신경질적이어서 막 엄살하며 울어대던 것들이.)

109005 #2 애기 구덕[291]들은 봐나고?('애기 구덕'들은 봤었어?)

109005 @ 예, 예.(예. 예.)

109005 #2 대구덕[292]들 봐나신가?('대구덕'들 봤었어?)

109005 @ 대구덕은 안 봐나난마씸.('대구덕'은 안 봤었어요.)

109005 #2 대구덕 말이주. 시방 쒜구덕이사 무신.('대구덕' 말이지. 시방 쇠구덕이야 무슨.)

109005 @ 대구덕 안 봐난마씨.('대구덕' 안 봤었어요.)

109005 #1 대구덕 ᄀᆞ자 아이 봔?('대구덕' 이제껏 안 봤어?)

109005 #2 대구덕이라낫주, 애기구덕은.('대구덕'이었지. '애기구덕'은.)

109005 @ 그게 제라한 건디.(그것이 제대로인거지.)

109005 #2 응. 시방 쒜구덕이사 거 무신.(응. 시방 쇠구덕이야 그거 무슨.)

109005 #1 거 무신.(그거 무슨.)

---

289) '구삼승은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290) '웡이자랑'은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의 후렴부분이다.
291) '애기구덕'은 아이를 재우던 아기요람을 말한다.
292) '대구덕'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요람이다.

109005 #2 대구덕 이서낫주. 수랑한 거.(‘대구덕’ 있었지. 길이가 조금 긴 거.)

109005 @ 수랑한 거마씨?(길이가 조금 긴 겁니까?)

109005 #1 웡이 자랑 웡이 자랑하민 말이여, 아이들이 그렇게 악ᄒᆞ던 할망도 할망 입담만 해가민, 구신 ᄀᆞ치이, 아이 머리맡에 삼싱 할망 지곡한 거 닮아. 아이들이 악하당도 경 즘을 들어.(‘웡이 자랑 웡이 자랑’하면 말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악하던 할머니도 할머니 입담만 하면, 귀신같이. 아이 머리맡에 삼신 할머니 지극하신 거 같아. 아이들이 악하다가도 그렇게 잠이 들어.)

109005 #2 하하하.(하하하.)

109005 @ 예, 말 잘들어예.(예, 말 잘들지요.)

109005 #1 응. 경허당도 말 안들어가민 괄락탁 괄락탁.(응. 그렇게 하다가도 말 안들면 괄락탁 괄락탁.)

109005 @ 하하하.(하하하.)

109005 #1 와닥탁 와닥탁 흔들곡.(‘와닥탁 와다탁’ 흔들고.)

109005 #2 와글와글.(와글와글.)

109005 #1 경 흔들어 가민 머리가 애기구덕에서 이래착 저래착[293], 정신이 혼동뒈어이.(그렇게 흔들면 머리가 ‘애기구덕’에서 ‘이래착 저래착’, 정신이 혼동돼.)

109005 #2 하하하.(하하하.)

109005 @ 하하하.(하하하.)

109005 #1 정신 혼동뒈엉 울당도 아이 울주.(정신 혼동되어서 울다가도 안 울지.)

109005 @ 너무 놀랭 못 우는 거 아니예?(너무 놀라서 못 우는 거 아니에요?)

109005 #1 놀래엉 아이 우는 거주게.(놀라서 안 우는 거지.)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정월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1 #2 조상들게 새벡이 오젠허난게 바싹 언디 고생햇쑤다 헤영 ᄆᆞ밀국시허영.(조상들 새벽에 오려고 하니까 바짝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해서 메밀국수 해서.)

110001 @ ᄆᆞ밀국시 이건 아까 이름이 뭐라고마씨?(메밀국수 이건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110001 #1 새벡국[294]이라고.(‘새벡국’이라고.)

110001 #2 새벡국.(‘새벡국’.)

---

293) ‘이래착 저래착’은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이다.

294) ‘새벡국’은 새벽에 조상들을 위해 일찍이 해 놓는 음식이다.

110001 @ 아, 새벡국.(아, '새벡국'.)

110001 #2 새벡이 일찍 허는 거난 새벡국.(새벽에 일찍 하는 거니까 '새벡국'.)

110001 @ 아.(아.)

110001 #2 경헹 그 조상들이 새벽이 오멍.(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이 새벽에 오면서.)

110001 #1 간식으로.(간식으로.)

110001 #2 고생헷수다 헤영.(고생하셨습니다 하고.)

110001 #1 오젠허난 고생헷수다. 이런 식으로 그 그자 다 웃이마다 흔 그릇씩 거려놩.(오려고 하니까 고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그저 다 윗 조상마다 한 그릇씩 떠 놓고.)

110001 @ 아. 아 흔 그릇씩.(아, 아 한 그릇씩.)

110001 #1 할망 하르방 다 뚜로 뚜로.(할머니 할아버지 다 따로 따로.)

110001 @ 아.(아.)

110001 #1 게메 어떤 디는 그전에 스무 개, 스무 개도 넘어나싯주 허허허.(그러게 어떤 데는 그전에 스무 개, 스무 개도 넘었었지. 허허허.)

110001 #2 조상 한 디는 막 요라 게.(조상 많은 데는 마구 여러 개.)

110001 @ 할망 하르방까지 다하젠 허믄 스무 개도 넘어시쿠다.(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하려고 하면 스무 개도 넘었겠습니다.)

110001 #1 넘어가말이여 경허난 이제 다 모든 걸.(넘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걸.)

110001 #2 조금 웃이 한 사람들은 다 거려놔사라난(조금 윗 조상이 많은 사람들은 다 떠 놓았었어야 했어.)

110001 #1 지제[295]헤부난이주 지제헌 조상들은 안 거려 놉니다.('지제'해서지. '지제'한 조상들은 안 떠 놓습니다.)

110001 @ 아.(아.)

110001 #1 이녁집이서 제사멩질 현재 허는 조상만 거려놓지.(자기 집에서 제사 명절 현재 하는 조상만 떠 놓지.

110001 @ 예.(예.)

110001 #1 지제헤여분 조상들 거 허젠 하민양 백 개 뒈주.('지제'한 조상들 거 하려고 하면은 백 개 되지.)

110001 @ 하하.(하하.)

110001 #1 게난 지제는 끝나고 새 제사 멩질만 하는 조상들의 각각이 허여도 스물한개가 뒈어서.(그러니까 '지제'는 끝나고 새 제사 명절만 하는 조상들의 각각 해도 스물 한 개가 되었어.)

110001 @ 그믄 경헤난 다음에.(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0001 #1 게 잡식헹[296] 소주 흔잔 비왕 절허영 한번 절해근엥예 잡식헹 올려

295) '지제'는 사대조 윗대 제사를 그만두는 것을 이른다.

뒁 이제 그다음부터는 멩질제를 헐거 차리는 거주.(그럼 '잡식해서' 소주 한잔 비워서 절하고서 한번 절하고 나서 '잡식해서' 올려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명절제를 할 거 차리는 거지.)

110001 @ 예.(예.)

110001 #1 묵두 끊엉 꿰고 적들도.(묵도 끊어서 꿰고 적들도.)

110001 #2 돌화리에 괴기두 굽고 헤헤헤.(돌화로에 고기도 굽고 헤헤헤.)

110001 #1 괴기두 굽고 화리에 헹 불살라.(고기도 굽고 화로에 해서 불살라.)

110001 #2 돌화리에 돌화리에 수랑한돌화리에 적쇠 걸쳥.(돌화로에 돌화로에 기름한 돌화로에 적쇠 걸치고.)

110001 @ 적쇠 걸쳥.(적쇠 걸치고.)

110001 #2 그레 고기두 굽고 묵도 굽곡.(거기에 고기도 굽고 묵도 굽고.)

110001 @ 으흐. 경해근엥 멩질제는 아침 멫 시쯤 험니까? 여기 메씨 쯤 해난마씨? 돌아가멍.(으흐. 그렇게 해서 명절제는 아침에 몇 쯤 합니까? 여기 몇 시쯤 했었습니까? 돌아가면서.)

110001 #1 돌아가멍 허기 때문에 종손집이는 혼시 두시끄지 됩니다.(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종손 집에는 한 시 두 시까지 됩니다.)

110001 @ 예.(예.)

110001 #1 경허는데 초가지가 문저 험니다. 제일이.(그렇게 하는데 제일 맏이 형제가 먼저 합니다. 제일.)

110001 @ 족은 집이가(작은 집이.)

110001 #1 것도 족은 집이두 멩질 조상을 맡아온 주손은 허곡 아니 맡아온 주손은 안헙주마씀.(그것도 작은 집도 명절 조상을 맡아온 자손은 하고 안 맡아온 자손은 안 하지 말입니다.)

110001 @ 아.(아.)

110001 #1 게믄 두 번째 놈으로 가라 세 번째 놈으로 가라 영헤근엥 제일 막내를 허당 보민 혼집이가 혼 시간씩 허당보민 최소한 대여섯 시간 걸려. 혼 시간은 막 뻐른거우다.(그러면 두 번째 놈으로 가라. 세 번째 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제일 막내를 하다가 보면 한 집이 한 시간씩 하다가보면 최소한 대 여섯 시간 걸려. 한 시간은 막 빠른 겁니다.)

110001 @ 음. 제 지냉 음복까지 허고 영허당보믄.(음. 제 지내서 음복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110001 #2 두 시 반엔 끝나지 안 헤여?(두 시 반엔 끝나지 않아요?)

110001 #1 게메 게난 예를 들어서 다섯 바티민 다섯 시간을 잡는 거.(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면 다섯 시간을 잡는 거.)

110001 @ 아.(아.)

---

296) '잡식하다'는 것은 제를 지내고 난 후 술잔에 진설되었던 제수들을 조금씩 뜯어서 놓고 그것을 바깥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제를 올린 조상 주변에 빈곤한 떠돌이 귀신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런 귀신들 달래고 대접하는 행위를 말한다. 끝나고 올레에 뿌려준다.

110001 #1 기준을 잡는 건데.(기준을 잡는 건데.)

110001 @ 예.(예.)

110001 #1 제일 밑에 에, 초가지 강 제를 지내잰 허믄 그디 강 다 올 동안 기다려야주게.(제일 밑에, 제일 맏이가 가서 제를 지내려고 하면 거기 가서 다 올 동안 기다려야지.)

110001 #2 헌 아홉시, 아홉 시 아홉 시.(한 아홉 시, 아홉 시, 아홉시.)

110001 #1 그 사람들도 왕 이 차례를 헹 절을 헤야 세배를, 진설 다 해노민 세배를 헙니께.(그 사람들도 와서 이 차례를 해서 절을 해야 세배를, 진설 다 해놓으면 세배를 합니다.)

110001 #2 우리는 두 번째니까 ᄒᆞᆫ 열ᄒᆞᆫ 시.(우리는 두 번째니까 한 열한 시.)

110001 @ 아, 그렇게.(아, 그렇게.)

110001 #1 종손집이 가젠 ᄒᆞ당 보민 ᄒᆞᆫ 시, 두 시.(종손 집에 가려고 하다가 보면 한 시, 두 시.)

110001 #2 일찍 끝나야 ᄒᆞᆫ 시. 겡 안 허민 두 시.(일찍 끝나야 한 시 그렇지 않으면 두 시.)

110001 @ 빨리 끝나야 ᄒᆞᆫ 시.(빨리 끝나야 한 시.)

110003 @ 방사와 액막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방사와 액막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3 #1 대보름 전에. 정월 열사흘이 본향당[297]이라고.(대보름 전에 정월 열사흘에 본향당이라고.)

110003 @ 아, 예.(아, 예.)

110003 #1 육지는 보름을 크게 허는데 여기는 열사흘 당 할망 나시 잇당 갓다 왕. 보름에는 허는 게 엇수다.(육지는 보름을 크게 하는데 여기는 열사흘 당 할머니 깃을 있다가 갔다가 와서 보름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110003 @ 예.(예.)

110003 #1 보름에는 뭘 하느냐 허면은 대개는 조왕제라고양 날 받앙 방서도 허곡.(보름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대개는 조왕제라고. 날 받아서 방사도 하고.)

110003 #2 건 저 삼월 달에도 하고 이녁 허고 싶을 때 허믄 뒈주게.(그건 저 삼월 달에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110003 @ 예.(예.)

110003 #1 게난 대개이. 정월 보름 안에는 우리 제주도사름은 방서나 조왕제.(그러니까 대개. 정월 보름 안에는 우리 제주도 사람은 방사나 조왕제.)

110003 @ 예.(예.)

110003 #1 상돌[298]이라고 해서 이월달에는 영등 할망[299]인지 하르방인지가 들

297) '본향당'은 제주에서 마을의 신을 모신 신당, 서낭당과 유사하다.

298) 상달은 시절을 높이여 부르는 말이다. 대개 시월상달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영등제를 지내는 2월을 상달로 본다.

299) '영등할망'은 영등신. 음력 2월 1일에 입도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의 이름이다.

어노니까 정월 보름 안에. 뒈도록이민.(상달이라고 해서 이월 달에는 '영등 할망'인지 할아버지인지가 드니까 정월 보름 안에. 되도록이면.)

110003 @ 예. 방서는 어떵허는 거마씨?(예. 방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0003 #2 거 저, 심방 왕.(그거 저, 무당 와서.)

110003 @ 예.(예.)

110003 #2 심방 왕 집안이 편안해 줍서. 문전에도 불쌍 왕 조왕에도 불 쌍 왕.(무당 와서 집안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문전에도 불 켜고 와서 조왕에도 불 켜고 와서.)

110003 #1 안에영 뭐, 여라 군데 빕니다.(안에다 뭐, 여러 군데 빕니다.)

110003 @ 예.(예.)

110003 #1 비는데 방서라는 것은 해안도로 영등할망, 영등하르방[300] 나가젠 허민 짚으로 배 짱양.(비는데 방사라는 것은 해안도로 '영등할망', '영등하르방' 나가려고 하면 짚으로 배 짜서.)

110003 @ 예, 예.(예, 예.)

110003 #1 돈대 멘들앙은에 거기에 뭐 음식도 놩은에 어디 뭐야, 질 가운데 사름 많이 다니는데. 사거리나 오거리나. 아주 복잡한 데에. 모로게.(돗대 만들어서 거기에 뭐 음식도 놔서 어디 뭐야, 길 가운데 사람 많이 다니는데. 사거리나 오거리나. 아주 복잡한 데에. 모르게.)

110003 @ 아.(아.)

110003 #1 아무도 모로게.(아무도 모르게.)

110003 @ 예.(예.)

110003 #1 아닌 밤중에 솔쩨기 갖당 노는 거. 갖다 노면은.(아닌 밤중에 살짝 가져다가 놓는 거. 갖다 놓으면.)

110003 @ 송당서도마씨?(송당에서도요?)

110003 #1 아, 송당서도.(아, 송당에서도.)

110003 @ 아, 그게 방사하는 거꽈?(아, 그게 방사하는 겁니까?)

110003 #2 옛날은 경 헷주게.(옛날은 그렇게 했지.)

110003 @ 아.(아.)

110003 #2 지금은 안 헤도. 옛날은 경헤낫어.(지금은 안 해도. 옛날은 그렇게 했었어.)

110003 @ 지금은 안 허주만은(지금은 안 하지만.)

110003 #1 경해서 그 겨난. 우염한 허는 사름은 그걸 아니 가져갑니다.(그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은 그걸 안 가져갑니다.)

110003 @ 아.(아.)

110003 #1 어떠당 천한 사름을 빌엉 가져 가나.(어떻게 천한 사람을 빌려서 가져가나.)

---

300) '영등 하르방'은 지역에 따라 영등 할망을 다르게 일컫는 말이다.

110003 @ 예.(예.)

110003 #1 겡 안 허면 심방ᄀᆞ라 당신네가 집이 가면서 어느 위치에 갖다노라. 경 호고 또 심방네는 심방네 대로 욕 아이 든젠 허민 어느 정도 저 혼짝더레 앗당 노는 것도 있는데.(그렇지 않으면 무당한테 당신네가 집에 가면서 어느 위치에 갖다 놔라. 그렇게 하고 또 무당네는 무당네 대로 욕 안 들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저 한쪽으로 가져다 놓는 것도 있는데.)

110003 @ 예.(예.)

110003 #1 그게 방서에 첫 번 본 사름이나 재수 궂은 사름이 아다로[301]허면 사람 많은 위치에 앗당 놔아야만이 어느 재수 없는 사름이 그걸 걸려 들어가는 거라.(그게 방사에 첫 번 본 사람이나 재수 궂은 사람이 걸리면 사람 많은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만 어느 재수 없는 사람이 그걸 걸려드는 거야.)

110003 @ 예.(예.)

110003 #1 경허민 재수 나오는 거라. 자기의 괴로운 것들이 몸에서 집안의 운이나 어떠난 그 액을 맡앙 온덴 허는 겁주.(그러면 재수 나오는 거야. 자기의 괴로운 것들이 몸에서 집안이 운이나 어떠하니깐 그 액을 맡아서 온다고 하는 거지.)

110003 @ 여기서도 방사하젠 허민 심방 빌엉 음식 준비하고.(여기서도 방사하려고 하면 무당 빌려서 음식 준비하고.)

110003 #2 돌레떡[302].('돌레떡'.)

110003 @ 돌레떡 준비하곡.('돌레떡' 준비하고.)

110003 #2 돌레떡만 허여.('돌레떡'만 해.)

110003 @ 아. 돌레떡만.(아, '돌레떡'만.)

110003 #2 과일하곡 채소하고 술하고 기자.(과일하고 채소하고 술하고 그저.)

110003 #1 육식만 안 헙니다. 육식만.(육식만 안 합니다. 육식만.)

110003 #2 밥해 놓곡게.(밥해 놓고.)

110003 #1 돼지고기, 소고기들만 안 헤영.(돼지고기, 소고기들만 안 해.)

110003 @ 문전에도 허곡 조왕에도 허곡 빌엉.(문전에도 하고 조왕에도 하고 빌어.)

110003 #2 이제는 뭐 조왕에도 이런 거라부난 안 헤영 문전에만 허는 사름은 지금도 헴주. 지금도 헤여.(이제는 뭐 조왕에도 이런 거라서 안 하고 문전에만 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지. 지금도 해.)

110003 @ 음. 경헹 짚으로 배를 만들어 사거리, 오거리에 강 놔.(음. 그렇게 해서 짚으로 배를 만들어 사거리. 오거리에 가서 놔.)

110003 #1 음. 배 모냥으로 멘들아.(음. 배 모양으로 만들어.)

110003 @ 술쩨기 새벡이.(살짝 새벽에.)

110003 #2 밤이, 밤이.(밤에, 밤에.)

---

301) '아다로'는 일본어로 명중하다, 적중하다의 의미이고 이 문맥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
302)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110003 #1 사름들 엇일 때 갖자 놩. 밤이 고요한 때에.(사람들 없을 때 갖다 놓고서. 밤에 고요한 때에.)

110003 #2 심방도 밤이 오랑 허주게. 밤이.(무당도 밤에 와서 하지. 밤에.)

110003 @ 밤에.(밤에.)

110003 #1 거 게난 벨롱겡이[303]렌도 말하고.(그거 그러니까 '벨롱겡이'라고 말하고.)

110003 @ 벨롱겡이마씨?('벨롱겡이'요?)

110003 #1 으. 벨롱겡이. 집집마다 운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빌기 때문에. 벨롱겡이, 벨롱겡이 헙니다.(으. '벨롱겡이'. 집집마다 운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빌기 때문에. '벨롱겡이', '벨롱겡이' 합니다.)

110003 @ 아.(아.)

110003 #1 아, 저 집은 벨롱겡이 헴서. 헤헤헤.(아, 저 집은 '벨롱겡이'해. 헤헤헤.)

110003 @ 벨롱겡이 헴서.('벨롱겡이' 해.)

110003 #2 흐흐흐.(흐흐흐.)

110003 #1 저 집 문전코시헴서. 여러 가지우다. 말도.(저 집 문전고사한다. 여러 가지입니다. 말도.)

110004 @ 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4 #2 옛날 포제 허주게.(옛날 포제 하지.)

110004 @ 포제 허젠 허믄 정성허지예?(포제하려고 하면 정성들이지요?)

110004 #1 야.(야.)

110004 #2 포제를 허젠 허민 흔 집이 딱 정혜영 포제 제관이 다섯이믄 다섯. 여섯이믄 여섯 영 정혜영.(포제를 하려고 하면 한 집을 딱 정해서 포제 제관이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 이렇게 정하고.)

110004 #1 최소한도 열은 됩니다. 최소한 열.(최소한도 열은 됩니다. 최소한 열.)

110004 #2 다들 그 집이서 살아.(다들 그 집에서 살아.)

110004 @ 아.(아.)

110004 #2 포제 돌아올 때까지.(포제 돌아올 때까지.)

110004 @ 예.(예.)

110004 #2 그 집이서 살면서.(그 집에서 살면서.)

110004 @ 며칠이나 삽니까?(며칠이나 삽니까?)

110004 #1 일일날 지정을 하게 뒈면 최소한도 칠일.(일일 날 지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칠일.)

110004 #2 흔 일주일은 살아. 그 집이서.(한 일주일은 살아. 그 집에서.)

110004 @ 아.(아.)

303) '벨롱겡이'는 일 년간 집안의 행운을 비는 굿의 이름이다.

110004 #1 그 집이서 나오지 못헤여. 절대로.(그 집에서 나오지 못해요. 절대로.)

110004 @ 예.(예.)

110004 #2 나오지 못허민.(나오지 못하면.)

110004 #1 그 집이서 밥 먹곡.(그 집에서 밥 먹고.)

110004 #2 우리도 옛날 우리 아버지네 그런 디 강 안자부난 밥헹 가졍간.(우리도 옛날 우리 아버지네 그런 데 가서 앉아버리니까 밥해서 가져갔어.)

110004 @ 예.(예.)

110004 #2 조반도 헹 가져가고. 점심도 헤영 가져 가곡. 저냑도 헤영 가져가곡.(조반도 해서 가져가고. 점심도 해서 가져가고. 저녁도 해서 가져가고.)

110004 @ 예.(예.)

110004 #2 경헹 포제 헐 때사 그 사름들이 다 그.(그렇게 해서 포제 할 때야 그 사람들이 다 그.)

110004 @ 나와.(나와.)

110004 #1 제 끝나야.(제 끝나야.)

110004 @ 아.(아.)

110004 #2 옛날은 포제터. 저 마장[304] 안에이.(옛날은 포제터, 저 마장 안에.)

110004 @ 아.(아.)

110004 #2 마장 안네에 어디 소 놓는 케에. 영 담 빙하게 다왕 포제터라고 이서낫주.(마장 안에 어디 소 놓는 지경에. 이렇게 담을 뱅하게 쌓아서 포제터라고 있었었지.)

110004 @ 포제터예?(포제터요?)

110004 #2 으. 게민 그런 디 강 제를 지내는 거라.(으.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제를 지내는 거야.)

110004 @ 예.(예.)

110004 #2 도새기도 전 머리 올령.(돼지도 전 마리 올려서.)

110004 @ 아.(아.)

110004 #1 깨끗한 디 지정헙니다.(깨끗한 데 지정합니다.)

110004 #2 도새기도 전 머리. 잡지 안 헤영 그냥.(돼지도 전 마리. 잡지 않고서 그냥.)

110004 #1 생걸로.(생걸로.)

110004 @ 아?(아?)

110004 #2 생걸로 강. 그냥 우굿이 세와근에이.(생걸로 가서, 그냥 꼿꼿이 세워서.)

110004 @ 아.(아.)

110004 #2 경헹 포제. 딴 거는 크게 안 들어. 도새기 한 마리.(그렇게 해서 포

304) '마장'은 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기르는 곳이다.

제. 다른 거는 크게 안 들어. 돼지 한 마리.)

110004 @ 살아 잇는 돼지마씨?(살아 있는 돼지요?)

11000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04 #2 아니 죽엉 털 벳기곡. 반직 단장혜영.(아니 죽어서 털 벗기고. 깨끗이 단장해서.)

110004 @ 아, 잡앗는데 생 거.(아, 잡았는데 생 거.)

110004 #1 으. 생 거.(으. 생 거.)

110004 #2 생 걸로. 산토새기추룩.(생 것으로. 산돼지처럼.)

110004 @ 장만 안 헌 거예?(장만 안 한 거요?)

110004 #1 살도 안 끈어.(살도 안 끊어.)

110004 @ 아.(아.)

110004 #1 배만 소곱에 내장만 끈어놔둥 차롱이나 구덕에 몽크령.(배만 안에 내장만 끊어 놓고서 채롱이나 바구니에 뭉쳐서.)

110004 @ 예.(예.)

110004 #1 양쪽에. 꼭 하나는 안 돼. 저쪽 이쪽 마주보기 위해서 꿇여 앉형은에.(양쪽에. 꼭 하나는 안 돼. 저쪽 이쪽 마주보기 위해서 꿇려 앉혀서.)

110004 @ 아.(아.)

110004 #2 도새기 한 마리 온차 올리는 거.(돼지 한 마리 통째 올리는 거.)

110004 @ 두 마리 해야 뒈네.(두 마리 해야 되네.)

110004 #1 혼 마리는 안 올리메.(한 마리는 안 올려.)

110004 @ 그믄 마을제 제관들은 돌아가멍 헤마씨?(그러면 마을제 제관들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110004 #1 아니 그저 유식한 고명한 사름들이 헙니다.(아니 그저 유식한 고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110004 #2 허염직한 사름덜.(할 만한 사람들.)

110004 #1 소소한 사름덜, 아무나 디디한[305] 사름덜 아니 헙니다.(소소한 사람들, 아무나 '띨띨한' 사람들 안 합니다.)

110004 @ 예.(예.)

110004 #1 안 됩니다. 해당도 아니 뒈메. 제관 자격도 아니 뒈어.(안 됩니다. 해당도 안 돼. 제관 자격도 안 돼.)

110004 @ 붉은 흙 뿌리는 것도 이수과?(붉은 흙 뿌리는 것도 있습니까?)

110004 #1 아, 그건 굿헐 때.(아, 그건 굿할 때.)

110004 @ 굿헐 때.(굿할 때.)

110004 #1 야. 그 황토 뿌리는 거.(야. 그 황토 뿌리는 거.)

110004 #2 올레[306]로 일로. 이레 벌겋게 뿌려 오주게.('올레'로 이리로. 이리로

305) '디디하다'는 말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미로 제보자가 사용하였으나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306) '올레'는 길에서 집까지 연결된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벌겋게 뿌려 오지.)
110004 @ 굿허젠 허민.(굿하려고 하면.)
110004 #1 아, 포제 때도 헙니다.(아, 포제 때도 합니다.)
110004 @ 예?(예?)
110004 #2 포제 때 무신 집에서 헴수과?(포제 때 무슨 집에서 합니까?)
110004 #1 아니, 흑 뿌리는 거 집에서 안 헤도게.(아니, 흙 뿌리는 거 집에서 안 해도.)
110004 #2 산에 강.(산에 가서.)
110004 @ 아.(아.)
110004 #1 제관들 왓다리 갓다리 허는 디 어떻든지 황토는 뿌려지민 좋다는 겁주. 어디든지. 깨끗허니까.(제관들 왔다가 갔다가 하는 데 어떻든지 황토는 뿌려지면 좋다는 거지요. 어디든지. 깨끗하니까.)
110004 @ 예.(예.)
110005 @ 안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안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5 #1 안택이 벨롱겡이.(안택이 '벨롱겡이'.)
110005 #2 안택이. 이제 시님들 왕 허는 거는 안택이엔 허주.(안택이. 이제 스님들 와서 하는 거는 안택이라고 하지.)
110005 #1 안택이 집안에서 허는 거. 그때 곧지 안 헙디가게.(안택이 집안에서 하는 거. 그 때 말하지 안합디까.)
110005 @ 예.(예.)
110005 #1 집이 안녕한가 허는 거.(집이 안녕한가 하는 거.)
110005 #2 절간에서 시님이 왕 허는 거는 안택이엔 하곡. 우리 저 심방 빌엉 옛날 헐 때 허는 거는 조왕제, 문전.(절간에서 스님이 와서 하는 거는 안택이라고 하고, 우리 저 무당 빌려서 옛날 할 때 하는 거는 조왕제, 문전.)
110005 @ 음.(음.)
110005 #2 응. 경허는 거.(응. 그렇게 한는 거.)
110005 #1 문전 코시, 조왕제, 기자 조왕제.(문전 고사, 조왕제, 그저 조왕제.)
110005 @ 예.(예.)
110005 #2 절간에서 시님 빌어당 허는 건 안택이엔 허주게.(절간에서 스님 빌려다가 하는 건 안택이라고 하지.)
110005 @ 우리 집 올 한해 잘 뒈게 헤줍서.(우리 집 올 한해 잘 되게 해주십시오.)
110005 #2 일 년 열두 달 기자 편안하게 헤줍서.(일 년 열두 달 그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110005 #1 문전 ᄀᆞᄉᆞ엔 헙니다. 문전 ᄀᆞᄉᆞ.(문전 고사라고 합니다. 문전 고사.)
110005 @ 예.(예.)
110006 @ 보리밭 밟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보리밭 밟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110006 #1 건 정이월에.(그건 정이월에.)

110006 @ 정 이월에예?(정이월에요?)

110006 #1 으. 건 동사됭 올라오지 못하게.(으. 그건 동사되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110007 @ 걸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걸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7 #1 걸궁[307]은 우리가 말하민 요즘 농악이고 광대.(걸립은 우리가 말하면 요즘 농악이고 광대.)

110007 @ 아.(아.)

110007 #2 걸궁이라고 ᄆᆞ을에서 젊은 사름들 헹 걸궁을 꾸미주게. 걸궁을 꾸며 근에 막 들렁 뎅기멍 그 우이 사름 하나 태와. 막 노래 부르멍 소리허멍이. 사름들이 메여근에 뎅겨.(걸립이라고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 해서 걸립을 꾸미지. 걸립을 꾸며서 마구 들고 다니면서 그 위에 사람 하나 태워. 마구 노래 부르면서 소리하면서요. 사람들이 메고서 다녀.)

110007 @ 구경하고마씨?(구경하고요?)

110007 #2 구경허주게. 걸궁 마을제라고. 걸공.(구경하지. 걸립 마을제라고. 걸립.)

110007 @ 아.(아.)

110007 #2 마을에 돌아뎅기멍.(마을에 돌아다니면서.)

110007 @ 마을제 할 때 허는 거마씨?(마을제 할 때 하는 겁니까?)

110007 #2 마을제도 아니고. 젊은 사름들 그자 걸궁.(마을제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 그저 걸립.)

110007 @ 연초에만마씨?(연초에만요?)

110007 #1 정월에 보름 안짝에.(정월에 보름 안쪽에.)

110007 @ 예.(예.)

110007 #1 그자 광대놀이. 농악 놀이라. 이게. 우리가 말허민 시방 농악 놀이 마씀.(그저 광대놀이. 농악 놀이야. 이게. 우리가 말하면 시방 농악 놀이입니다.)

110007 #2 그자 아무 때나 허주. 삼월에도 허곡, 사월에도 허곡.(그저 아무 때나 하지. 삼월에도 하고, 사월에도 하고.)

110007 @ 예.(예.)

110007 #1 게난 포수허곡. 포수헹 꿩 하나 맞추왕 약도리[308]에 둘러 메곡. 총도 낭으로 있당. 목총이주. 멘들앙.(그러니까 포수하고. 포수해서 꿩 하나 맞추고 나서 양 어깨에 둘러메고, 총도 나무로 있다가. 목총이지. 만들고서.)

110007 @ 아.(아.)

---

307) '걸궁'은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면서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이다.

308) '약도리'는 노를 꼬아 짜서 만든 가방같은 것이다. 사냥꾼이 잡은 것들을 넣고 매고 다니는 가방이다.

110007 #1 또 지달피 감티[309] 쓰곡. 아주 그게 매력이라. 옛날 포수 역할 허는 게.(또 오소리 '감티' 쓰고. 아주 그게 매력이라. 옛날 포수 역할 하는 게.)

110007 #2 건 저 웃기는 거난게. 웃기는 거.(그것은 저 웃기는 거니까요. 웃기는 거.)

110007 @ 웃기는 거?(웃기는 거?)

110007 #2 젊은 사름들 막. 청년덜.(젊은 사람들 마구. 청년들.)

110007 #1 농악. 게난 요즘은 농악이옌 허주만은 그전 사름들은 걸궁. 그전이는 광대.(농악. 그러니까 요즘은 농악이라고 하지만 그전 사람들은 걸립. 그 전에는 광대.)

110007 @ 걸궁은 무사허는 거마씨?(걸립은 왜 하는 겁니까?)

110007 #2 그냥 노는 거. 젊은 사름들 그냥 놀이게. 헤영.(그냥 노는 거. 젊은 사람들 그냥 놀이지. 하면서.)

110007 @ 예.(예.)

110007 #1 놀곡. 매 부락에 저, 무시거 달집[310]들 캐우지 안 헙니까양.(놀고, 매 마을에 저, 무엇 달집들 태우지 않습니까?)

110007 @ 뭐마씨?(뭐요?)

110007 #1 달집, 달집.(달집, 달집.)

110007 @ 아, 달집.(아, 달집.)

110007 #1 육지서는 달집헹 캐웁주게, 육지는.(육지에서는 달집해서 태우지. 육지는.)

110007 @ 예.(예.)

110007 #1 헌데 여기는 경을 안 허고. 그 집에 강은에양 포수나 총 둘러멩 허는 놈이나 그디 꽹과리 대양 치는 놈이나.(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집에 가서 포수나 총 둘러메서 하는 놈이나 거기 꽹과리 대양 치는 놈이나.)

110007 @ 예.(예.)

110007 #1 집 주위를 액을 막기 위해서, 나쁜 걸 다 울리기 위해서 막 치멍 돌아 줍니다.(집 주위를 액을 막기 위해서 나쁜 걸 다 울리기 위해서 마구 치면서 돌아 줍니다.)

110007 @ 아, 그믄 동네를 경허멍 다 다니는 거구나예?(아, 그러면 동네를 그렇게 하면서 다 다니는 거군요.)

110007 #1 게난 집집마다 강. 가서 허는데.(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서. 가서 하는데.)

110007 #2 안 허는 집도 있곡. 아이 가는 집도 있곡.(안 하는 집도 있고, 안 가는 집도 있고.)

110007 @ 예.(예.)

309) '감티'는 짐승의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든 방한모의 총칭이다.

310) '달집'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달맞이할 때에, 물을 질러 밝게 하려고 생소나무 가지 따위를 묶어 쌓아 올린 무더기다.

110007 #2 경헹 들어가면은 그냥 못 보내주. 돈 줘야.(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냥 못 보내지. 돈 줘야.)

110007 @ 아하. 돈을 줘야.(아하, 돈을 줘야.)

110007 #2 돈을 줘사주게. 그 사름들 오랑 해줘신디게.(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 와서 해줬는데.)

110007 @ 예.(예.)

110007 #2 이제는 희사한다, 희사한다 허주만은 그때는 게 돈이라도 얼마 줘사 그 사름들 게.(이제는 희사한다, 희사한다 하지만은 그때는 그게 돈이라도 얼마 줘야 그 사람들이.)

110007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10007 #1 돈이 그때는 경 나도 안 허곡.(돈이 그때는 그렇게 나지도 않고.)

110007 #2 그때 무사 돈이 날 때가 이서서게.(그때 왜 돈이 날 때가 있었어.)

110007 #1 쏠 ᄀᆞ튼 거나 무신거 중요한 거 ᄒᆞ쏠씩 줍니다게.(쌀 같은 거나 뭐 중요한 거 조금씩 줍니다.)

110007 #2 돈 주는 디도 있곡.(돈 주는 데도 있고.)

110007 @ 애써시난 이거 받앙 갑서 허는 거구나게.(애썼으니까 이거 받아서 가십시오 하는 거군요?)

110007 #2 겡 혜영 게.(그렇게 하고서.)

110008 @ 입춘 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입춘 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8 #1 입춘절인 뭐 업고.(입춘절에는 뭐 없고.)

110008 @ 제 말앙마씨.(제 말고요.)

110008 #1 입춘에는 엇수다.(입춘에는 없습니다.)

110008 @ 붙이는 것도 엇고.(붙이는 것도 없고.)

110008 #1 거 무신 입춘대길 해서 글 잘 쓰는 사름들 글 자랑헹 친척들 다 붙이렌 헹 다 헤줍니다. 그자 그거.(거 무슨 입춘대길 해서 글 잘 쓰는 사람들 글 자랑해서 친척들 다 붙이라고 해서 다 해줍니다. 그저 그거.)

110008 @ 그건 특별한 거 아니고?(그건 특별한 거 아니고?)

110008 #1 그거 기자 뭐 특별한 거렌 아니로 생각헙니다.(그거 그저 뭐 특별한 거라고 안 생각합니다.)

110008 @ 입춘에 놈의 집 가지 말렌 허는 말도 이수게.(입춘에 남의 집 가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110008 #2 새철날?(입춘?)

110008 @ 예.(예.)

110008 #2 새철날 새벡이 예펜이 가면 밧디 검질 짓나[311]고.(입춘 새벽에 여편네가 가면 밭에 김 깃는다고.)

311) '짓다'는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난다는 의미이다. 표준어 '깃다'의 의미이다.

110008 @ 아하.(아하.)

110008 #2 흐흐. 검질 짓나고 예펜 오지 못하게.(흐흐. 김 깃는다고 여편네 오지 못하게.)

110008 @ 검질 짓나는 게 뭔고.(김 깃는다는 게 뭔고,)

110008 #2 검질 많이 나는 거. 짓어.(김 많이 나는 거. 깃어.)

110008 @ 아, 짓어.(아, 깃어.)

110008 #2 산듸밧디나 보리밧디나 막 농사지면은 그 밧디 검질 짓넨. 검질이 많이 낭.(밭벼밭에나 보리밭에나 막 농사지으면 그 밭에 김 깃는다고, 김이 많이 나서.)

110008 #1 그 사름신디 또 다른 말 골아줘불어.(그 사람한테 또 다른 말 말해줘 버려.)

110008 #2 새철 나민 여자 못 오게 헤여.(입춘 나면 여자 못 오게 해요.)

110008 @ 게난 무산고마씨?(그러니까 왜인가요?)

110008 #2 가지도 안 헤여.(가지도 안 해.)

110008 #1 경헌데 몰랑 왓다 말이우다.(그런데 몰라서 왔다 말입니다.)

110008 @ 예?(예?)

110008 #2 그믄 욕 들어. 하하하.(그러면 욕 들어, 하하하.)

110008 #1 욕보다도 검질을 도저히 짊어지왕 보내불여.(욕보다도 김을 도저히 짊어지어서 보내버려.)

110008 @ 아.(아.)

110008 #1 그게 그 방서가 이서. 제주도에 특별한. 입춘에. 검질을 꼭 지왕 보내불메.(그게 그 방사가 있어. 제주도에 특별한. 입춘에. 김을 꼭 지어서 보내버리지.)

110008 @ 검질을 지왕 보내마씨?(김을 지어서 보내요?)

110008 #1 으으. ᄒᆞ쏠이라도.(으으. 조금이라도.)

110008 @ 예.(예.)

110008 #1 새철날 아침이 무시거 허레 와시니. 영허멍.(입춘날 아침에 뭐 하러 왔니. 이렇게 하면서.)

110008 @ 그믄 둘 다 어떵 안 헤여마씨? 검질도 하영 안 나고 그 사람도 욕 안 먹고마씨?(그러면 둘 다 어떻지 않습니까? 김도 많이 안 나고 그 사람도 욕 안 먹습니까?)

110008 #1 그게, 방서라는 거주. 재수가 없을 시에.(그게, 방사라는 거지. 재수가 없을 시에.)

110008 #2 입춘 새철 제일 체암에 새해 드는 거라고.(입춘 입춘 제일 처음에 새해 드는 거라고.)

110008 @ 아.(아.)

110008 #1 재수 엇다 시에 경허는 거우다.(재수 없다 시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0008 #2 경허민 게.(그렇게 하면.)

110008 #1 우리가 경 헤난 거.(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거.)

110008 @ 우리 어머니도 새철날 놈의 집 가지 말렌 헤신디.(우리 어머니도 입춘날 남의 집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110008 #2 지금도 새철날 우리 어드레 가구정 아니 헤여. 놈의 집이.(지금도 입춘 날 우리 어디 가고 싶지 안 해. 남의 집에.)

110008 @ 지금도예?(지금도요?)

110008 #2 새철 넘엉이나 시간 봥 시간 넘엉 경헤사 가주.(입춘 넘어서나 시간 봐서 시간 넘어서 그렇게 해야 가지.)

110008 #1 그전이는 시간도 어디 이서수과.(그 전에는 시간도 어디 있었습니까?)

110008 @ 예.(예.)

110008 #1 입춘이옌 허민 오늘 새철 드는 날이여 허믄 기자 시간도 엇이 무조건 예펜들은 집에 앚앙. 욕 들어.(입춘이라고 하면 오늘 입춘 드는 날이야 하면 그저 시간도 없이 무조건 여편네들은 집에 앉아서. 욕 들어.)

110008 #2 갈 디가 엇주게 그때는. 그 옛날은.(갈 데가 없지. 그때는. 그 옛날은.)

110008 @ 예.(예.)

110008 #1 옛날은 그나저나 ᄐᆞ다진 하르방들이라낫주. 쉬염도 이만씩 해둠서. 아이고.(옛날은 그나저나 까다로운 할아버지들였었지. 수염도 이만씩 해두면서. 아이고.)

2월

110009 @ 영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영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9 @ 바당 아닌 디 송당도 영등 올 때 나갈 때 따로 뭐 합니까?(바다 아닌데 송당도 영등 올 때 나갈 때 따로 뭐 합니까?)

110009 #2 안 헤여.(안 해.)

110009 @ 안 허는구나.(안 하는구나.)

110009 #2 기자 영등 들어 왐져. 영등 나감져. 그런 거뿐이주. 이디사 무신.(그저 영등 들어온다. 영등 나간다. 그런 거뿐이지. 여기야 무슨.)

110009 @ 따로 제 지내거나 그런 거 엇어마씨?(따로 제 지내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110009 #2 아니, 엇어.(아니. 없어.)

110009 @ 예.(예.)

110009 #2 옛날 김녕 살 때는 영등굿 헤낫어. 열사흘 날 영등굿. 이월 열사흘 날 바당가에.(옛날 김녕 살 때는 영등굿 했었어. 열사흘 날 영등굿, 이월 열사흘 날 바닷가에서.)

110009 #1 헤벤가 영등제를 허는 거.(해변가 영등제를 하는 거.)

110009 #2 바당가에서.(바닷가에서.)

110009 @ 예.(예.)

110009 #1 시방도 허는디. 시방도 큰 예산을 들영 허는디. 영등 할망이냐 하르방이냐 헌디.(시방도 하는데. 시방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영등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하는데.)

110009 #2 우장 쓴 영등이여, 후루메 입은 영등이여.(도롱이 쓴 영등이여, 두루마기 입은 영등하고.)

110009 @ 아.(아.)

110009 #1 게난 남잔지 여잔지.(그러니까 남잔지 연잔지.)

110009 #2 우장 쓴 영등은 비만 온덴 허고.(도롱이 쓴 영등은 비만 온다고 하고.)

110009 @ 예.(예.)

110009 #1 십오일 간 계속.(십오일 간 계속.)

110009 #2 날이 좋은 영등은 후루메 입엉 온덴 허주게.(날이 좋은 영등은 두루마기 입어서 온다고 하지.)

110009 #1 게난 할망이냐 하르방이냐 허는디 저디선 할망으로 나완게.(그러니까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하는데 저기에선 할머니로 나오더라.)

110009 #2 하하하하.(하하하하.)

110009 #1 영등굿 허는 디 보난게. 송당 당내 심방들 그디 강 굿허는 거 보난에.(영등굿 하는 거 보니까. 송당 당내 무당들 거기 가서 굿하는 거 보니까.)

110009 @ 예, 예.(예, 예.)

110009 #1 영등 할망이 막 곰보딱지라.(영등 할머니가 마구 곰보딱지야.)

110009 #2 하하하하.(하하하하.)

110009 @ 아.(아.)

110009 #1 경 그려놩 그걸 노리더만.(그렇게 그려놔서 그걸 놀리더라만.)

110009 #2 영등 할망이 들어 왓저, 영등 하르방이 들어왓저 허난에.(영등 할머니가 들어 왔어. 영등 할아버지가 들어왔어 하니까.)

110009 #1 게난 추운 할망이여, 추운 하르방이여.(그러니까 추운 할머니여, 추운 할아버지여.)

110009 @ 아.(아.)

110009 #1 그때에는 이월. 게난 여러 가지우다양. 정월 보름에 들어 왕 이월 보름에 나간다는 부락이 있고.(그때에는 이월.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정월 보름에 들어 와서 이월 보름에 나간다는 마을이 있고.)

110009 #2 아니라, 정월 그믐에 들어왕 이월 보름에 나가주.(아니라, 정월 그믐에 들어와서 이월 보름에 나가지.)

110009 @ 아.(아.)

110009 #1 겨난 소섬 강 구젱이 까먹으멍 가불멍.(그러니깐 우도에 가서 소라

까먹으면서 가버려.)

110009 #2 열사흘 날은.(열사흘 날은.)

110009 @ 예? 정월 그믐에 들어 왕 이월 보름에 나가고마씨?(예? 정월 그믐에 들어와서 이월 보름에 나가고요?)

110009 #2 으. 정월 그믐에 들어왕 이월 보름에 나가.(으. 정월 그믐에 들어와서 이월 보름에 나가.)

110009 @ 아.(아.)

110009 #2 경허민 이월 열나흘 날은 소섬 강 보름날은 구젱기 보말 까 먹엉 열엿새 날은 육지로 나간덴 허주게.(그렇게 하면 이월 열나흘 날은 우도 가서 보름날은 소라, 고둥 까 먹고서 열엿새 날은 육지로 나간다고 하지.)

110009 @ 아.(아.)

110009 #1 게서 영등굿을 허는 거주.(그래서 영등굿을 하는 거지.)

110009 #2 경헹 영등제를 허는 거주. 헤벤서는.(그렇게 해서 영등제를 하는 거지. 해안가에서는.)

110009 @ 음.(음.)

110009 #1 에이, 언 영등 들어왓저. 아이고. 속담에.(에이, 추운 영등 들어왔어. 아이고. 속담에.)

110009 #2 비만 오민 비오는 영등 들어온 셍이여.(비만 오면 비오는 영등 들어온 모양이야.)

110009 @ 농사 헐 때는 어떤 영등 들어와야 좋아마씨?(농사 할 때는 어떤 영등 들어와야 좋습니까?)

110009 #2 그런 문제는 엇주.(그런 문제는 없지.)

110009 #1 그런 전설은 엇어난.(그런 전설은 없었어.)

110009 @ 이월 날씨만 말허는 거꽈?(이월 날씨만 말하는 겁니까?)

110009 #1 야. 이월에 날씨만.(야, 이월에 날씨만.)

110009 @ 어떤 영등 들어오민 아무것도 엇어분덴 허멍예?(어떻게 영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져버린다고 하면서요?)

110009 #1 그거 다 까먹어 가부난.(그거 다 까먹고 가버려서.)

110009 #2 영등이 나가불면은. 영등이 들어왕 다 까먹어부난 빈 거 있젠 ᄀᆞᆫ는 거.(영등이 나가버리면. 영등이 들어와서 다 까먹어버리니깐 빈 거 있다고 말하는 거.)

110009 @ 예.(예.)

110009 #1 겡 빈 거. 구젱기 소라, 보말들이영 무신 다 잡아 먹어불어.(그래서 빈 거. 소라, 소라. 고둥들이랑 무슨 다 잡아 먹어버려.)

110009 #2 소라영 퀴도 줄어. 영등 왕 나가불민이 ᄒᆞ쏠 줄어. 줄곡.(소라하고 성게도 여위어. 영등 와서 나가버리면 조금 여위어. 여위고.)

110009 @ 예.(예.)

110009 #1 아니, 엇어, 엇어. 강 보민 많이 비어불여.(아니, 없어, 없어. 가서 보면 많이 비어버려.)

110009 #2 소라 구젱기도 보민 빈 거이.(소라 '구젱기'도 보면 빈 것이.)

110009 @ 예.(예.)

110009 #1 성게 ᄀᆞ튼 것도 비어불여.(성게 같은 것도 비어버려.)

110009 @ 아.(아.)

110009 #1 기름이 없어. 문 똥만 이서. 성게 ᄀᆞ튼 것도 까보민.(기름이 없어. 모두 똥만 있어. 성게 같은 것도 까보면.)

110009 #2 영등이 나가불민 ᄒᆞ쏠 빈 것이 많아 불여.(영등이 나가버리면 조금 빈 것이 많아버려.)

110009 @ 예.(예.)

110009 #1 게난양 그 헤벤 사름들 보니까 바릇 잡아[312] 먹으레 갯ᄀᆞᆺ이를 가질 안 헙디다.(그러니까요 그 해변 사람들 보니까 '바릇' 잡아 먹으러 바닷가에 가지를 않습니다.)

110009 @ 뭐 엇일 거난예?(뭐 없을 거니까요?)

110009 #1 하근 게 줄언. 하르방인가 할망인가가 왕 까 먹어불엉 가 부니까.(모든 게 여위었어.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가 와서 까 먹어버리고 가버리니까.)

110009 @ 예, 예.(예, 예.)

110009 #1 준다 이거라. 야. 게난 ᄒᆞᆫ 달 까지 헤벤 사름들 안 가불여.(여윈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한 달까지 해변 사람들 안 가버려.)

3월

110011 @ 한식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한식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1 #1 예. 청명 한식 다 헷수다.(예. 청명 한식 다 했습니다.)

110011 #2 옛날은 청명 한식이라고. 청명에도 하고 한식에도 헤낫주.(옛날은 청명 한식이라고. 청명에도 하고 한식에도 했었지.)

110011 @ 제를 지내는 거마씨?(제를 지내는 겁니까?)

110011 #1 청명 한식이옌 헷어. 이게 제주도에서.(청명 한식이라고 했어. 이게 제주도에서.)

110011 #2 청명 한식이 넘어가민 이제 봄이 왓다 허는 거 아니? 봄이 왓다 허는 거주.(청명 한식이 넘어가면 이제 봄이 왔다 하는 거 아니? 봄이 왔다 하는 거지.)

110011 @ 예.(예.)

110011 #1 봄은 원래 동지로부터 시작뒈는 거주마는 한식이라는 게 찬밥을 올리는 제사 멩질을 헤낫수다. 옛날은.(봄은 원래 동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한식이

312) '바릇 잡다'는 바닷가 돌밭에서 소라, 성게 따위를 잡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라는 게 찬밥을 올리는 제사 명절을 했었습니다. 옛날은.)

110011 @ 예.(예.)

110011 #1 기타 잡부 목동 칠성 그자 그 개자취라고 해서 쓸데기 없이 다니는 조상들을 위해서 한식을 헤낫수다.(기타 잡부 목동 칠성 그저 그 개자취라고 해서 쓸데기 없이 다니는 조상들을 위해서 한식을 했었습니다.)

110011 @ 예.(예.)

110011 #1 밥도 더운 밥이 아니라수다. 원래.(밥도 더운 밥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110011 @ 예.(예.)

110011 #1 게난 한자도 '찰 한'자로 나왓수다만은.(그러니까 한 자도 '찰 한'자로 나왔습니다만.)

110011 #2 우리 한식 안 헤나부난 몰라. 흐흐흐.(우리 한식 안 해서 몰라. 흐흐흐.)

110011 #1 으, 양반들은 스물 네 절기에 전부 멩질을 헤낫수다.(으, 양반들은 스물 네 절기에 전부 명절을 했었습니다.)

110011 @ 예.(예.)

110011 #1 헨데 그게 한식이여 단오여, 무시거여 엇어져 가부난 불가 두서너 개 베끼 안 헤는데 이 절기에 절기 명절을 계속 헷수다.(그런데 그게 한식하고 단오하고 무엇여 없어져 가버리니까 불가 두서너 개 밖에 안 하는데 이 절기에 절기 명절을 계속 했습니다.)

110011 @ 예.(예.)

110011 #1 우리 조상들도 이조말기에 잘 살 때는 멩질을 다 헷는데 츠츠 세상이 바빠가곡 헤가니까 이젠 멩질도 추석하고 설멩질 베끼 엇수게? 그 전이는양.(우리 조상들도 이조 말기에 잘 살 때는 명절을 다 했는데 차차 세상이 바빠지고 하니까 이젠 명절도 추석하고 설 명절 밖에 없잖습니까? 그 전에는.)

110011 @ 예.(예.)

110011 #2 오월 멩질.(오월 명절.)

110011 #1 오월 단오 같은 거 철철허게 헤십주.(오월 단오 같은 거 철저하게 했었지요.)

110011 #2 오월 단오 헤낫주게.(오월 단오 했었지요.)

110011 @ 음.(음.)

110011 #1 오월 단오 같은 거, 한식 그거 뭐 곡우, 그런 거 다 헤나수게.(오월 단오 같은 거, 한식 그거 뭐 곡우, 그런 거 다 했었습니다.)

110011 @ 곡우도마씨?(곡우도요?)

110011 #1 으.(으.)

110011 @ 그건 어떤 멩질마씨?(그건 어떤 명절입니까?)

110011 #1 그건 ᄀᆞ슬 곡석. ᄀᆞ슬 곡석 어떻든지 잘 뒈게 헤줌써 헤연.(그건 가

을 곡식. 가을 곡식 어떻든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했어.)

110011 @ 아.(아.)

110011 #1 그냥 의지헐 때 엇이난 천지신명께 비는 거주마씨.(그냥 의지할 때 없으니까 천지신명께 비는 겁니다.)

110011 @ 곡우 때도 제 지내마씨?(곡우 때도 제 지냅니까?)

110011 #1 예, 기냥. 우리 밥 헹 먹는 거 죽허게 조상들 나시 걸영 놓읍니께.(예, 그냥. 우리 밥 해서 먹는 거 나란하게 조상들 몫 떠서 놓습니다.)

110011 @ 아, 따로 제물 제숙 준비하지는 않고마씨?(아, 따로 제물 제수 준비하지는 않고요?)

110011 #1 아니 따로, 그때는 경 제숙을 자꾸 허젠 허민 힘들어수게.(아니 따로, 그때는 그렇게 제수를 자꾸 하려고 하면 힘들었잖아요.)

110011 @ 게난 그냥 밥 올리고.(그러니까 그냥 밥 올리고.)

110011 #1 누게 말 맞자가나 국이나양 특히 옛날은 해어가 어렵고 기자 꿩이나 사농허는 사람신디 강 빌어당은엥에 갱 끓영.(누구 말 맞다나 국이나 특히 옛날은 생선이 어렵고 그저 꿩이나 사냥하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다가 그리고 나서 갱 끓여서.)

110011 @ 예.(예.)

110011 #1 추추 줄어져 가난 그전에는 머리 곶은 제숙이다 헤영 해어는 안 떨어져나신디.(차차 줄어져 가니까 그전에는 머리 갖춘 제수다 해서 생선은 안 떨어졌었는데.)

110011 @ 예.(예.)

110011 #1 이제는 그런 조상들에 허는 건 해어가 어서도. 야. 해어가 시면 좋은 거주게.(이제는 그런 조상들에 하는 건 생선이 없어도. 야. 생선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

110011 @ 밥 국 올령 농사 잘 뒈게 헤줍서. 비는 거 아니예?(밥 국 올려서 농사 잘되게 해주십시오. 비는 거 아닙니까?)

110011 #1 야, 야.(야, 야.)

4월

110013 @ 초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초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3 #2 그건 절간이 강.(그건 절간에 가서.)

110013 #1 서당에서 선생이 그 전에는 글청에 한문들 배우러 뎅긴단 말이우다.(서당에서 선생이 그전에는 서당에 한문을 배우러 다녔다 말입니다.)

110013 @ 예.(예.)

110013 #1 거기두 사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서당에서 등불놀이를 합니다. 서당 당기는 아이들한테. 그때 서당에서는 초파일이 큰 멩질이라.(거기도 사월 초파일이

라고 해서 서당에서 등불놀이를 합니다. 서당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 때 서당에서는 초파일은 큰 명절이었어.)

110013 @ 아.(아.)

110013 #1 그 때 강을 주곡. 강이옌 헌건 지금 상장입주.(그 때 강을 주고 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상장이지.)

110013 @ 아.(아.)

110013 #1 강이옌 헤야 돈도 아니고 종이에 선생 관인 찍어. 글 썽 너는 성적이 우수헤서 말이여, 뭘 잘했고 상을 줍니다. 서당선생들이.(강이라고 해야 돈이 아니고 선생의 관인 찍어. 글 써서 너는 성적이 우수해서 말이야, 뭘 잘 했고 상을 줍니다. 서당 선생들이.)

110013 @ 예.(예.)

110013 #1 초파일에 대대적으로 등불을 답니다. 아주 거대하게 출립주마씨.(초파일에 대대적으로 등을 답니다. 아주 거대하게 차립니다.)

110013 @ 예.(예.)

110013 #1 절간에서도 서당이 어서지난 뭐 등 행진이여 뭐 헙디다만은. 서당에서 나온 모냥입디다. 서당에서 문여 흔 걸로 봅주.(절간에서도 서당이 없어지니까 뭐 등 행진이여 뭐 합디다만. 서당에서 나온 모양입디다. 서당에서 먼저 한 걸로 봅니다.)

110013 @ 아, 절에는 안 다녀수과?(아, 절에는 안 다녔습니까?)

110013 #2 절간에도 다니당 아이들 지네냥으로 다니켄 허난 아이 다니멘.(절간에도 다니다가 아이들 자기들대로 다닌다고 하니까 안 다녀요.)

110013 #1 이제는 다 위임을 줘불연. 이제 우리는 절간이고 뭐고 필요가 엇고.(이제는 다 위임을 줘버렸어. 이제 우리는 절간이고 뭐고 필요가 없고.)

110013 @ 예.(예.)

110013 #2 이젠 팔십이 넘으난 필요가 없다고.(이젠 팔십이 넘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110013 #1 먹고 자고 그자 삼박자 인생이난.(먹고 자고 그저 삼박자 인생이니까.)

110014 @ 절기: 입하, 소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절기: 입하, 소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4 #2 음력 사월. 농사 지젠 허민 옛날 산듸 갈 때는 ᄉᆞ월 달에 산듸 갈주게.(음력 사월. 농사 지으려고 하면 옛날 밭벼 갈 때는 사월 달에 밭벼 갈지.)

110014 @ 예.(예.)

110014 #2 지금은 콩 같은 것은 유월 나사 농사 짓주만은.(지금은 콩 같은 것은 유월 되어야 농사짓지만.)

110014 @ 예.(예.)

110014 #2 더덕 가는 사람들은 양력 오월 초 사월 말. 더덕 가는 사람들은 경허

고.(더덕 가는 사람들은 양력 오월 초사월 말. 더덕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110014 @ 예.(예.)

110014 #2 우리 옛날 농사헐 때는 사월 달에 산듸 갈아.(우리 옛날 농사할 때는 사월 달에 밭벼 갈아.)

110014 @ 음력 사월마씨?(음력 사월입니까?)

110014 #2 으. 음력 사월.(응. 음력 사월.)

110014 @ 아, 산듸를 갈아.(아, 밭벼를 갈아.)

110014 #2 으. 산듸 갈아.(응. 밭벼를 갈아.)

110014 @ 기구나예.(그렇군요.)

5월

110015 @ 오월에는 오월 명절헤낫덴 헤수게.(오월에는 오월 명절했었다고 했잖아요.).

110015 #2 응. 오월 멩질 우리 헤난.(응. 오월 명절 우리 했었어.)

110015 @ 건 어떵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0015 #2 오월 단오 무시거 어떵 어떵 헤여.(오월 단오 무엇 어떻게 어떻게 해.)

110015 @ 준비허는 거 똑같아마씨?(준비하는 거 똑같습니까?)

110015 #2 으. 준비허는 건 똑같으주게.(으. 준비하는 건 똑같지요.)

110015 @ 떡도 겨울에 먹는 거, 여름에 먹는 거 틀린 건 없고마씨?(떡도 겨울에 먹는 거. 여름에 먹는 거 다른 건 없습니까?)

110015 #2 똑같아. 출리는 건. 친떡, 곤떡[313].(똑같아. 차리는 건. 시루떡, '곤떡'.)

110015 @ 친떡, 곤떡예.(시루떡, '곤떡'에.)

110015 #2 으. 그런 거. 똑 같아.(으. 그런 거, 똑 같아.)

110015 @ 정월 멩질에 새벡국 같이 단오에는 그런 건 어서마씨?(정월 명절에 '새벡국' 같이 단오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110015 #2 그런 건 엇고. 아침이 새벡국이라고 옛날은 기자 새벡국.(그런 건 없고, 아침에 '새벡국'이라고 옛날은 그저 '새벡국'.)

110015 @ 오월 멩질에도마씨?(오월 명절에도요?)

110015 #2 단오 때는 어서. 팔월 멩질에도 엇곡.(단오 때는 없어. 팔월 명절에도 없고.)

110015 @ 아침에 진설하고.(아침에 진설하고.)

110015 #2 으. 그냥 기자 상 상 거 기자 멩질에.(으. 그냥 그저 사서 산 거 그저 명절에.)

110015 @ 예.(예.)

313) '곤떡'은 흰떡이기도 하지만 송편을 말한다.

110015 #2 정월 멩질이던 오월 멩질이던 출리는 건 똑같으난.(정월 명절이든 오월 명절이든 차리는 건 똑같으니까.)

110015 @ 음. 상 차령 제 지내곡.(음. 상 차려서 제 지내고.)

110015 #2 으. 제 지내곡. 제 지내영 그자 그거.(응. 제 지내고. 제 지내서 그저 그거.)

110016 @ 절기: 망종, 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절기: 망종, 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6 #1 농사지을 때 망종, 하지 같은 거.(농사지을 때 망종, 하지 같은 거.)

110016 @ 망종 때는.(망종 때는.)

110016 #1 망종 전이는 벼양, 우리말로 산듸라고. 시방 변데.(망종 전에는 벼 말입니다. 우리말로 밭벼라고. 시방 벼인데.)

110016 @ 예.(예.)

110016 #1 망종에 소를 걸여야 된다. 이 말은 망종 전이 씨를 뿌리면은 시방은 기후가 바꾸와졌는데 옛날에는 망종 전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씨를 뿌리면은 망종에 소를 걸여야 된다.(망종에 소를 걷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망종 전에 씨를 뿌리면 시방은 기후가 바뀌어 졌는데 옛날에는 망종 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씨를 뿌리면 망종에 소를 걷게 해야 된다.)

110016 @ 예?(예?)

110016 #1 이 벼, 새싹이 나서 두 개, 세 개 입이 나온다 이겁주.(이 벼, 새싹이 나서 두 개, 세 개 잎이 나온다 이거지요.)

110016 @ 그믄 소가 밧 걸어가게 허는 거구나예.(그러면 소가 밭 걸어가게 하는 거군요.)

110016 #1 야, 그겁주. 씨 뿌령은에.(야, 그거지요. 씨 뿌려서.)

110016 @ 아.(아.)

6월

110017 @ 닭 잡아먹는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닭 잡아먹는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7 #2 으. 유월 스무 날.(으. 유월 스무 날.)

110017 @ 아, 유월 스무 날.(아, 유월 스무 날.)

110017 #2 으. 유월 스무 날. 우리도 옛날 집이 돍을 질루주. 질루왕 빙에기 께왕.(으. 유월 스무 날. 우리도 옛날 집에 닭을 길렀지. 길러서 병아리 깨워서.)

110017 @ 빙에기 께왕.(병아리 깨워서.)

110017 #2 그 빙에기가 훌구면은 흔 사름이 ᄒᆞ나씩 잡아.(그 병아리가 굵으면 한 사람이 하나씩 잡아.)

110017 @ 진짜마씨?(진짜입니까?)

110017 #2 으.(으.)

110017 #1 요즘은 삼복날만 헤였주만은 그때는 스무 날, 유월 스무 날.(요즘은 삼복 날만 했지만 그때는 스무 날, 유월 스무 날.)

110017 @ 예.(예.)

110017 #2 으. 유월 스무 날.(으. 유월 스무 날.)

110017 @ 무사 돍 먹엇인가예?(왜 닭 먹었을까요?)

110017 #2 아이덜 힘 출리렌.(아이들 힘 차리라고.)

110017 @ 아, 힘 출리렌.(아, 힘 차리라고.)

110017 #2 으, 힘 출리렌. 아이들 빙에기 ᄒᆞ나썩. ᄒᆞᆫ 사름이.(으, 힘 차리라고. 아이들 병아리 하나씩. 한 사람이.)

110017 @ 아.(아.)

110017 #2 우리도 옛날 겅헷주게. 빙에기 께왕 집이서. 빙에기 ᄃᆞᆨ새기 열여섯 개이, ᄒᆞᆫ 열다섯 개나 헤영.(우리도 옛날 그랬지. 병아리 깨워서 집에서. 병아리 달걀 열여섯 개요. 한 열다섯 개나 해서.)

110017 @ 헤. 집이서 께왕.(헤. 집에서 깨워서.)

110017 #2 응. ᄃᆞᆨ을 아쪙 놔두면은 ᄒᆞᆫ 니딸을 하나 냉겨 열다섯 개. 어떤 때는 그거 열여섯 개를 문딱 께울 때.(응. 닭을 앉혀 놔두면은 한 '니딸'을 하나 남겨 열다섯 개. 어떤 때는 열여섯 개를 모두 깨울 때.)

110017 @ 아.(아.)

110017 #2 어떤 때는 열다섯 개 아쪙 나두민 열두 개 꺼우나 열시 개 꺼우나. (어떤 때는 열다섯 개 앉혀 나두면 열두 개 까주나 열세 개 까주나.)

110017 @ 그믄 그걸 키왕.(그러면 그걸 키워서.)

110017 #2 응. 겅헹 그 빙에기를 키와.(응. 그렇게 해서 그 병아리를 키워.)

110017 @ 뭐 주멍마씨?(뭐 주면서요?)

110017 #2 무시거 주어. 기냥 마당에 내불민 뎅기멍 벌거지 줏엉 먹곡.(무엇 줘. 그냥 마당에 내버리면 다니면서 벌레 주워 먹고.)

110017 @ 벌거지 먹곡, 주넹이도 먹곡.(벌레 먹고, 지네도 먹고.)

110017 #2 으. 주넹이고 벌거지고 봐지민 몬 주서 먹어불어게, 우영에도 뎅기멍이.(응. 지네고 벌레고 보이면 모두 주워 먹어버려. 텃밭에도 다니면서요.)

110017 @ 아.(아.)

110017 #2 경허당 보민 똥소루기 와근에 빙에기 차 가불곡 허주게.(그렇게 하다 보면 똥솔개 와서 병아리 차 가버리고 하지.)

110017 @ 똥소루기마씨?(똥솔개요?)

110017 #2 똥소루기옌 헌거, 가메기보다 큰 거. 얼룩얼룩헌 거.(똥솔개라고 한 거, 갈매기보다 큰 거. 얼룩얼룩한 거.)

110017 @ 아.(아.)

110017 #2 그거 옛날은 똥소루기, 똥소루기 허주게. 그것이 왕 빙에기 차 가불여.(그거 옛날은 '똥소루기', '똥소루기' 했지. 그것이 와서 병아리 채 가버려.)

110017 @ 아고. 마당에 거마씨?(아고. 마당에 거요?)

110017 #2 으. 마당에고 우영에고 뎅기당이 그것이 놀아뎅기당 빙에기 차 가불여. 발로 확 헹은에.(으. 아당에고 텃밭에고 다니면서 그것이 날아다니다가 병아리 채 가버려. 발로 확 해서.)

110017 @ 을큰ᄒᆞ쿠다, 경허믄.(억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10017 #2 어이구. 경헤근에 그 빙아리 키우민 아이들 우리도 다섯 개. 혼 놈이 혼 ᄆᆞ리썩 다섯 ᄆᆞ리.(어이구. 그렇게 해서 그 병아리 키우면 아이들 우리도 다섯 개. 한 놈이 한 마리씩 다섯 마리.)

110017 @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곡.(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고.)

110017 #2 으. 그 빙에기 잡아근에 다 혼 놈이 하나썩.(응. 그 병아리 잡아서 다 한 놈이 하나씩.)

110017 @ 예.(예.)

110017 #2 그 때는 낭 떼엉 불 솜을 때난 솟디 다 담아낭 솖앙.(그 때는 나무 때서 불 뗄 때니까 솥에 다 담아 놔서 삶아서.)

110017 @ 한꺼번에예?(한꺼번에요?)

110017 #2 으. 솖앙.(으. 삶아서.)

110017 @ 뭐 놩 솖아.(뭐 놔서 삶아.)

110017 #2 무시거 경헹 곤쏠 놔근에게 죽 쑤엉. 죽도 주국, 돍도 하나썩 건져줘 두엉. 흐흐.(무엇 그렇게 해서 흰쌀 놔서 죽 쑤어. 죽도 주고, 닭도 하나씩 건져 두고서.)

110017 @ 예. 돍에 다른 건 안 놔마씨?(예. 닭에 다른 건 안 놓습니까?)

110017 #2 아이고. 지금 뭐 무신 마농이여, 대추여 놈주만은 옛날은 그런 게 어디셔게.(아이고. 지금 뭐 무슨 마늘이여, 대추여 놓지만 옛날은 그런 게 어디 있었어?)

110017 @ 예.(예.)

110017 #2 기냥 돍만 솖앙 줬주.(그냥 닭만 삶아서 줬지.)

110017 @ 소곰 조금 놓고.(소금 조금 놓고.)

110017 #2 으. 소곰 쪼곰이나 놩. 근이나 놩 기자. 경헷주.(응. 소금 조금이나 놔서. 간이나 놔서 그저. 그렇게 했지.)

110017 @ 예.(예.)

110017 #2 옛날은 어디 대추는 시멍 마농은 어디 경 놀 생각은 나멍. 흐흐흐.(옛날은 어디 대추는 있으며, 마늘은 어디 그렇게 놓을 생각은 나며. 흐흐흐.)

110017 @ 게난.(그러니까.)

110017 #2 아무 생각도 엇이. 기자 그 빙아리 놩 솖으멍 줬주.(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 병아리 놔서 삶으면서 줬지.)

110017 @ 육지는 삼복이렌 허는 게 있는데예.(육지는 삼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10017 #2 으. 육지는 삼복. 삼복 날 허메.(응. 육지는 삼복. 삼복 날 해.)

110017 @ 제주도는 삼복이렌 뚜로 엇수과?(제주도는 삼복이라고 따로 없습니까?)

110017 #2 제주도는 옛날 유월 스무 날이주.(제주도는 옛날 유월 스무 날이지.)

110017 @ 아.(아.)

110017 #2 초복에 잡앙 먹는 사람도 실거라.(초복에 잡아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야.)

110017 @ 아, 초복에도. 돍말앙 다른 건 안 먹읍니까?(아, 초복에도. 닭 말고 다른 건 안 먹습니까?)

110017 #2 여름에 뭐, 수박이나베끼.(여름에 뭐, 수박이나밖에.)

110017 @ 예.(예.)

110017 #2 옛날 수박 사당은에 아이들 하나에 하나썩 수박도 사당 주민 벵허게 곡지 둘랑은에. 홈팡 먹당은에 그거 이제 두껭 더껑.(옛날 수박 사다가 아이들 하나에 하나씩 수박도 사다 주면 뱅하게 꼭지 도려내어서. 홈파서 먹다가 그거 이제 뚜껑 덮어서.)

110017 @ 더꺼?(덮어?)

110017 #2 으.(으.)

110017 @ 하하하하.(하하하하.)

110017 #2 더껏당 또 홈파 먹곡.(덮었다가 또 홈파 먹고.)

110017 @ 옛날은 수박 싸낫지예?(옛날은 수박 쌌었지요?)

110017 #2 수박도 싸나서.(수박도 쌌었어.)

110017 @ 예.(예.)

110017 #2 경 큰 것도 아니 사곡. 요만씩 헌 거.(그렇게 큰 것도 안 사고. 이만큼 한 거.)

110017 @ 아.(아.)

110017 #2 혼 놈이 ᄒᆞ나. 경헹 상왕 혼 놈이 하나썩 주민 쌉지도 안 허주게. 이녁 것만썩.(한 놈이 하나. 그렇게 사와서 한 놈에 하나씩 주면 싸우지도 안 했지. 자기 것만큼씩.)

110017 @ 그니까.(그러니까.)

110017 #2 으. 이녁 거만썩.(응. 자기 거만큼.)

110017 @ 예.(예.)

110017 #2 영 곡지 둘랑 홈파 먹당 그거 톡 덕거당 또 홈파 먹곡 허멍. 하하하하.(이렇게 꼭지 도려내어서 홈파 먹다가 그거 톡 덮었다가 또 홈파 먹고 하면서. 하하하하.)

110017 @ 하하하하.(하하하하.)

110017 #2 아이고 옛날은 경 허멍 살앗주.(아이고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7월

110020 @ 칠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칠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0 #2 칠월 칠석에는 우리 옛날에는, 어둑엉 보민 저 칠성벨이 셔. 우린 그거만 봐낫어.(칠월 칠석에는 우리 옛날에는, 어두워서 보면 저 칠성별이 있어. 우린 그것만 봤었어.)

110020 @ 음.(음.)

110020 #2 칠성벨. 칠성날 아이고 저 칠성벨 봐사켜 허멍.(칠성별. 칠성날 아이고 저 칠성별 봐야지 하면서.)

110020 @ 예.(예.)

110020 #2 그 벨이 딱 일곱 개라이. 두 개, 니 개, 으섯 개, 영 헹 일곱 개허곡.(그 별이 딱 일곱 개야.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하고.)

110020 @ 예.(예.)

110020 #2 벨이 막 모두아져. 담월[314]이라고이.(별이 마구 모아져. 담월이라고.)

110020 @ 담월.(담월.)

110020 #2 으. 담월. 그거 보곡.(응. 담월. 그거 보고.)

110020 @ 그건 뭐꽈?(그건 뭡니까?)

110020 #2 별이 막 모다진 거. 둥글케 영 모다진 거.(별이 마구 모아진 거. 둥글게 이렇게 모아진 거.)

110020 @ 별 구경허는 것만 했구나예?(별 구경하는 것만 했었군요?)

110020 #2 으으. 그런 거만 봐 낫주. 뭐 허는 건 엇어.(응응. 그런 거만 봤었지. 뭐 하는 건 없어.)

110021 @ 백중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백중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1 #2 칠월에 백중. 백중 그거 바령 뭐시 허는 사름들은 백중하곡 바령 뭐시 안 허는 사름은 안 허곡.(칠월에 백중. 백중 그거 '바령[315]' 뭐 하는 사람들이 백중하고 바령 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110021 @ 아.(아.)

110021 #2 소나 몰이나 ᄒᆞ곡.(소나 말이나 하고.)

110021 @ 예.(예.)

110021 #2 옛날은 헤벤 강 몰아당 봐주민 쏠을 두 관대 줘나서.(옛날은 해변 가서 몰아다가 봐주면 쌀을 두 관대 줬었어.)

110021 @ 아. 하나 몰아당 봐주민.(아. 하나 몰아다가 봐주면.)

110021 #2 으. 쉐를 봐주켄 헤영 헤벤 강 몰앙 오주게이.(응. 소를 봐주겠다고 해서 해변 가서 몰아서 오지.)

---

314) '담월'은 여름에 보이는 것으로 별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315) '바령'은 똥과 오줌을 받아 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110021 @ 예.(예.)

110021 #2 그 헤벤 쉐 신 집이 강.(그 해변 소 있는 집에 가서.)

110021 @ 헤벤의 쉐를?(해변의 소를?)

110021 #2 으. 이 송당이나 덕천이나 왕 쉐를 봐주켄 헤영 그 쉐를 아졍 왕.(응. 이 송당이나 덕천이나 와서 소를 봐주겠다고 해서 그 소를 가져 와.)

110021 @ 예.(예.)

110021 #2 쉐 하나 봐주는 갑이 쏠 두 관대이. 그거 받아당 먹는 사름은 그걸 받아당 먹어.(소 하나 봐주는 값이 쌀 두 관대야. 그거 받아다가 먹는 사람은 그걸 먹는 사람은 그걸 받아다가 먹어.)

110021 @ 예.(예.)

110021 #2 쉐를 경 모다당 한 쉰나문 개, 설나문 개이.(소를 그렇게 모아다가 한 쉰 여 개, 서른 여 개.)

110021 @ 예.(예.)

110021 #2 헤영 모두아 오면 그거를 매날 그걸 보레 이제 목장에 놩은에 ᄀᆞ꾸멍 멕이당.(해서 모아 오면 그거를 맨날 그걸 보러 이제 목장에 놔서 가꾸면서 먹이다가.)

110021 @ 예.(예.)

110021 #2 옛날은 걸름도 잘 엇은 사름덜 밧디 왕 어둑우민 그 쉐를 막 담아.(옛날은 거름도 잘 없는 사람들 밭에 와서 어두우면 그 소를 막 담아.)

110021 @ 예.(예.)

110021 #2 담으민 밤에 그 쉐이 똥 싸노민 그게 걸름이라이.(담으면 밤에 그 소가 똥 싸놓으면 그게 거름이라.)

110021 @ 예.(예.)

110021 #2 그게 걸름이난 이제 백중 돌아오면은 그 바령허는 사름은 그 밧디 강 백중을 허는 거주게이.(그게 거름이니까 이제 백중 돌아오면 그 '바령'하는 사람은 그 밭에 가서 백중을 하는 거지.)

110021 @ 아, 그 밧디 강.(아, 그 밭에 가서.)

110021 #2 백중에도 돌레떡 허곡, 밥 허곡.(백중에도 '돌레떡' 하고, 밥 하고.)

110021 @ 예.(예.)

110021 #2 그자 바닷고기 제숙허곡. 출리는 거 크게 어서. 떡은 돌레떡만 하곡.(그저 바닷고기 제수하고. 차리는 거 크게 없어. 떡은 '돌레떡'만 하고.)

110021 @ 예.(예.)

110021 #2 쉬를 안 놓주.(소를 안 놓지.)

110021 @ 아.(아.)

110021 #2 상웨떡[316]을 해도 속에 쉬를 안 놔.('상왜떡'을 해도 속에 소를 안

316)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이다.

놔.)

110021 @ 쉬 안 놓는 떡으로.(소 안 놓는 떡으로.)

110021 #2 돌레떡 못허민 그런 상웨떡을 해도 소곱에 쉬를 안 헤여. 백중에는.('돌레떡' 못하면 그런 '상웨떡'을 해도 속에 소를 안해요. 백중에는.)

110021 @ 무산고마씨?(왜입니까?)

110021 #2 그거 무사산듸.(그거 왜인지.)

110021 @ 예.(예.)

110021 #2 경허곡 쉐나 물이나 엇은 사름은 백중 안 허고.(그렇게 하고 소나 말이나 없는 사람은 백중 안 하고.)

110021 @ 아. 쉐나 물 키우는 사람들예?(아. 소나 말 키우는 사람들요?)

110021 #2 으. 이제도 헴주. 쉐 신 집이들은.(으. 이제도 하지. 소 있는 집들은.)

110021 @ 아.(아.)

110021 #2 지금도 헤여. 백중.(지금도 해요. 백중.)

110021 @ 예.(예.)

110021 #2 옛날은 백중도 딱 제사 모냥으로이 흔 열두 시 뒈어야 그 밧디서 제를 지내여.(옛날은 백중도 딱 제사 모양으로 한 열두 시 되어야 그 밭에서 제를 지내.)

110021 @ 밤 열두 시마씨?(밤 열두 시입니까?)

110021 #2 으. 흔 열한 시 넘엉. 밤이 강 벌영 그디서 강 아장 놀주게들 사름들도 가근에.(응. 한 열한 시 넘어서. 밤에 가서 벌여서 거기에서 가서 앉아 놀지들. 사람들도 가서.)

110021 @ 음.(음.)

110021 #2 게당 열두 시 뒈면은 백중에 제 지내영 허영 설렁들 와나신디. 지금은 어두무민 강 헤영 와불어.(그러다가 열두 시 되면 백중에 제 지내서 하고 그만두고 왔었어. 지금은 어두우면 가서 하고 와버려.)

110021 @ 확 헹 와불엄구나예.(후다닥 해서 와버리는군요?)

110021 #2 으으. 소 신 사름들.(응응. 소 있는 사람들.)

110021 @ 예.(예.)

110021 #2 쉐 이신 디 강 기자 축사 에염이 강.(소 있는 데 가서 그저 축사 옆에 가서.)

110021 @ 축사 에염에.(축사 옆에.)

110021 #2 으. 축사 에염에 강 헹 그자 와불어.(응. 축사 옆에 가서 하고 그저 와버려.)

1102021 @ 예.(예.)

1100021 #2 옛날하곤 틀리주게.(옛날하고는 다르지.)

110022 @ 모래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모래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2 #2 여름에 삼양에들 모래뜸 허는 사람들 가주게.(여름에 삼양에 모래찜 하는 사람들 가지.)

110022 @ 허레 가낫수과?(하러 갔었습니까?)

110022 #2 아니. 그런 거 우리 안 뎅겨봔.(아니. 그런 거 우리 안 다녀봤어.)

110023 @ 물맞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물맞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3 #2 물 맞는 것도 우리도 절물이라고.(물 맞는 것도 우리도 절물이라고.)

110023 @ 송당서마씨?(송당에서요?)

110023 #2 으. 한 일주일도 살곡, 혼 오일도 살곡.(응. 한 일주일도 살고, 한 오일도 살고.)

110023 @ 아.(아.)

110023 #2 거기 먹을 거 헹 강.(거기 먹을 거 해서 가서.)

110023 @ 먹을 것도 헹 강.(먹을 것도 하고 가서.)

110023 #2 먹을 거 아지곡. 쏠이나 뭐나 가지곡. 이불테기나 담요테기나 아지곡.(먹을 거 가지고. 쌀이나 뭐나 가지고. 이불이나 담요나 가지고.)

110023 @ 예.(예.)

110023 #2 경헹 강 그디 강 일주일 사는 사람, 오 일 사는 사람들이.(그렇게 하고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 사는 사람, 오 일 사는 사람들이.)

110023 @ 아하.(아하.)

110023 #2 경헹 살멍 그 물을 맞주게. 매날 ᄒᆞ루 혼 번.(그렇게 살면서 그 물을 맞지. 맨날 하루 한 번.)

110023 @ 무사 맞는 거마씨? 놀레 간 거 아니잖아예?(왜 맞는 겁니까? 놀러 간 거 아니잖습니까?)

110023 #2 놀레 간 거 아니주게. 하근 디 아프니까.(놀러 간 거 아니지. 모든 데 아프니까.)

110023 @ 아프니까.(아프니까.)

110023 #2 아프니까 물맞으레. 물이 탁탁탁 털어지건.(아프니까 물 맞으러. 물이 탁탁탁 떨어지면.)

110023 @ 예.(예.)

110023 #2 지금은 막 목욕탕도 잇고이 목욕탕 가민 강 냉수도 맞곡. 더운 물도 맞곡 허주만은 그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엇주게게. 모욕탕도 엇곡.(지금은 막 목욕탕도 있고 목욕탕 가면 가서 냉수도 맞고. 더운 물도 맞고 하지만 그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없지. 목욕탕도 없고.)

110023 @ 여기 저기 아프난.(여기 저기 아프니까.)

110023 #2 경허난 그 물 맞으레 절물이옌 헌디 가민 허리 아픈디 뼈 아픈디 그런 거 물 맞으레 가주게.(그러니까 그 물 맞으러 절물이라고 한 데 가면 허리 아픈 데 뼈 아픈 데 그건 거 물 맞으러 가지.)

110023 @ 음. 밥 헹 그디서 먹어가멍예?(음. 밥 해서 거기서 먹어가면서요?)
110023 #2 으. 그디 먹을 거 앗앙 강 먹곡게.(응. 거기 먹을 거 가지고 가서 먹고.)
110023 #1 그디서 살앗주.(거기서 살았지.)
110023 @ 예.(예.)
110023 #2 살멍 헤영.(살면서 해.)
110023 #1 시방이믄 야영이주.(시방이면 야영이지.)

8월

110025 @ 벌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벌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5 #2 팔월더렌 벌초.(팔월으로는 벌초.)
110025 @ 언제 헤마씨?(언제 합니까?)
110025 #2 팔월 초하룻날 문중벌초.(팔월 초하룻날 문중벌초.)
110025 #1 게난 옛날은 무조건.(그러니 옛날은 무조건.)
110025 #2 옛날은 문중벌초도 어서서. 이녁만씩.(옛날은 문중벌초도 없었어. 자기만큼.)
110025 @ 이녁만씩.(자기만큼.)
110025 #2 으. 이녁만씩 헤영 말앗주이.(으. 자기만큼 해서 말았지.)
110025 @ 예.(예.)
110025 #2 지금이난 궨당이여 문중이여 헴주. 옛날은 원.(지금이니까 친척이다 문중이다 하지. 옛날은 원.)
110025 #1 그 ᄉᆞ월달에 입하. ᄉᆞ월이면은 옛날은 이 들녘이 불을 놔낫수다. 불을.(그 사월 달에 입하. 사월이면 옛날은 이 들녘에 불을 놨었습니다. 불을.)
110025 @ 아, 불마씨?(아, 불요?)
110025 #1 쉐, 말 진드기 다 태왕 죽여 불곡.(소, 말 진드기 다 태워 죽여 버리고.)
110025 @ 예.(예.)
110025 #1 새 풀이 나근엥에 쉐ᄆᆞᆯ이 잘 먹기 위해서 입하 뒈면은.(새 풀이 나서 마소가 잘 먹기 위해서 입하되면.)
110025 @ 예.(예.)
110025 #2 밧 갈 쉐, 밧 가는 큰 쉐는 풀을 닷 뒈를 튿넨 하곡.(밭 갈 소, 밭 가는 큰 소는 풀을 닷 되를 뜯는다고 하고.)
110025 @ 닷 뒈마씨?(닷 되입니까?)
110025 #1 아니, 쉐는 혼 말을 튿곡. ᄆᆞᆯ은 닷 뒈를 튿넨 헙주. 그런 속담이 이수다.(아니, 소는 한 말을 뜯고. 말은 닷 되를 뜯는다고 하지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10025 @ 예.(예.)

110025 #1 게서 우리가 영 이땅 풀덜 나는 거 봉은에 절기를 몰랑 강남썹이 물쿱만이만 뒈면은.(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따가 풀들 나는 거 봐서 절기를 몰라 강낭콩 잎이 말발굽만큼만 되면.)

110025 @ 예.(예.)

110025 #1 물발쿱만이만 강남썹이 나면은 쉐는 풀을 혼말 튿곡, 물은 닷 뒈를 튿넨.(말발굽만큼만 강낭콩 잎이 나면 소는 풀을 한 말 뜯고 말은 닷 되를 뜯는다고.)

110025 @ 예.(예.)

110025 #1 경허근에 허면은 경허면 고사리들이 만권[317]이라.(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고사리들이 '만권'이라.)

110025 @ 아까 불 놓는 건 뭐꽈?(아까 불 놓는 건 뭡니까?)

110025 #1 그것은 들에 억새들이 ᄀᆞ득을 거 아니꽈? 천연적인 삼림이라수게.(그것은 들에 억새들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천연적인 삼림이었습니다.)

110025 @ 네.(네.)

110025 #1 물허는 사름이든지 쉐허는 사람이든지 강만 허믄 불을 놔낫수다.(말하는 사람이든지 소하는 사람이든지 가기만 하면 불을 놨습니다.)

110025 @ 예.(예.)

110025 #1 게민 산이곡 오름이곡 붙어 자칩주.(그럼 산이고 오름이고 붙어 젖히지.)

110025 @ 예.(예.)

110025 #1 붙어 자치면은 물쉐들이, 물은 입하 사월절이 닷 뒈를 튿으면은 배가 좀 덜 붇고, 밧갈 쉐도 입하 사월절이 들어 한 말을 튿어도 배가 좀 골으다는 거라.(붙어 젖히면 마소들이, 말은 입하 사월절에 닷 되를 뜯으면 배가 좀 덜 불고, 밭 갈 소도 입하 사월절에 들어 한 말을 뜯어도 배가 좀 골다는 거야.)

110025 @ 예.(예.)

110025 #1 게서 그 속담에 뭐이든지 입하 ᄉᆞ월절이 뒈면 쉐도 방목시켜불고, 물도 방목 시켜붑니께.(그래서 그 속담에 뭣이든지 입하 사월절이 되면 소도 방목시켜버리고, 말도 방목 시켜버립니다.)

110025 @ 음.(음.)

110025 #1 이건 어느 정도 먹을만이 풀이 컸다 헤서.(이건 어는 정도 먹을 만큼 풀이 컸다 해서.)

110025 @ 예.(예.)

110025 #1 그 전에는양, 눈 온 때는 눈이 짚엉 쉐도 죽고 물도 통이 줄랑 죽어붑니다.(그 전에는, 눈이 온 때는 눈이 깊어서 소도 죽고 말도 통을 짧아서 죽어버립니다.)

317) '만권'은 문맥에서 '가득차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제보자가 한자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다.

110025 @ 예.(예.)

110025 #1 눈이 짚엉. 노리도 심어낫수다. 눈이 얼리면은 노루는 눈 얼린 디서 팍팍 자국이 빠지는데 사람은 눈 우로 밥주.(눈이 깊어서. 노루도 잡았었습니다. 눈이 얼면 노루는 눈 얼린 데서 팍팍 자국이 빠지는데 사람은 눈 위로 밟지.)

110025 @ 예.(예.)

110025 #1 그런 때는 말이 통제는 거라. 들녘에 이신 물이 기동을 못헤여.(그런 때는 말이 통제는 거야. 들녘에 있는 말이 기동을 못 해요.)

110025 @ 예.(예.)

110025 #1 못헤영 굶어 죽곡 허는데 노리는 노리 사농을 나갑니다.(못해서 굶어 죽고 하는데 노루 사냥을 나갑니다.)

110025 @ 예.(예.)

110025 #1 노리사농을 나가면은 사름이 노리도 심곡. 노리는 팍팍 빠지니까. 얼마 지청 못 뛰어.(노루 사냥을 나가면 사람이 노루도 잡고. 노루는 팍팍 빠지니까 얼마 지쳐서 못 뛰어.)

110025 @ 예.(예.)

110025 #1 야, 사람은 그 위로 튀어. 경헹 노루 잡곡.(야, 사람은 그 위로 뛰어. 그렇게 해서 노루 잡고.)

110025 @ 아.(아.)

110025 #1 옛날은 육식헤영 노리, 꿩.(옛날은 육식해서 노루, 꿩.)

110025 @ 예.(예.)

110025 #1 꿩도 눈만 경허면은 꿩도 무시거허고.(꿩도 눈만 그렇게 하면 꿩도 뭐하고.)

110025 @ 예.(예.)

110025 #1 비둘기는 갑작스레 경 얼민 나무에 앚앗당 뒤갈라창.(비둘기는 갑작스레 그렇게 얼면 나무에 앉았다가 뒤로 거꾸러져.)

110025 @ 예.(예.)

110025 #1 이제도 경헙니다. 강 보민 서너 개씩 떨어졍 죽엉 이서.(이제도 그렇게 합니다. 가서보면 서너 개씩 떨어져 죽어 있어.)

110025 @ 추웡은에.(추워서.)

110025 #1 야, 추웡,(야, 추워서.)

110025 @ 팔월 벌초 골아줍서.(팔월 벌초 말해주십시오.)

110025 #2 이녁만썩 헷주게.(자기만큼씩 했었지.)

110025 #1 옛날도 추추히 후손이 뒈어가니까 이거 이삼백 년 뒈 가니까 조상들 숫자가 만헤여 갑주게.(옛날도 차차 후손이 되어 가니까 이거 이삼백 년 되어 가니까 조상들 숫자가 많아 가지.)

110025 @ 예, 예.(예. 예.)

110025 #1 우리 증조부, 고조, 칠대 팔대 영 뒈엄수게.(우리 증조부, 고조, 칠대

팔대 이렇게 됩니다.)

110025 @ 예.(예.)

110025 #1 영허니까 벅차니까 친족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팔월 초하루로 하건디가 어느 시절이라.(이렇게 하니까 벅차니까 친족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팔월 초하루로 하기로 한데가 어느 시절이라.)

110025 @ 예.(예.)

110025 #1 이 무덤이 조선말에 생겨수과? 이 무덤 생겨서. 아 나 다 잊어불연.(이 무덤이 조선말에 생겼습니까? 이 무덤이 생겨서. 아 나 다 잊어버렸어.)

110025 @ 같이 허는 벌초를 뭐헨 헤여마씨?(같이 하는 벌초를 뭐라고 합니까?)

110025 #2 문중 벌초.(문중 벌초.)

110025 #1 이게 백 년이, 백 년 쯤 뒈엇수다.(이게 백 년이, 백 년 쯤 되었습니다.)

110025 @ 음.(음.)

110025 #1 조상이 만헤여 가곡 무덤은 하 가곡.(조상이 많아 가고 무덤은 많아 가고.)

110025 #2 모다정 제일 큰 하르방 신디 가면은 문종. 문종벌초.(모여서 제일 큰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문종. 문종벌초.)

110025 @ 예.(예.)

110025 #1 우리 시절엔 그런 거 어서나난. 하하하.(우리시절엔 그런 거 없었어. 하하하.)

110025 #1 여기는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칠십 멧 대 뒈어. 경헹 이천 몇 벡년 뒈어.(여기는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칠십 몇 대 되어. 그렇게 해서 이천 몇 백년 되어.)

110025 @ 예.(예.)

110025 #1 근디 우리 조상들은 저 광주에서 온 김계옌 헤도 약 삼백 멧년베끼 안 뒈엇수다.(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저 광주에서 온 김가라고 해도 약 삼백 몇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10025 @ 예.(예.)

110025 #1 겨난 아. 그 안에는 김00 장군이나 우리 선조들인데 몇 년 뒈수과?(그러니까 아. 그 안에는 김00 장군이나 우리 선조들인데 몇 년 됐습니까?)

110025 @ 아.(아.)

110025 #1 게난 문중 벌초한지 한 이백년베끼 안 뒛수게. 그게 제일 목적이고.(그럼 문중 벌초한 지 한 이백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게 제일 목적이고.)

110025 @ 예.(예.)

110025 #1 에 또 팔월에양, 그 또 이디서는 속담에 정월돌에 금년 일기를 다 판단합니다.(에 또 팔월에, 그 또 여기서는 속담에 정월달에 금년 일기를 다 판단합니다.)

110025 @ 그건 뭔 말이꽈?(그건 무슨 말입니까?)

110025 #1 그건 뭘 보고 판단하느냐 돌하고 ᄇᆞ름.(그건 뭘 보고 판단하느냐 달하고 바람.)

110025 @ 예.(예.)

110025 #1 게서 사월달에 ᄇᆞ름이 세면은 팔월에 딱 맞춘다는 겁주.(그래서 사월에 바람이 세면 팔월에 딱 맞는다는 거지요.)

110025 @ 예.(예.)

110025 #1 팔월은 추석도. 그 전이도 태풍이 이름을 못 지왕 어서부난 헷지만은 팔월돌엔 곡석이 무성할 때난 ᄇᆞ름은 막 경계를 헙니다.(팔월은 추석도. 그 전에도 태풍이 이름을 못 지어서 없어서 했지만 팔월 달엔 곡식이 무성할 때이니 바람을 막 경계를 합니다.)

110025 @ 예.(예.)

110025 #1 게서 팔월돌에는 사월돌에 ᄇᆞ름이 쎄면은 맞추고 구월달에는 오월돌에 ᄇᆞ름에 쎄면은 딱 맞추고. ᄇᆞ름이. 팔월에는 백중ᄀᆞ튼 거.(그래서 팔월 달에는 사월 달에 바람이 세면 맞히고 구월 달에는 오월 달에 바람이 세면 딱 맞히고. 바람이. 팔월에는 백중 같은 거.)

110025 #2 백중은 칠월에 허주, 팔월에 헙니까.(백중은 칠월에 하지. 팔월에 합니까?)

110025 #1 으, 맞아.(으, 맞아.)

110025 #2 팔월에는 멩질.(팔월에는 명절.)

110026 @ 팔월 멩질에 특히 허는 건 뭐 이수과?(팔월 명절에 특히 하는 건 뭐 있습니까?)

110026 #2 멩질이사 꼭같아. 출리는 것사.(명절이야 똑같아. 차리는 것이야.)

110026 @ 아, 꼭같아.(아, 똑같아.)

110026 #1 특히 안 출리는 게 이수다.(특히 안 차리는 게 있습니다.)

110026 @ 뭐마씨?(뭐예요?)

110026 #1 왜냐하면 어서부니까. 둑 굶는 칠월 팔월이니까.(왜냐하면 없으니까. 닭 굶는 칠월 팔월이니까.)

110026 @ 예?(예?)

110026 #1 칠월 팔월은 흉년이 아다로 하기 때문에 이 중산간은 고역을 많이 당합니다. 둑 줄 곡석이 엇다합니다.(칠월 팔월은 흉년이 딱 걸리기 때문에 이 중산간은 고역을 많이 당합니다. 닭 줄 곡식이 없다합니다.)

110026 #2 헤헤.(헤헤.)

110026 @ 아.(아.)

110026 #1 어려와. 어려우니까 잘 허젠 헤도 옛날부터 잘 못 헤낫수다.(어려워. 어려우니까 잘하려고 해도 옛날부터 잘 못 했었습니다.)

110026 #2 칠월 팔월엔 곡석도 안 들곡. 제일 어려운 때주게.(칠월 팔월엔 곡식

도 안 들고. 제일 어려운 때지.)

110026 @ 아, 어려왕.(아, 어려워서.)

110026 #1 추곡도 엇은 때고, 하곡도 경 많지 안헐 때우다.(추곡도 없을 때고, 하곡도 그렇게 많지 안할 때입니다.)

110026 @ 예.(예.)

110026 #1 하곡 헤봐야 보리, 조 헷당 먹는 건데. 보리도 경 많이 갈아보질 안헷수다.(하곡 해봐야 보리, 조 했다가 먹는 건데. 보리도 그렇게 많이 갈아보지를 않았습니다.)

110026 #2 거난 독 굶는 칠팔월 경헤낫주게. 옛날은.(그러니까 닭 굶는 칠팔월 그렇게 했었지. 옛날은.)

110026 @ 독도 굶고 사람도 먹을 거 엇고.(닭도 굶고 사람도 먹을 거 없고.)

110026 #2 으.(으.)

110026 @ 제도 지내기 어렵고.(제도 지내기 어렵고.)

110026 #1 야. 팔월 달에 고역을 크게 당해낫수게.(야, 팔월 달에 고역을 크게 당했었습니다.)

110026 @ 요새는 그때보다 낫인 거 닮은디예.(요새는 그때보다 나은 거 같은데요.)

110026 #2 요새도 팔월이 곡석 익지 안 헤여.(요새도 팔월에 곡식이 익지 않아.)

110026 @ 아, 익지 안 헤여.(아, 익지 않아.)

110026 #2 익지 안 헤여. 팔월달이 구물어야.(익지 않아. 팔월달이 저물어야.)

110026 @ 아, 구물어가사.(아, 저물어가야.)

110026 #2 으. 구물어사 콩도 익어.(으. 저물어야 콩도 익어.)

110026 @ 경헤사 과일도 나오고.(그렇게 해야 과일도 나오고.)

110026 #2 으으. 팔월 추석이 제일 어려운 때.(으으. 팔월추석이 제일 어려운 때.)

110026 @ 그 어려운 때 무사 멩질이 이서신가?(그 어려운 때 왜 명절이 있었는가?)

110026 #2 게매. 근디 팔월 멩질이 제일 크는 거라.(글쎄. 그런데 팔월 명절이 제일 큰 거야.)

110026 @ 젤 큰 멩질이꿰?(젤 큰 명절이지요?)

110026 #2 지금도 크주게.(지금도 크지.)

110026 #1 그 전부터 팔월 한가위, 한가위. 전통이 있는데.(그 전부터 팔월 한가위, 한가위, 전통이 있는데.)

110026 @ 예.(예.)

110026 #1 이 팔월은. 팔월배, 팔월배허는데. 팔월에 익는 곡식이 분명 있는 걸로 아는데 콩은 팔월배라는 명칭이 이십주.(이 팔월은. 팔월배, 팔월배하는데. 팔월에 익는 곡식이 분명 있는 걸로 아는데 콩은 팔월배라는 명칭이 있지요.)

110026 @ 그래도 뒤에 익는 거 아니꽈?(그래도 뒤에 익는 거 아닙니까?)

110026 #1 게난 이게.(글쎄 이게.)

110026 #2 아무 곡석도 팔월이 그물어사.(아무 곡식도 팔월이 저물어야.)

110026 #1 팔월에 분명 익는 곡석이 있을텐데.(팔월에 분명 익는 곡식이 있을텐데.)

9월

110028 @ 백로, 상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백로, 상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8 #1 백로 상강일이라는 건 곡석허는 사름들 대개 문인들이나 고명한 집에서는 다 제사를 춤 멩질을 지내난 거우다양.(백로 상강일이라는 건 곡식하는 사람들 대개 문인들이나 고명한 집에서는 다 제사를 참 명절을 지낸다는 겁니다.)

110028 @ 제사 멩질 말고마씨.(제사 명절 말고요?)

110028 #1 백로라는 것은 곡석을 익어가는 말이고. 상강일 넘은 곡석 눈 ᄀᆞᆷ앙 비라. 영헤낫수다.(백로라는 것은 곡식이 익어가는 말이고, 상강일 넘은 곡식 눈 감아서 베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110028 @ 예.(예.)

110028 #1 그건 뭐냐면 서리가 갑자기 내려불여.(그건 뭐냐면 서리가 갑자기 내려버려.)

110028 #2 상강일 넘어가민 상강이 지어불주게[318]. 상강을 지어부는 때문에 익지 안 헌 것도 상강일 넘어가가민 '복삭 헤불여'[319].(상강일 넘어가면 상강이 져버리지. 서리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익지 안한 것도 상강일 넘어가면 '복삭해버려'.)

110028 @ 아.(아.)

110028 #1 거난 상강일 전이 무조건.(그러니까 상강일 전에 무조건.)

110028 #2 상강일 전이 상강일 기다리지 말앙 눈 ᄀᆞᆷ앙이라도 비라.(상강일 전에 상강일 기다리지 말고 눈 감아서라도 베라.)

110028 @ 예.(예.)

110028 #1 눈 ᄀᆞᆷ앙 비라. 곡석 헤 들이라.(눈 감아서 베라. 곡식 해서 들이라.)

110028 @ 아.(아.)

110028 #1 조곰만 더 익히젠 허당은. 메밀 ᄀᆞ튼 건 상강일 넘엉 서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팍 죽어불여.(조금만 더 익히려고 하다가는. 메밀 같은 건 상강일 넘어서 서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팍 죽어버려.)

110028 @ 서리 맞으민 죽어불어.(서리 맞으면 죽어버려.)

110028 #2 으. 그냥 복삭헤불어.(으. 그냥 '복삭해버려'.)

110028 @ 아.(아.)

---

318) '상강이 지다'라는 표현은 서리가 내리다는 뜻이다.

319) '복삭하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110028 #2 여물이 안 들어. 게난 상강일 기다리지 말앙 상강일 전이 허라.(속이 안 들어. 그러니까 상강일 기다리지 말고 상강일 전에 해라.)

110028 #1 오월 망종은 보리 눈 곰앙 비렌 헷수다. 보리도.(오월 망종은 보리 눈 감아서 베라고 했습니다. 보리도.)

110028 @ 음.(음.)

110028 #1 망종만 뒈면 보리를 눈 곰앙 비어라.(망종만 되면 보리를 눈 감아서 베라.)

110028 #2 하하.(하하.)

110028 #1 또 추곡은 상강일만 넘기지 말앙 비어라.(또 추곡은 상강일만 넘기지 말고 베라.)

110028 #2 상강일 전이 눈 곰앙 비라. 옛날에 기자.(상강일 전에 눈 감아서 베라. 옛날에 그저.)

110028 @ 예.(예.)

110028 #2 상강일이 넘어가가민 상강이 저불민 곡석이 복삭헤불어.(상강일이 넘어가면 상강이 져버리면 곡식이 '복삭해버려'.)

10월

110029 @ 입동, 소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입동, 소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9 #1 곡석 다 해 들이민 게.(곡식 다 해서 들이면.)

110029 #2 시월달이 나면 보리나 갈 거주 뭐.(시월달이 나면 보리나 갈 거지 뭐.)

110029 @ 예.(예.)

110029 #2 보리나 갈곡 밀이나 기자.(보리나 갈고 밀이나 그저.)

110029 @ 집이서 겨울 준비허는 건 어서마씨?(집에서 겨울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110029 #1 서 톧는 거 있주. 피 헤다 노민.(낟알갱이 뜯는 게 있지. 피 해다 놓으면.)

110029 #2 피. 하하하.(피. 하하하.)

110029 #1 피, ᄀᆞ랑조[320] 해당 눌어[321] 노면은.(피, ᄀᆞ랑조 해다가 가려 놓으면.)

110029 #2 할망들 서 톧앙. 하하하.(할머니들 낟알갱이 뜯어서. 하하하.)

110029 #1 섣돌ᄁᆞ지 그 ᄒᆞ나ᄒᆞ나 고고리를 심으면서.(섣달까지 그 하나하나 이삭을 잡으면서.)

110029 #2 호미로 졸라.(호미로 잘라.)

---

320) 'ᄀᆞ랑조'는 조의 일종이다.

321) '눋다'는 짚이나 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둥그런 더미를 지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110029 #1 호미로 다 쫄라.(호미로 다 잘라.)
110029 #2 호미 이디 이렇게 놔둠서로.(낫 여기 이렇게 놔두면서.)
110029 @ 예.(예.)
110029 #2 이젠 틀 눗 헤당 고고리를 ᄀᆺ징하게 심어.(이젠 톳가리 해다가 이삭을 가지런히 잡아.)
110029 @ 예.(예.)
110029 #2 심어놩 호미로 톽 졸랑 요레 놓곡 흔쪽더렌 밀렷당 그건 무꺼당 쉐 주곡.(잡아놓고 낫으로 탁 잘라서 요기에 놓고 한쪽으로 밀었다가 그건 묶어다가 소 주고.)
110029 @ 아.(아.)
110029 #2 피 짚은 쉐 주곡.(피 짚은 소 주고.)
110029 #1 겐디 조하곡 피하곡 반질레기 섞어은엥 간다, 영헷어.(그런데 조하고 피하고 반반 섞어서 간다, 이렇게 했어.)
110029 @ 예.(예.)
110029 #1 조씨도 뿌리곡 피씨도 뿌려.(조 씨도 뿌리고 피 씨도 뿌려.)
110029 @ 예.(예.)
110029 #1 게민 짬빵이 될 거 아니꽈?(그러면 짬뽕이 될 게 아닙니까?)
110029 @ 예.(예.)
110029 #1 겨문 ᄀᆞ찌들 익어. 익으민 ᄀᆺ사 서 튿을 때가 문제라이.(그러면 같이들 익어. 익으면 금세 서 뜯을 때가 문제야.)
110029 @ 아.(아.)
110029 #1 흔짝에는 조코고리를 줍지고.(한쪽에는 조 이삭을 집고.)
110029 #2 요디는 피 심고 요디는 조코고리 줍지곡. 경헹 호미로 ᄌᆞ르면은.(요기는 피 잡고 요기는 조 이삭 집고. 그렇게 해서 낫으로 자르면.)
110029 @ 따로 놔 마씨?(따로 놓습니까?)
110029 #2 영 헹 조코고리 놓는 디 놓곡 피고고리 놓는 디 놓곡.(이렇게 해서 조이삭 놓는 데 놓고 피이삭 놓는 데 놓고.)
110029 @ 우와.(우와.)
110029 #1 짚은 밀렁당 소한티 주곡. 불도 때곡.(짚은 말렸다가 소한테 주고. 불도 때고.)
110029 #2 무꺼당 눌엇당 쉐 주곡.(묶어서 가렸다가 소 주고.)
110029 @ 예.(예.)
110029 #1 그런 건 사진을 찍어야 뒈는데. 시방 그런 거 힘들어.(그런 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시방 그런 거 힘들어.)
110029 #2 옛날은 밀도 튿아나서.(옛날은 밀도 뜯었어.)
110029 @ 아.(아.)
110029 #1 밀, 보리도 튿앗주.(밀, 보리도 뜯었지.)

110029 #2 오월돌에.(오월달에.)

110029 @ 호미로예?(낫으로요?)

110029 #2 오월돌에이 밀도 톹앙이 밀도 뭇으로 한 거 데몄당. 영 ᄀᆞᆺ징하게 심어근에게.(오월 달에 밀도 뜯어서 밀도 뭇으로 한 거 쌓아 두었다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잡아서.)

110029 #1 ᄒᆞ나ᄒᆞ나.(하나하나.)

110029 #2 ᄒᆞ나ᄒᆞ나 영 헹 끈엉이 날 조민 마당에 놩 도께로 두드려.(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끊어서 날 좋으면 마당에 놔서 도리깨로 두드려.)

110029 @ 아. 너무 어려웠다예.(아. 너무 어려웠네요.)

110029 #2 옛날은 밀도 톹아낫주게.(옛날은 밀도 뜯었었지.)

110029 #1 건 오월돌에.(그건 오월 달에.)

110029 @ 서 톹는 건 시월에마씨?(낟알갱이 뜯는 건 시월에요?)

110029 #2 으. 시월에.(으. 시월에.)

110029 #1 시월 동짓달 섣달ᄁᆞ지, 기자.(시월 동짓달 섣달까지. 그저.)

110029 #2 서 톹는 거 겨울에.(낟알갱이 뜯는 거 겨울에.)

110029 @ 농한기난 영 허는 거마씨?(농한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110029 #1 응. 농한기난.(응. 농한기니까.)

110029 @ 뭇으로 장만해 놔둔 거를.(뭇으로 장만해 놔둔 거를.)

110029 #1 뭇으로 딱 눌어 나뒀당.(뭇으로 딱 가려 나뒀다가.)

110029 #2 옛날은 피고고리 고리[322] 놩.(옛날은 피이삭 '고리' 놓고.)

110029 @ 예.(예.)

110029 #2 고리 놩 정지 가운디 네 개 반듯하게 봉덕이라고 불살르는 봉덕[323].('고리' 놓고 부엌 가운데 네 개 반듯하게 '봉덕'이라고 불사르는 '봉덕'.)

110029 @ 예.(예.)

110029 #2 그 봉덕에 이젠 남 헤당 불살랑.(그 '봉덕'에 이젠 나무 해다가 불사르고.)

110029 @ 예.(예.)

110029 #2 그 우이 고리. 큰 구덕. 큰 거. 큰 대구덕. 대로 짠 거.(그 위에 '고리'. 큰 바구니. 큰 거. 큰 대 바구니. 대로 짠 거.)

110029 @ 음.(음.)

110029 #1 대 둥수리라고 허주.(대 둥수리라고 하지.)

110029 #2 대로 짠 거 큰 거 올려 놩.(대로 짠 거 큰 거 올려놔서.)

110029 2 예.(예.)

110029 #2 그 우이 피고고리 다 놩 그 불짐에 피고고리를 ᄆᆞᆯ리우는 거라.(그 위에 피이삭 다 놓고 그 불 김에 피 이삭을 말리는 거야.)

---

322) '고리'는 멸치 따위 바닷고기를 운반하는 데 쓰이는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다.
323) '봉덕'은 아궁이나 화로처럼 불을 지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110029 @ 물려예?(말려요?)

110029 #2 물리왕 이제 그거 멍석 한쪽에 피왕 그건 이젠 멍석 우이 비와놩 이젠 그걸 발로 보비여.(말려서 이제 그거 멍석 한쪽에 펴서 그건 이젠 멍석 위에 비워놓고 이젠 그걸 발로 비벼.)

110029 @ 보비여예?(비벼요?)

110029 #2 응. 막 그 듯듯한 걸.(응. 막 그 뜻뜻한 걸.)

110029 @ 아이고. 뜨고와.(아이고. 뜨거워.)

110029 #2 응.(응.)

110029 #1 발로 보비니 이 발이 아니 남아. 다 벳경.(발로 비비니 이 발이 안 남아. 다 벗겨져.)

110029 @ 하.(하.)

110029 #2 발로 보비영이 그거 이제 물 ᄀᆞ레에 강 골앙.(발로 비벼서 그거 이제 말 방아에 가서 갈아서.)

110029 @ 예.(예.)

110029 #2 그 밥은 맛 이서. 밥은 맛 조아.(그 밥은 맛있어. 밥은 맛좋아.)

110029 #1 ᄀᆞ소ᄒᆞ주.(고소하지.)

110029 @ 아.(아.)

110029 #2 ᄀᆞ시롱허주게. 고리에 물리운 거라부난.(고소하지. '고리'에 말린 거라서.)

110029 @ 음.(음.)

110029 #2 거이 옛날이.(그거 옛날에.)

110029 #1 벳디 말린 건 시방 밥 맛 어서.(볕에 말린 건 시방 밥 맛 없어.)

110029 #2 벳디 물린 건 밥이 살랑허곡. 고리에 헌 건.(볕에 말린 건 밥이 거슬거슬하고. '고리'에 한 건.)

110029 @ 그게 ᄒᆞ꼼 쪄 진 거 아니꽈?(그게 조금 쪄진 거 아닙니까?)

110029 #2 으으. 고리에 헌 건 ᄀᆞ시롱허곡.(으으. '고리'에 한 건 고소하고.)

110029 @ 예.(예.)

110029 #2 밥이 맛 이서 나서. 저이 옛날은.(밥이 맛있었어. 저 옛날은.)

110029 @ 고리에.('고리'에.)

110029 #2 고리에 놩 피 물리왕.('고리'에 놓고 피 말려서.)

110029 #1 고리.('고리'.)

11월

110030 @ 동지 풋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동지 팥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0 #2 동지에. 옛날은 우리 동지죽 안 쑤어봣저만은.(동지에. 옛날은 우리 동지죽 안 쑤어봤지만.)

110030 @ 기꽈?(그래요?)

110030 #1 옛날은양, 풋도 경 어려와낫수다.(옛날은, 팥도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110030 #2 옛날은 무사 풋 가는 집이사 풋 갈아근에.(옛날은 왜 팥 가는 집이야 팥 갈아서.)

110030 #1 풋 갈아은에 동지죽을 쑤어 먹엄도 해낫주만은.(팥 갈아서 동지죽을 쑤어 먹기도 했었지만.)

110030 #2 우리는 동지죽 안 쑤어봐난.(우리는 동지죽 안 쑤어봤었어.)

110030 @ 예.(예.)

110030 #2 그 때에는 어려우난 원 동지사 넘엄신디.(그 때에는 어려우니까 원 동지가 넘는지.)

110030 @ 동지죽 아니 헨마씨?(동지죽 안 했습니까?)

110030 #2 으. 뭐사 넘엄신디 원.(으. 뭐가 넘는지 원.)

110030 #1 무시 거나 넘엄신디 알안?(무엇이 넘는지 알았어?)

110030 @ 예.(예.)

110030 #2 나 친정에 신 때도 동지나 넘엄신디, 무신 죽이나 쑤엄신디 말아신디 원.(나 친정에 있을 때도 동지가 넘는지 무슨 죽이나 쑤는지 마는지 원.)

110030 @ 예.(예.)

110030 #1 친정에 저 사람 하르방은 포수헤나지 안 헤서. 가죽옷 입엉 말이야.(친정에 저 사람 할아버지는 포수 했었지 않아. 가죽옷 입어서 말이야.)

110030 #2 우리 외하르방.(우리 외할아버지.)

110030 @ 아.(아.)

110030 #1 사냥. 으. 외하르방.(사냥. 응. 외할아버지.)

110030 #2 꿩 맞히레, 노리 맞히레.(꿩 맞히러. 노루 맞히러.)

110030 @ 풋죽은 풋 이신 사름만 먹는 거꽈?(팥죽은 팥 있는 사람만 먹는 겁니까?)

110030 #2 게. 이신 사름만 먹는 거.(그럼. 있는 사람만 먹는 거.)

110030 @ 하하. 그믄 옛날 말앙 요새는마씨.(하하. 그럼 옛날 말고 요새는요?)

110030 #2 요새는 절간 가믄 동지죽 쑤지게.(요새는 절간 가면 동지죽 쑤지.)

110030 @ 아. 절간서.(아. 절간서.)

110030 #2 으. 절간이서 동지죽 쑤어.(응. 절간에서 동지죽 쑤어.)

110030 @ 예.(예.)

110030 #2 견디 아이 동지에는 죽 안 쑤곡.(그런데 아이 동지에는 죽 안 쑤고.)

110030 @ 아이 동지는 뭐꽈?(아이 동지는 뭡니까?)

110030 #2 아이 동지에는 죽 안 쑤엉 아무것도 안 허곡. 할망도 늙은 할망 동지에는 죽 쑤곡.(아이 동지에는 죽 안 쑤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할머니도 늙은 할머니 동지에는 죽 쑤고.)

110030 @ 아, 예. 어떤 때는 아이 동지고 어떤 때는 할망 동지꽈?(아, 예. 어떤 때는 아이 동지고 어떤 때는 할머니 동지입니까?)

110030 #2 아이 건 몰라. 아이 동지옌 헹 죽 아니 쑤난.(아이 건 몰라. 아이 동지라고 해서 죽 안 쑤니까.)

110030 #1 아이 동지옌 허민 거 전렴병이 많은덴.(아이 동지에는 하면 거 전염병이 많대.)

110030 @ 게난 어떤 때는 아이 동지 뒈부는 거꽈?(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이 동지 돼버리는 겁니까?)

110030 #2 몰르크라.(모르겠어.)

110030 #1 이것에서 찾아보젠 허난 그 비결을 시방. 하하하.(이것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비결을 시방. 하하하.)

110030 #2 하하하. 건 절간에서 내온 법이라.(하하하. 그건 절간에서 내온 법이야.)

110030 @ 아이 동지 때는 동지 죽을 안 쑤고.(아이 동지 때는 동지 죽을 안 쑤고.)

110030 #2 으. 늙은이 동지에는 죽을 쑤고.(응. 늙은이 동지에는 죽을 쑤고.)

110030 #1 전렴병이 많은다는 거주. 애기 동지에는.(전염병이 많다는 거지. 아기 동지에는.)

110030 @ 아.(아.)

110030 #2 늙은이 동지에는 죽을 쑤고.(늙은이 동지에는 죽을 쑤고.)

110030 #1 게난 봄이 쳇 번 드는 날. 드는 날이 동짓날이라.(그러니까 봄이 첫 번 드는 날. 드는 날이 동짓날이야.)

110030 @ 봄마씨?(봄이요?)

110030 #1 봄이 쳇 번 드는 날이 동지.(봄이 첫 번 드는 날이 동지.)

110030 @ 예.(예.)

110030 #1 풀이 새 ᄆᆞ음먹는 날.(풀이 새 마음먹는 날.)

110030 @ 아.(아.)

110030 #1 그때부터 어떤 식물이든지 새 ᄆᆞ음을 먹는다 헤서.(그때부터 어떤 식물이든지 새 마음을 먹는다 해서.)

110030 @ 아.(아.)

110030 #1 정시들한테 강 택일을 허젠 허민양 동지로부터 그 해를 새해를 시작헹 뭘 헙니다.(지관들한테 가서 택일을 하려고 하면 동지로부터 그 해를 새해를 시작해서 뭘 합니다.)

110030 @ 예.(예.)

110030 #1 입춘이니 뭐 어서.(입춘이니 뭐 없어.)

110030 @ 아.(아.)

110030 #1 동지로부터 제일 쳇 번 싹이 트기 시작.(동지로부터 제일 첫 번 싹이

트기 시작.)

110031 @ 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1 #1 남평날[324]이라고. 그 저 무시거 특이한 뭐 저, 약초나 헤영 약을 달이나 귀중한 거를 뭐 허는 날이우다.(납평날이라고. 그 저 무엇 특이한 뭐 저, 약초나 해서 약을 달이거나 귀중한 거를 뭐 하는 날입니다.)

110031 @ 아.(아.)

110031 #2 우린 남평날 안 들어봔.(우린 납평날 안 들어봤어.)

110031 @ 귀중한 거 뭔고마씨?(귀중한 거 뭡니까?)

110031 #1 아이 들어봔?(안 들어봤어?)

110031 #2 아니.(아니.)

110031 #1 약 ᄀᆞ튼 거 ᄃᆞᆯ일 때 남평날 보고.(약 같은 거 달일 때 납평날 보고.)

110031 @ 예.(예.)

110031 #1 이 미신 날 미신 날 좋은 날에 허는데 남평날에.(이 무슨 날 무슨 날 좋은 날에 하는데 납평날에.)

110031 @ 예.(예.)

110031 #1 우리가 뭐야 ᄃᆞᆨ 잡아 먹는 날이 무신 날이라.(우리가 뭐야 닭 잡아먹는 날이 무슨 날이라.)

110031 @ 유월 스무 날마씨?(유월 스무 날입니까?)

110031 #1 게난 스무 날 말앙. 초복, 중복, 말복 헹 ᄃᆞᆨ 먹는 날 아니꽈게.(그러니까 스무 날 말고. 초복, 중복, 말복 해서 닭 먹는 날 아닙니까.)

110031 @ 예.(예.)

110031 #1 게믄 남평날은 약초 ᄀᆞ튼 거 그런 거 택헹 ᄃᆞᆯ이는 날이 남평날이렌 헙니다.(그럼 납평날은 약초 같은 거 그런 거 택해서 달이는 날이 납평날이라고 합니다.)

12월

110033 @ 신구간[325]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신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3 #1 신구간이 그건 제주도만 이신덴 허는 거.(신구간이 그건 제주도만 있다고 하는 거.)

110033 @ 예.(예.)

110033 #1 석은 ᄃᆞᆯ이옌 허여.(썩은 달이라고 해.)

110033 #2 섣ᄃᆞᆯ은 석은 ᄃᆞᆯ.(섣달은 썩은 달.)

110033 @ 아.(아.)

---

324) '남평날'은 납평날이다. 동지 뒤의 셋째 술일이다.

325)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로 보통 일주일이 된다.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 등 여러 가지 금지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10033 #1 예로부터 말하면 섣돌은 석은 돌. 눈, 비, ᄇᆞ름만 와.(예로부터 말하면 섣달은 썩은 달. 눈, 비, 바람만 와.)

110033 @ 눈, 비, ᄇᆞ름만 와.(눈, 비, 바람만 와.)

110033 #1 눈, 비, ᄇᆞ름만 와서 야외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사도 걷어 들이난 어수게게.(눈, 비, 바람만 와서 야외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사도 거두어 들이니까 없잖아요.)

110033 @ 예.(예.)

110033 #2 섯이나 톤주게. 하하.(낟알갱이나 뜯지. 하하.)

110033 #1 그런 거나 허는 게베끠.(그런 거나 하는 거밖에.)

110033 @ 예.(예.)

110033 #1 동지 섣돌은 썩은 걸로 헹 무시 거 날짜를 아니 놔낫수다.(동지 섣달은 썩은 걸로 해서 무엇 날짜를 안 놓았었습니다.)

110033 #2 눈 오곡 무시 거 허당 보민 재게 넘어가분다.(눈 오고 무엇 하다가 보면 빨리 넘어가버린다.)

110033 @ 이사 갈 때.(이사 갈 때.)

110033 #1 게난 그거 신구간에.(그러니까 그거 '신구간'에.)

110033 @ 예.(예.)

110033 #1 게난 거양 제주도에 문인들이 귀양 완 몬 이걸 멘들아 내였는데.(그러니까 그거요 제주도에 문인들이 귀양 와서 모두 이걸 만들어 냈는데.)

110033 @ 아.(아.)

110033 #1 시방. 대한 후 육일부터 입춘 전 삼일ᄁᆞ지엔 허는데 흔 열흘간 일주일간 놓는데.(시방. 대한 후 육일부터 입춘 전 삼일까지라고 하는데 한 열흘간 일주일간 놓는데.)

110033 @ 예.(예.)

110033 #1 글쎄 견디 거기에서 그것만이면 좋은데.(글쎄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만이면 좋은데.)

110033 @ 예?(예?)

110033 #1 무슨 생은 동남방이 살극이여 평생 못가는 방이여. 나아들놈이 죽어도 못 갈 방, 살아도 못 갈 방.(무슨 생은 동남방이 살극이여. 평생 못가는 방이여. 나 아들놈이 죽어도 못 갈 방, 살아도 못 갈 방.)

110033 @ 아.(아.)

110033 #1 이 글바치들은 어디로 강 돌아아졍 멧 시간만 있다근에 솟만 가졍 가렌을 허거나.(이 문인들은 어디로 가서 돌아서 몇 시간만 있다가 솥만 가지고 가라고 하거나.)

110033 @ 이사헐 때 멘 처음 가져가는 거 솟이꽈?(이사할 때 맨 처음 가져가는 거 솥입니까?)

110033 #2 솟.(솥.)

110033 #1 솟. 솟하고 단지.(솥. 솥하고 단지.)
110033 @ 아.(아.)
110033 #2 지금도 이사 가젠 허민 가스가 젤 문여 감주게.(지금도 이사 가려고 하면 가스가 제일 먼저 가지.)
110033 @ 예.(예.)
110033 #2 밥통하고 가스허고 제일 문여 가는 거주.(밥통하고 가스하고 제일 먼저 가는 거지.)
110033 #1 하하하.(하하하.)
110033 #2 그거 조왕이니까.(그거 조왕이니까.)
110033 @ 음.(음.)
110033 #1 게난 그거 똑 따지우젠 허민 시끄러웁니다.(그러니까 그거 딱 따지려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110034 @ 집 구헐 때는 어떵 해난마씨?(집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34 #2 어떵 구헤여? 이 집 저 집 뎅기멍 집 빌립서 했주.(어떻게 구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 빌려 주십시오 했지.)
110034 @ 집 빌립서.(집 빌려 주십시오.)
110034 #2 으. 아이들 살리젠 허민 이 집 저 집 뎅기멍 집이나 싯건 빌립서, 방이나 있건 하나 빌립서.(으. 아이들 살리려고 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이나 있거든 빌려주십시오, 방이나 있거든 하나 빌리십시오.)
110034 @ 예.(예.)
110034 #1 그건 요 엊그제. 시방도 경헴주. 엇인 사름은 전화로 헹은에.(그건 요 엊그제. 시방도 그렇게 하지. 없는 사람은 전화로 해서.)
110034 @ 예.(예.)
110034 #2 시방은 전화나 시난 헴주만은.(시방은 전화나 있으니까 하지만.)
110034 #1 응, 전화나 시난 헴주만.(응, 전화나 있으니까 하지만.)
110034 #2 우리 시대에는 전화 엇인 때난.(우리 시대에는 전화 없을 때니까.)
110034 @ 아.(아.)
110034 #1 호호 방문.(호호 방문.)
110034 @ 하하하.(하하하.)
110036 @ 집알이 어떻게 합니까?(집들이 어떻게 합니까?)
110036 #1 집들이?(집들이?)
110036 #2 옛날 우린 그런 거 어서난.(옛날 우린 그런 거 없었어.)
110036 @ 집알이렌 헤마씨?('집알이'라고 합니까?)
110036 #1 이서 가민 이서잔치라고 있긴 이서수다.(이사 가면 이사 잔치라고 있긴 있었습니다.)
110036 @ 이서잔치마씨?(이사 잔치요?)
110036 #2 이서잔치.(이사 잔치.)

110036 #1 요 중간에.(요 중간에.)

110036 @ 예.(예.)

110036 #1 동네 분들 청헤당 밥 한끼석들은 대접허는 거라.(동네 분들 청해서 밥 한 끼씩들 대접하는 거야.)

110036 @ 아.(아.)

110036 #1 중간에 잘 생각한 사름은 초 한 봉 가정강 성냥 한 곽 심어가.(중간에 잘 생각한 사람은 초 한 봉 가져가서 성냥 한 곽 들고 가.)

110036 #2 시방은 집들이 가젠 허민 무신 음료수를 한 박스 가지나 허주만은 그 옛날은 어서부난.(시방은 집들이 가려고 하면 무슨 음료수를 한 박스 가지고 가거나 하지만 그 옛날은 없으니까.)

110036 @ 예.(예.)

110036 #1 옛날인 괴기, 생선 괴기 끌레기[326]에 싸.(옛날은 고기, 생선 고기 '끌레기'에 싸.)

110036 #2 불곽. 불곽을 어디 강 앗아가나.(성냥. 성냥을 어디 가서 가져가나.)

110036 @ 아.(아.)

110036 #1 생선을 어디강 끌레기에 싸근에에 가졍 갑니다.(생선을 어디가서 '끌레기'에 싸서 가지고 갑니다.)

110036 #2 지금은 비니루포나 있져. 그 옛날은 그런 비니루포도 어서노난 산듸짚 무껑 '끌레기' 쌍. 하하하.(지금은 비닐봉투나 있지. 그 옛날은 그런 비닐 봉투도 없으니까 밭볏짚 묶어서 '끌레기'에 싸서. 하하하.)

110036 @ 예.(예.)

110036 #1 끌레기 멘드는 걸 또 셔시믄.('끌레기' 만드는 걸 또 있었으면.)

110036 @ 끌레기가 꼬은 거마씨?('끌레기' 꼬은 겁니까?)

110036 #1 꼬은 게 아니.(꼬은 게 아니.)

110036 #2 산듸짚 흔 짐헤영 대가리만 딱허게 졸라 메영 그놈으 걸 갈라가지고 영 데싸.(밭볏짚 한줌 해서 대가리만 딱하게 졸라매서 그 놈의 걸 갈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110036 #1 포데기를 멘드는 거라.(포대기를 만드는 거야.)

110036 @ 아.(아.)

110036 #2 데싸놩 그 소곱더레 괴기를 놓는 거라. 경해놩 끄땡이[327]를 영헤영 무꺼.(뒤집어 놔서 그 속에다 고기를 놓는 거야. 그렇게 해 놓고 '끄땡이'를 이렇게 해서 묶어.)

110036 @ 끌레기옌 헤마씨?('끌레기'라고 합니까?)

110036 #2 으. 끌레기.(응. '끌레기'.)

110036 #1 그게 족은아들양. 성내 집이 제사나 멩질 먹으레 가젠허민 끌레기에

326) '끌레기'는 띠, 짚 등을 한줌 정도 해서 그 양쪽 끝을 묶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싸 놓는 꾸러미다.

327) '끄땡이'는 물건의 맨 끝부분이다.

제숙 ᄒᆞ나 쌍 간덴 허는 거우다.(그게 작은 아들 형네 집에 제사나 명절 지내러 가려고 하면 '끌레기'에 제수 하나 싸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110036 @ 예.(예.)

110036 #1 메쏠이옌 헌게 곤쏠이 엇이니까 곤쏠보단 귀하고 좋은 게 불각제기[328] 양, 그 조그만헌 거주.(멥쌀이라고 하는 게 흰쌀이 없으니까 흰쌀보다 귀하고 좋은 게 '불각제기', 그 자그마한 거지.)

110036 @ 예.(예.)

110036 #1 그믄 불각제기를 끌레기에 쌍 제사 먹으레 가는 거라, 성내집이. 부모제사도.(그러면 '불각제기'를 '끌레기'에 싸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야, 형네 집에. 부모제사도.)

110036 #2 옛날은 어려우난 게.(옛날은 어려우니까요.)

11. 놀이

연

111001 @ 이젠 옛날에 놀아난 말 ᄀᆞᆯ아줍서.(이젠 옛날에 놀았던 말 말해주세요.)

111002 @ 연, 연은 저번에 ᄀᆞᆯ아나신디.(연, 연은 저번에 말했었는데.)

111002 #1 무신 갱연[329]하고. 개골레비라고.(무슨 '갱연'하고 가오리연이라고.)

111002 @ 갱이연?(갱이연?)

111002 #1 갱연.('갱연'.)

111002 #2 갱연.('갱연'.)

111002 @ 아.(아.)

111002 #2 영 니게 반듯허영 가운데 고냥 똘른 거. 갱연.(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인 거. '갱연'.)

111002 @ 아.(아.)

111002 #2 으.(으.)

111002 @ 아. 가오리연?(아, 가오리연?)

111002 #1 가오리옌 허는 거는 겍골레비옌 허주. 겍골레비.(가오리라고 하는 거는 '객골레비'라고 하지. 가오리연.)

111002 @ 객골레비.(가오리연.)

111002 #2 개굴레비[330] 헤신디. 꼭 개구리 닮아.('개굴레비' 했는데. 꼭 개구리 닮아.)

328) '불각제기'는 생선의 한 종류이다. 각제기는 전갱어를 말한다.
329) '갱연'은 방패연을 말한다.
330) '개굴레비'는 객골레비라고도 제보자는 불렀다. 가오리연을 말하는데 제보자 중 할머니는 개굴레비가 개구리라고 한다.

111002 @ 아.(아.)

111002 #1 게영 멘드랑게.(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111002 #2 귀 돋지곡 꼴렝이도 돋지곡.(귀 달고 꼬리도 달고.)

111002 @ 오.(오.)

111002 #2 꼭 개굴레비 닮아.(꼭 '개굴레비' 닮아.)

111003 @ 건 어떵 만들어마씨? 갱연은 어떵 만들어.(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갱연'은 어떻게 만들어.)

111003 #2 게, 창호지 흔 장에 헹은엥에 가운데 고망 똘랑.(그게, 창호지 한 장에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

111003 @ 창호지 한 장에.(창호지 한 장에.)

111003 #1 그건 온장벡이[331]고.(그건 '온장벡이'고.)

111003 @ 온장벡이가 뭐꽈?('온장벡이'가 뭐예요?)

111003 #1 온장벡이는 창호지 흔 장에 헤서 대를 ᄒᆞ나, 둘, 신, 닛, 다섯 갠가 들어가고.('온장벡이'는 창호지 한 장에 해서 대나무 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들어가고.)

111003 #2 다섯 개. 모로게 ᄒᆞ나, 영 ᄀᆞ로 ᄒᆞ나, 영 ᄀᆞ로 ᄒᆞ나, 영 아래 ᄒᆞ나. 니 개주.(다섯 개. 모서리로 하나, 이렇게 가로 하나, 이렇게 가로 하나 이렇게 아래 하나 네 개지.)

111003 #1 아니라 다섯 개.(아니라 다섯 개.)

111003 #2 에에, 네 개우다게.(에에, 네 개입니다.)

111003 #1 상대에 다섯 개라게.(상대에 다섯 개야.)

111003 @ 경헹 가운데 구멍 뚫어마씨?(그렇게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111003 #1 구멍 뚤어.(구멍 뚫어.)

111003 #2 가운디 구멍 뚤어.(가운데 구멍 뚫어.)

111003 @ 고망 어떵마씨?(구멍 어떻게요?)

111003 #1 응. 고망 뚤어.(응. 구멍 뚫어.)

111003 @ 고망은 동그락하게마씨?(구멍은 동그랗게요?)

111003 #1 응. 동그락허게.(응. 동그랗게.)

111003 @ 경헹 어떵헤마씨?(그렇게 해서 어떻게해요?)

111003 #1 그건 온장벡이.(그건 '온장벡이'.)

111003 @ 영 잘 그렸지예.(이렇게 잘 그렸지요.)

111003 #1 온장벡이게.('온장벡이'네.)

111003 @ 그믄 한 장도 안 든건 반장벡이마씨?(그러면 한 장도 안 드는 건 '반장벡이'예요?)

111003 #1 반장벡이.('반장벡이')

---

331) '온장벡이'는 창호지 한 장을 모두 사용해서 만든 연을 부르는 말이다. 이에 반해 창호지 한 장이 다 들지 않고 반 정도로 만들어진 것은 '반장벡이'라고 부른다.

111003 @ 아.(아.)
111003 #1 반장벡이.(‘반장벡이’.)
111003 #2 게골레비는 창오지 반 장이믄 게.(가오리연은 창호지 반 장이면.)
111003 #1 게골레비 동글랑허게 허는 거 꼴리달 고게.(가오리연은 동그랗게 하는 거 꼬리 달고.)
111003 #2 꼴리 달고 귀 돋지곡게.(꼬리 달고 귀 달고.)
111003 @ 게골레비는 어떵 만들어마씨?(가오리연은 어떻게 만들어요?)
111003 #2 게골레비?(가오린연?)
111003 @ 종이를 옆으로마씨?(종이를 옆으로요?)
111003 #1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 종이로 모양만 영 오그라지게.(아니, 그것도 마찬가지. 종이를 모양만 이렇게 오그라지게.)
111003 @ 아, 모양만 영 오그라지게.(아, 모양만 이렇게 오그라지게.)
111003 #1 옳지, 옳지.(옳지, 옳지.)
111003 #2 경형 으레 꼴리 돋지곡.(그래서 이리로 꼬리 달고.)
111003 @ 꼴리 돋지곡.(꼬리 달고.)
111003 #2 여기도 대는 하나 밖에 안 들어.(여기도 대나무살은 하나 밖에 안 들어.)
111003 @ 하나 밖에.(하나 밖에.)
111003 #2 게골레비난.(가오리연이니까.)
111003 @ 대도 하나만.(대나무살도 하나만.)
111003 #2 으레 귀 돋지곡.(이리로 귀 달고.)
111004 @ 연 날리젠 허믄 뭐 필요합니까?(연 날리려고 하면 뭐 필요합니까?)
111004 #2 연술게.(연줄.)
111004 #1 얼레하고 실.(얼레하고 실.)
111004 @ 연줄도 있어야 허고 얼레도 있어야 허고.(연줄도 있어야 하고 얼레도 있어야 하고.)
111004 #2 실 감는 것가 ᄀᆞ라는 얼레.(실 감는 것보고 얼레.)
111004 @ 연대가 아까 말헌 그 대꽈?(연대가 아까 말한 그 대나무살이에요?)
111004 #1 응.(응.)
111004 @ 개미는 뭐꽈?(개미는 무엇이에요?)
111004 #2 개미? 개미가 무시 거라?(개미? 개미가 무엇야?)
111004 @ 그런 거는 엇수과?(그런 거는 없습니까?)
111004 #1 개미?(개미?)
111005 @ 연싸움은 어떵헙니까?(연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111005 #2 연싸움게 막 띠왕은에. 막 높이 올령덜 뭐. ᄀᆞ치들 허당 보민 연싸움이 뒈어.(연싸움은 막 띄워서. 막 높이 올리고서 뭐. 같이들 하다가 보면 연싸움이 되어.)

111005 @ 예.(예.)

111005 #2 ᄀᆞ치들 붙엉.(같이들 붙어서.)

111005 #1 연싸움을 허는데양.(연싸움을 하는데요.)

111005 @ 예.(예.)

111005 #1 옛날에는 무시거한[332] 실이 엇엇수다. 모시로 헤영양 얼레에 헤영. 그 연실을 헤였는데.(옛날에는 특별한 실이 없었습니다. 모시로 해서 얼레에 해서. 그 연실을 했는데.)

111005 @ 예.(예.)

111005 #1 요즘은 나이롱 실이여 뭐여 나오랏주만은.(요즘은 나이론 실이다, 뭐다 나왔지만.)

111005 @ 예.(예.)

111005 #1 그때는 슬 끈어지면 연싸움허당 실 끈어지면 혼 사 오 킬로 놀아나 불민 귀엽게 만든 거 강 춪지 못하면 뚠 놈이 봉강 가불여.(그때는 실이 끊어지면 연싸움하다가 실이 끊어지면 한 사 오 킬로 날아가 버리면 귀엽게 만든 거 가서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주워서 가져가버려.)

111005 @ 아.(아.)

111005 #2 어디강 강은에 낭에 걸어질 때도 있곡.(어디 가서 가서는 나무에 걸릴 때도 있고.)

111005 #1 낭에 걸어질 때도 있주만은.(나무에 걸릴 때도 있지만.)

111005 @ 아, 예.(아, 예.)

111005 #1 워낙 거리가 멀엉 두서너 참 날아 가분다 말입니다.(워낙 거리가 멀어서 두서너 참 날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111005 @ 예.(예.)

111005 #1 견데 그때는 연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은.(그런데 그때는 연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111005 @ 예.(예.)

111005 #1 유리를 부수왕.(유리를 마아서.)

111005 @ 아, 예.(아, 예.)

111005 #1 유리 부수왕 밥에 막 버무립니다.(유리 마아서 밥에 막 버무립니다.)

111005 @ 예.(예.)

111005 #1 밥에 버무리면은 그 연술에 전부 멕여.(밥에 버무리면 그 연줄에 전부 입혀.)

111005 @ 예.(예.)

111005 #1 게믄 이쪽 상대도 멕이곡 이쪽 상대도 멕이민양.(그러면 이쪽 상대도 입히고 이쪽 상대도 입히면.)

111005 @ 예.(예.)

---

332) '무스거하다'는 특별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11005 #1 그 얼레에 감앗당 술을 풀엉 줘가면은 손을 못 대여. 위험허니깐.(그 얼레에 감았다가 줄을 풀어 줘가면서 손을 못 대. 위험하니까.)

111005 @ 아, 예.(아, 예.)

111005 #1 그때 어디 장갑이 이서수과.(그때 장갑이 있었습니까?)

111005 @ 예.(예.)

111005 #1 겡 얼레로만 풀곡 얼레로만 감곡 허는데.(그래서 얼레로만 풀고 얼레로만 감고 하는데.)

111005 @ 예.(예.)

111005 #1 그 얼레로 연싸움을 부찐단 말이우다.(그 얼레로 연싸움을 붙인다 말입니다.)

111005 @ 예.(예.)

111005 #1 큰. 누게 말맞작이. 흔 오백 미터 올려놓으민 온장벡이 연이 흔 읏만이벡이 안 보여.(큰. 누가 말했듯이. 한 오백 미터 올려 놓으면 '온장벡이' 연이 한 이만큼 밖에 안 보여.)

111005 @ 아, 온장벡이 연이 어느 만이 헌 거마씨?(아, '온장벡이' 연이 어느 만한 거예요?)

111005 #1 창오지 흔 장이난 이만이 커.(창호지 한 장이니까 이만큼 커.)

111005 @ 아.(아.)

111005 #2 창오지 흔 장이난 뭐 막 크주게.(창호지 한 장이니까 뭐 막 크지.)

111005 #1 나도 그거 당헤낫수다.(나도 그거 당했었습니다.)

111005 @ 예.(예.)

111006 @ 연 만들기와 날리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연 만들기와 연날리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11006 #1 우리 아버지가 일본서 들어와서 내가 읏섯 살 때에 그 압 밧디 가서 온장벡이 헹은에 존둥이에 강 묶은 거라. 묶언.(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내가 여섯 살 때에 그 앞 밭에 가서 '온장벡이' 해서 잔등이에 가서 묶은 거야. 묶어서.)

111006 @ (예.)

111006 #1 아버지는 몸 아프난 연만 띄와줘동 들어가 불곡. 우리보다 연상 서너니나 댓나 우이 사람들 하고 연을 날리는디.(아버지는 몸 아프니까 연만 띄워주고서 들어가 버리고. 우리보다 연상 서너네이나 댓이나 위의 사람들 하고 연을 날리는데.)

111006 @ 예.(예.)

111006 #1 ᄇᆞ름 쎄영 온장벡이가 존둥이에 탁 무끄난 한 오 메다를 끗읍디다.(바람이 세서 '온장벡이'가 잔등이에 탁 묶으니까 한 오 미터를 끕디다.)

111006 @ 아.(아.)

111006 #1 하이. 끗엉 가난 욮이 잇단 사람들이 이만저만 연 올란.(하이. 끌고

가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만저만 연이 올라서.)

111006 @ 예.(예.)

111006 #1 그때는 아버지옌 헷지. 아버지 연 크게 멘들아 주난 연 버청 저 큰일낫져. 허멍 심언에 얼레에 감아주멍 연 싸움을 시겨난 걸 기억납니다.(그때는 아버지라고 했지. 아버지 연을 크게 만들어 주니 연이 힘에 부쳐 저 큰일났어요. 하면서 잡아서 얼레에 감아주면서 연 싸움을 시켰던 걸 기억납니다.)

111005 @ 아.(아.)

111006 #1 으숫 살 때에.(여섯 살 때에.)

111006 @ 예.(예.)

111006 #1 사름 차 불여. 사름 차.(사람을 낚아채버려. 사람을 낚아채.)

111006 @ 온장벡이는 진짜 큰 연이구나예.('온장벡이'는 진짜 큰 연이군요.)

111006 #1 온장벡이 커.('온장벡이' 커.)

111006 @ 예.(예.)

111006 #1 연이, 게난 기술적이우다.(연이, 그러니까 기술적입니다.)

111006 @ 예.(예.)

111006 #1 연 멘드는 것도.(연 만드는 것도.)

111006 @ 예.(예.)

111006 #1 가로 세로 영 잘 휘는 놈은.(가로 세로 이렇게 잘 휘는 놈은.)

111006 @ 예.(예.)

111006 #1 연 싸움에도 그 유리 멕인 놈은, 실에 ᄉᆞ해[333] 먹였젠 험니다. ᄉᆞ해.(연 싸움에도 그 유리 입힌 놈은, 실에 'ᄉᆞ해' 입혔다고 합니다. 'ᄉᆞ해'.)

111006 @ ᄉᆞ해.('ᄉᆞ해'.)

111006 #1 게서 그 유리 밥풀 멕인 연이 가로 세로 가는 연이 잇곡.(그래서 그 유리 밥풀을 입힌 연이 가로 세로 가는 연이 있고.)

111006 @ 예.(예.)

111006 #1 고정케 뜨는 놈들이 잇단 말입니다.(고정되어 뜨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111006 @ 예.(예.)

111006 #1 이 가로 세로 가는 게 얼레로 감앙 내력 하당 보면은, 이레착 저레착 가당 보면은.(이 가로 세로 가는 것이 얼레로 감아서 내리고 하다 보면, 이리저리 가다 보면.)

111006 @ 예.(예.)

111006 #1 엉뚱한 연이 끈어정 나가 떨어져부는 수가 잇어.(엉뚱한 연이 끊어져 나가 떨어져버리는 수가 있어.)

111006 @ 하하.(하하.)

111006 #1 그믄 이제 진 거라.(그럼 이제 진 거야.)

---

333) 'ᄉᆞ해'는 연싸움을 할 때 연줄에다 유리가루를 밥에 개어 만든 유리밥풀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111006 @ 예.(예.)

111006 #1 끈어져 나가분 건.(끊어져 나가버린 것은.)

111006 @ 예.(예.)

111006 #1 그믄 그 연, 끈어져 나가분 사름은 그 연 심으레 멘발에. 그 때 어디 양말이나 이서수과.(그러면 그 연, 끊겨 나가버린 사람은 그 연을 잡으러 맨발에. 그 때 어디 양말이나 있었습니까?)

111006 @ 그거 찾으레 다녀야 될 거 아니꽈?(그거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111006 #1 거 춪으레 뎅기곡 경 아니민 재뽀르게 서너 참 날아가 불민.(그거 찾으러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재빠르게 서너 참 날아가 버리면.)

111006 @ 아이가.(아이고.)

111006 #1 여기서 처음엔 가시남동도 잇곡. 대물동네도 이시난에.(여기에서 처음에는 가시남동도 있고. 대물동네도 있으니까.)

111006 @ 예.(예.)

111006 #1 거 문여 본 사름 앗아불민 ᄒᆞ는 수 없는 거라.(그거 먼저 본 사람은 가져버리면 하는 수 없는 거야.)

111006 @ 예.(예.)

111006 #1 그믄 그거 이제 일러부는 거. 일허불어도 ᄒᆞ는 수 없는 거.(그러면 그거 이제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려도 하는 수 없는 거.)

111006 @ 예.(예.)

111006 #1 을큰해도 ᄒᆞᆯ 수 없는 거.(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

111006 @ ᄒᆞᆯ 수 어서.(할 수 없어.)

111006 #1 야.(야.)

제기차기

111007 @ 제기차기는?(제기차기는?)

111007 #1 경허멍 헤낫수다 옛날에는, 아이고.(그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111007 @ 하하하.(하하하.)

111007 #1 아이고.(아이고.)

111007 @ 제기는 쫴기렌 허는가마씨?(제기는 '쫴기'라고 하는가요?)

111007 #1 아하. 쪼께 차는 거?(아하, '쪼께' 차는 거?)

111007 @ 아, 쪼께.(아, '쪼께'.)

111007 #1 흐흐.(흐흐.)

111007 @ 쪼께는 어떵 만들어마씨?(제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111007 #1 겨난, 쪼께가 그 전에가 그 엽전 돈이.(그러니까 제기는 그 전에가 그 엽전 돈이.)

111007 @ 예.(예.)

111007 #1 그 무신 통평[334]. 엽전 허멍 담아 멘들어낫주만은.(그 무슨 '통평'. 엽전 하면서 담아 만들었지만.)

111007 @ 예.(예.)

111007 #1 그때에는 멘들 때에 어떵 멘드냐면은.(그때에는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냐면.)

111007 @ 예.(예.)

111007 #1 그 지세허벅[335] 벌러진 양순이 땅 단추 닮은 걸 멘들아.(그 '지세허벅' 깨어진 '양순이땅' 단추 닮은 걸 만들어.)

111007 @ 아.(아.)

111007 #1 돌도 독독독 모상.(돌로 탁탁탁 마아.)

111007 @ 허벅 벌러진 거를마씨?('허벅' 깨어진 거를요?)

111007 #1 허벅 벌러진 것도 아무 허벅이나 아니 됩니다. 지세허벅이라사.('허벅' 깨어진 것도 아무 '허벅'이나 안 됩니다. '지세허벅'이어야.)

111007 @ 지세허벅.('지세허벅'.)

111007 #1 게믄 돌 우에 강 박박 밀면은 동그랑허게 그게.(그러면 돌 위에 가서 박박 밀면 동그랗게 그게.)

111007 @ 아.(아.)

111007 #1 신돌[336]도 엇어낫수다. 그때에는. 공그리친 디도 이서수과?('신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콘크리트 바른 데도 있었습니까?)

111007 @ 예.(예.)

111007 #1 게민 노순 돌 우에 븍븍 밀당 보민 단추 모냥으로 동그랑허게 뒈어.(그러면 날카로운 돌 위에 박박 밀다가 보면 단추 모양으로 동그랗게 되어.)

111007 @ 예.(예.)

111007 #1 이제 그것을 헝겊에 무꺼.(이제 그것을 헝겊에 묶어.)

111007 @ 예. 헝겊에 싸.(예. 헝겊에 싸.)

111007 #1 헝겊세기에 싸근엥에 헝겊세기를 가리가리 끈을 거라 말이우다.(헝겊에 싸서 헝겊을 가리가리 끊을 거란 말입니다.)

111007 @ 예.(예.)

111007 #1 ᄀᆞ세로.(가위로.)

111007 @ 예.(예.)

111007 #1 게믄 무껑은에 허면은 이제 쪼께가 뒈는 거라.(그러면 묶어서 하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야.)

111007 @ 예.(예.)

---

334) '제보자'는 동그란 동전을 상징하는 상평통보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기억이 안 나서 '통평'이라고만 말했다.

335) '지세허벅'은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물동이를 말한다.

336) '신돌'은 숫돌이다.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들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을 말한다.

111007 #1 경헤근에 차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차는 거지.)
111007 @ 아.(아.)
111007 #1 야.(야.)
111007 @ 헝겊세기는 안 자르고마씨?(헝겊은 안 자르고요?)
111007 #1 아니 헝겊세기는 가리가리 다 줄라.(아니 헝겊은 가리가리 다 잘라.)
111007 @ 아, 가리가리 줄라.(아, 가리가리 잘라.)
111008 #1 가리가리 줄라난 다음에게 쪼께를 멘들아. 것도 옛날부터 헌 거주.(가리가리 자르고 나서 다음에 제기를 만들어. 그것도 옛날부터 한 거지.)
111008 @ 그거 차는 것도 종류가 있수게.(그거 차는 것도 종류가 있지요.)
111008 #1 아, 게난 왼발 노단발 양쪽으로.(아,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양쪽으로.)
111008 @ 아, 왼발, 노단발, 양쪽으로 잇고.(아, 왼발, 오른발, 양쪽으로 있고.)
111008 #1 야. 왼발, 노단발, 양쪽으로 차는 사름이 잘 차는 사름이주게.(야. 왼발, 오른발, 양쪽으로 차는 사람이 잘 차는 사람이지.)
111008 @ 하.(하.)
111008 #1 한쪽으로 차는 것보단.(한쪽으로 차는 것보다는.)
111008 @ 예.(예.)
111008 #1 양쪽으로 영헤근에 영 차고 영 차고.(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고.)
111008 @ 예.(예.)
111008 #1 차는 사름은 잘 차. 그거 하여튼.(차는 사람은 잘 차. 그거 하여튼.)
111008 @ 올리기엔 헌 것도 이심니까?(올리기라고 한 것은 있습니까?)
111008 #1 아. 올리는 거. 그거 높이 차기엔 말이주게.(아. 올리는 거. 그거 높이 차기라고 말하지.)
111008 @ 아.(아.)
111008 #1 높이 차기.(높이 차기.)
111008 @ 그믄 물기는 뭐꽈?(그러면 물기는 뭡니까?)
111008 #1 차민 게 입에 물 거 아니.(차면 그거 입에 물 거 아니.)
111008 @ 아.(아.)
111008 #1 우리 무신 테니스라 무신거 허듯이.(우리 무슨 테니스라 뭐 하듯이.)
111008 @ 아.(아.)
111008 #1 게영 발로 창은에 무는 거.(그렇게 해서 발로 차서 무는 거.)
111008 @ 예.(예.)
111008 #1 무는 건디 것도양. 그전이 그런 것도 엇엇수다.(무는 것인데 그것도. 그 전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111008 @ 예.(예.)
111008 #1 요즘이난. 그 막 ᄒᆞ라, ᄒᆞ라 허멍 헴주.(요즘이니까. 그 막 하라하라

하면서 하지.)
111008 @ ᄒᆞ라, ᄒᆞ라.(하라, 하라.)
111008 #1 게 우리 우터레도 올려 노멍 다 헴주.(그게 우리 위에도 올려놓으면서 다 하지.)
111009 @ 제기 차기는 어떵하믄 이기는 거꽈? 수를 셉니까?(제기 차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111009 #1 숫자로.(숫자로.)
111009 @ 아. 숫자 세기.(아. 숫자 세기.)
111009 #1 야.(야.)
111009 @ 많이 차믄 이기는 거예.(많이 차면 이기는 거.)
111009 #1 쪼께 못 허는 사름 하. ᄒᆞ나 두 개 못 허는 사람 하.(제기 못하는 사람 많아. 하나 두 개 밖에 못 하는 사람 많아.)
111009 @ 예.(예.)
111009 #1 경허고양 발로 쪼께 차멍 이녁 입으로도 물곡.(그리고 양 발로 제기 차면서 자기 입으로도 물고.)
111009 @ 예.(예.)
111009 #1 대가리 우터레도 올려노콕.(머리 위에도 올려놓고.)
111009 @ 음.(음.)
111009 #1 야.(야.)

자치기

111011 @ 자치기도 헤난마씨?(자치기도 했었습니까?)
111011 #1 자치기도 헤낫수다.(자치기도 했었습니다.)
111012 @ 자치기는 어떵 준비헤마씨?(자치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12 #1 아니 아니. 그건 그자 자치기옌 허는 막뎅이 꺽엉.(아니 아니. 그건 그저 자치기라고 하는 막대기 꺾어서.)
111012 @ 예.(예.)
111012 #1 ᄒᆞᆫ 삼십 센티 자 만씩만 꺽엉은엥에.(한 삼십 센티 자 만큼 꺾어서.)
111012 @ 예.(예.)
111012 #1 두드렁 톡 두드렁 멀리 쳥 나강.(두드려서 탁 두드려서 멀리 쳐서 나가면.)
111012 @ 예.(예.)
111012 #1 그믄 멧 자 헌 사름이 이기곡.(그럼 몇 자 한 사람이 이기고.)
111012 @ 아.(아.)
111012 #1 다섯 자 헌 사름은 ᄋᆞ섯 자 헌 사름한티 지는 거주.(다섯 자 한 사람은 여섯 자 한 사람한테 지는 거지.)
111012 @ 예.(예.)

111012 #1 두드린 거가 자우다.(두드린 것이 자입니다.)
111012 @ 아.(아.)
111012 #1 삼십 센치든 오십 센치든 이 두드린 ᄌᆞ룩이 자.(삼십 센티든 오십 센티든 이 두드린 자루가 자.)
111012 @ 아.(아.)
111012 #2 막뎅이 심엉 탁 두드령 착.(막대기 잡아서 탁 두드려서 탁.)
111012 @ 밑에 칠 아이가 있어야 겠다예.(밑에 치는 아이가 있어야 겠어요.)
111012 #2 그 대가 있주게.(그 대가 있지.)
111012 #1 또 치는 게 있주게.(또 치는 게 있지.)
111012 @ 아.(아.)
111012 #2 있주게.(있지.)
111012 #1 그게 족게 멘드느냐, 크게 멘드느냐. 그게 문젠데.(그게 작게 만드느냐, 크게 만드느냐. 그게 문제인데.)
111012 @ 아.(아.)
111012 #1 그 지대가, 우리 시방 케이트볼 치듯이. 지대가 ᄆᆞ음에 맞으민 혼 뿜 홀 수도 있고.(그 지대가, 우리 시방 게이트볼 치듯이. 지대가 마음에 맞으면 한 뼘 할 수도 있고.)
111012 @ 아.(아.)
111012 #1 게민 두 뽐 넘어 길엉은.(그러면 두 뼘 넘어 길어서는.)
111012 @ 아.(아.)
111012 #1 언마 못 나가니까.(얼마 못 나가니까.)
111012 @ 요런 막대헤영 탁 치엉.(요런 막대기해서 탁 쳐서.)
111012 #2 탁 두드령.(탁 두드려서.)
111012 @ 게믄 치어.(그러면 쳐.)
111012 #2 탁 치는 거.(탁 치는 거.)
111012 #1 탁 받아야 뒈어. 받지 안 허면은 이건 불합격이야.(탁 받아야 되어. 받지 않으면 이건 불합격이야.)
111012 @ 하하.(하하.)
111012 #2 옛날이사 먹대 치기도 허곡. 찰방도 허곡.(옛날이야 목대 치기도 하고. ‘찰방’도 하고.)
111012 @ 예.(예.)
111013 @ 경헹 누가 이기는 거꽈?(그렇게 해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111013 #1 제일 하영 나가는 사름이 이기는 거.(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111013 @ 아.(아.)
111013 #1 응 심은 것이 자난네.(응 잡은 것이 자니까.)

말타기

111015 @ 말타기도 헤난마씨?(말타기도 했었습니까?)

111015 #1 ᄆᆞᆯ타기?(말타기?)

111015 #2 ᄆᆞᆯ 타는 거? 하르방들이나 옛날 헷주.(말 타는 거? 할아버지들이나 옛날 했지.)

111015 #1 그거 호ᄉᆞ로 탕 뎅겨난 사름도 잇곡. 사냥허렌 탕 다녓주.(그거 호사로 타서 다녔던 사람도 있고. 사냥하러 타고 다녔지.)

111015 @ 그 말 말고 아이들 놀아난 거마씨.(그 말 말고 아이들 놀았던 거요.)

111015 #1 아, 아이덜 ᄆᆞᆯ 타는 거.(아, 아이들 말 타는 거.)

111015 @ 예.(예.)

111015 #1 그거 왜정시대부터 난 거난게.(그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생긴 거니까.)

111015 @ 그건 무슨 말타기꽈?(그건 무슨 말타기입니까?)

111015 #1 아이들 굽엉 말이야.(아이들 굽어서 말이야.)

111015 #2 아이들 굽엉 게 나 ᄆᆞᆯ 타라, ᄆᆞᆯ 타라.(아이들 굽어서. 나 말 타라, 말 타라.)

111015 @ 아.(아.)

111015 #2 ᄋᆞᆼ 구부민 ᄆᆞᆯ이주. ᄋᆞᆼ허민 ᄆᆞᆯ 타라 허는 거주.(이렇게 굽으면 말이지. 이렇게 하면 말 타라 하는 거지.)

111015 @ 맞아예.(맞아요.)

111015 #2 그 우이 올라 아장.(그 위에 올라 앉아.)

111015 #1 열이믄 열. ᄒᆞᆫ 번에 다 심엉.(열이면 열. 한 번에 다 잡아.)

111015 @ 예.(예.)

111015 #1 거기에 ᄒᆞ나ᄒᆞ나 튀멍.(거기에 하나하나 뛰어가면서.)

111015 @ 아.(아.)

111015 #1 열 사름이 업더지믄 열 사름ᄁᆞ지 도착허는 사름은 뒈는데.(열 사람이 엎드리면 열 사람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되는데.)

111015 @ 버텨야 뒈는 거구나.(버텨야 되는 거구나.)

111015 #1 게난 지청 털어져부는 수가 이서이. 잇주게.(그러니까 지쳐서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 있지.)

111015 @ 아.(아.)

111015 #1 누게 말곧자나 똥꼬냥[337]으로 쫑뻬 맞을 걸로 영헹.(누구 말처럼 엉덩이를 꼬리뼈 맞을 걸로 이렇게 해.)

111015 @ 아이고.(아이고.)

111015 #1 대비를 헌다 말이여. 똥꼬냥으로 강 무릅으로 ᄒᆞᆫ 번 탁 영헹 치지.(대비를 한다 말이야. 엉덩이로 가서 무릎으로 한 번 탁 이렇게 치지.)

111015 @ 예.(예.)

337) '똥꼬냥'은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111015 #1 넌 불합격짜리다.(넌 불합격짜리다.)

111015 @ 그 물타기를 생물타기, 죽은 물타기 영 골아마씨?(그 말타기를 생말타기, 죽은 말타기 이렇게 말해요?)

111015 #1 아니. 그건 아니라.(아니. 그건 아니라.)

111015 @ 아.(아.)

111015 #1 그니까 그 죽어젠 헌 물은.(그러니까 그 죽었다고 하는 말은.)

111015 @ 예.(예.)

111015 #1 영헹 가당은에 옷 내 불영 이디 아팡 자빠지는 놈이 잇어.(이렇게 가다가 옷 내 버리면서 여기 아파서 자빠지는 놈이 있어.)

111015 @ 예.(예.)

111015 #1 약한 놈들은.(약한 놈들은.)

111015 @ 예.(예.)

111015 #1 게믄 저건 물 죽엇저. 영 곧는 거. 기자.(그러면 저건 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저.)

111015 @ 아.(아.)

111015 #1 또 탕 가는 사름이 털어져. 게믄 물 탄 것이 죽어불엇다. 허지 말아.(또 타고 가는 사람이 떨어져. 그러면 말 타는 것이 죽어버렸다. 하지 마.)

111015 @ 예.(예.)

111015 #1 영 털어저부는 수가 잇주게. 등수에 아이 붙엉.(이렇게 떨어져버리는 수가 있지. 등수에 아니 붙어서.)

111015 @ 예.(예.)

구슬치기

111020 @ 구슬치기 헤낫수과?(구슬치기 했었습니까?)

111020 #2 구멍치기?(구멍치기?)

111020 @ 구멍치기.(구멍치기.)

111020 #1 아, 그거. 구멍치기가 아니고 동고리라고.(아, 그거. 구멍치기가 아니고 '동고리'라고.)

111020 @ 동고리?('동고리'?)

111020 #1 그거 동고리치기라고. 그거 다마헹은에 영 눈에 조종헹은에.(그거 '동고리치기'라고. 그거 구슬해서 이렇게 눈에 조준해서.)

111020 @ 예.(예.)

111020 #1 영 아래에 허는 거.(이렇게 아래로 하는 거.)

111022 @ 구멍치기는 뭐꽈?(구멍치기는 뭡니까?)

111022 #1 구멍치기는 양손이땅이라고 헤서 구멍더레 영 드물리는 게 이서.(구멍치기는 '양손이땅'이라고 해서 구멍으로 이렇게 넣는 게 있어.)

111022 @ 아.(아.)

111022 #2 구멍치기옌 헌 건. 옛날은 저 일전짜리 혜영. 저디 고망 뚤랑.(구멍치기라고 하는 건. 옛날은 저 일전짜리 해서. 저기 구멍을 뚫어.)

111022 @ 예.(예.)

111022 #2 영 선 그성. 이디 상은에 저디 고망더레 디리쳐.(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서서 저기 구멍으로 들여놓아.)

111022 @ 예.(예.)

111022 #2 못 디리치믄 먹대로 돈을 마쳥.(못 들여 놓으면 목대로 돈을 맞혀.)

111022 @ 예.(예.)

111022 #2 마치지 못허믄 불합격.(맞히지 못하면 불합격.)

111022 @ 예.(예.)

111022 #1 그게 내긴데. 예를 들어서이 이숨스 월에 우리가 새, 삥이가 이서.(그게 내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삼사 월에 우리가 새, 삘기가 있어.)

111022 @ 예.(예.)

111022 #1 삥 불라 먹는 거.(빼서 발라 먹는 거.)

111022 @ 예.(예.)

111022 #1 그걸 뻬 온다 말이여. 봄 때 도순 때 그 내기를 잘 허는데.(그걸 빼 온다 말이야. 봄 때 따뜻한 때 그 내기를 잘 하는데.)

111022 @ 예.(예.)

111022 #1 삥이 치기 해서 삥이 어느 정도 하면 한 줌 주고.(삘기 치기를 해서 삘기를 어느 정도 하면 한 줌 주고.)

111022 #2 하하하.(하하하.)

111022 #1 어느 정도다 허면 반 줌 주곡.(어느 정도다 하면 반 줌 주고.)

111022 #2 하하하.(하하하.)

111022 #1 또 것도 양손이땅인데.(또 그것도 '양손이땅'인데.)

111022 @ 예.(예.)

111022 #1 팔방에서 먹대치기가 잇지. 양손이땅에는 먹대치기가 엇어.(팔방에서 목대치기가 있지. '양손이땅'에는 목대치기가 없어.)

111022 @ 예.(예.)

111022 #1 양손이땅에는 인칙이 골앗주만은.('양손이땅'에는 아까 말했지만.)

111022 @ 예.(예.)

111022 #1 그 지세허벅 벌러진 거 어디 강 그런 거 구하지 안 허면.(그 '지세허벅' 깨어진 것을 어디 가서 그런 거를 구하지 않으면.)

111022 @ 예.(예.)

111022 #1 동그랑허게 멘들지를 못헙니다.(동그랗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111022 @ 음.(음.)

111022 #1 지세 허벅을 벌러진 걸 어디 강 주서도 주성은엥에 양손이땅 동전을 멘드는 거라.('지세허벅'을 깨어진 걸 어디 가서 주워도 주워서 '양손이땅' 동전을

만드는 거야.)
111022 @ 예.(예.)
111022 #1 겡 멘들면은 저기에 선을 긋고 구멍을 팝니다양.(그렇게 만들면 저기에 선을 긋고 구멍을 팝니다.)
111022 @ 예.(예.)
111022 #1 구멍을 파면은 여기서 저레 잡아 쳐.(구멍을 파면 여기서 저기로 잡아 쳐.)
111022 @ 음.(음.)
111022 #1 겨민 구멍 가까이 가나 선을 넘은 놈은 낙제라. 벌써.(그러면 구멍 가까이 가거나 선을 넘은 놈은 낙제야. 벌써.)
111022 @ 예.(예.)
111022 #1 선이 아니 아다로혜영 구멍 에염에 간 놈은 우리 골프를 치든 게이트볼을 치든.(선이 안 걸려 구멍 근처에 간 놈은 우리 골프를 치든 게이트볼을 치든.)
111022 @ 예.(예.)
111022 #1 구멍에 간 놈은 유리하다 말이우다.(구멍에 간 놈은 유리하다 말입니다.)
111022 @ 예.(예.)
111022 #1 게믄 흔 번에 들어가느냐 세 번에 들어가느냐.(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느냐 세 번에 들어가느냐.)
111022 @ 음.(음.)
111022 #1 경헤근에 등수 나옵니다. 등수를 헤영 뽑앙은에 무신 내기를.(그래서 등수 나옵니다. 등수를 해서 뽑아서 무슨 내기를.)
111022 @ 음.(음.)
111022 #1 그때 무슨 먹을 게 이서서. 내기옌 허는 게.(그때 무슨 먹을 게 있었어. 내기라고 하는 게.)
111022 @ 예.(예.)
111022 #1 경헹 놀이옌 허고.(그렇게 해서 놀이라고 하고.)
111022 #2 게, 그때는 모다지민 무시 거 헐 게 엇곡. 먹을 게 어서노난게.(그게, 그때는 모이면 무엇 할 것이 없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111022 #1 겨난 또 팔방이옌 허는 게 이서수다. 그려놩은에. 우물 정자로 그림을 그려놩은에.(그러니까 또 팔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려놓고. 우물 정자로 그림을 그려놓고.)
111022 @ 예.(예.)
111022 #1 곧사 할망이 먹대를 말헷주만은.(아까 할머니가 목대를 말했지만.)
111022 @ 예.(예.)
111022 #1 그 팔방이엔 ᄒᆞ는 게 ᄋᆞ라 가지우다. 그것도 왜정시대에 왜정 초기에

그게 나왓구나.(그 팔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도 일제 강점기에 초기에 그게 나왔구나.)

111022 @ 예.(예.)

111022 #1 팔방이엔 흔 게 그게 잇곡. 그 전에 뼁이치기가 이수다.(팔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고. 그 전에 삘기 치기가 있습니다.)

뼁이치기

111072 @ 예. 뼁이치기도 골아줍서.(예. 삘기 치기도 말해주세요.)

111072 #1 이수과?(있습니까?)

111072 #2 뼁이 치기 이신 때 우리 두린 때주게.(삘기 치기 있는 때 우리 어린 때지.)

111072 #1 왜정 시대 전이우다. 알암수과? 영조시대인가 이조시대인가?(일제 강점기 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조시대인가 이조시대인가?)

111072 #2 차롱 가졍 강 한 차롱 뽑아 놩 뼁이치기를.(채롱 가지고 가서 한 채롱 뽑아 놓고 삘기 치기를.)

111072 #1 뼁이 썹 다듬앙.(삘기 잎을 다듬어서.)

111072 #2 홀 일 엇이믄 게.(할 일 없으면.)

111072 #1 그게 오락이난.(그게 오락이니까.)

111072 @ 뽑아난 다음에 어떵헤마씨?(뽑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1072 #2 겡 뽑앙 왕 뼁이치기를. 영헹은에.(그렇게 뽑아서 와서는 삘기 치기를. 이렇게 해서.)

111072 #1 뼁이 다섯 개를 흔 사름이 다섯 개씩 냅니다. 내놔서.(삘기 다섯 개를 한 사람이 다섯 개씩 냅니다. 내 놓아.)

111072 @ 예.(예.)

111072 #2 하하하.(하하하.)

111072 #1 새썹 끈어놔둰. 너 다섯 개, 너 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새 잎을 끊어 놓고. 너 다섯 개, 너 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

111072 @ 아.(아.)

111072 #1 사람 숫자에서 배정을 합니다.(사람 숫자에서 배정을 합니다.)

111072 @ 예.(예.)

111072 #1 그걸 문딱 심엉 쫙 삐염냥.(그걸 모두 잡고 쫙 뿌립니다.)

111072 #2 영 텡구리주게[338].(이렇게 '텡구리지'.)

111072 @ 아.(아.)

111072 #1 영 돌리면은.(이렇게 돌리면.)

111072 #2 영 텡구려. 요디 끄멍이 나주.(이렇게 '텡구려'. 요기 구멍이 나지.)

111072 @ 예.(예.)

338) '텡구리다'는 손에 든 물건을 굴리는 듯이 한꺼번에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111072 #1 꾸멍이 크게 나는 놈은 땡이고.(구멍이 크게 나는 놈은 땡이고.)
111072 @ 아.(아.)
111072 #1 족게 나는 놈은.(작게 나는 놈은.)
111072 #2 뼁이를 한 줌 심엉 그걸 건드리지 말앙.(뻘기를 한 줌 잡아서 그걸 건드리지 말고.)
111072 #1 영 걸쳐지는 건데.(이렇게 걸쳐지는 건데.)
111072 @ 거기 들어간 만큼만 뼁이 담는 거꽈?(거기 들어간 만큼만 뻘기를 담는 겁니까?)
111072 #1 고망만큼만 뼁이를 담는 거라. 요만큼만.(구멍만큼만 뻘기를 담는 거야. 요만큼만.)
111072 @ 아.(아.)
111072 #2 경허민 게 그 뼁이는 나 꺼.(그러면 그게 그 뻘기는 내 거.)
111072 #1 으. 게민 거 다 줘야해. 그 사름신디.(응. 그러면 그거 다 줘야해. 그 사람한테.)
111072 @ 아.(아.)
111072 #2 그건 ᄒᆞᆫ 사름썩 다 받아야 뒈어.(그건 한 사람씩 다 받아야 되어.)
111072 @ 아.(아.)
111072 #1 큰 거 ᄒᆞᆫ 건 ᄒᆞᆫ 줌씩 다 줘불고. 족영 ᄒᆞ는 놈은 만날 그거베끼 못 받아.(큰 거 한 건 한 줌씩 다 줘버리고. 작게 하는 놈은 만날 그거밖에 못 받아.)
111072 @ 아.(아.)
111072 #1 일흐는 놈은 만날 일흐고. 또 뼁이 빠레 또 가고.(잃는 놈은 만날 잃고. 또 뼁이 뽑으러 또 가고.)
111072 @ 아.(아.)
111072 #1 그거 어린 때. 경헹 헤를 지와수다.(그거 어린 때. 그렇게 해를 지게 했습니다.)
111072 @ 하하.(하하.)
111072 #1 그거 ᄌᆞ미셔. 그런 건. 시방 안 허난 그거주.(그거 재미있어. 그런 건. 시방 안 하니까 그거지.)

줄넘기

111078 @ 그것도 헤난마씨? 베톨레기?(그것도 했었습니까? 줄넘기?)
111078 #2 베툴레기 헤낫주.(줄넘기 했었지.)
111078 #1 베툴레기는 시방도 허는 거난.(줄넘기는 시방도 하는 거니까.)
111078 #2 우린 베툴레기 헤낫어.(우린 줄넘기 했었어.)
111078 @ 아.(아.)
111078 #2 영 ᄒᆞᆫ 사름이 튀당은에 둘리도 ᄒᆞ곡. 서이도 ᄒᆞ곡.(이렇게 한 사람이 뛰다가 둘도 하고. 셋도 하고.)

111078 @ 예. 흔 사름이 ᄒᆞ당 둘이도 ᄒᆞ고.(예. 한 사람이 하다가 둘도 하고.)
111078 #2 영영 튀당 보민 흔 사름이 들어 와.(이렇게 이렇게 뛰다가 보면 한 사람이 들어 와.)
111078 @ 아.(아.)
111078 #2 들어 왕 튀당 보민 또 들어오고. 또 흔 사름이 들어 와.(들어 와서 뛰다가 보면 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 와.)
111078 @ 아. 한 사람이 돌리는 거구나예.(아. 한 사람이 돌리는 거군요.)
111078 #1 두 사람이 ᄒᆞ는 것도 이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있어.)
111078 @ 두 사람이 ᄒᆞ기도 하고예?(두 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111078 #2 그건 댓 사름이 들어가주게.(그건 댓 사람이 들어가지.)
111078 #1 베툴레기. 그건 열도 들어가고.(줄넘기. 그건 열도 들어가고.)
111078 @ 이것도 베툴레기옌 험니까?(이것도 줄넘기라고 합니까?)
111078 #1 으.(으.)
111078 #2 베톨레기.(줄넘기.)
111078 @ 아.(아.)
111078 #1 겐디 그걸 아이 헙디다. 제주도 등불축제 때도 마을 별로 강은에.(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제주도 등불 축제 때도 마을 별로 가서.)
111078 @ 아.(아.)
111078 #1 여러 아이 튀는데.(여러 아이 뛰는데.)
111078 #2 우리 두린 때나 헷주. 마을에서도 아니 헤여.(우리 어린 때나 했지. 마을에서도 안 해.)
111078 @ 아.(아.)
111078 #1 흔 사름이 돌령 둘이 들어와.(한 사람이 돌려서 둘이 들어와.)
111078 @ 아.(아.)
111078 #1 이젠 그걸 아니헤여.(이젠 그걸 안 해.)
111078 #2 그건 안 헤여.(그건 안 해.)
111078 @ 그게 재미난디예.(그게 재미있는데요.)
111078 #1 그게 ᄌᆞ미난디. 그걸 못 허는 거 같아.(그게 재미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 같아.)
111078 @ 아.(아.)
111078 #2 튀당 보민 흔 사름 들어와.(뛰다가 보면 한 사람 들어와.)
111078 @ 아.(아.)
111078 #2 또 튀당 보민 또 흔 사름 들어와. 게민 서이는 튀주게.(또 뛰다 보면 또 한 사람 들어와. 그러면 셋은 뛰지.)
111078 @ 아.(아.)
111078 #1 서이는 튀어. 그게 기술적인데.(셋은 뛰어. 그게 기술적인데.)
111078 @ 아.(아.)

111078 #1 요라이 들엉 동네 사름들 의미가 엇고.(여럿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 의미가 없고.)

111078 @ 음.(음.)

111078 #1 자꾸 걸령들 지엉게.(자꾸 걸려서 져.)

고무줄놀이

111077 @ 그것도 헤낫수과? 고무줄놀이.(그것도 했었습니까? 고무줄놀이.)

111077 #1 응. 그것도 왜정시대에.(응. 그것도 일제 강점기 때.)

111077 @ 영 고무줄 잡앙은에.(이렇게 고무줄 잡아서.)

111077 #2 고무줄도 헤낫주.(고무줄 했었지.)

111077 @ 어떵 헤낫수과?(어떻게 했었습니까?)

111077 #2 고무줄 영 둘리가 잡으민 가운데 들어 상 탈락탈락 허먼게.(고무줄 이렇게 둘이 잡으면 가운데 들어가 서서 펄쩍펄쩍 하면.)

111077 #1 거 노래가 이서서. 노래가.(그거 노래가 있었어. 노래가.)

111077 @ 노래는 생각 안 나고마씨?(노래는 생각 안 나고요?)

111077 #1 그 노래가. 그 모르쿠다.(그 노래는. 그 모르겠습니다.)

111077 #2 노래 몰라, 원.(노래 몰라, 원.)

111077 #1 지지빠이들한테 그 고무줄을 빼앗분다 막 몽리를 부려난디.(계집애들한테 그 고무줄을 빼앗는다 막 몽니를 부렸었는데.)

111077 @ 하하.(하하.)

111077 #2 하하.(하하.)

111077 #1 그려난 건디.(그랬던 건데.)

111077 #2 고무줄 허게, 고무주 허게 허멍들.(고무줄하자, 고무줄하자 하면서들.)

111077 @ 노래는 일본 노래라나신가?(노래는 일본 노래였나?)

111077 #1 그때 일본 놀이라난 그게.(그때 일본 놀이였으니까 그게.)

111077 @ 어떵헤나신고?(어떻게 했었습니까?)

111077 #1 노래도 잊어불연.(노래도 잊어버렸어.)

111077 #2 고무줄?(고무줄?)

111077 @ 예.(예.)

111077 #2 둘이가 잡앙 사민게 가운데 들어 상 톨락톨락 허단 고무줄 발에 감아근에게.(둘이서 잡고 서면 가운데 들어가 서서 펄쩍펄쩍 하다가 고무줄을 발에 감아서.)

111077 @ 하.(하.)

111077 #2 확하게 풀곡게.(후다닥 풀고.)

111077 @ 예.(예.)

111077 #1 풀곡 감곡.(풀고 감고.)

111077 #2 그거 자빠지지 말아사주게.(그거 자빠지지 말아야지.)
111077 @ 자빠지지 말고.(자빠지지 말고.)
111077 #2 응.(응.)
111077 #2 자빠지지 말아사주게.(자빠지지 말아야지.)
111077 @ 감곡 풀곡예.(감고 풀고요.)
111077 #2 응. 감곡 풀곡 허멍게.(응. 감고 풀고 하면서.)
111077@ 재미나다예.(재미있네요.)
111077 #2 마지막에는 뜸헤낫주게. 우리가 열니 살에 내려갔나?(마지막에는 뜸했었지. 우리 열네 살에 내려갔나?)

그네뛰기

111081 @ 그믄 그네뛰기는마씨?(그러면 그네뛰기는요?)
111081 #1 그네를 저 머옌 헷져마는.(그네를 저 뭐라고 했더라만.)
111081 @ 아고, 뭐드라.(아고, 뭐더라.)
111081 #1 뭐엔 헷져.(뭐라고 했더라.)
111081 @ 굴메 아니꽈?('굴메' 아닙니까?)
111081 #1 굴메옌 했지?('굴메'라고 했지?)
111081 #2 아니 그냥 그네옌 허는 거 아니?(아니 그냥 그네라고 하는 거 아니?)
111081 @ 그네예?(그네요?)
111081 #2 아니 그네, 아니 안 타봔.(아니 그네, 아니 안 타봔.)
111081 #1 아니 그때도 허긴 헤서.(아니 그때도 하기는 했지.)
111081 @ 예.(예.)
111081 #1 그 낭에 돌아멩은에.(그 나무에 달아매서.)
111081 #2 낭에 헹 배 돌아 메영 영 심엉허는 거게.(나무에 해서 바를 달아매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
111081 @ 예.(예.)
111081 #2 것 ᄀᆞ라 그네옌 헷주.(그거 보고 그네라고 했지.)
111081 @ 예.(예.)
111081 #2 그네옌.(그네라고.)
111081 @ 그네.(그네.)
111081 #2 막 저만썩 올라가주게.(막 저만큼 올라가지.)
111081 @ 예.(예.)
111081 #2 사도 하고 앚아도 하고.(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111081 @ 음.(음.)
111081 #2 게민 뒤에서 누게 밀민 막 저ᄁᆞ지 올라가곡 허주게.(그러면 뒤에서 누가 밀면 막 저기까지 올라가고 하지.)
111081 @ 음.(음.)

111081 #2 것 ᄀᆞ라 그네옌 헤여.(그것 보고 그네라고 해.)
111081 #1 굴메, 굴메. 굴메 탄덴 허매.(그네, 그네, 그네 탄다고 해.)
111081 @ 아.(아.)
111081 #1 굴메 탄덴.(그네 탄다고.)
111081 @ 음.(음.)
111081 #1 굴메.(그네.)

혼다리인다리

111082 @ '한다리인다리' 이거 알아지쿠과?('힌다리인다리' 이거 알겠습니까?)
111083 #2 으. 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자 버믄게.(으. '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자 버믄게'.)
111083 @ 다시 다시마씨.(다시 다시요.)
111083 #2 한다리인다리 저청게.('한다리인다리 저청게'.)
111083 @ 한다리인다리 저청게.('한다리인다리 저청게'.)
111083 #2 시나노자 버믄게.('시나노자 버믄게'.)
111083 @ 시나노자 버믄게.('시나노자 버믄게'.)
111083 #2 어렁떠렁.('어렁떠렁'.)
111083 @ 어렁떠렁.('어렁떠렁'.)
111083 #2 새끗.('새끗'.)
111083 @ 새끗.('새끗'.)
111083 #2 새끗.('새끗'.)
111083 @ 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자 버믄 게 어렁떠렁 새끗. 영헹 노래하며서 다리 바꾸면 뒈는 거꽈?('한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자 버믄 게 어렁떠렁 새끗'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리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111083 #2 으.(으.)
111083 #1 흐흐.(흐흐.)
111084 #2 새끗해진 사름은 다리를 빼불고.('새끗'해진 사람은 다리를 빼버리고.)
111084 @ 한다리인다리 노래허멍 또 허는 거꽈?('한다리인다리' 노래하면서 또 하는 겁니까?)
111084 #2 으.(으.)
111084 #1 거 우리 보물찾기주게.(그거 우리 보물찾기지.)
111084 #2 보물찾기 아니우다.(보물찾기 아닙니다.)
111084 #1 영 둘러 앚앙 허는 거.(이렇게 둘러 앉아 하는 거.)
111084 #2 혼 넷이 앚앙 다리 뻗엉은에 힌다리인다리 허는 거주.(한 넷이 앉아서 다리 뻗어 '힌다리인다리' 하는 거지.)
111084 #1 혼다리인다리 그건 정게놀이고.('힌다리인다리' 그건 '정게놀이'고.)

111084 #2 정게 놀이는 흔 다리로 튀는 거주게. 정게 조상.(‘정게 놀이’는 한 다리로 뛰는 거지. ‘정게 조상’.)
111084 #1 정게 조상.(‘정게 조상’.)
111084 #2 그게 정게주.(그게 ‘정게’지.)
111084 @ 정게 조상은 뭐꽈?(‘정게 조상’은 무엇입니까?)
111084 #2 영 다리 흔 짝 들엉게.(이렇게 다리 한 짝 들고.)
111084 #1 영 다리 심엉게.(이렇게 다리 잡고.)
111084 @ 아아.(아아.)
111084 #2 정게 조상.(‘정게 조상’.)
111084 #1 것도 노래가 이서.(그것도 노래가 있어.)
111084 @ 음.(음.)
111084 #1 정게 조상.(‘정게 조상’.)
111021 @ 아, 아까 구슬치기는 뭐렌 험니까?(아, 아까 구슬치기는 뭐라고 합니까?)
111021 #1 다마치기. 일본말로는 다마치기고 우리말론 구슬치기.(‘다마치기’. 일본말로 다마치기고 우리말로는 구슬치기.)
111021 @ 아. 구슬치기가 구멍치기꽈?(아. 구슬치기가 구멍치기예요?)
111021 #1 구멍치기광 구슬치기가 틀립주.(구멍치기하고 구슬치기는 다르죠.)
111021 @ 그믄 구슬치기에 원치기, 벽치기, 눈치기, 삼각치기엔 따로 이수과?(그러면 구슬치기에 원치기, 벽치기, 삼각치기라고 따로 있습니까?)
111021 #1 다 뚜루 이수다. 잇는데.(다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111021 @ 예.(예.)
111024 @ 벽치기는 어떻게 합니까?(벽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24 #1 벡치기는 벡ᄇᆞ름에 치엉근에 멀리 둥그러 오는 것을 말하고.(벽치기는 바람벽에 쳐서 멀리 굴러 오는 것을 말하고.)
111024 @ 아.(아.)
111025 @ 눈치기는 어떻게 합니까?(눈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25 #2 눈치기는 눈에 영 헹 허는 거?(눈치기는 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111025 #1 눈치기는 눈에 영.(눈치기는 눈에 이렇게.)
111025 #2 눈 알러레 놔낭 맞히는 거.(눈 아래로 놓고 맞히는 거.)
111025 @아, 눈에 놩.(아, 눈에 놓고.)
111027 #1 것도양. 왜정시대로부터 유리다마가 나왓지.(그것도 일제강점기로부터 유리구슬이 나왔지.)
111027 @ 예.(예.)
111027 #1 그 전이는 촌혹헹 멘들안.(그 전에는 찰흙으로 만들었어.)
111027 @ 아.(아.)
111027 #1 전부.(전부.)

111027 @ 아.(아.)

111027 #1 열 개 스무 개양 막 멘들아 노민.(열 개 스무 개를 막 만들어 놓으면.)

111027 @ 예.(예.)

111027 #1 소다마, 중다마, 왕다마엔 헌 게 잇주. 야구공만이 멘들아.(작은 구슬 중구슬, 왕구슬이라고 한 게 있지. 야구공만큼 만들어.)

111027 @ 찰흑으로마씨?(찰흙으로요?)

111027 #1 야. 그 다마도 멧 질인줄 암이꽈?(예. 그 구슬도 몇 종류인지 압니까?)

111027 @ 아.(아.)

111027 #1 아이고. 나중에 왕다마. 존 다마들 몬 죽으민 왕다마 치기로 들어강은에.(아이고. 나중에 왕구슬. 작은 구슬들 모두 죽으면 왕구슬 치기로 들어가는데.)

111027 @ 예.(예.)

111027 #1 다마도 세 가지로 이수다.(구슬도 세 가지입니다.)

111027 #2 옛날은 아이들. 독새기 놩 나두민 독새기 하나 아정 상점에 가.(옛날은 아이들. 달걀 낳아 놔두면 달걀 하나 가지고 상점에 가.)

111027 @ 다마 바꾸러마씨?(구슬 바꾸러요?)

111027 #2 옛날은 것ᄀᆞ라 무시거? 째끌락한 봉지에 거.(옛날은 그것보고 뭐? 작고마한 봉지에 거.)

111027 @ 먹는 거꽈?(먹는 겁니까?)

111027 #2 그거 바꿩 와.(그거 바꿔서 와.)

111027 @ 하하.(하하.)

111027 #2 우리 큰 뚤도 매 맞으멍 헤낫어. 독새기 가졍 강.(우리 큰 딸도 매 맞으면서 했었어. 달걀 가지고 가서.)

딱지치기

111031 @ 딱지치기 헤낫수과?(딱지치기 했었습니까?)

111031 #2 따구치기[339].('따구치기'.)

111031 @ 따구치기마씨?('따구치기'요?)

111031 #2 으.(으.)

111031 #1 따귀치기.('따귀치기'.)

111031 #2 종이로 멘들앙.(종이로 만들어서.)

111031 #1 것도, 것도 중간에 헤서. 뭐 시방도 허는 놈은 허주. 따구.(그것도, 그것도 중가나에 해서. 뭐 시방도 하는 놈은 하지. '따구'.)

111031 @ 예.(예.)

339) '따구치기'는 아이들의 놀이 중 하나인 딱지치기를 이르는 말이다. 제보자는 딱지를 따구', '따귀'라는 말로, 딱지치기를 '따구치기', '따귀치기'로 혼용하여 사용했다.

111031 #1 손으로 즙앙들.(손으로 접어서.)

111031 #2 이제도 허주. 아이들. 따구치기.(이제도 하지. 아이들. '따구치기'.)

111031 @ 예, 따귀치기. 우리 아들도 험니다.(예. '따귀치기'. 우리 아들도 합니다.)

111031 #2 그거 ᄉᆞ나이들, 학생들. 따귀치기.(그거 남자아이들, 학생들. '따귀치기'.)

111031 @ 이거 어떻게 준비헤여.(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31 #2 종이로 어떵 새긴허게 만들 거라.(종이로 어떻게 **하게 만들 거야.)

111031 #1 따귀도 여러 가집주. 동글랑허게 치는 따귀가 잇곡. 종이로 네 귀 즙앙은에 따귀치기허고.('따귀'도 여러 가지죠. 동그랗게 치는 '따귀'가 있고. 종이로 네 모서리를 접어서 '따귀치기'하고.)

111031 @ 예.(예.)

111031 #1 골용곽으로, 골용곽이옌 허연 두꺼운 종이.(골판지로, 골판지라고 해서 두꺼운 종이.)

111031 @ 골용곽.(골판지.)

111031 #1 동글랑이 전부 ᄆᆞᆯ앙. 스무나무 개씩, 쉬나무 개씩 동그랑헌 거를 개와에 가졍 뎅깁니다.(동그랗게 전부 마름질해서. 스무 여개, 쉰여 개씩 동그란 것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닙니다.)

111031 #2 요새 아이들 것도 헴실 거라.(요새 아이들 그것도 하고 있을 거야.)

111031 @ 예.(예.)

111031 #1 요즘은 책장헹 이만씩 손바닥만이 헤영 쎄게 두드령 따귀치기 허고.(요즘은 책장해서 이만씩 손바닥만큼 해서 세게 두드려서 '따귀치기' 하고.)

111031 @ 쳥은에 넘어가민 지는 거?(쳐서 넘어가면 지는 거?)

111031 #1 뒤집어지민.(뒤집어지면.)

111031 #2 뒤집어져사 따 먹는 거라.(뒤집어져야 따 먹는 거야.)

111031 #1 또 알로 들어가야 뒈.(또 아래로 들어가야 돼.)

111031 @ 아.(아.)

111031 #1 ᄒᆞ나 우에 걸 뒤집으나 알로 들어가나.(하나 위에 걸 뒤집거나 아래로 들어가거나.)

111031 @ 웃긴다예.(웃긴다예.)

111031 #1 손지들 지난에 이디를 탁 쳐.(손자들 지니까 여기를 탁 쳐.)

111031 @ 이마를 탁 쳐.(이마를 탁 쳐.)

111031 #1 나 우스와.(내가 웃겨.)

숨바꼭질

111033 @ 곱을락도 헤낫수과?(숨바꼭질도 했었습니까?)

111033 #2 곱을락도 헤어낫지.(숨바꼭질도 했었지.)

111033 @ 곱을락은 어떵 허는 거꽈?(숨바꼭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1033 #2 곱을락 어디 강 곱아. 혼 사람은 축보름에 강 상.(숨바꼭질 어디 가서 숨어. 한 사람은 바람벽에 가서 서서.)

111033 #1 장껭뽀[340] 헤연.('장껭뽀' 해서.)

111033 @ 아.(아.)

111033 #1 요즘은 가위바위보 헤연 허주만은 그때는 장껭뽀.(요즘은 가위바위보 해. 하지만 그때는 '장껭뽀'.)

111033 @ 아.(아.)

111033 #1 한국말은 가위바위본데 그전이 장껭뽀 헤연. 다섯이믄 다섯이 가위바위보를 헤연 진 놈은 눈을 곰는 거라.(한굴말은 가위바위보인데 그전에 '장껭뽀'했어. 다섯이면 다섯. 가위바위보를 해. 진 놈은 눈을 감는 거야.)

111033 @ 진 사람은 뭐렌 골읍니까?(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111033 #2 너 지엇이난 눈 곰아.(너 졌으니까 눈 감아.)

111033 @ 술래라고 안 하고마씨?(술래라고 안 하고요?)

111033 #2 아니, 눈곰아.(아니, 눈 감아.)

111033 @ 진 사름은 눈 감고.(진 사람은 눈 감고.)

111033 #2 다 촞아살 거주. 멀리 촞으레 가당 보민 남은 사람은 확 돌아나불곡.(다 찾아야 할 거지. 멀리 찾으러 가다가 보면 남은 사람은 후다닥 달아나버리고.)

111033 #1 하나, 둘, 셋, 넷, 다섯끄지 시간을 골아주는 사름이 이서.(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시간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111033 @ 예.(예.)

111033 #1 심판이 이서. 멧끄지는 전부 곱아라.(심판이 있어. 몇까지 전부 숨어라.)

111033 @ 다섯까지 세면 나머지는 다 곱아.(다섯까지 세면 나머지는 다 숨어.)

111033 #1 응.(응.)

111033 @ 그믄 진 아이는 강 촞아.(그러면 진 아이는 가서 찾아.)

111033 #2 촞아. 하나라도 촞아사 가이가 또 눈 곰아.(찾아. 하나라도 찾아야 그 아이가 또 눈 감아.)

111033 @ 하하.(하하.)

111033 #1 뿔리 돌아오면 다행인데. 다른 아이 심으러 가당 보면 다른 아이는 살아나불여.(빨리 돌아오면 다행인데. 다른 아이 잡으러 가다가 보면 다른 아이는 살아나버려.)

111034 @ 보통 어디 잘 곱아마씨?(보통 어디 잘 숨어요?)

111034 #1 잘 곱는 디야 눈 곰은 놈 잘 안 보이는 곳이지.(잘 숨는 데야 눈 감은 놈이 잘 안 보이는 곳이지.)

---

340) '장껭뽀'는 제보자가 어린 시절 가위바위보 대신 사용했다는 것이다.

111034 #2 쉐막 구석.(외양간 구석.)
111034 @ 쉐막 구석.(외양간 구석.)
111034 #2 쉐막 구석이나 불칫막 구석이나.(외양간 구석이나 '불칫막' 구석이나.)
111034 #1 좀 지저분헌 디 가주게.(좀 지저분한 데 가지.)
111034 #2 어디 정지 구석이나.(어디 부엌 구석이나.)
111034 #1 지저분헌 디 가야.(지저분한 데 가야.)
111034 @ 안 춧앙 올 거난.(안 찾아서 올 거니까.)
111034 #1 나, 우스왕.(나, 우스워.)

실뜨기

111040 @ 실 영ᄒᆞ는 것도 헤낫수과?(실 이렇게 하는 것도 했었습니까?)
111040 #2 실로 허는 것도 헤낫어.(실로 하는 것도 했었어.)
111040 @ 실뜨기 어떵 실만 이시믄 됩니까?(실뜨기 어떻게 실만 있으면 됩니까?)
111040 #2 실만 이시믄 뒈어. 실 모작 지왕.(실만 있으면 되어. 실 매듭 지어서.)
111040 @ 아, 모작지왕.(아, 매듭지어서.)
111040 #2 이것ᄀᆞ라 실놀이옌 헤졌나? 뭐렌 헷나?(이것 보고 실놀이라고 했었나.)
111040 #1 실 얼레옌 헷지. 실 얼레.(실 얼레라고 했지. 실 얼레.)
111040 @ 실 얼레마씨?(실 얼레요?)
111040 #1 실 얼레.(실 얼레.)
111040 @ 어떤 손가락이 필요허꽈?(어떤 손가락이 필요합니까?)
111040 #2 어떵 영 요레 강 이디 강 꼽아 오란, 또 이디 강 꼽아 오란. 것도 잊어불엇져.(어떻게 이렇게 요기로 가서 이리로 가서 꼽고 와서는, 또 이리로 가서 꼽고 와. 그것도 잊어버렸다.)
111040 #1 요라 가지주게.(여러 가지지.)
111040 #2 그믄 가운데 줍아졍 장기 모냥으로 뒈어.(그러면 가운데 잡고 장구 모양으로 되어.)
111040 @ 장귀[341]마씨?('장귀'요?)
111040 #2 두드는 장귀. 굿할 때 장귀.(두드리는 장구. 굿할 때 장구.)
111040 @ 아.(아.)
111040 #2 장귀 모양이 뒈어. 실이. 이젠 잊어불크라.(장구 모양이 되어. 실이. 이젠 잊어버릴 거야.)
111040 #1 시방도 멘들아져.(시방도 만들어져.)

341) '장귀'는 악기 장구를 말한다.

111040 @ 어느 손가락이 제일 많이 쓰는 건가?(어느 손가락이 제일 많이 쓰는 건가?)

111040 #2 응. 요건 안주에기.(응. 요건 '안주에기'.)

111040 @ 검지는 안주에기.(검지는 '안주에기'.)

111040 #2 이 안주에기가 제일 모쩐디는 거.(이 '안주에기'가 제일 못견디는 거.)

111040 @ 안주에기.('안주에기'.)

111040 #2 이 노뉘에기가 제일 편안한 거.(이 '노뉘에기'가 제일 편안한 거.)

111040 @ 노뉘에기.('노뉘에기'.)

111040 #2 노뉘에기.('노뉘에기'.)

111040 #1 새끼손가락은 귀옥젱이주. 노뉘에기라.(새끼손가락은 '귀옥젱이'지. '노뉘에기'야.)

111040 @ 하하.(하하.)

111040 #2 노뉘에기주 뭐라. 몰르쿠다.(노뉘에기지 뭐라. 모르겠어.)

111040 #1 새끼손가락이 귀옥젱이고 이게 노뉘에기라.(새끼 손가락이 '귀옥젱이'고 이게 '노뉘에기'야.)

111040 @ 할머니도 많이 헤낫수과?(할머니도 많이 했었습니까?)

111040 #2 하르방은 안 헤낫주. 우리나 헤낫주.(할아버지는 안 했었지. 우리나 했었지.)

111040 #1 무사? 이제도 나 멘들주.(왜? 이제도 나 만들지.)

111040 #2 나 잊어불엉 못 멘들크라.(나 잊어버려서 못 만들겠어.)

공기놀이

111042 @ 공기도 헤낫수과?(공기도 했었습니까?)

111042 #2 응. 공기도 헤난.(응. 공기도 했어.)

111042 @ 그거 그냥 공기엔 골아?(그거 그냥 공기라고 말해?)

111042 #2 응. 공기.(응. 공기.)

111042 @ 뭐 어떵 헙니까? 뭐뭐 이서야 뒈어?(뭐 어떻게 합니까? 뭐뭐 있어야 되어?)

111042 #2 돌새기 다섯 갠가?(돌멩이 다섯 개인가?)

111042 @ 다섯 개.(다섯 개.)

111042 #2 영 하나 올력, 두 개 올력, 세 개 올리고. 네 개 올리고 다 마지막에 심엉 올리곡.(이렇게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세 개 올리고. 네 개 올리고 다 마지막에 잡아 올리고.)

111042 @ 그다음은마씨?(그다음은요?)

111042 #2 경헹 싹 풀어노민 또 허곡게.(그렇게 해서 싹 풀어 놓으면 또 하고.)

111042 @ 처음엔 하나씩 잡고.(처음에는 하나씩 잡고.)

111042 #2 두 번차는 두 개씩 잡고. 세 번차는 세 개 잡고. 네 번 차는 네 개 잡고.(두 번째는 두 개씩 잡고. 세 번째는 세 개 잡고. 네 번째는 네 개 잡고.)

111042 @ 네 개 잡고.(네 개 잡고.)

111042 #2 다 하믄 한뻔에 다 잡고.(다 하면 한번에 다 잡고.)

111042 @ 그 다음은.(그 다음은.)

111042 #2 영 올림도 허곡. 올령 심곡.(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올려서 잡고.)

111042 @ 잡고.(잡고.)

111042 #2 다섯 개 다 올령 거꾸로 다섯 개 다 심어야 헤여.(다섯 개 다 올려서 거꾸로 다섯 개 다 잡아야 해.)

111042 @ 점수 계산은 엇수과?(점수 계산은 없습니까?)

111042 #2 으. 점수 계산은 엇고.(으. 점수 계산은 없고.)

111042 @ 예.(예.)

111041 #1 공기를 멘들젠 허민 옛날에는 돌을 아무 돌이나 안 헙주.(공기를 만들려고 하면 옛날에는 돌을 아무 돌이나 안 하지요.)

111041 #2 준준한 돌셍기 봉가당. 그걸 막 돌에 밀멍.(자잘한 돌멩이를 주어다가. 그걸 막 돌에 밀어.)

111041 #1 모사리가 엇게.(모서리가 없게.)

111041 @ 음.(음.)

111041 #1 다마 모냥으로.(구슬 모양으로.)

111041 #2 그게 크면 다 잡지 못 허주게.(그게 크면 다 잡지 못하지.)

111041 @음.(음.)

111041 #2 족게 멘들아사. 그걸 다 잡곡 헤여.(작게 만들어야. 그걸 다 잡고 해.)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